

CBETA電子佛典集成

CBETA Chinese Electronic Tripitaka Collection
eBook


T50n2061

宋高僧傳

宋 贊寧等撰

財團
法人

佛教電子佛典基金會



目次

- [編輯說明](#)
- [章節目次](#)
 - [進高僧傳表](#)
 - [批答](#)
 - [宋高僧傳序](#)
 - [1 譯經篇](#)
 - [之一](#)
 - [唐京兆大薦福寺義淨傳](#)
 - [唐洛陽廣福寺金剛智傳](#)
 - [唐京兆大興善寺不空傳](#)
 - [之二](#)
 - [唐洛京聖善寺善無畏傳](#)
 - [唐洛京智慧傳](#)
 - [唐玉華寺玄覺傳](#)
 - [唐益州多寶寺道因傳](#)
 - [唐波凌國智賢傳](#)
 - [唐洛京白馬寺覺救傳](#)
 - [唐五臺山佛陀波利傳](#)
 - [唐尊法傳](#)
 - [唐西京慧日寺無極高傳](#)
 - [唐廣州制止寺極量傳](#)
 - [唐洛京大遍空寺實叉難陀傳](#)
 - [周西京廣福寺日照傳](#)
 - [周洛京魏國東寺天智傳](#)
 - [周洛京佛授記寺慧智傳](#)
 - [周洛京寂友傳](#)
 - [之三](#)
 - [唐京師總持寺智通傳](#)
 - [唐京師奉恩寺智嚴傳](#)
 - [唐洛京天竺寺寶思惟傳](#)
 - [唐洛京長壽寺菩提流志傳](#)
 - [唐羅浮山石樓寺懷袖傳](#)
 - [唐京兆慈恩寺寂默傳](#)
 - [唐丘慈國蓮華寺蓮華精進傳](#)

- [唐北庭龍興寺戒法傳](#)
- [唐蓮華傳](#)
- [唐大聖千福寺飛錫傳](#)
- [唐京師大安國寺子隣傳](#)
- [唐醴泉寺般若傳](#)
- [唐上都章敬寺悟空傳](#)
- [唐京師滿月傳](#)
- [2 義解篇](#)
 - [之一](#)
 - [唐京兆大慈恩寺窺基傳](#)
 - [唐京師西明寺道世傳](#)
 - [唐京兆大慈恩寺普光傳](#)
 - [唐京兆大慈恩寺法寶傳](#)
 - [唐京師西明寺圓測傳](#)
 - [唐京師安國寺元康傳](#)
 - [唐簡州福聚寺靖邁傳](#)
 - [唐新羅國順璟傳](#)
 - [唐京兆大慈恩寺嘉尚傳](#)
 - [唐淄州慧沼傳](#)
 - [唐京兆大慈恩寺彥悰傳](#)
 - [唐新羅國義湘傳](#)
 - [唐京兆大慈恩寺義忠傳](#)
 - [唐新羅國黃龍寺元曉傳](#)
 - [周京兆崇福寺神楷傳](#)
 - [周京兆廣福寺會隱傳](#)
 - [周虎丘山寺僧瑗傳](#)
 - [唐會稽山妙喜寺印宗傳](#)
 - [唐太原府崇福寺宗哲傳](#)
 - [唐洛京佛授記寺德感傳](#)
 - [唐太原崇福寺浮丘傳](#)
 - [之二](#)
 - [周洛京佛授記寺法藏傳](#)
 - [唐荊州玉泉寺恒景傳](#)
 - [唐中嶽嵩陽寺一行傳](#)
 - [唐京兆西崇福寺智昇傳](#)
 - [唐中大雲寺圓暉傳](#)
 - [唐京兆華嚴寺玄逸傳](#)
 - [唐長安青龍寺道氣傳](#)

- [唐京師安國寺良賁傳](#)
- [唐越州禮宗傳](#)
- [唐錢塘天竺寺法洗傳](#)
- [唐京師興善寺潛直傳](#)
- [唐代州五臺山清涼寺澄觀傳](#)
- [唐京師西明寺良秀傳](#)
- [唐京師西明寺慧琳傳](#)
- [之三](#)
 - [唐京師崇福寺惟慤傳](#)
 - [唐京師千福寺懷感傳](#)
 - [唐吳興法海傳](#)
 - [唐洛京佛授記寺慧苑傳](#)
 - [唐處州法華寺智威傳](#)
 - [唐台州國清寺湛然傳](#)
 - [唐蘇州開元寺元浩傳](#)
 - [唐越州暨陽杭烏山智藏傳](#)
 - [唐梓州慧義寺神清傳](#)
 - [唐京師大安國寺端甫傳](#)
 - [唐圭峯草堂寺宗密傳](#)
 - [唐京師西明寺乘恩傳](#)
 - [唐彭州丹景山知玄傳](#)
 - [唐京兆大安國寺僧徹傳](#)
- [之四](#)
 - [唐五臺山華嚴寺志遠傳](#)
 - [唐越州應天山寺希圓傳](#)
 - [唐絳州龍興寺木塔院玄約傳](#)
 - [梁滑州明福寺彥暉傳](#)
 - [梁今東京相國寺歸嶼傳](#)
 - [後唐洛陽長水令譚傳](#)
 - [後唐定州開元寺貞辯傳](#)
 - [後唐會稽郡大善寺虛受傳](#)
 - [後唐杭州龍興寺可周傳](#)
 - [後唐今東京相國寺貞誨傳](#)
 - [後唐洛京長壽寺可止傳](#)
 - [漢太原崇福寺巨岷傳](#)
 - [漢棣州開元寺恒紹傳](#)
 - [漢洛京法林院僧照傳](#)
 - [漢洛陽天宮寺從隱傳](#)

- [漢杭州龍興寺宗季傳](#)
- [周魏府觀音院智佺傳](#)
- [宋秀州靈光寺皓端傳](#)
- [宋東京天清寺傅章傳](#)
- [宋并州崇福寺佛山院繼倫傳](#)
- [宋齊州開元寺義楚傳](#)
- [宋杭州慈光院晤恩傳](#)
- [宋天台山螺溪傳教院義寂傳](#)
- 3 [習禪篇](#)
 - [之一](#)
 - [唐蘄州東山弘忍傳](#)
 - [唐韶州今南華寺慧能傳](#)
 - [唐荊州當陽山度門寺神秀傳](#)
 - [唐袁州蒙山慧明傳](#)
 - [唐洛京荷澤寺神會傳](#)
 - [唐潤州竹林寺曇璀傳](#)
 - [唐金陵延祚寺法持傳](#)
 - [唐越州雲門寺道亮傳](#)
 - [唐荊州碧澗寺道俊傳](#)
 - [唐溫州龍興寺玄覺傳](#)
 - [唐金陵天保寺智威傳](#)
 - [唐睦州龍興寺慧朗傳](#)
 - [唐鄆州安國院巨方傳](#)
 - [唐郢州大佛山香齋傳](#)
 - [唐兗州東嶽降魔藏師傳](#)
 - [之二](#)
 - [唐京兆慈恩寺義福傳](#)
 - [唐京師興唐寺普寂傳](#)
 - [唐南嶽觀音臺懷讓傳](#)
 - [唐京師大安國寺楞伽院靈著傳](#)
 - [唐潤州幽棲寺玄素傳](#)
 - [唐均州武當山慧忠傳](#)
 - [唐太原甘泉寺志賢傳](#)
 - [唐黃龍山惟忠傳](#)
 - [唐南嶽石頭山希遷傳](#)
 - [唐成都府淨眾寺神會傳](#)
 - [唐杭州徑山法欽傳](#)
 - [唐壽春三峯山道樹傳](#)

- [唐陝州迴鑾寺慧空傳](#)
- [唐洛京龍興寺崇珪傳](#)
- [之三](#)
- [唐洪州開元寺道一傳](#)
- [唐宣州靈湯泉蘭若志滿傳](#)
- [唐沂州寶直院光瑤傳](#)
- [唐揚州華林寺靈坦傳](#)
- [唐唐州紫玉山道通傳](#)
- [唐雍京章敬寺懷暉傳](#)
- [唐京兆興善寺惟寬傳](#)
- [唐天台山佛窟巖遺則傳](#)
- [唐婺州五洩山靈默傳](#)
- [唐荊州天阜寺道悟傳](#)
- [唐鄴都圓寂傳](#)
- [唐袁州陽岐山甄叔傳](#)
- [唐新吳百丈山懷海傳](#)
- [唐潭州翠微院恒月傳](#)
- [唐襄州夾石山思公傳](#)
- [唐定州大像山定直院石藏傳](#)
- [之四](#)
- [唐洛京伏牛山自在傳](#)
- [唐汾州開元寺無業傳](#)
- [唐長沙東寺如會傳](#)
- [唐南陽丹霞山天然傳](#)
- [唐常州芙蓉山太毓傳](#)
- [唐南嶽西園蘭若曇藏傳](#)
- [唐鄂州大寂院無等傳](#)
- [唐天目山千頃院明覺傳](#)
- [唐杭州秦望山圓脩傳](#)
- [唐池州南泉院普願傳](#)
- [唐潯陽雲巖寺曇晟傳](#)
- [唐荊州福壽寺甄公傳](#)
- [唐趙州東院從諗傳](#)
- [唐京兆華嚴寺智藏傳](#)
- [唐潭州道吾山圓智傳](#)
- [唐明州大梅山法常傳](#)
- [唐揚州慧照寺崇演傳](#)
- [唐杭州鹽官海昌院齊安傳](#)

- [唐京師聖壽寺恒政傳](#)
- [唐大滄山靈祐傳](#)
- [唐黃州九井山玄策傳](#)
- [之五](#)
 - [唐杭州大慈山寰中傳](#)
 - [唐洛陽韶山寰普傳](#)
 - [唐衡山昂頭峯日照傳](#)
 - [唐朗州德山院宣鑿傳](#)
 - [唐明州棲心寺藏奩傳](#)
 - [唐直定府臨濟院義玄傳](#)
 - [唐洛京廣愛寺從諫傳](#)
 - [唐洪州洞山良价傳](#)
 - [唐蘇州藏廬傳](#)
 - [唐福州怡山院大安傳](#)
 - [唐長沙石霜山慶諸傳](#)
 - [唐洪州雲居山道膺傳](#)
 - [唐縉雲連雲院有緣傳](#)
 - [唐福州雪峯廣福院義存傳](#)
 - [唐朗州蘇溪元安傳](#)
 - [唐明州雪竇院恒通傳](#)
 - [唐袁州仰山慧寂傳](#)
 - [唐天台紫凝山慧恭傳](#)
 - [唐杭州龍泉院文喜傳](#)
 - [唐明州伏龍山惟靖傳](#)
- [之六](#)
 - [唐蘄州黃崗山法普傳](#)
 - [梁鄧州香巖山智閑傳](#)
 - [梁撫州疎山光仁傳](#)
 - [梁福州玄沙院師備傳](#)
 - [梁河中府棲巖山存壽傳](#)
 - [梁台州瑞巖院師彥傳](#)
 - [梁撫州曹山本寂傳](#)
 - [後唐漳州羅漢院桂琛傳](#)
 - [後唐福州長慶院慧稜傳](#)
 - [後唐杭州龍冊寺道忞傳](#)
 - [晉會稽清化院全付傳](#)
 - [晉永興永安院善靜傳](#)
 - [周金陵清涼院文益傳](#)

- [周廬山佛手巖行因傳](#)
- [宋廬山圓通院緣德傳](#)
- [宋天台山德韶傳](#)
- [4 明律篇](#)
 - [之一](#)
 - [唐京兆西明寺道宣傳](#)
 - [唐京兆恒濟寺道成傳](#)
 - [唐京師崇聖寺文綱傳](#)
 - [唐京師恒濟寺懷素傳](#)
 - [唐光州道岸傳](#)
 - [唐百濟國金山寺直表傳](#)
 - [唐安州十力寺秀律師傳](#)
 - [唐京師崇聖寺靈峯傳](#)
 - [唐京兆崇福寺滿意傳](#)
 - [唐京兆西明寺崇業傳](#)
 - [唐越州法華山寺玄儼傳](#)
 - [唐杭州靈智寺德秀傳](#)
 - [唐開業寺愛回傳](#)
 - [唐五臺山詮律師傳](#)
 - [唐揚州龍興寺法慎傳](#)
 - [唐杭州華嚴寺道光傳](#)
 - [唐揚州大雲寺鑿直傳](#)
 - [唐杭州天竺山靈隱寺守直傳](#)
 - [唐洪州大明寺嚴峻傳](#)
 - [唐會稽開元寺曇一傳](#)
 - [之二](#)
 - [唐餘杭官豐寺靈一傳](#)
 - [唐吳郡東虎丘寺齊翰傳](#)
 - [唐潤州招隱寺朗然傳](#)
 - [唐越州稱心寺大義傳](#)
 - [唐常州興寧寺義宣傳](#)
 - [唐蘇州開元寺辯秀傳](#)
 - [唐京師安國寺如淨傳](#)
 - [唐漢州開照寺鑑源傳](#)
 - [唐吳郡雙林寺志鴻傳](#)
 - [唐京兆安國寺乘如傳](#)
 - [唐襄州辯覺寺清江傳](#)
 - [唐會稽雲門寺靈澈傳](#)

- [唐揚州慧照寺省躬傳](#)
- [唐吳郡包山神皓傳](#)
- [唐京師安國寺藏用傳](#)
- [唐湖州八聖道寺直乘傳](#)
- [唐杭州靈隱山道標傳](#)
- [唐衡嶽寺曇清傳](#)
- [唐京師西明寺圓照傳](#)
- [之三](#)
- [唐朔方龍興寺辯才傳](#)
- [唐京師章信寺道澄傳](#)
- [唐鐘陵龍興寺清徹傳](#)
- [唐撫州景雲寺上恒傳](#)
- [唐錢塘永福寺慧琳傳](#)
- [唐江州興果寺神湊傳](#)
- [唐京兆聖壽寺慧靈傳](#)
- [唐吳郡破山寺常達傳](#)
- [唐越州開元寺丹甫傳](#)
- [唐吳郡嘉禾靈光寺法相傳](#)
- [唐天台山國清寺文舉傳](#)
- [唐會稽開元寺允文傳](#)
- [梁京兆西明寺慧則傳](#)
- [梁蘇州破山興福寺彥偁傳](#)
- [後唐天台山福田寺從禮傳](#)
- [後唐杭州直身寶塔寺景霄傳](#)
- [後唐東京相國寺貞峻傳](#)
- [漢錢塘千佛寺希覺傳](#)
- [周東京相國寺澄楚傳](#)
- [5 護法篇](#)
- [唐京師大莊嚴寺威秀傳](#)
- [唐京兆大興善寺復禮傳](#)
- [唐京兆魏國寺惠立傳](#)
- [唐洛京佛授記寺玄嶷傳](#)
- [唐江陵府法明傳](#)
- [唐潤州石埭山神悟傳](#)
- [唐金陵鐘山元崇傳](#)
- [唐京兆大安國寺利涉傳](#)
- [唐越州焦山大曆寺神邕傳](#)
- [唐朗州藥山唯儼傳](#)

- [唐京師章信寺崇惠傳](#)
- [唐洛陽同德寺無名傳](#)
- [唐廬山歸宗寺智常傳](#)
- [唐杭州千頃山楚南傳](#)
- [唐南嶽七寶臺寺玄泰傳](#)
- [唐京兆福壽寺玄暢傳](#)
- [後唐南嶽般舟道場惟勁傳](#)
- [周洛京福先寺道不傳](#)
- [6 感通篇](#)
 - [之一](#)
 - [後魏西涼府檀特師傳](#)
 - [後魏晉陽河禿師傳](#)
 - [陳新羅國玄光傳](#)
 - [隋江都宮法喜傳](#)
 - [隋洛州欽師傳](#)
 - [唐泗州普光王寺僧伽傳](#)
 - [唐嵩嶽少林寺慧安傳](#)
 - [唐隰州閿鄉萬迴傳](#)
 - [唐齊州靈巖寺道鑿傳](#)
 - [唐武陵開元寺慧昭傳](#)
 - [唐岸禪師傳](#)
 - [唐會稽永欣寺後僧會傳](#)
 - [唐京兆法海寺道英傳](#)
 - [唐京兆法秀傳](#)
 - [唐滑州龍興寺普明傳](#)
 - [之二](#)
 - [唐嵩嶽破窰墮傳](#)
 - [唐嵩嶽閑居寺元珪傳](#)
 - [唐廬江灑山天柱寺惠符傳](#)
 - [唐長安西明寺惠安傳](#)
 - [唐西域安靜傳](#)
 - [唐福州鐘山如一傳](#)
 - [唐西域亡名傳](#)
 - [唐京兆抱玉傳](#)
 - [唐隰州閿鄉阿足師傳](#)
 - [唐天台山封干師傳](#)
 - [唐成都淨眾寺無相傳](#)
 - [唐揚州西靈塔寺懷信傳](#)

- [唐陝府辛七師傳](#)
- [唐京師大安國寺和和傳](#)
- [唐揚州孝感寺廣陵大師傳](#)
- [唐南嶽山明瓚傳](#)
- [唐簡州慈雲寺待駕傳](#)
- [唐福州愛同寺懷道傳](#)
- [唐昇州莊嚴寺惠忠傳](#)
- [唐洛京天宮寺惠秀傳](#)
- [唐成都郫縣法定寺惟忠傳](#)
- [之三](#)
 - [唐資州山北蘭若處寂傳](#)
 - [唐代州五臺山華嚴寺無著傳](#)
 - [唐直定府普化傳](#)
 - [唐漢州棲賢寺大川傳](#)
 - [唐西域難陀傳](#)
 - [唐壽州紫金山玄宗傳](#)
 - [唐袁州陽岐山廣敷傳](#)
 - [唐鄧州烏牙山圓震傳](#)
 - [唐池州九華山化城寺地藏傳](#)
 - [唐婺州金華山神暄傳](#)
 - [唐澧州開元寺道行傳](#)
 - [唐徐州安豐山懷空傳](#)
 - [唐洛京慧林寺圓觀傳](#)
 - [唐江州廬山五老峯法藏傳](#)
 - [唐洛陽香山寺鑑空傳](#)
 - [唐廣州羅浮山道行傳](#)
 - [唐潞州普滿傳](#)
 - [唐江陵府些些傳](#)
 - [唐吳郡義師傳](#)
 - [唐唐州雲秀山神鑿傳](#)
 - [唐天台山國清寺清觀傳](#)
 - [唐洪州黃蘗山希運傳](#)
- [之四](#)
 - [唐五臺山法華院神英傳](#)
 - [唐五臺山華嚴寺牛雲傳](#)
 - [唐五臺山清涼寺道義傳](#)
 - [唐五臺山竹林寺法照傳](#)
 - [唐清涼山祕魔巖常遇傳](#)

- [唐成都府永安傳](#)
- [唐衢州靈石寺慧聞傳](#)
- [唐朔方靈武下院無漏傳](#)
- [唐杭州靈隱寺寶達傳](#)
- [唐代州北臺山隱峯傳](#)
- [唐興元府梁山寺上座亡名傳](#)
- [唐太原崇福寺文爽傳](#)
- [唐福州保福寺本淨傳](#)
- [唐成都府法聚寺法江傳](#)
- [唐彭州九隴茶籠山羅僧傳](#)
- [唐明州奉化縣契此傳](#)
- [唐鄴都開元寺智辯傳](#)
- [唐鳳翔府窰師傳](#)
- [之五](#)
 - [後唐韶州靈樹院如敏傳](#)
 - [後唐天台山全宰傳](#)
 - [晉巴東懷濬傳](#)
 - [晉閬州光國院行遵傳](#)
 - [晉襄州亡名傳](#)
 - [漢洛陽告成縣狂僧傳](#)
 - [周偽蜀淨眾寺僧緘傳](#)
 - [周杭州湖光院師簡傳](#)
 - [宋明州乾符寺王羅漢傳](#)
 - [宋潭州延壽院宗合傳](#)
 - [宋印州大邑靈鷲山寺點點師傳](#)
 - [宋天台山智者禪院行滿傳](#)
 - [宋魏府卯齋院法圓傳](#)
- [7 遺身篇](#)
 - [唐汾州僧藏傳](#)
 - [唐漢東山光寺正壽傳](#)
 - [唐五臺山善住閣院無染傳](#)
 - [唐成都府福感寺定蘭傳](#)
 - [唐福州黃蘗山建福寺鴻休傳](#)
 - [唐鄂州巖頭院全豁傳](#)
 - [唐吳郡嘉興法空王寺元慧傳](#)
 - [唐京兆菩提寺束草師傳](#)
 - [唐南嶽蘭若行明傳](#)
 - [晉太原永和三學院息塵傳](#)

- [晉天台山平田寺道育傳](#)
- [晉江州廬山香積庵景超傳](#)
- [晉鳳翔府法門寺志通傳](#)
- [晉朔方靈武永福寺道舟傳](#)
- [漢洛京廣愛寺洪直傳](#)
- [周錢塘報恩寺慧明傳](#)
- [周晉州慈雲寺普靜傳](#)
- [宋衡陽大聖寺守賢傳](#)
- [宋天台山般若寺師蘊傳](#)
- [宋杭州直身寶塔寺紹巖傳](#)
- [宋天台山文輦傳](#)
- [宋臨淮普照王寺懷德傳](#)
- [8 讀誦篇](#)
 - [之一](#)
 - [隋行堅傳](#)
 - [隋天台山法智傳](#)
 - [唐京兆禪定寺慧悟傳](#)
 - [唐京兆大慈恩寺明慧傳](#)
 - [唐太原府崇福寺慧警傳](#)
 - [唐太原府崇福寺崇政傳](#)
 - [唐太原府崇福寺思睿傳](#)
 - [唐上都青龍寺法朗傳](#)
 - [唐河東僧術傳](#)
 - [唐荊州白馬寺玄奘傳](#)
 - [唐成都府靈池縣蘭若洪正傳](#)
 - [唐沙門志玄傳](#)
 - [唐鳳翔府開元寺元皎傳](#)
 - [唐京師千福寺楚金傳](#)
 - [唐台州湧泉寺懷玉傳](#)
 - [唐兗州泰嶽太行傳](#)
 - [唐洛陽廣愛寺亡名傳](#)
 - [唐成都府雄俊傳](#)
 - [唐吉州龍興寺三刀法師傳](#)
 - [唐湖州法華寺太光傳](#)
 - [唐荊州天崇寺智燈傳](#)
 - [之二](#)
 - [唐并州石壁寺明度傳](#)
 - [唐梓州慧義寺清虛傳](#)

- [唐睦州烏龍山淨土道場少康傳](#)
- [唐江州開元寺法正傳](#)
- [唐京兆大興善寺守素傳](#)
- [唐幽州華嚴和尚傳](#)
- [唐河中府柏梯山文照傳](#)
- [唐陝府法照傳](#)
- [唐蘄州廣濟縣清著禪院慧普傳](#)
- [唐今東京客僧傳](#)
- [唐上都大溫國寺靈幽傳](#)
- [唐荊州法性寺惟恭傳](#)
- [唐明州德潤寺遂端傳](#)
- [唐越州諸暨保壽院神智傳](#)
- [梁揚州禪智寺從審傳](#)
- [梁溫州大雲寺鴻楚傳](#)
- [後唐溫州小松山鴻莒傳](#)
- [後唐鳳翔府道賢傳](#)
- [漢江州廬山若虛傳](#)
- [周會稽郡大善寺行瑫傳](#)
- [宋東京開寶寺守直傳](#)

○ [9 興福篇](#)

■ [之一](#)

- [周京師法成傳](#)
- [唐五臺山昭果寺業方傳](#)
- [唐上都青龍寺光儀傳](#)
- [唐鎮州大悲寺白覺傳](#)
- [唐今東京相國寺慧雲傳](#)
- [唐杭州華嚴寺玄覽傳](#)
- [唐東陽清泰寺玄朗傳](#)
- [唐湖州佛川寺慧明傳](#)
- [唐湖州大雲寺子瑀傳](#)
- [唐明州慈溪香山寺惟實傳](#)
- [唐朔方靈武龍興寺增忍傳](#)
- [唐京兆荷恩寺文瓚傳](#)
- [唐太原府崇福寺懷玉傳](#)
- [唐晉州大梵寺代病師傳](#)

■ [之二](#)

- [唐京師光宅寺僧謁傳](#)
- [唐成都福感寺定光傳](#)

- [唐吳郡嘉禾貞幹傳](#)
- [唐蘇州支硎山道遵傳](#)
- [唐京兆大興善寺含光傳](#)
- [唐剡沃洲山禪院寂然傳](#)
- [唐天台山福田寺普岸傳](#)
- [唐京師奉慈寺惟則傳](#)
- [唐長安禪定寺明準傳](#)
- [唐洪州寶曆寺幽玄傳](#)
- [唐五臺山智顛傳](#)
- [唐會稽呂后山文質傳](#)
- [唐明州國寧寺宗亮傳](#)
- [唐越州開元寺曇休傳](#)
- [唐雅州開元寺智廣傳](#)
- [唐鄜州寶臺寺法藏傳](#)
- [唐五臺山海雲傳](#)
- [唐五臺山佛光寺法興傳](#)
- [唐五臺山行巖傳](#)
- [唐五臺山佛光寺願誠傳](#)
- [後唐五臺山王子寺誠慧傳](#)
- [之三](#)
- [後唐洛陽中灘浴院智暉傳](#)
- [晉五臺山直容院光嗣傳](#)
- [晉東京相國寺遵海傳](#)
- [晉曹州廬通院智朗傳](#)
- [漢東京天壽禪院師會傳](#)
- [周宋州廣壽院智江傳](#)
- [周五臺山直容院光嶼傳](#)
- [宋東京觀音禪院巖俊傳](#)
- [宋西京寶壇院從彥傳](#)
- [宋東京普淨院常覺傳](#)
- [宋杭州報恩寺永安傳](#)
- [宋錢塘永明寺延壽傳](#)
- [宋西京天宮寺義莊傳](#)
- [宋西京廣愛寺普勝傳](#)
- [宋東京開寶寺師律傳](#)
- 10 [雜科聲德篇](#)
- [之一](#)
- [南宋錢塘靈隱寺智一傳](#)

- [元魏洛陽慧凝傳](#)
- [唐成都府法聚寺員相傳](#)
- [唐越州妙喜寺僧達傳](#)
- [唐京兆神鼎傳](#)
- [唐京兆泓師傳](#)
- [唐洛陽罔極寺慧日傳](#)
- [唐越州大禹寺神徇傳](#)
- [唐京兆鎮國寺純陀傳](#)
- [唐天台山國清寺道邃傳](#)
- [唐懷安郡西隱山進平傳](#)
- [唐寧州南山二聖院道隱傳](#)
- [唐溫州陶山道晤傳](#)
- [唐京兆歡喜傳](#)
- [唐湖州杼山皎然傳](#)
- [唐安陸定安山懷空傳](#)
- [唐澧州慧演傳](#)
- [唐荊州國昌寺行覺傳](#)
- [唐鄂州開元寺玄晏傳](#)
- [唐南嶽澄心傳](#)
- [唐杭州天竺寺道齊傳](#)
- [唐金陵莊嚴寺慧涉傳](#)
- [唐京兆千福寺雲濠傳](#)
- [唐京師保壽寺法直傳](#)
- [唐呂后山道場寧贇傳](#)
- [唐閬州長樂寺法融傳](#)
- [之二](#)
 - [唐上都大安國寺好直傳](#)
 - [唐天台山禪林寺廣脩傳](#)
 - [唐高麗國元表傳](#)
 - [唐鎮州龍興寺頭陀傳](#)
 - [唐南嶽山全毗傳](#)
 - [唐越州明心院慧沐傳](#)
 - [唐幽州南瓦窰亡名傳](#)
 - [唐洪州開元寺棲隱傳](#)
 - [唐河東懸壺寺金和尚傳](#)
 - [梁四明山無作傳](#)
 - [梁成都府東禪院貫休傳](#)
 - [梁廬山雙溪院國道者傳](#)

- [梁泉州智宣傳](#)
 - [梁江陵府龍興寺齊己傳](#)
 - [後唐靈州廣福寺無迹傳](#)
 - [後唐明州國寧寺辯光傳](#)
 - [晉宣州白新傳](#)
 - [漢杭州耳相院行脩傳](#)
 - [宋宣陽柏閣小宗淵傳](#)
- [後序](#)
- [卷目次](#)
 - [1.](#)
 - [2.](#)
 - [3.](#)
 - [4.](#)
 - [5.](#)
 - [6.](#)
 - [7.](#)
 - [8.](#)
 - [9.](#)
 - [10.](#)
 - [11.](#)
 - [12.](#)
 - [13.](#)
 - [14.](#)
 - [15.](#)
 - [16.](#)
 - [17.](#)
 - [18.](#)
 - [19.](#)
 - [20.](#)
 - [21.](#)
 - [22.](#)
 - [23.](#)
 - [24.](#)
 - [25.](#)
 - [26.](#)
 - [27.](#)
 - [28.](#)
 - [29.](#)

- 30.
- [贊助資訊](#)

編輯說明

- 本電子書以「CBETA 電子佛典集成 Version 2023. Q4」為資料來源。
- 漢字呈現以 Unicode 3.0 為基礎，不在此範圍的字則採用組字式表達。
- 梵文悉曇字及蘭札字均採用羅馬轉寫字，如無轉寫字則提供字型圖檔。
- CBETA 對底本所做的修訂用字以紅色字元表示。
- 若有發現任何問題，歡迎來函 service@cbeta.org 回報。
- 版權所有，歡迎自由流通，但禁止營利使用。

進《高僧傳》表

端拱元年十月日左街天壽寺通慧大師賜紫臣僧贊寧上表

臣僧贊寧等言，自太平興國七年伏奉勅旨，俾修《高僧傳》與新譯經同入藏者，臣等遐求事跡，博採碑文，今已撰集成三十卷，謹詣闕庭進上。益琅函而更廣，延玉曆以彌長。臣等誠憂誠恐，兢惕之至。臣等聞渾儀之外，別有釋天；法海之中，多生僧寶。釋天可則，阿難記事而載言；僧寶堪稱，慧皎為篇而作傳。猗歟我佛，號「大遍知」，知教法之無依，委帝王之有力。當二千載之後，屬一萬年之初，伏惟應運統天叡文英武大聖至明廣孝皇帝陛下，神龍在天，愛日升上，土疆開闢，四夷請吏而貢琛，時律均和，百穀登敖而棲畝，耕籍田而又勸，賜酺飲以咸歡，儒術特興，玄風爰振。是以麒麟非中國之物，白雉非草莽之禽，今遊苑囿之間，且類牢籠之畜。近以從瀆至濮，黃河牽一帶之清；自古及今，青史載千年之應。斯蓋陛下來從不動之地，示為長壽之王。翻譯成經，製甚深之御序；迴文作頌，演無盡之法音。仍降鳳書，令編《僧史》。屬此雍熙之運，伸其貞觀之風，合選兼才，豈當末學？得不擒犀截角，塞翠刪毛，精求出類之人，取法表年之史。所恨空門寡學，釋胄何知！或有可觀，實錄聊摹於陳壽；如苞深失，戾經宜罪於馬遷。副陛下遺賢必取之心，助陛下墜典咸修之美。今遇乾明聖節，謹令弟子賜紫顯忠、同元受勅，相國寺賜紫智輪進納。伏乞叡慈，略賜御覽。恭惟聖主是文章之主，微臣非惇史之臣。儻示天機，令知凡例。如得操北斗而斟酌，或示刀圭；執南箕而簸揚，方除糠粃。臣等冒黷天顏，無任惶懼激切屏營之至，謹言。

批答

勅通慧大師贊寧，省所令左街天壽寺賜紫僧顯忠進編修《有宋高僧傳》三十卷事，具悉。一乘妙道，六度玄門，代有奇人，迭恢聖教。若無纂述，何以顯揚？繫爾真流，棲心法苑，成茲編集，頗効辛勤。備觀該總之能，深切歎嘉之意。其所進《高僧傳》，已令僧錄司編入大藏。今賜絹三千匹，至可領也。故茲獎諭，想宜知悉。冬寒，想比清休否？遣書指不多及。十八日勅。

宋高僧傳序

臣聞賢劫綿長，世間宏廓，天與時而不盡，地受富以無疆，最靈之氣初于中，大聖之師居于上。偉哉！釋迦方隱，彌勒未來，其間出命世之人，此際多分身之聖，肆為僧相，喜示沙門。言與行而可觀，槩兼觚而爭錄。是以王巾《僧史》，孫綽《道賢》，摹列傳以周流，象世家而布濩，蓋欲希顏之者，慕藺之儔，成飛錫之應真，作曳山之上士。時則裴子野著《眾僧傳》，釋法濟撰《高逸沙門傳》，陸杲述《沙門傳》，釋寶唱立《名僧傳》，斯皆河圖作《洪範》之椎輪，土鼓為《咸池》之坏器。焉知來者，靡曠其人。慧皎刊修，用實行潛光之目；道宣緝綴，續高而不名之風，令六百載行道之人弗墜于地者矣。爰自貞觀命章之後，西明絕筆已還，此作蔑聞，斯文將缺。時有再至，肅殺過而繁華來；世無久虛，地天泰而聖明出。我應運統天叡文英武大聖至明廣孝皇帝陛下，陽龍挺德，斗電均威。踐大道也，犧、黃輸執御之勞；多天才也，周、孔行弟子之職。講信修睦，崇德報功，一統無遺，百王有愧，四海若窺於掌內，萬機皆發於宸衷。然而玄牝留神，釋天淡慮。長生授術，時開太一之壇；續法延期，僧度倍千之戒。浮圖揭漢，梵夾翻華，將佛國之同風，與玉京而合制。慨茲釋侶，代有其人，思景行之莫聞，實紀錄之彌曠。臣等謬膺良選，俱乏史才，空門不出於董狐，弱手難探於禹穴。而乃循十科之舊例，輯萬行之新名。或案誅銘，或徵志記，或問輶軒之使者，或詢耆舊之先民，研磨將經論略同，讎校與史書懸合。勒成三帙，上副九重，列僧寶之瓌奇，知佛家之富貴。昔者嘉祥筆削，盡美善於東南；澄照纂修，足英髦於關輔。蓋是拘於墟也，傳不習乎？豈若皇朝也，八極張羅，舉之則無物不至；四夷弭伏，求之則何事不供。臣等分面徵搜，各塗構集，如見一家之好，且無諸國之殊，所以成十科者，易同拾取。其正傳五百三十三人，附見一百三十人。矧復逐科盡處，象史「論」以摠辭；因事言時，為傳家之「系」斷。厥號《有宋高僧傳》焉。庶幾乎銅馬為式，選千里之駿駒；竹編見書，實六和之年表。觀之者務進，悟之者思齊，皆登三藐之山，悉入薩云之海，永資聖曆，俱助皇明，齊愛日之炳光，應嵩山之呼壽云爾。時端拱元年乾明節臣僧贊寧等謹上。

譯經篇第一(變梵成華。通凡入聖。法輪斯轉。諸佛所師。)

義解篇第二(尋文見義。得意忘言。三慧克全。二依當轉。)

習禪篇第三(修至無念。善惡都亡。亡其所亡。常住安樂。)

明律篇第四(嚴而少恩。正而急護。嬰守三業。同彼金湯。)

護法篇第五(家有良吏。守藏何虞。法有名師。外禦其侮。)

感通篇第六(逆於常理。感而遂通。化于世間。觀之難測。)

遺身篇第七(難捨易捐。施中第一。以穢漏體。迴金剛身。)

讀誦篇第八(十種法師。此為高大。染枸椽花。果時瓢赤。)
興福篇第九(為己為他。福生罪滅。有為之善。其利博哉。)
雜科聲德十(統攝諸科。同歸高尚。唱導之匠。光顯佛乘。)
宋高僧傳卷第一

宋左街天壽寺通慧大師賜紫沙門贊寧等奉 勅撰

譯經篇第一之一(正傳三人附見一人)

唐京兆大薦福寺義淨傳

釋義淨字文明，姓張氏，范陽人也。髻亂之時，辭親落髮，遍詢名匠，廣探群籍，內外閑習，今古博通。年十有五，便萌其志，欲遊西域，仰法顯之雅操，慕玄奘之高風。加以勤無棄時，手不釋卷，弱冠登具，愈堅貞志。

咸亨二年，年三十有七，方遂發足。初至番禺，得同志數十人，及將登舶，餘皆退罷。淨奮勵孤行，備歷艱險。所至之境，皆洞言音。凡遇酋長，俱加禮重。鷲峯、雞足，咸遂周遊；鹿苑、祇林，並皆瞻矚。諸有聖迹，畢得追尋。經二十五年，歷三十餘國，以天后證聖元年乙未仲夏，還至河洛。得梵本經律論近四百部，合五十萬頌，金剛座真容一鋪、舍利三百粒。天后親迎于上東門外，諸寺緇伍具幡蓋歌樂前導，勅於佛授記寺安置焉。

初與于闐三藏實叉難陀翻《華嚴經》。久視之後乃自專譯。起庚子歲至長安癸卯，於福先寺及雍京西明寺譯《金光明最勝王》、《能斷金剛般若》、《彌勒成佛》、《一字呪王》、《莊嚴王陀羅尼》、《長爪梵志》等經，《根本一切有部毘奈耶》、《尼陀那目得迦》、《百一羯磨》、《攝》等，《掌中》、《取因假設》、

《六門教授》等論、及《龍樹勸誡頌》，凡二十部。北印度沙門阿爾真那證梵文義，沙門波崙、復禮、慧表、智積等筆受證文，沙門法寶、法藏、德感、勝莊、神英、仁亮、大儀、慈訓等證義，成均太學助教許觀監護，繕寫進呈。天后製《聖教序》，令標經首。

暨和帝神龍元年乙巳，於東洛內道場譯《孔雀王經》，又於大福先寺出《勝光天子》、《香王菩薩呪》、《一切莊嚴王經》四部，沙門盤度讀梵文，沙門玄傘筆受，沙門大儀證文，沙門勝莊、利貞證義，兵部侍郎崔湜、給事中盧粲潤文正字，祕書監駙馬都尉楊慎交監護。帝深崇釋典，特抽叡思，製《大唐龍興三藏聖教序》。又御洛陽西門，宣示群官新翻之經。

二年，淨隨駕歸雍京，置翻經院於大薦福寺，居之。三年，詔入內與同翻經沙門九旬坐夏。帝以昔居房部，幽厄無歸，祈念藥師，遂蒙降祉，荷茲往澤，重闡鴻猷。因命法徒更重傳譯於大佛光殿，二卷成文，曰《藥師瑠璃光佛本願功德經》。帝御法筵，手自筆受。睿宗唐隆元年庚戌，於大薦福寺出《浴像功德經》、《毘柰耶雜事》、二眾《戒經》、《唯識寶生》、《所緣釋》等二十部。吐火羅沙門達磨末磨、中印度沙門拔弩證梵義，罽賓沙門達磨難陀證梵文，居士東印度首領伊舍羅證梵本，沙門慧積、居士中印度李釋迦、度頗多讀梵本，沙門文綱、慧沼、利貞、勝莊、愛同、思恒證義，玄傘、智積筆受，居士東印度瞿曇金剛、迦濕彌羅國王子阿順證譯，修文館大學士李嶠、兵部尚書韋嗣立、中書侍郎趙彥昭、吏部侍郎盧藏用、兵部侍郎張說、中書舍人李乂二十餘人次文潤色，左僕射韋巨源、右僕射蘇瓌監護，祕書大監嗣虢王邕同監護。景雲二年辛亥，復於大薦福寺譯《稱讚如來功德神呪》等經，太常卿薛崇嗣監護。自天后久視迄睿宗景雲，都翻出五十六部，二百三十卷。又別撰《大唐西域求法高僧傳》、《南海寄歸內法傳》、《別說罪要行法》、《受用三法水要法》、《護命放生軌儀》，凡五部，九卷。又出《說一切有部跋窣堵》，即諸律中犍度、跋渠之類，蓋梵音有楚、夏耳，約七十八卷。淨雖遍翻三藏，而偏攻律部，譯綴之暇，曲授學徒。凡所行事皆尚急護。鹿囊滌穢，特異常倫。學侶傳行，遍于京洛。美哉！亦遺法之盛事也。先天二年卒，春秋七十九，法臘五十九，葬事官供。所出《跋窣堵》唯存真本，未暇覆疏，而逼泥曰。然其傳度經律，與瑛師抗衡。比其著述，淨多文性，傳密呪，最盡其妙，二三合聲，爾時方曉矣。今塔在洛京龍門北之高岡焉。

系曰：「譯」之言「易」也，謂以所有易所無也。譬諸枳橘焉，由易土而殖，橘化為枳。枳橘之呼雖殊，而辛芳榦葉無異。又如西域尼拘律陀樹，即東夏之楊柳，名雖不同，樹體是一。自漢至今皇宋，翻譯之人多矣。晉、魏之際，唯西竺人來，止稱「尼拘」耳。此方參譯之士，因西僧指楊柳，始體言意。其後東僧往彼，識尼拘是東夏之柳。兩土方言，一時洞了焉。唯西唯東，二類之人未為盡善。東僧往西，學盡梵書，解盡佛意，始可稱善。傳譯者，宋、齊已還，不無去彼迴者，若入境觀風必聞其政者，瑛師、淨師為得其實。此二師者兩全通達，其猶見璽文知是天子之書，可信也。《周禮》象胥氏通夷狄之言，淨之才智，可謂釋門之象胥也歟！

唐洛陽廣福寺金剛智傳

釋跋日羅菩提，華言金剛智。南印度摩賴耶國人也，華言「光明」，其國境近觀音宮殿補陀落伽山。父婆羅門善五明論，為建支王師。智生數歲，日誦萬言，目覽心傳，終身無忘。年十六，開悟佛理，不樂習尼捷子諸論，乃削染出家，蓋宿植之力也。後隨師往中印度那爛陀寺，學修多羅、阿毘達磨等。洎登戒法，遍聽十八部律。又詣西印度學小乘諸論及瑜伽、三密、陀羅尼門。十餘年全通三藏。次復遊師子國，登楞伽山，東行佛誓、裸人等二十餘國。聞脂那佛法崇盛，泛舶而來，以多難故，累歲方至。

開元己未歲，達于廣府，勅迎就慈恩寺，尋徙薦福寺。所住之剎，必建大曼拏羅灌頂道場，度於四眾。大智、大慧二禪師、不空三藏皆行弟子之禮焉。後隨駕洛陽，其年自正月不雨迨于五月，嶽瀆靈祠，禱之無應。乃詔智結壇祈請。於是用不空鉤、依菩薩法，在所住處起壇，深四肘，躬繪七俱胝菩薩像，立期以開光，明日定隨雨焉。帝使一行禪師謹密候之。至第七日，炎氣熾熾，天無浮翳。午後，方開眉眼，即時西北風生，飛瓦拔樹，崩雲泄雨，遠近驚駭。而結壇之地，穿穴其屋，洪注道場。質明，京城士庶皆云：「智獲一龍，穿屋飛去。」求觀其處，日千萬人，斯乃壇法之神驗也。于時帝留心玄牝，未重空門，所司希旨，奏外國蕃僧遣令歸國，行有日矣。侍者聞智，智曰：「吾是梵僧，且非蕃胡，不干明勅，吾終不去。」數日，忽乘傳將之雁門，奉辭，帝大驚，下手詔留住。初，帝之第二十五公主甚鍾其愛，久疾不救，移臥於咸宜外館，閉目不語，已經旬朔。有勅令智授之戒法，此乃料其必終，故有是命。智詣彼，擇取宮中七歲二女子，以緋繒纏其面目，臥於地，使牛仙童寫勅一紙，焚於他所，智以密語呪之。二女冥然誦得，不遺一字。智入三摩地，以不思議力令二女持勅詣琰摩王。食頃間，王令公主亡保母劉氏護送公主魂隨二女至，於是公主起坐開目，言語如常。帝聞之，不俟仗衛，馳騎往于外館。公主奏曰：「冥數難移，今王遣迴，略覲聖顏而已。」可半日間，然後長逝。自爾帝方加歸仰焉。

武貴妃寵異六宮，薦施寶玩，智勸貴妃急造金剛壽命菩薩像，又勸河東郡王於毘盧遮那塔中繪像；謂門人曰：「此二人者壽非久矣。」經數月，皆如其言，凡先覺多此類也。

智理無不通，事無不驗，經、論、戒律、祕呪餘書，隨問剖陳，如鐘虞受。有登其門者，智一覲其面，永不忘焉。至於語默興居，凝然不改，喜怒逆順，無有異容，瞻禮者莫知津涯，自然率服矣。自開元七年，始屆番禺，漸來神甸，廣敷《密藏》，建曼拏羅，依法製成，皆感靈瑞。沙門一行欽尚斯教，數就諮詢，智一一指授，曾無遺隱。一行自立壇灌頂，遵受斯法，既知利物，請譯流通。十

一年，奉勅於資聖寺翻出《瑜伽念誦法》二卷、《七俱胝陀羅尼》二卷，東印度婆羅門大首領直中書伊舍羅譯語，嵩岳沙門溫古筆受。十八年，於大薦福寺又出《曼殊室利五字心陀羅尼》、《觀自在瑜伽法要》各一卷，沙門智藏譯語，一行筆受，刪綴成文。復觀舊《隨求》本中有闕章句，加之滿足。智所譯總持、印契，凡至皆驗，祕密流行，為其最也。兩京稟學，濟度殊多，在家出家，傳之相繼。

二十年壬申八月既望，於洛陽廣福寺命門人曰：「白月圓時，吾當去矣。」遂禮毘盧遮那佛，旋繞七匝，退歸本院，焚香發願，頂戴梵夾并新譯教法，付囑訖，寂然而化。壽七十一，臘五十一。其年十一月七日葬於龍門南伊川之右，建塔旌表。傳教弟子不空奏舉，勅諡國師之號。灌頂弟子中書侍郎杜鴻漸，素所歸奉，述碑紀德焉。

系曰：五部曼拏羅法，攝取鬼物，必附麗童男處女，去疾除祲也絕易。近世之人，用是圖身口之利，乃寡徵驗，率為時所慢。吁，正法醜薄，一至於此！

唐京兆大興善寺不空傳(慧朗)

釋不空，梵名阿目佉跋折羅，華言不空金剛，止行二字，略也。本北天竺婆羅門族，幼失所天，隨叔父觀光東國。年十五，師事金剛智三藏，初導以梵本悉曇章及聲明論，浹旬已通徹矣。師大異之，與受菩薩戒，引入金剛界大曼荼羅，驗以擲花，知後大興教法。洎登具戒，善解一切有部，諳異國書語。師之翻經，常令共譯。凡學聲明論，一紀之功，六月而畢。誦《文殊普賢行願》，一年之限，再夕而終。其敏利皆此類也。欲求學新瑜伽、五部、三密法，涉于三載，師未教詔。空擬迴天竺，師夢京城諸寺佛菩薩像皆東行，寐寤乃知空是真法器，遂允所求。授與五部灌頂、護摩、阿闍梨法及《毘盧遮那經》、《蘇悉地軌則》等，盡傳付之。厥後師往洛陽，隨侍之際，遇其示滅，即開元二十年矣。影堂既成，追諡已畢，曾奉遺旨，令往五天并師子國，遂議遐征。

初至南海郡，採訪使劉巨隣懇請灌頂，乃於法性寺相次度人百千萬眾。空自對本尊祈請旬日，感文殊現身。及將登舟，採訪使召誠番禺界蕃客大首領伊習賓等曰：「今三藏往南天竺師子國，宜約束船主，好將三藏并弟子含光、慧辯等三七人、國信等達彼，無令疎失。」

二十九年十二月，附崑崙舶離南海，至訶陵國界，遇大黑風。眾商惶怖，各作本國法禳之，無驗，皆膜拜求哀，乞加救護，慧辯等亦

慟哭。空曰：「吾今有法，汝等勿憂。」遂右手執五股菩提心杵，左手持《般若佛母經》夾，作法誦《大隨求》一遍，即時風偃海澄。又遇大鯨出水，噴浪若山，甚於前患。眾商甘心委命，空同前作法，令慧辯誦《娑竭龍王經》，逡巡，眾難俱息。

既達師子國，王遣使迎之。將入城，步騎羽衛，駢羅衢路。王見空，禮足請住宮中，七日供養。日以黃金斛滿盛香水，王為空躬自洗浴，次太子、后妃、輔佐，如王之禮焉。空始見普賢阿闍梨，遂奉獻金寶錦繡之屬，請開十八會《金剛頂》瑜伽法門，毘盧遮那大悲胎藏、建立壇法，并許含光、慧辯等同受五部灌頂。空自爾學無常師，廣求密藏及諸經論五百餘部，本三昧耶、諸尊密印、儀形色像、壇法幟幟，文義性相，無不盡源。一日，王作調象戲，人皆登高望之，無敢近者。空口誦、手印，住於慈定，當衢而立，狂象數頭頓皆踢跌，舉國奇之。次遊五印度境，屢彰瑞應。

至天寶五載還京，進師子國王尸羅迷伽表及金寶瓔珞，《般若》梵夾、雜珠、白氎等，奉勅權止鴻臚。續詔入內立壇，為帝灌頂。後移居淨影寺。是歲終夏愆陽，詔令祈雨。制曰：「時不得賒，雨不得暴。」空奏立孔雀王壇，未盡三日，雨已浹洽。帝大悅，自持寶箱賜紫袈裟一副，親為披擗，仍賜絹二百匹。後因一日大風卒起，詔空禳止，請銀餅一枚作法加持，須臾戢靜。忽因池鵝誤觸餅傾，其風又作，急暴過前，勅令再止，隨止隨効。帝乃賜號曰智藏焉。天寶八載，許迴本國，乘驛騎五匹，至南海郡，有勅再留。十二載，勅令赴河、隴節度使哥舒翰所請。十三載，至武威，住開元寺，節度使洎賓從皆願受灌頂，士庶數千人咸登道場，弟子含光等亦受五部法。別為功德使開府李元琮受法，并授金剛界大曼荼羅。是日道場地震，空曰：「群心之至也。」

十五載，詔還京，住大興善寺。至德初，鑾駕在靈武、鳳翔，空常密奉表起居，肅宗亦密遣使者求祕密法。洎收京反正之日，事如所料。乾元中，帝請入內，建道場護摩法，為帝受轉輪王位七寶灌頂。上元末，帝不豫，空以大隨求真言祓除，至七過，翼日乃瘳，帝愈加殊禮焉。空表請入山，李輔國宣勅令於終南山智炬寺修功德。念誦之夕，感大樂薩埵舒毫發光，以相證驗，位隣悉地，空曰：「眾生未度，吾安自度耶？」

肅宗厭代，代宗即位，恩渥彌厚。譯《密嚴》、《仁王》二經畢，帝為序焉。頒行之日，慶雲俄現，舉朝表賀。永泰元年十一月一日，制授特進試鴻臚卿，加號大廣智三藏。大曆三年，於興善寺立道場，勅賜錦繡褥十二領、繡羅幡三十二首，又賜道場僧二七日齋糧。勅近侍大臣諸禁軍使並入灌頂。四年冬，空奏天下食堂中置文殊菩薩為上座，制許之，此蓋謙僑陳如是小乘教中始度故也。五年

夏，有詔請空往五臺山修功德，于時彗星出焉。法事告終，星亦隨沒。秋，空至自五臺，帝以師子驄并御鞍轡遣中使出城迎入，賜沿道供帳。

六年十月二日，帝誕節，進所譯之經表云：「爰自幼年承事先師三藏十有四載，稟受瑜伽法門。復遊五印度求所未授者，并諸經論，計五百餘部，天寶五載却至上都。上皇詔入內立灌頂道場，所齎梵經盡許翻度。肅宗於內立護摩及灌頂法。累奉二聖令鳩聚先代外國梵文，或條索脫落者修，未譯者譯。陛下恭遵遺旨，再使翻傳，利濟群品。起于天寶迄今大曆六年，凡一百二十餘卷，七十七部，并目錄及筆受等僧俗名字，兼略出念誦儀軌，寫畢，遇誕節，謹具進上。」勅付中外，並編入《一切經目錄》中。李憲誠宣勅賜空錦綵絹八百匹，同翻經十大德各賜三十匹。沙門潛真表謝。僧俗弟子賜物有差。

又以京師春夏不雨，詔空祈請，如三日內雨，是和尚法力；三日已往而霈然者，非法力也。空受勅立壇，至第二日大雨云足。帝賜紫羅衣并雜綵百匹，弟子衣七副，設千僧齋，以報功也。空進表請造文殊閣，勅允奏。貴妃、韓王、華陽公主同成之，捨內庫錢約三十萬計。復翻《孽路茶王經》，宣賜相繼，旁午道路。

至九年，自春抵夏，宣揚妙法，誠勗門人。每語及《普賢願行》、《出生無邊法門經》，勸令誦持，再三歎息。其先受法者，偏令屬意觀菩提心本尊大印，直詮阿字了法，不生證大覺身，若指諸掌，重重囑累。一夜，命弟子趙遷：「持筆硯來，吾略出涅槃茶毘儀軌以貽後代，使準此送終。」遷稽首三請「幸乞慈悲久住。不然，眾生何所依乎？」空笑而已。俄而示疾，上表告辭。勅使勞問，賜醫藥，加開府儀同三司，封肅國公，食邑三千戶，固讓不俞。空甚不悅，且曰：「聖眾儼如舒手相慰，白月圓滿，吾當逝矣。奈何臨終更竊名位？」乃以五股金剛鈴杵先師所傳者，并銀盤子、菩提子、水精數珠留別，附中使李憲誠進。六月十五日，香水澡沐，東首倚臥，北面瞻望闕庭，以大印身定中而寂，享年七十，僧臘五十。

弟子慧朗次紹灌頂之位。餘知法者數人。帝聞，輟視朝三日，賜絹布雜物，錢四十萬，造塔錢二百餘萬。勅功德使李元琮知護喪事。空未終前，諸僧夢千仞寶臺摧，文殊新閣頽，金剛杵飛上天。又興善寺後池無故而涸，林竹生實，庭花變萎。七月六日茶毘，帝詔高品劉僊鶴就寺置祭，贈司空，諡曰大辯正廣智三藏。火滅，收舍利數百粒。八十粒進內。其頂骨不然，中有舍利一顆，半隱半現，勅於本院別起塔焉。

空之行化利物居多，於總持門最彰殊勝，測其忍位莫定高卑。始者玄宗尤推重焉，嘗因歲旱，勅空祈雨。空曰：「過某日可禱之，或

強得之，其暴可怪。」勅請本師金剛智設壇，果風雨不止，坊市有漂溺者，樹木有拔仆者。遽詔空止之。空於寺庭中捏泥媪五六，溜水作梵言罵之，有頃開霽矣。

玄宗召術士羅公遠與空掬法，同在便殿。空時時反手搔背。羅曰：「借尊師如意。」時殿上有華石，空揮如意擊碎於其前，羅再三取如意不得，帝欲起取。空曰：「三郎勿起，此影耳。」乃舉手示羅，如意復完然在手。

又北邙山有巨蛇，樵采者往往見之，矯首若丘陵，夜常承吸露氣。見空，人語曰：「弟子惡報，和尚如何見度？每欲翻河水陷洛陽城以快所懷也。」空為其受歸戒，說因果，且曰：「汝以瞋心故受今，那復恚恨乎？吾力何及？當思吾言，此身必捨矣。」後樵子見蛇死澗下，臭聞數里。

空凡應詔祈雨，無他軌則，但設一繡座，手簸旋數寸木神子，念呪擲之。當其自立於座上已，伺其吻角牙出目瞬，則雨至矣。

又天寶中，西蕃、大石、康三國帥兵圍西涼府，詔空入，帝御于道場。空秉香鑪，誦《仁王》密語二七遍，帝見神兵可五百員在于殿庭，驚問空。空曰：「毘沙門天王子領兵救安西，請急設食發遣。」四月二十日果奏云：「二月十一日。城東北三十許里，雲霧間見神兵長偉，鼓角誼鳴，山地崩震，蕃部驚潰。彼營壘中有鼠金色，咋弓弩弦皆絕。城北門樓有光明天王怒視，蕃帥大奔。」帝覽奏謝空，因勅諸道城樓置天王像，此其始也。

空既終，三朝所賜墨制一皆進納。生榮死哀，西域傳法僧至此，今古少類矣。嗣其法位，慧朗師也。御史大夫嚴郢為碑，徐浩書之，樹於本院焉。

系曰：傳教令輪者，東夏以金剛智為始祖，不空為二祖，慧朗為三祖，已下宗承所損益可知也。自後岐分派別。

咸曰：「傳瑜伽大教，多則多矣，而少驗者何？」亦猶羽嘉生應龍，應龍生鳳皇，鳳皇已降，生庶鳥矣。欲無變革，其可得乎！

宋高僧傳卷第一

宋左街天壽寺通慧大師賜紫沙門贊寧等奉 勅撰

譯經篇第一之二(正傳十五人附見八人)

唐洛京聖善寺善無畏傳(達摩掬多)

釋善無畏，本中印度人也。釋迦如來季父甘露飯王之後，梵名戍婆揭羅僧訶，華言淨師子，義翻為善無畏；一云輸波迦羅，此名無畏，亦義翻也。其先自中天竺，因國難分王烏荼。父曰佛手王，以畏生有神姿，宿齋德藝，故歷試焉。十歲統戎，十三嗣位，得軍民之情。昆弟嫉能，稱兵構亂，鬪牆斯甚。薄伐臨戎，流矢及身，掉輪傷頂。天倫既敗，軍法宜誅，大義滅親，忍而曲赦。乃拭淚白母，及告群臣曰：「向者親征，恩已斷矣。今欲讓國，全其義焉。」因致位於兄，固求入道。母哀許之，密與傳國寶珠，猶諸侯之分器也。

南至海濱，遇殊勝招提，得法華三昧。聚沙為塔，僅一萬所。黑蛇傷指而無退息。復寄身商船，往遊諸國，密修禪誦，口放白光。無風三日，舟行萬里。屬商人遇盜，危於併命。畏恤其徒侶，默諷真言。七俱胝尊全現身相，群盜果為他寇所殲。寇乃露罪歸依，指蹤夷險。尋越窮荒，又逾毒水，纔至中天竺境，即遇其王。王之夫人，乃畏之女兒也，因問捨位之由，稱歎不足。是日携手同歸，慈雲布陰，一境丕變。

畏風儀爽俊，聰叡超群，解究五乘，道該三學，總持、禪觀，妙達其源。藝術伎能，悉聞精練。初詣那爛陀寺，此云施無厭也，像法之泉源，眾聖之會府。畏乃捨傳國寶珠瑩于大像之額，晝如月魄，夜若曦輪焉。寺有達摩掬多者，掌定門之祕鑰，佩如來之密印，顏如四十許，其實八百歲也，玄奘三藏昔曾見之。畏投身接足，奉為本師。一日侍食之次，旁有一僧，震旦人也，畏視其鉢中見油餌尚溫，粟飯猶暖。愕而歎曰：「東國去此十萬餘里，是彼朝熟而返也？」掬多曰：「汝能不言，真可學焉。」後乃授畏總持、瑜伽、三密教也，龍神圍遶，森在目前，其諸印契，一時頓受。即日灌頂，為人天師，稱曰「三藏」。夫「三藏」之義者，則內為戒、定、慧，外為經、律、論，以陀羅尼總攝之也。陀羅尼者，是菩提速疾之輪，解脫吉祥之海，三世諸佛生於此門，慧照所傳，一燈而已。根殊性異，燈亦無邊。由是有百億釋迦微塵三昧，菩薩以綱總攝於諸定，頓升階位，隣於大覺，此其旨也。

于時畏周行大荒，遍禮聖迹，不憚艱險。凡所履處，皆三返焉。又入雞足山，為迦葉剃頭，受觀音摩頂。嘗結夏於靈鷲，有猛獸前導，深入山穴。穴明如晝，見牟尼像，左右侍者如生焉。時中印度大旱，請畏求雨。俄見觀音在日輪中，手執軍持注水於地。時眾欣感，得未曾有。復鍛金如貝葉，寫《大般若經》。鎔中金為翠靚波，等佛身量焉。母以畏遊方日久，謂為已歿，旦夕泣淚而喪其明，洎附信問安，朗然如故。

五天之境，自佛滅後，外道崢嶸九十六宗，各專其見。畏皆隨所執破滯析疑，解邪縛於心門，捨迷津於覺路。法雲大小而均澤，定水方圓而任器，仆異學之旗鼓，建心王之勝幢，使彼以念制狂，即身觀佛。掬多曰：「善男子，汝與震旦有緣，今可行矣。」畏乃頂辭而去。

至迦濕彌羅國。薄暮次河，而無橋梁，畏浮空以濟。一日，受請於長者家，俄有羅漢降曰：「我小乘之人，大德是登地菩薩。」乃讓席推尊，畏施之以名衣，升空而去。畏復至烏菴國，有白鼠馴遶，日獻金錢。講毘盧於突厥之庭，安禪定於可敦之樹，法為金字，列在空中。時突厥宮人以手按乳，乳為三道飛注畏口。畏乃合掌端容曰：「我前生之母也。」

又途中遭寇，舉刃三斫而肢體無傷，揮劍者唯聞銅聲而已。前登雪山大池，畏不忿。掬多自空而至曰：「菩薩身同世間，不捨生死。汝久離相，寧有病耶？」言訖沖天，畏洗然而愈。

路出吐蕃，與商旅同次，胡人貪貨，率眾合圍，畏密運心印，而蕃豪請罪。至大唐西境，夜有神人曰：「此東非弟子界也，文殊師利實護神州。」禮足而滅，此亦猶迦毘羅神送連眉也。畏以駝負經，至西州，涉于河。龍陷駝足，沒于泉下，畏亦入泉。三日止住龍宮，宣揚法化，開悟甚眾。及牽駝出岸，經無沾濕焉。

初畏途過北印度境，而聲譽已達中國，睿宗乃詔若那及將軍史獻出玉門塞表以候來儀。開元初，玄宗夢與真僧相見，姿狀非常，躬御丹青，寫之殿壁。及畏至此，與夢合符，帝悅有緣，飾內道場，尊為教主，自寧、薛王已降皆跪席捧器焉。賓大士於天宮，接梵筵於帝座，禮國師以廣成之道，致人主於如來之乘，巍巍法門，於斯為盛。時有術士握鬼神之契，參變化之功，承詔御前，角其神異。畏恬然不動，而術者手足無所施矣。

開元四年丙辰，齋梵夾始屆長安，勅於興福寺南院安置。續宣住西明寺，問勞重疊，錫貺異常。至五年丁巳，奉詔於菩提院翻譯。畏奏請名僧同參華梵，開題先譯《虛空藏求聞持法》一卷，沙門悉達譯語，無著筆受、綴文，繕寫進內。帝深加賞歎，有勅畏所將到梵本並令進上。昔有沙門無行西遊天竺，學畢言歸，方及北印，不幸

而卒。其所獲夾葉悉在京都華嚴寺中，畏與一行禪師於彼選得數本，並總持妙門先所未譯。

十二年，隨駕入洛，復奉詔於福先寺譯《大毘盧遮那經》。其經具足梵文有十萬頌；畏所出者，撮其要耳，曰《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》七卷，沙門寶月譯語，一行筆受，刪綴辭理，文質相半，妙諧深趣，上符佛意，下契根緣，利益要門，斯文為最。又出《蘇婆呼童子經》三卷、《蘇悉地揭羅經》三卷，二經具足呪毘柰耶也，即祕密禁戒焉。若未曾入曼荼羅者，不合輒讀誦，猶未受人盜聽戒律也。所出《虛空藏菩薩能滿諸願最勝心陀羅尼求聞持法》一卷，即《金剛頂》梵本經《成就一切義圖》略譯少分耳。

畏性愛恬簡，靜慮怡神，時開禪觀，獎勸初學。奉儀形者蓮華敷於眼界，稟言說者甘露潤於心田，超然覺明，日有人矣。法侶請謁，唯尊奉長老寶思惟三藏而已，此外皆行門人之禮焉。一行禪師者，帝王宗重，時賢所歸，定慧之餘，陰陽之妙，有所未決，亦咨稟而後行。

畏嘗於本院鑄銅為塔，手成模範，妙出人天。寺眾以銷治至廣，庭除深隘，慮風至火盛，災延寶坊。畏笑曰：「無苦，自當知也。」鼓鑄之日，果大雪蔽空，**靈**塔出鑪，瑞花飄席，眾皆稱歎焉。

又屬暑天亢旱，帝遣中官高力士疾召畏祈雨。畏曰：「今旱數當然也，若苦召龍致雨，必暴，適足所損，不可為也。」帝強之曰：

「人苦暑病矣，雖風雷亦足快意。」辭不獲已，有司為陳請雨具，幡幢螺鈸備焉，畏笑曰：「斯不足以致雨。」急撤之。乃盛一鉢水，以小刀攪之，梵言數百呪之。須臾有物如龍，其大如指，赤色矯首，瞰水面，復潛于鉢底。畏且攪且呪，頃之，有白氣自鉢而興，逕上數尺，稍稍引去。畏謂力士曰：「亟去，雨至矣。」力士馳去，迴顧見白氣疾旋，自講堂而西，若一匹素翻空而上。既而昏霾，大風震電，力士纔及天津橋，風雨隨馬而驟，街中大樹多拔焉。力士入奏，而衣盡霑濕矣。帝稽首迎畏，再三致謝。

又邙山有巨蛇，畏見之，歎曰：「欲決瀦洛陽城耶？」以天竺語呪數百聲，不日蛇死。乃安祿山陷洛陽之兆也。

一說畏曾寓西明道宣律師房，示為鹿相，宣頗嫌鄙之。至中夜，宣捫蝨投于地，畏連呼「律師撲死佛子」。宣方知是大菩薩，詰旦攝衣作禮焉。若觀此說，宣滅至開元中僅五十載矣，如畏出沒無常，非人之所測也。

二十年，求還西域，優詔不許。二十三年乙亥十月七日，右脅累足，奄然而化，享齡九十九，僧臘八十。法侶淒涼，皇心震悼，贈「鴻臚卿」。遣鴻臚丞李現具威儀、賓律師護喪事。二十八年十月三日，葬於龍門西山廣化寺之庭焉。定慧所熏，全身不壞。會葬之

日，涕泗傾都，山川變色，僧俗弟子寶畏禪師、明畏禪師——滎陽鄭氏、琅邪王氏——痛其安仰，如喪考妣焉。乾元之初，唐風再振，二禪師刻偈，諸信士營龕，弟子舍于旁，有同孔墓之戀。今觀畏之遺形，漸加縮小，黑皮隱隱，骨其露焉。累朝旱澇，皆就祈請，徵驗隨生，且多檀施。錦繡巾帕，覆之如偃息耳。每一出龕，置于低榻，香汁浴之。洛中豪右爭施禪帕、淨巾、澡豆，以資浴事。今上禳禱，多遣使臣往加供施，必稱心願焉。

唐洛京智慧傳

釋智慧者，梵名般若若也，姓憍答摩氏，北天竺迦畢試國人。穎悟天資。七歲發心，違侍二親，歸依三寶。時從大德調伏軍教誦《四阿含》，滿十萬頌，《阿毘達磨》三萬頌。及年應法，隨師往別國，納具足戒。誦《薩婆多》近四萬頌，《俱舍》二萬八千頌，又誦《大婆沙》，兼通其義。七年於彼專習小乘。後詣中天竺那爛陀寺，稟學大乘《唯識》、《瑜伽》、《中邊》等論、《金剛般若經》、「因明」、「聲明」、「醫明」、工律論等，並依承智護、進友、智友三大論師。復遊雙林，經八塔。往來瞻禮十有八年。聞南天竺頗尚持明，遂往諮稟。彼有灌頂師名達摩耶舍見慧勤重可教，授瑜伽法、入曼荼羅、三密、護身、五部、印契經，于一年誦徹三千五百餘頌。

常聞支那大國，文殊在中，錫指東方，誓傳佛教。乃泛海東邁，垂至廣州，風飄却返，抵執師子國之東。又集資糧，重修巨舶，遍歷南海諸國二十二年，再近番禺，風濤遽作，舶破人沒，唯慧存焉。夜至五更，其風方止，所齎經論，莫知所之。及登海壖，其夾策已在岸矣，於白沙內大竹筩中得之，宛為鬼物扶持而到。乃歎曰：

「此《大乘理趣》等經，想支那人根熟矣！」遂東北行，半月達廣州，即德宗建中初也。屬帝違難奉天，貞元二年始屆京輦。見鄉親神策軍正將羅好心，即慧舅氏之子也，悲喜相慰。將至家中，延留供養。八年，上表舉慧翻傳，有勅令京城諸寺大德名業殊眾者同譯，得罽賓三藏般若開釋梵本，翰林待詔光宅寺沙門利言度語，西明寺沙門圓照筆受，資聖寺道液、西明寺良秀、莊嚴寺應真、醴泉寺超悟、道岸、辯空，並充證義。六月八日欲剞經題，勅右街功德使王希遷與右神策軍大將軍王孟涉、驃騎大將軍馬有隣等送梵經出內。緇伍威儀樂部相間，士女觀望，車騎交駢，迎入西明寺翻譯。即日賜錢一千貫、茶三十串、香一大合，充其供施。開名題曰《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》，成十卷。又《華嚴長者問佛那羅延力經》、《般若心經》各一卷，皆貞元八年所譯也。是

歲十月繕寫畢。二十八日設綵車，大備威儀，引入光順門進，帝覽忻然，慰勞勤至。勅於神策軍賜齋食，賜慧絹五百匹、冬服一副，餘人賜各有差。慧表謝，答詔褒美。同日，請譯經奉天定難功臣開府儀同三司檢校太子詹事羅好心上表云：「臣表弟沙門般刺若先進《大乘理趣六波羅蜜》梵本經，伏奉今年四月十九日勅令王希遷精選有道行僧於西明寺翻譯。今經帙已終，同詣光順門進上。」答詔云：「卿之表弟早悟大乘，遠自西方，求遊上國。宣六根之奧義，演雙樹之微言。念以精誠所宜欽重，是令翻譯，俾用流行。卿夙慕忠勤，職司禁衛，省覽表疏，具見乃懷，所謝知。」好心以朱泚圍逼之際，頗有戰功，預其中兵，為帝寵重。慧得好心啟導，譯務有光，帝製《經序》焉。慧後終于洛陽，葬龍門之西岡，塔今存矣。

唐玉華寺玄覺傳

釋玄覺，高昌國人也，西土種姓未得聞焉。學慕大乘，從玄奘三藏研覈經論，亦於玉華宮參預翻譯。及《大般若經》向就，同請翻《寶積經》，奘辭憊然。覺因夢一浮圖莊嚴高大，忽然摧倒，遂驚起告奘。奘曰：「非汝身事。此吾滅之徵耳。」覺暗悲安做，勸諸法侶競求醫藥。覺後莫測終焉。

唐益州多寶寺道因傳(嵩公寶暹)

釋道因，姓侯氏，濮陽人也。稟祐居醇，含章縱哲，覃訏之歲，粹采多奇，髻亂之辰，殊姿特茂。孝愛之節，慈順之風，率志于斯，因心以極。年甫七歲，丁于內艱，啞粒絕漿，殆乎滅性。成人之德，見稱州里。免喪之後，思酬罔極，出家之志，人莫我移。便詣靈巖寺求師誦習，曾不浹旬，通《涅槃經》二帙，舉眾驚駭，謂為神童。落髮已來，砥礪其行，揣摩《義章》，即講《涅槃》，宿齒名流，咸所歎服。

及升上品，旋學律儀，又於彭城嵩法師所傳《攝大乘》。嵩公懿德玄猷，蘭薰月映，門徒學侶，魚貫晷趨，講室談筵，為之囂隘。遂依科戒而為節文，年少沙門且令習律，曉《四分》者，方許入聽。因夏臘雖幼，業行攸高，獨於眾中，迥見推揖，每敷《攝論》，即令覆講。

後隱泰嶽，凡經四秋。將詣洛中，屬昏李陵夷，法網嚴峻，僧無徒侶，弗許遊方。於是杖錫出山，孑焉超邁，恐羅刑憲，靜念觀音。少選之間，有僧欵至，皓然白首，請與偕行。迨至銅街，暨於金地，俯仰之際，莫知所在。咸謂善逝之力，有感斯見。未幾，因避

難三蜀，居于多寶寺。好事者素聞道譽，乃命開筵《攝論》、《維摩》，聽者千數。

時有寶暹法師，東海人也，殖藝該洽，尤善大乘，昔在隋朝，英塵久播，學徒來請，接武磨肩。暹公傲爾其間，仰之彌峻，每至因之論席，肅然改容，沈吟久之，方用酬遣。因抗音馳辯，雷驚波注，盡妙窮微，藏牙折角。益州總管鄧國公竇璡、行臺左僕射贊國公竇軌、長史申國公高士廉、范陽公盧承慶，及前後首僚，西南嶽牧，並國華朝秀，重望崇班，共籍芳聲，俱申虔仰。乃於彭門山寺習道安居。此寺往經廢毀，院宇凋弊，因慨然構懷，專事營緝，未移再稔，蔚成淨場。又以九部微言，三界式仰，緬惟法盡，將翳龍宮。遂於寺之北巖，刻書經典，窮多羅之祕[袞-包+矢]，盡毘尼之正文。縱堯世之洪水襄陵，任趙簡之北山燎狩，必無他慮，與劫齊休。

既而清猷遠暢，峻業遐昭。遂簡宸衷，乃紆天綽，追赴京邑，止大慈恩寺，與玄奘法師翻譯校定梵本，兼充證義。奘師偏獎賞之，每有難文，同加參酌，新翻弗墜，因有力焉。慧日寺主楷法師者，聰爽溫瞻，聲藹鴻都，首建法筵，請開奧義。帝城緇俗，具來諮稟，欣焉相顧，得所未聞。因研幾史籍，尤好《老》、《莊》，咀其菁華，含其腴潤，包四始於風律，綜五聲於文緒，故所講訓，內外該通。其專業者，《涅槃》、《華嚴》、《小品》、《維摩》、《法華》、《楞伽》等經，《十地》、《地持》、《毘曇》、《智度》、《攝大乘》、《對法》、《佛地》等論，及《四分》等律。其《攝論》、《維摩》仍著章疏。

已而能事畢矣，示疾終于長安慧日寺，則顯慶三年三月十一日也，春秋七十二。越明年正月，旋神座于益部，二月八日窆于彭門光化寺石經之側。道俗送葬，數有數千。弟子玄凝等嗣其香火。至龍朔中，中臺司藩大夫李儼製碑，歐陽通書焉。

唐波凌國智賢傳(會寧)

釋若那跋陀羅，華言智賢，南海波凌(亦曰訶凌)國人也，善三藏學。麟德年中，有成都沙門會寧欲往天竺，觀禮聖跡，泛舶西遊，路經波凌，遂與智賢同譯《涅槃》後分二卷。此於《阿笈摩經》內譯出，說世尊焚棺、收設利羅等事，與《大涅槃》頗不相涉。譯畢寄經達交州，寧方之西域。至儀鳳年初，交州都督梁難敵遣使同會寧弟子運期奉表進經，入京。三年戊寅，大慈恩寺沙門靈會於東宮啟請施行。運期奉侍其師，因心莫比，師令齋經行化，故無暇影隨往西域也。

唐洛京白馬寺覺救傳

釋佛陀多羅，華言覺救，北天竺罽賓人也。齋多羅夾，誓化支那，止洛陽白馬寺，譯出《大方廣圓覺了義經》。此經近譯，不委何年，且隆道為懷，務甄詐妄，但真詮不謬，豈假具知年月耶？救之行迹，莫究其終。大和中，圭峯密公著疏判解，經本一卷，後分二卷成部，續又為鈔，演暢幽邃。今東京、太原、三蜀盛行講演焉。

唐五臺山佛陀波利傳(順貞)

釋佛陀波利，華言覺護，北印度罽賓國人。忘身徇道，遍觀靈跡，聞文殊師利在清涼山，遠涉流沙，躬來禮謁，以天皇儀鳳元年丙子，杖錫五臺，虔誠禮拜，悲泣雨淚，冀覩聖容。倏焉見一老翁從山而出，作婆羅門語，謂波利曰：「師何所求耶？」波利答曰：「聞文殊大士隱迹此山，從印度來，欲求瞻禮。」翁曰：「師從彼國將《佛頂尊勝陀羅尼經》來否？此土眾生多造諸罪，出家之輩亦多所犯。〈佛頂神呪〉除罪祕方，若不齋經，徒來何益？縱見文殊，亦何能識？師可還西國，取彼經來，流傳此土，即是遍奉眾聖，廣利群生，拯接幽冥，報諸佛恩也。師取經來至，弟子當示文殊居處。」波利聞已，不勝喜躍，裁抑悲淚，向山更禮。舉頭之頃，不見老人。波利驚愕，倍增虔恪。

遂返本國取得經迴，既達帝城，便求進見。有司具奏，天皇賞其精誠，崇斯祕典，下詔鴻臚寺典客令杜行顛與日照三藏於內共譯。譯訖，賜絹三十匹，經留在內。波利垂泣奏曰：「委棄身命，志在利人。請帝流行，是所望也。」帝愍其專切，遂留所譯之經，還其梵本。波利得經，彌復忻喜，乃向西明寺訪得善梵語僧順貞，奏乞重翻。帝俞其請，波利遂與順貞對諸大德翻出，名曰《佛頂尊勝陀羅尼經》，與前杜令所譯者，呪韻經文少有同異。波利所願既畢，却持梵本入于五臺，莫知所之。或云波利隱金剛窟，今永興龍首岡有波利藏舍利之所焉。

大曆中南嶽雲峯寺沙門法照入五臺山禮金剛窟，夜之未央，剋責撲地。忽見一僧長七尺許，梵音朗暢，稱是佛陀波利。問曰：「阿師如此自苦，得無勞乎？有何願樂？」照對曰：「願見文殊。」曰：「若志力堅強，真實無妄，汝可脫履於板上，咫尺聖顏，令子得見。」照遂瞑目，俄已入窟。見一院題額云「金剛般若寺」，字體首健，光色閃爍。其院皆是異寶莊嚴，名目不暇，樓觀複沓，殿宇連延，罽毘密緻，鈴鐸交鳴，可二百所。間有祕藏，中緘《金剛般若》并一切經法。人物魁偉，殆非常所覩也。文殊大聖處位尊嚴，

擁從旁午。宣言慰勞，分茶賦食訖，波利引之出去。照苦乞在寺，波利不許。臨別勉之，努力修進，再來可住。照還至板上躡履，迴眸之際，波利隱焉。

系曰：道家尸解，說有多端。或隱真形而存假質，矧以登地大士、漏盡羅漢？或此在他亡，或分身易態，皆以之為遊戲耳，以之為利物焉。其佛陀波利出沒無恒，變化何極，出金剛窟接法照師，蓋與之有緣，闖然而現。故杜多迦葉久隱諸峯，晉法顯往遊靈鷲，見于山下焉。

唐尊法傳

釋尊法，西印度人也，梵云伽梵達磨，華云尊法。遠踰沙磧，來抵中華，有傳譯之心，堅化導之願。天皇永徽之歲，翻出《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經》一卷。經題但云西天竺伽梵達磨譯，不標年代。推其本末，疑是永徽、顯慶中也。又準《千臂經序》云：「智通同此三藏譯也。」法後不知其終。

唐西京慧日寺無極高傳(阿難律木叉師迦葉師)

釋無極高，中印度人，梵云阿地瞿多，華云無極高也。出家氏族未憑書之。高學窮滿字，行潔圓珠，精練五明，妙通三藏。永徽三年壬子歲正月，自西印度齎梵夾來屆長安，勅令慈門寺安置。沙門大乘琮等十六人、英公李世勣、鄂公尉遲德等十二人，同請高於慧日寺浮圖院建陀羅尼普集會壇，所須供辦。法成之日，屢現靈異，京中道俗咸歎希逢。沙門玄楷等固請翻其法本。以四年癸丑至于五年，於慧日寺從《金剛大道場經》中撮要而譯，集成一部，名《陀羅尼集經》一十二卷，玄楷筆受。于時有中印度大菩提寺阿難律木叉師、迦葉師等，於經行寺譯《功德天法》，編在《集經》第十卷內，故不別出焉。

唐廣州制止寺極量傳

釋極量，中印度人也，梵名般刺蜜帝，此言極量。懷道觀方，隨緣濟物，展轉遊化，漸達支那(印度俗呼廣府為支那，名帝京為摩訶支那也)，乃於廣州制止道場駐錫。眾知博達，祈請頗多，量以利樂為心，因敷祕蹟。

神龍元年乙巳五月二十三日，於《灌頂部》中誦出一品，名《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》，譯成一部十卷。烏菴

國沙門彌伽釋迦(「釋迦」稍訛，正云「鑠佉」，此曰「雲峯」)譯語，菩薩戒弟子前正議大夫同中書門下平章事清河房融筆受，循州羅浮山南樓寺沙門懷迪證譯。量翻傳事畢，會本國王怒其擅出經本，遣人追攝，泛舶西歸。後因南使入京，經遂流布，有惟愨法師、資中沈公各著疏解之。

唐洛京大遍空寺實叉難陀傳

釋實叉難陀，一云施乞叉難陀，華言學喜，葱嶺北于闐人也。智度恢曠，風格不群，善大、小乘，旁通異學。

天后明揚佛日，崇重大乘，以《華嚴》舊經，處會未備，遠聞于闐有斯梵本，發使求訪，并請譯人。又與經夾同臻帝闕，以證聖元年乙未於東都大內大遍空寺翻譯。天后親臨法座，煥發序文，自運仙毫，首題名品。南印度沙門菩提流志、沙門義淨同宣梵本，後付沙門復禮、法藏等於佛授記寺譯成八十卷。聖曆二年功畢。至久視庚子，駕幸潁川三陽宮，詔又譯《大乘入楞伽經》，天后複製序焉。又於京師清禪寺及東都佛授記寺譯《文殊授記》等經，前後總出一十九部，沙門波崙、玄軌等筆受，沙門復禮等綴文，沙門法寶、恒景等證義，太子中舍賈膺福監護。

長安四年，又以母氏衰老，思歸慰覲，表書再上，方俞，勅御史霍嗣光送至于闐。暨和帝龍興，有勅再徵。景龍二年，達于京輦。帝屈萬乘之尊，親迎於開遠門外。傾都緇侶，備幡幢導引。仍飾青象令乘之入城，勅於大薦福寺安置。未遑翻譯，遭疾彌留，以景雲元年十月十二日，右脅累足而終，春秋五十九歲。有詔聽依外國法葬。十一月十二日於開遠門外古然燈臺焚之，薪盡火滅，其舌猶存。十二月二十三日，門人悲智、勅使哥舒道元送其餘骸及斯靈舌還歸于闐，起塔供養。後人復於茶毘之所，起七層塔，土俗號為華嚴三藏塔焉。

周西京廣福寺日照傳

釋地婆訶羅，華言日照，中印度人也。洞明八藏，博曉五明，戒行高奇，學業勤悴，而呪術尤工。以天皇時來遊此國，儀鳳四年五月，表請翻度所齎經夾，仍準玄奘例，於一大寺別院安置，并大德三五人同譯。至天后垂拱末，於兩京東西太原寺(西太原寺後改西崇福寺，東太原寺後改大福先寺)，及西京廣福寺，譯《大乘顯識經》、《大乘五蘊論》等凡一十八部，沙門戰陀、般若提婆譯語，沙門慧智證梵語。勅諸名德助其法化，沙門道成、薄塵、嘉尚、圓測、靈辯、

明恂、懷度證義，沙門思玄、復禮綴文筆受，天后親敷叡藻，製序冠首焉。照嘗與覺護同翻《佛頂》，深體唐言，善傳佛意。每進新經，錫賚豐厚。後終于翻經小房，享年七十五。天后勅葬于洛陽龍門香山，塔見存焉。

周洛京魏國東寺天智傳

釋提雲般若，或云提雲陀若那，華言天智，于闐國人也。學通大小，解兼真俗，呪術禪門，無不諳曉。永昌元年，來屆于此，謁天后於洛陽，勅令就魏國東寺(後改大周東寺)翻譯。即以其年己丑至天授二年辛卯，出《華嚴經》、《法界無差別論》等六部七卷，沙門處一筆受，沙門復禮綴文，沙門德感、慧儼、法明、恒景等證義。智終年卒地，莫得而聞。

周洛京佛授記寺慧智傳(明佺)

釋慧智，其父印度人，婆羅門種，因使遊此方而生於智。少而精勤，有出俗之志。天皇時從長年婆羅門僧，奉勅度為弟子。本既梵人，善閑天竺書語；生于唐國，復練此土言音。三藏地婆訶羅、提雲若那、寶思惟等所有翻譯，皆召智為證，兼令度語。後至長壽二年癸巳，智於東都佛授記寺自譯《觀世音頌》一卷。不詳所終。有沙門明佺者，不知何許人，出家隸業，悉在佛授記寺。尤善毘尼，兼閑經論。天冊萬歲元年，勅令刊定經目，佺所專纂錄，編次持疑，更與翻經大德二十餘人同共參正，號曰《大周經錄》焉。智昇云：「雖云刊定，繁穢尤多。徒見流行，寔難憑準。」蓋此錄支經別品，雜沓不倫，致為昇公之所黜矣。

周洛京寂友傳

釋彌陀山，華言寂友，覩貨邏國人也。自幼出家，遊諸印度，遍學經論，《楞伽》、《俱舍》，最為窮覈。志傳像法，不悞鄉邦，杖錫孤征，來臻諸夏，因與實叉難陀共譯《大乘入楞伽經》。又天授中，與沙門法藏等譯《無垢淨光陀羅尼經》一卷。其經，佛為劫比羅戰荼婆羅門說，延其壽命。譯畢進內，尋辭帝歸鄉，天后以厚禮餞之。

宋高僧傳卷第二

宋高僧傳卷第三

宋左街天壽寺通慧大師賜紫沙門贊寧等奉 勅撰

譯經篇第一之三(正傳十四人附見三人)

唐京師總持寺智通傳

釋智通，姓趙氏，本陝州安邑人也。隋大業中出家受具，後隸名總持寺。律行精明，經論該博。自幼挺秀，即有遊方之志，因往洛京翻經館學梵書并語，曉然明解。屬貞觀中，有北天竺僧齋到《千臂千眼經》梵本，太宗勅搜天下僧中學解者充翻經館綴文、筆受、證義等。通應其選，與梵僧對譯，成二卷。天皇永徽四年，復於本寺出《千轉陀羅尼觀世音菩薩呪》一卷、《觀自在菩薩隨心呪》一卷、《清淨觀世音菩薩陀羅尼》一卷，共四部五卷。通善其梵字，復究華言，敵對相翻，時皆推伏。又云行瑜伽祕密教，大有感通。後不知所終。

唐京師奉恩寺智嚴傳

釋智嚴，姓尉遲氏，本于闐國質子也，名樂。受性聰利，隸鴻臚寺，授「左領軍衛大將軍上柱國」，封「金滿郡公」。而深患塵勞，唯思脫屣。神龍二年五月，奏乞以所居宅為寺，勅允，題榜曰「奉恩」是也。相次乞捨官入道，十一月二十四日墨制聽許。景龍元年十一月五日，孝和帝誕節剃染。尋奉勅於此寺翻經，多證梵文，諸經成部，嚴有力焉。嚴重譯出《生無邊法門陀羅尼經》。後於石鼈谷行頭陀法，又充終南山至相寺上座，體道用和，率從清謹。不知其終。

唐洛京天竺寺寶思惟傳

釋阿儂真那，華言寶思惟，北印度迦濕密羅國人，剎帝利種。幼而捨家，禪誦為業。進具之後，專精律品，而慧解超群，學兼真俗。乾文、呪術，尤攻其妙。加以化導為心，無戀鄉國。以天后長壽二年，屈于洛都，勅於天宮寺安置。即以其年創譯至中宗神龍景午，於佛授記、天宮、福先等寺出《不空罽索陀羅尼經》等七部。睿宗太極元年四月，太子洗馬張齊賢等繕寫進內。其年六月，勅令禮部尚書晉國公薛稷、右常侍高平侯徐彥伯等詳定入日施行。那自神龍

之後，不務翻譯，唯精勤禮誦，修諸福業。每於晨朝磨香為水，塗浴佛像，後方飲食。從始泊終，此為恒業。衣鉢之外，隨得隨施。後於龍門山請置一寺，制度皆依西域，因名「天竺」焉。門徒學侶同居此寺，精誠所感，靈應寔繁。壽百有餘歲，以開元九年終於寺，構塔旌表焉。

唐洛京長壽寺菩提流志傳

釋菩提流志，南天竺國人也，淨行婆羅門種，姓迦葉氏。年十二，就外道出家，事波羅奢羅，學聲明、僧法等論。曆數、呪術、陰陽、讖緯，靡不該通。年逾耳順，方乃迴心，知外法之乖違，悟釋門之淵默，隱居山谷，積習頭陀。初依耶舍瞿沙三藏學諸經論，其後遊歷五天，遍親講肆。高宗大帝聞其遠譽，挹彼高風，永淳二年，遣使迎接。天后復加鄭重，令住東洛福先寺譯《佛境界》、《寶雨》、《華嚴》等經，凡十一部。中宗神龍二年，又住京兆崇福寺，譯《大寶積經》。屬孝和厭代，睿宗登極，勅於北苑白蓮池、甘露亭、續其譯事，翻度云畢，御序冠諸其經，舊新凡四十九會，總一百二十卷。先天二年四月八日進內，此譯場中沙門思忠、天竺大首領伊舍羅等譯梵文。天竺沙門波若屈多、沙門達摩證梵義，沙門履方、宗一、慧覺筆受。沙門深亮、勝莊、塵外、無著、懷迪證義。沙門承禮、雲觀、神暎、道本次文。次有潤文官盧粲、學士徐堅、中書舍人蘇[王*(普-(美-王-大))]、給事中崔璩、中書門下三品陸象先、尚書郭元振、中書令張說、侍中魏知古，儒釋二家，構成全美。《寶積》用賢既廣，流志運功最多。所嫌者：古今共譯一切陀羅尼末句云「莎嚩訶」，皆不竊考清濁，遂使命章有異。或云「薩婆訶」，或云「馱皤訶」等，九呼不倫，楷定梵音，悉無本旨。此非梵僧傳誦不的，自是執筆之誤。故剋取「莎(桑巴反)嚩(無可反)訶(呼箇反)」為正矣。志開元十二年，隨駕居洛京長壽寺。十五年十一月四日，囑誡弟子五日齋時，令侍人散去，右脅安臥，奄然而卒，春秋一百五十六。帝聞軫悼，勅試鴻臚卿，諡曰開元一切遍知三藏。遣內侍杜懷信監護喪事，出內庫物，務令優贍。用鹵簿羽儀，幡幢花蓋，闐塞衢路。十二月一日，遷窆于洛南龍門西北原，起塔，勒石誌之。

系曰：西域喪禮，其太簡乎？或有國王酋長，傾心致重者，勿過昇之火葬。若東夏僧用鹵簿導喪車，罕聞之矣。嗚呼！道尊德貴，不言而邀，此不其盛歟！

唐羅浮山石樓寺懷迪傳(般若力善部末摩)

釋懷迪，循州人也。先入法于南樓寺，其山半在海涯，半連陸岸，乃仙聖遊居之靈府也。迪久探經論，多所該通，《七略》、九流，粗加尋究。以海隅之地，津濟之前，數有梵僧寓止于此，迪學其書語，自茲通利。菩提流志初譯《寶積》，召迪至京證義，事畢南歸。後於廣府遇一梵僧，齎多羅葉經一夾，請共翻傳，勒成十卷，名《大佛頂萬行首楞嚴經》是也。迪筆受經旨，緝綴文理，後因南使附經入京，即開元中也。又乾元元年有罽賓三藏般若力、中天竺婆羅門三藏善部末摩、箇失密三藏舍那並慕化入朝，詔以力為太常少卿，末摩為鴻臚少卿，並員外置，放還本土。或云：「各齎經至，屬燕、趙阻兵，不遑宣譯，故以官品榮之。」

唐京兆慈恩寺寂默傳

釋牟尼室利，華言寂默。其為人也，神宇高爽，量度真率。德宗貞元九年，發那爛陀寺，擁錫東來。自言從北印度往此寺出家，受戒、學法焉。十六年，至長安興善寺。十九年，徙崇福、醴泉寺。復於慈恩寺請行翻譯事，乃將奘師梵本，出《守護國界主陀羅尼經》十卷，又進「六塵獸圖」。帝悅，檀施極多。元和元年六月十九日，卒于慈恩寺。初默說中天竺摩伽陀國那爛陀寺周圍四十八里，九寺一門，是九天王所造。默在寺日，住者萬餘，以大法師處量綱任，西域伽藍無如其高廣矣。案《守護國界主經》是般若譯，牟尼證梵本。翰林待詔光宅寺智真譯語，圓照筆受，鑒虛潤文，澄觀證義焉。

唐丘慈國蓮華寺蓮華精進傳

釋勿提提羸魚，華言蓮華精進，本屈支城人也，即龜茲國，亦云丘慈，正曰屈支。時唐使車奉朝到彼土，城西門外有蓮華寺，進居此中，號三藏苾芻。奉朝至誠祈請，開譯梵夾，傳歸東夏。進允之，遂譯出《十力經》，可用東紙三幅成一卷，是佛在舍衛國說。安西境內有前踐山，山下有伽藍，其水滴溜，成音可愛。彼人每歲一時，采綴其聲，以成曲調。故《耶婆瑟雞》開元中用為羯鼓曲名，樂工最難其杖撩之術。進寺近其滴水也。其經是沙門悟空同《十地》、《迴向輪經》共十一卷，齎進。貞元中請編入藏，值圓照續錄，故述其由。

唐北庭龍興寺戒法傳

釋尸羅達摩，華言戒法也，本于闐人。學業該通，善知華梵，居于是國，為大法師。唐貞元中，悟空迴至北庭，其本道節度使楊襲古與龍興寺僧請法為譯主，翻《十地經》。法躬讀梵文并譯語，沙門大震筆受，法超潤文，善信證義，悟空證梵文。又譯《迴向輪經》，翻傳纔畢，繕寫欲終，遇北庭宣慰中使段明秀，事訖，迴與北庭奏事官牛昕、安西奏事官程鏐等相隨入朝。為沙、河不通，取迴鶻路，其梵夾留北庭龍興寺藏。齎所譯唐本至京，即貞元五載也。法譯事方終，却迴豁丹，豁丹一云于遁，此皆嶺北人之呼召耳，若五印度語云瞿薩怛那，華言乳國，亦云地乳也。

唐蓮華傳

釋蓮華，本中印度人也。以興元元年杖錫謁德宗，乞鐘一口歸天竺聲擊。勅廣州節度使李復修鼓鑄畢，令送於南天竺金堆寺。華乃將此鐘於寶軍國毘盧遮那塔所安置。後以《華嚴》後分梵夾附舶來，為信者般若三藏於崇福寺翻成四十卷焉。一云，梵夾本是南天竺烏茶國王書獻支那天子，書云：「手自書寫《華嚴經》百千偈中所說善財童子、五十五聖者善知識〈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〉，謹奉進上，願於龍華會中奉觀云」，即貞元十一年也。至十二年六月，詔於崇福寺翻譯，闕賓沙門般若宣梵文，洛京天宮寺廣濟譯語，西明寺圓照筆受，智柔、智通綴文，成都府正覺寺道恒、鑿虛潤文，千福寺大通證義，澄觀、靈邃詳定，神策軍護軍中尉霍仙鳴、左街功德使竇文場寫進，十四年二月解座。

唐大聖千福寺飛錫傳

釋飛錫，未知何許人也。神氣高邈，識量過人。初學律儀，後於天台法門「一心三觀」，與沙門楚金棲心研習。天寶初遊于京闕，多止終南紫閣峯草堂寺。屬不空當途傳譯，慎選英髦，錫預其數，頻登筆受、潤文之任。代宗永泰元年四月十五日，奉詔於大明宮內道場同義學沙門良賁等十六人參譯《仁王護國般若經》并《密嚴經》。先在多羅葉時，並是偈頌，今所譯者多作散文。不空與錫等及翰林學士柳抗重更詳定，錫充證義正員，辭筆不愧斯職也。系曰：錫外研儒、墨，其筆仍長，時多請其論議，如忠國師、楚金等碑。與晉陵德宣、吳興晝公同獵廣原，不知鹿死何人之手。然宣、錫二公亦有不羈之失，緣飾過其實。如晝公合建中之體，儼事得其倫。唯虛與實，不可同日也。

唐京師大安國寺子隣傳

釋子隣，姓范氏，兗州乾封大范村人也。父峻朝，不喜三寶，或見桑門，必加吐唾。有問其故，即欲毆焉。隣生已數歲，小字隣兒，見著袈裟者，則生慕羨之意。開元初，東都廣愛寺慶修律師遊于岱宗，經范氏之舍。隣一見之，喜貫顏色，拜求出家。問曰：「父母云何？」對曰：「不令堂親知，知則遭箠矣。師但先去，某乃影隨。」律師行五里間，隣已至矣。及洛寺，受教之易，若甘之受和焉。染削已，或名志隣。至十一年忽思二親，辭歸寧觀。其父喪明，母終已三載矣。因詣嶽廟，求知母之幽趣，即敷坐具，誦《法華經》，誓見天齊王為期。其夜，嶽神果召隣問：「何故懇苦如是？」隣曰：「母王氏亡來已經除服，敢問大王，母今何在？」王顧簿吏，對曰：「王氏見繫獄受苦。」隣曰：「我母何罪？」王曰：「生和尚時，食雞卵，又取白傅頭瘡，坐是之故，職汝之由。」隣悲號委頓，求王請免。曰：「繫縻有分，放釋無門。然則為法師計，請往鄆山禮阿育王塔，或可原也。」隣詰朝遵途，到句章山寺，叩頭哀訴，五輪著地，禮畢投策。至四萬數，俄聞有呼隣聲，若蔡順之解，望空見雲氣中母謝曰：「承汝之力，得生忉利天矣，故來報汝。」倏然不見。隣後求解經論，至于關輔間，外學兼通，美聲籍甚。以名僧之選，恒入肅宗內殿應奉，高其舌端，精於捷對，御前口占，敘述皇道，時輩靡及。勅賜紫方袍，充供奉僧。代宗即位，更崇釋氏。永泰中，不空重譯《仁王護國》、《密嚴》等經，隣與千福寺法崇、西明寺慧靜、保壽寺圓寂分職證義，並良賁潤文。隣莫測其終。先所禮塔，今鄆山育王寺後峯之翠微茅庵基及井存焉。井實方池，其水碧色，緣苔泛泛然，辭人遊者，詩詠絕多矣。

唐醴泉寺般若傳

釋般若，罽賓國人也。貌質魁梧，執戒嚴整，在京師，充義學沙門。憲宗敦崇佛門，深思翻譯，奈何有事于蜀部，劉闢阻命，王承宗未平，朝廷多故。至元和五年庚寅，詔工部侍郎歸登、孟簡、劉伯芻、蕭俛等。就醴泉寺譯出經八卷，號《本生心地觀》，此之梵夾乃高宗朝師子國所進者，寫畢進上。帝覽有勅，「朕願為序」。尋頒下其文，冠于經首，三藏賜帛，證義諸沙門錫賚有差。先於貞元中譯《華嚴經》後分四十卷。此蓋烏荼國王所進者，于時而賜紫衣。後大中中，法寶大師玄暢奏請入藏焉。

唐上都章敬寺悟空傳

釋悟空，京兆雲陽人，姓車氏，後魏拓跋之遠裔也。天假聰敏，志尚典墳，孝悌之聲，藹于鄉里。屬玄宗德被遐方，罽賓國願附大唐，遣大首領薩婆達幹與三藏舍利越摩於天寶九載來朝闕庭，請使巡按。明年，勅中使張韜光，將國信、行官、僉吏四十餘人西邁。時空未出俗，名奉朝，授左衛涇州四門府別將，令隨使臣自安西路去。至十二載至健陀羅國，罽賓東都城也，其王禮接唐使。使迴，空篤疾，留健陀羅。病中發願，痊當出家。遂投舍利越摩落髮，號達摩馱都，華言法界，當肅宗至德二年也。泊年二十九，於迦濕彌羅國受具足戒，文殊矢涅地為親教師，鄔不羆提為羯磨阿遮利耶，馱里巍地為教授，於蒙鞞寺諷聲聞戒，習根本律儀。然北天竺國皆薩婆多學也。後巡歷數年，遍瞻八塔，為憶君親，因咨本師舍利越摩，再三方允。摩手授梵本《十地》、《迴向輪》、《十力》三經，共一夾，并佛牙舍利以贈別。空行從北路，至覩貨羅國，五十七蕃中有一城，號骨咄國，城東有小海。空行次南岸，地輒搖動，雲陰雨暴，霆擊雹飛。乃奔就一大樹間，時有眾商咸投其下。商主告眾曰：「誰齎佛舍利異物殊珍耶？不爾，龍神何斯忿怒？有則投于海中，無令眾人惶怖。如藏匿者，自貽伊咎。」空為利東夏之故，潛乞龍神宥過。自卯達申，雨雹方霽。迴及龜茲，居蓮華寺，遇三藏法師勿提提羆魚，善於傳譯。空因將《十力經》夾請翻之。尋抵北庭，大使復命空出梵夾，于闐三藏戒法為譯主，空證梵文并度語，翻成《十地》、《迴向輪經》。事訖，隨中使段明秀以貞元五年己巳達京師，勅於躍龍門使院安置。進上佛牙舍利、經本，宣付左神策軍繕寫，功德使竇文場寫畢進呈，勅署空「壯武將軍」、「試太常卿」。乃歸章敬寺。次返雲陽問二親，墳樹已拱矣。凡所往來，經四十年，于時已六十餘。所翻經三本，共十一卷。翻經大德圓照《續開元錄》皆編入藏，復記空之行狀焉。

唐京師滿月傳(智慧輪)

釋滿月者，西域人也。爰來震旦，務在翻傳。瑜伽法門，一皆貫練，既多神効，眾所推欽。開成中，進梵夾，遇偽甘露事去未旋踵，朝廷無復紀綱，不暇翻譯。時悟達國師知玄好學聲明，禮月為師，情相欵密，指教梵字并音字之緣界，悉曇、八轉，深得幽趣。玄曰：「昇哉，吾體兩方之言，願參象胥之末，可乎？」因請翻諸禁呪，乃與菩提曷日羅、金剛悉地等重譯出《陀羅尼集》四卷，又《佛為毘戍陀天子說尊勝經》一卷，詳覈三復，曲盡佛意。此土先

已有《陀羅尼集》十二卷，新翻四卷，未聞入藏。月等俱不測其終。次有般若斫迦三藏者，華言智慧輪，亦西域人。大中中，行大曼拏羅法，已受灌頂為阿闍梨，善達方言，深通密語，著《佛法根本》。宗乎大毘盧遮那，為諸佛所依。法之根本者，陀羅尼是也。至於出生無邊法門，學者修戒、定、慧以總持助成，速疾之要，無以超越。又述《示教指歸》共一十餘言，皆大教之鈐鍵也，出弟子紹明，咸通年中刻石記傳焉。

論曰：

無漏海中，震潮音而可怪；總持言下，書梵字而不常。未聞者聞，聞光音天之餘響；未解者解，解最上法之所詮。聖賢飲之為醇醪，凡劣啜之成糟粕。若夫有緣則遇，無道則違。秦獄既械其利防，此無緣也。漢庭肇迎其白馬，斯有感焉。聽彼異呼，覽其橫字，情可求而呼相亂，字雖殊而意且同。是故《周禮》有象胥氏通六蠻語，狄鞮主七戎，寄司九夷，譯知八狄。今四方之官，唯「譯」官顯著者何也？疑漢已來多事北方，故「譯」名爛熟矣。又如周、秦輶軒使者，奏籍通別國方言，令君王不出戶庭，坐知絕遐異俗之語也。若然者，象胥知其遠也，方言知其近也。大約不過察異俗、達遠情者矣。懿乎東漢，始譯《四十二章經》，復加之為「翻」也。翻也者，如翻錦綺，背、面俱花，但其花有左、右不同耳。由是

「翻」、「譯」二名行焉。初則，梵客華僧，聽言揣意；方圓共鑿，金石難和；椀配「世間」，擺名「三昧」；咫尺千里，覲面難通。次則，彼曉漢談，我知梵說，十得八九，時有差違，至若怒目看世尊彼岸度無極矣。後則猛、顯親往，奘、空兩通，器請師子之膏，鵝得水中之乳，內豎對文王之問，揚雄得絕代之文，印印皆同，聲聲不別，斯謂之大備矣。逖觀：道安也，論五失三不易；彥琮也，籍其八備；明則也，撰《翻經儀式》；玄奘也，立五種不翻。此皆類左氏之諸凡，同史家之變例。今立新意，成六例焉。謂「譯字譯音」為一例，「胡語梵言」為一例，「重譯直譯」為一例，「僞言細語」為一例，「華言雅俗」為一例，「直語密語」為一例也。

初則四句：一、譯字不譯音，即「陀羅尼」是；二、譯音不譯字，如佛胸前「卍」字是；三、音字俱譯，即諸經律中純華言是；四、

音字俱不譯，如經題上 、 二字是。第二、胡語梵言者。

一、在五天竺，純梵語。
二、雪山之北是胡，山之南名婆羅門國，與胡絕，書語不同。從羯霜那國字源本二十餘言，轉而相生，其流漫廣，其書豎讀同震旦歟！至吐貨羅，言音漸異，字本二十五言，其書橫讀。度葱嶺南，

迦畢試國言、字同吐貨羅，已上雜類為胡也。若印度言、字，梵天所製，本四十七言，演而遂廣，號《青藏》焉。有十二章，教授童蒙，大成「五明論」，大抵與胡不同。五印度境彌亘既遙，安無少異乎？又以此方始從東漢傳譯，至于隋朝，皆指西天，以為胡國，且失梵天之苗裔，遂言胡地之經書。彥琮法師獨明斯致，唯徵造錄，痛責彌天。符《佛地》而合《阿含》，得之在我，用胡名而迷梵種，失則誅誰？唐有宣公，亦同鼓唱。自此若聞彈舌，或覩黑容，印定呼為梵僧，雷同認為梵語。琮師可謂忙於執斧捕前白露之蟬，曾在迴光照後黃衣之雀。既云西土有梵、有胡，何不南、北區分？是非料簡，致有三失：一改胡為梵，不析胡開，胡還成梵，失也；二不善胡、梵二音，致令胡得為梵，失也；三不知有重譯，失也。當初盡呼為胡，亦猶隋朝已來總呼為梵，所謂過猶不及也。如據宗本而談，以梵為主；若從枝末而說，稱胡可存。何耶？自五天至嶺北，累累而譯也，乃疑琮公留此以待今日，亦不敢讓焉。

三、亦胡亦梵。如天竺經律傳到龜茲，龜茲不解天竺語，呼天竺為印特伽國者，因而譯之。若易解者，猶存梵語，如此胡、梵俱有者是。

四、二非句。純華言是也。

第三、重譯直譯者。一、直譯。如五印夾牒直來東夏譯者是。

二、重譯。如經傳嶺北樓蘭、焉耆，不解天竺言，且譯為胡語，如梵云「鄔波陀耶」，疎勒云「鶻社」，于闐云「和尚」。又「天王」，梵云「拘均羅」，胡云「毘沙門」是。

三、亦直亦重。如三藏直齎夾牒而來，路由胡國，或帶胡言。如覺明口誦《曇無德律》中有「和尚」等字者是。

四、二非句。即齎經三藏雖兼胡語，到此不翻譯者是。

第四、麁言細語者。「聲明」中，一「蘇漫多」，謂汎爾平語言辭也。二「彥底多」，謂典正言辭也。佛說法多依「蘇漫多」，意住於義，不依於文，又被一切故，若「彥底多」，非諸類所能解。故亦名「全聲」者，則言音分明典正，此細語也。「半聲」者，則言音不分明而訛僻，此麁語也。

一、是麁非細。如五印度時俗之言是。

二、唯細非麁。如法護、寶雲、奘師、義淨，洞解聲明、音律，用中天細語典言而譯者是。

三、亦麁亦細。如梵本中語涉麁、細者是。或注云：「此音訛僻」，即麁言也。

四、二非句，闕。

第五華言雅俗者。亦云音有楚、夏同也。且此方言語，「雅」即經籍之文，「俗」乃術巷之說。略同西域，「細」即典正，「麁」即

訛僻也。一、是雅非俗，如經中用書籍言是。二、是俗非雅，如經中「乞頭」、「博頰」等語是。三、亦雅亦俗，非學士潤文，信僧執筆，其間渾金璞玉，交雜相投者是。四、二非句，闕。

第六直語密語者。二種作句，涉俗為直，涉真為密，如「婆留師」是。一、是直非密，謂「婆留師」翻為「惡口住」，以惡口，人人不親近故。二、是密非直，「婆留師」翻為「菩薩所知彼岸」也，既通達三無性理，亦不為眾生所親近故。三、兩亦句，即同善惡真俗，皆不可親近故。四、二非句，謂除前相故。又「阿毘持呵婁(目『數數得定』)」，「鬱婆提(目『生起拔根弃背』)」，「娑羅(目『真實離散亂』)」。此諸名在經論中，例顯直、密語義也。更有胡、梵文字，四句易解。凡諸類例括彼經詮，解者不見其全牛，行人但隨其老馬矣。

或曰：「翻梵夾須用此方文籍者，莫招濫涉儒雅之過乎？」通曰：「言不關典，非子、史之言，用其翻對，豈可以委巷之談而糅于中耶？故道安云：『乃欲以千載上之微言，傳所合百王下之末俗。』斯為不易矣。」或曰：「漢、魏之際，盛行斯意，致使陳壽《國志》述臨兒國云：『浮屠所載，與中國《老子經》而相出入。蓋老子西出關，過西域，之天竺，教胡為浮屠。』」「此為見譯家用《道德》二篇中語，便認云與《老子經》互相出入也。設有華人能梵語，與西僧言說，兩相允會，可便謂此人為天竺人耶？蓋窮其始末乎？是知若用外書，須招此謗。如童壽譯《法華》，可謂折中，有天然西域之語趣矣。今觀房融潤文於《楞嚴》，僧肇徵引而造『論』，宜當此諄焉。苟參鄙俚之辭，曷異屠沽之譜？然則糅書勿如無書，與其典也，寧俗。儻深溺俗，厥過不輕；折中適時，自存法語，斯謂得譯經之旨矣。故佛說法多依蘇漫多也。

「又傳譯之興，奉行之意，不明本起，何示將來？今究其宣揚，略陳梗概。夫教者不倫，有三疇類：一顯教者，諸乘經、律、論也(不同《瑜伽論》中『顯了教，是多分大乘藏教。』)；二密教者，瑜伽、灌頂、五部、護摩、三密、曼拏羅法也(《瑜伽》『隱密教，是多分聲聞藏教。』)；三心教者，直指人心，見性成佛，禪法也。次一法輪者，即顯教也，以摩騰為始祖焉；次二教令輪者，即密教也，以金剛智為始祖焉；次三心輪者(義加此輪)，即禪法也，以菩提達磨為始祖焉。是故傳法輪者以法音傳法音；傳教令輪者，以祕密傳祕密；傳心輪者，以心傳心，此之三教、三輪、三祖，自西而東，化凡而聖，流十五代(漢、魏、晉、宋、齊、梁、陳、隋、唐、朱梁、後唐、石晉、劉漢、郭周、今大宋)，法門之貽厥孫謀，萬二千年，真教之克昌厥後。」

或曰：「譯場、經館，設官分職，可得聞乎？」曰：「此務所司，先宗『譯主』——即齋葉書之三藏——，明練顯、密二教者充之。次則『筆受』者，必言通華、梵，學綜有、空，相問委知，然後下筆。西晉、偽秦已來立此員者，即沙門道含、玄蹟、姚嵩、聶承遠父子。至于帝王，即姚興、梁武、天后、中宗，或躬執翰，又謂為『綴文』也。次則『度語』者，正云『譯語』也。傳度轉令生解，亦名『傳語』，如翻《顯識論》，沙門戰陀譯語是也。次則『證梵本』者，求其量果，密能證知，能詮不差，所顯無謬矣。如居士伊舍羅證譯《毘柰耶》梵本是也。至有立『證梵義』一員，乃明西義得失，貴令華語下不失梵義也。復立『證禪義』一員，沙門大通充之。次則『潤文』一位，員數不恆，令通內、外學者充之。良以筆受在其油素，文言豈無俚俗，儻不失於佛意，何妨刊而正之。故義淨譯場，則李嶠、韋嗣立、盧藏用等二十餘人次文潤色也。次則『證義』，蓋證已譯之文所詮之義也。如譯《婆沙論》，慧嵩、道朗等三百人考正文義，唐復禮累場充任焉。次則『梵唄』，法筵肇啟，梵唄前興，用作先容，令生物善，唐永泰中方聞此位也。次則『校勘』，讎對已譯之文，隋則彥琮覆疏文義，蓋重慎之至也。次則『監護大使』，後周平高公侯壽為總監檢校，唐則房梁公為英師監護，相次許觀、楊慎交、杜行顛等充之。或用僧員，則隋以明穆、曇遷等十人監掌翻譯事，詮定宗旨。其處則秦逍遙園、梁壽光殿、瞻雲館、魏汝南王宅。又隋煬帝置翻經館，其中僧有學士之名。唐於廣福等寺，或宮園不定。又置『正字』、『字學』，玄應曾當是職，後或置或否。朝廷罷譯事，自唐憲宗元和五年至于周朝，相望可一百五十許歲，此道寂然。

「迨我皇帝臨大寶之五載，有河中府傳顯密教沙門法進請西域三藏法天譯經于蒲津，州府官表進，上覽大悅，各賜紫衣，因勅造譯經院於太平興國寺之西偏。續勅搜購天下梵夾，有梵僧法護、施護同參其務，左街僧錄智照大師慧溫證義。又詔滄州三藏道圓證梵字，慎選兩街義解沙門志顯綴文，令遵、法定、清沼筆受，守巒、道真、知遜、法雲、慧超、慧達、可瓌、善祐、可支證義，倫次綴文，使臣劉素、高品王文壽監護，禮部郎中張洎、光祿卿湯悅次文潤色，進《校量壽命經》、《善惡報應經》、《善見變化》、《金曜童子》、《甘露鼓》等經，有命授三藏天息災、法天、施護師號，外試鴻臚少卿、賜厩馬等。筆受、證義諸沙門各賜紫衣并帛有差。御製新譯經序，冠于經首。觀其佛日重光，法輪發軔，赤玉箱而啟祕，青蓮朵以開芳，聖感如然，前代孰堪比也。

「又以宣譯之者樂略、樂繁。隋之已前，經題簡少；義淨已降，經目偏長。古則隨取強名，後則繁盡我意。又舊翻祕呪，少注合呼。

唐譯明言，多詳音反，受持有驗，斯勝古蹤。淨師大譯諸經，偏精『律部』，自高文彩，最有可觀。金剛智也祕藏祖師，阿目佉也多經譯匠，師資相接，感應互彰。無畏言辭且多朴實。覺救加《佛頂》之句，人無間然。日照出《顯識》之文，刃有餘地。思惟《胃索》，學喜《華嚴》，密語斷章，大人境界。流志《寶積》，菩提《曼荼》；『華胥』之理致融明，『灌頂』之風標祕邃；迪公勤其筆受，般若終乎譯場。其餘諸公，皆翻夾牒，欲知狀貌，聊舉喻言。其猶人也，人皆人也，奈何姿制形儀，各從所尚，尚其父焉。若如此，大則同而小有異耳。良由譯經是佛法之本，本立則道生。其道所生，唯生釋子，是以此篇冠首。故曰先王將禁海，必先有事于河者，示不忘本也。」

宋高僧傳卷第三

宋左街天壽寺通慧大師賜紫沙門贊寧等奉 勅撰

義解篇第二之一(正傳二十一人附見七人)

唐京兆大慈恩寺窺基傳

釋窺基，字洪道，姓尉遲氏，京兆長安人也。尉遲之先與後魏同起，號「尉遲部」，如中華之諸侯國，入華則以部為姓也。魏平東將軍說六代孫孟都生羅迦，為隋代州西鎮將，乃基祖焉。考諱宗，唐左金吾將軍、松州都督、江由縣開國公。其鄂國公德則諸父也，《唐書》有傳。基母裴氏夢掌月輪吞之，寤而有孕。及乎盈月誕彌，與群兒弗類，數方誦習，神晤精爽。奘師始因陌上見其眉秀目朗，舉措疎略，曰：「將家之種，不謬也哉。脫或因緣相扣，度為弟子，則吾法有寄矣。」復念在印度時計迴程次，就尼犍子邊占，得卦甚吉：「師但東歸，哲資生矣。」遂造北門將軍，微諷之出家。父曰：「伊類麤悍，那勝教詔？」奘曰：「此之器度，非將軍不生，非某不識。」父雖然諾，基亦強拒。激勉再三，拜以從命，奮然抗聲曰：「聽我三事，方誓出家。不斷情欲、葷血、過中食也。」奘先以欲勾牽，後令人佛智，佯而肯焉。行駕累載前之所欲，故關輔語曰「三車和尚」。即貞觀二十二年也。一基自序云：「九歲丁艱，漸疎浮俗。」若然者，三車之說，乃厚誣也。至年十七，遂預緇林。及乎入法，奉勅為奘師弟子，始住廣福寺。尋奉別勅，選聰慧穎脫者入大慈恩寺。躬事奘師，學五竺語，解紛開結，統綜條然。聞見者無不歎伏。凡百犍度、跋渠，一覽無差，寧勞再憶？年二十五，應詔譯經，講通大小乘教三十餘本。創意留心，勤勤著述，蓋切問而近思，其則不遠矣。造「疏」計可百本。奘所譯《唯識論》，初與昉、尚、光四人同受，潤色、執筆、檢文、纂義。數朝之後，基求退焉。奘問之，對曰：「夕夢金容，晨趨白馬，雖得法門之糟粕，然失玄源之醇粹，某不願立功於參糴。若意成一本，受責則有所歸。」奘遂許之。以理遣三賢，獨委於基，此乃量材授任也。時隨受撰錄所聞，講周疏畢。無何，西明寺測法師亦俊朗之器，於《唯識論》講場，得計於闍者，賂之以金，潛隱厥形，聽尋聯綴，亦疏通論旨。猶數座方畢，測於西明寺鳴椎集僧，稱講此論。基聞之，慚居其後，不勝悵快。奘勉之曰：「測公雖造疏，未達因明。」遂為講陳那之論，基大善「三支」，縱橫立破，述義命章，前無與比。又云，請奘師唯為己講《瑜伽論》，還被測

公同前盜聽，先講。奘曰：「五性宗法，唯汝流通，他人則否。」後躬遊五臺山，登太行，至西河古佛宇中宿，夢身在半山，巖下有無量人唱苦聲，冥昧之間，初不忍聞。徒步陟彼層峯，皆瑠璃色，盡見諸國土。仰望一城，城中有聲曰：「住住，咄，基公未合到此。」斯須，二天童自城出，問曰：「汝見山下罪苦眾生否？」答曰：「我聞聲而不見形。」童子遂投與劍一鐔曰：「剖腹當見矣。」基自剖之，腹開，有光兩道暉映山下，見無數人受其極苦。時童子入城，持紙二軸及筆投之，捧得而去。及旦，驚異未已。過信夜，寺中有光，久而不滅。尋視之，數軸發光者，探之，得《彌勒上生經》。乃憶前夢，必慈氏令我造疏，通暢厥理耳。遂援毫次，筆鋒有舍利二七粒而隕，如吳含桃許大，紅色可愛。次零然而下者，狀如黃梁粟粒。一云，行至太原傳法，三車自隨，前乘經論箱帙，中乘自御，後乘家妓女僕食饌。於路間遇一老父，問乘何人。對曰：「家屬。」父曰：「知法甚精，携家屬偕，恐不稱教。」基聞之，頓悔前非，儻然獨往。老父則文殊菩薩也。此亦卮語矣。隨奘在玉華宮參譯之際，三車何處安置乎？基隨處化徒，獲益者眾。東行博陵，有請講《法華經》，遂造《大疏》焉。及歸本寺，恒與翻譯舊人往還。屢謁宣律師。宣每有諸天王使者執事，或冥告雜務。爾日基去方來，宣怪其遲暮，對曰：「適者大乘菩薩在此，善神翼從者多，我曹神通為他所制故爾。」以永淳元年壬午示疾，至十一月十三日長往于慈恩寺翻經院，春秋五十一，法臘無聞。葬于樊村北渠，祔三藏奘師塋隴焉。弟子哀慟，餘外執紼會葬，黑白之眾盈于山谷。基生常勇進，造彌勒像，對其像日誦菩薩戒一遍，願生兜率，求其志也。乃發通身光瑞，爛然可觀。復於五臺造玉石文殊菩薩像，寫金字《般若經》畢，亦發神光焉。弟子相繼取基為折中，視之如奘在焉。太和四年庚戌七月癸酉，遷塔于平原，大安國寺沙門令儉檢校塔亭，徙棺，見基齒有四十根不斷玉如。眾彈指言是佛之一相焉。凡今天下佛寺圖形，號曰「百本疏主真」，高宗大帝製讚。一云玄宗。然基魁梧堂堂，有桓起之氣，而慈濟之心，誨人不倦，自天然也。其符彩則項負玉枕，面部宏偉，交手十指若印契焉。名諱上字多出沒不同者，為以《慈恩傳》中云：奘師龍朔三年於玉華宮譯《大般若經》終筆，其年「十一月二十二日令大乘基奉表奏聞，請御製序。至十二月七日通事舍人馮義宣。」由此云「靈基」，《開元錄》為「窺基」，或言「乘基」，非也。彼曰大乘基，蓋慧立、彥悰不全斥，故云大乘基，如言不聽泰耳，猶謹遣大乘光奉表同也。今海內呼慈恩法師焉。系曰：「性相」義門，至唐方見大備也。奘師為瑜伽、唯識開創之祖，基乃守文述作之宗。唯「祖」與「宗」，百世不除之祀也。蓋

功德被物，廣矣大矣。奘苟無基，則何祖張其學乎？開天下人眼目乎？二師立功與言，俱不朽也。然則基也，鄂公猶子，奘師門生，所謂將家來為法將，千載一人而已。故《書》有之，「厥父菑，厥子乃肯播，矧能肯穫？」其百本疏主之謂歟！

唐京師西明寺道世傳

釋道世，字玄暉，姓韓氏，厥先伊闕人也。祖代因官為京兆人焉。生且渥潤，漸而聰敏，俄厭眾沙，思參救蟻。二親鍾愛，遏絕其請，久而遂心。時年十二，於青龍寺出家，從執德瓶，止臨欣鑑，律宗研覈，書籍鑽尋，特慕上乘，融明實性，于時籍甚，三輔欽歸。顯慶年中，大帝以玄奘師所翻經、論，未幾詔入內，及慈恩寺大德更代行道，不替於時，世亦預其選。及為皇太子造西明寺，爰以英博召入斯寺。時道宣律師當塗行律，世且旁敷，同驅五部之車，共導三乘之軌，人莫我及，道望芬然。復因講貫之餘，仍覽甚深之藏。以為古今綿代，製作多人，雖雅趣佳辭，無足於傳記。由是搦文囿之菁華，嗅大義之瞻蔔，以類編錄，號《法苑珠林》，總一百篇，勒成十帙。始從〈劫量〉，終乎〈雜記〉，部類之前，各序別論。令學覽之人，就門隨部，檢括所知，如提綱焉，如舉領焉。世之用心周乎十稔，至總章元年畢軸，蘭臺郎李儼為之都序，此文行于天下。又著《善惡業報》及《信福論》共二十三卷，《大小乘禪門觀》及《大乘觀》共十一卷，《受戒儀式》、《禮佛儀式》共六卷，《四分律討要》五卷、《四分律尼鈔》五卷、《金剛經集注》三卷，十部都一百五十三卷。世頗多著述。未測其終。名避太宗廟諱，多行字耳，故時稱玄暉焉。

唐京兆大慈恩寺普光傳

釋普光，未知何許人也。明敏為性，爰擇其木，請事三藏奘師。勤恪之心，同列靡及。至於智解，可譬循環，聞少證多，奘師默許。末參傳譯，頭角特高左右，三藏之美，光有功焉。初，奘嫌古翻《俱舍》，義多缺然，躬得梵本再譯真文，乃密授光，多是記憶西印薩婆多師口義。光因著疏解判。一云其疏至圓暉略之為十卷，如漢之有淹歟？又嘗隨奘往玉華宮譯《大般若經》，厥功出乎裨贊也，時號大乘光。觀夫奘自貞觀十九年創譯，記麟德元年，終于玉華宮，凡二十載，總出大小乘經律論七十五部一千三百三十五卷，十分七八是光筆受，或謂嘉光、普光也。若驗從辯機同參譯務，即普光是也。

唐京兆大慈恩寺法寶傳(勝莊)

釋法寶，亦三藏奘師學法之神足也。性靈敏利，最所先焉。奘初譯《婆沙論》畢，寶有疑情，以「非想見惑」，請益之。奘別以十六字入乎論中，以遮難辭。寶白奘曰：「此二句四句為梵本有無？」奘曰：「吾以義意酌情作耳。」寶曰：「師豈宜以凡語增加聖言量乎？」奘曰：「斯言不行，我知之矣。」自此怱怱頡頏于奘之門，至乎「六離合釋」義，俱舍宗以寶為定量矣。光師往往同迦濕彌羅餘師禮記衍字也。時光、寶二法師若什門之融、叡焉。後越精義學，令問孔膠。長安三年，於福先寺、京西明寺預義淨譯場，寶與法藏、勝莊等證義，于時頗露頭角，莫之與京歟！

唐京師西明寺圓測傳(薄塵靈辯)

釋圓測者，未詳氏族也。自幼明敏，慧解縱橫。三藏奘師為慈恩基師講新翻《唯識論》，測賂守門者隱聽，歸則緝綴義章。將欲罷講，測於西明寺鳴鐘召眾，稱講《唯識》。基嫌其有奪人之心，遂讓測講訓。奘講《瑜伽》，還同前盜聽受之，而亦不後基也。迨高宗之末，天后之初，應義解之選，入譯經館，眾皆推挹。及翻《大乘顯識》等經，測充證義，與薄塵、靈辯、嘉尚攸方其駕。所著《唯識疏鈔》，詳解經論，天下分行焉。

唐京師安國寺元康傳

釋元康，不詳姓氏。貞觀中遊學京邑，有彭亨之譽。形擁腫而短，然其性情酋勇，聞少解多，群輩推許。先居山野，恒務持誦《觀音》，求加慧解，遂感鹿一首，角分八岐，厥形絕異。康見之，撫而馴伏，遂豢養之，乘而致遠，曾無倦色。以《三論》之文荷之于背，又以小軸繫之於尾，曳入上都，意為戲弄：「說有之徒不達空性，我與輕軸碾之，令悟真理。」又衣大布，曳納播，戴竹笠，笠寬丈有二尺。裝飾詭異，人皆駭觀。既入京城，見一法師盛集講經化導。康造其筵，近其座，便就所講義申問，往返數百言，人咸驚康之辯給如此。復戲法師曰：「甘桃不結實，苦李壓低枝。」講者曰：「輪王千箇子，巷伯勿孫兒。」蓋譏康之無生徒也。康曰：「丹之藏者赤，漆之藏者黑，隨汝之赤者非纁絳焉，入汝之黑者非鉛墨焉。」舉眾皆云：「辭理渙然，可非垂跡之大士也？」帝聞之，喜曰：「何代無其人？」詔入安國寺講此《三論》。遂造疏，

解中觀之理。別撰《玄樞》兩卷，總明《中》、《百》、《門》之宗旨焉。後不測其終。

系曰：康師曳納播者何？通曰：「梵言立播，華言裹腹衣，亦云抱腹，形制如偏袒，一幅纔穿得手，肩袖不寬。著在左邊，右邊施帶，多貯綿絮。然是禦寒之服，熱國則否，用此亦聖開。流于東土，則變成色帛，而削幅綴于左右袖上，垂之製曳然，旌表我通瞻經論。一本則曳一支，多則多曳。未知稽古自何人始乎？今單言『播』，略『立』字耳，全非禦寒之意，翻為『我慢之衣』。既失元端，而多濫作，別形聖教以俟後賢，此外無施異制以亂大倫。

《詩》曰：『服之不稱，身之災也』，吁！」

唐簡州福聚寺靖邁傳

釋靖邁，梓潼人也。少孺矜持，長高志操，特於經論研覈造微。氣性沈厚，不妄交結，遊必擇方，抵于京輔。貞觀中，屬玄奘西迴，勅奉為太穆太后於京造廣福寺，就彼翻譯。所須吏力，悉與玄齡商量，務令優給。遂召證義大德諳練大小乘經論，為時所尊尚者，得一十一人，邁預其精選，即居慈恩寺也。同普光寺棲玄、廣福寺明濬、會昌寺辯機、終南山豐德寺道宣同執筆綴文，翻譯《本事經》七卷。邁後與神昉筆受於玉華宮及慈恩寺翻經院，皆推適變，故得經心矣。後著《譯經圖紀》四卷，銓序古今經目、譯人名位、單譯、重翻、疑偽等科，一皆條理，見編于藏。開元中，智昇又續其題目焉。

唐新羅國順璟傳

釋順璟者，樂浪郡人也，本土之氏族，東夷之家系，故難詳練。其重譯學聲教，蓋出天然。況乎「因明」之學，奘師精研，付受華僧，尚未多達。璟之克通，非其宿殖之力，自何而至於此歟？傳得奘師「真唯識量」，乃立〈決定相違不定量〉。於乾封年中因使臣入貢附至。于時奘師長往向及二年。其量云：「真故極成色，定離眼識，自許初三攝，眼所不攝故，猶如眼根。」良以三藏隱密周防，非大智不明。璟為「宗」云：「不離於眼識，自許初三攝，眼所不攝故，猶如眼識也。」如此善成他義。時大乘基覽此作，便見璟所不知。雖然，終仰邊僧識見如此，故歎之曰：「新羅順璟法師者，聲振唐蕃，學包大小。業崇迦葉，唯執行於杜多；心務薄拘，恒馳聲於少欲。既而蘊藝西夏，傳照東夷，名道日新，緇素欽揖。雖彼龍象不少，海外時稱獨步，於此量作『決定相違』。」基師念

遠國之人有茲利慧，搪突瑒師，暗中機發，善成三藏之義，惜哉！環在本國稍多著述，亦有傳來中原者，其所宗，「法相大乘了義教」也。見《華嚴經》中始從發心便成佛已，乃生謗毀不信。或云：「當啟手足，命弟子輩扶掖下地，地則徐裂，環身俄墜。」時言生身陷地獄焉。于今有坑，廣袤丈餘，實坎窞然，號「順環捺落迦也」。

系曰：曲士不可以語道者，束其教也。是故好白者以黑為污，好黑者以白為污焉。環怒心尤重，猛利業增如射箭，頃墮在地獄。列高僧品次，起穢以自臭耶？通曰：「難信之法，易速謗誚，謗誚豈唯一人乎？俾令眾所知識者直陷三塗，乃知順環真顯教菩薩也。況乎趙盾為法受惡，菩薩乃為法亡身。斯何足怪？君不見尼犍外道一一謗佛，而獨使提婆生陷，後於法華會上受記作佛，靜言思之。」

唐京兆大慈恩寺嘉尚傳

釋嘉尚，未知何許人也。慧性天資，瓌奇氣質，篇聚堅守，性相克攻，勤在進修，務於翻譯。遠棲心于瑒三藏門，見宗廟之富，窺室家之好。久稽考《瑜伽師地》、《佛地論旨》、《成唯識論》，深得義趣。隨瑒於玉華宮譯《大般若經》，充證義綴文，多能傑出。及三藏有疾，命尚具錄所翻經論合七十五部，總一千三百三十五卷。又錄俱胝畫像一千幀，造十俱胝像，寫經、放生、然燈，令尚宣讀。瑒合掌歡喜曰：「吾心中願也，汝代導之，得沒而無悔焉。」瑒卒，著述疏鈔出雜集，義門夥多。天后朝同薄塵、靈辯等預譯場證義，功績愈繁。尚初侍瑒師在玉華宮翻經，至初會《嚴淨佛土品》，說諸佛菩薩以神通願力，盛大千界上妙珍寶、諸妙香花及意樂所生五塵妙境供養莊嚴說法處，與寺主慧德夜觀玉華寺內廣博嚴淨，伎樂盈滿。又聞三堂講法。明日白瑒，歡喜符合。尚不知所終。

唐淄州慧沼傳(大願塵外)

釋慧沼，不知何許人也。少而警慧，始預青衿，依于庠序，誦習該通。入法修身，不違戒範，乃被時諺沼闍梨焉。次攻堅于經論，善達翻傳。自瑒三藏到京，恒窺壺奧。後親大乘基師，更加精博。及菩提流志於崇福寺譯《大寶積經》，沼預其選，充證義，新羅勝莊法師執筆，沙門大願、塵外皆一時英秀，當代象龍。于時武平一充使，盧藏用、陸景初總預斯場。中書侍郎崔湜因行香至翻經院，歎曰：「清流盡在此矣，豈應見隔？」因奏請乞同潤色新經。初，沼

證義於義淨譯場，多所刊正，訛言舛義，悉從指定，無敢踰制。後著諸疏義，號淄州沼也。

唐京兆大慈恩寺彥悰傳

釋彥悰，未知何許人也。貞觀之末，觀光上京，求法于三藏法師之門。然其才不迨光、寶，遍長綴習學耳。於玄儒之業，頗見精微。辭筆之能，殊超流輩。有魏國西寺沙門慧立性氣剋休，以護法為己任，著傳五卷，專記三藏自貞觀中一行盛化及西域所歷夷險等，號《慈恩傳》，蓋取寺題也。及削藁云畢，慮遺諸美，遂藏于地穴。至疾亟，命門徒掘土出之而卒。其本數年流散他所，搜購乃獲。弟子等命悰排次之，序引之，或文未允，或事稍虧，重更申明，曰「箋述」是也。乃象鄭司農箋「毛」之詁訓也。或有調之曰：「子與隋彥琮相去幾何？」對曰：「賜也，何敢望回，雖長卿慕藺，『心宗』慕於『玉宗』，故有以也。」《詩》曰：「言念君子，溫其如玉」，自許亦顏之士也。或人許焉。悰不知終所。

唐新羅國義湘傳

釋義湘，俗姓朴，雞林府人也。生且英奇，長而出離，逍遙入道，性分天然。年臨弱冠，聞唐土教宗鼎盛，與元曉法師同志西遊，行至本國海門、唐州界，計求巨艦，將越滄波。倏於中塗遭其苦雨，遂依道旁土龕間隱身，所以避飄濕焉。迨乎明旦相視，乃古墳骸骨旁也。天猶霪霖，地且泥塗，尺寸難前，逗留不進。又寄埏壁之中，夜之未央，俄有鬼物為怪。曉公歎曰：「前之寓宿，謂土龕而且安；此夜留宵，託鬼鄉而多崇。則知心生故種種法生，心滅故龕墳不二。又三界唯心，萬法唯識。心外無法，胡用別求？我不入唐。」却携囊返國，湘乃隻影孤征，誓死無退。以總章二年附商船達登州岸，分衛到一信士家，見湘容色挺拔，留連門下既久，有少女麗服靚粧，名曰善妙，巧媚誨之，湘之心石不可轉也。女調不見答，頓發道心，於前矢大願言：「生生世世歸命和尚，習學大乘，成就大事，弟子必為檀越供給資緣。」湘乃徑趨長安終南山智嚴三藏所，綜習《華嚴經》。時康藏國師為同學也。所謂知微知章，有倫有要。德瓶云滿，藏海嬉遊，乃議迴程，傳法開誘。復至文登舊檀越家，謝其數稔供施，便募商船，逡巡解纜。其女善妙預為湘辦集法服并諸什器，可盈篋笥，運臨海岸。湘船已遠，其女呪之曰：「我本實心供養法師，願是衣篋跳入前船！」言訖，投篋于駭浪。有頃，疾風吹之若鴻毛耳，遙望徑跳入船矣。其女復誓之：「我願

是身化為大龍，扶翼舳舻到國傳法。」於是攘袂投身于海，將知願力難屈，至誠感神，果然伸形夭矯，或躍蜿蜒，其舟底寧，達于彼岸。湘入國之後，遍歷山川，於駒麗、百濟風馬牛不相及地，曰：「此中地靈山秀，真轉法輪之所。」無何，權宗異部聚徒可半千眾矣。湘默作是念，大《華嚴》教，非福善之地不可興焉。時善妙龍恒隨作護，潛知此念；乃現大神變於虛空中，化成巨石，縱廣一里，蓋于伽藍之頂，作將墮不墮之狀。群僧驚駭，罔知攸趣，四面奔散。湘遂入寺中，敷闡斯經，冬陽夏陰，不召自至者多矣。國王欽重，以田莊奴僕施之。湘言於王曰：「我法平等，高下共均，貴賤同揆。《涅槃經》八不淨財，何莊田之有？何奴僕之為？貧道以法界為家，以孟耕待稔，法身慧命藉此而生矣。」湘講樹開花，談叢結果，登堂覩奧者則智通、表訓、梵體、道身等數人，皆啄巨殼飛出迦留羅鳥焉。湘貴「如說行」，講宣之外，精勤修練，莊嚴剎海，靡憚暄涼。又常行義淨洗穢法，不用巾帨，立期乾燥而止。持三法衣，瓶鉢之餘，曾無他物。凡弟子請益，不敢造次，伺其怡寂而後啟發。湘乃隨疑解滯，必無滓核。自是已來，雲遊不定，稱可我心，卓錫而居。學侶蜂屯，或執筆書紳，懷鉛札葉，抄如結集，錄似載言，如是義門隨弟子為目，如云《道身章》是也。或以處為名，如云《錐穴問答》等數章。疏皆明《華嚴》性海，毘盧遮那、無邊契經義例也。湘終于本國，塔亦存焉，號海東華嚴初祖也。

唐京兆大慈恩寺義忠傳

釋義忠，姓尹氏，潞府襄垣人也。年始九歲，宿殖之性，志願出家，得淄州沼閣梨為師，若鳳巢中之生鵝雛也。少秉奇操，慧解不倫。沼授與《大涅槃經》，時十三歲矣。相次誦徹四十卷，眾皆驚駭，號「空門奇童」也。二十登戒，學《四分律》，義理淹通。旁習《十二門論》二本，即當講演。沼師知是千里之駿，學恐失時，聞長安基師新造疏章，門生填委，聲振天下。乃師、資相將，同就基之講肆，未極五年，又通二經五論，則《法華》、《無垢稱》及《百法》、《因明》、《俱舍》、《成唯識》、《唯識道》等也。由茲開獎，弟子繁多，講樹別茂於枝條，義門旁開於關竅，乃著《成唯識論纂要》、《成唯識論鈔》三十卷、《法華經鈔》二十卷、《無垢稱經鈔》二十卷。《百法論疏》最為要當，移解「二無我」歸後，是以掩慈恩之繁，于今盛行勿過忠本。所謂列群玉，貫眾花，玉裝瓊樹之林，花綴蜀機之錦。輩流首伏，聲彩悠颺。況基師正照於太陽，忠也旁銜於龍燭，四方美譽，千里歸心者，不可勝算矣。傳持靡怠，僅五十餘年，計講諸教七十許遍。至年七十二，

忽起懷土之心，歸于昭義，示同初夏誦戒行道。每一坐時，面向西北，仰視兜率天宮，冥心內院，願捨壽時得見天主，永離凡濁，終得轉依。一日，晨興澡洗訖，整肅容儀，望空禮拜，如有哀告之狀。少頃，結加趺坐，囑付流通教法之意畢，忽異香滿室，彩雲垂空。忠合掌仰視曰：「穢弱比丘，何煩大聖躬來引接？」言盡而化。鄉人道俗建塔供養，全身不壞，至今河東鄉里高岡存焉。

唐新羅國黃龍寺元曉傳(大安)

釋元曉，姓薛氏，東海湘州人也。丕髻之年，惠然入法，隨師稟業，遊處無恒。勇擊義圍，雄橫文陣，屹屹然，桓桓然，進無前却，蓋「三學」之淹通，彼土謂為萬人之敵，精義入神，為若此也。嘗與湘法師入唐，慕奘三藏慈恩之門，厥緣既差，息心遊往。無何，發言狂悖，示跡乖疎，同居士入酒肆倡家，若誌公持金刀鐵錫，或製疏以講《雜華》，或撫琴以樂祠宇，或閭閻寓宿，或山水坐禪，任意隨機，都無定檢。時國王置百座《仁王經》大會，遍搜碩德，本州以名望舉進之。諸德惡其為人，譖王不納。居無何，王之夫人腦嬰癰腫，醫工絕驗，王及王子臣屬禱請山川靈祠，無所不至。有巫覡言曰：「苟遣人往他國求藥，是疾方瘳。」王乃發使泛海入唐，募其醫術。溟漲之中，忽見一翁由波濤躍出，登舟邀使人入海，覩宮殿嚴麗，見龍王。王名鈴海，謂使者曰：「汝國夫人是青帝第三女也，我宮中先有《金剛三昧經》，乃『二覺』圓通，示菩薩行也。今託仗夫人之病，為增上緣，欲附此經出彼國流布耳。」於是將三十來紙重沓散經付授使人。復曰：「此經渡海中，恐罹魔事。」王令持刀裂使人膈腸，而內于中，用蠟紙纏滕，以藥傅之，其膈如故。龍王言：「可令大安聖者銓次綴縫，請元曉法師造疏講釋之，夫人疾愈無疑。假使雪山阿伽陀藥力亦不過是。」龍王送出海面，遂登舟歸國。時王聞而歡喜，乃先召大安聖者黏次焉。大安者，不測之人也，形服特異，恒在市廛，擊銅鉢唱言：「大安、大安……」之聲，故號之也。王命安，安云：「但將經來」，不願入王宮闕。安得經，排來成八品，皆合佛意。安曰：「速將付元曉講，餘人則否。」曉受斯經，正在本生湘州也，謂使人曰：「此經以本、始二覺為宗，為我備角乘，將案几，在兩角之間置其筆硯。」始終於牛車造疏，成五卷。王請剋日於黃龍寺敷演。時有薄徒竊盜新疏，以事白王，延于三日，重錄成三卷，號為《略疏》。洎乎王臣道俗雲擁法堂，曉乃宣吐有儀，解紛可則，稱揚彈指，聲沸于空。曉復昌言曰：「昔日採百椽時，雖不預會。今朝橫一棟處，唯我獨能。」時諸名德俯顏慚色，伏膺懺悔焉。初曉

示跡無恒，化人不定，或擲盤而救眾，或嚙水而撲焚，或數處現形，或六方告滅，亦盃渡、誌公之倫歟？其於解性，覽無不明矣。「疏」有廣、略二本，俱行本土。略本流入中華，後有翻經三藏改之為論焉。

系曰：「海龍之宮自何而有經本耶？」通曰：「經云龍王宮殿中有七寶塔，諸佛所說諸深義，別有七寶篋滿中盛之，謂十二因緣、總持、三昧等。良以此經合行世間，復顯大安、曉公神異，乃使夫人之疾為起教之大端者也。」

周京兆崇福寺神楷傳(明恂)

釋神楷，姓郭氏，太原人也，即漢末林宗之後。世襲冠裳，後隨父宦于秦，為京兆人也。昆弟六人，楷居其季。幼而聰敏，立志弗群，不樂浮榮，誓求翦落，禮明恂法師為弟子，即大乘恂也。洎乎年滿受具，於經論義理，大小該通，耳聞口誦，譬鮮氈之易染。遂講《攝大乘》、《俱舍》等論，穎悟輩流罕有齊駕。後因講《淨名經》，見古師判處，喟然歎曰：「美則美矣，未盡善也！」乃於安陸白趙山撰疏，一云在越州剡石城寺述作。素有巧性，於剡溪南巖之下，映水塑貌。今有池，已涸矣。巖下石隙縫間幽暗，然中有木棺者，云是楷殯于此。遊人下窺，歷歷皆覩。又言楷因慈恩、西明等寺度公王出家。及翻經論，勅諸道高行才學僧並赴京師，遂應詔而入，配居崇業寺。至天后朝，方行其疏。後卒於此寺，弟子遷塔于南逍遙園焉，實大乘基之法門猶子也。

系曰：「楷師遺迹，何京兆、剡溪二處？孰是？令人疑惑，若兩家之俱見薊訓焉。此乃古人名顯於四方，因子孫南北徙遷，追念先宗，遂有僑置焉。如晉氏渡江，衣冠之家多立祖先之遺迹同也。若然者，剡則是楷曾遊歷之地也。」

周京兆廣福寺會隱傳

釋會隱，不詳何許人也。精明之氣，綽有盈餘，處于等夷，若雞群之見鶴也。天皇朝慎選高學名德，隱膺斯選。麟德二年勅北門西龍門修書所，同與西明寺玄則等一十人於一切經中略出精義玄文三十卷，號《禪林要鈔》，書成奏呈，勅藏祕閣。隱亦嘗預翻譯，玄則頗聞著述，高宗朝斯為龍象之最焉。

周虎丘山寺僧瑗傳

釋僧瑗，字辯空，姓郁氏，高平昌邑人也。姬水疏源，狼亭襲慶——魯相繼昌侯之業，歷載彌光；少傳纂尚書之風，清塵不昧。瑗夙殖奇穎，早擅嘉祥。母趙氏娠孕之日，側侍聖賢浮空遊樂。及年六歲，隨母入舍利塔，見聖僧像，欣然跳躍，狀若舊交，因啟母出家。母以其尚幼，抑而未許。至年十三，方遂其志，依虎丘寺慧嚴法師為弟子。謙揖之操，出自生知；辯慧之能，業稱上首。以龍朔二年奉勅剃翦，冥符所應，還隸此山。暨嚴公長往，乃依慧詡禪師受具足戒，聽常樂寺聰法師三《論》，甚深無相，疑滯豁除，方便解脫，怡然獨悟。因智從心證，遂詣江寧融禪師求學心法。攝念坐禪，眾魔斯伏；勤行精進，猛獸恒馴。是以名稱普聞，聲光八絕，旗亭趨利，削跡無踐。冬夏不易，常披一納。或滴水以充於夕渴，或數粒將濟於朝飢。或風雪凜凜，禮誦無替於六時；或炎暑熾熾，經行不虧於少選。稱揚歎羨，容色湛如；毀辱訶罵，歡喜而受。每蔭以長松，屬思鴻遠。清泉獨坐，映定水以彫文；虛室高栖，藹禪枝而蕩慮。撰《武丘名僧苑》一卷、注《郁子》兩卷、《文集》三卷，蓋道俗之儀表，人物之師範焉。永昌元年十二月二十日見身有疾，謂弟子曰：「吾聞屍所到處，便為穢惡，出就別方，乃稱離罪爾。」門弟子等迎止於通波亭北靜志莊，忽聞異香從空而下。瑗遺訓勤切，正觀叮嚀，滅後可依外國法。言訖合掌而終，春秋五十有一。緇素奔慟，咸悲眼滅。弟子僧義立及雉山縣尉檀信等同遵師旨，如法闍維，收其舍利，於寺建塔，勒銘于所。

唐會稽山妙喜寺印宗傳

釋印宗姓印氏，吳郡人也。母劉氏始娠，隣家咸見一沙門端雅，徐步入印舍，白劉曰：「願為子焉。」母夢同此，再三陳讓，不克。父夢有饋栴檀香木童子跪授付劉。劉頓厭葷羶，俗間食味隔在脣吻之外。及生而長，從師誦通經典，末最精講者《涅槃經》。咸亨元年在京都，盛揚道化。上元中，勅入大愛敬寺居，辭不赴，請於蘄春東山忍大師諮受禪法。復於番禺遇慧能禪師，問答之間，深詣玄理。還鄉地，刺史王冑禮重殊倫，請置戒壇，命宗度人，可數千百。續勅召入內，乃造慈氏大像。所著《心要集》，起梁至唐，天下諸達者語言總錄焉。又奉勅江東諸寺院，天柱、報恩各置戒壇度人。又纂百家諸儒士三教文意表明佛法者，重結集之。手筆逾高，著述流布。至先天二年二月二十一日示終，囑循輪王法葬之，年八十七。會稽王師乾立塔銘焉。

唐太原府崇福寺宗哲傳

釋宗哲，西河平遙人也。稚歲而有奇相，聰穎天資，既尋師範，砥節飾躬。屬玄奘三藏新翻諸經論，哲就其門，請益無替，凡幾周星，備窮諸典，若指于掌，於奘門下號為得意哲，猶隋慧布之題目焉。後因講唱，厥義日新，時謂之為「法江」。哲曰：「為吾謝此品藻焉，殊不知法海在乎太原矣。」所指者蓋浮丘為滄溟也。哲憫學者不達其意而師，諄哉，乃著義例，寰海之內莫不企羨。其如說「佛位三事喻」中，詔法師言「三點三目」，強分上下，勝劣配屬，太成巧誣。哲云三事俱得。然無名師品量。退而省之，哲其得矣。號之「得意」，豈虛也乎！詔師所以成餘師之說也。

唐洛京佛授記寺德感傳

釋德感，姓侯氏，太原人也。儀容瓌麗，學業精贍，眾典服勤，於《瑜伽論》特振聲彩。天皇大帝徵為翻經大德。又與勝莊、大儀等同參義淨譯場。對[改-己+易]受賜，言謝瀏亮。帝悅，尋授封昌平縣開國公，累井田至三千戶。帝為讚曰：「河汾之寶，山嶽之英，早祛俗累，夙解塵纓。緇門仰德，紺宇馳聲。式亞龍樹，爰齊馬鳴。」為時君之所貴，為若此也。御製風行，緇伍榮之。後充河南佛授記寺都維那，晚升寺任，中外肅然。終年六十餘，著《義門》行于世。如其「七方便」、「人迴心」、「漸頓悟」義，與湛法師為勍敵耳，故交綏而退焉。

唐太原崇福寺浮丘傳

釋浮丘，姓張氏，太原人也。挺然奇表，慧悟絕倫。於《瑜伽論》差成精博，旁綜群書，言分雅俗，四方學者爭造其門。然訥於宣剖，敏於通解，深藏若虛，庸庸品類多所不知。于時哲公露其頭角，博聞強識之者懼其觝觸，豈況諸餘乎？哲惟神伏丘之義學，故謂為「法海」焉。享年七十餘，終于所居，然未聞其有所著述矣。
宋高僧傳卷第四

宋高僧傳卷第五

宋左街天壽寺通慧大師賜紫沙門贊寧等奉 勅撰

義解篇第二之二(正傳十四人附見五人)

周洛京佛授記寺法藏傳(大儀)

釋法藏字賢首，姓康，康居人也。風度奇正，利智絕倫，薄遊長安，彌露鋒穎，尋應名僧義學之選。屬奘師譯經，始預其間，後因筆受、證義、潤文，見識不同而出譯場。至天后朝，傳譯首登其數。實又難陀齋《華嚴》梵夾至，同義淨、復禮譯出新經。又於義淨譯場，與勝莊、大儀證義。昔者燉煌杜順傳《華嚴法界觀》與弟子智儼，講授此晉譯之本。智儼付藏，藏為則天講新《華嚴經》。至天帝網義、「十重玄門」、「海印三昧門」、「六相和合義門」、「普眼境界門」，此諸義章皆是《華嚴》總別義網，帝於此茫然未決。藏乃指鎮殿金獅子為喻，因撰義門，徑捷易解，號《金獅子章》，列十門總別之相，帝遂開悟其旨。又為學不了者設巧便，取鑑十面，八方安排，上下各一，相去一丈餘，面面對，中安一佛像，燃一炬以照之，互影交光。學者因曉剎海涉入無盡之義。藏之善巧化誘，皆此類也。其如宣翻之寄，亦未能捨，蓋帝王歸信，緇伍所憑之故。洎諸梵僧罷譯，帝於聖曆二年己亥十月八日，詔藏於佛授記寺講大經，至〈華藏世界品〉，講堂及寺中地皆震動，都維那僧恒景具表聞奏。勅云：「昨請敷演微言，闡揚祕蹟。初譯之日，夢甘露以呈祥；開講之辰，感地動以標異。斯乃如來降迹，用符九會之文；豈朕庸虛，敢當六種之震。披覽來狀，欣惕于懷。」云。其為帝王所重，實稱非虛，所以華嚴一宗付授澄觀，推藏為第三祖也。著《般若心經疏》，為時所貴，天下流行。復號康藏國師是歟！

唐荊州玉泉寺恒景傳

釋恒景，姓文氏，當陽人也。貞觀二十二年勅度，聽習三藏，一聞能誦，如說而行。初就文綱律師隸業「毘尼」，後入覆舟山玉泉寺，追智者禪師習止觀門。於寺之南十里別立精舍，號龍興是也。自天后、中宗朝，三被詔入內供養為受戒師。以景龍三年奏乞歸山，勅允其請。詔中書、門下及學士於林光宮觀內道場設齋。先時追召天下高僧兼義行者二十餘人，常於內殿修福，至是散齋，仍送

景并道俊、玄奘各還故鄉。帝親賦詩，學士應和，即中書令李嶠、中書舍人李義等數人。時景等捧詩振錫而行，天下榮之。景撰《順了義論》二卷、《攝正法論》七卷、《佛性論》二卷。學其宗者，如渴之受漿。至先天元年九月二十五日卒于所住寺，春秋七十九。弟子奉葬于寺之西原也。

系曰：江陵玄奘與三藏法師形影相接，相去幾何。然其名同實異，亦猶藺相如得強秦之所畏，馬相如今楊雄之追慕。然則各有所長短，亦可見也。

唐中嶽嵩陽寺一行傳

釋一行，俗姓張，鉅鹿人也，本名遂，則唐初佐命~~郊~~國公公謹之支孫也。卅歲不群，聰黠明利，有老成之風。讀書不再覽，已暗誦矣。因遇普寂禪師大行禪要，歸心者眾，乃悟世幻，禮寂為師，出家剃染。所誦經法，無不精諷。寂師嘗設大會，遠近沙門如期必至，計逾千眾。時有徵士盧鴻，隱居於別峯，道高學富，朝廷累降蒲輪，終辭不起。大會主事先請鴻為導文，序讚邑社。是日鴻自袖出其文，置之机案。鐘梵既作，鴻謂寂公曰：「某為數千百言，況其字僻文古，請求朗俊者宣之，當須面指擿而授之。」寂公呼行，伸紙覽而微笑，復置机案。鴻怪其輕脫。及僧聚於堂中，行乃攘袂而進，抗音典裁，一無遺誤。鴻愕視久之，降歎不能已，復謂寂公曰：「非君所能教導也，當縱其遊學。」自是三學名師，罕不諮度。因往當陽，值僧真纂成《律藏序》，深達毘尼。然有陰陽讖緯之書，一皆詳究，尋訪算術，不下數千里，知名者往詢焉。末至天台國清寺見一院，古松數十步，門枕流溪，淡然岑寂。行立于門屏，聞院中布算，其聲兢兢然。僧謂侍者曰：「今日當有弟子自遠求吾算法，計合到門，必無人導達耶？」即除一算子。又謂侍者曰：「門前水合却西流，弟子當至。」行承其言而入，稽首請法，盡授其決焉，門前水復東流矣。自此聲振遐邇，公卿籍甚。玄宗聞之，詔入，謂行曰：「師有何能？」對曰：「略能記覽，他無所長。」帝遂命中官取宮籍以示之，行周覽方畢，覆其本，記念精熟，如素所習。唱數幅後，帝不覺降榻稽首曰：「師實聖人也。」嗟歎良久。尋乃詔對無恒，占其災福，若指于掌，言多補益。時邢和璞者，道術人，莫窺其際，嘗謂尹愔曰：「一行和尚真聖人也。漢洛下閎造曆云：『八百歲當差一日，則有聖人定之。』今年期畢矣。屬《大衍曆》出，正其差謬，則洛下閎之言可信。非聖人孰能預於斯矣！」又於金剛三藏學陀羅尼祕印，登前佛壇，受法王寶；復同無畏三藏譯《毘盧遮那佛經》，開後佛國。其傳《密藏》，必

抵淵府也。睿宗、玄宗並請入內集賢院，尋詔住興唐寺。所翻之經，遂著疏七卷，又《攝調伏藏》六十卷、《釋氏系錄》一卷、《開元大衍曆》五十二卷。其曆編入《唐書·曆律志》，以為不刊之典。又造游儀，黃、赤二道以鐵成規，於院製作。次有王媪者，行隣里之老嫗，昔多贍行之貧，及行顯遇，常思報之。一日拜謁云：「兒子殺人，即就誅矣。況師帝王雅重，乞奏減死，以供母之殘齡！」如是泣涕者數四，行曰：「國家刑憲，豈有論請而得免耶？」命侍僧給與若干錢物，任去別圖。媪戟手曼罵曰：「我居隣周給迭互，繡襦間抱乳汝。長成，何忘此惠耶！」行心慈愛，終夕不樂。於是運算畢，召淨人戒之曰：「汝曹挈布囊於某坊閑靜地，午時坐伺，得生類投囊，速歸。」明日，果有[狂-王+段]彘引狍七箇，淨人分頭驅逐，[狂-王+段]母走矣，得狍而歸。行已備巨瓮，逐一入之，閉蓋，以六乙泥封口，誦胡語數契而止。投明，中官下詔入問，云：「司天監奏：『昨夜北斗七座星全不見』，何耶？」對曰：「昔後魏曾失熒惑星，至今帝車不見。此則天將大徹於陛下也。夫匹夫匹婦不得其所，猶隕霜天旱，盛德所感，乃能退之。感之切者其在葬枯骨乎！釋門以慈心降一切魔，微僧曲見，莫若大赦天下。」玄宗依之。其夜占奏北斗一星見，七夜復初，其術不可測也。又開元中嘗旱甚，帝令祈雨，曰：「當得一器上有龍狀者，方可致雨。」勅令中官同於內庫中遍視之，皆言弗類。數日後指一古鑑，鼻盤龍，喜曰：「此真龍也。」乃將入壇場，一日而雨。其異術通感為若此也。玄宗在大明宮，從容密問社稷吉凶，并祚運終畢事，行對以他語。帝詢之不已，遂曰：「陛下當有『萬里』之行。」又曰：「社稷畢得終吉。」帝大悅。復遺帝一金合子，形若彈丸，內貯物，撼必有聲，發之不得，云：「有急則開。」帝幸蜀，倉黃都忘斯事，及到成都，忽憶啟之，則藥分中當歸也。帝曰：「伊藥產於此，師知朕違難至蜀當歸也。」復見萬里橋，曰：「一行之言，信其神矣。」命中官焚香祝之，乃告謝也。及昭宗初，封吉王，至太子德王，唐為梁滅，終行之言「社稷畢得終『吉』」也。開元十五年九月於華嚴寺疾篤，將輿病入辭，小間而止。玄宗此夜夢瞰禪居，見繩床、紙隔、開扇，曉而驗問，一如所覩。乃詔京城名德致大道場，為行祈福，危疾微愈。其寵愛如是。十月八日隨駕幸新豐，身無諸患，口無一言，忽然浴香水換衣，趺坐正念，怡然示滅。一云，辭告玄宗後，自駕前東來嵩山謁禮本師，即寂也。時河南尹裴寬正謁寂，寂云：「有少事，未暇與大尹欸話。且請踟躕休息也。」寬乃屏從人，止於旁室，伺寂何為。見潔淨正堂，焚香默坐，如有所待。斯須，叩門連聲云：「天師一行和尚至(僧號天師，始見於此，言天子師也)。」行人，頗忽切之狀，禮寂

之足，附耳密語，其貌愈恭。寂但頷鷹曰：「無不可者。」語訖又禮，禮語者三，寂唯言「是是，無不可者。」行語訖，降階入南室，自閉其戶。寂乃徐召侍者曰：「速聲鐘，一行已滅度。」左右疾走視之，瞑目而坐，手掩伺息，已絕。四眾弟子悲號沸渭，撼動山谷，乃停神於罔極寺。自終及葬，凡經三七日，爪甲不變，髭髮更長，形色怡悅，時眾驚異。帝覽奏悲愴曰：「禪師捨朕，深用哀慕！」喪事官供，詔葬于銅人原，諡曰大慧禪師。御撰塔銘，天下釋子榮之。

唐京兆西崇福寺智昇傳

釋智昇，未詳何許人也。義理懸通，二乘俱學，然於「毘尼」，尤善其宗。此外，文性愈高，博達今古，每慊聶道真、道安，至于明佺、宣律師各著《大藏》目錄，記其翻傳年代人物者，謂之晉錄、魏、漢等錄，乃於開元十八年歲次庚午，撰《開元釋教錄》二十卷，最為精要。何耶？諸師於同本異出、舊目新名，多惑其文，真偽相亂。或一經為兩本，或支品作別翻，一一裁量，少無過者。如其舊錄江泌女子誦出經，黜而不留，可謂藻鑑。杜塞妖偽之源，有茲獨斷。後之圓照《貞元錄》也，文體意宗，相鉅不知幾百數里哉。麟德中道宣出《內典錄》十卷，靖邁出《圖紀》四卷，昇各續一卷。經法之譜，無出昇之右矣。

唐中大雲寺圓暉傳(懷遠崇廡)

釋圓暉，未詳何許人也。關輔之間，聲名籍甚，精研性相，善達諸宗。幼於《俱舍》一門，最為銳意。時禮部侍郎賈曾歸心釋氏，好樂斯文，多命暉談此宗相。然其難者則「非想見惑」，繁者則〈得非得〉章。爰請暉師略伸梗概，究其光師疏義繁極難尋。又聖善寺懷遠律師，願心相合，因節略古疏一一頌則再牒而釋，論乃有引而具注一一，甚為徑捷，學者易知。後有崇廡著《金華鈔》十卷以解焉。光、寶二師之後，暉公間出，兩河間、二京道、江表、燕、齊、楚、蜀盛行暉疏焉。

唐京兆華嚴寺玄逸傳

釋玄逸，姓竇氏，即玄宗神武皇帝從外父也。繁柯懿葉，莫我與京，昆友姪弟，多升朝列，或以靡麗自持，或以官榮相抗。逸乃風神秀朗，蕭灑拔俗，悟色空之迹，到真寂之場，糠粃膏粱，么麼軒

冕。既而形廁緇伍，學追上流，祕藏香龕，披閱通理。一日，喟然興歎曰：「去聖日遠，編簡倒錯，或止存夏五，或濫在魯魚，加以筆札偷行，校讎喪句。若犍度失其夾葉，猶《禮記》脫錯後先，日見乖訛，迷而不復，有一于此，彝倫攸斁！」遂據古今所撰目錄，及勘諸經，披文已浩於几案，積卷仍溢於堂宇。字舛者詳義而綸之，品差者蹟理而綱之。星霜累遷，功業克著。非夫心斷金石、志堅冰蘖者，曷登此哉？既綜結其科目，諒條而不紊也，都為三十卷，號《釋教廣品曆章》焉。考其大小乘經律論，并東西土賢聖集，共一千八十部，以蒲州、共城二邑紙書，校知多少，縛定品次，俾後世無悶焉。其章頗成倫要，「備預不虞，古之善制」。有樂陵尹靈琛為序。逸後不知所終。

唐長安青龍寺道氤傳

釋道氤，俗姓長孫，長安高陵人也。父容，殿中侍御史。母馬氏夢五色雲覆頂，因有娠焉。母常聽講讀大乘經，曉夜不輟，意行太任之胎教也。逮乎誕彌，異香芬馥，成于童稚，神氣俊秀，學問詳明。應進士科，一舉擢第，名喧日下，才調清奇，榮耀親里。後有梵僧扣門分衛，飯訖，願寓宵宿。氤接之談話，言皆詣理，梵僧稱歎。明曉辭訣，方出門，閃然不見。氤由此無調選之心矣，乞願出家。將知良珠度寸，雖有百仞之水，不能掩其雲也，何君親而能阻入道之猛利心焉？乃禮京招福寺慎言律師為師，請益無替。及登戒法，旋學律科，又隸經論，如是內外偕通矣。時有興善寺復禮法師善屬文，謂氤曰：「籍汝少俊，可為余造《西方讚》一本。」遂襞紙援毫，略不停綴。斯須已就，其辭典麗，清淨佛國，境物莊嚴，臨文若現前矣。禮師讀訖，顧左右諸德曰：「奇才秀句，吾輩莫能測也。」自後服膺窓案，晝夜精勵，辯給難酬，善於立破。禮師仰其風規，嘗於稠人廣眾中宣言曰：「氤之論端，勢若泉涌。」從此聞天，供奉朝廷。玄宗幸雒，勅與良秀、法修隨駕。御史李暉同請氤於天宮寺講《淨業障經》，其疏亦氤之著述也。時一行禪師國之師匠，過慮將來佛法誰堪扞禦？誰可闡揚？奏召天下英髦學兼內外者，集于洛京福先寺，大建論場。氤為眾推許，乃首登座，於《瑜伽》、《唯識》、《因明》、《百法》等論，豎立大義六科，敵論諸師茫然屈伏。一行驚異曰：「大法梁棟，伊人應焉。余心有憑，死亦足矣。」及乎大駕西還，勅令扈從。乃有小疾，上表，帝降中使賜藥并方，詔曰：「法師將息，朕此藥并方甚好，服食必差。所患痊愈，早來西京。」其顧遇也若此。仍屬此際一行遷神，勅令東宮已下京官九品已上並送至銅人原。藍田設齋，推氤表白。法事方

畢，宰相張燕公說執氾手曰：「釋門俊彥，宇內罕匹。幸附口錄向所導文一本，置于篋笥。」由是其文流行天下也。開元十八年，於花萼樓對御定二教優劣，氾雄論奮發，河傾海注。道士尹謙對答失次，理屈辭殫，論宗乖舛。帝再三歎羨，詔賜絹伍伯匹，用充法施。別集《對御論衡》一本，盛傳于代。後撰《大乘法寶五門名教》并《信法儀》各一卷、《唯識疏》六卷、《法華經疏》六卷、《御注金剛經疏》六卷。初，玄宗注經，至「若有人先世罪業應墮惡道，乃至罪業則為消滅」，雖提免翰，頗見狐疑，慮貽謬解之愆，或作餘師之義。遂詔氾決擇經之功力，剖判是非。奏曰：「佛力經力，十聖三賢，亦不可測。陛下曩於般若會中，聞熏不一，更沈注想，自發現行。」帝於是豁然若憶疇昔，下筆不休，終無滯礙也。續宣氾造疏矣。四海嚮風，學徒鱗萃，於青龍寺執新疏，聽者數盈千計，至于西明、崇福二寺。講堂悉用香泥，築自水際至于土面，莊嚴之盛，京中甲焉。開元二十八年，有疾將終，遣門弟子齎遺表云：「某末品輕生，虛均雨露，得陪緇伍，許自精修。雖常袒右肩，無施舉袂之役。而執錫舒步，得蠲負載之勞。屬以時暢玄功，德揚真化；不謂勤劬慕學，造次養生。今月十六日苦腸忽加，湯藥無救。泉門自掩，安沐堯風；夜臺一歸，寧逢舜日。有定瘞於蒼隴，無再謁於丹墀」云。時帝覽惻怛，遣中使內給事賈文瓌將絹五十匹，就院弔贈，宣口勅奉問氾弟子等：「適聞法師遷神寂滅，痛惜良深，未審擬於何處安厝？賜到絹帛等。」聖恩追悼，生榮死哀，光于僧伍。俗壽七十三，僧臘五十三。以其年秋八月十二日葬于終南山陰逍遙園側，白塔存焉。

唐京師安國寺良賁傳

釋良賁，姓郭氏，河中虞鄉人也。世襲冠裳，法門之流，不標祖襴，故闕如也。賁識鑿淵曠，風表峻越，外通墳典，內善經論，義解之性，人罕加焉。永泰中，不空盛行傳譯，實難其人，賁預其翻度。代宗請為菩薩戒師。因新出《仁王護國經》，勅令撰疏解判，曲盡經意，以所住寺為疏目，曰《青龍》也。原夫是經已當三譯，一晉太始三年法護譯一卷，名《仁王般若》；次秦羅什出，名《仁王護國般若波羅蜜》；次梁承聖三年真諦於洪州寶因寺譯，名《仁王般若》，并疏六卷。然則晉本初翻，方言尚隔。梁朝所譯，隱而不行。偽秦之經，傳流宇內。奈何止言「波羅蜜」而闕「多」字！則是虧其到義。是以肅宗皇帝齋心沐德，請不空重譯。及肅皇晏駕，代宗成先聖之願言，詔興譯務，勅軍容使魚朝恩監護於南桃園，起乎告朔，終乎望日，帝御承明殿灌頂道場躬執舊經，對譯新

本，而復為序，冠于經首，仍勅賁造疏通經。賁上表曰：「學孤先哲，有玷清流，叨接翻傳，謬膺筆受。幸揚天闕，親奉德音，令於大明宮南桃園修疏贊演，宸光曲照，不容避席。窮玄珠於貝葉，但益慚惶；捧白璧於丹墀，寧勝報敷。仰酬皇澤，俯課忠勤，既竭愚誠，庶昭玄造。」賁勤勤筆削，三卷克成，奏乞流行。復上牋疏：「今年二月二十一日恩命令在內園修撰經疏，微僧寡學，懼不稱旨。洗心滌慮，扣寂求音，發明起自於天言，加被仰憑於佛力，咸約經論，演暢真宗，亦猶集群玉於崑山，納大川於溟海。火生於木，與兩曜而俱明；識轉於如，體一相而等照。成道者，法也；載法者，經也；釋經者，疏也。廣度群有，同於大通，是菩提心，如陛下意。所撰經疏，繕寫畢功，文過萬言，部有三卷。施行竊慚於愚見，裁成冀答於聖恩。并《念誦儀軌》一卷，《承明殿講密嚴經對御記》一卷同進上。輕塵玄覽，祇畏無任。」答詔云：「法師智炬高明，辭峯迥秀，親憑梵夾，宣闡微言，幽蹟真宗，演成章疏。開如來之祕藏，示群有之迷津，貫玉聯珠，鉤深致遠。再三披閱，頗謂精詳。傳之招提，永為法寶也。」皇命褒揚，釋門翕盛。又屬章信寺初成，執疏服膺者常數百眾，雖紙貴如玉，無以加焉。其在安國寺講筵，官供不匱。數年之內，歸學如林。大歷七年正月，不空奏請入《目錄》，勅依。賁於六年徙居集州，教授傳經，不遑寧處。至十二年三月十日，無疾枕肱，終于符陽，春秋六十一，夏臘二十九。宕渠、嘉川之人，哀悼法梁摧折，闔維收灰中舍利百餘粒。遺表中進《念誦儀》、《對御記》二卷，以其先進者遂留在內中之故，令門弟子齎之重進。後於上都城東置墳塔焉，即大曆十三年也。賁累朝供奉應制，辭辯富贍，學問高深。末塗淪躓，同利涉之徙移，若神會之流外，吁哉！

唐越州禮宗傳

釋禮宗，俗姓宋，會稽人也。道氣酋壯，志求玄微，願遂出塵，決除鞅絆。聞長壽寺和尚通達禪觀，往叩其關，學習之心，未嘗少懈。師誨之曰：「汝之出塵，有大利益，可謂良玉度尺，雖有十仞之土，不能掩其光矣。」乃奮藻摠華，注《涅槃經》，懷鉛握槧，周于二載。挫銳解紛，怡然理順，遂成夾注八十卷焉。及鄭卿尚書典郡，聞其盛名，致疏往請，確然拒而不赴。景龍二年，有御史大夫馮思忽爾暴終，入一處，有二童子持簿，領馮庭對判官廳，按覆罪愆，令望彼巨樹枝柯，可覆數畝。判官身旁舊識者張思義，招手呼馮曰：「吾是汝舅，曾為洛陽倉吏，被長官越格誣殺，兼假貸太平寺中錢及油麩，于今未脫。汝所坐者，不合於天后宮中亂越，致

此暴卒。可發願造《涅槃經》，鑄鐘。」登即關奏，判放却還人世。臨行，張語馮曰：「在閻浮一日造功德，得福無量，胡忍一生不修功德耶？此《涅槃經》者，禮宗大師注解，從天台傳授，每有善神守護。」時張差押馮往諸司考校輕重生處，囑之曰：「汝去洛城道光坊內十字街第三宅是吾家。家有池亭竹樹，為問妻兒安否。」馮起，尋經本未獲，而又死。經三日，立限歸寫經鑄鐘工畢。馮在世得四十八年終。宗亡，春秋九十七焉。

唐錢塘天竺寺法洗傳

釋法洗，姓孫氏。母初夢吞明珠，遂黜魚惡葷。誕彌厥月，生有異表。十五辭親從師，依年受具。行學一集，蔚為教宗，卷伊、呂立功之致，陋黃、綺肆志之適。遺形理性，與山木為群。故地恩貞大師囑之以《華嚴經》、《菩薩戒》、《起信論》，心以靜銑，智與經冥。一夕夢乘大舩，直截滄溟，橫山當前，峻與天極。不覺孤帆鳶戾，懷襄上濟，峯竦竦而忽高，雲溶溶而在下。既寤，形若委衣，流汗輕醒。自此，句義不思而得，一部全文常現心境，「事事無礙」之旨，如貫華焉。天寶六年，於蘇州常樂寺續盧舍那像，化示群品。大曆二年，於常州龍興寺講，纔登法座，忽有異光如曳紅縷，漸明漸大，縈旋杳空。久修行者會中先覩。前後講大經十遍，撰《儀記》十二卷。大曆十三年十一月七日，沙門慧覺夢巨塔陷地二級。無何，洗示疾而終，春秋六十一，慧命四十二。受法弟子太初，付以香鑪、談柄，潯陽正覺、會稽神秀，亦猶儒氏之有游、夏焉。洗初講天竺寺，盛闡《華嚴》。時越僧澄觀就席決疑，深得幽趣。及終，吳興皎然為碑，邗城肅公為頌，合揚其美哉。

唐京師興善寺潛真傳(道超)

釋潛真，字義璋，姓王氏，太原華族，後徙為夏州朔方崇道鄉人也。考珍，真即仲子也。年在學數，業尚典墳。幼好佛書，抑從天性，甫及弱冠，投跡空門。開元二十六年隸名于本城靈覺寺，明年納具戒。自此聽習律乘，涉遊論海，凡曰講筵，無不探蹟。屬代宗朝新譯《文殊師利菩薩佛剎莊嚴經》，勅真造疏，奏云：「此經凡有三譯。一、西晉太熙中法護翻，名《佛土嚴淨經》，文勢多古，語簡理幽。二、天后久視中實叉難陀於清禪寺翻，名《文殊受記經》。三、即今大曆六年所譯也。伏惟寶應元聖文武皇帝陛下，天垂帝籙，人歸寶圖，德厚乾坤，明侔日月，仁恕滋物，夷狄仰德，而輸誠慈惠，利生正教，承風而演化。頃者鄜坊節度使兼御史中丞

杜冕奏為國請諸大乘經，明詔下於祇園，梵旨開於貝葉，因請三藏不空譯此經等數十部。續有勅下，天下梵字各置文殊菩薩像，以旌聖功也。又詔以文殊菩薩為上座，皆三藏所請。三藏學究瑜伽，解窮法印，身、口、意業，祕密修持，戒、定、慧學，顯通宣暢，唐、梵文字，聲、韻具知。傳譯此經，善符聖旨，文質相兼，璨然可觀。潛真識智愚昧，學藝庸淺，幸陪清眾，謬在翻傳，虛空藏經，課虛潤色，猥蒙驅策，述疏讚揚。雖文義荒蕪，已傳京邑。今之所作，蓋有由焉。有金閣寺大德道超禪師，學盡法源，行契心本，親覩靈境，密承聖慈，故久在清涼，屬興淨業，仍於現處建窣堵波。尋覲法緣，來詣京國，以此經為大事，以大聖為本師，顯揚聖德，無過此者。乃稽首三藏，誓傳大聖法門，不以潛真庸虛，轉祈和尚，邀令述作。和尚不念前之鄙陋，又令讚釋此經。竊恐難契真詮，敢不盡其愚訥！」即大曆八年十一月，疏成奏過。真學通內外，性相融明，考覆幽玄，研精教理，探蹟今古，比校親疎，分別異同，歸於一義，辯猶泉涌，思入虛凝，直筆而書，記於絕唱，結成三卷，以作準繩，現在未來，永無疑網矣。又述《菩提心義》、《發菩提心戒》各一卷，《三聚淨戒》及《十善法戒》共一卷。兼稟承不空祕教，入曼拏羅，登灌頂壇，受成佛印。顯、密二教，皆聞博瞻。關內、河東，代歷四朝，闡揚妙旨，弟子繁多。加復綱紀興善、保壽二處伽藍，懲勸僧尼，真有力也。以貞元四年戊辰五月十四日遺誡門人，以疾而臥。二十一日，右脅累足，口誦彌陀佛號，終于興善寺本院。春秋七十一，僧夏四十九云。

唐代州五臺山清涼寺澄觀傳

釋澄觀，姓夏侯氏，越州山陰人也。年甫十一，依寶林寺(今應天山)霈禪師出家，誦《法華經》。十四，遇恩得度，便隸此寺。觀俊朗高逸，弗可以細務拘。遂遍尋名山，旁求祕藏。梯航既具，壺輿必臻。乾元中，依潤州棲霞寺禮律師，學相部律。本州依曇一，隸「南山律」。詣金陵玄璧法師傳關河「三論」。「三論」之盛于江表，觀之力也。大曆中，就瓦棺寺傳《起信》、《涅槃》。又於淮南法藏，受海東《起信疏》義。却復天竺誦法師門，溫習《華嚴大經》。七年，往剡溪，從成都慧量法師，覆尋「三論」。十年，就蘇州，從湛然法師習天台《止觀》、《法華》、《維摩》等經疏。解從上智，性自天然，所學之文，如昨拋捨，鮑靜記井，蔡邕後身，信可知矣。又謁牛頭山忠師、徑山欽師、洛陽無名師，咨決南宗禪法。復見慧雲禪師，了北宗玄理。觀自謂己曰：「五地聖人，身證真如，棲心佛境，於『後得智』中起世俗念，學世間技藝。況

吾學地，能忘是心？」遂翻習經、傳、子、史、小學、《蒼》、《雅》、天竺悉曇、諸部異執，《四圍》、五明、祕呪、儀軌，至于篇、頌、筆語、書蹤，一皆博綜。多能之性，自天縱之。大曆十一年，誓遊五臺，一一巡禮，祥瑞愈繁。仍往峨嵋，求見普賢，登險陟高，備觀聖像。却還五臺，居大華嚴寺，專行「方等」懺法。時寺主賢林，請講大經，并演諸論。因慨《華嚴》舊疏，文繁義約，惘然長想：「況文殊主智，普賢主理，二聖合為毘盧遮那，萬行兼通，即是《華嚴》之義也。吾既遊普賢之境界，泊妙吉之鄉原，不疏《毘盧》，有幸二聖矣。」觀將撰疏，俄於寤寐之間，見一金人當陽挺立，以手迎抱之，無何咀嚼都盡。覺即汗流，自喜吞納光明遍照之徵也。起興元元年正月，貞元三年十二月畢功，成二十軸，乃飯千僧以落成也。後常思付授，忽夜夢身化為龍，矯首于南臺，蟠尾于山北，拏攫碧落，鱗鬣耀日。須臾，蜿蜒化為千數小龍，騰躍青冥，分散而去。蓋取象乎教法支分流布也。四年春正月，寺主賢林請講新疏。七年，河東節度使李公自良復請於崇福寺講。德宗降中使李輔光宣詔入都，與闕賓三藏般若譯烏荼國王所進《華嚴》後分四十卷。觀苦辭，請明年入。勅允。及具行，至蒲津，中令梁公留安居，遂於中條山棲巖寺住。寺有禪客，拳眉翦髮，字曰癡人，披短褐，操長策，狂歌雜語，凡所指斥，皆多應驗。觀未至之前，狂僧驅眾僧洒掃曰：「不久菩薩來此」。復次壁畫散脂大將及山麋之怪，往往不息。觀既止此寺，二事俱靜。五月，內中使霍仙鳴傳宣催入。觀至，帝頗敦重，延入譯場刊正。又詔令造疏。遂於終南草堂寺編成十卷，進呈，勅令兩街各講一遍為疏。時堂前池生五枝合歡蓮華，一華皆有三節，人咸歎伏。尋譯《守護國界主經》，觀綴文潤色。順宗在春宮，嘗垂教令述《了義》一卷、《心要》一卷并《食肉得罪因緣》。泊至長安，頻加禮接。朝臣歸向，則齊相國杭、韋太常渠牟，皆結交最深。故相武元衡、鄭綰、李吉甫、權德輿、李逢吉、中書舍人錢徽、兵部侍郎歸登、襄陽節度使嚴綬、越州觀察使孟簡、洪州韋丹，咸慕高風，或從戒訓。以元和年卒，春秋七十餘。弟子傳法者一百許人，餘堪講者千數。觀嘗於新創雲花寺般若閣下畫《華藏世界圖相》，又著《隨疏演義》四十卷，允齊相請述《華嚴經綱要》一卷、《法界玄鑑》一卷、《三聖圓融觀》一卷、《華嚴》、《法華》、《楞伽》、《中觀論》等。別行《小鈔疏》共三十卷。設無遮大會十二中，其諸塑續形像，繕寫經典，不可殫述。門人清沔記觀平時行狀云：「觀恒發十願：『一、長止方丈但三衣鉢，不畜長；二、當代名利，棄之如遺；三、目不視女人；四、身影不落俗家；五、未捨執受，長誦《法華經》；六、長讀大乘經典，普施含靈；七、長講

《華嚴大經》；八、一生晝夜不臥；九、不邀名惑眾伐善；十、不退大慈悲普救法界。』」觀逮盡形期，恒依願而修行也。

唐京師西明寺良秀傳(談筵)

釋良秀，姓郭氏，蒲津人也。年及佩觿，挺然離俗，乃往中條山柏梯寺披削，誦通經業，受具律儀。誓以傳講為己事，勤苦忘疲。三藏俱尋，九流外瞻。于時籍甚，孰不欽崇。貞元四年，奉詔與罽賓國般若三藏同譯《大乘理趣六波羅蜜經》十卷。至五年二月四日解座，寫本進過。尋奉德宗勅令秀造疏，上表云：「去年十一月二十八日右街功德使王希遷奉宣，令良秀等修撰新翻《大乘理趣六波羅蜜經疏》者。伏聞至道同源，聖人一貫，大雄示相，演妙音於獨園，寶位分身，霑湛恩於雙闕。開佛日於聖日，降絲綸於法輪，所以揚化慈航，致人壽域。不然，豈得握真符而契合，應休運以感通？況以此經，如來之密印，群生之度門，得白馬之寶函，啟青龍之祕藏，是第一義，理去筌蹄，於最後乘說無分別。加以天文煥發，叡思昭回。真如契心，已闡微於釋氏；般若製序，諒纘文於太宗。慈雲溥潤於大根，湛露垂滋於貝葉。良秀等材惟末學，性異生知，謬寄討論，伏增殞越。上承嚴旨，徒側管以窺天；虔奉本師，懼升堂而鼓瑟。所修撰疏一部，謹附王希遷隨表奉進，伏乞聖慈，許令同修疏沙門談筵於當寺讚演及流布中外。所冀落落真言，示丹青於新學；明明像教，流粉澤於將來。」帝覽奏，勅內給事毛瑛琦宣慰良秀、談筵、道恒等：「宜共賜絹九十匹，至可領取。比修《疏義》，甚大勤勞也。秋熱，兼問師等各平安好在。」秀之辭筆義端，時少倫匹。終沒罔知時代焉。

唐京師西明寺慧琳傳

釋慧琳、姓裴氏，疎勒國人也。始事不空三藏，為室灑，內持密藏，外究儒流，印度聲明，支那詰訓，靡不精奧。嘗謂翻梵成華，華皆典故，典故則西乾細語也。遂引用《字林》、《字統》、《聲類》、《三蒼》、《切韻》、《玉篇》、諸經雜史，參合佛意，詳察是非，撰成《大藏音義》一百卷。起貞元四年迄元和五載，方得絕筆，貯其本于西明藏中。京邑之間，一皆宗仰。琳以元和十五年庚子卒於所住，春秋八十四矣。殆大中五年，有奏請入藏流行。近以海中高麗國，雖三韓夷族，偏尚釋門，周顯德中，遣使賫金入浙中求慧琳《經音義》，時無此本，故有關如。

宋高僧傳卷第五

宋左街天壽寺通慧大師賜紫沙門贊寧等奉 勅撰

義解篇第二之三(正傳十四人附見六人)

唐京師崇福寺惟慤傳(慧震弘沆)

釋惟慤，俗姓連氏，齊大夫稱之後，本憑翊人，官居上黨，為潞人也。九歲割愛，冠年納戒。母氏昆弟歸于法門，故慤從其受教，瀾漪內湛，葳蕤外發。嗜學服勤，必無倦色。乃辭涇陽，尋師隸業，或經筵首席，或論集前驅，或參問禪宗，或附麗律匠。其志淵曠，欲皆吞納之。年臨不惑，尚住神都，因受舊相房公融宅請。未飯之前，宅中出經函云：「相公在南海知南銓，預其翻經，躬親筆受《楞嚴經》一部，留家供養。今筵中正有十僧，每人可開題一卷。」慤坐居第四，舒經見富樓那問生起義，覺其文婉，其理玄，發願撰疏，疏通經義。及歸院，矢誓寫文殊菩薩像，別誦名號，計一十年，厥志堅強，遂有冥感，忽夢妙吉祥乘俊猊自慤之口入。由茲下筆，若大覺之被善現談「般若」焉。起大曆元年丙午也。及將徹簡，於臥寐中見由口而出，在乎華嚴宗中文殊智也。勒成三卷，自謂從淺智中衍出矣。于今盛行。一說《楞嚴經》初是荊州度門寺神秀禪師在內時得本，後因館陶沙門慧震於度門寺傳出，慤遇之著疏解之。後有弘沆法師者，蜀人也，作義章，開釋此經，號《資中疏》。其中亦引震法師義例，似有今古之說，此岷蜀行之，近亦流江表焉。

唐京師千福寺懷感傳

釋懷感，不知何許人也。秉持強悍，精苦從師，義不入神，未以為得。四方同好就霧市焉。唯不信：念佛少時，逕生安養。疑水未泮，遂謁善導，用決猶豫。導曰：「子傳教度人，為信後講，為渺茫無詣？」感曰：「諸佛誠言，不信不講。」導曰：「若如所見，令念佛往生。豈是魔說耶？子若信之，至心念佛，當有證驗。」乃入道場三七日，不覩靈瑞。感自恨罪障深，欲絕食畢命。導不許，遂令精虔，三年念佛。後忽感靈瑞，見金色玉毫，便證念佛三昧。悲恨宿垢業重，妄構眾愆，懺悔發露，乃述《決疑論》七卷(即《群疑論》是也)。臨終，果有化佛來迎，合掌面西而往矣。

唐吳興法海傳

釋法海，字文允，姓張氏，丹陽人。少出家于鶴林寺。白駒匪食其場苗，金翅俄翔其海面。曲從師教，周覽群經，大壑納川，鄧林聚羽。是以圓入一性，學階空王，擅當代獨悟之名，剖先賢不決之義，一時外學六籍該通。嘗謂人曰：「佛法一門，極唯『心地』，餘皆椎輪也。」天寶中，預揚州法慎律師講肆，同曇一、靈一等推為顏、冉焉。復與杼山畫公為忘形之交，林下之遊。黑白二徒，多從求益焉。

唐洛京佛授記寺慧苑傳

釋慧苑，京兆人也。少而秀異，蔚有茂才，厭彼塵寰，投于淨域，禮華嚴法藏為師。陶神練性，未幾深達法義，號上首門人也。有勤無惰，內外該通，華嚴一宗，尤成精博。苑依《寶性論》立四種教，為有四類不識如來藏，如生盲人，則凡夫、聲聞、辟支、初心菩薩也。一迷真異執教，當凡夫；二真一分半教，當二乘；三真一分滿教，當初心菩薩；四真具滿教，當識如來藏者也。諸師處判，或依或違，然其綱領教乘一家之說。次以新譯之經未有音釋，披讀之者取決無從。遂博覽經書，恢張詰訓，撰成二卷，俾初學之流不遠求師，覽無滯句，旋曉字源。然稟從賢首之門，不負庭訓之美也。

唐處州法華寺智威傳(慧威)

釋智威，姓蔣氏，縉雲人也。穎脫塵蒙，心遊物表，少事師于軒轅氏鍊丹山。聞天台宗教盛，遂負笈往沃洲石城寺，親灌頂禪師求請心要。既而得一融道，體二居宗，定慧方均，寂照相半，雖云自了，急在利他。天與多能，富有辭藻，著《桃巖寺碑》，與《頭陀寺碑》氣度相表。後以法眼付授慧威焉。時傳威是徐陵後身，其利智雄才，斷可知矣。又釋慧威，姓留氏，東陽人也。總角之年，露其舊習，抉開愛網，徑入空門，不滯一方，仍參三益。聞縉雲大威禪師盛行禪法，裹足造焉。刻志忘勞，覩威牆奧。一日千里，罔不推稱，至有成業，時謂小威。然其樂靜居山，罕交人事。指教門人，不少傑出者，左溪玄朗矣。威常修「止觀」，匪棄光陰，說與行而並馳，語將默而齊貫，落落然、汪汪然，人無得名焉。

唐台州國清寺湛然傳

釋湛然，俗姓戚氏，世居晉陵之荊溪，則常州人也。昔佛滅度後十有三世，至龍樹，始用文字廣第一義諦。嗣其學者號「法性宗」，元魏、高齊間有釋慧文默而識之，授南嶽思大師，由是有三觀之學。洎智者大師蔚然興於天台，而其道益大。以教言之，則然乃龍樹之裔孫也，智者之五世孫也，左溪朗公之法子也。家本儒、墨，我獨有邁俗之志，童丱邈焉異於常倫。年二十餘，受經於左溪，與之言，大駭。異日謂然曰：「汝何夢乎？」然曰：「疇昔夜夢披僧服，掖二輪，遊大河之中。」左溪曰：「嘻，汝當以止、觀二法度群生於生死淵乎？」乃授以本師所傳止觀。然德宇凝精，神鋒爽拔，其密識深行，冲氣慧用，方寸之間，合於天倪。至是始以處士傳道，學者悅隨，如群流之趣於大川也。天寶初年，解逢掖而登僧籍。遂往越州曇一律師法集，廣尋持犯開制之律範焉。復於吳郡開元寺敷行止觀。無何，朗師捐代，挈《密藏》獨運於東南，謂門人曰：「道之難行也，我知之矣。古先至人靜以觀其本，動以應乎物，二俱不住，乃蹈于大方。今之人或蕩於空，或膠於有，自病病他，道用不振。將欲取正，捨予誰歸？」於是大啟上法，旁羅萬行，盡攝諸相，入於無間。即文字以達觀，導語默以還源。乃祖述所傳章句凡十數萬言。心度諸禪，身不踰矩，三學俱熾，群疑日潰，求珠問影之類，稍見罔象之功行。「止觀」之盛，始然之力也。天寶末、大曆初，詔書連徵，辭疾不就。當大兵大饑之際，揭厲法流，學徒愈繁，瞻望堂室，以為依怙。然慈以接之，謹以守之，大布而衣，一床而居，以身誨人，耆艾不息。建中三年二月五日，示疾佛隴道場，顧語學徒曰：「道無方，性無體，生歟死歟，其旨一貫。吾歸骨此山，報盡今夕，要與汝輩談道而訣。夫一念無相謂之空，無法不備謂之假，不一不異謂之中，在凡為三因，在聖為三德。爇炷則初後同相，涉海則淺深異流，自利利人，在此而已。爾其志之！」言訖隱几，泊然而化，春秋七十二，法臘三十四。門人號咽，奉全身起塔，祔于智者大師瑩兆西南隅焉。入室弟子吳門元浩，可謂邇其人，近其室矣。然平日輯纂教法，明決前疑，開發後滯，則有《法華釋籤》、《法華疏記》各十卷、《止觀輔行傳弘訣》十卷、《法華三昧補助儀》一卷、《方等懺補闕儀》二卷、《略維摩疏》十卷、《維摩疏記》三卷、《重治定涅槃疏》十五卷、《金[鏹-糸+升]論》一卷，及《止觀義例》、《止觀大意》、《止觀文句》、《十妙不二門》等。盛行于世。詳其然師，始天寶，終建中，以自證之心，說未聞之法，經不云乎：「云何於少時大作佛事」，然師有焉。其朝達得其道者唯梁肅學士，故摛鴻筆成絕妙之辭。彼題目云：「嘗試論之，聖人不興，其間必有命世者出焉。自智者以法傳灌頂，頂再世至于左溪，明道若昧，待公而

發。乘此寶乘，煥然中興。蓋受業身通者三十有九僧，搢紳先生高位崇名屈體承教者又數十人。師嚴道尊，遐邇歸仁，向非命世而生，則何以臻此！」觀夫梁學士之論，擬議偕齊，非此人何以動鴻儒？非此筆何以銘哲匠？蓋洞入門室見宗廟之富，故以是研論矣。吁，吾徒往往有不知然之道！《詩》云：「維鵲有巢，維鳩居之。」梁公深入佛之理窟之謂歟！有會稽法華山神邕作真讚，至大宋開寶中吳越國王錢氏追重而誅之，號圓通尊者焉，可不是歟！

唐蘇州開元寺元浩傳

釋元浩，姓秦氏，字廣成，吳門人也。綺歲依晉陵靈山寺慧日禪師出家，具滿律戒，配本州龍興寺，尋為荆溪湛然禪師囑累弟子。初受《法華》、《止觀》，已得醍醐，唯以裂大網、感大果、成大行、歸大處以為大願。宴居三昧，常隨佛後，希夷自得，人莫能知。其祕密深遠如海印三昧，不言出處，常行佛事。與夫難行苦行，更相祖述，默傳心要；為論為記、靈芝瑞草，以為功德。傳於後世者，不同日而語矣。浩注解《大涅槃經》，為文首序，德美圓實，志願顯現。蓋錄其所證之意，而見于文，曰：「余聞先覺之大寶曰『常』，在宥布和之盛典曰『教』，率土知化之歸宗曰『行』，交感人心之至極曰『證』，然則以道行御其時，以法性合其運，當應物之際，與顯晦同其光，恢張至化而自他昭著者，實播厥鴻名。欽恭聞思，協和至極，四德克彰者，實存乎妙體。格變群家，歷觀諸行，至典克修，庶績有成者，實賴乎宗本。信以授人，大明宗極，敷暢厥旨，庶幾有補於將來者，實存乎妙用。博綜群言以立誠訓，風行十方率用歸順者，實存乎妙教矣。」此浩之法要，如王輔嗣之法〈繫辭〉，司馬遷之〈自敘〉，管仲能言〈輕重〉，孟子之傳《春秋》，雖儒、釋不同，其義一也。以元和十二年十一月十一日示疾，右脇累足，入于涅槃，非二乘境界，真如來定也。明年十一月十三日闍維，起塔於蘇州西北虎丘東山南原也。浩耽學味道，不涉餘事，常隨然師聽其言說，曾無倦色。分析義理，派流川注，必默記而暗誦，一言不失。數年之後，人始知之。然師曰：「回也如愚」罕為人說，多辭以不能，及被梁、田二君苦勸請之，始著《涅槃經解述》。浩與上都雲華寺華嚴澄觀法師，若孔門之游、夏焉。其儒流受業，翰林學士梁公肅、蘇州刺史田公敦。緇流受業者，智恒、子瑜、道儒、仲儀、仲良五人，持經講論，傳之無窮。大比丘尼識微、道巽、志真、悟極，此四人者高潔之倫，深練禪觀。初浩為二官所請注經，預夢甚為奇特。又庭階生花，非人間

恒所見者。祥鳥飛馴，五彩絕異。刺史崔恭撰塔碑，立于虎丘山羅漢石壇之左。後有行滿、道暹、明曠皆著述，廣天台之道歟。

唐越州暨陽杭烏山智藏傳

釋智藏，姓皮氏，西印度種族，祖父從華，世居官宦，後僑寓廬陵。藏少入精舍，覩像設之繁，乃陋俗求真，而於三學各所留心，唯《律藏》也最為精敏。大曆三年，遊豫章，因隸名天宮寺，眾懇命臨壇秉度，時仰炮休，號為「律虎」。每登法座，提唱毘尼，堂盈席滿，聽受無厭。辯名理，析微言，連環可解也。貞元中，遇大寂禪師，篤明心要。及遊會稽，於杭烏山頂築小室安禪。乃著《華嚴經妙義》。宣吐疊疊，學者歸焉。至元和十四年二月，無疾而終，報齡七十九。焚收舍利圓淨者，建塔於院北峯焉。杭烏山者，越俗言訛，合言杭嶋，謂浙江所渡古用杭筏，到岸藏杭，故云「嶋」也。

唐梓州慧義寺神清傳(義將)

釋神清，字靈庾，俗姓章氏，綿州昌明人也。生于大安山下，昆季相次三人出俗，皆有名望，清居乎仲。處胎之際，母頓惡葷羶。及為兒，雖隨戲弄，遇像禮足，逢僧稽顙。年十三，受學於綿州開元寺辯智法師。于時勅條嚴峻，出家者限念經千紙，方許落髮。清即誦《法華》、《維摩》、《楞伽》、《佛頂》等經，有同再理。時故相喬琳為綿郡太守，驚其幼俊，躬而降禮請削染焉，則大曆中也。至年十七，聽習粗通，即講《法華》一經。歲滿，慧義寺依如律師受具戒。夏習尸羅，依學新疏。尋達大宗，乃詣上都。後以優文瞻學，入內應奉。暮年鍾其茶蓼，歸慧義寺，講導著述，略無閑日。以元和年中終于本寺峯頂，遷神于白門蘭若，即郾城北郭外也。清平昔好為著述，喜作編聯，蓋巨富其才，亦鑿深于學。三教俱曉，該玄鑿極，彝倫咸敘，萬人之敵也。受業弟子黑白四方，計一千餘人。前後撰成《法華玄箋》十卷、《釋氏年誌》三十卷、《新律疏要訣》十卷——亦謂《清鈔》、《二眾初學儀》一卷、《有宗七十五法疏》一卷——亦名《法源記》。此蓋解小乘所計五位：色、心、心所、不相應、無為等法，體性業用，一皆詳括，故云「法源」也。《識心論》、《澄觀論》、《俱舍義鈔》數卷，《北山參玄語錄》十卷，都計百餘軸，並行於代。就中《語錄》博該三教，最為南北鴻儒、名僧、高士之所披翫焉。寺居郾城之北，長平山陰，故云「北山」，統三教玄旨，實而為錄，故云《參玄》

也。觀清之述作，少分明二權一實之經旨，大分明小乘律論之深奧焉。清貌古且奇，皙白而光瑩。相國崔龜從時從事東川，序真讚云：「與奘三藏道顏同，攝物異，時一體耳。」門人數多，其出倫者義將也。獨明《俱舍》，兼善《起信》，海內學人望風而至。開成中北山俱舍宗不泯者，清之餘素乎。東川涌潭僧正顏公著碑，本寺講律臨壇光肇，別附《語錄》，略記清言行矣。

唐京師大安國寺端甫傳

釋端甫，俗姓趙氏，天水人也。世為秦著姓焉。初，母張夫人夢梵僧謂曰：「當生貴子。」即出囊中舍利使吞之。及誕，所夢僧白晝入其室，摩其頂曰：「必當大興法教。」言訖而滅。既成人，高顙深目，大頤方口，長六尺五寸，其音如鐘。夫將欲荷如來之菩提，鑿生靈之耳目，固必有殊祥奇表歟？始十歲，依崇福寺道悟禪師為沙彌。十七正度為比丘，隸安國寺。受具於西明寺照律師，學毘尼於崇福寺昇律師，傳《唯識》於安國寺素法師，通《涅槃經》於福林寺峯法師。甫又夢梵僧以舍利滿瑠璃器，使吞之，且曰：「三藏大教，盡貯汝腹矣。」自是經、律、論無敵於當時，囊括川注，逢源會委，滔滔然莫能濟其畔岸矣。夫將欲伐株杌於情田，雨甘露於法種者，固必有勇智宏辯歟？無何，謁文殊於清涼，眾聖皆現；演大經於太原，傾都畢會。德宗皇帝聞其名，徵之，一見大悅，常出入禁中，與儒道議論，賜紫方袍。歲時錫施，異於他等。復詔侍皇太子於東朝。順宗皇帝深仰其風，親之若昆弟，相與臥起，恩禮特隆。憲宗皇帝數幸其寺，待之若賓友。常承顧問，注納偏厚。而甫符彩超邁，辭理響捷，迎合上旨，皆契真乘，雖造次應對，未嘗不以闡揚為務。繇是天子益知佛為大聖人，其教有大不思議事。當是時朝廷方削平區夏，縛吳幹蜀，瀦蔡蕩郟，而天子端拱無事。詔甫率緇屬迎真骨於靈山，開法場於祕殿，為人請福，親奉香燈。既而刑不殘，兵不黷，赤子無愁聲，蒼海無驚波，蓋參用真宗以毘大政之明効也。夫將欲顯大不思議之道，輔大有為之君，固必有冥符玄契歟？掌內殿法儀，錄左街僧事，以標表淨眾者凡一十年。講《涅槃》、《唯識》經論，處當仁傳授宗主，以開誘道俗者，凡一百六十座。運三密於瑜伽，契無生於悉地，日持諸部十餘萬遍，指淨土為息肩之地，嚴金經為報法之恩。前後供施數十百萬，悉以崇飾殿宇，窮極雕繪。而方丈單床，靜慮自得。貴臣盛族皆所依慕，豪俠工賈莫不瞻嚮，薦金寶以致誠，仰端嚴而禮足，日有千數，不可殫書。而甫即眾生以觀佛，離四相以修善，心下如地，坦無丘陵，王、公、輿、臺皆以誠接。議者以為成就常不輕行者，唯甫而已。

矣。夫將欲駕橫海之大航，拯迷途於彼岸者，固必有奇功妙道歟？以開成元年六月一日，西向右脇而滅，當暑而尊容若生，終夕而異香猶鬱。其年七月六日，遷於長樂之南原。遺命茶毘，得舍利三百餘粒，方熾而神光月皎，既燼而靈骨珠圓。賜諡曰大達，塔曰玄祕。俗壽六十七，僧臘可數。門弟子僧尼約千餘輩，或講論玄言，或紀綱大寺，修禪秉律，分作人師，五十其徒，皆為達者。會昌中相國裴公休為碑頌德焉。

唐圭峯草堂寺宗密傳(圓禪師照禪師)

釋宗密，姓何氏，果州西充人也。家本豪盛，少通儒書，欲干世以活生靈，負俊才而隨計吏。元和二年，偶謁遂州圓禪師，圓未與語，密欣然而慕之，乃從其削染受教。此年進具于拯律師。尋謁荆南張，張曰：「汝傳教人也，當宣導於帝都。」復見洛陽照禪師，照曰：「菩薩人也，誰能識之？」末見上都華嚴觀，觀曰：「毘盧華藏，能隨我遊者，其唯汝乎？」初在蜀，因齋次受經，得《圓覺》十二章，深達義趣，誓傳是經。在漢上因病僧付《華嚴》句義，未嘗隸習，即爾講之。由是乃著《圓覺》、《華嚴》及《涅槃》、《金剛》、《起信》、《唯識》、《盂蘭盆》、《法界觀》、《行願經》等疏鈔，及《法義類例》、《禮懺》、《修證》、《圖傳》、《纂略》。又集諸宗禪言，為《禪藏》，總而序之，并《酬答》、《書偈》、《議論》等。又《四分律疏》五卷、《鈔懸談》二卷，凡二百許卷，圖六面。皆本一心而貫諸法，顯真體而融事理，超群有於對待，冥物我而獨運矣。密累入內殿，問其法要。大和二年慶成節，徵賜紫方袍為大德。尋請歸山。會昌元年正月六日坐滅於興福塔院，儼若平日，容貌益悅。七日，遷于函，其自證之力可知矣。其月二十二日，道俗等奉全身于圭峯，二月十三日茶毘，得舍利數十粒，明白而潤大。後門人泣而求諸煨中，必得而歸，悉斂藏于石室，其無緣之慈可知矣。俗齡六十二，僧臘三十四。遺誡令：「昇屍施鳥獸，焚其骨而散之，勿塔，勿得悲慕，以亂禪觀。每清明上山，必講道七日而後去。其餘住持儀則當合律科，違者非吾弟子。」初，密道既芬馨，名惟烜赫，內眾慕羶既如彼，朝貴答響又如此。當長慶、元和已來，中官立功執政者孔熾，內外猜疑，人主危殆。時宰臣李訓酷重于密，及開成中偽甘露發，中官率禁兵五百人出閣，所遇者一皆屠戮。時王涯、賈餗、舒元興方在中書會食，聞難作，奔入終南投密。唯李訓欲求剪髮匿之，從者止之，訓改圖趨鳳翔。時仇士良知之，遣人捕密入左軍，面數其不告之罪，將害之。密怡然曰：「貧道識訓年深，亦知其反叛，然

本師教法，遇苦即救，不愛身命，死固甘心。」中尉魚恒志嘉之，奏釋其罪。朝士聞之，扼腕出涕焉。或曰：「密師為禪耶，律耶，經論耶？」則對曰：「夫密者四戰之國也，人無得而名焉，都可謂『大智圓明白證利他大菩薩』也。是故裴休論撰云：

「『議者以師不守禪行，而廣講經論。遊名邑大都，以興建為務。乃為多聞之所役乎，豈聲利之所未忘乎？嘻，議者焉知大道之所趣哉！夫一心者萬法之總也，分而為戒、定、慧，開而為六度，散而為萬行。萬行未嘗非一心，一心未嘗違萬行。禪者六度之一耳，何能總諸法哉？且如來以法眼付迦葉，不以法行。故自心而證者為法，隨願而起者為行，未必常同也。然則一心者萬法之所生，而不屬於萬法。得之者則於法自在矣，見之者則於教無礙矣。本非法不可以法說，本非教不可以教傳，豈可以軌迹而尋哉？自迦葉至富那奢凡十祖皆羅漢，所度亦羅漢。馬鳴、龍樹、提婆、天親始開摩訶衍，著論釋經，摧滅外道，為菩薩唱首。而尊者闍夜獨以戒力為威神，尊者摩羅獨以苦行為道跡，其他諸祖，或廣行法教，或專心禪寂，或蟬蛻而去，或火化而滅，或攀樹以示終，或受害而償債，是乃法必同而行不必同也。且循轍跡者非善行，守規墨者非善巧，不迅疾無以為大牛，不超過無以為大士。故師之道也，以知見為妙門，寂淨為正味，慈忍為甲盾，慧斷為劍矛。破內魔之高壘，陷外賊之堅陣，鎮撫邪雜，解釋縲籠。遇窮子則叱而使歸其家，見貧女則呵而使照其室。窮子不歸，貧女不富，吾師恥之。三乘不興，《四分》不振，吾師恥之。忠孝不並化，荷擔不勝任，吾師恥之。避名滯相，匿我增慢，吾師恥之。故遑遑於濟拔，汲汲於開誘，不以一行自高，不以一德自聳。人有依歸者，不俟請則往矣；有求益者，不俟憤則啟矣。雖童幼不簡於應接，雖驚恨不怠於叩勵。其以闡教度生，助國家之化也如此。故親師之法者，貪則施，暴則斂，剛則隨，戾則順，昏則開，墮則奮，自榮者慊，自堅者化，徇私者公，溺情者義。凡士俗有捨其家與妻子同入其法、分寺而居者，有變活業、絕血食、持戒法，起家為近住者，有出而修政理以救疾苦為道者，有退而奉父母以豐供養為行者。其餘憧憧而來，欣欣而去，揚袂而至，實腹而歸，所在甚眾，不可以紀。真如來付囑之菩薩，眾生不請之良友。其四依之人乎？其十地之人乎？吾不識其境界庭宇之廣狹深淺矣。議者又焉知大道之所趣哉？』其為識達大人之所知心為若此也。密知心者多矣，無如昇平相國之深者，蓋同氣相求耳。」宣宗再闡真乘，萬善咸秩，追諡曰定慧禪師，塔號青蓮。持服執弟子禮四眾數千百人矣。

系曰：「河東相國之論撰，所謂極其筆矣。然非夫人之為極筆，於他人豈極其筆乎？觀夫影響相隨，未始有異也。影待形起，響隨聲

來。有宗密公，公則有裴相國。非相國曷能知密公，相續如環，未嘗告盡，其二公之道如然。則知諦觀法、王法，則密公之行甚圓；應以宰官身，則裴相之言可度。今禪宗有不達而譏密不宜講諸教典者，則吾對曰：『達磨可不云乎，吾法合了義教。而寡學少知自既不能，且與煩惱相應可不嫉之乎？』或有謂密不宜接公卿，而屢謁君王者，則吾對曰：『教法委在王臣，苟與王臣不接，還能興顯宗教以不？佛言力輪，王臣是歟？今之人情，見近王臣者則非之。曾不知近王臣人之心苟合利名，則謝君之謂也。或止為宗教親近，豈不為大乎？』寧免小嫌，嫌之者亦嫉之耳。若了如是義，無可無不可，吁哉！」

唐京師西明寺乘恩傳

釋乘恩，不知何許人也。肇從志學，知遍尋師，凡廁黌堂，必窮義路。常訓門人曰：「好學近乎智，力行近乎仁。仁智稍成，是殊名同實，趨菩薩地，若下坂之走丸耳。」恩樂人為學，不忘講導。及天寶末，關中版蕩，因避地姑臧。旅泊之間，嗟彼密邇羌虜之封，極尚經、論之學。恩化其內眾，勉其成功，深染華風，悉登義府。自是重撰《百法論疏》并鈔，行于西土。其疏祖慈恩而宗潞府，大抵同而少聞異，終後弟子傳布。迨咸通四年三月中，西涼僧法信精研此道，稟本道節度使張義朝表進恩之著述，勅令兩街三學大德等詳定，實堪行用。勅依，其僧賜紫衣，充本道大德焉。

唐彭州丹景山知玄傳

釋知玄，字後覺，姓陳氏，眉州洪雅人也。曾祖圖南，任梓州射洪縣令。祖憲，考邈，皆名場不捷。母魏氏夢月入于懷，因而載誕，雖乳哺未能言，見佛像僧形，必含喜色。五歲，祖令詠花，不數步成云：「花開滿樹紅，花落萬枝空，唯餘一朵在，明日定隨風。」祖吟歎不懌曰：「吾育此孫，望其登甲科，雪二代之恥。今見孺子志矣，非貽厥也已，必從空門，乖始望也。」七歲，果遇法泰法師在寧夷寺講《涅槃經》。寺與居隣，玄日就講集所，一聆法語，若覩前因。是夕夢其寺殿，佛手摩其頂。寤啟祖父，乞為勤策，親黨觀其必不可抑奪，故聽之。年十一，遂其削髮。乃隨師詣唐興邑四安寺，授大經四十二卷，遠公《義疏》、辯空師《圓旨》，共一百二十五萬言。皆囊括深奧矣。方年十三，指擿緇徒，露老成之氣。時丞相杜公元穎作鎮西蜀，聞玄名，命升堂。講談于大慈寺普賢閣下。黑白眾日計萬許人，注聽傾心，駭歎無已。自此蜀人弗斥其

名，號陳菩薩耳。傳云：「玄前身名知鉉，漢州三學山講《十地經》，感地變琉璃焉。」玄於淨眾寺辯貞律師所受具戒，纔聽「毘尼」，續通《俱舍》，則長十山固律師之付授焉。復從本師下三峽，歷荆、襄，抵于神京資聖寺。此寺四海三學之人會要之地，玄敷演經論，僧俗仰觀，戶外之履日其多矣。文宗皇帝聞之，宣入顧問，甚愜皇情。後學《唯識論》於安國信法師。又研習外典，經籍百家之言，無不該綜。玄每恨鄉音不堪講貫，乃於象耳山誦《大悲呪》，夢神僧截舌換之。明日，俄變秦語矣。有楊茂孝者，鴻儒也，就玄尋究內典，直欲效謝康樂注《涅槃經》，多執卷質疑，隨為剖判。致書云：「方今海內龍象，非師而誰？」次揚刑部汝士、高左丞元裕、長安揚魯士咸造門擬結蓮社。嘗一日玄宴坐，見茂孝披紫服、戴碧冠，三禮畢，乘空而去。玄令人偵問，茂孝其夕誡其子曰：「吾常欲落髮披緇，汲瓶挈履，侍玄公，所累者簪冕也。吾蓋棺時，殮以紫袈裟，碧芙蓉冠。」至是方驗先見矣。武宗御宇，初尚欽釋氏，後納蠱惑者議，望祀蓬萊山，築高臺以祈羽化。雖諫官抗疏，宰臣屢言，終不迴上意。因德陽節，緇、黃會麟德殿，獨詔玄與道門敵言，神仙為可學不可學耶？帝叉手付老氏中「理大國若烹小鮮」義，共黃冠往復。玄陳帝王理道，教化根本，言神仙之術，乃山林間匹夫獨擅高尚之事業，而又必資宿因，非王者所宜。辭河下傾，辯海橫注，凡數千言。聞者為之股慄，大忤上旨，左右莫不色沮。左護軍仇士良、內樞密楊欽義惜其才辯，恐將有斥逐之命，乃密諷貢《祝堯詩》。玄立成五篇，末章云：「生天本自生天業，未必求仙便得仙。鶴背傾危龍背滑，君王且住一千年。」帝覽詩微解。帝雖不納忠諫，而嘉其識見口給也。玄即歸巴岷舊山，例施巾櫛，而存戒檢愈更甄明。方扁舟入湖、湘間，時楊給事漢公廉問桂嶺，延止開元佛寺。屬宣宗龍飛，楊公自內樞統左禁軍，以冊定功高，請復興天竺教，奏乞訪玄聲迹。玄復挂壞衣，歸上國寶應寺。屬壽昌節講讚，賜紫袈裟，署為三教首座。帝以舊藩邸造法乾寺，詔玄居寺之玉虛亭。大中三年誕節，詔諫議李貽孫、給事楊漢公，緇黃鼎列論義，大悅帝情。因奏天下廢寺基各勅重建，大興梵剎，玄有力焉。命畫工圖形于禁中，其優重如是。與相國裴公休友善，同激揚中興教法事。八年，上章乞歸故山，大行利濟，受益者多。廣明二年春，僖宗違難西蜀，後遣郭遵泰齎璽書，肩輿詔赴行在。帝接談論，頗解上心。左軍容田令孜與諸達官，問道勤重。帝欲旌其美，令諸學士撰玄師號，皆未愜旨。乃揮御翰云：「朕以開示悟入，《法華》之宗旨也。悟者，覺也，明也，悟達大道，悟佛知見。」又云：「悟者一剎那，不悟河沙劫，所以悟者真乘了然成佛之義。今賜『悟達國師』為號。雖曰強名，用表朕意。」玄陳讓

不遂，乃乞歸九隴舊廬。於正月二十一日臥內，見所曾遊歷聖境名跡，皆見在前。二月七日，聞空聲曰：「必生淨土。」乃訊之云：「孰之語耶？」空又鷹曰：「佛也。」七月中，聞戶外有格鬪之聲，逡巡一菩薩降于庭前，事摩滅矣，漸迫僅玄身，丁寧讚喻：「勿以此苦為累也。」言訖而沒。又於一夕，有一珠自玄左足下流去，苦楚萬端，諦視其珠中明明有「晁錯」二字。乃知玄是袁盎也，曾因七國反，盎奏斬錯，以謝吳、楚諸王，故為嬰撓耳。召弟子慈燈附口上遺表，囑令棄屍，半飼魚腹，半啗鳥獸。吾久與西方淨土有期如斯。誦誦訖，右脇面西而逝，享年七十三，僧臘五十四。玄咸通中曾遊澤州，追問小遠法師，同年亦同終日月焉。玄堅守禁戒，少欲，過中不食蔬果，服唯布褐，臥則藟秆。而六時行道，夜臥一更，餘則禪坐。等視眾生，無貴賤少長，待之如一。素結情好深者裴相國休。初，裴鎮荊門，玄遊五臺山，路出渚宮，贈遺初無所取。裴知其儉約，密遣人沿路以供之，若蘇秦遣舍人陰資奉張儀也。嘗經駱谷真符縣雍氏家枕潭，潭中有大魚，如龍四足，而齒牙纖利，其家日飼以食，已四世矣。或欲網釣之意，則輒雲霧晦冥焉。玄扣船撫其頂，瞪目而鼓躍，即為受歸依。未幾，乃寄夢雍氏曰：「我謝汝累世護念，今受歸依，已生天而永訣矣。」次為導江玉壘山神李冰廟、益昌北郭龍門神，偕受戒法，罷其血食歟。有李商隱者，一代文宗，時無倫輩，常從事河東柳公梓潼幕，久慕玄之道學，後以弟子禮事玄，時居永崇里，玄居興善寺。義山苦眼疾，慮嬰昏瞽，遙望禪宮，冥禱乞願。玄明旦寄《天眼偈》三章，讀終疾愈。迨乎義山臥病，語僧錄僧徹曰：「某志願削染為玄弟子，臨終寄書偈決別。」云。玄生常著《如來藏經會釋疏》二卷，命僧徹撰《法鑑》以照像，若《十翼》焉。《大無量壽經疏》二卷。僧徹著《法燈》，類章指焉。《勝鬘經疏》四卷，僧徹著《法苑》以錯綜，猶緯書焉。又《般若心經》、《金剛經》各有《疏義》。此外秦、蜀之間，作釋氏雜文、外篇、箴論、碑誌、歌詩，錄成二十餘卷，禮懺文六卷，通計三十萬言。後遷塔于茶籠山附聖寺矣。中和二年，弟子左街僧錄淨光大師僧徹述傳，法孫右街僧錄覺輝，輝弟子偽蜀祐聖國師重孫光業僧錄，綿綿瓜瓞，皆名公也。鳳翔府寫玄真，李義山執拂侍立焉。

系曰：「玄公何云袁盎，又為知鉉二人後身耶？」通曰：「人壽百年，自漢至唐，玄幾經出沒乎骸山淚海，斷可知矣。然則玄公多才行道，近古罕聞，法嗣蕃昌，他莫與議也。」

唐京兆大安國寺僧徹傳

釋僧徹，不知何許人也。敏利天資，高邁逸類，稚歲聰穎，而慕悟達國師，若顏回之肖仲尼也。既而時親函丈，頗見幽微，隨侍翼從，未嘗少厭。窺其門牆，其殆庶幾乎。悟達凡有新義別章，咸囑付徹暢衍之。為《如來藏經疏》著《法鑑》四卷，《大無量壽經疏》著《法燈》二卷，《勝鬘師子吼經疏》著《法苑》十卷。觀乎悟達為疏，若左丘明之傳也。徹述三法鈔，猶杜、服之集解歟？初居法乾內寺，師資角立，聲彩風行，凡百官寮無不奉仰，率由徹內外兼學，辭筆特高，唱予和汝，同氣相求。尋充左右街應制，每屬誕辰，升麟德殿法座講談，勅賜紫袈裟。懿宗皇帝留心釋氏，頗異前朝。遇八齋日，必內中飯僧數盈萬計。帝因法集，躬為讚唄，徹則升臺朗詠。寵錫繁博，勅造栴檀木講座以賜之。又勅兩街四寺行方等懺法，戒壇度僧各三七日。別宣僧尼大德二十人入咸泰殿置壇度內。福壽寺尼繕寫《大藏經》，每藏計五千四百六十一卷，雕造真檀像一千軀，皆委徹檢校焉。以十一月十四日延慶節，麟德殿召京城僧道赴內講論，爾日徹述皇猷，辭辯瀏亮，帝深稱許。而又恢張佛理，旁懾黃冠，可謂折衝異論者，當時號為「法將」。帝悅，勅賜號曰淨光大師，咸通十一年也。續錄兩街僧事。初徹經江論海，勇於揭厲，於青龍寺講貫，既循悟達國師義意，寄呈所見，蒙迴八十四字云：「觀君《法苑》思冲虛，解我真乘刃有餘。若使龍光時可待，應憐僧肇論成初。五車外典知難敵，九趣多才恐不如。蕭寺講軒橫淡蕩，帝鄉雲樹正扶疎。幾生曾得闍跢意，今日堪將貝葉書。一振微言冠千古，何人執卷問吾廬？」覽茲獎飾，悲喜盈襟。以廣明中，巢寇犯闕，僖宗幸蜀。其夕徹內宿，明日倉黃與杜光庭先生扈從入於岷、峨。再見悟達，痛序艱難。徹極多著述，碑頌歌詩。不知所終。內翰侍郎樂朋龜為真讚，鳳翔、嘉州皆寫其真相。弟子秦、蜀之間愈多傳法者。

宋高僧傳卷第六

宋左街天壽寺通慧大師賜紫沙門贊寧等奉 勅撰

義解篇第二之四(正傳二十三人附見四人)

唐五臺山華嚴寺志遠傳(元堪)

釋志遠，俗姓宋氏，家于汝南。其父早喪，孤侍孀親，承顏之禮，匪遑晨夕。母常念《法華經》，精通五卷。遠識度明敏，孤標卓然。年二十八，辭親從師，歸依荷澤宗風，晤解幽旨，經營僧事，聯綿六秋。凡諸取給，未嘗混互。自爾辭師尋禮，復經八年，雖博瞻兩宗，情猶繫滯。聞天台一枝，該通妙理，定、慧雙融，解進於行。十乘境觀，起自一家。修性三德，清涼盛演。因命同輩追遊五峯，棲遁林泉，履歷前躅，曉六凡四聖之理，了開示悟入之門，百界千如，包羅性相。即遮即照，破立同時。依正圓融，凡聖平等，豁開心目，物我雙亡。僅四十年，闡揚獨步。遠業精道邈，志苦神和，臥不解衣，食非別請。時歲不稔，樵炊屢乖，每掬水漱流，將期永日。體有瘡疥，手不塗摩，戒檢遵修，警慎心口。常以四種三昧鍊磨身心。至於緘札題尺，頗閑辭翰蟲篆之美。每有緇素負才學者，異其辯說，或傍搜僻隱，欲為挫銳，伺之瑕玷，求其勝負。進雖傲然踞席，退乃踧躅赧容，來高我山，去隨四悉。洎會昌四年，春秋七十七，僧臘四十八，忽絕食數朝，而說法罔憚。以二月十七日誡門人曰：「吾自生修進，不欺心口，今獲二種果報。臥安、覺安而無痛惱。」又曰：「天台宗疏，務在宣傳，《法華疏》十卷，本、迹二門，三周記別，開近顯遠。《玄文》十卷，五義判釋。

《止觀》十卷，境、觀雙修，不定頓、漸，八教麁、妙，遮、照平等，行、解圓明，一多相即一藏文句，瑩玉撻金，將踐聖階，降茲罕及。禮懺方等，必假精誠，志之永懷，副吾之意也。」于時龍象雲萃，櫛比座隅，咸讚希奇，同稱佛號。慈誨之際，奄至遷靈，風慘雲愁，山昏水咽，林巒色變，徒屬悽傷。闔維日，諸子奔馳，罔知所詣。雖學者如林，達其法者唯元堪，即扶風馬氏之裔也。氣度冲邃，道風素高，蓋遠傾其解脫之瓶，注以醍醐之器，可謂一燈之後復然一燈。及武宗澄汰之際，稟師先旨，哀慟累夕，以其章疏文句，祕之屋壁。及宣宗再闡釋門，重葺舊居，取其教部，置之影堂，六時經行，儼若前製。《法華》妙經，積歲傳唱；《摩訶止觀》，久而敷揚。嗣繼之心已極師、資之禮也。

唐越州應天山寺希圓傳

釋希圓，姓張氏，姑蘇人也。宗親豪富，而獨捨家，從登戒法，便遊講肆。不滯一方，勤修三學，良深歲稔，尤至博通，時推俊邁，因命講訓。光啟中，屬徐約軍亂，孫儒略地，吳苑俶擾。圓由通玄寺附商船，避地于甬東。其估客偕越人也，篤重於圓，召居會稽寶林山寺。形雖么麼，性且強幹，與時寡合，多事宴默。或問之，則曰：「吾逍遙乎無形之場，同師子遊戲耳。」景福中，於山寺演暢經論，同聲相應，求法者至。乃著《玄中鈔》數卷，皆當義妙辭也。恒勸人急修上生之業，且曰：「非知之難，行之為難。汝曹勉旃。」圓六時禮懺，未嘗少缺。居小房，即瑯琊山頂，是山也，傳云從瑯琊臺飛來，此處先是屠坊，故皆鎮于其下。山之家有井，井有鰻鯨焉，水有盈縮，應大江之潮候，甚多靈怪。一云此處禹鎖浙江蛟蜃之屬，其名曰蛆。蛆有雙耳，其色蒼黃，或緣竹木，必風雨至矣。今或出石竅，入僧居溝渠中，見人不驚，握則跳梁如怒狀。唯偏入圓房，圓手執宛轉屑就，乃為之受歸戒，令勿作風雹之妖。暨圓終，而多暴風雨也。圓之修習，願見彌勒。一日講次，屹然坐終于法座，時眾聞異香裊裊，天樂錚鏦，或絕或連，七日後已，此真上生之證歟！則乾寧二年四月也。還山之日，僧眾置祭于寺門。無何，有人茜袍象笏拜跪愴然。惝恍之間，杳無蹤迹，眾莫能測焉。荼毘，收舍利七百餘粒，被四明人齎往新羅國矣。

唐絳州龍興寺木塔院玄約傳

釋玄約，姓張氏，正平人也。志韻剛潔，幼萌出塵之心，既諧夙志，入州龍興伽藍，日誦千言，更無再受。落髮之後，滿足律儀，檢察己心，循其戒範，精持止、作，未嘗穿穴。自茲名節頓高，流輩窺仰。數稔之間，律、論俱瞻，遍求知識，探蹟玄文。戾止長安崇聖寺，以戒德之選而預臨壇，講律并《俱舍》共四十餘遍，淵靜其性，研覈靡虧。著《俱舍論金華鈔》二十卷，為時所貴。而二講登席，可三百餘人，皆北面受業焉。傳稟門生一百許輩，汾、沁之間奔走學者，迨乎老矣。終本院小房，俗壽七十六，法臘五十六。學法弟子道俗收焚坑舍利數百粒，構輒浮圖于郡城之西焉。

梁滑州明福寺彥暉傳

釋彥暉，姓孫氏，今東京陽武縣人也。佩觿之歲，聞父讀《金剛般若》，瞪目凝聽，澹然歡喜。又屬家內齋僧，磬、梵俱作，於簾幕

之下合掌欣然。登年十五，隨師學法，往太原、京兆、洛陽聽采忘勞。年滿，於嵩山少室寺受大戒，隸習毘尼，頗通深趣。次尋經論，皆討玄源。且曰：「為善不同，同歸乎治。治則戒、定、慧也。入聖機械，此三治性之極致也。」屆洛都，先達無不推伏。至乎四部悉仰柔明，臨鑑則戚少欣多，執瓶則荷輕持重。三衣之外，百一之資，量足而供，更無餘長。所行慈、忍，匪事規求。不畜門徒，惟勞自己，勤勤化導，默默進修。是故南燕之人號為佛子。初寄明福寺，講《百法論》也，四海英髦，風趨波委，恒溢百餘，且多俊邁，精研論席，鑽仰經宗。其間碩學兼才，故有分為上、下十惡。十惡者，若八伯之號焉。上十惡則洞閑性、相，高建法幢，宗、因、喻三，立、破無滯。下十惡則學包內、外，吟詠風騷，擊論談經，聲清口捷，讚揚梵唄，表白導宣。蓋因題目之分，乃極才能之際，云惡則倒背之言，乃是極善也。其門弟子為若此也。暉《因明》、《百法》二論各講百許遍，出弟子一百五十餘人，著鈔曰《滑臺》，盛行于世。以乾化元年秋八月三日，氣力薨然而奄化矣。春秋七十二，法臘五十二。滑人追慕其德，二眾三百餘人奉神柩歸葬于陽武縣側，營小塔焉。

梁_今東京相國寺歸嶼傳

釋歸嶼，姓湄氏，壽春人也。父元旭知子敏利，授以《詩》、《書》，誦覽記憶，彌見過群。從諸子而竊願出塵，父母允其頻請，乃禮本郡開元寺道宗律師為力生焉。未及周星，念通《法華》、《仁王》二經。登于弱冠，而全戒足，矜持三行，靡曠四儀，習聽新章，尋通講授。後聞洛京、三輔經、論盛行，結侶求師。僅于十載，疏通性、相，精大、小乘，《名數》一支，「因明」一學，《俱舍》、《唯識》、《維摩》、《上生》，皆深藏若虛也。復往南燕就暉公，重覆所學，研朱益丹，猶慨義章未為盡善。乃之今東京相國寺，遂糅《新鈔》，講訓克勤，門生領悟。時朱梁後主與嶼夤角同學庠序，狎密情濃，隔面年深。即位半載，下詔訪之。嶼雖知故舊，終歲不言。事不可逃，應召方入。帝見悲喜交集，宣賚豐厚。時屬嘉慶節，曾下勅止絕天下薦僧道恩命，其年獨賜嶼紫衣，仍號演法大師。兩街威儀迎導，至寺，兼勅東塔御容院為長講院。時閩帥，以聖節進《金剛經》一藏，絹三百匹，盡賜嶼焉，法侶榮之。然覩舊鈔有所不安，未極其理，遂搜抉精義於三載，著成二十卷，號曰《會要草字》，寫畢進呈。帝覽賞歎，勅令入藏，嶼苦辭乃止。如是十五年中，唱導無怠，學徒繼榮、瞻公相繼傳持。至後唐清泰三年十月十日，謂門人洪演曰：「余氣力憊

然，無常將至，汝好住修進。」焚香合掌，初夜長逝，春秋七十五，僧臘五十五。即以其月十八日遷塔於京東郊寺莊東岡焉。

後唐洛陽長水令譚傳

釋令譚，姓楊氏，陝府閿鄉人也。幼而履操，迴求出俗，得本邑之師授《淨名經》。年既應法，乃納戒律，大、小乘教兼而學之。於名數法門，染成淳粹。《彌陀》、《中觀》幹及膏腴，聲光振發，莫之與京。因遊洛南長水，遇歸心檀信構伽藍，就中講貫。一論一經，三十載中宣化，計各五十餘遍。日別誦《維摩》、《上生》以為恒課。執行持心而絕瑕類，遠近宗承，若望梅者得飲焉。以清泰二年乙未歲終于邑寺，春秋七十一，法臘五十一。其年遷于山麓，徇西域法火葬，獲舍利，學人、檀越共建塔焉。

後唐定州開元寺貞辯傳

釋貞辯，中山人也。少知出塵，長誓修學，剋苦之性，人不堪其憂。一志聽尋，暇則刺血書經，又鍼血畫立觀自在像、慈氏像等。嘗因行道困息，有二天女來相撓惱，辯誓之曰：「我心匪石，吾以神呪被汝。」彼眾不容去。自此道勝，魔亦無蹤。辯負笈抵太原城聽習，時中山王氏與後唐李氏封境相接，虞其覘間者，并州城內不容外僧。辯由此驅出，遂於野外古塚間宿。會武皇帝畋遊，塚在圍場中。辯固不知，方將入城赴講，見旌旗騎卒，縮身還入穴中。武皇疑，令擒見，問其故，遂驗塚，中敷草座，案、硯、疏、鈔羅布，遂命入府供養。時曹太后深加仰重，辯訴於太后曰：「止以學法為懷，久在王宮不樂，如桎械耳。」武皇縱其自由，乃成其業。泊王處直平，乃歸中山講訓，補故伽藍，無不諧願。有婦人陳氏布髮掩地，請辯蹈之。撰《上生經鈔》，為學者所貴，時號《辯鈔》者是。後終于此寺焉。

後唐會稽郡大善寺虛受傳

釋虛受，嘉禾禦兒人也。納戒後，於上都習學，內外博通，傳講數本大經論，不憚宣導。咸通中，累應奉聖節充左街鑑義，輩流孰不弭伏。及廣明中，京闕盜據，逃難灑迤。抵越大善寺，同好者命講《涅槃》、《維摩》二經，即天祐年中也。因憤謙、雅等師釋崇福疏，繁略不中，其猶以水濟水，終無必濟焉，遂撰《義評鈔》十四卷。同光中方畢軸。又因講《俱舍論疏》，有賈曾侍郎序，次僧圓

暉序，皆著鈔解之，其文富贍，昔嘗染指知焉。受於《涅槃》，辯而非略，仍多駁議小遠之疏，免為青蠅之玷。餘則《法華》、《百法》、《唯識》，各有別行義章。受性且狷急，與人不同，畜弟子無一可中，嘗自執爨饌齋食，柴生火滅，復吹又燿，怒發，汲水沃之，終日不食而講焉。及晚年眼昏甚，登師子座，戴竹笠而講，貴目不閃爍爾。或譏其慢眾，受亦不介意。屬武肅王錢氏按部至越，遂出謁見，王素嚮風，乃加優禮，言勞再三。暨乾化中，於會稽開元寺度戒，命之充監壇選練，吳、會間行此職者，自受始也。王表于朝廷，薦其紫衣。莊宗制賜，行人齋至營丘。時受講當《上生經疏序》，至「若洪鐘而虛受」。受捨塵柄言曰：「某得名無典實，今後更為虛受，小子識之。」及狀聞王，王曰：「此僧必無恩命分，何名虛受乎？」至同光乙酉歲，受終，迨海艦齋誥牒來，稽其終日，正到青社，果符武肅之言。有《文集》數卷、《述義章》三十餘卷，行之于代。

後唐杭州龍興寺可周傳

釋可周，俗姓傅，晉陵人也。出家于本部建元寺。循良厥性，切問于勤。友生勉之曰：「非其地，樹之不生。今豫章經謂之江，論謂之海，胡不往請業乎？」周感其開導，挈囊達彼，遇雲表法師盛集，窮《法華》慈恩大疏，日就月將，幹運深趣。昭宗初，自江西迴台、越之間，命其啟發。梁乾化二年，受杭州龍興寺召開演，黑、白眾恒有半千。兩浙武肅王錢氏命於天寶堂夜為冥司講經，鬼神現形扈衛，往往人覩焉。嘗有祭銅官祠神，巫氏久請不下，後附巫曰：「吾隨從大神去西關天寶堂聽法方迴。」武肅王聞而鄭重，賚周中金如意并鉢、紫衣一副，加號精志通明焉。以天成元年，終於觀音院本房。初，周乾寧四年戾止台州松山寺講疏，闕鈔，遂依疏節成五卷，曰《評經鈔》，《音訓》五帖，解宣律師《法華序鈔》一卷，行于浙之左右。弟子相繼不絕。

後唐今東京相國寺貞誨傳

釋貞誨，姓包氏，吳郡常熟人也。年始十三，出家於本州龍興寺。其性沈靜，分陰是競。方踰一稔，誦徹《法華經》，如是恒業日周二部。年十九，於揚州擇名師受具足法。自爾西之伊洛，北抵晉郊，凡有講筵，下風求益，覈其經論，窮其性相，輩流之間，罕齊馳驚。至於非朋弱友，弃背如也。唐天祐元年，至今東京相國寺寓舍，講導《法華經》十許遍，人未歸重，則知奇貨之售亦有時焉。

及梁氏都于京，人物委輸。貞明二年，會宋州帥孔公仰誨風規，知其道行。便陳師友之禮，捨俸財，置長講法華經堂於西塔院，從此翕然盛集。誨旁讀大藏教文，二時行道，精進罔疲。凡世伎術百家之言，黜于議論之外，誠門徒曰：「異端之說，汨亂真心，無記不熏，何須習俗？吾止願為師子吼，不作野犴鳴也。」但專香燭塗掃，以內院為息肩之地。至後唐清泰二年二月十日，召弟子五十餘人，自具香湯澡浴，令唱《上生》禮佛，罄捨衣資，為非時，僧得施半齋僧。訖至十一日，望空合掌云：「勞其眾聖排空相迎。」滿百徒侶，爾日皆聞天樂之音，頃刻而卒，俗壽七十三，僧夏五十四臘。於寺講貫三十餘年，經講計三十七座，覽藏經二遍，修彌勒內院業。以其年二月十八日葬浚郊東寺莊之原，旛幢威儀，緇白弟子約千餘人會送焉。

後唐洛京長壽寺可止傳

釋可止，姓馬氏，范陽大房山高丘人也。年甫十二，迥有出俗之心，依憫忠寺法貞律師。年十五，為息慈，辭師往真定習學經論。時大華嚴寺有仁楚法師講《因明論》，止執卷服膺三遍，精義入神，眾推俊邁。有老宿維摩和尚者，釋門之奇士也，問楚師曰：「門人秀拔，孰者為先？」曰：「有幽州沙彌者，溫故知新厲精弗懈。」於是求見，遂質問勝軍比量，隨難應變，辭不可屈。維摩曰：「後生可畏，契經所謂雖小不可欺也。」遂率力請止開講恒陽，緇素無不欽羨焉。迨十九歲，抵五臺山求戒，於受前方便，感文殊靈光燭身。已而歸寧父母及師，於寺敷演。二十三往并部，習《法華經》、《百法論》。景福年中，至河池，有請講「因明」。後於長安大莊嚴寺化徒數載。乾寧三年，進詩，昭宗賜紫袈裟，應制內殿。本道劉仁恭者，據有北門，控扼蕃漢，聞止之名，移書召歸故鄉。其父與師相次物故，母猶在堂，止持盂乞食，以供甘旨。行誦《青龍疏》三載，文徹忽有巨蟒見于房，矯首顧視，似有所告。時同院僧居曉，博物釋子也，且曰：「蛇則日睛不瞬，今其動乎？得非龍也？」止焚香祝之曰：「貧道念《青龍疏》，營齋養母，苟實龍神軫念，希值一檀越。」居數日，燕師家子曰：「制勝司徒召申供養。」時莊宗遣兵出飛狐以圍之，歷乎年載，百穀勇貴，止頓釋憂懼。未幾燕陷，劉氏父子俘歸晉陽，止避亂中山，節度使王處直素欽名譽，請於開元寺安置，逐月供俸。止著《頓漸教義鈔》一卷，見行于代。天成三年戊子，王師問罪，定州陷焉。招討使王晏休得瀛王馮道書，令尋止。既見，以車馬送至洛京，河南尹秦王從榮優禮待之，奏署大師，號文智焉。於長壽淨土院住持。

應順元年甲午正月二十二日，忽微疾作，召弟子「助吾往生」，念彌陀佛，奄然而化。俗年七十五，僧臘五十六。閏正月二日荼毘，收遺骨。至清泰二年四月八日，建塔於龍門山廣化寺之東南隅。止風神峭拔，戒節孤高，百家子史，經目無遺。該博之外，尤所長者，近體聲律詩也。有《贈樊川長老詩》，流傳人口。在定州日，中山與太原互相疑貳，諸侯兼并，王令方欲繼好息民，因命僧齋於慶雲寺。會有獻白鵠者，王曰：「燕人詩客試為詠題。」止即席而成，後句云：「不知誰會喃喃語，必向王前報太平。」王欣然。詩人李洞者風骨僻異，慕賈閻仙之模式，景福中在河池相遇，贈止三篇。時宰相孫公渥、趙公鳳、馬公裔孫、竇學士夢徵、符侍郎蒙、李侍郎詳，皆唱予和汝，填箎韻諧。止頃在長安講罷，遊終南山逍遙園，是姚秦什法師譯經之地，年代浸深，鞠為茂草。且曰：「吾為釋子，忍不興乎？」奏昭宗乞重修，帝允，仍舊賜「草堂寺」額。後請樊川淨休禪伯聚徒談玄矣。及在洛也，講外長誦《金剛經》，不知紀極。昔多居終南山、崆峒山，故有《三山集》，詩三百五十篇，盛行于時。弟子修文、修智、修行，微見師之道焉。

漢太原崇福寺巨岷傳

釋巨岷，姓任氏，西河人也。父遊于藝而賁丘園。母王氏戒受八關，心歸三寶，從妊岷也，更好善緣，復求福利，而生令子。及生，年甫七歲，志氣敦篤，暫見佛像，注仰欣然。父母知有宿因，或携入寺，意欲忘歸。至本郡淨心院，見宣遠論師，志戀其房，泣求攝受。二親知不能阻其願，咸皆可之。年十歲，誦終《法華》、《維摩》二經，日持十卷，更無間隔，如執瑠璃之器。其舒徐恣制，若老成焉。迨圓滿足，便習尸羅，克通開制之科，恒照欣戚之鑑。自爾大乘理趣，經論精窮，得其師門，則并部永和三學也。俾夜作晝，窓案是臨，不暇諸他。除研習義章，修六事二因也，於《大般涅槃經》兼《因明論》，末年逾切。又傳輸《金論》，盡屏餘緣，各講十遍，仍求輔亮，博覽群書，得義最精，又揚具美。尋稟綸言，住城內天王院，與弟子俱供億不虧，傳持無替。乾祐元年，漢祖以龍潛晉土之日，便仰岷名，特降庭臣賜紫衣，號圓智大師。續有詔宣住崇福寺講堂院，仍充管內僧正。經年而變法於晉，檢策僧徒，如風偃草。至乾祐二年十一月五日，無疾而終。于時四眾含悲，一城戀德。俗齡九十三，法臘五十四。乃遵西域荼毘禮，多投香水，或執旛花，黑白之眾盈郊，黯靄之雲蔽日，未容火滅，皆捧寶瓶，待盛梁粟之形，同見重修之體。時得舍利者，隨自因

緣，或多或少。別得遺骨，具表奏聞。漢主勅葬於西山天龍寺，凡事官供，起石塔。勅諡號曰達識焉。

漢棣州開元寺恒超傳

釋恒超，姓馮氏，范陽人也。祖父不仕，世修儒道，而家富巨萬。超生而聰慧，居童稚群，不貪戲弄。年十五，早通六籍，尤善〈風〉、〈騷〉，辭調新奇，播流人口。忽一日因閱佛經，洗然開悟。乃歎曰：「人生富貴，喻等幻泡，唯有真乘，可登運載。」遂投駐蹕寺出俗。未周三祀，方議進修，晝夜不疲，而屬師亡，亦遵釋氏喪儀，守禮無怠。孝悌之名，燕人所美。梁乾化三年，往五臺山受木叉戒，由是陟遐自邇，切問近思。俄徵〈伐木〉之章，且狎成人之友，結契遠求名匠。阻兩河間，兵未罷，路不通。南則梁祖，北則莊宗，抗衡於輕重之前，逐鹿在存亡之際。當是時也，超止於本州、魏、博、并、汾之間，學大小乘經、律、論，計七本，講通思，於雍、洛、梁、宋名師，杳然隔絕。雖然，巡歷非遠，宏暢殊精，瓶滿見知，翼飛名字。是故并部息塵、中山貞辯，夫二人者，言行俱臻，證修有位，一見超，歎曰：「義龍之頭角悉完備矣，待飛奮而為霖雨焉！」其為碩德題目，多此類也。龍德二年，挂錫於無棣，超曰：「此則全齊舊壤，鄒、魯善隣。」遂止開元伽藍，東北隅置院，講諸經論二十餘年，宣導各三十餘遍。節操高邁，舉措舒徐，緇素見之，無不怯懼。聲無叱咤，語不夸奢，自然而然，且非威勢凌[車*閭]之所得也。前後州牧，往來使臣，嚮譽欽風，修名執刺，相禮重者，止令童子辭以講貫，罕曾接對。初有所嫌，終伏其高，齊、魯之間，造秀不遠數百里，造其門以詰難。諸公一覩超容，傍聽議論，參乎子、史，證以教宗。或問「因明」，超答以詩一首，辭新理妙，皆悉歎降。時郡守李君素重高風，欲飛章舉賜紫衣。超聞驚愕，遂命筆為詩云：「虛著褐衣老，浮杯道不成。誓傳經論死，不染利名生。厭樹遮山色，憐窓向月明。他時隨范蠡，一棹五湖清。」李君復令人勸勉，願結因緣。超確乎不拔，且曰：「而其復爾，則吾在盧龍塞外矣。」郡將聞而止。又相國瀛王馮道聞其名，知是鄉關宗人，先遺其書，序以歸向之意。超曰：「貧道閑人，早捨父母，剋志修行。本期彌勒知名，不謂浪傳於宰衡之耳也。於吾何益？」門人敦喻，不得已而答書，具陳出家之人豈得以虛名薄利而留心乎？瀛王益加鄭重，表聞漢祖，遂就賜紫衣。自此忽忽不樂，以乾祐二年仲春三日微疾，數辰而終於本院。院眾咸聞天樂沸空，乃升兜率之明證也。春秋七十三，僧臘三十五。門人洞徵與學徒百餘人持心喪，傾城士庶僧尼會

送城外，具茶毘禮，收舍利二百餘顆分施之。外緘五十顆，於本院起塔以葬之。瀛王末知，別奏賜師號曰德正，乃刊勅文于石塔焉。

漢洛京法林院僧照傳

釋僧照，姓張氏，范陽人也。年十四出家，投憫忠寺，聰悟絕儔，神儀偉秀。初受經偈，日誦數千百言，目所覽者過於宿習。吐論知見，有老成之風。遂度為沙彌。受具已來，歷于再閏，暗誦經典，已踰六大部矣，即《最勝王》、《大悲》、《維摩》、《法華》等經。傍加聽尋經、論，十數年間，深文伏羲，藍出青矣。天祐中，遊方南下，爰屆中山，元戎王處直請住法華寺。相次易帥請之，太傅、隴西公連表薦賜紫方袍，加至真大師。次則扶風馬公請為僧正，非所好也。及抵洛陽，有命開《法華經》講，止法林院。況乎都闕浩穰，象龍輻湊，及照之唱導，翕如於下風伏膺矣。以乾祐元年三月二十六日，示滅于講院，春秋七十，僧臘五十。四眾號慕，侍中李公傾易定，曾為外護，復守洛宅，飾終喪禮，悉以資奉。粵四月三日遷神于城南，行茶毘法，收舍利，紅潤可數百粒。濟陽丁公為保釐之箴職，為樹塔于廣化之寺南岡。照平昔講凡七十餘座，勤勤為法。門生頗多。宰臣馬公孫最所欽重，前後贈詩僅數十首，洛中為美談矣。

漢洛陽天宮寺從隱傳(夢江)

釋從隱，姓劉氏，洛陽三鄉人也。卯年敏慧，誓欲出塵，二親既聽，乃投本邑竹閣院，依師誦習，陶練靈府。尋於嵩陽受戒畢，就長水聽采，纔歷數年，克通《百法》、《中觀》、《彌陀》三經論焉。而謔師年老，深許隱之博達性相。後於洛布金院赴請敷演。至後唐清泰中，謔付講座，日為眾三登法席。夏中長晷，覽藏經一帙，精進苦節，人無與比。乾祐二年正月，示疾而終，俗壽五十三，僧臘三十二。乃依天竺法火化，收合真體，圓淨堪愛，門人樹塔，至今存焉。次有長水縣縣泉院釋夢江者，姓楊氏，本邑人也。神彩灑落，超拔凡態，遂願出家，恒誦《仁王》、《般若》。進具後講《百法論》。清泰中龍門廣化寺請為眾開演，遇帝幸其寺宣問，妙辯天逸，悅可上心，時於御前賜紫袈裟，確乎不受。訓導二十餘年，講罷行道禮佛，日唯一食。慈忍於物，罕逢慍色。周顯德三年疾終，緇素悲慕，為其建塔矣。

漢杭州龍興寺宗季傳

釋宗季者，俗姓俞，臨安人也。稚齒瑰偉，心志剛直。嘗天震隣家樹，季隨僵仆，有姊尼抱就膝，視之曰：「此非震死，且有生。」候至夜未央，甦而復作。遂勸令出家，事欣平寺僧。後往衢州，投巨信論師，學《名數論》，文義淹詳，且難詘伏，鋒芒如也。迨迴杭，龍興寺召講。時僧正蘊讓給慧縱橫，兩面之敵也，與閻丘方遠先生、江東羅隱為莫逆之交也。見而申問，季作二百語訓之，讓正賞歎，遂請開講，四十餘年，出弟子七、八百人。漢乾祐戊申歲，疾終于本房。初，季講次遇一異人，作胡語，問西域未來之經論，一眾驚然。季眇二目，曾夜行感神光引之，常覽古師之述作，曰：「可俯而窺也。」遂撰《永新鈔》，釋《般若心經》、《暉理鈔》，解《上生經》、《彌勒成佛經疏鈔》、《補猷鈔闕》，諸別行義章，可數十卷，並行于世。季道行孤僻，性情方正，寡言語，氣貌高邁，誓不趨俗舍。暨老，懇請亦罕赴白衣家。居唯屢空，衍然自任，而孜孜手不釋卷，樂道向終。至今此宗越多弟子，講導不泯焉。

周魏府觀音院智佺傳

釋智佺，姓張氏，銅臺永濟人也。九歲，於鄴都臨清王舍城寺事師。暨受具戒，身器挺然八尺，面色玉如，行步若舒雁，言音如扣鐘。人望之凜然，僉曰：「美丈夫也。」恒誦諸經，晝三夜三，禮佛無闕。本師知其法器，遣往滑臺，抵明福寺，就暉師講肆。朞月，頓見諸法體用，喜不自任。時暉之門生炮勇休幹者數十員，皆出佺之下。徇睢陽人請講，未久，又今東京遇信士捨宅為萬歲百法院。由此洛京、陳、許、徐、宿、維、青、琴臺咸樂請其敷演，自鳩聚檀觀，前後飯僧三十萬。天雄軍戴、張、郭三家同建觀音院，命居之。佺敏利之性天資，初終講《百法論》，可百許遍。登法座，多不臨文，懸述辯給。後三過覽大藏經，以輔見知。其誦諷經呪也，嘗聞戶外聞然，有彈指聲者，感鬼神讚歎歟？魏帥陳君思讓篤志歸依，表薦紫衣師，號曰歸政。殆臨八十一，而刻意學歐、王書體，僅入能妙。或問之，曰：「吾習來生字耳。」顯德五年，年八十三，呼弟子奉晏等囑累，令造木輿一所，斂送闍維。至其年十一月十一日奄終，奉木塔，舉高三丈餘。縱燎時有白鶴哀鳴，紫雲旋覆。收拾舍利，建塔緘焉。

宋秀州靈光寺皓端傳

釋皓端，姓張氏，嘉禾人也。九歲，捨家入靈光精舍，師授經法，如溫舊業焉。年登弱冠，受形俱無表。于四明阿育王寺遇希覺律師，盛揚南山律，端則一聽旋有通明，義門無壅。尋投金華雲法師學《名數》一支并《法華經》。後受吳興緇伍所請講論焉。兩浙武肅王錢氏召於王府羅漢寺演訓，復令於真身塔寺宣導。于時有台教師玄燭者，彼宗號為第十祖，端依附之，果了一心三觀，遂撰《金光明經隨文釋》十卷。由是兩宗法要，一徑路通。忠獻王錢氏借賜紫衣，別署大德，號崇法焉。後誓約不出寺門，慕遠公之不渡虎溪也。高尚其事，僅二十餘年，身無長衣，口無豐味，居不施關，坐唯一榻。以建隆二年三月十八日，坐滅于本房，容貌猶生。三日，焚之于城西，得舍利於煨燼之末。俗年七十二，僧臘五十二。凡著述傳錄記讚七十許卷，學得其門者止八十餘人。端性耿介，言無苟且。一坐之間不談世論，唯以佛法為己務，可謂傅翼之象王矣。祕書監錢昱嘗典秀郡，躬覩端之標格，為著《行錄》焉。

宋東京天清寺傅章傳

釋傅章，俗姓彭氏，開封東明人也。厥父謹，即邑甸之上農也，塵務之外，正見不回，恒讀佛經，懸解詮旨。母邢氏嘗夢入法宇，手探道器，因而娠焉。與父知懷非常之子，指腹誓令出俗。年甫十一，乃禮本邑唯識師祕公為師，一見異之。初授《淨名》、《仁王》、《法華》三經，及削髮去周羅，隨祕公遊五臺，禮文殊應跡之地。其年受具。為息慈日，便於浚郊清朗法師座下聽習《法華經》。後於睢陽道雅法師重溫前業，尋學《唯識》於本師，頗揭厲于義津法水。又親附副僧錄通慧《因明》，且臻其極章。日誦三經兼二戒本，講貫訓徒，向二十載，未嘗少輟。廣順中，左街僧錄廣智大師薦聞于周高祖，賜紫方袍。大宋乾德二年，左街僧錄道深薦于太祖神德皇帝，賜師號曰義明。俄示疾而終于本院，春秋五十五，法歲三十六。未絕之前，命筆作偈警世，而贈諸朋執矣。所度弟子一十五人，以其年十一月十六日卜京之南原，用茶毘之法，薪盡火滅，得舌且不灰，眾歎戒德。門人檀信共立塔焉，則開寶五年也。先是，厥父恒務《法華經》，終後焚之，亦舌不壞。子父同驗，實為罕有。相國寺清慧大師彝炳為《塔銘》焉。

宋并州崇福寺佛山院繼倫傳

釋繼倫，姓曹氏，晉陽人也。弱齒而壯，其志勇，其心決，求出家。本師授《法華經》，日念三紙，時驚宿習。慧察過人，登戒之

後，至年二十一，學通《法華經》義理幽蹟，《唯識》、《因明》二論，一覽能講。由是著述，其鈔至今河東盛行。三講恒一百五十餘徒，從其道訓。又撰《法華鈔》三卷。其為人也，慈忍成性，戒範堅強，人望之而心服。以劉氏據有并汾，酷重其道，署號法寶，錄右街僧事，寬猛相參，無敢違拒。以偽漢己巳歲冬十月示疾，心祈口述願生知足天。終後頂熱半日方冷，則開寶二年也。享年五十一。闍維畢，淘獲舍利，遠近分取供養焉。

宋齊州開元寺義楚傳(修進省倫)

釋義楚，俗姓裴氏，祖相州安陽人也。楚七歲來省歷下，臨壇大德修進因為出家師也。進乃楚之諸父也。季父省倫居香嚴院。進也誦《觀音普門支經》向十萬遍，立禮《法華經》，字字各拜，拜且徹部焉。倫則青丘主宰，禪居誦《大悲》、《佛頂》俱一億遍。楚執柯伐木，熏習相資，登此近圓，勤學不懈，敏慧夙成，「俱舍」一宗，造微臻極。遂傳講《圓暉疏》十許遍。後該覽大藏三遍，乃慨儒家為佛教之文而多謬解，解既謬歟，事多誤用。擬白樂天《六帖》，纂釋氏義理、文章、庶事、群品，以類相從，建其門目，總括大綱，計五十部。隨事別列四百四十門，始從《法王利見部》，終《師子獸類部》，其間物類，檢括周旋，令供筆之時必無告乏矣。一十年中，孜孜罔倦。起晉開運二年至顯德元年畢，進呈，世宗勅付史館，賜紫衣，仍加號明教大師。以開寶中終於龍興伽藍。俗壽七十四，法臘五十四。楚始謀此作，隨得便書，哀多益寡，日居月諸，釀成編錄。忽因本院門古石上有「六帖」二字，天然分明。覩此靈符，乃知宿定，搜今斡古，筆不停綴。時樞密相國王公朴為楚作序，冠于編首，今行于寰海矣。初，楚著述心亦勞止，而雙目喪明，醫工莫療。遂冥心懺過，慮刪碎教文，裁量差脫，如是虔虔更無間息，再歲還明，人謂其徵感焉。

宋杭州慈光院晤恩傳

釋晤恩，字修己，姑蘇常熟人也。姓路，母張氏嘗夢梵僧入其家而妊焉。及稚孺，見沙門相，必起迎遲。年十三，聞誦《彌陀經》，遂求出家。親黨饒愛，再三沮之，乃投破山興福寺受訓。後唐長興中受滿分戒，登往崑山慧聚寺，學南山律。晉天福初，從樵李皓端師聽習經論，懸解之性天然，時輩輒難抗敵。後微聞天台三觀、六即之說，冥符意解。漢開運中，造錢唐慈光院志因師，講貫彌年，通達《法華》、《光明經》、《止觀論》，咸洞玄微。尋施覆述，

出弟子相次角立。雍熙三年八月朔日，恩於中夜覩白光自井而出，明滅不恆，謂門人曰：「吾報齡極於此矣。」乃絕粒禁言，一心念佛。次夢擁納沙門執金鑪焚香，三遶其室，自言：「祖師灌頂來此相迎，汝當去矣。」夢覺，呼弟子至，猶聞異香。至二十五日為弟子說「止觀」旨歸及「觀心」義。辰時，端坐面西而化，享年七十五，僧臘五十五。其夜院僧有興、文偃等皆聞空中絲竹嘹亮而無鞀鼓，且多鈴鐸，漸久漸遠，依稀西去。迨九月九日，依西域法焚，獲舍利青白圓粒無算。恩平時謹重一食，不離衣鉢，不畜財寶，臥必右脇，坐必加趺。弟子輩設堂居，亦同今之禪室。立制嚴峻，日別親視明相，方許淨人施粥，曾有晚飲薯蕷湯者，即時擯出鬻堂。每一布薩，則潛洒不止，蓋思其《大集》「滿」「洲」之言耳。偏誨人以彌陀淨業救生死事，受教得生感祥可見者，往往有之。凡與人言，不問賢、不肖，悉示以一乘圓意。或怪不逗機者，乃曰：「與作毒鼓之緣耳。」不喜雜交游，不好言世俗事。雖大人豪族，未嘗輒問名居，況迂趨其門乎？先是天台宗教，會昌毀廢，文義殘缺。談妙之辭，沒名不顯。恩尋繹十妙之始終，研覈五重之旨趣。講《大玄義》、《文句》、《止觀》二十餘周，解、行兼明，目、足雙運。使《法華》大旨全美流于代者，恩之力也。又嫌昔人《科節》與荆溪《記》不相符順，因著《玄義》、《文句》、《止觀》、《金光明》、《金[鑠-糸+升]》論科，總三十五帖，見行於世。吁，河、漢中有魚泝流而上者何？潛泳有所取故。恩公不寬乘戒而出弟子十有七人，求解而行行耳。

宋天台山螺溪傳教院義寂傳

釋義寂字常照，姓胡氏，溫州永嘉人也。母妊娠公日不喜葷血，生乃首蒙紫帽而誕焉。幼啟二親，堅求去俗，旋入開元伽藍。師授《法華經》，朞月而徹，寺之耆老稱歎希有。受具已，往會稽學南山鈔。既通律義，乃造天台山研尋「止觀」，其所易解猶河南一遍照也。先是智者教迹，遠則安史兵殘，近則會昌焚毀，零編斷簡，本折枝摧，傳者何憑端正其學？寂思鳩集也。適金華古藏中得《淨名疏》而已。後歛告韶禪師，囑人泛舟於日本國購獲僅足。由是博聞多識。微寂，此宗學者幾握半珠為家寶歟？遂於佛隴道場、國清寺相繼講訓，今許王錢氏在兩浙日，累請開演，私署淨光大師并紫方袍，辭讓不却，受而不稱。及興螺溪道場，四方學侶霧擁雲屯。太平興國五年，朝廷條貫緇伍經業，寂從山入州治寺，寺東樓安置。樓近大山，夜夢剝柱陷沒于地，意頗惡之。自徙於西偏僧房，其夜春雨甚，山崩樓圮。人咸謂寂先見同修報得之眼焉。因受黃巖

邑人請，乘舟泛江放生，講〈流水長者品〉。至海門靈石，是智者冬居道場也，勸人修寺塑像，入緣者繁沓。今上遣高品衛紹欽入山重建，壽昌寺也，諸官同命受菩薩戒。雍熙初，永安縣請於光明寺受戒。古殿像隳，腹中獲《發願辭》，即唐咸通六年沙門希皎施戒，勸七鄉人裝塑尊像，願捨報為男子，童真出家，常布褐傳法利樂眾生云。觀者皆意寂之前身也。四年，臨海、縉雲、永康、東陽諸邑請其施戒。九月，寂至自太末，十月，寢疾本院方丈。十一月四日，囑誡門人：「不許哭泣祭奠。應緣俗禮者，非吾弟子也。」即窆于方丈，樹小塔焉。享年六十九，法臘五十矣。四方傳法弟子見星而舍者數百人。寂平素講《法華經》并《玄義》共二十許座，《光明》、《淨名》、《梵網》等經，《止觀》、《金[鏢-糸+卅]》等論，《法界》、《還源》等觀，《禪源詮》、《永嘉集》各數遍，所著《止觀義例》、《法華十妙不二門科節》數卷。自智者捐世，六代傳法湛然師之後，二百餘齡，寂受遺寄，最克負荷，其如炎蒸講貫而無汗之霑洽，曾不久聽而勝解佛乘。每一談揚，則縱金玉應，召羽商和，彼九旬說妙，相去幾何？又嘗寓四明育王寺，夢登國清寺上方，有寶莊嚴幢座，題曰「文殊臺」，設栴檀闌隔，求人無由。俄覩觀音菩薩從堂徐出，以手攘却行馬，低迂相接。斯須，覺已與觀音身混合不分，因而驚寤。自是之來，樂說無盡矣。或曰：「入普門智，乘利物悲。上合佛覺，證無上故。下合眾生，凡同體故。開則群靈混成一法，得是心者，非觀音而誰歟？」是以講談也，施戒也，自甌越之鄉迨三天子障，民多嘍戾，俗尚畋獵。受寂之訓也，咸食樵革音，說法之功，所謂善建。由是堂室間可見者，曰澄或，曰寶翔，曰義通。及乎台之民庶，曾受戒法，迎真相來州治開元寺祭饗，皆縞素哀泣，天為之變慘，其慈攝之所感。知州鄭公元龜為詩悲悼焉。

論曰：

玄默垂文，聖人俯察。河、雒之流有告，圖書之法作程，禹受斯符，乃為經緯，本六十餘字，訓第表明，號〈洪範〉以開章，得彝倫而迨敘。帝王之法粲然可觀，祖述之家翕爾宗此。我之佛道可弗然耶？教自西傳，若龜、馬之文乍辯；聲由此盛，如夏、商之美惟揚。及其講訓相資，籤箋互出，因分異轍，各競顯門，施巧智之莫京，致慧心之懸合。宜乎得正信者必開正眼，見正道者必事正修，倒本前因，則以決擇為主。原夫能詮之教喻圖書也，所詮之理喻訓第也，經容緯入，緯變經存，令表顯之名言，從體義之相雜。《唯識》僉推於護法，成即司南；《婆沙》奄有於餘師，說同衍字。良以各迷己見，皆未極成，正不正之說恢張，玄又玄之談崛起。大抵無名相法作名相說，非如色法影質易尋。名、色交加，喜生迷競。

又以言存一意，義止一途，隨情取舍之時，未為允當，隨轉理門之處，蓋涉無文。加復教有弛張，意關詳略。討尋者非英明而莫悟，承領者非行位而不知？在人亡書，以教為折中。故論中以四種徵理，理則難隱。一觀待，二作用，三法爾，四證成。用斯道理，義豈惑乎？譬如甲氏背人而去，有二、三子相問曰：「彼去者誰耶？」一云：「乙也」。一云：「丙也」。此俱未是。彼有識人云：「甲也」。迴面視之，是甲非乙。由其不識，遂有多名。識者一呼，應聲而至。親得自體，不涉異緣，故曰「精義無二」也。因義生解，解必虛通，除其執情，令生正解，斷其迷執。執情斷，故所執便遣。既能生解，則斷障。二重斷染，依他清淨，依他圓成，故得二勝果焉。不然者，認相似法，墮惡取空，曳曲木於稠林，泛膠舟於苦海，又不可勝道也。《瑜伽論》中：「契經體有二，一文二義。文是所依，義是能依。如是二種，總名一切所知境界也。」夫以能化之教已翻，所詮之理難悟。苟非宿慧，安喻經心？宿慧當多世之熏，方能生起。經心乃大雄之意，豈易尋求？諺所謂「老見事長」，佛已三祇之揚歷；多言或中，法從諸聖之同宣。豈得以夏蟲共論其凌漸，井魚互談其渤澥？此誠不可也。必須近佛菩薩，善慧法師，四無礙居遊戲之中，八辯音演自他之利。祇如天親大士將世尊之一言，中道圓宗成諸法之五位，如龍帶涓滴而起為雨，望苗稼而施。又同《命包》作緯於《春秋》，《鑿度》為資於《大易》，此皆善其通變，能其揣摩，以利根而教鈍根，以正見而誘邪見，都稱為摩訶般特伽也。西域蒲塞冶家子以為裘，此方俊才鬻乳人而加水。成裘則易，以日見而留心；免水則難，以傳來而隔手。昔以講人論法，造疏尋宗，用《成實》法數之名，補《大乘》闕員之義。其有解法名目，隨人見知，未融六釋之端，何暇三隅之反？至若黎邪是報非報，化人有心無心，和合怖數之徒，聞熏滅不滅等百有餘科，並《三藏》、《四含》之盤根，大小兩宗之鈐鍵，先賢之所不決，令哲之所共疑，但謂闕如，所知成障。

及乎瑩師西復，梵本東傳，富《瑜伽》之寶林，開《唯識》之淵府，「摩訶衍」足，「殺三摩」明，名數均著作之家，立破定是非之量。深山大澤，必生龍蛇，有大乘基為其高足，不緣宿習，多見生知。謂之「義天」，則明星有爛，謂之「理窟」，則善閉無關。堂堂合《周髀》之儀，軋軋應崑崙之軸。有經皆講，無疏不成，權奇百本之名，控壓四人之聖。復次光也、寶也、測乎、沼乎，章句之學頗長，釋籤之理何富！世茂《珠林》，邁編《圖紀》，璟附《量》度于鯨海，尚綴文榮于玉華，究「三論」極乎瑗、康，窮《方等》歸乎楷、景。觀公撰集，《華嚴》命章。解相入之連環，且無難色；通絕行之斷閣，故立易功。法藏從性海而遊，智昇自名

流而出。偉歟一行，所作通神，實僧相之法王，乃人形之菩薩。忠、氤、琳、甫、賁、秀、詵、真，俱參譯判經，盡開荒闢土。於爍宗密，美乎湛然，悟達全才，徹公令範，可以副人之求備哉！餘諸上士，擅美殊方，落落英翹，互有長短。矧以佛之說經，申經者論；經由論顯，論待疏通，疏總義章，義從師述。況以隔羅縠者見猶未盡，大遍知者知方得全。射侯之矢易疎，診脈之求難中。若非親證親說，得自體之分明，載驅戴馳，妄他求之晦曖，如攝異門分，差別之相難知。故《智論》中，吾滅度後，所有撰集者皆為「論藏」攝也。俱作導師，指迷人之歸路；悉銜明燭，照暗室之績工。動戒足以行之，入定門而安矣。蓋纏克斷，智慧成功，咸從生死之河，盡度涅槃之岸，此始可與言從聞且思，思至而修證大圓寂者。過此以往未知。執名滯義，問欲何為？故曰：「精義入神，以致用也。」既有所用，則捨筌蹄而直造佛地，此則深於其道者也。

宋高僧傳卷第七

習禪篇第三之一(正傳十五人附見三人)

唐蘄州東山弘忍傳

釋弘忍，姓周氏，家寓淮左潯陽，一云黃梅人也。王父暨考，皆干名不利，賁于丘園。其母始娠，移月而光照庭室，終夕若晝。其生也灼爍如初，異香襲人，舉家欣駭。迨能言，辭氣與隣兒弗類。既成童，絕其遊弄。厥父偏愛，因令誦書，無記應阻其宿熏，真心早萌其成現。一旦出明，徙倚間如有所待，時東山信禪師邂逅至焉。問之曰：「何姓名乎？」對問朗暢，區別有歸，理逐言分，聲隨響答。信師熟視之，歎曰：「此非凡童也！具體占之，止闕七大人之相，不及佛矣。苟預法流，二十年後必大作佛事，勝任荷寄。」乃遣人隨其歸舍，具告所親，喻之出家。父母欣然，乃曰：「禪師佛法大龍，光被遠邇，緇門俊秀，歸者如雲。豈伊小駮，那堪擊訓，若垂虛受，因無留恪。」時年七歲也。至雙峯，習乎僧業，不遑艱辛。夜則斂容而坐，恬澹自居。洎受形俱，戒檢精厲。信每以頓漸之旨，日省月試之。忍聞言察理，觸事忘情，瘕正受塵，渴方飲水如也。信知其可教，悉以其道授之。復命建浮圖，功畢，密付法衣以為質要。將知齧雪山之肥膩，構作醞醐，滄海底之金剛，棲傾巨樹。擁納之侶麤至蟬聯，商人不入於化城，貧女大開於寶藏，入其趣者號「東山法門」歟。以高宗上元二年十月二十三日告滅，報齡七十有四。是日氛霧冥暗，山石崩圯。門弟子神秀等奉瘞全身于東山之岡也。初，忍於咸亨初命二、三禪子各言其志，神秀先出偈，惠能和焉。乃以法服付慧能，受衣化於韶陽。神秀傳法荆門、洛下，南北之宗自茲始矣。又信禪師嘗於九江遙望雙峯，見紫雲如蓋，下有白氣，橫開六岐。信謂忍曰：「汝知之乎？」曰：「師之法旁出一枝，相踵六世。」信甚然之。及法融化金陵牛頭山，貽厥孫謀，至于慧忠凡六人，號牛頭六祖，此則四祖法又分枝矣。然融望忍則庶孽耳，安可匹嫡乎？開元中，太子文學閻丘均為塔碑焉。代宗勅諡大滿禪師，塔曰法雨也。蘄春自唐季割屬偏霸，暨開寶乙亥歲王師平江南之前，忍肉身墮淚如血珠焉。僧徒不測，乃李氏國亡之應也。今每歲孟冬，州人隣邑奔集作忌齋，猶成繁盛矣。其諱日將近，必雨霧陰慘，不然霰雪交霏，至日則晴朗焉。

唐韶州今南華寺慧能傳

釋慧能，姓盧氏，南海新興人也，其本世居范陽。厥考諱行瑫，武德中流于新州百姓，終於貶所。略述家系，避盧亭島夷之不敏也。貞觀十二年戊戌歲生能也，純淑迂懷，惠性間出。雖蠻風獠俗，漬染不深，而詭行么形，駁雜難測。父既少失，母且寡居，家亦屢空，業無腴產。能負薪矣，日售荷擔。偶聞廛肆間誦《金剛般若經》，能凝神屬垣，遲遲不去，問曰：「誰邊受學此經？」曰：「從蘄州黃梅馮茂山忍禪師勸持此法，云即得見性成佛也。」能聞是說。若渴夫之飲寒漿也，忙歸，備所須留奉親老。咸亨中，往韶陽，遇劉志略。略有姑無盡藏，恒讀《涅槃經》。能聽之，即為尼辨析中義。怪能不識文字，乃曰：「諸佛理論，若取文字，非佛意也。」尼深歎服，號為行者。有勸於寶林古寺修道，自謂己曰：「本誓求師，而貪住寺取乎道也，何異却行歸舍乎？」明日遂行，至樂昌縣西石窟，依附智遠禪師，侍座談玄。遠曰：「行者迨非凡常之見龍，吾不知，吾不知之甚矣！」勸往蘄春五祖所印證去，「吾終於下風請教也。」未幾造焉，忍師覩能氣貌不揚，試之曰：「汝從何至？」對曰：「嶺表來參禮，唯求作佛。」忍曰：「嶺南人無佛性。」能曰：「人有南北，佛性無南北。」曰：「汝作何功德？」曰：「願竭力抱石而舂，供眾而已。」如是勞乎井臼，率淨人而在先；了彼死生，與涅槃而平等。忍雖均養，心何辨知？俾秀唱予，致能和汝。偈辭在壁，見解分歧，揭厲不同，淺深斯別。忍密以法衣寄託曰：「古我先師轉相付授，豈徒爾哉。嗚呼！後世受吾衣者命若懸絲，小子識之。」能計迴生地，隱於四會、懷集之間，漸露鋒穎。就南海印宗法師《涅槃》盛集，論風旛之語，印宗辭屈而神伏，乃為其削椎髻於法性寺，智光律師邊受滿分戒，所登之壇即南宋朝求那跋摩三藏之所築也。跋摩已登果位，懸記云：「後當有肉身菩薩於斯受戒。」又梁末真諦三藏於壇之畔手植菩提樹，謂眾曰：「種此後一百二十年，有開士於其下說無上乘，度無量眾。」至是能爰宅于茲，果於樹陰開東山法門，皆符前讖也。上元中，正演暢宗風，慘然不悅。大眾問曰：「胡無情緒耶？」曰：「遷流不息，生滅無常，吾師今歸寂矣！」凶赴至而信。乃移住寶林寺焉。時刺史韋據命出大梵寺，苦辭，入雙峯曹侯溪矣。大龍條起，飛雨澤以均施，品物攸滋，逐根芟而受益。五納之客擁塞于門，四部之賓圍繞其座。時宣祕偈，或舉契經，一切普熏，咸聞象藏；一時登富，悉握蛇珠；皆由徑途，盡歸圓極，所以天下言禪道者以曹溪為口實矣。洎乎九重下聽，萬里懸心，思布露而奉迎，欲歸依而適願。武太后、孝和皇帝咸降璽書，詔赴京闕，蓋神秀禪師

之奏舉也。續遣中官薛簡往詔，復謝病不起。子牟之心敢忘鳳闕，遠公之足不過虎溪，固以此辭，非邀君也。遂賜摩納袈裟一緣、鉢一口、編珠織成經巾、綠質紅暈花綿巾、絹五百匹，充供養云。又捨新興舊宅為國恩寺焉。神龍三年，勅韶州可修能所居寺佛殿并方丈，務從嚴飾，賜改額曰法泉也。延和元年七月，命弟子於國恩寺建浮圖一所，促令速就。以先天二年八月三日俄然示疾，異香滿室，白虹屬地。飯食訖，沐浴更衣，彈指不絕，氣微目瞑，全身永謝。爾時山石傾墮，川源息枯，鳥連韻以哀啼，猿斷腸而叫咽。或唱言曰：「世間眼滅，吾疇依乎！」春秋七十六矣，以其年十一月遷座于曹溪之原也。弟子神會若顏子之於孔門也，勤勤付囑，語在〈會傳〉。會於洛陽荷澤寺崇樹能之真堂。兵部侍郎宋鼎為碑焉。會序宗脈，從如來下西域諸祖外，震旦凡六祖，盡圖績其影。太尉房琯作《六葉圖序》。又以能端形不散，如入禪定，後加漆布矣。復次蜀僧方辯塑小樣真，尚同疇昔。能曾言：「吾滅後有善心男子必取吾元，汝曹勿怪。」或憶是言，加鐵環纏頸焉。開元十一年，果有汝州人受新羅客購，潛施刃其元，欲函歸海東供養。有聞擊鐵聲而擒之。其塔下葆藏屈眊布鬱多羅僧，其色青黑，碧縑複袷，非人間所有物也。屢經盜去，迷倒却行而還禡之。至德中，神會遣弟子進平送牙癢和一柄。朝達名公所重，有若宋之問謁能，著長篇。有若張燕公說寄香十斤并詩，附武平一至，詩云：「大師捐世去，空留法身在！願寄無礙香，隨心到南海。」武公因門人懷讓鑄巨鐘，為撰銘讚，宋之問書。次廣州節度宋璟來禮其塔。問弟子令韜無生法忍義。宋公聞法歡喜，向塔乞示徵祥。須臾，微風漸起，異香裊人，陰雨霏霏，只周一寺耳。稍多奇瑞，追繁不錄。後肅宗下詔能弟子令韜，韜稱疾不赴，遣明象齎傳法衣鉢進呈畢，給還。憲宗皇帝追諡曰大鑿，塔曰元和正真也。迨夫唐季劉氏稱制番禺，每遇上元燒燈，迎真身入城，為民祈福。大宋平南海後，韶州盜周思瓊叛換，盡焚其寺塔，將延燎。平時肉身，非數夫莫舉。煙燼向逼，二僧對舁，輕如夾紵像焉。太平興國三年，今上勅重建塔，改為南華寺矣。

系曰：「五祖自何而識一介白衣，便付衣耶？」通曰：「一言知心，更無疑貳。況復記心輪間如指之掌。」忍師施一味法，何以在家受衣鉢乎？秀師則否。通曰：「是法寧選緇、白，得者則傳？周封諸侯，乃分分器，同姓異姓別也。以祖師甄別精麤，以衣為信。譬如三力士射堅洛叉，一摩健那射則中而不破；二鉢羅塞建提破而不度；三那羅延箭度而復穿餘物也。非堅洛叉有強弱，但由射勢力不同耳。南能可謂那羅延射而獲賞焉。」信衣至能不傳，莫同夏禹之家天下乎？通曰：「忍言受傳衣者，命若懸絲，如是忍之意也。」

又會也稟祖法則有餘，行化行則不足。故後致均部之流，方驗能師之先覺，不傳無私悞之咎矣。故曰知人則哲也，吁！」

唐荊州當陽山度門寺神秀傳

釋神秀，俗姓李氏，今東京尉氏人也。少覽經史，博綜多聞。既而奮志出塵，剃染受法。後遇蘄州雙峯東山寺五祖忍師，以坐禪為務，乃歎伏曰：「此真吾師也。」決心苦節，以樵汲自役而求其道。昔魏末有天竺沙門達磨者，得禪宗妙法，自釋迦佛相傳授，以衣鉢為記，世相傳付，航海而來。梁武帝問以有為之事，達磨貴傳逕門心要，機教相乖，若水投石。乃之魏，隱於嵩丘少林寺，尋卒。其年魏使宋雲於葱嶺見之。門徒發其塚，但有衣履而已。以法付慧可，可付粲，粲付道信，信付忍。忍與信俱住東山，故謂其法為東山法門。秀既事忍，忍默識之，深加器重，謂人曰：「吾度人多矣，至於懸解圓照，無先汝者。」忍於上元中卒，秀乃往江陵當陽山居焉。四海緇徒，嚮風而靡，道譽馨香，普蒙熏灼。則天太后聞之，召赴都，肩輿上殿，親加跪禮。內道場豐其供施，時時問道。勅於昔住山置度門寺，以旌其德。時王公已下，京邑士庶競至禮謁，望塵拜伏，日有萬計。洎中宗孝和帝即位，尤加寵重。中書令張說嘗問法，執弟子禮，退謂人曰：「禪師身長八尺，彪眉秀目，威德巍巍，王霸之器也。」初，秀同學能禪師與之德行相埒，互得發揚無私於道也。嘗奏天后請追能赴都，能懇而固辭。秀又自作尺牘，序帝意徵之，終不能起，謂使者曰：「吾形不揚，北土之人見斯短陋，或不重法。又先師記吾以嶺南有緣，且不可違也。」了不度大庾嶺而終。天下散傳其道，謂秀宗為北，能宗為南。南北二宗，名從此起。秀以神龍二年卒，士庶皆來送葬，詔賜諡曰大通禪師。又於相王舊邸造報恩寺，岐王範、燕國公張說、徵士盧鴻各為碑誄。服師喪者，名士達官不可勝紀。門人普寂、義福並為朝野所重，蓋宗先師之道也。

系曰：夫甘苦相傾，氣味殊致。甘不勝苦則純苦乘時，苦不勝甘則純甘用事，如是則為藥治病，偏重必離也。昔者達磨沒而微言絕，五祖喪而大義乖，秀也拂拭以明心，能也俱非而唱道。及乎流化，北方尚修練之勤；從是分岐，南服興頓門之說。由茲荷澤行于中土。以頓門隔修練之煩，未移磐石；將絃促象韋之音，空費躁心。致令各親其親，同黨其黨，故有盧奕之彈奏，神會之徙遷，伊蓋施療專其一味之咎也。遂見甘苦相傾之驗矣。理病未効，乖競先成。祇宜為法重人，何至因人損法。二弟子濯擊師足，洗垢未遑，折脛斯見，其是之喻歟。

唐袁州蒙山慧明傳

釋慧明，姓陳氏，鄱陽人也，本陳宣帝之孫，國亡散為編氓矣。明少出家于永昌寺，懷道頗切，扣雙峯之法。高宗之世，依忍禪師法席，極意研尋，初無證悟，若喪家之犬焉。忽聞五祖密付衣鉢與盧居士，率同意數十許人躡迹急追，至大庾嶺，明最先見，餘輩未及。能祖見已，便擲袈裟，明曰：「我來為法，非望衣鉢也。」時能祖便於嶺首一向指訂，明皆洞達，悲喜交至，問能曰：「某宜何往？」能記之曰：「遇蒙當居，逢袁可止。」明再拜而去，便更其名，以舊云道明也。下嶺，給諸僧曰：「向陟崔嵬，遠望杳無蹤跡。」僧即退轉。一說，居士擲衣鉢於磐石曰：「此衣為信，豈可力爭耶？任君拈去。」明遂手掀，如負鈞石，而無舉分，拱立捨旃，則咸亨四年也。以明未捨家曾署諸衛，故有「將軍」之號矣。宜春太守秦琢奏謚號焉。

唐洛京荷澤寺神會傳

釋神會，姓高，襄陽人也。年方幼學，厥性惇明，從師傳授五經，克通幽蹟。次尋《莊》、《老》，靈府廓然。覽《後漢書》，知浮圖之說。由是於釋教留神，乃無仕進之意，辭親投本府國昌寺顓元法師下出家。其諷誦群經，易同反掌。全大律儀，匪貪講貫。聞嶺表曹侯溪慧能禪師盛揚法道，學者駿奔，乃敷善財南方參問，裂裳裹足，以千里為跬步之間耳。及見，能問會曰：「從何所來？」答曰：「無所從來。」能曰：「汝不歸去？」答曰：「一無所歸。」能曰：「汝太茫茫。」答曰：「身緣在路。」能曰：「由自未到？」答曰：「今已得到，且無滯留。」居曹溪數載，後遍尋名跡。開元八年，勅配住南陽龍興寺。續於洛陽大行禪法，聲彩發揮。先是，兩京之間皆宗神秀，若不泯之魚鮪附沼龍也。從見會明心，六祖之風蕩其漸修之道矣。南北二宗時始判焉，致普寂之門盈而後虛。天寶中，御史盧弈阿比於寂，誣奏會聚徒疑萌不利。玄宗召赴京，時駕幸昭應，湯池得對，言理允愜，勅移往均部。二年，勅徙荊州開元寺般若院住焉。十四年，范陽安祿山舉兵內向，兩京版蕩，駕幸巴、蜀。副元帥郭子儀率兵平殄，然於飛輓索然。用右僕射裴冕權計，大府各置戒壇度僧，僧稅緡謂之香水錢，聚是以助軍須。初洛都先陷，會越在草莽，時盧弈為賊所戮，群議乃請會主其壇度。于時寺宇宮觀，鞠為灰燼，乃權創一院，悉資苦蓋，而中築方壇，所獲財帛頓支軍費。代宗、郭子儀收復兩京，會之濟用頗有力焉。肅宗皇帝詔入內供養，勅將作大匠併功齊力，為造禪宇于

荷澤寺中是也。會之敷演，顯發能祖之宗風，使秀之門寂寞矣。上元元年，囑別門人，避座望空頂禮，歸方丈，其夜示滅。受生九十三歲矣，即建午月十三日也。遷塔于洛陽寶應寺，勅「諡大師」曰真宗，塔號般若焉。

系曰：修其教不易其俗，齊其政不易其宜者，貴其漸也。會師自南徂北，行曹溪之法，洛中彌盛，如能不自異，外護已成，則可矣。況乎旁無力輪，人之多僻，欲無放逐，其可得乎？或曰：「其過不多，何遽是乎？」通曰：「犯時之忌，罪不在大。失其所適，過不在深。後之觀此，急知時事歟？是以佛萬劫學化行者，知化行難耳。無令固己而損法，慎之哉！」

唐潤州竹林寺曇璀傳

釋曇璀，俗姓顧氏，吳郡人也。肇國著姓，其來彌光。丞相有佐命之勳，尚書有挺濟之譽。衣冠鼎胄，太嶽峻岱峯之高；令問徽猷，江漢為南國之紀。星象降精，靈祇効祉，德備胎教，香符夢徵。玄珪應上聖之祥，神寶蓄河汾之氣。特受異準，生而不凡，襁褓之日而童蒙來求，佩觿之時而忘身殉道。和敏而純素，溫恭而克明，神器夙昭，清風漸扇。遂勉節出塵，栖心物表，金經祕藏，一日萬言，不逾歲敘，而大經淹通。遂於晚年緬懷宗匠，始事牛頭山融大師。融醇懿瓌雄，東夏之達磨歟！梵幢寶柱，大海津梁，目以上根，乃誨之曰：「色、聲為無生之鳩毒，受、想是至人之坑阱。致遠多泥，子不務乎？」璀默而審之，直轡獨上，飡甘露味，飲蒲萄漿，猶金翅不食異類，帝釋無共鬼居。迺晦迹鍾山，斷其漏習，養金剛定，趣大能位，納衣空林，多歷年所。時淮南導首廣陵覺禪師、江左名德建業如法師，咸杖錫方來，降心義體，握珠懷寶，虛往實歸。則天皇母臨朝，龔行佛事，高其道業，周勤詔書。時棲霞約法師，梵門之秀傑，躬以敦勸朝天，抗詔皇明，恐未然也。璀曰：「支伯辭帝舜之師，干木謝文侯之命，玄暢以善論而抗宋主，惠遠不下山而傲齊后，彼何人哉！」由是遁北阜，踰東岡，考槃雲冥，後止于竹林之隩，葺宇篋缶而告老焉。既而紹列聖之鴻徽，繼前賢之能事，翼亮皇梵，保寧天人。俄端然入定，七日而滅，春秋六十二。是歲天授三年二月六日也。翌日，依天竺法火化，遺骸收灰建塔，土庶含酸，悉皆號慟。門弟子僧感、僧頽等刻石紀事，奉全師禮。正議大夫使持節潤州刺史汝南郡昇嚮風遐想，悅而久之，褒德尚賢，贊成厥美焉。

唐金陵延祚寺法持傳

釋法持，俗姓張氏，潤州江寧人也。儀貌邕肅，膚體至潤，幼而棄俗，長事明師，天機內發，識浪外澄。年十三，聞黃梅忍大師，特往禮謁，蒙示法要，領解幽玄。後歸青山，重事方禪師，更明宗極，命其入室，傳燈繼明，紹迹山門，大宣道化。方既出山，凡是學眾，咸悉從其咨稟心要，聲價騰遠，海內聞知。數年之中，四部依慕。時黃梅謝緣去世，謂弟子玄蹟曰：「後傳吾法者可有十人，金陵法持即其一也。」是知兩處禪宗重代相襲。後以法眼付門人智威。長安二年九月五日，終于延祚寺。遺囑令露骸松下，飼諸禽獸，令得飲食血肉者發菩提心。其日空中有神旛數首從西而來，遶山數轉。眾人咸見。先居幽棲故院，竹林變白。報齡六十有八矣。

唐越州雲門寺道亮傳

釋道亮，姓朱氏，越州人也。厥考前刺會稽郡。亮年八歲出家，極通經業。受具後學「河中三論」，復講《涅槃經》。尋入深谷，破衣覆形，蔬食資命，不交俗務，直守童真。神龍元年，孝和皇帝詔亮與法席宗師十人，入長樂大內坐夏安居。時帝命受菩薩戒。睿宗及妃后送異錦衾氈席。二年，詔於西園問道，朝廷欽貴。大都督李孝逸、工部尚書張錫、國子監司業崔融、祕書監賀知章、睦州刺史康誥，同心慕仰，請問禪心，多結師資，或傳香火。卒年八十二，門人慧遠等建塔，萬齊融為銘紀述。

唐荊州碧澗寺道俊傳

釋道俊，江陵人也。住枝江碧澗精舍，修東山無生法門，即信、忍二祖號其所化之法也。勤潔苦行，跡不出寺，經四十餘載。室邇人遠，莫敢請謁者，唯事杜默。如是聲聞于天，天后、中宗二朝崇重高行之僧，俊同恒景，應詔入內供養。至景龍中求還故鄉，帝賜御製詩，并奘、景同歸枝江，卒于本寺焉。

唐溫州龍興寺玄覺傳

釋玄覺，字明道，俗姓戴氏，漢末祖侃公第五燕公九代孫，諱烈，渡江，乃為永嘉人也。總角出家，齠年剃髮，心源本淨，智印全文，測不可思，解甚深義。我與無我，恒常固知；空與不空，具足皆見。既離四病，亦服三衣。德水沐其身，所以清淨；良藥治其眼，所以光明。兄宣法師者，亦名僧也。并猶子二人，並預緇伍。覺本住龍興寺，一門歸信，連影精勤，定根確乎不移，疑樹忽焉自

壞。都捐我相，不污客塵。觀其寺旁別有勝境，遂於巖下自構禪庵。滄海盪其胸，青山拱其背，蓬萊僊客，歲月往還；華蓋煙雲，晨昏交集。粵若功德成就，佛寶鬱興；神鐘震來，妙屋化出。覺居其間也，絲不以衣，耕不以食，豈伊莊子大布為裳，自有阿難甘露作飯。覺以獨學孤陋，三人有師，與東陽策禪師肩隨，遊方詢道，謁韶陽能禪師而得旨焉。或曰：「覺振錫遶庵答對」，語在別錄。至若神秀門庭，遐征問法，然終得心于曹溪耳。既決所疑，能留一宿，號曰一宿覺，猶半遍清也。以先天二年十月十七日於龍興別院端坐入定，怡然不動。僧侶悲號，以其年十一月十三日殯于西山之陽，春秋四十九。初覺未亡前，禁足於西巖，望所住寺喟然歎曰：「人物駢闐，花輿蒨蔚，何用之為！」其門人吳興興師、新羅國宣師數人同聞，皆莫測之。尋而述之曰：「昔有一禪師，將諸弟子遊賞之次，遠望一山，忽而唱曰：『人物多矣。』弟子亦不測，後匪久此師捨壽，殯所望地也。」西山去寺里有餘程，送殯繁擁，人物沸騰，其感動也若此。又未終前，有舒雁千餘飛于寺西，侍人曰：「此將何來？」空中有聲云：「為師墓所，故從海出也。」弟子惠操、惠特、等慈、玄寂，皆傳師之法，為時所推。後李北海邕為守括州，遂列覺行錄為碑，號神道焉。覺唱道著明，修證悟入，慶州刺史魏靖都緝綴之，號《永嘉集》是也。初覺與左溪朗公為道契，朗貽書招覺山棲。覺由是念朗之滯見于山，拘情於講，迴書激勸。其辭婉靡，其理明白。俾其山、世一如，喧、靜互用，趣入之意，暗詮于是，達者躉之。終，勅諡號無相，塔曰淨光焉。

唐金陵天保寺智威傳(本淨)

釋智威，俗姓陳氏，江寧人也。住近青山，地盤嘉氣，善符宿瑞，維嶽降神。爰在童年，器殊眾識，至於戲弄，曾不染俗。性惡浮飾，人皆異焉。無何一朝，忽失其所，父母莫知攸往，乃遍歷諸寺尋訪之，威已依天保寺統法師。誦大乘經，早數百紙，聰敏超倫，眾咸歎服。年二十，遇恩剃落，隸名于幽巖寺，因從持禪師諮請禪法，妙達深理，繼踵前修。既獲髻珠，淡然閑放，形容溫潤，面如滿月，言辭清雅，慧德蘭芳。望重一期，聲聞遠近，江左定學往往造焉。其中頓悟心源，即慧忠禪師，乃命嗣山門，盛傳道化。威自出止延祚寺，說法利人，廣施饒益。以開元十年二月十八日，終于住寺，遺囑林中飼鳥獸，弟子玄挺等依言奉行。春秋七十七。威一時夜行頭陀，將值天曉，有三虎遇之。威截路中過，了無怖色。虎隨至山門，四顧而去。每有二兔一犬庭際遊戲，各無間畏。蓋大悲平等，物我一均，故其然也。次司空山釋本淨，姓張氏，東平人

也。少入空門，高其節操。遊方見曹溪六祖，決了疑滯。開元初於南嶽司空山閑放自處，人不我知，蔽偽之故也。天寶中因楊庭光採藥，邂逅相逢，論道終日，迴奏，詔赴京，於白蓮華亭安置。帝知佛法幽深，孰堪商擢，勅召太平寺遠法師及兩街三學碩德，發問鋒起，若百矢之逐一兔焉。淨舉措容與，四面枝梧，譬墨翟之解九攻機械矣。既而辯若建瓴，誦抗之餘，乃引了義教授證。復說「伽陀」，一無留滯。皇情懌悅，觀者歎嗟。以上元二年五月五日歸寂，壽齡九十五。勅諡大曉禪師，亦帶所居為名，曰司空山禪師也。

唐睦州龍興寺慧朗傳(辯公)

釋慧朗，新定遂安人也。年二十有二，於衢州北山遇南宗頓教之首，將請為師，乃逆相謂曰：「汝久積淨業，吾非汝師，可往天台，當逢哲匠。」至剡溪石城寺見一禪翁，莫知其來，鶴髮冰膚，目如流電，聲含鍾律，神合太虛。乃問朗曰：「子將何之？」答曰：「欲往天台，求佛大法。」因同行十數里，憩林樹下，而指訓之曰：「法常寂然，彼亦如也。何必適遠，當化有緣，宜歸本生，度無量眾。」言畢，求之無方，豁然本心悟佛知見，林棲谷飲，凡經數載，乃却歸故邑慧安寺。淨名白衣，服非法服；純陀工巧，心如佛心。驪珠尚潛，師子未吼，弱喪之終，涉川迷津。一日，秦望山林嶺振動，俄有大龜呈質，咸相謂言：「此何祥也？」尋有禪僧曰：「辯自會稽雲門而來，身長八尺四寸，高鼻大目，睛光射人，明《大品》、《思益》、《維摩》等經，兼博通諸論。」眾曰：「神僧也，大龜應乎此也。」朗祕菩薩行，請之為師。辯徵《維摩經》義，答曰：「如日照螢火，海沃牛跡耳。」辯公深器之曰：「真淨名也。」景龍中，鄉人吳川縣尉余少興、宗黨新昌縣令余仁等十數家咸共宗事，遞請降臨。一夕，忽覩神光從項而出，旁燭山川，盈十數里，含情之類罔不歸依。辯公加師資之禮，由茲反拜，請朗登座。乃先示法身遍同群有，次明遍化一切皆如。道俗欣然而各歎曰：「昔山之震動，龜之敷祥，非辯公之應，明矣。」至是四方學禪觀者臻萃。開元四年，本州牧李思絢於龍山之陽建伽藍，延以居之。方大設戒壇，廣邀律德，有光州岸公、會稽超公而為上首。既而發希有心，受具足戒，珠圓月滿，內外俱明，遍臨壇為戒師，旋請益為學士，眾情加重，道在益尊。七年，刺史韋利器深心歸向。八年，歙州長史許思恭請往治所。朗升法座，無何熊伏于前，聞鐘而來，眾散而去。時皆驚懼，虞其搏攫。原其有聽法之心耳，其馴猛獸也若此。十三年九月二十一日，告門人曰：「吾將去

矣。吾三生此州，今一生矣。」言訖，儼然而寂，春秋六十四。稟遺命茶毘建塔。學者既多穎脫，則開元寺道欽、慧祐、道禪、龍興寺辯海、寧國寺進玉、越州寶林寺有沛、遠整、杭州竹林寺一行等，並傳朗之法，相繼若瓜瓞然。至大曆十二年，新定太守蕭定述碑，司馬劉長卿書，刺史李揆篆額，所謂俱是名公，盛誇全美者矣。

唐鄆州安國院巨方傳(智封)

釋巨方，姓曹氏，安陸人也。弱齡幹節立身，從師稟業於州治明福院朗禪師，而聽誦《法華》、《維摩》二經，功畢受具。講述「南宗論」數席，即拂衣而起。禪會必參。後造北宗秀公所，銳精稽考，一見默許之。秀問曰：「白雲散處如何？」曰：「不昧也。」又問：「到此間後如何？」曰：「正見一枝生五葉。」秀頷之。數載之間，入室侍對，庶幾真道，罕有倫儔。乃辭，觀方至上黨寒嶺而居。積稔之間，學徒數百，求請無阻。凡所提唱：真妄同源、遲速異劑、得心助道、在乎修治，大較如此。鄆帥吳文渙侍中欽慕其風，遣使請歸府，建安國院。傳法化徒，尚祖風者不離于席，頓悟多矣。鄆帥問曰：「今日後如何？」答云：「地布金沙，人安寶剎。」吳帥信伏。因茲一府軍民，咸加宗仰。吳氏家無少長，重若神明，檀施豐厚。方後於五臺山道化，涉二十餘載。入滅時告眾曰：「吾齒盡於此矣。」言訖長逝，春秋八十一。以開元十五年九月三日，全身入塔云。次河中府安國院釋智封，姓吳氏，懷安人也。中年學道，勵操謹躬，行頭陀之行，卯食之後，水漿不度齒焉。於本州清靜寺恒法師下落髮受具，綜習《唯識論》。或人所詰，責之以滯于名相，憤發罷講。遊行登武當山，見秀師會疑冰解泮，思養聖胎。條辭，出蒲津安峯山，禁足十年，木食澗飲。屬州牧衛文昇請歸城內，建新安國院居之。因茲奔走，毳衣蔚然繁盛。使君問曰：「某今日後如何？」對曰：「日從濛汜出，照樹全無影。」使君初不喻旨，拱揖而退。少選開曉，充訕于懷。封來往中條山二十餘年，儉薄不充。得其道者不可勝紀。入滅後，門人於州北三十步建塔焉。

唐鄆州大佛山香育傳

釋香育，姓李氏，濟陰人也。父為兗州掾。育有道性，常研習《莊》、《老》，根器奮發。俄於釋典留神，決捐俗態。趨滄州安定寺智元律師所，乞求削染。滿足戒後，精力律學，垂欲卒業。一

旦辭師觀遊聖跡，陟天台，登南嶽，或入巖阿，或棲樹下，末至五臺。後參預秀師盛化，夙心相契，擊節希聲。秀問之，育答密若隱書，一皆開釋。秀默異之。在叢眾間，多歷年所，洞徹心源，則辭秀去。入富水大佛山，勁節安禪，卯前一食。州將韓閏篤欽其道，堅召出山。育稱疾而已。因是黑白之眾渴仰歸依，韓使君輜車繼運，供施交駢，樹造法堂，嚴飾奇麗，時來問道。韓侯問：「佛法已後事如何？」答云：「如同太虛，委在有力。」韓侯欽尚。徒眾常有千計，賢、不肖駁雜而居，往往聞有不測之僧預其聽受焉。一旦說法次，告眾曰：「善哉是會，遭遇者艱。須決所疑，無遣虛度。」命水滌盥，端坐而化，春秋七十有三矣。

唐兗州東嶽降魔藏師傳

釋藏師，姓王氏，趙郡人也。父為亳州掾。稚齒尋師，居然慕法，而性好獨處。譙多厲鬼，持魅於人。藏七歲，隻影閑房，孤形迥野，嘗無少畏。至年長，彌見挺拔，故號降魔藏歟。請列青衿于廣福院明讚禪師，師意其法器，乃發擿之，鷹對辯給，答出問表。因留執事，服勤受法，俾誦《法華》，踰月徹部，登即剃落，受具習律焉。次講南宗論，大機將發。俄投麈尾，九州靈跡罕不登升。後往遇北宗鼎盛，便誓依棲。秀問曰：「汝名降魔，我此無山精木怪，汝翻作魔邪？」曰：「有佛有魔。」秀云：「汝若是魔，必住不思議境界也。」曰：「是佛亦空，何不思議之有？」時眾莫不異而欽之。先是秀師懸記之：「汝與少皞之墟有緣。」尋入泰山數年，學者臻萃，供億克周，為金輿谷朗公行化之亞也。一日，告門人曰：「吾今老朽，物極有歸，正是其時。」言訖而終。春秋九十一矣。

宋高僧傳卷第八

宋左街天壽寺通慧大師賜紫沙門贊寧等奉 勅撰

習禪篇第三之二(正傳十四人附見四人)

唐京兆慈恩寺義福傳(行思)

釋義福，姓姜氏，潞州銅鞮人也。幼慕空門，忝累世務，初止藍田化感寺，處方丈之室凡二十餘年，未嘗出房宇之外。後隸京師慈恩寺，道望高峙，傾動物心。開元十一年，從駕往東都，經蒲、虢二州，刺史及官吏士女皆齎旛花迎之，所在途路充塞，拜禮紛紛，瞻望無厭。以二十年卒，有制謚號曰大智禪師，葬于伊闕之北。送葬者數萬人。中書侍郎嚴挺之躬行喪服，若弟子焉，又撰碑文。神秀禪門之傑，雖有禪行，得帝王重之無以加者，而未嘗聚徒開法也。洎乎普寂始於都城傳教二十餘載，人皆仰之。初福往東洛，召其徒戒其終期，兵部侍郎張均、太尉房琯、禮部侍郎韋陟常所信重，是日皆預造焉。福乃升堂，為門人演說，且曰：「吾沒日昃，當為此決別耳。」久之，張謂房曰：「某夙歲餌金丹，未嘗臨喪。」言訖，張遂潛去。福忽謂房曰：「與張公遊有年矣。張公將有非常之咎，名節皆虧。向來若終此法會，足以免禍。惜哉！」乃提房手曰：「必為中興名臣，其勉之！」言訖而終。後張均陷賊庭也，受其偽官，而房翼戴兩朝，畢立大節，皆終福之言矣。又釋行思，姓劉氏，廬陵人也。濡潤厥躬，貞諒其性。出塵之後，納戒已還，破觚求圓，斲雕為朴，厥志天然也。往韶陽見大鑿禪師，一言蔽斷，猶擊蒙焉。既了本心，地祇迭告還，復吉州闡化，四方禪客繁擁其堂。開元二十八年十二月十三日入滅于本生地，勅謚大師，號曰洪濟，塔曰歸真。其塔會昌中例從堙毀，後法嗣者重崇樹之。

唐京師興唐寺普寂傳

釋普寂，姓馮氏，蒲州河東人也。年纔稚弱，率性軒昂，離俗升壇，循于經律。臨文揣義，迥異恒流。初聞神秀在荊州玉泉寺，寂乃往師事，凡六年。神秀奇之，盡以其道授焉。久視中，則天召神秀至東都論道，因薦寂，乃度為僧。及秀之卒，天下好釋氏者，咸師事之。中宗聞秀高年，特下制令普寂代本師統其法眾。開元二十三年，勅普寂於都城居止。時王公大人競來禮謁，寂嚴重少言，來者難見其和悅之容，遠近尤以此重之。二十七年，終于上都興唐

寺。年八十九。時都城士庶謁者皆制弟子之服。有制賜諡曰大照禪師。及葬，河南尹裴寬及其妻子，並縗麻列于門徒之次。傾城哭送，閭里為之空焉。裴尹之重寂，職有由矣。寂之闡化，神異頗多，裴皆日擊，又得心印，歸向越深，時多譏誚。裴日夕造謁，執弟子禮曾無差脫。一日詣寂，寂懸知弟子一行之亡。及寂之終滅，裴之悲慟若喪所親，縗經徒步出城，妻子同爾，搢紳之譏生於是矣。

系曰：人之情也有愛、惡焉，愛之者不見可惡，惡之者不見可愛矣。夫萬物紛綸，任其愛惡，折中之道，可愛而不可惡。愛之者君子也，惡之者小人也，愛之不以道，則君子之病矣。裴尹冠裳在御，職事在躬，不避密行，顯掇時謗，宜哉。譬諸僧耽俗務，胡不捨袈裟而衣逢掖乎？若實得道，後終期脫屣，有何不可耶？寬不抽簪，何悖禮於丘之門歟？寬若行方外之道，復何誅焉。達人大觀，物無不可矣。

唐南嶽觀音臺懷讓傳

釋懷讓，俗姓杜，金州安康人也。始年十歲，雅好佛書，炳然殊姿，特有靈表，識者占是出家相，非染俗貴。人寶來瑞，國慶無疆，方之麟鳳龜龍，無萬數也。天地無全功，氣序有盈虛，綱維缺壞，補塞不足，皆冥維密祐，惟應度者乃燭厥理，非庸庸所知也。弱冠詣荆南玉泉寺，事恒景律師，便剃髮受具。歎曰：「夫出家者為無為法，天上人間無有勝者，經之所謂出四衢道露地而坐也。」時坦禪師乃勸讓往嵩丘觀安公，安啟發之，因入曹侯溪，覲能公。能公怡然，無馨無臭，洪波泛臻大壑之廣乎？《韶濩》合奏大樂之和乎？讓之深入寂定，住無動道場，為若此也。能公大事緣畢，讓乃躋衡嶽，止于觀音臺。時有僧玄至拘刑獄，舉念願讓師救護。讓早知而勉之，其僧脫難，云是「救苦觀音」，得斯號也亦由此焉。化緣斯盡，傳法弟子曰道峻，曰道一，皆升堂覲奧也。其後一公振法鼓于洪州，其門弟子曰惟寬、懷暉。道一大緣將訖，謂寬等曰：「吾師之道存乎妙者也，無待而常，不住而至，能事集矣。金口所生，從法而化，於我為子，及汝為孫，一燈所傳，何有盡者？」讓以儀鳳二年生，至天寶三載八月十日終于衡嶽，春秋六十八，僧臘四十八。一公建塔于別峯。元和中，寬、暉至京師，揚其本宗，法門大啟，傳百千燈。京夏法寶鴻緒，於斯為盛。至八載，衡陽太守令狐權問讓前迹，權捨衣財以充忌齋。自此每歲八月為「觀音忌」焉。寶曆中，勅諡大慧禪師，塔號最勝輪。元和年中常侍歸登撰碑云。

唐京師大安國寺楞伽院靈著傳(法翫)

釋靈著，姓劉氏，絳州巴西人也。年殆志學，方遂出家，登戒尋師，不下千里。年四十，精毘尼道，兼講《涅槃》，一律一經，勤於付授。晚歲請問大照禪師，領悟宗風，守志彌篤。後詣長安，誕敷禪法，慕道求師者不減千計，若魚龍之會淵澤也。以天寶五載四月十日申時，示滅于安國寺石楞伽經院，享壽五十六，僧夏三十六。將終，寺中亟多變怪，蓋法門梁棟之頽撓也。著加趺而坐，怡然而化。三七日後荼毘，起塔于龍首岡，隣佛陀波利藏舍利之所，帝女媧之墳右，以其年十月十日遷入塔焉。弟子朗智、道珣、如一追慕師德，香火不絕。內侍上柱國天水趙思侃命釋子善運撰碑于塔所焉。有錢塘靈智寺釋法翫，俗姓馮，本長樂人也。隨祖宦于江東，遂為錢塘人也。父子通，字元達，世襲冠裳，傳其素業。然精覈百氏之餘，執志慕淨名之應質，談論多召禪林之士，於家別室供禮，願生令嗣。彌久，翫誕于家，岐嶷之性，天發端謹。纔勝衣也，啟父求出俗，固不阻留。披剃登具，探蹟三乘，如指掌焉。而性終耿介，於此寺之深塢，實浙江之陽也，別構蘭若，去伽藍窳遠，終日安禪。時同志者造門請益，翫隨事指南，多有所證。以天寶二載十二月十三日，天之將曉，告侍者，端坐奄從泥曰，春秋六十五，僧臘減二十年。于時山鳥哀鳴，雲霧濛慘，遠近檀越悲泣者如堵。以其月十九日遷殯于寺側山原。有弟子俞法界及子懷福、猶子希秀等，舊所歸心，結塔營事，皆出其家。塔因會昌中所毀，今存趾焉。碑石漫沒，吁哉！

唐潤州幽棲寺玄素傳

釋玄素，字道清，俗緣馬氏，潤州延陵人也。生有異度，幼而深仁，乳育安靜。髫鬣希尚，求歸釋門，父母從之，出依淨域。以如意年中，始奉制度，隸名于江寧長壽寺。進具已後，戒光騰燭，定水澄漣，思入玄微，行逾人表。既解色空，常慕宗匠。晚年乃南入青山幽棲寺，因事威禪師，躬歷彌載，撞鐘大鳴。威誨以勝法，得其不刊之旨。從是伏形苦節，交養恬和，敗納襯身，寒暑不易，貴賤怨親，曾無喜愠，時目之為嬰兒行菩薩。道業既高，人希瞻禮。開元年中，僧汪密請至京口，郡牧韋銑屈居鶴林，四部歸誠，充塞寺宇。素納衣空床，未嘗出戶，王侯稽首，不為動搖。顧世名利，猶如幻焉。忽於一日，有屠者來禮謁，自生感悟，懺悔先罪，求請素明中應供，乃欣然受之，降詣其舍。士庶驚駭，咸稱「異哉」。素曰：「佛性是同，無生豈別？但可度者，吾其度之，何異之

有？」天寶之初，吳、越瞻仰如想下生。楊州僧希玄請至江北，竊而宵遁。黑月難濟，江波淼然，持舟擬風。俄頃有白光一道，引棹直渡，通波獲全。楚人相慶佛日再耀。傾州奔赴，會於津所。人物拒道，間無立位，解衣投施，積若山丘。略不干其懷抱，令悉充悲田之費。禮部尚書李暹為楊州牧，齋心虔虔，二時瞻近。未幾而京口道俗思渴法音，仍移牒渡江，再請還郡。二處紛諍，莫決所從。李時謂人曰：「本期奉道，反成愛憎。」因任從所請，却歸南郡，其感物慕德，罕有與倫。以天寶十一載十一月十一日中夜，無疾而化，春秋八十有五。哀感人倫，慟徹城市。以其月二十一日奉全身建塔于黃鶴山西所住之地。方伯、邑宰盡執喪師之禮，率眾申哀，江湖震響。素往於寺內坐禪之所，高松偃覆如蓋，及移他樹，還互如前。又當捨壽之夕，房前雙桐無故自枯。識者以為雙林之變。但真乘妙理，絕相難思；嘉瑞靈祥，應感必有。《經》云：「隨緣赴感」，即其事也。有門弟子法鑑及吳中法欽，此二大士重光道原，僉具別傳。受菩薩戒弟子吏部侍郎齊澣、廣州都督梁卿、潤州刺史徐嶠、京兆韋昭理、給事中韓賞、御史中丞李丹、禮部崔令欽，並道流人望，咸歛師資，亦嘗問道於徑山，猶樂正子春於夫子。洗心瞻仰，天漢彌高；水鑑明心，悟深者眾矣。泊太和中，遠慕遺風，高其令德，追諡大律禪師，太和大寶杭之塔。後人多以俗氏召之曰馬祖，或以姓名兼稱曰馬素是也。

系曰：彌天以出家子咸姓釋氏，懸合後到《阿含經》，可不務乎？素師以俗姓呼之，必有由矣。噫，繁盛法嗣，猶不能遏此訛稱，則知素師名翼一飛，四海仰止，故登俗域。今警將來，宜正名也。

唐均州武當山慧忠傳

釋慧忠，俗姓冉氏，越州諸暨人也。孰辨甲子？或謂期頤之年。肌膚冰雪，神宇峻爽。少而好學，法受雙峯，默默全真，心承一印。行無住相，歷試名山，五嶺、羅浮、四明、天目，白崖倚帝，紫閣摩穹，或松下安居於九旬，或[山*甘*欠]空息慮於三昧。既懸明月之戒，亦淨瑠璃之心，已度禪定之門，不起無生之見。嶷若蘇廬，八風莫能動；清如淨鑑，萬象何所隱？可止也我，則武當千峯狎於麋鹿；可行也我，則虎溪一徑分衛人間。薄遊吳、楚，以至于順陽川焉。卜居黨子之林泉，四十餘祀；深入法王之聖定，八萬廣門。道聲洋乎，力量充矣！開元年中，刺史前中書侍郎開國公王琚、司馬太常少卿趙頤貞，信潭以清，聞風而悅，稅駕扣寂，杳然虛空。禮足散金銀之華，不異彌伽長者；執手見微塵之佛，等毘目仙人。上奏玄宗，徵居香剎，則龍興寺也。由是罷相節使、王公大人罔不

膜拜順風，從而問道。忠博達詰訓，廣窮經律，降魔制外，孰之與京？不可以威畏，不可以利動，暎日而食，對月澄心，清風飛霜，勁節凌竹，辭檢理詣，折彼慢幢。論「頓」也不留朕迹，語「漸」也返常合道。得之於心，伊蘭作栴檀之樹；失之於指，甘露乃蒺藜之園。妙不可傳，花多果少，世有執礫水中，若獲瑠璃之寶；掬泡瓶內，謂得摩尼之珠。忠所以訶之、止之，不能已矣。故有超毘盧之說，令其不著佛求；越法身之談，俾夫無染正性。豈毘盧之可越而法身之可超哉？是以虛空之心合虛空之理，纖妄若雲翳，宗通如日月。朝郎結駟而至，安禪不動，受其頂謁，儼如也。蓋所謂昔人不迎七步，以福於萬乘之君，豈止百寮而已哉。肅宗皇帝載定區夏，聞其德高，以上元二年正月十六日勅內給事孫朝進驛騎迎請，其手詔曰：「皇帝信問，朕聞調御上乘以安中土，利他大士共濟群生。師以法鑑高懸，一音演說，藏開祕密，境入圓明，大悲不倦於津梁，至善必明於兼濟。尊雄付囑，實在朕躬。思與道安宣揚妙用，廣滋福潤，以及大千。傳罔象之玄珠，拔沈迷之毒箭，良緣斯在，勿以為勞。杖錫而來，京師非遠。齋心已久，副朕虛懷。春寒，師得平安好！遣書指不多及。」忠常以道無不在，華野莫殊，遂高步入宮，引登正殿。霜杖初下，日照龍衣，天香以焚，風飄羽蓋。時忠驤首接武，神儀肅若。天子欽之，待以師禮。奏理人治國之要，暢唐堯、虞舜之風。帝聞竦然，膝之前席。九龍灑蓮華之水，萬乘飲醍醐之味。從是肩舁上殿，坐而論道，不拘彝典也。尋令驃騎朱光輝宣旨住千福寺。相國崔渙從而問津，理契於心，談之朝野。識真之士，往往造焉。洎夫寶應臨御，以孝理國，匪移前睠，劃開萬里之天，若見三江之月。又勅內侍袁守宏迎近闕下光宅寺安置，香飯雲來，紫衣天降。雖使臣擁禪門而不進，御府列玉帛而盈庭，了之如泡，觀之若夢，澹然閑任，自樂天倪。亦可羅浮不歸，方名宴坐；雙峯長往，始契無生者哉。成聖元胎，於是乎在，固所以萬行齊發、千門不累於心矣。則兜率之鼓，無形乃聲，修羅之琴，不撫而韻，香傳天主，花雨空王，見之於忠矣，常以思大師有言：「若欲得道，衡嶽武當。」因奏武當山請置太一延昌寺，白崖山黨子谷置香嚴長壽寺，各請藏經一本，度僧護持。二聖御影，鎮彼武當。王言惟允，有司承式。猴江雁塔，雖未飾於中峯；茅棟柴扉，便以名於梵宇。睿札題額，鸞迴鵲飛，山川光煌，黑白抃躍，想金殿之可期，覩瑤臺之非遠。至大曆八年，又奏度天下名山僧中取明經、律、禪法者，添滿三七人。道門因之，羽服、緇裳，罔不慶懌。數盈萬計，用福九重也。忠往在南陽，陷於賊境，固請迴避，皆不允之。臨白刃而辭色無撓，據青雲而坐坐不屈。魁帥觀其禪德淡若，風韻高逸，投劍羅拜，請師事焉。于時避寇遇寇者眾

矣。無何，群盜又至，乃曰：「未可以踵前也。」遂杖錫發趾，沿江而去。有數其先蹤，堅住不避者，盡被誅戮。則知雲物氣象，有如先覺，存而不論，道何深也！金籍曰「般若無知而無不知」，斯之謂歟！內德既充，外應彌廣，自藏珍寶，人莫之窺。於戲，論「龍奮迅」，而翹多不知；忉利雨華，而明徹莫識。前賢厭世，正眼隨滅，不亦悲夫！忽疾將亟，國醫罔効，自知去辰，眾問後事，乃曰：「佛有明教，依而行之，則無累矣。吾何言哉？」粵十年十二月九日子時右脇纒足，泊然長往。所司聞奏，皇情憫焉。中使臨弔，賻贈甚厚。勅諡號曰大證禪師。有詔歸葬于黨子之香巖寺，循其本也。威儀、手力，所在支給，具飾終之禮，哀慟梵場也。勅常修功德使檢校殿中監興唐寺沙門大濟，早接道論，豁如披雲，雖非門人，哀逾法嗣。凡有敷奏，聖皆允焉。在家弟子開府孫知古并弟內常侍朝進、居士景超昆季等，僧弟子千福寺志誠、光宅寺智德、香巖寺主道密等，凡數萬人。痛石室之末籌，悲雲峯之聳塔；晨鐘徒擊於高殿，夕梵空奏於前山。哲人云亡，疇將倣仰！譯經沙門飛錫為碑紀德焉。

唐太原甘泉寺志賢傳

釋志賢，姓江，建陽人也。夙心剛整，幼且成規，既遂出家，尋加戒品，霑嘗漸教，守護諸根，抗節修心，不違律範。天寶元年，於本州佛跡巖承事道一禪師，曾無間然，汲水拾薪，惟務勤苦。遊方見金華山赤松洞，是黃初平叱石羊之地，鬱林峻嶺，泉湖百步許。意樂幽奇，既棲巔頂，野老負香粳蔬茹以供之。時天大旱，賢望空擊石，曼罵諸龍曰：「若業龍，無能為也。其菩薩龍王，胡不遵佛勅救百姓乎？」敲石纔畢，霈然而作，嫠人咸悅。後遊長安，名公碩德列請為大寺功德之師，賢悚然不顧。明日遂行，登五臺，尋止太原甘泉寺，道俗請學禪理者繼至。無疾而終，勅諡大遠禪師，旌乎厥德矣。

唐黃龍山惟忠傳

釋惟忠，姓童氏，成都府人也。幼從業於大光山道願禪師，神驥伏櫪，雖止也，發蹄則超忽千里焉。遊嵩嶽，見神會禪師，折疑沈默，處于大方。觀覽聖跡，見黃龍山鬱翠而奇異，乃營茅舍。其窮溪極谷而多毒龍，噴氣濛濛，山民犯者多如中瘴焉，醫工寡効。忠初不知，獨居禪寂，澗飲木食，其怪物皆卷而懷矣，山民無害。或聞空中聲云：「得師居此，民之多幸，令我解脫也。」鄉人因號是

山為伏龍，言忠弭伏鱗蟲之長，故此名焉。以建中三年入滅，報齡七十八。其年九月遷塔云。

唐南嶽石頭山希遷傳

釋希遷，姓陳氏，端州高要人也。母方懷孕，不喜葷血。及生岐嶷，雖在孩提，不煩保母。既冠，然諾自許，未嘗以氣色忤人。其鄉洞獠，民畏鬼神，多淫祀，率以牛酒，祚作聖望。遷輒往毀叢祠，奪牛而歸。歲盈數十，鄉老不能禁其理焉。聞大鑿禪師南來，學心相踵。遷乃直往，大鑿衍然持其手，且戲之曰：「苟為我弟子，當尚。」遷[這-言+(占@口)]爾而笑曰：「諾。」既而靈機一發，廓若初霽。自是上下羅浮，往來三峽間。開元十六年，羅浮受具戒，是年歸就山，夢與大鑿同乘一龜，泳於深池。覺而占曰：「龜是靈智也，池是性海也。吾與師乘靈智遊性海久矣，又何夢邪！」後聞廬陵青原山思禪師為曹溪補處，又攝衣從之。當時思公之門，學者麇至。及遷之來，乃曰：「角雖多，一麟足矣。」天寶初，始造衡山南寺。寺之東有石狀如臺，乃結庵其上，杼載絕岳。眾仰之，號曰石頭和尚焉。初，嶽中有固、瓚、讓三禪師，皆曹溪門下，僉謂其徒曰：「彼石頭真師子吼，必能使汝眼清涼。」由是門人歸慕焉。或問解脫，曰：「誰能縛汝？」問淨土，曰：「誰能垢汝？」其答對簡速，皆此類也。廣德二年，門人請下于梁端。自江西主大寂，湖南主石頭，往來憧憧，不見二大士為無知矣。貞元六年庚午歲十二月二十五日順化，春秋九十一，僧臘六十三。門人慧朗、振朗、波利、道悟、道銑、智舟相與建塔于東嶺。塔成三十載，國子博士劉軻——素明玄理，欽尚祖風——與道銑相遇，盛述先師之道。軻追仰前烈，為碑紀德，長慶中也。勅諡無際大師，塔曰見相焉。

唐成都府淨眾寺神會傳

釋神會，俗姓石，本西域人也。祖父徙居，因家于岐，遂為鳳翔人矣。會至性懸解，明智內發，大璞不耀，時未知之。年三十，方入蜀，謁無相大師，利根頓悟，冥契心印。無相歎曰：「吾道今在汝矣！」爾後德充慧廣，爵為禪宗。其大略「寂照滅境，超證離念，即心是佛，不見有身。」當其凝閉無象，則土木其質。及夫妙用默濟，雲行雨施，蚩蚩群眈，陶然知化，覩貌遷善，聞言革非。至於廓蕩，昭洗執縛，上、中、下性隨分令人。以貞元十年十一月十二日示疾，儼然加跌坐滅，春秋七十五，法臘三十六。沙門那提得師

之道，傳授將來。以十二年二月二十二日，門人弟子緇俗遷座于本院之北隅，孺慕師德，號哭之聲，山林為之變色。初，會傳法在坤維，四遠禪徒臻萃于寺。時南康王韋公臯最歸心于會，及卒，哀咽追仰，蓋粗入會之門，得其禪要。為立碑，自撰文并書，禪宗榮之。

唐杭州徑山法欽傳

釋法欽，俗姓朱氏，吳郡崑山人也。門地儒雅，祖、考皆達玄、儒，而傲睨林藪不仕。欽託孕，母管氏，忽夢蓮華生於庭際，因折一房繫於衣裳，既而覺已，便惡葷羶。及迄誕彌歲，在於髻辮，則好為佛事。立性溫柔，雅好高尚，服勤經史，便從鄉舉。年二十有八，俶裝赴京師，路由丹徒，因遇鶴林素禪師。默識玄鑒，知有異操，乃謂之曰：「觀子神府溫粹，幾乎生知。若能出家，必會如來知見。」欽聞，悟識本心，素乃躬為剃髮，謂門人法鑑曰：「此子異日大興吾教，與人為師。」尋登壇納戒，鍊行安禪，領徑直之一言，越周旋之三學。自此辭素南征，素曰：「汝乘流而行，逢『徑』即止。」後到臨安，視東北之高巒，乃天目之分徑，偶問樵子，言是徑山，遂謀挂錫於此。見苦蓋覆罽網，屑近而宴居，介然而坐。時雨雪方霽，旁無煙火，獵者至，將取其物，頗甚驚異歎嗟，皆焚網折弓而知止殺焉。下山募人營小室，請居之。近山居，前臨海令吳貞捨別墅以資之。自茲盛化，參學者眾。代宗睿武皇帝大曆三年戊申歲二月，下詔曰：「朕聞江左有蘊道禪人，德性冰霜，淨行林野，朕虛心瞻企，渴仰懸懸。有感必通，國亦大慶，願和尚遠降中天，盡朕歸向。不違願力，應物見形。今遣內侍黃鳳宣旨，特到詔迎，速副朕心。春暄，師得安否！遣此不多及。」勅令：「本州供送，凡到州縣，開淨院安置，官吏不許謁見，疲師心力。弟子不算多少，聽其隨侍。」帝見，鄭重咨問法要，供施勤至。司徒楊綰篤情道樞，行出人表，一見欽於眾，退而歎曰：「此實方外之高士也，難得而名焉！」帝累賜以縑繒，陳設御饌，皆拒而不受。止布衣蔬食，悉令弟子分衛，唯用陶器行。少欲知足，無以儔比。帝聞之更加仰重，謂南陽忠禪師曰：「欲錫欽一名。」手詔賜號國一焉。德宗貞元五年，遣使齎書宣勞，并慶賜豐厚。欽之在京及迴浙，令僕公王節制州邑名賢執弟子禮者，相國崔渙、裴晉公度、第五琦、陳少遊等。自淮而南，婦人禮乞號，皆目之為「功德山」焉。六年，州牧王顏請出州治龍興寺淨院安置，婉避韓滉之廢毀山房也。八年壬申十二月示疾，說法而長逝，報齡七十九，法臘五十。德宗賜諡曰大覺。所度弟子崇惠禪師，次大祿山顏

禪師，參學范陽杏山悟禪師，次清陽廣敷禪師。于時奉葬禮者，弟子實相、常覺等，以全身起塔于龍興淨院。初，欽在山，猛獸鷲鳥馴狎。有白兔二跪于杖屨之間。又嘗養一鷄，不食生類，隨之若影，不遊他所。及其入長安，長鳴三日而絕。今鷄塚在山之椒。欽形貌魁岸，身裁七尺，骨法奇異。今塔中塑師之貌，凭几猶生焉。杭之錢氏為國，當天復壬戌中，叛徒許思作亂，兵士雜宣城之卒發此塔，謂其中有寶貨。見二甕上下合，藏肉形全在而髮長覆面。兵士合甕而去。刺史王顏撰碑述德，比部郎中崔元翰、湖州刺史崔玄亮、故相李吉甫、丘丹各有碑碣焉。

唐壽春三峯山道樹傳

釋道樹，姓聞氏，唐州人也。少以辯智，沈靜虛豁，耽嗜經籍，曾無少懈。其為人也，貞固足以幹事，隱括足以矯時。偶遇僧敦喻，遂誓出塵，自慨年近不惑，求法淹遲。禮本部明月山大光院惠文為授業，登即剃染。二年受具，乃觀方向道，天台、南岳，無所不遊。後迴東洛，遇秀宗裔，如芙蓉開，通達安靜。至壽州三峯，結茅而居。常有野人，服色朴素，言談異常，於言笑之外，化作佛形、仙形、菩薩、羅漢，或放神光，或呈聲響，如是涉一十年，學侶覩之，不測端緒，後皆寂爾。樹告眾曰：「野人作多色伎倆，眩惑於人。只消老僧不見不聞，伊伎倆有窮，吾不見不聞無盡。所謂『作偽心勞而日拙』，其自知之，卷羞懷拙而去，追無朕迹矣。」樹於寶曆初年示疾而終，報齡九十二。明年正月遷塔焉。

系曰：大鈞播物，物類紛錯，窮數達變，因形移易者謂之化、謂之幻。知幻化之不異生也，始窮幻化矣。吾與汝俱幻也。推之於實，則幻化或虛；置之於虛，則幻化時實。實虛理齊，不自我之先後歟？體道無心，物我均矣。故佛言「凡所見相，唯所見心」。又云「若見諸相非相，則見如來」，樹師有焉。

唐陝州迴鑾寺慧空傳(元觀)

釋慧空姓崔，江陵人也。家世儒雅，奕葉纓綉，父任陝服靈寶縣。空丁艱天屬，堅請入空門，庸報乳哺重恩。乃投迴鑾寺恒超下，授受經業。三載誦通，及格蒙度，聽習敏利。因入嵩少，遇寂師禪會，豁如開悟。乃迴三峯於仙掌間，有道流綢繆論道，薄暮方散，非止一過。州帥元公頗知歸向，召之，多以疾辭，或至，必登元席。代宗皇帝聞其有道，下詔俾居京師廣福寺，朝廷公卿罔不傾信。後終于寺，春秋七十八。大曆八年癸丑九月四日，全身堅固而

遷塔焉。次南嶽東臺釋元觀，姓袁氏，長安人也。父為河中府掾。母兄為沙門，甚敦道化，見觀幼齡聰慧，風標秀舉，有成人之度，因勸其出家。乃投興善寺，誦經通利。五年得度，乃於《律部》、《俱舍》二本，渙然條理。後出遊方，登諸禪會，明悟真性，如醒宿醒。遂趨衡山，於東臺而止。其道彌昌，冥有所感。恒得神人密送供施，隨其眾寡，不聞有闕。忽一日，神現形再拜曰：「我是此山檀越，常送薄供者，我身是也。」觀問：「汝何業所致？」曰：「我前身曾稱知識，體悟匪全，妄受信施，坐此為神。偶師居此，我曹饋糧，粗副私願。今二十年已足，得遂超度，故來決別也。」觀化緣斯極，囑累禪徒而終，春秋七十九。太和四年十月二日遷塔焉。

唐洛京龍興寺崇珪傳(全植)

釋崇珪，姓姜氏，邳城人也。門傳儒素，相綴簪裾。自天寶已來，安史之亂，侵敗王略，家族遷蕩。父為商賈趨利，遵塗於鞏、洛間。父亡于逆旅，珪慨責曰：「少遭不造，子遺哀榮！」遂議出家。至年十八，經業蔚通得度。俄有雲水之興，遊南嶽。棲息數齡起迴，樂南徐茅山，乃依棲霞寺。珪已登徑門，道聲洋溢。會贊皇李公德裕廉問是邦，延諸慈和寺。一交雅談，如遊形器之外，曰：「吾有幽憂之疾，非是居侯藩聚落之人也。」明歲遂行，重抵嵩少，居于嶽寺。太和戊申歲，洛下亢陽，唯嶽中兩信相繼。或謂為珪之德動龍神之故也。開成元年，贊皇公攝塚宰，請珪於洛龍興寺化徒。兩京緇白往來問道，檀施交駢。其所談法，宗秀之提唱，獲益明心者多矣。忽告眾決別，入方丈而滅，春秋八十六。白侍郎撰塔銘。會昌元年辛酉八月十日入塔云。次淮南都梁山釋全植，姓芮，光州人也。少稟異操，自言學作佛度生去。忽投本州榮光禪院大智下求度。師頗嚴謹，約其誦經。受具後，至洛陽，參問禪法，徹了無疑。辭師觀方至淮南都梁山，建立茅舍。太守衛文卿命於州治長壽寺化徒。衛侯問：「將來佛法隆替若何？」植曰：「真實之物無振，自古于今，往復軌躅。有為之法，四相遷流。法當陁厄。君侯翹足可見。」預言武宗毀教也。植終年九十三，門人建塔立碑。會昌四年甲子九月七日入浮圖焉。

宋高僧傳卷第九

宋左街天壽寺通慧大師賜紫沙門贊寧等奉 勅撰

習禪篇第三之三(正傳十六人附見八人)

唐洪州開元寺道一傳(智藏)

釋道一，姓馬氏，漢州人也。華以喻性，不植於高原；浪以辯識，發明於溟海。生而凝重，虎視牛行。舌過鼻準，足文大字。根塵雖同於法體，相表特異於幻形，既云在凡之境，亦應隨機之教。年方稚孺，厭視塵躅，脫落愛取，遊步恬曠，削髮於資州唐和尚，受具於渝州圓律師。示威儀之旨，曉開制之端，浣衣鍛金，觀門都錯，大龍香象，羈絆則難。權變無方，機緣有待。聞衡嶽有讓禪師，即曹溪六祖之前後也，於是出岷、峨、玉壘之深阻，詣靈桂貞篁之幽寂。一見讓公，泯然無際，頓門不俟於三請，作者是齊於七人。以為法離文字，猶傳蠹露，聖無方所，亦寄清源，遂於臨川棲、南康龔公二山，所遊無滯，隨攝而化。先是，此峯岫間魑魅叢居，人莫敢近，犯之者災釁立生。當一宴息于是，有神衣紫玄冠致禮言：「捨此地為清淨梵場。」語終不見。自爾猛鷲毒螫，變心馴擾；沓貪背憎，即事廉讓。郡守河東裴公家奉正信，躬勤諮稟。降英明簡貴之重，窮智術慧解之能。每至海霞斂空，山月凝照，心與境寂，道隨悟深。自明者在乎周物，博施者期乎濟眾。居無何，裴公移典廬江、壽春二牧，於其進修惟勤，率化不墜。大曆中、聖恩溥洽，隸名於開元精舍。其時連率路公聆風景慕，以鍾陵之壤，巨鎮輿區，政有易柱之絃，人同湊轂，禪宗戾止，降祥則多，順而無違。居僅十祀，日臨扶桑，高山先照；雲起膚寸，大雨均霑。建中中，有詔僧如所隸，將歸舊壤。元戎鮑公密留不遣。至戊辰歲，舉措如常，而請沐浴訖，儼然加趺歸寂，享年八十，僧臘五十。先於建昌鄙山名石門，環以絕巘，呀為洞壑，平坦在中，幽偏自久。是謀薪火塵劫之會，非議岡阜地靈之吉。亞相觀察使隴西李公藩寄嚴厲，素所欽承，于以率徒依歸，緬懷助理。爰用營福，道在觀化，情存飾終，輟諸侯之旌旗，資釋子之幢蓋。其時日變明晦，人萃遐邇，檝覆水而為陸，炬通宵而成晝。山門子來，財施如積；邑里僧供，飯香普熏。自昔華嚴歸真於嵩陽，善導瘞塔於秦嶺，禮視齋、斬，人傾國城，哀送之盛，今則三之。初於林中經行，座下開示，平等垂法，不標於四科，安恬告盡，刻期於二月，此明一終之先兆也。示疾云逝，俾葬遠山，凡百攀援，願留近郭。終遂窮僻，式遵理

命，此又明一晦跡之素誠也。將歸靈龕，爰泝淺瀨，人力未濟，舟行為遲。膏雨驟下於遠空，窮溪湍變於深涉，此又明一通神之應感也。惟一知真在空，無我於有，是二俱離，假一為乘。示生死者人能作佛，辨邪正者魔亦似聖。現身不留於大士，負手俄萎於哲人。弟子智藏、鎬英、崇泰等奉其喪紀，憲宗追諡曰大寂禪師，丹陽公包佶為碑紀述，權德輿為塔銘。今海昏縣影堂存焉。又唐虔州西堂釋智藏，姓廖氏，虔化人也。生有奇表，親黨異其偉器。八歲從師，道趣高邈。隨大寂移居龔公山，後謁徑山國一禪師，與其談論周旋，人皆改觀。屬元戎路嗣恭請大寂居府，藏乃迴郡，得大寂付授納袈裟。時亞相李公兼、國相齊公映、中郎裴公通皆傾心順教。元和九年四月八日終，春秋八十，夏臘五十五。即遷于塔，諫議大夫韋綬追問藏言行，編入《圖經》。太守李渤請旌表，至長慶元年諡大覺禪師云。

唐宣州靈湯泉蘭若志滿傳

釋志滿，姓康氏，洛陽人也。幼少之年，屬其家命沙門陳佛會，滿意樂不捨，遂投穎川龍興寺出家。聞洛下神會禪師法席繁盛，得了心要。南遊到黃山靈湯泉所，結茅茨而止。後采黃連，鄉人見滿喜躍，滿問：「此何處耶？」鄉人曰：「黃連山，屬宣城也。願師鎮此，柰何虎豹多害？」滿曰：「虎亦有佛性。」乃焚香祝厭之，由茲弭息，遂成大禪院。後示寂，春秋九十一。永貞元年入塔焉。

唐沂州寶真院光瑤傳(道堅)

釋光瑤，姓周氏，北京人也。幼鍾茶蓼，都不勝情，誓志出家。捨講肆，入禪林，凡嚮宗師，悉從求益。末遭會禪師，金[鏐-糸+卅]抉曠，明視十方。後到沂水蒙山，結草成庵，怡然宴坐。鄆、費之人翕然從化。時慎邑大夫知重，首創禪宮，次兗州節使王僚尚書躬請入州行化，奏署額號寶真。學侶憧憧，多霑大利。元和二年示滅，享年九十二云。又唐襄州慈恩寺釋道堅，姓王氏，丹陽人也。初發心於牛頭山慧忠禪祖。大曆元年，栖隱池州南泉山。後詣襄漢，泊慈恩寺。元和初載，相國燕公鎮于漢南，深相欽重，問道周勤，施供繁沓。遂於鳳林關外造寺請居。二年示滅，春秋七十三云。

唐揚州華林寺靈坦傳

釋靈坦，姓武氏，太原文水人也。則天太后姪孫。父諱宣，洛陽縣令。母夏侯氏，初妊坦也，夢神僧授與寶鑑，表裏瑩然，且曰：「吾以此寄汝，善保護之。」及誕，親無所苦。年甫七歲，誦習畢通，應童子舉。十三從宦，旋升太子通事舍人。如是悅學不休，三教之書彌增洞達。然而恒嗟朽宅，誓入空門，已備大乘之資糧，終到涅槃之境域。于時洛都盛化荷澤寺神會禪師也，方遮普寂之光，漸沒秀師之道，坦往參焉。會施善誘，頓見其心，默而許之，容其執侍。父母不能迴其意。飛颺莫繫，始末研磨，得破疑滯。天寶初載，召坦曰：「吾有一句，是祖祖相傳至曹溪，曹溪付吾，汝諦受之。吾當有留難。」遂辭遊方焉。未幾果勅移會于弋陽。坦遂向廬州浮槎寺，覽大藏經。後聞忠國師自南陽詔入，於大曆五年禮覲之。八年，欲出關，忠奏曰：「此人是貧道同門，俱神會弟子。」勅賜號曰大悲，兼齋墨勅。行化至梁園，時相國田公神功供養。遷迤適維揚六合，方嘆大法凌夷，忽聞空中聲云：「開心地。」即見菩薩如文殊像曰：「與汝印驗。」令舉項以掌按之，尋觀有四指赤痕，其印跡恒現。又止潤州江中金山，今澤心也。其山北面有一龍穴，常吐毒氣如雲，有近者多病或斃。坦居之，毒雲滅迹。又於江陰定山結庵，俄聞有讚歎之聲。視之，則白龜二，坦為受歸戒。又見二大白蛇，身長數丈，亦為受戒懺悔。如是却往吳興林山造一蘭若，有三丈夫衣金紫，趨步徐正，稱嘆道場唯善，村落之民多棄罟網。元和五年，相國李公鄴之理廣陵也，以峻法操下，剛決少恩，一見坦，鄭重加禮，召居華林寺。寺內有大將軍張遼墓，寺僧多為鬼物惑亂。坦居，愀然無睽矣。又揚州人多患山妖木怪之所熒惑，坦皆遏禦焉。人爭歸信。至十年，忽見二胡人稱自龜茲國來，彼無至教，遠請和尚敷演。十一年五月十三日，於荷澤忌齋，告眾：「吾赴遠請。七月示疾，九月將滅，斯預告也。」至季秋八日，果寂爾而終。遷塔于揚州西馴翟坊之南岡，越州掾鄭詹建塔。報齡一百八歲，僧臘八十四焉。坦即曹溪之孫，荷澤之子也。

唐唐州紫玉山道通傳

釋道通，姓何氏，廬江人。其為童也，持重寡辭，見佛形像，必對禮嘆咏不捨。因父宦于泉州南安，便求捨巾披緇。誦經合格，勅度之，當天寶初載也。時道一禪師肇化建陽，佛跡巖聚徒，通往焉。一師於臨川南康龔公山，亦影隨而去。然誓遊方吳、越之間，台、明山谷，靡不登陟。迨乎迴錫江西潞潭山門，勵心僧務，不憚勤苦。貞元二年往南嶽，見石頭禪師，猶采縷加朱藍之色也。四年，大寂禪師垂欲歸化，昌言曰：「夫玉石潤山秀利，益汝道業，遇可

居之。」通聞此言，且同隱讖，殊不詳練。其年秋與伏牛山自在禪師同遊京、洛，迴至唐州西。有山峯孤林密，四絕人煙，實有塵外之趣。乃問鄉人，云此山是紫玉山。通方憶大寂之懸記，「我合居是峯也。」乃陟崔嵬，見山脊有石方正，其色紫玉瑩然，嘆曰：「號紫玉者，合其稱也。先師之言，非虛記也。」挂錫解囊，參學之徒霧集。始則誅茅構舍，刺史李道古作意為建禪宮焉。元和八年，弟子金藏出參禮百丈山海禪師，迴見通。通愀然作色：「汝其來矣，此山有主也。」曳杖徑去，襄州道俗皆迎。至七月十五日，無疾而終，春秋八十三。一云故相國于頔最所歸心，尚書李翱禮重焉。

唐雍京章敬寺懷暉傳

釋懷暉，姓謝氏，泉州人也。宿植根深，出塵志遠，迨乎進具，乃尚雲遊。貞元初，禮洪州大寂禪師，頓明心要。時彭城劉濟頗德暉，互相推證。後潛岨峽山，次寓齊州靈巖寺。又移卜百家巖，泉石幽奇。苦於禪子請問繁雜，上中條山行禪法，為法者躡跡而往，蒲津人皆化之。元和三年，憲宗詔入於章敬寺毘盧遮那院安置，則大曆中勅應天下名僧大德三學通瞻者並叢萃其中，屬誕辰，多於此修齋度僧焉。暉既居上院，為人說禪要，朝寮名士日來參問。復詔入麟德殿賜齋，推居上座。元和十年乙未冬示疾，十二月十一日滅度，春秋六十二。越明年二月，門人智朗、志操等奉全身葬于灞橋北原。勅諡大宣教禪師，立碑于寺門，嶽陽司倉賈島為文述德焉。

唐京兆興善寺惟寬傳(寶修)

釋惟寬，姓祝氏，衢州信安人也。祖曰安，考曰皎。生十三歲，見殺生者，**蠱**然不忍食。退而出家，求翦髮於僧曇，受尸羅於僧崇，學毘尼於僧如，證大乘法於止觀，成最上乘於大寂道一。貞元六年，始行化於閩、越間，歲餘而迴心改服者百數。七年，伏猛虎於會稽，作滕家道場。八年，與山神受歸戒於鄱陽，作迴向道場。十三年，感非人於少林寺。二十一年，作有為功德於衛國寺。明年，施無為功德於天宮寺。元和四年，憲宗章武皇帝詔於安國寺。五年，問道於麟德殿。其年，復靈泉於不空三藏池。十二年二月晦，大說於傳法堂訖，奄然而化。報齡六十三，僧夏三十九。歸葬于[灞-雨+西]陵西原，詔諡曰大徹禪師，塔號元和正真。初，寬說心要法三十年，度黑白眾殆及百千萬，應病授藥，安可既乎？白樂天為宮贊時遇寬，四詣法堂，每來垂一問，寬答如流，白君以師事

之。門弟子殆千餘，得法者三十九，入室受遺寄者曰義崇、圓照焉。唐羅浮山釋寶修，俗姓周，資州人也。從師於純德寺，志求玄理，於蘄州忍大師法裔決了重疑。後愛羅浮山石室安止，檀越為造梵宇，蔚成大寺。一日，告門人曰：「因緣相偈。」愀然不樂，眾咸莫測。順宗皇帝深重佛宗，知修之名，詔入京與三藏擊問，并答翻譯之意，朗暢如流。乃留居輦下。三年，終於京寺云。

唐天台山佛窟巖遺則傳

釋遺則，俗氏長孫，京兆長安人也。祖冽，鄂州司馬；考利涉，隱居金陵。則弱不雜俗，恬恬終日而無所營。始從張懷瓘學草書，獨盡筆妙。雅耽經史，尤樂佛書，以為得吾心。一朝捐家業，從牛頭山慧忠，忠所謂牛頭六祖也。始天竺達磨以釋氏心要至，傳其道者有曹溪能、嵩山秀。學能者謂之南宗學，學秀者謂之北宗學。而信祖又以其道傳慧融，融得之，居牛頭山，弟子以傳授。由是達磨心法有牛頭學。則既傳忠之道，精觀久之，以為天地無物也，我無物也，雖無物未嘗無物也。此則聖人如影，百姓如夢，孰為死生哉？至人以是能獨照，能為萬物主，吾知之矣。遂南遊天台，至佛窟巖，蓋薜荔，薦落葉而尸居，飲山流、飯木實而充虛，虎豹以為賓，麋鹿以為徒，兀然如枯。其後剝木者見之轉相告，有慕其道者曰：「道者未有弟子。」相率為築室，圖佛安僧，蔚為精舍焉。故元和已來傳則道者，又自以為「佛窟學」，「佛窟」之號自則始也。一坐四十年，大官名侯齋書問訊檀捨，則未嘗有報謝，禮拜者未嘗而作起。時歲在庚戌季夏十有三日，召弟子曰：「汝其勉之！」至十五日夜遂坐歿。是夜山下人聞若山崩，旦望之，則綵雲翔泊於巖上。父老皆泣曰：「師死矣！」已而視之，果然。凡則二十歲為僧，臘五十有八而終。善屬文，始授道於鍾山，序集融祖師文三卷，為寶誌《釋題》二十四章，《南遊傳大士遺風序》又《無生等義》。凡所著述，辭理粲然。其他歌詩數十篇，皆行於世。則元居瀑布泉西佛窟本院，建龕塔。會昌中例毀之，其院為道門所有。後開元寺僧正法光於咸通乙酉歲遂徙碑于今所，河南尹韓又為碑文。

唐婺州五洩山靈默傳(志閑)

釋靈默，俗姓宣，毘陵人也。本成立之歲，悅學忘疲，約以射策登第，以榮親里。承豫章馬大師聚眾敷演。造禪關，馬師振容而示相，默密契玄機，便求披剃，若熟癰之待刺耳。受具之後，苦練行

門，確乎不拔。貞元初入天台山，中有隋智者蘭若一十二所，懸記之曰：「此地巖妙，非雜器所棲，若能居此，與吾無異。」默因住白砂道場，經于二載。猛虎來馴，近林產子，意有所依。又住東道場，地僻人稀，山神一夜震雷暴雨，懸崖委墜。投明，大樹倒欹，庵側樹枝交絡，茅苫略無少損。遐邇聞旃，皆來觀嘆。後遊東白山，俄然中毒，而不求醫，閉關宴坐。未幾，毒化流汗而滴，乃復常矣。行次浦陽，盛化，有陽靈戍將李望請默居五洩焉。元和初亢陽，田畷惶惶。默沿澗見青蛇夭矯瞪目，如視行人，不動。咄之曰：「百姓溪竭苗死，汝胡不施雨救民邪？」至夜果大雨，合境云足，民荷其賜。屬平昌孟簡中丞廉問浙東廢管內蘭若，學徒散逸。時暨陽令李胄狀舉靈山，許重造院。十三年三月二十三日，澡沐焚香，端坐繩床，囑累時眾，溘然而絕。壽齡七十二，法臘四十一。高僧志閑，道行峭拔，文辭婉麗，亦江左之英達，為默行錄焉。

唐荊州天皇寺道悟傳(崇信)

釋道悟，姓張氏，婺州東陽人也。受天粹氣，為法王子，生而神俊，長而謹愿。年十四，金翅始毛，麒麟方角，啟白尊老，將求出家，慈愛之旨，不見聽許。輒損薄常膳，日唯一食，雖體腹羸餒，彌年益堅。父母不獲已而許之。遂往明州大德剃落。年二十五，依杭州竹林寺大德具戒。以勇猛力，扶牢強心，於六度門，修諸梵行。常以為療膏肓者資上妙藥，開暗冥者求善知識。不假舟楫，其濟渡乎？遂蹶然振策，投徑山國一禪師。悟禮足始畢，密受宗要。於語言處，識衣中珠。身心豁然，真妄皆遣。斷諸疑滯，無畏自在，直見佛性，中無縉磷。服勤五載，隨亦印可，俾其法雨潤諸叢林。悟蓄力向晦，窅入深阻，實冀一飛摩霄。乃轉遁於餘姚大梅山，是時大曆十一年也。層崖絕壑，天籟蕭瑟，夔無隣落。七日不食。至誠則通，物感迺靈，猱狉穀獵，更饋橡栗。異日野夫操斧，言伐其楚，偶所遭覩，駭動悚息，馳諭朋曹，謂為神奇。曾不旬朔，詣者成市。憑嵌倚峭，且構危棟，貲糧供具，環遶方丈。猛虎耽耽，侶出族遊，一來座側，斂折肢體，其類馴擾可知也。夫語法者無階漸，涉功者有淺深，木踰鑽而見火，鑑勤磨而照膽，理必然矣。是以掃塵累，遯巖藪，服形體，遺晝夜，精嚴不息，趣無上道，其有旨哉！如是者三四年矣。將翔雲表，慮羽毛之頽鍛；欲歸寶所，疑道塗之乖錯。故重有諮訪，會其真宗。建中初，詣鍾陵馬大師，二年秋，謁石頭上士。於戲！自徑山抵衡嶽凡三遇哲匠矣。至此即造父習御，郢人運斤，兩虛其心，相與吻合。白月映太陽齊照，洪河注大海一味，仲尼謂顏子亞聖，然燈與釋迦授記，根果成

熟，名稱普聞，如須彌山特立大海。繇是近佛，恢張勝因，凡諸國土，緣會則答。始於澧陽，次居于潯口，終棲于當陽柴紫山，即五百羅漢翱翔地也。檉松蒼鬱以含風，崕巘巖而造天，駕激澗之紫霞，枕清冷之玉泉。鸞鳳不集於蓬藿，至人必宅於勢勝，誠如是也。洪鐘待叩，童蒙求我，川流星聚，虛往實歸。或接武於林樾，或駢肩於廬舍，戶外之履，爛其室盈矣。荊州雄藩也，都人士女動億萬計，莫不擎跪稽首，嚮風作焉。崇業上首以狀于連帥而邀之，不違願力，聿來赴請。屨及於虛落，錫及於都城。白黑為之步驟，幡幢為之轆轤，生難遭想，得未曾有。彼優波鞠多者，夫何足云！有天皇寺者，據郡之左，標異他刹，號為名藍，困於人火，蕩為煨燼。僧坊主靈鑒族而謀之，以為滿人攸居，必能福我。夫荷擔大事，蔑棄小瑕。乃中宵默往，肩輿而至。二寺夕有所失，朝有所得。諍論鋒起，達于尊官。重於返復，畢安其處。江陵尹右僕射裴公，縉紳清重，擁旄統眾，風望眇眇，當時準程，驅車盛禮，問法勤至。悟神氣灑落，安詳自處，徐以軟語，為之獻酬，必中精微，洞過肯綮。又常秉貞操，不修逢迎，一無卑貴，坐而揖對。裴公訝其峻拔，徵其義趣，謂「抗俗之志當徑挺如是邪」。悟以為「是法平等，不見主客，豈効世諦，與人居而局狹邪？」裴公理冥意會，投誠歸命。既見仁者，我心則降，如熱得濯，躁憤冰散。自是禪宗之盛，無如此者！元和丁亥歲有背痛疾，命弟子先期告終，以夏四月晦奄然入滅。春秋六十，僧臘三十五。以其年八月五日葬之郡東隅，靈龕建塔，從僧禮也。悟身長七尺，神韻孤傑，手文魚躍，頂骨犀起。行在於《瓔珞》，志在於《華嚴》，度人說法，雄健猛利。其一旨云「垢淨共住，水波同體，觸境迷著，浩然忘歸。三世平等，本來清淨。一念不起，即見佛心。」其悟解超頓，為若此也。先是煙焰之末，殿宇不立，顧緇褐且虧瞻禮，密念結構，罔知權輿。禪宴之際，若值神物，自道祠舍濱江水焉。凡我疆畛，富於松梓，悉願傾倒，施僧伽藍。命工規之，宛若符契。於是斬巨棟，幹修楹，撐崖拄壑，雲屯井構。時維秋杪，水用都涸，徒眾斂手，塊然無謀。會一夕雨至，萬株並進，晨發江潁，暮抵寺門。剗剗之際，動無乏者。其餘廊廡床案，靡非幽贊。事隣語怪，闕而不書。其感攝靈祇，皆此類也。比丘慧真、文賁等，禪子幽閑，皆入室得悟之者，或繼坐道場，或分枝化導。時太常協律符載著文頌德焉。世號天皇門風也。又唐澧州龍潭禪院釋崇信，未詳氏族。信在俗為渚宮胡餅師之子，弱齡宛異，神府寬然。昔天皇寺悟禪師隱耀藏光，人莫我測。信家居寺巷，恒日提餅筍饋悟公齋食。食畢且留一餅曰：「吾惠汝，以蔭子孫。」信一日自念曰：「餅是我持去，何以返遺我邪？莫別有旨乎？」遂拱手問焉。悟公曰：「是汝持來，

復汝何咎？」信聞似有驚怪，因勸出家，便求攝受，曰：「爾昔崇福善，今信吾言。」故名之也。由是躬于井臼，供億服勤。乃問悟云：「未蒙指示心要。」悟公云：「時時相示。」信凜凜斯言，如遊子之還家，若貧人之得寶。直從荆渚乃詣澧陽龍潭棲止。因李翱尚書激揚，時乃出世。後德山鑑師出其門，宗風大盛矣。

唐鄴都圓寂傳(掘多)

釋圓寂，不知何許人也。恒以禪觀為務，勤修匪懈，就嵩山老安禪師請決心疑，一皆明煥。寂化行相部，依附者多。久居天平山，稠禪師往跡無不遍尋。時大司空嚴綬傾心信重。享壽一百五十五歲，咸亨二年己巳歲生。按咸亨二年辛未，合云總章二年己巳也。世號無生和尚是歟。寂之高岸，恒不欲人致禮邀請，必有不可犯之色，時或非之。然則志意修則驕富貴，道義重則輕王公，非其傲誕，勢使然也。釋掘多者，印度人也。從踰沙磧，向慕神州，不問狄鞮，旋通華語，而尚禪定。徑謁曹溪能師，機教相接，猶弱喪還家焉。多遊五臺，路由定襄。歷村見一禪者結庵獨坐，問之曰：「子在此奚為？」曰：「吾觀靜。」多曰：「觀者何人？靜者何物？得非勞子之形，役子之慮乎？」其僧茫昧，拱默而已，作禮數四，請垂啟發。多曰：「子出誰門邪？」曰：「神秀大師。」多曰：「我西域異道寔繁有徒，最下劣者，不墮此見。兀然空坐，葷爛身疲，初無深益。子莫起如是見，立如是論。早往韶陽請決所疑。」能曰：「子何不自觀自靜邪？不觀相，不觀如，子遊歷日用，自然安樂也。」一如多所言，略無少異。伊僧扶開羅網。多後莫知攸往。

唐袁州陽岐山甄叔傳

釋甄叔，不知何許人也。幼而聰敏，倜儻不羈。心目融明，具大人相。觀生死輪上，見九地群迷，猶如螻蛄處在蚊睫。受勝妙欲，似嚼蠟無味。遂投簪削頂，具佛標幟，求正覺、了義，扣大寂禪師，一造玄機，萬慮都寂。乃曰：「群靈本源，假名為佛，體竭形消而不滅，金流朴散而常存。性海無風，驚波自湧。心虛絕兆，萬象齊照。體斯理者，不言而遍歷沙界，不用而功益玄化。如何背覺，反合塵勞，於陰界中妄自囚繫，於是形同水月流浪人天哉。」叔見宜春陽岐山群峯四合，歎曰：「坤元作鎮，造我法城。」纔發一言，千巖響答，松開月殿，星布雲廊，青嵐域中化出金界。始從宴坐，四十餘年，滿室金光，晝夜常照。於是化緣已畢，機感難留。元和

庚子歲正月十三日，忽棄塵區，還歸大定。門弟子如坦、良寶等心沒悲海，哀聲動山，如月隱天，群星失耀。大集眾木，[廿/積]為香樓，用作茶毘，獲舍利七百粒，於東峯下建翠堵波。上足任運者命志閑為碑紀述矣。

唐新吳百丈山懷海傳

釋懷海，閩人也。少離朽宅，長遊頓門，稟自天然，不由激勸。聞大寂始化南康，操心依附，虛往實歸，果成宗匠。後檀信請居新吳界，有山峻極，可千尺許，號「百丈」歟！海既居之，禪客無遠不至，堂室隘矣。且曰：「吾行大乘法，豈宜以諸部阿笈摩教為隨行邪？」或曰：「《瑜伽論》、《瓔珞經》，是大乘戒律，胡不依隨乎？」海曰：「吾於大小乘中博約折中，設規務歸於善焉。」乃創意不循律制，別立禪居。初自達磨傳法至六祖已來，得道眼者號「長老」，同西域道高臘長者呼「須菩提」也。然多居律寺中，唯別院異耳。又令不論高下，盡入僧堂。堂中設長連床，施椀架挂搭道具。臥必斜枕床脣，謂之「帶刀睡」，為其坐禪既久，略偃亞而已。朝參夕聚，飲食隨宜，示節儉也。行普請法，示上下均力也。長老居方丈，同維摩之一室也。不立佛殿，唯樹法堂，表法超言象也。其諸制度，與毘尼師一倍相翻，天下禪宗如風偃草。禪門獨行，由海之始也。以元和九年甲午歲正月十七日歸寂，享年九十五矣。穆宗長慶元年，勅諡大智禪師，塔曰大寶勝輪焉。系曰：自漢傳法，居處不分禪、律，是以通禪達法者，皆居一寺中，院有別耳。至乎百丈立制，出意用方便，亦頭陀之流也。矯枉從端，乃簡易之業也。所言自我作古。古，故也；故，事也。如立事克成，則云自此始也；不成，則云無自立辟。今海公作古，天下隨之者，益多而損少之故也。諡海公為大智，不其然乎？語曰：「利不百，不變格。」將知變斯格，厥利多矣。《彌沙塞律》有諸，雖非佛制，諸方為清淨者不得不行也。

唐潭州翠微院恒月傳(真亮)

釋恒月，姓韓氏，上黨人也。厥父為土鹽商，西江往還，俄遇剽略溺死。月雖幼弱，念父葬于魚腹，母又再行，乃決志出家，求報恩育。受教於聖善寺慧初。得度已，造嵩山禪會，便啟發心要。後訪道尋師，靡憚夷險，抵望湖山翠微巖下古院挂錫。四方學者如蜂得王，翕然盛化。建中元年，示疾而終，春秋七十九。其年三月十二日遷塔焉。洛京廣愛寺釋真亮，姓侯氏，景城人也。家訓儒雅，辭

彩粲然。潔素持操，與群少年有異。忽以樊籠為厭，且曰：「去情除饑，是所願也。」遂於本州開元寺智休師下披染服。然其刈薪汲水，率先於人，習行頭陀行。受具已，遊嵩少，遇普寂獎訓，頓開蒙昧。入龍門山，居而禪默，問津者交集，聲望日隆。屬留守尚書王公鐸保釐，聞而欽奉，召入廣愛寺，別住居焉。示人禪觀，匪倦教詔，得道者亦多矣。以貞元四年十一月三日，忽告門人以桑榆末照，誠難久留。囑累而終，年八十八焉。

唐襄州夾石山思公傳(曇真)

釋思公，姓李氏，恒陽人也。早出家于本府龍興寺。得度後，遊伊、洛間，見普寂禪師，開暢禪法。寂始見提誘，尋徹鉤深。至南雍，隱夾石山，翛然自處。屬牛公觀政漢南，聞其聲績，請入城，謝病不應其命。牛帥亦不奪其志，檀施相望。學眾僉僉，若栴檀之圍遶焉。以興元初年示疾歸滅，春秋八十四焉。亳州安國院釋曇真，姓陳，維青人也。少小隨父往彭城，鬻棗於逆旅，而亡所怙。真嘆恨無依，乃投徐大雲寺為僧。其土是嵩法師之後，經論藪澤，真翫習該通。後遊勝境，入嵩山學禪觀。已至任城，邂逅李中丞諷赴職譙郡，接真談道，抵掌盱衡，如披雲霧。李恨相識之晚，請以同行。時聚風亭月觀，談道達旦。李後人為京尹，因從容稱奏真道成德至。德皇下詔徵，而不奉詔。貞元七年四月示滅，門人建塔云。

唐定州大像山定真院石藏傳

釋石藏，姓呂，漢東人也。年隣小學，露成人之度，跪告堂親，願為佛子。遂志入開元寺削染受戒，剋願禮嵩山寂禪師，豁悟禪法。至中山大像峯間石室，孤坐冥寂，數夏安然。同好者望風而至，蔚成叢眾。陶化博陵，人咸欣戴。會州帥李公卓翹仰之切，命入城住，貴親玄論。謝云：「野性難拘，不閑禮法，恐玷威陵。」卓躬登山訪問，欵密交談，深開昏昧。遂奏院題額曰定真焉。藏預白眾訣別，明日坐亡，春秋八十三。貞元十六年正月入塔，立碑頌德云。

宋高僧傳卷第十

宋左街天壽寺通慧大師賜紫沙門贊寧等 勅撰

習禪篇第三之四(正傳二十一人附見四人)

唐洛京伏牛山自在傳(一鉢和尚南印)

釋自在俗姓李，吳興人也，生有奇瑞。稍長，坐則加趺，親黨異之。辭所愛投徑山出家，於新定登戒。及諸方參學，從南康道一禪師法席，懸解真宗，逸蹤流輩，道譽孔昭，行止優游。多隱山谷，四方禪侶叢萃其門。元和中，居洛下香山，與天然禪師為莫逆之交。所遊必好古，思得前賢遺跡以快逸觀。龍門山得後魏三藏翻經處；王屋山得稠禪師解虎鬪處，此山飲甘泉，改為甘泉寺；嵩山得梵法師馬跑泉。居無戀著，所著《三傷歌》，辭理俱美，警發迷蒙，有益於代。前蜀王氏偽乾德初，有小軍使陳公娶高中令駢諸孫女，若人持不殺二十餘年，後在蜀為男婚娶，禮須屠宰。高初不欲，親戚言：「自己持戒，行禮酒筵將何以娛賓也？」依違之際，遂多庖割。俄未浹旬，得疾頗異，口但慌言，已而三宿還蘇，述冥間之事。初被黑衣使者追攝入岐府城隍廟，廟神峨冠大袖，與一金甲武士晤坐。使者領高見神，武士言語紛紜讓高破戒，仍扼腕罵曰：「吾護戒神將也。為汝二十年食寢不遑，豈期忽起殺心，頓虧戒檢？命雖未盡，罪亦頗深，須送冥司懲其故犯。」城隍神問高曰：「汝更修何善追贖過尤乎？」高常誦持《上生經》，其數已多，于時懵然都無記憶，恐懼之間白曰：「誦得《三傷頌》、《一鉢和尚歌》。」遂合掌向神厲聲而念，神與武士聳耳擊拳立聽，顏色漸怡。及卒章，神皆涕淚，乃謂高曰：「且歸人間，宜切營善。」拜辭未畢，颯然起坐，備陳厥事。自此《三傷》、《一鉢》之歌頌，人皆傳寫諷誦焉。《一鉢和尚》者歌詞叶理，激勸憂思之深，然文體涉里巷，豈加《三傷》之典雅乎？在遣弟子去江南，選山水之最者，「吾願往中終老」。到江州都昌縣有好林泉，迴報。在行至葉縣，道俗所留。往隋州開元寺示滅，年八十一，則長慶元年也。

系曰：稽諸律藏，出家者犯戒，則招二罪，一違制，二業道也。高氏在家素不受戒，無違制愆，俗容有業道罪，寧得有護戒神邪？況高氏既持不殺，則冥然感止持無作之善生焉。因「鮮克有終」，致遭幽責，告諸五眾，當畏護戒之神。夫如是，明則有戒法，幽則有鬼神歟！

次成都府元和聖壽寺釋南印，姓張氏。明寤之性，受益無厭，得曹溪深旨，無以為證。見淨眾寺會師，所謂落機之錦，濯以增研，銜燭之龍，行而破暗。印自江陵入蜀，於蜀江之南壩，蕪草結茆，眾皆歸仰，漸成佛宇，貞元初年也。高司空崇文平劉闢之後，改此寺為元和聖壽，初名寶應也。印化緣將畢，於長慶初示疾入滅。營塔葬於寺中。會昌中毀塔，大中復於江北寶應舊基上創此寺，還名「聖壽」。印弟子傳嗣有義俛，復興禪法焉。

唐汾州開元寺無業傳

釋無業姓杜氏，商州上洛人也。其母李氏忽聞空中言曰：「寄居得否？」已而方娠。誕生之夕，異光滿室。及至成童，不為戲弄，行必直視，坐即加趺。商於緇徒，見皆驚歎，此無上法器，速令出家，紹隆三寶。年至九歲，啟白父母，依止本郡開元寺志本禪師，乃授與《金剛》、《法華》、《維摩》、《思益》、《華嚴》等經，五行俱下，一誦無遺。年十二，得從剃落。凡參講肆，聊聞即解。同學有所未曉，隨為剖析，皆造玄關。至年二十，受具足戒於襄州幽律師，其《四分律疏》，一夏肄習，便能敷演。兼為僧眾講《涅槃經》，法筵長開，冬夏無倦，可謂生、肇不泯，琳、遠復興。後聞洪州大寂，禪門之上首，特往瞻禮。業身逾六尺，屹若山立，顧必凝睇，聲侔洪鐘。大寂一見異之，笑而言曰：「巍巍佛堂，其中無佛。」業於是禮跪而言曰：「至如三乘文學，粗窮其旨。嘗聞禪門即心是佛，實未能了。」大寂曰：「只未了底心即是，別物更無。不了時，即是迷。若了，即是悟。迷即眾生，悟即是佛。道不離眾生，豈別更有佛！亦猶手作拳，拳全手也。」業言下豁然開悟，涕淚悲泣，向大寂曰：「本謂佛道長遠，勤苦曠劫，方始得成。今日始知法身實相本自具足，一切萬法，從心所生，但有名字，無有實者。」大寂曰：「如是如是，一切法性不生不滅，一切諸法本自空寂。經云：『諸法從本來，常自寂滅相。』又云：『畢竟空寂舍。』又云：『諸法空為座。』此即諸佛如來住此無所住處。若如是知，即住空寂舍，坐法空座，舉足下足，不離道場。言下便了，更無漸次，所謂不動足而登涅槃山者也。」業既傳心印，尋詣曹溪禮祖塔，迴游廬嶽、天台及諸名山，遍尋聖跡。自洛抵雍，憩西明寺，僧眾咸欲舉請充兩街大德，業默然，歎曰：「親近國王大臣，非予志也！」於是至上黨，節度使相國李抱真與馬燧累有戰功，又激發王武俊同破朱滔，功多勢盛，然好聞賢善，雖千里外必持幣致之。深重業名行，旦夕瞻禮，麾幢往來。常有倦色，謂門人曰：「吾本避上國浩穰名利，今此又煩接君侯，豈吾心

哉！」言訖，逍遙綿上抱腹山。又往清涼山，於金閣寺讀大藏經，星八周天，斯願方畢。復振錫南下，至於西河，初止眾香佛剎，州牧董叔纏請住開元精舍。業謂弟子曰：「吾自至此，不復有遊方之意，豈吾緣在此邪？」於是撞鐘告眾，作師子吼，雨大法雨，垂二十年。并汾之人悉皆向化。憲宗皇帝御宇十有四年，素嚮德音，乃下詔請入內，辭疾不行。明年再降綸旨，稱疾如故。穆宗皇帝即位之年，聖情虔虔，思一瞻禮，乃命兩街僧錄靈準公遠齎勅旨迎請。準至作禮，白之曰：「知師絕塵物表，糠粃世務。法委國王，請師熟慮！此迴恩旨，不比常時，願師必順天心，不可更辭以疾。相時而動，無累後人。」業笑曰：「貧道何德，累煩聖主？行即行矣。道途有殊。」於是剃髮澡浴，至中夜，告弟子慧愔等曰：「汝等見聞覺知之性與太虛同壽，不生不滅。一切境界本自空寂，無一法可得。迷者不了，即為境惑，一為境惑，流轉不窮。汝等當知心性本自有之，非因造作，猶如金剛不可破壞。一切諸法如影如響，無有實者，故經云：『唯此一事實，餘二則非真。』常了一切空，無一物當情，是諸佛同用心處。汝等勤而行之！」言訖加趺而坐，奄然歸寂。嗚呼，可謂於生死得自在也！俗齡六十二，僧臘四十二。道俗號慕，如喪考妣，乃備香華幢幡，遷全身就于城西練若，積香薪而行茶毘。乃有卿雲自天，五色凝空，異香西來，郁馥氛氳，闔境士庶咸皆聞覩。及薪盡火滅，獲舍利羅，璨若珠玉。弟子慧愔、行勤、虔縱、義幽、元度、恒泰等。泣血收之，殮以金棺。乃命郢匠琢石為塔，以長慶三年十二月二十一日安葬于練若之庭。業遷化之歲，州牧楊潛得僧錄準公具述其事，遂為碑頌。勅諡大達國師，塔號澄源焉。

唐長沙東寺如會傳

釋如會，韶州始興人也。大歷八年，止國一禪師門下，後歸大寂法集。時禪客仰慕，決求心要，僧堂之內，床榻為之陷折，時號「折床會」，猶言鑿佛床也。後徇請居長沙東寺焉。自大寂去世，其法門鼎盛，時無可敵，諺謂東寺為「禪窟」，斷可知矣。時相國崔公群慕會之風，來謁于門，答對瀏亮，辭咸造理。自爾為師友之契。初群與皇甫鏘議上憲宗尊號，因被鏘搆，出為湖南觀察，閑豫歸心于會也。至穆宗長慶癸卯歲，終于寺。春秋八十。時井泉預枯，異香秘馥，遷塔于城南。廉使李翱盡毀近城墳塔，唯留會所瘞浮圖，以筆題曰：「獨留此塔，以別賢愚矣。」劉膳部軻著碑焉。勅諡傳明大師，塔曰永際。亦呼所居為「夾山和尚」是歟。

唐南陽丹霞山天然傳

釋天然，不知何許人也。少入法門，而性梗槩，謁見石頭禪師，默而識之，思召其自體得實者，為立名天然也。乃躬執爨，凡三年，始遂落飾。後於嶽寺希律師受其戒法。造江西大寂會，寂以言誘之，鷹答雅正。大寂甚奇之。次居天台華頂三年，又禮國一大師。元和中，上龍門香山，與伏牛禪師為物外之交。後於慧林寺遇大寒，然乃焚木佛像以禦之。人或譏之，曰：「吾茶毘舍利。」曰：「木頭何有？」然曰：「若爾者，何責我乎？」元和三年，晨過天津橋，橫臥，會留守鄭公出，呵之不去。乃徐仰曰：「無事僧。」留守異之，乃奉束素衣兩襲，月給米麵。洛下翕然歸信。至十五年春，言「吾思林泉」，乃卜南陽丹霞山結菴。以長慶四年六月告門人曰：「備沐浴，吾將欲行矣。」乃戴笠策杖入履，垂一足，未及地而卒，春秋八十六。膳部員外郎劉軻撰碑紀德焉。勅諡智通禪師，塔號妙覺。

唐常州芙蓉山太毓傳

釋太毓，姓范氏，金陵人也。年纔一紀，志在出家，乃禮牛頭山忠禪師而師事焉。於是勇猛精進，求其玄旨，法器外朗，神襟內融。雖明了一乘，而具足萬行。往雍京安國寺，進受具戒，褻然出眾。加復威儀整肅，妙相殊特，如大海之不可測，如虛空之不可量。巡禮道場，攝心淨域，雖智能通達，不假因師，而印可證明，必從先覺。遂謁洪井大寂禪師，覩相而了達法身，剎那而頓成大道。于時天下佛法，極盛無過洪府，座下賢聖比肩，得道者其數頗眾。毓與大徹禪師、大宣教禪師、大智禪師，皆昆仲也，既而南北觀方，曾無告憚，俾廣聞見，閑養聖胎耳。元和十三年，止於毘陵義興芙蓉山，故得名于山焉。毓為緣作因，有應無著，故所居感化，所至悅隨，道俗相望，動盈萬數。自此江南之人悟禪理者多矣。時相國崔公群坐失守出分司，後為華州，由三峯出鎮宣城。其地雖邇，其人則遐。崔公深樂禮謁，致命誠請，毓以感念而現，大悲為心，莫不果欲隨緣，遊方順命。寶歷元年至于宛陵禪定寺，所以隨順而揚教也。至明年，告歸齊雲山。九月合朔，色相不動而示滅于山之院，享年八十，僧臘五十八。是日也，天地如慘，草木如摧，鳥獸悲啼，雲泉斷咽。緇徒士庶，孺慕充窮。十月，棲神于院之庭，從其宜也。弟子至孚、契真、清幹等慨吾師示滅而後學徒存。太和二年，相國韋處厚素尚玄風，道心惇篤，以事奏聞。天子爰降德音，褒以殊禮，追諡號塔名。越州刺史陸亘摛翰論撰焉。

唐南嶽西園蘭若曇藏傳(靈彖超岸)

釋曇藏不知何許人也，得禪訣於大寂之門。後見石頭希遷禪師，所謂再染謂之賴也。貞元二年，嘉遁于衡嶽，棲止峯之絕頂。晚年苦於脚疾，移下西園結茅，參請者繁熾。太和元年終于嶽中，享齡七十。先是藏養一犬，尤靈，嘗夜經行息坐次，其犬銜藏之衣歸房，乃於門閭旁伏守，而吠聲不絕，頻奮身作猛噬之勢。詰旦視之，東厨有大蟒蛇，身長數丈，蟠繞小舍，為之岌岌。呀張其口，虓闕其聲，毒氣漫然。侍者白藏亟去迴避，藏曰：「死而可逃，何遠之有？彼以毒來，我以慈受。毒無自性，激發則強。慈苟無緣，冤親一揆。無人無我，法性俱空。」言訖，其蟒蛇按首徐行，閃然不見。又嘗一夜，有群盜，其犬亦銜藏衣。藏語盜曰：「諸君，山叟茅舍有中意物，任拈去，終無小愠之分。」盜感其言，散分下山矣。又荊州永泰寺釋靈彖，姓蕭氏，蘭陵人也。其胄裔則後梁為周所滅，支屬星分，彖父居長沙為編戶矣。生彖，宛有出塵之誓，遇諸禪會，罕不登臨，止泊維青，優游自得。長慶元年住百家巖寺。未幾，徙步江陵，太守王潛請居永泰寺。太和三載六月二十三日，終于住寺，春秋七十五。建塔于州北，存焉。又釋超岸，丹陽人也。先遇鶴林素禪師，處眾拱默而已。天寶二載，至撫州蘭若，得大寂開發。四方毳侶依之。

唐鄂州大寂院無等傳

釋無等姓李氏，今東京尉氏人也。負志卓犖，辭氣貞正。少隨父官于南康，頻遊梵剎，向僧瞻像，往即忘歸。既作沙門，遇道一禪師在龔公山，學侶螳慕。等求法於其間，挺然出類。元和七年遊漢上。後至武昌，覩郡西黃鵠山奇秀，遂結茅分衛。由此巴、蜀、荊、襄尚玄理者，無遠不至矣。大和元載，屬相國牛公僧孺出鎮三江，聞等道香，普熏遐邇，命駕枉問。風虎相須，為法重人。牛公慮其蘭若不隸名籍，特為奏題曰「大寂」也。憧憧往來，堂無虛位。至四年十月示滅，年八十二。弟子誓通奉全身入塔焉。

唐天目山千頃院明覺傳

釋明覺俗姓猷，河內人也。祖為官嶺南，後徙居為建陽人也。覺儒家之子，風流蘊藉，好問求知，曾無倦懈。宿懷道性，聞道一禪師於佛跡嶺行禪法，往造焉，遂依投荆染。由此即願觀方衡嶽、天台、四明，遍嘗法味。復於徑山留心請決數夏，負薪，面黥手胝。

下山至杭州大雲寺，禁足院門。續移止湖畔青山頂，結庵而止。屬范陽盧中丞嚮風躬謁，召歸州治大雲寺住持。元和十五年避嫌遠囂，隱天目山。是山也特秀，基墟跨涉四郡。有上、下龍潭，深不可測，怪物往往出於中。有白鹿，毛質詭異，土人謂為山神也。覺遁是中，檀信為禪宇。長慶三年春及冬至明年二月大旱，野火蔓延，欲燒院，僧惶懼，覺曰：「吾與此山有緣，火當速滅。」少選，雷雨驟作，其火都滅，遠近驚歎。以太和五年七月十九日示疾而亡。

唐杭州秦望山圓脩傳

釋圓脩姓潘氏，福州閩人也。生而岐嶷，長而俊邁。忽思拔俗，尋事名師，剔髮變衣，年滿，於嵩陽會善寺納戒。既而儀表容與，日新厥德，研窮經論，俄約觀方。遇百丈山海禪師，根教相符，遂明心要。持盃振錫，而抵于杭。見秦望山峻極之勢，有長松枝繁結蓋，遂棲止于松巔。時感鵲復巢於橫枝，物我都忘，羽族馴狎。由茲不下，近四十秋。每一太守到任，則就瞻仰，號鳥窠禪師焉。洎元和初，邦伯裴常棣酷重其道，請下結庵者至于三四，或為參請者說法，裴侯命八屬宰官同力造伽藍，移廢額曰「招賢」以居之。太和七年癸丑歲九月二十二日，端坐，怡然歸寂，享年九十九，僧臘八十。杭之累政良守無不傾重，稅駕樹陰，請談玄極，不覺更僕移辰矣。今塔在石甌山下，南嶽僧唯貞為塔銘焉。近有盜發其塔，且多怪異，止收得銘誌而已。

唐池州南泉院普願傳

釋普願，俗姓王，鄭州新鄭人也。其宗嗣於江西大寂，大寂師南嶽觀音讓，讓則曹溪之冢子也，於願為大父，其高、曾可知也，則南泉之禪有自來矣。願在孕，母不喜葷血。至德二年，跪請於父母乞出家，脫然有去羈鞅之色。乃投密縣大隈山大慧禪師受業。苦節篤勵，胼胝皸瘃，不敢為身主，其師異之。大曆十二年，願春秋三十矣，詣嵩山會善寺嵩律師受具，習相部舊章，究毘尼篇聚之學。後遊講肆，上《楞伽》頂，入《華嚴》海會，挾《中》、《百》、《門》觀之關鑰，領玄機於疏、論之外。當其鋒者，皆旗靡轍亂。大寂門下八百餘人，每參聽之後，尋繹師說，是非紛錯。願或自默而語，群論皆弭曰：「夫人不言乃言爾耳。」自後含景匿耀，似不能言者，人以其無法說，或扣其關，亦堅拒不洩。時有密蹟其機者，微露頭角，乃知其非無法說，時未至矣。貞元十一年，挂錫池

陽南泉山，堙谷刊木，以構禪宇，簞笠飯牛，溷于牧童。斫山畚田，種食以饒。足不下南泉三十年矣。夫洪鐘不為莛撞發聲，聲之者，故有待矣。太和年初，宣使陸公巨、前池陽太守皆知其抗迹塵外，為四方法眼，與護軍彭城劉公同迎請下山，北面申禮。不經再歲，毳衣之子奔走道途，不下數百人。太和甲寅歲十月二十一日示疾。十二月二十三日，有白虹貫於禪室後峯，占之者：得非南泉謝世乎？是日西峯，巨石崩，聲數十里。當晝，有乳虎遶禪林而號，眾咸異之。二十五日東方明，告門人曰：「星翳燈幻亦久矣，勿謂吾有去來也。」言訖而謝，春秋八十七，僧臘五十八。契元、文暢等凡九百人，皆布衣墨巾，泣血于山門。赴喪會葬者相繼于路，哀號之聲震于崖谷。乙卯歲，門人奉全身於靈塔，從其教也。膳部員外郎史館修撰劉軻欽若前烈，追德頌美焉。

唐澧陽雲巖寺曇晟傳

釋曇晟，俗姓王氏，鍾陵建昌人也。始生有自然胎衣右袒，猶緇服焉。遂請出家於石門，年滿具法，參見百丈山海禪師。二十年為侍者，職同慶喜，法必我聞，身若中涓，心居散位。續受藥山舉發，全了無疑，化徒孔勤，受益者眾。以太和三年己酉十月二十七日示滅。勅諡大師號無相，塔名淨勝焉。

系曰：商那和脩，華言胎衣也，以其生帶衣而誕，以繒肉而非，幼為繡襦，長且稱身；出家成法服，至入滅闍維，方為煨燼焉。晟師之有胎衣，止不及為嬰兒已往之服耳，此近叔離尼、商那尊者也，思過半矣。何邪？晟師去聖懸遠，和修佛滅百年將胎衣示有行果之徒也，今晟以胞袒絡化其教理之世，不其難乎！故曰思過半矣。

唐荊州福壽寺甄公傳

釋甄公，姓魯氏，江陵人也。少而警慧，七歲誦通《詩·雅》，遂應州舉，三上中第，未釋褐。與沙門議論玄理，乃願披緇，投福壽寺辯初法師，以為模範。後於洛京昭成寺講法數座，因禮嵩山禪師，通暢心決。方至丹陽茅山，尋挂錫於蘇州楞伽山，四遠參玄者駢肩疊足矣。時白樂天牧是郡，接其談道，不覺披襟解帶，心遊無物之場，得甄之闡闔矣。遂堅請出水流寺，不樂安止，以山水為娛情之趣耳。太和三年，示疾，云終九十歲。以其年四月十七日入塔焉。

唐趙州東院從諗傳

釋從諗，青州臨淄人也。童稚之歲，孤介弗群，越二親之羈絆，超然離俗。乃投本州龍興伽藍，從師剪落。尋往嵩山琉璃壇納戒，師勉之聽習，於經律但染指而已。聞池陽願禪師道化翕如，諗執心定志，鑽仰忘疲。南泉密付授之，滅跡匿端，坦然安樂。後於趙郡開物化迷，大行禪道。以真定帥王氏阻兵，封疆多梗，朝廷患之。王氏抗拒過制，而偏歸心於諗。諗嘗寄塵拂上王氏曰：「王若問何處得此拂子？答道老僧平生用不盡者物。」凡所舉揚，天下傳之，號趙州法道。語錄大行，為世所貴也。

唐京兆華嚴寺智藏傳

釋智藏，姓黃氏，豫章上高人也。父為洪州掾。藏隨父入報國寺，見供奉皓月講《涅槃經》，微體經意，樂入佛門。年甫十三，割恩愛，辭父母，於開元寺宗法師所受學。後修禪法，證大寂一公宗要矣。建中元年，入長安。盧元顥素奉其道，舉奏入內供養，勅令住華嚴寺。輦轂之間，玄學者孔熾，就藏之門，若海水之歸投琴之壑矣。太和九年終于住寺，三月十二日入塔焉。

唐潭州道吾山圓智傳

釋圓智，俗姓張，豫章海昏人也。總丱之年，頓求出離，禮涅槃和尚，躬執鉚屨。爰登戒地，誓叩禪門，見乎藥山，示其心決。後居長沙道吾山，海眾相從，猶蜂蟻之附王焉。以太和九年乙卯九月十一日長逝，享年六十七。闍維，得不灰之骨數片，腦蓋一節，特異而清瑩，其色如金，其響如銅。乃建塔于石霜山，勅諡脩一大師寶相之塔。得其道者則普會焉。智公初領悟藥山宗旨，儼師誨之曰：「吾無寶玉大弓以為分器，今賞汝犢鼻一腰，雖云微末，而表親褻歟？」南嶽僧玄泰著碑頌。

唐明州大梅山法常傳

釋法常，俗姓鄭，襄陽人也。稚歲從師於荆之玉泉寺。凡百經書，一覽必暗誦，更無遺忘。冠年，受具足品於龍興寺。容貌清峻，性度剛敏，納衣囊鉢，畢志卯齋。貞元十二年，自天台之于四明、餘姚之南七十里，寓仙尉梅子真之舊隱焉。昔梅福初入山也，見多龍穴，神蛇每吐氣成樓閣，雲雨晦冥。邊有石庫，內貯仙藥神仙經籍。常寄宿于房，乃夢神人語之曰：「君非凡夫。」因話及石庫中聖書懸記既往將來之事，受之者為地下主，不然為帝王之師傅矣。

常謂之曰：「石庫之書，非吾所好。昔僧稠不顧仙經，其卷自亡。吾以涅槃為樂，厥壽何止與天偕老耶？」神曰：「此地靈府，俗氣之人輒難居此，立致變怪。」常曰：「吾寓跡於梅尉之鄉，非久據焉。」因號梅山也。由是編苦伐木，作覆形之調，居僅四十年，驗實非常之人也。開成年初院成，徒侶輻湊，請問決疑，可六七百納徒矣。四年，常忽示疾。九月十九日，山林搖盪，鳥獸悲鳴，辭眾而逝，報齡八十八，戒臘六十九。十月十九日焚于南澗，收舍利，五色璨然圓轉焉。常先隱梅嶺，有僧求拄杖見之，白鹽官安禪師。曰：「梅子熟矣，汝曹往尋，幸能療渴也。」進士江積為碑云爾。

唐揚州慧照寺崇演傳

釋崇演，姓段氏，東平人也。出家于本州龍興寺慧超法師之門。遊方問道，見嵩陽善寂禪師，示其心法。後居都梁山，當于淮浦，四面來商，毳客影附焉。相國李公紳鎮撫廣陵，而性剛嚴，少所接與，偏輕釋子。或允相見，必問難鋒起，祇應不供者，多咄叱而出。紳遣衙吏章幼成傳意召演入府，訓對詣理，談論鏗然。紳惘然，翻不測其畛域，特加歸信，請居慧照寺化導。同聲相應，僅于千眾。開成二年，終于淨院，春秋八十四。以十月二十三日全身入塔云。

唐杭州鹽官海昌院齊安傳

釋齊安，俗姓李，實唐帝系之英。先人播越，故生于海門郡焉，深避世榮，終祕氏族。安在胎，母夢日兆詳。既誕而神光下燭。數歲，有異僧款門召見，摩頂曰：「鳳穴振儀，龍宮藏寶，紹終之業，其在斯乎！」及臻卅角，亟請出家，父母訶止。安曰：「祿利之養，止於親爾。冥報之利，不其遠邪？珪組之榮，止於家爾。濟拔之益，不其廣邪？」二親感其言而順從，遂依本郡雲琮禪師。雖勤勞謙默，和光同塵，而螢月殊暉，雞鶴異態。年滿登具，乃詣南嶽智嚴律師，外檢律儀，內照實相。後聞南康龔公山大寂禪師隨化度人，慈緣幽感。裹足振錫，一日造焉。大寂欣其相依，論持不倦。及其蛻去，安盡力送終。元和末，安春秋已逾七十，而遊越之蕭山法樂寺，以其古製垣屋靡完，補壞扶傾，不克宴坐。時海昌有法昕者，緇林翹楚，於放生池墻廢地肇葺禪居焉。昕謙而不自有，延請安主之，四海參學者麀至焉。道化之盛，翕然推伏。安不言寒暑，不下堂廡，無流眄，無傾聽，如此者蓋有年矣。而又挺身魁岸，相好莊嚴，眉毫紺垂，顛骨圓聳，望之者如仰嵩、華而揖滄

溟，曾無測其高深也。以會昌二年壬戌十二月二十二日泊然宴坐，俄爾示滅。先時竹柏盡死，至是精彩益振。爰有清響叩戶，祥光滿室，如環佩之鏘鳴，若劍戟之交射。瑞相尤繁，事形別錄。又安懸知宣宗皇帝隱曜緇行，將來法會，預誡知事曰：「當有異人至此，禁雜言，止橫事，恐累佛法。」明日，行脚僧數人參禮，安默識帝，遂令維那高位安置，禮殊他等。安每接談話，益知貴氣，乃曰：「貧道謬為海眾圍繞，患齋不供。就上座邊求一供疏。」帝為操翰攄辭，安覽驚悚，知供養僧齋去，所獲豐厚，殆與常度不同。乃語帝曰：「時至矣，無滯泥蟠。」囑以佛法後事而去。帝本憲宗第四子，穆宗異母弟也，武宗恒憚忌之，沈之于宮廁，宦者仇公武潛施拯護，俾髡髮為僧，縱之而逸。周遊天下，險阻備嘗。因緣出授江陵少尹，實惡其在朝耳。武宗崩，左神策軍中尉楊公諷宰臣百官迎而立之，聞安已終，愴悼久之。勅諡大師曰悟空，乃以御詩追悼。後右貂廬簡求為建塔焉。

唐京師聖壽寺恒政傳

釋恒政，姓周氏，平原人也。未入法前，隨入鄉校，殊不嗜書籍。或見佛經，耽味不捨。後棄俗從師，就本州延和寺詮澄法師下受誦經法。既登戒已，問道於嵩少，決了無壅，遁跡三峯，放蕩自在。無幾，入太一山中，甫行風教，學人螳慕。太和中，文宗皇帝酷嗜蜃蛤，沿海官吏先時遞進，人亦勞止。一日，御饌中盈桴而進，有擘不張呀者，帝觀其異，即焚香祝之。俄為菩薩形，梵相克全，儀容可愛，遂致於金粟檀香合，以玉綿錦覆之，賜興善寺，令致禮之。始宣問群臣：「斯何瑞也？」相國李公德裕奏曰：「臣不足知，唯知聖德昭應。其諸佛理，聞終南山有恒政禪師，大明佛法，博聞強識。」詔入宣問，政曰：「貧道聞物無虛應，此乃啟沃陛下之信心耳。故契經中應以此身得度者，即現此身而為說法也。」帝曰：「菩薩身已見，未聞說法。」政曰：「陛下覩此為常？非常耶？信？非信耶？」帝曰：「希奇事，朕深信焉。」政曰：「陛下已聞說法了。」皇情悅豫，得未曾有，勅天下寺院各立觀音像，以答殊休。其菩薩，至會昌毀佛舍，乃亡所在。因留政內道場中，累辭入山，宣住聖壽寺，至武宗即位，忽入終南。或問其故，曰：「吾避仇，烏可已乎哉？」後終山舍，年八十七。闍維，收舍利四十九粒，以會昌三年九月四日入塔。後有廢教之勅，政之先見，若合符節焉。

系曰：蜃蛤中胡得菩薩像乎？通曰：「有所警發，時一現耳。近聞偽唐李氏國境荐饑，陂湖間多生麤蚌，百姓競取而食。其年免殍仆

者十有七八。明年豐，民猶采之。無何，有獲巨蚌可二尺餘，提歸，擘磔擊[卅/淪]，曾無少損。其人呪垂放之，俄自開張，吐出佛像，長僅尺許，相好具全，若真珠色，號曰：『珠佛』焉。獻李氏，後遺與梵僧焉。此意所不及處現形者，蓋經中化肉山、魚米以資饑饉。歲既豐登，胡不屬厭，故現相止足之地。」

唐大瀉山靈祐傳

釋靈祐，俗姓趙，祖、父俱福州長溪人也。祐幼年戲于前庭，仰見瑞氣祥雲，徘徊盤鬱，又如天樂清奏，真身降靈，衢巷諦觀，耆艾莫測。俄有華巔之叟，狀類鬪賓之人，謂家老曰：「此群靈眾聖標異。此童，佛之真子也，必當重光佛法。」久之，彈指數四而去。祐以椎髻短褐，依本郡法恒律師執勞，每倍於役。冠年剃髮，三年具戒。時有錢塘上士義賓授其律科。及入天台，遇寒山子於途中，乃謂祐曰：「千山萬水，遇潭即止。獲無價寶，賑卹諸子。」祐順途而念，危坐以思，旋造國清寺，遇異人拾得申繫前意，信若合符。遂詣泐潭謁大智師，頓了祖意。元和末，隨緣長沙，因過大瀉山，遂欲棲止。山與郡郭十舍而遙，夙無人煙，比為獸窟。乃雜猿獠之間，橡栗充食。浹旬，有山民見之，群信共營梵宇。時襄陽連率李景讓統攝湘潭，願預良緣，乃奏請山門號同慶寺。後相國裴公相親道合。祐為遭會昌之澄汰，又遇相國崔公慎由崇重加禮，以大中癸酉歲正月九日盥漱畢，敷座瞑目而歸滅焉。享年八十三，僧臘五十九。遷葬于山之右梔子園也。四鎮北庭行軍涇原等州節度使、右散騎常侍盧簡求為碑，李商隱題額焉。

唐黃州九井山玄策傳

釋玄策，俗姓魯，會稽人也。幼隨父商估，赴天台山光明會，乃隋朝智顛禪師立教，年別九月，遠近州邑黑白二眾鳩聚。策覩殊異，遂于禪林寺智廣師下出家。遊方見江西大寂，頓開翳障。及遍參問，覩黃陂九井山奇秀，乃結茅為舍，學侶若蟬之走明也。或慰策曰：「師之耐寂寞如此乎？」策曰：「致道者忘心矣，吾樂甚哉。」以大中八年現疾而滅。續勅諡大師曰圓寂，塔名智覺焉。

宋高僧傳卷第十一

宋左街天壽寺通慧大師賜紫沙門贊寧等奉 勅撰

習禪篇第三之五(正傳二十人附見四人)

唐杭州大慈山寰中傳

釋寰中，姓盧氏，河東蒲坂人也。稟靈特異，挺質殊倫，身支傭亭，頂骨圓峻，其聲若鐘響，其色猶脂凝。學通終古，辭實豐贍。年二十五，隨計中甲科，然未塞其懷，復思再捷。無何，遭母之憂，遂廬于墓所。及服闋，徑往北京童子寺出家。二稔未周，諸經皆覽。明年，往嵩嶽登戒，肄習律部。於茲博通，忽慕上乘，決往百丈山，深得玄旨。後隱南嶽常樂寺，結茅于山椒。諫議大夫崔公深重其操，因別立方丈。虞淵景晞，一飯永日。然其乏水，羸瓶遠求。俄爾深宵，有虎嗥嘯廬側，詰旦視之，果濫泉坼地而湧，足其汲用。後之杭，浙江之北有山號大慈。居未久，檀信爰臻。旋成巨院，四方僧侶參禮如雲。屬武宗廢教，中衣短褐，或請居戴氏別墅焉。大中壬申歲，太守劉公首命剃染，重盛禪林。壬午歲二月十五日囑累，聲畢而終。時漸溽暑，驗其身一無變異，而頂門燠潤。冬，窆于塔所，享年八十三，法臘五十四。有說：常樂寺山虎跑泉，當中公滅日，忽焉乾涸。異哉！止資中之受用耳。至乾符丁酉歲，勅「諡大師」，號性空，塔名定慧也。縉雲太守段成式為真讚焉。

唐洛陽韶山寰普傳

釋寰普者，不知何許人也。稟形淳粹，克性謙冲。居于醜夷，下風請業汪汪然，其識度輒難擬議。具戒之後，經論溫尋。然後杖錫南遊澧陽，遇夾山而得心契，有參學舉問，垂手携歸，不使一機失其開誘。其所不薦，勸令披覽經法，亦近秀、寂之遺風耳。

唐衡山昂頭峯日照傳

釋日照，姓劉氏，岐下人也。家世豪盛，幼承庭訓，博覽經籍，復於《莊》、《老》，而宿慧發揮，思從釋子。即往長安大興善寺曇光法師下，稟學納戒，傳受經法，靡所不精。因遊嵩嶽，問圓通之訣，欣然趨入。後遊南嶽，登昂頭峯，直拔蒼翠，便有終焉之志。

庵居二十載，屬會昌武宗毀教，照深入巖窟，飯粟飲流而延喘息。大中宣宗重興佛法，率徒六十許人還就昂頭山舊基，結苫蓋，構舍宇。復居一十五年，學人波委。咸通中示滅，春秋一百八歲。至三年二月三日入塔，立碑存焉。天下謂其禪學為昂頭照是歟。

唐朗州德山院宣鑿傳

釋宣鑿，姓周氏，劍南人也。生惡葷羶，少多英敏，宿齋異操，懇願出塵。大龍不屈於小庭，俊鶚必騰其層漢，既除美飾，當預僧流。從受近圓，即窮律藏，其諸性相，貫習偕通。聞重湖間禪道大興，乃抗志雲遊，造龍潭信禪師，則石頭宗師之二葉也。始唯獨居一室，鑿強供侍之。一夕龍潭持一枝火授鑿，鑿接而行數步，且曰：「久聞龍潭到來，龍之與潭，俱不見歟？」信曰：「子親到矣。」機與教符，日親丈室三十餘年。後止灃陽。居無何，屬武宗搜揚。泊大中還復法儀。咸通初，武陵太守薛延望堅請，始居德山，其道芬馨，四海禪徒輻湊。伏、臘，堂中常有半千人矣。其於訓授，天險海深，難窺邊際。雪峯參見，鑿深肯重。以咸通六年乙酉歲十二月三日，忽告諸徒曰：「捫空追響，勞汝神邪？夢覺覺非，復有何事？」言訖安坐而化，春秋八十四，僧臘六十五。身據床坐，卓然七日如生在焉。天下言激箭之禪道者，有德山門風焉。今襄、鄧、漢東法孫極盛者是。

唐明州棲心寺藏奘傳

釋藏奘，俗姓朱氏，蘇州華亭人也。母方娠及誕，常聞異香。為兒時嘗墮井，有神人接持而出。卅歲出家，禮道曠禪師。及弱冠，詣嵩嶽受具。母每思念涕泣，因一日不視，迨其歸省，即日而明。母喪哀毀，廬墓間頗有徵祥，孝感如是，由此顯名。尋遊方訪道，復詣五洩山，遇靈默大師。一言辨析，旨趣符合，顯晦之道，日月之所然也。會昌、大中，衰而復盛。唯奘居之，焚不能惑，焚不能熱，溺不能濡者也。泊周洛再構長壽寺，勅度居焉。時內典焚毀，梵夾煨燼，手緝散落，實為大藏。尋南海楊公收典姑蘇，請奘歸于故林，以建精舍。大中十二年，鄞水檀越任景求捨宅為院，迎奘居之。剡寇求甫率徒二千，執兵晝入，奘瞑目宴坐，色且無撓。盜眾皆悸懾，叩頭謝過。寇平，州奏請改額為棲心寺，以旌奘之德焉。凡一動止，禪者必集，環堂擁榻，堵立雲會。奘學識泉涌，指鑿岐分。詰難排疑之眾，攻堅索隱之士，皆立褰苦霧，坐泮堅冰，一言入神，永破沈惑。以咸通七年秋八月三日現疾告終，享年七十七，

僧臘五十七。預命香水剃髮，謂弟子曰：「吾七日在矣。」及期而滅。門人號慕，乃權窆天童巖。已周三載，一日異香凝空，遠近郁烈。弟子相謂曰：「昔師囑累『令三載後當焚我身』，今異香若此。」乃發塔視之，儼若平生。以其年八月三日依西域法焚之，獲舍利數千粒，其色紅翠。十三年，弟子戒休齋舍利，述行狀，詣闕請諡。奉勅褒誄，易名曰心鑑，塔曰壽相。奘在洛下長壽寺謂眾曰：「昔四明天童山僧曇粹是吾前生也，有墳塔存焉。」相去遼遠，人有疑者，及追驗事實，皆如其言。初任生將迎奘，人或難之。對曰：「治宅之始，有異僧令大其門，二十年之後，當有聖者居之。」比奘至止，果二十年矣。又奘將離姑蘇，為徒眾留擁，乃以櫻拂與之曰：「吾在此矣，汝何疑焉？」暨乎潛行，眾方諭其深旨。又令寺之西北隅可為五百墩以鎮之。或曰：「力何可致？」奘曰：「不然，作一墩植五株柏，可也。」凡微言奧旨，皆此類也。刺史崔琪撰塔碑，金華縣尉邵朗題額焉。

唐真定府臨濟院義玄傳

釋義玄，俗姓邢，曹州南華人也。參學諸方，不憚艱苦。因見黃檗山運禪師，鳴啄同時，了然通徹。乃北歸鄉土，俯徇趙人之請，住于城南臨濟焉。罷唱經論之徒，皆親堂室，示人心要，頗與德山相類。以咸通七年丙戌歲四月十日示滅。勅諡慧照大師，塔號澄虛。言教頗行于世，今恒陽號臨濟禪宗焉。

唐洛京廣愛寺從諫傳(鑿宗)

釋從諫，姓張氏，本南陽人也，徙居廣陵，生于淮甸焉。為性倜儻，器宇崇峙，於閭里間，為時畏服。遇相工曰：「子身長八尺，眉目秀朗，他日必荷榮寄。」諫曰：「心不願仕，於榮寄何有？」相工曰：「所寄荷不可測也。」越壯室之年，忽深信佛理，遂捨妻孥，求僧披剃焉。甫登戒地，頗護心珠，因悟禪那，頓了玄理。方數十載，同好之者自遠而來請問。諫一一指訂，俾其開覺。尋遊洛下廣愛寺挂錫。時禪客鱗集，如孝子之事父母焉。洛中有請諫設食，必排位對賓頭盧尊者，其為人之欽奉皆此類矣。屬會昌五年詔廢佛塔廟，令沙門復桑梓，亦例澄汰。乃烏帽麻衣，潛于皇甫氏之溫泉別業。後岡上喬木駢鬱，巨石砥平，諫於夏中常就此入定，或補毳事。忽遇頽雲駛雨，霆電擊石，烈風兼至，凡在此者驚奔恐懼。諫唯欣然加趺而坐，若無所聞者。或問諫，曰：「惡畜生何爾！」大中初，宣皇詔興釋氏，諫還歸洛邑舊居。其子一日自廣陵

來觀，適與諫遇於院門，威貌嚴莊，不復可識。乃問曰：「從諫大德所居？」諫指之東南可尋。其子既去，遂闔門不出，其割裂愛網又若此也。咸通七年丙戌歲夏五月，忽出詣檀越家辭別曰：「善建福業，貧道秋初當遠行，故相聞耳。」至秋七月朔旦，旦盥手焚香，念慈氏如來已，右脇而臥，呼門人玄章，誡之曰：「人身難得而易失，急急，於物無心，無為流轉，無生滅法，一切現存。今乃生也有涯，暫與爾別。」是日無疾而化，行年八十餘矣。玄章等奉遺旨，送屍于建春門外尸陀林中，施諸鳥獸。三日復視之，肌貌如生，一無近者。遂以餅餌覆之，經宿有狐狼迹，唯啖所覆，身且儼如。乃議用外國法焚之，收合餘燼，起白塔于道傍。人尤歸信，香火不絕焉。次有杭州徑山院釋鑒宗，湖州長城人也。姓錢氏，即禮部侍郎徽之孫。父晟有疾，宗割股肉饋啖之，給云「他畜之肉」。未幾病間，孝譽聞于親里，乃求出家。時州開元寺有上都臨壇十望大德內供奉高閑，閑善草、隸，嘗對懿宗御前書，甚高華望，宗誓禮為師。後出學，涉通《淨名》、《思益經》，遂常講習。閑公亦示其筆法，漸得鳳毛焉。條往謁鹽官悟空大師，隨眾參請，頓徹心源。却復故鄉，勸人營福。咸通三年辛巳，巡歷名山，遂止天目東峯徑山焉。道俗歸心，恢揚法教。出弟子尤者天童山咸啟、勅賜紫衣背山行真、大慈山行滿，皆分枝化物，至七年丙戌閏三月五日示滅。遷塔于大寂巖下。梁乾化五年，吳越國王尚父錢氏表請追諡大師曰無上，祖門傳號為徑山第二祖。時吳興沈修者自號白牙先生，述德為讚記焉。

唐洪州洞山良价傳

釋良价，俗姓俞氏，會稽諸暨人也。少孺從師于五洩山寺。年至二十一，方往嵩山具戒焉。登即遊方，見南泉禪師，深領玄契。續造雲巖，疑滯頓寢。大中末，於新豐山大行禪法。後盛化豫章高安洞山，今筠州也。价以咸通十年己丑三月朔旦，命剃髮披衣，令鳴鐘，奄然而往。時弟子輩悲號，价忽開目而起曰：「夫出家之人心不依物，是真修行。勞生息死，於悲何有？淪喪於情，太麁著乎？」召主事僧令營齋：「齋畢，吾其逝矣！」然眾心戀慕，從延其日。至於七辰，食具方備，价亦隨齋，謂眾曰：「此齋名愚癡也。」蓋責其無般若歟。及僧唱隨意，曰：「僧家勿事太率，臨行之際，喧動如斯。」至八日浴訖，端坐而絕，春秋六十三，法臘四十二。勅諡禪師曰悟本，塔號慧覺矣。系曰：其却留累日，古亦有之。如价之來去自由者，近世一人而已。

唐蘇州藏廩傳

釋藏廩，俗姓程，衢州信安人也。幼歲神氣朗暢，貌質魁然。元和中告親求出家，志不可却，直造長沙嶽麓，投靈智律師請事剃染。智師察其強願不群，乃攝度之。既披法服，尋於武陵開元寺智總律師受具足尸羅，當長慶三年也。因聽律範，旋窮篇聚，語同業曰：「教門繁廣，然有總門。總門之急，勿過捨筏。」遂遍參禪宗，遇馬素門下高足住龍牙山，知廩法器，異日告之曰：「蘊界不真，佛生非我。子之正本，當何所名？復從誰得？」廩一言領會，千轍同歸。龍牙曰：「我法眼不蒙掩矣。」既遂所求，大得安靜，却迴柯山，蓋避會昌之搜揚也。至大中六年，郡牧崔公壽重之，於州龍興寺別構禪室，延居之。數年，北至嘉禾，信士歸依，請留住至德伽藍。又往姑蘇，時崔公鈞作守此郡，聞廩名久，請居南禪院。咸通八年，浙西廉使周公寶命住招隱寺。其年秋，却返嘉禾，信士呂京捨別墅造今永安院。時乾符中，群寇紛紜，禪侶分散。廩曰：「盜終不至此。」及期，寇從別道行，果無所損，其先見如此。五年十月十二日，滿院陰雲，雉鳴烏噪，安坐而化，弟子號哭，却穌，至六年三月中辰前別眾後終，享年八十二，僧臘五十六。時澹交為廩作真讚。至乾寧中，僧神贊進狀，乞追諡號塔名。名士吳重裕書碑。

唐福州怡山院大安傳

釋大安，姓陳氏，閩城人也。幼年入道，頓拂塵蒙。元和十二年，勅建州浦城縣乾元寺置兜率壇，始全戒足。時天雨桂子及地生朱草，刺史元錫手疏其瑞，上達冕旒，遂迴御札，詔改鳳棲寺號靈感壇焉。安因往洪井，路出上元，忽逢一老父曰：「子往南昌，必有所得。」及咨參律學，夜聞二僧談論，遽了三乘之旨，乃以所習付之同人。之臨川，見石鞏山慧藏禪師。藏之提唱，必持弓弩以擬學人。安膜拜未興，唱曰：「看箭。」安神色不撓，答對不差。石鞏乃投弩曰：「幾年射，始中半人也矣。」安遊五臺，入龍池沐浴，雖久寢漣漪，殊無奮暴雨雹之怪，觀者驚悚。後止瀉山，禮大圓禪師，復證前聞而為量果也。時豫章廉使贈太尉崔貞孝公，則魏公之季父，深契玄機，敦安之道，飛疏召之，厥譽愈昌。咸通十四年，詔宜號延聖大師，賜紫袈裟一副。中和二年示疾，所止法堂巨梁中折。三年癸卯十月二十二日，坐化于怡山丈室，春秋九十一，臘六十七。續詔贈圓智大師，塔號證真。安不嘗唾地，不處溫房，隨化而衣，天雨而浴。諮法弟子慧長入關，揚安之德，故有追諡也。博

陵司空相國仰慕前烈，遂著文頌德。詩人周朴篤重安，時入山致禮焉。

唐長沙石霜山慶諸傳(洪謹令達)

釋慶諸，俗姓陳，廬陵新淦玉笥鄉人也。乃祖厥考，咸不為吏，清言放蕩焉。諸始十三，禮紹鑾禪翁為師，於洪井西山剃髮。二十三，往嵩山受具戒，便就東洛學毘柰耶。既知聽制，終謁漸宗，迴抵南嶽，入大瀉山。次屆雲巖，遇道吾，垂問知意，方為二夏之僧。得石霜山，便議終焉之志。道吾躬至石霜山，日勤執侍，往還問答，語在別錄。諸貌古氣真，世無能識。時洞山新滅，俄為遠方禪侶圍遶，因入深山無人之境，結茅宴坐。時眾追尋，條有見者，皆號哭交請「出為吾曹。諸將安往？」由是晨夕被遊學者扣擊，可無希聲以應之乎？如是二十年間，堂中老宿，長坐不臥，屹若榴杙，天下謂之「石霜枯木眾」是也。南方謂之叢林者，翻禪那為功德叢林也，為四方清則者無出其右。以光啟四年戊申歲二月己亥示疾，終于山院，享齡八十二，僧臘五十九。越三月十五日葬于寺西北隅二百許步，門弟子等結墳塔作螺髻形。夏四月一日廣化寺釋子處訥追慕往德，恐遺美聲，命南嶽玄泰纂錄言行。諸方弟子分行其道焉。勅諡普會大師，塔曰法相。次餘杭徑山院釋洪謹，俗姓吳，吳興人也。年纔十九，於開元寺禮無上大師出家落飾，精加佛事，罔怠巾餅。二十二，遣往嵩嶽會善寺受滿足律儀，俾誦《大比丘戒》，匝七日念終，遂習毘尼。尋傳經講，自謂為僧有逸群事業，而歸禮本師，曰：「汝於十二時中，將何報答四恩三有？」謹聞斯詰，憮然失措，三日忘食。本師却招誘提耳，方明本事。如是往還雲嶽，次瀉山，各為切磋，蔚成匠手。俄而會昌中例遭黜退，眾人悲泣者，惋歎者，謹晏如也。曰：「大丈夫鍾此厄會，豈非命也夫？何作兒女之情乎？」時於長沙遇信士羅晏，召居家供施。蓋謹執白衣比丘法，初無差失，涉于二載，若門賓焉。大中初，除滅法之律，乃復厥儀，還故鄉西峯院。至咸通六年，上徑山覲本師。明年，無上大師遷神，眾請謹嗣其法位。始唯百許僧，後盈千數。于時四眾共居，肅然無過。僖宗皇帝賜院額曰乾符鎮國。中和三年，仍賜紫袈裟。景福二年，吳越國王尚父錢氏奏舉登賜法濟大師。光化四年九月二十八日，辭眾而卒。霅溪戚長史寫貌，武肅王為真讚，傳法弟子廬山栖賢寺寂公、臨川義直、功臣院令達。達於兩浙大行道化，卒諡歸寂大師焉。初，謹有先見之明。武肅王家居石鑑山，及就戍應募為軍，謹一見握手，屏左右而謂之曰：「好自愛。他日貴極，當與佛法為主。」後累立戰功，為杭牧，故奏署謹師

號，見必拜跪，檀施豐厚，異於常數。終時執喪禮，念微時之言矣。

唐洪州雲居山道膺傳

釋道膺，姓王氏，薊門玉田人也。生而特異，神彩朗然。處于童卯，崆峒稟氣。宿心拔俗，爭離火宅之門；拭目尋師，遂攝鍛金之子。師授經法，誦徹復求。年偶蹉跎二十五，方於范陽延壽寺受具足戒。乃令習聲聞律儀，膺歎曰：「大丈夫可為桎梏所拘邪！」由是擁線衲，振錫環，萃翠微山問道三載。宴居，忽覩二使者冠服頗異，勉膺曰：「胡弗南方參知識邪？」未幾，有僧自豫章至，盛稱洞上禪師言要。膺感動神機，遂專造焉。如是洞上垂接，復能領會。曾問曰：「我聞思大禪師向倭國為王，虛耶？實耶？」對曰：「若是思師，佛亦不作，況國王乎？」自爾洞上印許。初住三峯，後就雲居提唱。時唐之季，鍾氏據有洪井，傾委信誠。每一延請入州，則預潔甘子堂以禮之。乃表于昭宗，賜紫袈裟一副并師號焉，都不留意。所化之徒，寒暑相交，不下一千餘眾。牛頭香樹圍遶者皆是栴檀，金翅鳥王軒翔者不齊尺鷃；四方饋供，千里風從。如荆南帥成汭遣齋檀施，動盈鉅萬。以天復元年辛酉秋示疾，至明年正月三日而化焉。豫章南平王鍾氏供其喪葬。時諸道禪子各依鄉土所尚者，隨靈龕到處，列花樹帳幔，粉麪之饌，謂之卓祭。一期凶禮之盛，勿過于時也，猗歟！膺出世度人，滿足三十年，遺愛可知也。

唐縉雲連雲院有緣傳

釋有緣，俗姓馮，東川梓潼人也。小學之年往成都福感寺，事定蘭開士——即宣宗師矣。隨侍出入，多在內中。一旦宣召，帝以筆書其衫背云：「此童子與朕有緣」，由茲召體矣。大中九年，遇白公敏中出鎮益部，開戒壇，即於淨眾寺具尸羅也。續於京輦聽習經律五臘。後身披布褐，手執墨勅，海內遊行。參見小馬神照，凡同時叢林禪祖無不禮謁者。乃居滁州華山，及南遊至武夷山，時廉使李誨為築禪室。乾符三年，至縉雲龍泉大賽山立院。因奏祠部給額，號龍安。勅度七僧，住十八載。安而能遷，止連雲院焉。太守盧約者，以諶諒之誠，請入州開元寺別院，四事供施焉。天祐丁卯歲四月八日，示疾，至六月朔日終于解署，報齡七十三，臘五十二。遺旨囑制置揚習司空主喪務，於寺南園茶毘。火滅，散分舍利數百

粒。後收四十九粒并遺骨一餅，瘞于石塔。晉開運三年乙巳歲，文泰律師撰塔碑焉。

唐福州雪峯廣福院義存傳

釋義存，長慶二年壬寅生于泉州南安縣曾氏。自王父而下，皆友僧親佛，清淨謹愿。存生而鼻逆葷血。乳抱中，或聞鐘磬，或見僧像，其容必動，以是別垂愛於膝下。九歲請出家，怒而未允。十二從家君遊蒲田玉澗寺，有律師慶玄，持行高潔。遽拜之曰：「我師也。」遂留為童侍焉。十七落髮。來謁芙蓉山恒照大師，見而奇之，故止其所。至宣宗中興釋氏，其道也涅而不緇，其身也褻然而出。北遊吳、楚、梁、宋、燕、秦，受具足戒於幽州寶剎寺訖，巡名山，扣諸禪宗，突兀飄飄，雲翔鳥逝。爰及武陵，一面德山，止於珍重而出。其徒數百，咸莫測之。德山曰：「斯無階也，吾得之矣。」咸通九年，歸于芙蓉之故山。其年，圓智大師亦自滄山擁徒至于怡山王真君上昇之地。其徒孰(就師已嗣德山)繫繫而款關，存拒而久之。則有行實者，始以存同而議曰：「我之道魏魏乎，法門圍遶之所，不可造次，其地宜若布金之形勝可矣。府之西二百里有山焉，環控四邑，峭拔萬仞，嵒峯以支圓碧，培塿以覘群青。怪石古松，棲蟄龜鶴，靈湫邃壑，隱見龍雷。山之巔，先冬而雪，盛夏而寒。其樹皆別垂藤蘿，茸茸而以為之衣，交錯而不呈其形，奇姿異景，不可殫狀。雖霍童、武夷，無以加之。實閩越之神秀，而古仙之未攸居，誠有待於我也。祈以偕行去。」秋七月，穿雲躡躡，陟險昇幽，將及之，存曰：「真吾居也」。其夕山之神果効靈，翌日巖谷爽朗，煙霞飛動。雲庵既立，月構旋隆，繇是柅法輪於無為，樹空門於有地。行實乃請名其山，曰雪峯。以其冬雪夏寒，取鷲嶺、猴江之義，斯則庚寅。逮于乙未，存以山而道任，山以存而名出，天下之釋子，不計華夏，趨之若召。乾符中，觀察使京兆韋公、中和中司空潁川陳公，每渴醜翻而不克就飲，交使馳懇，存為之入府，從人願也。其時內官有復命于京，語其道其儕之拔俗悟空者，請蛻浮華而來脫屣。僖宗皇帝聞之，翰林學士訪於閩人陳延効，得其實奏。於是乃錫真覺大師之號，仍以紫袈裟俾延効授焉。存受之如不受，衣之如不衣。居累夏，辛亥歲朔，遽然杖履。其徒啟而不答，雲以隨之，東浮于丹丘、四明。明年，屬王侍中之始據閩越，乃洗兵於法雨，致禮於禪林，馥存之道，常東望頂手。後二年自吳還閩，大加禮異。及閩王王氏誓眾養民之外，雅隆其道，凡齋僧構剎，必請問焉。為之增宇、設像、鑄鐘以嚴其山，優施以充其眾。時則迎而館之于府之東西甲第。每將儼油幢、聆法論，未嘗

不移時。僅乎一紀，勤勤懇懇，熊羆之士，因之投跡檀那；漁獵之逸，其或弭心鱗羽。戊辰年春三月示疾，閩王走醫，醫至粒藥以授，存曰：「吾非疾也，不可罔子之工。」卒不餌之。其後札偈以遺法子，函翰以別王庭。夏五月二日，鳥獸悲鳴，雲木慘悴。其夜十有八刻時滅度，俗壽八十有七，僧臘五十有九。以其月十五日塔而藏之。爾日奔走，閩之僧尼士庶，巷無居人。閩王漣如出涕，且曰：「師其捨予，一何遽乎！」遣子延稟躬祭奠之，復齋僧焉。存之行化四十餘年，四方之僧爭趨法席者不可勝算矣，冬夏不減一千五百徒之環足其趨也。馳而愈離，辯而愈惑。其庶幾者，一曰師備，擁徒于玄沙(今安國也)；次曰可休，擁徒于越州洞巖；次曰智孚，擁徒于信州鵝湖；其四曰惠稜，擁徒于泉州招慶；其五曰神晏，住福州之鼓山。分燈化物，皆膺聖獎，賜紫袈裟，而玄沙級宗一大師焉。

系曰：雪峯道也恢廓乎！駿奔四海學人。所出門生形色不類，何邪？玄沙乘《楞嚴》而入道，識見天殊，其猶諺曰「青成藍，藍謝青，師何常，在明經。」故有過師之說。一則雪峯自述，塔銘已盡其致也。一則玄沙安立三句，決擇群見，極成洞過歟！今江表多尚斯學，此學虛通，無繫了達，逍遙勿拘，知「乘急」也。雪峯化眾，切乎杜默禪坐，知「戒急」也。其能各捨一緩，以成一全，則可乎！

唐朗州蘇溪元安傳

釋元安，俗姓淡，鳳翔麟遊人也。卯年於岐陽懷恩寺從兄祐律師出家。唯經與論，無不窮該。乃問道翠微，次臨濟，各飡法味，若飫香積之盂也。斲彫復朴，逍遙自如。聞夾山道盛德至，造澧陽當稽問轆轤，又增明淨。後開樂普山，尋居蘇溪，答訓請益，多偶句華美，為四海傳焉。以昭宗光化元年戊午十二月遷滅，享壽六十五，法臘四十六矣。臨終告眾，頗多警策辭句云。

唐明州雪竇院恒通傳(招賢岑師)

釋恒通，俗姓李，邢州平恩人也。家傳士族，幼而知學。蘇秦顯達，猶懷二頃之田；元亮孤高，不羨五斗之祿。縱越揆天擲地，拖紫腰金，瞬息浮華，豈裨來業？父母終禮，年甫十三，潛入鵝山訪道依師。既罷丘墳，唯披釋典，精虔懺誦，懇侍巾瓶，不弭初終，蒙恩剃度。年二十，於本州開元寺具戒。後往京兆薦福寺聽習經律。七八年間，尋窮藏教，乃曰：「摩騰入漢，譯著斯文。聖胄來

梁，復明何事？」因辭北闕，逕詣南方，遇招賢岑大師。大師問曰：「何處人也？」曰：「邢州人也。」招賢曰：「我道不從彼來。」通曰：「和尚還住此無？」於是有滯皆伸，無疑不決。後指洞山、石霜，皆往參焉。招賢示滅，通以弟子禮事之。咸通末，遊宣城，尚書崔瓌素奉禪門，攀迎莊肅，覩通儀表拔俗，問答往還，崔甚悅服。於謝仙山奏置禪院，號瑞聖，請以居之。四方毳衲之徒，不邀自聚。博陵方議奏薦師號，堅讓遂寢。中和末，文德初，群寇兢起。通領徒至四明。大順二年，郡牧黃君晟請留居雪竇焉，蔚然盛化。天祐二年七月示疾，越九日躬入浴室，却坐繩床，集眾焚香，勤勤付囑，合掌而逝。春秋七十二，夏臘五十二。以其年八月七日遷石塔于院之西南二百餘步。或曰：「通臨終言：『我龐勛也』。」此非也。高僧無作為《行錄》而無此說。若觀年臘，龐勛豈正弱冠來逃難邪？

唐袁州仰山慧寂傳

釋慧寂，俗姓葉，韶州潁昌人也。登年十五，懇請出家，父母都不聽允止。十七再求堂親，猶豫未決。其夜有白光二道從曹溪發來，直貫其舍。時父母乃悟是子至誠之所感也。寂乃斷左無名指及小指，器藉跪致堂階曰：「答謝劬勞如此！」父母知其不可留，捨之，依南華寺通禪師下削染。年及十八，尚為息慈。營持道具，行尋知識。先見耽源，數年，良有所得。後參大滄山禪師，提誘哀之。棲泊十四五載，而足跛，時號跛脚驅烏。凡於商擢，多示其相。時韋宙就寂請伽陀，乃將紙畫規圓相，圓圍下注云：「思而知之，落第二頭。云不思而知，落第三首。」乃封呈達。自爾有若干勢以示學人，謂之仰山門風也。海眾摳衣得道者，不可勝計。往往有神異之者，倏來忽去，人皆不測。後勅追諡「大師」，曰智通，塔號妙光矣。今傳《仰山法示成圖相》，行于代也。

唐天台紫凝山慧恭傳

釋慧恭，俗姓羅氏，福州閩人也。家傳儒素，不交非類。母妊之初，夢所居湧出浮圖，上參于天。迨恭誕生，嶷然聰悟。年十七，舉進士，名隨計車。將到京闕，因遊終南山奉日寺，目祖師遺像，釋然世網，遂求出家。操執僧事，備歷艱辛。二十有二，適值新創安國寺受具足戒。尋乃遊方，緣嶮涉荒，而無難色。嘗遇黑蛇傷指，不求醫而毒螫自銷。見魑魅占山，諭罪福而妖物湮息。至武陵德山，詣宣鑒禪師，領會風飛，由茲道合。因挂錫，施門人禮。鑒

公順世後，遊玉山。至信州，刺史營西禪院而禮之，其徒數百人。居歲餘，以郭郭喧繁，復入福州長溪馬冠山。自馬冠抵泉州富陽山，所至之所，檀施臻集，徒侶解鉢，禪坊立就，其為士庶嚮奉如此。景福三年，與門人遊天台，州牧京兆杜雄留之而止。杜因創瑞龍院於紫凝山，祈恭興揚法席，以悟淪迷。緇俗雲馳，香花山積。天復三年癸亥十二月午時，命眾聲鐘，顧瞻左右，促言云去。加跌瞑目，儼然而化，春秋八十四，僧夏六十二。闡圓頓之宗，居道德之最，歿無易名，塔無題榜，足見浮名為桎梏耳。門人上足師遂植松負土，力崇塔廟，所謂法空不壞因緣矣。因緣有之，孝行曷傷于道云。

唐杭州龍泉院文喜傳

釋文喜，姓朱氏，嘉禾禦兒人也。母氏方娠，夢吞桃三蒂，至誕彌不味葷羶。七歲，詣本邑常樂寺僧清國下出家，國即喜之渭陽也。勒誦經并懺文十卷，方遂削染。往越州開元寺學《法華經》，集《天台文句》，即時敷演，則救蠹分中便能講訓也。開成二年屆趙郡，受近圓，登習《四分律》。屬會昌澄汰，變素服，內祕之心無改。遇大中初年例重懺度，於鹽官齊豐寺講說。後往禮大慈山性空禪師，誨之曰：「子何不學善財遍參乎？」咸通壬午歲至豫章觀音院，見仰山，喜於言下了其心契。仰山令典常住。一日有異貌僧就求齋食，喜減己食饋之。仰山預知，故問曰：「此果位僧求食，汝供給周旋否？」答曰：「輟己分迴施。」曰：「汝大得利益。」七年，旋浙右，止千頃山，築室居之。十年，餘杭劉嚴合、馬徵請居龍泉古城院，凡十一年。乾符己亥歲，巢寇掠地至餘杭，喜避地湖州餘不亭，刺史杜孺休請住仁王院。光啟三年，武肅王錢氏始牧杭郡，降疏請住龍泉廨署，今慈光院是也。大順元年，威勝軍節使董昌、武肅王同年發表薦論，兩賜紫衣。乾寧四年奏師號，曰無著。光化三年示疾，十月二十七日加趺坐而終于州郭廨署，春秋八十，僧夏六十。終時方丈上發白色光，竹樹變白。十一月二十二日，遷塔于靈隱山西塢。喜形貌古朴，骨強而瘦，戒德禪門真知識也。初，喜寓居霅川。廣明元年夏，有蝗飛翳天，下食田苗。喜自將拄杖懸挂袈裟，標于畎澮中。其蟲將下，遂厲聲叱之，悉翻飛而去。十頃之苗斯年獨稔，其感通如此。或云所傳得馬祖細衲袈裟以為信寶矣。遷葬之後，天復二年壬戌八月中，宣城帥田頔應杭將許思叛渙，縱兵大掠。發喜塔，見肉身不壞，如入禪定，髮爪俱長。武肅王奇之，遣裨將邵志祭後，重封瘞焉。

唐明州伏龍山惟靖傳

釋惟靖，吳門人也。年三十許，形奇貌古，且類憨癡，入國寧寺，巡僧房唱曰：「要人出家請留下。」至經藏院，見二眾闍黎大德慧政，便跪拜伸誠，願容執侍。政公允納，與翦飾。於天台受具，暫歸謝政，便尋訪名山。有知識處，必經寒燠。自爾勤於禪法，未嘗發言，即居定光禪師廢金地道場。侵星赴禪林寺晨粥，而多虎豹，隨到寺門，虎踞地若伺候。靖出，復隨至金地。遲明，巨迹極多。靖恐人知，以鋤滅虎跡。俄患背疽，困睡，有鳩鳥糞于瘡所，非久全愈。又虞冰雪，備粳粒半斗，每日以銚合菜煮食，寘粳於地窖中。過期，用米常滿不耗。靖乃築之而云：「吾被此物知，非理也。」尋居伏龍山，山可瞰海，峯勢岩嶢，昔僧鑿諸曾隱于是。諸即唐王相國之母弟也，能文習道，刺史多往謁之。靖續遁此山，刺史黃晟常請出州，供施繁委。末於奉川北山置院示疾坐終，享齡七十餘。窆于山下，瑩塔存焉。

宋高僧傳卷第十二

宋左街天壽寺通慧大師賜紫沙門贊寧等奉 勅撰

習禪篇第三之六(正傳十七人附見六人)唐今東京封禪寺圓紹

傳

釋圓紹，姓孫氏，其先富陽人也，祖官于南燕，因為滑臺白馬人焉。年及識環，天然俊邁。隣兒戲玩，我且恬然；群從追隨，我惟閑靜。年當十八，方遂志出家，師事明福寺正覺禪師。覺見而異之，訓諸徒弟，獨許紹耳，曰：「真空門之偉器也。」至年二十二，於相州義檀香燈律師邊受具。登即尋師訪道，效祖參玄，二翼之餘，一盂之外，必無他物。唯誓禪宗立雪傳衣，是其素望也。至于三湘、五嶺、二蜀、兩京，凡曰叢林，一皆參禮。既探至蹟，頓了心機，乃挂錫於夷門，即倉垣水南寺，今為開寶也。大中十年，適遇唐相國裴公休罷調商鼎，來鎮魏郊。同氣相求，一言道合，即命居今東上方院也。紹將聚禪徒，患其迫窄，遂開上院之西，損上益下。時檀施臻萃，**修**成巨院，擁納之流，數盈二百，橫跨夷門山之峻嶺焉。紹即七祖荷澤神會禪師五葉法孫也。演其無念，示以真心，了達磨之密傳，極南能之深趣。時參學之眾，擁從且繁。遇元帥相國王晉公鐸，以紹道行通感，神祇効靈，降甘露於玄穹，**滋**嘉瑞於青檜，奏僖宗賜院額曰雙林，師號曰法濟。別勅令度侍者七人。其間法會興盛，士庶歸心，僅四十載，所化人可萬計，僧尼弟子五百餘人。以乾寧二年乙卯七月四日謂眾曰：「急急自了去，本為逃生死。若不解玄旨，何時得脫？吾景逼崦嵫，此為最後之言也。」於方丈中寂然而化，俗壽八十五，法臘六十三。勅許於本院西南隅建塔焉。越五年二月二日重開塔，髮長半寸，儀貌如生。乃以香華供養七日，遠近瞻禮，稱歎希奇。已而行茶毘，火中迥出五色神光，收舍利百餘粒，**四**眾隨心淘選，近一千粒，溫潤玉潔，璨爛珠圓，驗五分之熏成，匪一生之構集。四眾虔仰，復迎入塔，即昭宗皇帝戊午歲也。睢陽相國袁象先理于浚郊。弟子惠靄等冀終法乳，列狀乞舉行諡禮，梁乾化三年癸酉，太祖勅易名曰定覺，塔曰靈化。至貞明四年九月，惠靄等欲旌表師德立碑，勅允，開封尹王公瓚之文也。

唐蘄州黃崗山法普傳(休靜)

釋法普，姓潘氏，廬江人也。貌古情寬，擁敗納觀方。元和中，因見黃崗山色奇秀，其峯巖嶂，其林鬱密，中有石壇，平坦而高峙。乃放囊挂錫，于中班荆。久之，尋附樹架蓬茨，僅容身而已。未幾，有人自小徑而至，見普驚怪，問云：「何緣至此？」曰：「某本行山麓，見巔頂騰漲紫氣，盤紆可愛，意此山有尤物，故來耳。」諦視普，遲迴而去。山下行者聞而尋焉。禪學之徒，不數年遽盈百數。普却之曰：「老僧獨居，無物利人，君等亦無所乏。」由是星居之庵多矣。弟子廣嚴等構成大院，禪客翕如，傳其法者無算。一日，集眾辭云：「吾其終矣。汝曹善住珍惜！」加趺坐胡床而卒。其身不壞散，後以香泥塗續之。至乾符中，重立碑頌云。次洛京華嚴寺釋休靜，不知何許人也。屬洞山禪道風行，靜往造之，抉擿所疑，若雷復于本位焉。北返於洛邑，開演。因赴內齋，諸名公皆執經諷讀，唯靜并其徒俱默坐。帝宣問：「胡不轉經？」訓答響應，仍皆屬對，悅可帝情。尋迴平陽示滅。收舍利，四處樹浮圖。勅諡寶智大師，塔號無為也。

梁鄧州香巖山智閑傳(大同)

釋智閑，青州人也。身裁七尺，博聞強記，有幹略。親黨觀其所以，謂之曰：「汝加力學，則他後成佐時之良器也。」俄爾，辭親出俗。既而慕法心堅，至南方禮為山大圓禪師盛會，咸推閑為俊敏。為山一日召對，茫然。將諸方語要一時煨燼，曰：「畫餅弗可充飢也。」便望南陽忠國師遺跡而居。偶芟除草木，擊瓦礫，失笑，冥有所證，抒頌唱之，由茲盛化。終後，勅諡襲燈大師，塔號延福焉。次舒州桐城投子山釋大同，姓劉氏，舒州懷寧人也。幼性剛正，有老成氣度。因投洛下保唐滿禪師出俗，初習安般觀，業垂成，遂求《華嚴》性海。復負錫謁翠微山法會，同伏牛元通激發請益，大明祖意。由是放蕩周遊，還歸故土，隱投子山，結茅茨，棲泊以求其志。中和中，巢寇蕩覆京畿，天下悖亂。有賊徒持刃問同曰：「住此何為？」對以佛法。魁渠聞而膜拜，脫身服裝而施之，下山。以梁乾化四年甲戌四月六日，加趺坐亡，春秋九十六，法臘四十六。凡居化此山三十餘載云。

梁撫州疎山光仁傳(本仁居遁)

釋光仁，不知何許人也。其形矧而么麼，幼則氣槩凌物，精爽殆與常不同。早參洞山，深入玄奧，其辯給又多於人也。嘗問香巖禪師，答微有偏負。曰：「某累繭重眠而至，得無勞乎？」唾地而

去。後居臨川疎山，毳客趨請，頗有言辭，著《四大等頌略》、《華嚴長者論》，行于世。終入龕中，已有白鹿至靈前屈膝而起，時眾謂為作弔焉。次筠州白水院釋本仁，不知何許人也。得心於洞山法席。仁罕談道，而四方之人若影之附形，却之還至。乃徇丹陽人請，住無幾時。天復中，至洪井高安白水院聚徒。垂欲入滅，先觸處告違，乃集眾焚香曰：「至香煙盡處，是某涅槃時。」如其言，端坐而化。次龍牙山釋居遁，姓郭氏，臨川南城人也。年殆十四，警世無常而守恬淡。白親往求出家于廬陵滿田寺。於嵩山受具戒已，思其擇木，乃參翠微禪會，迷復未歸，莫知投詣。聞洞上言玄格峻，而躬造之。遁少進問曰：「何謂祖意？」答曰：「若洞水逆流，即當為說。」而於言下體解玄微。隱眾栖息，七八年間孜孜戡曜，時不我知，久則通矣。天策府楚王馬氏素藉芳音，奉之若孝悌之門稟昆長矣。乃請居龍牙山妙濟禪院，僦僦徒侶常聚半千。爰奏舉，詔賜紫袈裟并師號證空焉，則梁貞明初也。方嶽之下，號為「禪窟」，闖其室、得其門者亦相繼矣。至龍德三年癸未歲八月遭疾彌留，九月十三日歸寂。遁出世近四十餘齡，語詳別錄。

梁福州玄沙院師備傳

釋師備，俗姓謝，閩人也。少而憨黠，酷好垂釣，往往泛小艇南臺江自娛。其舟若虛，同類不我測也。一日，忽發出塵意，投釣棄舟，上芙蓉山出家，咸通初年也。後於豫章開元寺具戒。還歸故里，山門力役，無不率先。布衲添麻，芒屨續草，減食而食，語默有常，人咸畏之，汪汪大度，雖研、桑巧計不能量也。備同學法兄，則雪峯存師也，一再相逢，存多許與，故目之為「備頭陀」焉。有日，謔之曰：「頭陀何不遍參去？」備對曰：「達磨不來東土，二祖不往西天。」存深器重之。先開荒雪峯，備多率力。王氏始有閩土，奏賜紫衣，號宗一大師。以開平二年戊辰十一月二十七日示疾而終，春秋七十四，僧臘四十四。閩越忠懿王王氏樹塔。備三十年演化，禪侶七百許人，得其法者眾，推桂琛為神足矣。至今浙之左右山門盛傳此宗，法嗣繁衍矣。其於建立透過大乘初門。江表學人無不乘風偃草歟。

梁河中府棲巖山存壽傳

釋存壽，不知何許人也。清標勝範，造次奚及。罷尋經論，勇冠輩流。往問律於石霜禪師，決了前疑。虛舟不繫，乃為枯木眾之樞杌矣。後還蒲坂，緇素歸心。時冀王友謙受封屏翰，好奇徇異，聞人

一善，厚禮下之。王召入府齋，論道談玄，不覺膝之前席，頗增奉仰，續為菩薩戒師，供施便蕃。度門人四百許員，尼眾百數。壽平日罕言，言必利物。喜慍之色，人未嘗見，望之若孤松凌雪焉。終時春秋九十三，加趺而坐，一月後髭髮再生，重剃入塔。塔之亭，每有虎旋遶，[夙-歹+厶]跡時繁。勅謚為真寂大師焉。

梁台州瑞巖院師彥傳

釋師彥，姓許氏，閩越人也。早悟羈縻，忽求拔俗，循乎戒檢，俄欲觀方。見巖頭禪師，領會無疑。初樂杜默，似不能言者。後為所知敦喻，允請住台州瑞巖山院。時道忞往參問，答對響捷，忞公神伏。後二眾同居，彥之威德，凜若嚴霜。糾正僧尼，無容舛悞，故江表言御眾翦齊者，瑞巖為最。嘗有三僧，胡形清峭，目睛轉若流電焉，差肩並足致禮。彥問曰：「子從何來？」曰：「天竺來。」「何時發？」曰：「朝行適至。」彥曰：「得無勞乎？」曰：「為法忘勞。」乃諦視之，足皆不蹈地。彥令入堂，上位安置，明旦忽焉不見，云是辟支迦果人，然莫知階級。時有不測人入法會，非止一過。彥參學時號為小彥長老。兩浙武肅王錢氏累召，方肯來儀，終苦辭去。寺倉常滿。嘗有村媪來參禮，彥曰：「汝休拜跪，不如疾歸家，救取數十百物命，大有利益。」媪忿忙到舍，兒婦提竹器拾田螺正歸。媪接取，放諸水漬。又數家召齋，一一同日見彥來食。至終闍維，有巨蛇緣樹杪投身火聚，當乎薪盡，舍利散飛，或風動，草木上紛紛而墜。神異絕繁，具如別錄。

梁撫州曹山本寂傳

釋本寂，姓黃氏，泉州蒲田人也。其邑唐季多衣冠士子僑寓，儒風振起，號小稷下焉。寂少染魯風，率多強學，自爾淳粹獨凝，道性天發。年惟十九，二親始聽出家。入福州靈石山。年二十五，登于戒足，凡諸舉措，若老苾芻。咸通之初，禪宗興盛，風起於大滄也，至如石頭、藥山其名寢頓。會洞山憫物，高其石頭，往來請益，學同洙泗。寂處眾如愚，發言若訥。後被請住臨川曹山，參問之者堂盈室滿。其所訓對，激射匪停，特為毳客標準，故排五位以銓量區域，無不盡其分齊也。復注《對寒山子詩》，流行寓內，蓋以寂素修舉業之優也，文辭適麗，號富有法才焉。尋示疾，終于山，春秋六十二，僧臘三十七。弟子奉龕窆而樹塔。後南嶽玄泰著塔銘云。

後唐漳州羅漢院桂琛傳

釋桂琛，俗姓李氏，常山人也。甫作童兒，篤求遠俗，齋茹一餐，調息終日。秉心唯確，鄉黨所欽。二親愛縛而莫辭，群從情纏而難脫。既冠，繼踰城之武，求師得解虎之儔，乃事本府萬歲寺無相大師矣。初登戒地，例學毘尼，為眾升臺宣戒本畢，將知志大安拘之於小道乎？乃自誨曰：「持犯束身，非解脫也。依文作解，豈發聖乎？」於是誓訪南宗，程僅萬里。初謁雲居，後詣雪峯、玄沙兩會，參訊勤恪。良以嗣緣有在，得旨於宗一大師，明暗色空，廓然無惑。密行累載，處眾韜藏。雖夜光所潛，而寶器終異，遂為故漳牧太原王公誠請於閩城西石山建蓮宮而止。駐錫一紀有半，來往二百眾。琛以祕重妙法，罔輕示徒，有密學懇求者，時為開演。後龍溪為軍倅勤州太保瑯琊公志請於羅漢院為眾宣法，諱讓不獲，遂開方便。不數載，南北參徒喪疑而往者，不可殫數。有角立者，撫州曹山文益、江州東禪休復，咸傳琛旨，各為一方法眼，視其子則知其父矣。以天成三年戊子秋，復_屈閩城舊止，遍翫近城梵宇。已俄示疾數日，安坐告終，春秋六十有二，僧臘四十。遺戒勿遵俗禮而棺而墓。於是荼毘於城西院之東崗，收其舍利，建塔于院之西，稟遺教也，則清泰二年十二月望日也。琛得法密付授，耳時神晏大師，王氏所重，以言事脅令捨玄沙嗣雪峯，確乎不拔，終為晏讒而凌轡，惜哉！

後唐福州長慶院慧稜傳

釋慧稜，杭州海鹽人也，俗姓孫氏。初誕纏紫色胎衣。為童胤日，俊朗抗節，於吳苑通玄寺登戒。已聞南方有禪學，遂遊閩嶺，謁雪峯，提耳指訂，頓明本性。乃述偈云：「昔時謾向途中學，今日看來火裏冰。」如是親依，不下峯頂，計三十許載。冥循定業，謹攝矜莊。泉州刺史王延彬召稜住昭慶院，禪子委輸，唯虞後至。及於長樂府，居長慶院，二十餘年，出世不減一千五百眾。稜性地慈忍，不妄許人。能反三隅，方加印可。以長興三年壬辰五月十七日長往，春秋七十九，僧臘六十。閩國王氏私誅之「大師」，號超覺。塔葬皆出官供。判官林文盛為碑紀德云。

後唐杭州龍冊寺道怱傳

釋道怱，俗姓陳，永嘉人也。非總之年，性殊常準，而惡鯉血之氣。親黨強啖以枯魚，且虞嘔噦。求出家於開元寺。具戒已，遊閩

入楚，言參問善知識，要決了生死根源。見臨川曹山寂公，大有徵詰，若曇詢之問僧稠也。終頓息疑於雪峯，閩中謂之小忞布納——時太原同名，年臘之高故。暨迴浙，住越州鑑清院。時皮光業者，日休之子，辭學宏瞻，探蹟禪門，嘗深擊難焉。退而謂人曰：「忞公之道，崇論閎議，莫臻其極。」武肅王錢氏欽慕，命居天龍寺，私署順德大師。次文穆王錢氏創龍冊寺，請忞居之，吳越禪學自此而興。以天福丁酉歲八月示滅，春秋七十。荼毘于大慈山塢，收拾舍利，起塔於龍姥山前。故僧主彙征撰塔銘。今舍利院，弟子主之，香火相綴焉。

晉會稽清化院全付傳

釋全付，吳郡崑山人也。幼隨父商於豫章，聞禪寂之說，乃有厭世之志。白求出家，父愠形於色。愠止，復白者三，父異其誠，率略許之。遂詣江夏，投清平大師。問曰：「爾來何求？」付曰：「志求法也。」清平師憐其幼而抱器，撫以納之。夙興夜寐，殊於群童。及長，為之落飾，尋登戒度。奉師彌謹，檢身彌至，問法無厭餒，見性不齷齪，清平頷而許之。一旦，謂人曰：「吾聞學無常師，吾非匏瓜，豈繫于此而曠于彼乎？」遂辭師而抵宜春之仰山，禮南塔涌禪師。應對言語，深認仰山之勢，頓了直下之心。仰山驟然器重之。拳拳伏膺，棲神累載。後遊于廬陵，安福縣宰楊公建應國禪院，請付居之。禪徒子來，堂室晏滿。楊宰罷任，其鄉人復於鵠湖山建院，迎以居之。廉使上聞，錫名曰清化禪院，禪徒麇至，請問者牆進，皆不我屈，豈多讓于前輩乎？有同里僧謂付曰：「父母之鄉，胡可棄也？任緣徇世，願師歸歟！」遂別鵠湖而還故國。時吳越文穆王錢氏命升階，賜之衣衾鉢器，有加禮焉。丁酉歲，錢城戍將。闢雲峯山，建清化禪院，召以居之。次忠獻王錢氏遣使錫以紫袈裟，付上章累讓，再賜之，又讓之，遂改以納衣。付曰：「吾非榮其賜而飾讓也，恐後人之倣吾而逞欲矣。」尋賜號曰純一禪師，又固讓之。付不以情忘情，故情真；不以道求道，故道直。所居院之殿宇堂室，人競崇建之。鑄鐘千餘斤。新額曰雲峯清化禪院，雲水之侶輻湊，睽睽不欲捨旃。開運四年丁未歲秋七月示疾，謂眾曰：「生也法起，歿也法滅，起滅非言論所及也。」安然而逝，有大雨疾風，以震林木拔矣。享年六十六，臘四十有五。歸窆於山之北塢，弟子應清等十餘人奉師遺訓，不墜其道焉。僧主彙征為塔銘，建隆二年立。

晉永興永安院善靜傳(靈照)

釋善靜，俗姓王氏，長安金城人也。父朗，唐威州刺史。母李氏因夢聖容照爛金色，遂爾娠焉。及生岐嶷。殆乎知學，博通群言，因掌書奏于神策軍，中尉器重之。忽厭浮幻，潛詣終南豐德寺，禮廣度禪師，時年二十七也。泊乎削染受具，天復中南遊樂普，見元安禪裔，乃融心要。北還化徒于故里，結廬于終南雲居山，道俗歸之如市。又起遊峨嵋，禮普賢銀色世界。迴興元，連帥王公禮重留之，後還故鄉，已黍離矣。留守王公營永安禪院以居之。以開運丙午歲冬鳴椎集僧囑累，還方丈，東向，右脇而化，俗壽八十九，僧臘六十。黑白之眾若喪嚴親。明年正月八日，荼毘於城南，獲舍利數千粒。漢乾祐三年庚戌八月八日，遷塔于長安義陽鄉，石塔巋然。初，靜率多先覺，往遊禪道，避昭宗之蒙塵。又生平洗沐，舍利隕落，皆收，祕不許弟子示人。又嘗禪寂次，窗外無何有白鶴馴狎于庭，若有聽法之意。靜令人驅斥之。凡此殊徵，有而不有。晉昌軍府主郭公歸信焉，營構禪院，命以居之。翰林學士魚崇諒為塔銘述德焉。次杭州龍華寺釋靈照，本高麗國人也。重譯而來，學其祖法，入乎閩越，得心於雪峯。苦志參陪，以節儉勤于眾務，號照布納焉。千眾畏服，而言語似涉島夷。性介特，以恬淡自持。初住齊雲山，次居越州鑑清院。嘗祇對副使皮光業，語不相投，被舉擯徙龍興焉。及湖州太守錢公造報慈院請住，禪徒翕然。吳會間僧捨三衣披五納者，不可勝計。忠獻王錢氏造龍華寺，迎取金華梁傅翕大士靈骨道具，寘于此寺樹塔，命照住持焉。終于此寺，遷塔大慈山之峯。

周金陵清涼院文益傳

釋文益，姓魯氏，餘杭人也。年甫七齡，挺然出俗，削染于新定智通院，依全偉禪伯。弱年，得形俱無作法於越州開元寺。于時謝俗累以拂衣，出樊籠而矯翼。屬律匠希覺師盛化其徒于鄞山育王寺，甚得持犯之趣。又遊文雅之場，覺師許命為我門之游、夏也。尋則玄機一發，雜務俱捐。振錫南遊，止長慶禪師法會。已決疑滯，更約伴西出湖湘。爾日暴雨不進，暫望西院，寄度信宿，避溪漲之患耳，遂參宣法大師——曾住漳浦羅漢，閩人止呼羅漢。羅漢素知益在長慶穎脫，銳意接之，唱導之。由玄沙與雪峯血脈殊異，益疑山頓摧，正路斯得，欣欣然挂囊栖止，變塗迴軌，確乎不拔。尋遊方却抵臨川，邦伯命居崇壽。四遠之僧求益者，不減千計。江南國主李氏始祖知重，迎住報恩禪院，署號淨慧。厥後微言欲絕，大夢誰醒？既傳法而有歸，亦同凡而示滅，以周顯德五年戊午歲秋七月十七日有恙，國主紆于方丈問疾。閏月五日，剃髮澡身，與眾言別，

加趺而盡，顏貌如生，俗年七十四，臘五十五。私諡曰大法眼，塔號無相。俾城下僧寺具威儀禮迎引，奉全身於江寧縣丹陽鄉，起塔焉。益好為文筆，特慕支湯之體，時作偈頌真讚，別形纂錄。法嗣弟子天台德韶、慧明、漳州智依、鐘山道欽、潤州光逸、吉州文遂。江南後主為碑頌德，韓熙載撰塔銘云。

周廬山佛手巖行因傳(道潛)

釋行因，不詳姓氏，雁門人也。遊方問道于江淮，見廬山北有巖，遙望如垂手焉，手下則深邃可三五丈許。因獨棲禪觀于其中。偽唐主元宗聞之，三徵召不起。巖中夜闌，有異鹿一臥于因之石屋之側，又錦囊鳥一伏宿于石壁下，二物都無驚怖。因不度弟子，有隣庵僧為之供侍。一日小疾，謂侍僧曰：「卷上簾，我去去。」簾方就鉤，下床三數步間立，屹然而化，春秋七十許。元宗命畫工寫真，而闍維收遺骨，白塔在巖背焉。初因傳禪法于襄陽鹿門山。尋為元宗堅請，於棲賢寺開堂唱道，不及朞月，潛歸巖窟。初巖如五指，中指上有松一株，因終之日，此亦枯瘁。因有經籍之學，有問，則指摘先儒得失，章句是非。談論不滯於方隅，開喻必含於教化，實得道之良士也。

系曰：凡夫捨報，尸必一同也。佛則右脇，果位坐亡，首搯地者現通，身立中者彰異。其惟欲行步而化者，除後僧會外，則因公有焉。

次錢塘慧日永明寺釋道潛，俗姓武，蒲津人也。生而強壯，容姿端雅。成立則身長七尺許，胸前黑子七點，若斗之綱魁焉。投中條山棲巖大通禪院，禮真寂禪師，為親教也。戒檢嚴明，訥言敏行。師亡之後，誓入雁門五臺山，以精恪之故，躬覩文殊聖容。後諸方無定遊處。末到臨川，見崇壽益禪師，頓明心決。次棲衢州古寺，覽閱藏經。嘗宴坐中，見文殊現形，不覺起而作禮。及詣杭，禮阿育王塔，跪而頂戴，淚下如雨。問掌塔僧曰：「舍利人不目擊，還實有否？」僧曰：「按傳記云，藏在內角中，望若懸鐘焉。」潛疑未已，遂苦到跪禮，更無間然。俄見舍利紅色在懸鐘之外，蠢瞶而行。潛悲喜交集。又光文大師彙征迥然肯重，自為檀越，請於山齋行三七日《普賢懺》，忽見遍吉御象在塔寺三門亭下，其象鼻直枕行懺所。漢南國王錢氏命入王府受菩薩戒，造大伽藍，號慧日永明，請以居之。假號曰慈化定慧禪師，別給月俸以施之，加優禮也。建隆二年辛酉九月十八日示疾而終。入棺之際，有白光晝發，孛孛瑩然，時眾皆覩。至十月內於龍井山茶毘，所收舍利夥多。有屠者自惟惡業，展襟就火聚乞求，斯須獲七顆。屠家持於印氏塔

中。至開寶庚午歲，天台韶禪師建石塔，緘其真骨，癸酉歲塔頂放白光焉。

宋廬山圓通院緣德傳

釋緣德，俗姓黃，錢塘人也。父超修學儒術，而長於續畫，傳周昉佛粉本，受筆法於吳興李沼長史。德幼有出家之志，心性孤僻而寡合，遂往天台受具，習禪法於天龍寺道愆禪師。尋往江西問道，自雲居往廬阜，孤節高岸，實不見有所欲。江南國主李氏召入內道場安置，慮其不群，別構羅漢院處之。苦求入山，請住廬山新院，乃列威儀導引焉。德且裝衣荷擔而入，然後升座，對答參問焉。其國主賜賚，未嘗以表牋報謝。有國老宋齊丘者，禮以師道。以開寶中卒于山院。德一生服用，熟韋袴襪而已。行杜多法，供億諸禪侶，厨無匱乏。或謂德有黃白術焉。

宋天台山德韶傳

釋德韶者，姓陳氏，縉雲人也。幼出家于本郡，登戒後，同光中尋訪名山，參見知識，屈指不勝其數。初發心於投子山和尚，後見臨川法眼禪師，重了心要，遂承嗣焉。始入天台山，建寺院道場。無幾，韶大興玄沙法道，歸依者眾。漢南國王錢氏嘗理丹丘，韶有先見之明，謂曰：「他日為國王，當興佛法。」其言信矣，遣使入山旁午，後署大禪師號，每有言時，無不符合。蘇州節使錢仁奉有疾，遣人齎香往乞願焉。乃題疏云：「令公八十一。」仁奉得之甚喜曰：「我壽八十一也。」其年八月十一日卒焉。凡多此類。韶未終之前也，華頂石崩，振驚百里，山如野燒蔓筵，果應韶終。焚舍利繁多，營塔，命都僧正贊寧為塔碑焉。享年八十二，法臘六十四，即開寶五年壬申歲六月二十八日也。《語錄》大行。出弟子傳法百許人，其又興智者道場數十所，功成不宰，心地坦夷。術數尤精，利人為上。至今江浙間謂為「大和尚」焉。

論曰：

梵語「禪那」，華言「念修」也。以其觸情念而無念，終日修而無修。又云「正定」也，「正受」也；正則廓然冥而定矣，正受簡邪思惟、增遍計故。所以「奢摩他」以寂靜故，「三摩提」以觀如幻故；若「禪那」者，俱離靜、幻故，始云：「菩薩不住此岸，不住彼岸，而度眾生令登彼岸」也。若然者，諸聖住處既如彼，諸聖度生復若何？

稽夫法演漢庭，極證之名未著；風行廬阜，禪那之學始萌。佛陀什，秦擯而來；般若多，晉朝而至，時遠公也，密傳坐法，深幹玄機，漸染施行，依違祖述。吳之僧會亦示有緣，俱未分明，肆多隱祕。及乎慧文大士，肇尋龍樹之宗；思大禪翁，繼傳三觀之妙。天台智者引而伸之，化導陳、隋，名題「止觀」。粵有中天達磨，哀我群生，知梵夾之雖傳，為名相之所溺，認指忘月，得魚執筌，但矜誦念以為功，不信己躬之是佛。是以倡言曰：「吾直指人心，見性成佛，不立文字也。」此乃乘方便波羅蜜，徑直而度，免無量之迂迴焉。嗟乎！經有曲指，曲指則漸修也。見性成佛者，頓悟自心本來清淨，元無煩惱，無漏智性，本自具足。此心即佛，畢了無異。如此修證，是最上乘禪也。「不立文字」者，經云：「不著文字，不離文字。非無文字，能如是修，不見修相也。」又達磨立法，要唯二種，調理也、行也。然則直而不迂，不速而疾，云不立文字，乃反權合道也。爾時梁武不知，魏人未重，向少林而面壁，唯慧可以神交。亦猶《白雪》雖歌，巴童寡和。後則臨汧牧圉，子孫終號於強秦；避狄岐邠，文、武乃成其王道。可生璨，璨生信。信下分二枝，一忍、二融。融，牛頭也。忍生秀與能。能傳信衣，若諸侯付子孫之分器也，厥後此宗越盛焉。蔭車百輛，尼拘樹而展轉垂枝；施雨萬方，阿耨龍而連筵布潤。當是時也，應其懸記，屬于此人，後來得道無央數是歟！

重之曰：「夫禪之為物也，其大矣哉！」諸佛得之昇等、妙，雌龍得之破障、纏，率由速疾之門無過此。故今之像末，鬪諍復生，師足既傷，資爭未已。如聞此心是佛，便言三十二相何無？或聞一路涅槃，則曰八萬法門何在？曾不知經中發菩提心，此見佛性也。云何修菩薩行？此行布修行也。因信不及，無明所迷，弱喪忘歸，何由復業？或舉經以示之，則對曰：「此性宗法」；或謂之曰：「莫是魔說，還可焚毀否？」且置而勿論。又欲棄之，又欲存之，不其惑乎？昔者于闐諸部謂《道行經》為婆羅門書，烏荼小乘謗大乘學作空華外道。西乾尚爾，此何驚乎？良以六代宗師，一期舉唱，但破百年之暗，靡營一室之墮。殊不知禪有理焉，禪有行焉。脫或戒、乘俱急，日足更資，行不廢而理逾明，法無偏而功兼濟。然後始可與言禪已矣。其如玄學多斥講家，目為數寶之人，終困屢空之室。那不見經是佛言，禪是佛意，諸佛心口，定不相違。施設逗根，用有時處。況以經江高國紀之名；論海總朝宗之會；毘尼一學，軌範千途。授形俱築釋子之基，唱隨行淨沙門之業，擬捐三事，何駕一乘？終包不足之差，豈到轉依之地？通人不諂，豎子何知？佛事門中不捨一法，吠聲貽責，遷怒傷人，因擊鼠以破盆，為爭搏而噬主，自他俱有，彼我須均，縱橫盡而成一秦，氣劑和而成

一味者也。今從貞觀及于宋朝，於山選山，露須彌而出海；於羽求羽，放金翅以騰空。令其鑽仰之儔，慕此堅高之道矣。吾徒通達，無相奪倫，譬若文武是一人之藝，不能兼者，互相非斥耳。若相推重，佛法增明，酬君王度己之恩，答我佛為師之訓。慎之哉！慎之哉！

宋高僧傳卷第十三

宋左街天壽寺通慧大師賜紫沙門贊寧等奉 勅撰

明律篇第四之一(正傳二十人附見五人)

唐京兆西明寺道宣傳(大慈)

釋道宣姓錢氏，丹徒人也，一云長城人。其先出自廣陵太守讓之後，洎太史令樂之撰《天文集占》一百卷；考諱申府君，陳吏部尚書；皆高矩令猷，周仁全行，盛德百代，君子萬年。母娠而夢月貫其懷，復夢梵僧語曰：「汝所妊者即梁朝僧祐律師，祐則南齊剡溪隱嶽寺僧護也。宜從出家，崇樹釋教」云。凡十二月在胎，四月八日降誕。九歲能賦。十五厭俗，誦習諸經，依智顛律師受業。洎十六落髮，所謂除結，非欲染衣，便隸日嚴道場。弱冠，極力護持，專精克念，感舍利現於寶函。隋大業年中，從智首律師受具。武德中依首習律，纔聽一遍，方議修禪。顛師呵曰：「夫適遐自邇，因微知章，修捨有時，功願須滿，未宜即去律也。」抑令聽二十遍，已，乃坐山林，行定慧，晦迹於終南傲掌之谷。所居乏水，神人指之，穿地尺餘，其泉迸涌，時號為白泉寺。猛獸馴伏，每有所依，名華芬芳，奇草蔓延。隋末徙崇義精舍，載遷豐德寺。嘗因獨坐，護法神告曰：「彼清官村，故淨業寺，地當寶勢，道可習成。」聞斯焉，焚功德香，行般舟定。時有群龍禮謁，若男若女，化為人形。沙彌散心，顧盼邪視。龍赫然發怒，將搏攫之，尋追悔，吐毒井中，具陳而去。宣乃令封閉，人或潛開，往往煙上，審其神變。或送異華一奩，形似棗華，大如榆莢，香氣馥醇，數載宛然。又供奇果，季孟梨柰，然其味甘，其色潔，非人間所遇也。門徒嘗欲舉陰事，先是潛通，以定觀根，隨病與藥。皆此類者。有處士孫思邈嘗隱終南山，與宣相接，結林下之交，每一往來，議論終夕。時天旱，有西域僧於昆明池結壇祈雨，詔有司備香燈供具。凡七日，池水日縮數尺。有老人夜詣宣求救，頗形倉卒之狀，曰：「弟子即昆明池龍也。時之無雨，乃天意也，非由弟子。今胡僧取利於弟子，而欺天子言祈雨。命在旦夕，乞和尚法力加護！」宣曰：「吾無能救爾，爾可急求孫先生。」老人至思邈石室，冤訴再三，云：「宣律師示我，故敢相投也。」邈曰：「我知昆明池龍宮有仙方三十首，能示余，余乃救爾。」老人曰：「此方上界不許輒傳，今事急矣，固何所恪？」少選，捧方而至。邈曰：「爾速還，無懼胡僧也！」自是池水大漲，數日溢岸，胡僧術將盡矣，無能為也。及西

明寺初就，詔宣充上座。三藏奘師至止，詔與翻譯。又送真身往扶風無憂王寺。遇勅令僧拜等，上啟朝宰，護法又如此者。撰《法門文記》、《廣弘明集》、《續高僧傳》、《三寶錄》、《羯磨戒疏》、《行事鈔》、《義鈔》等二百二十餘卷。三衣皆紵，一食唯菽。行則杖策，坐不倚床，蚤蟲從遊，居然除受，土木自得，固已亡身。嘗築一壇，俄有長眉僧談道，知者其實賓頭盧也。復三果梵僧禮壇讚曰：「自佛滅後，像法住世，興發毘尼，唯師一人也。」乾封二年春，冥感天人來談律相，言：「鈔文《輕重儀》中外誤，皆譯之過，非師之咎，請師改正。」故今所行著述，多是重修本是也。又有天人云：「曾撰《祇洹圖經》，計人間紙帛一百許卷。」宣苦告口占，一一抄記，上下二卷。又口傳偈頌，號《付囑儀》十卷是也。貞觀中曾隱沁部雲室山，人睹天童給侍左右。於西明寺夜行道，足跌前階，有物扶持，履空無害。熟顧視之，乃少年也。宣遽問：「何人中夜在此？」少年曰：「某非常人，即毘沙門天王之子那吒也，護法之故，擁護和尚，時之久矣。」宣曰：「貧道修行，無事煩太子。太子威神自在，西域有可作佛事者，願為致之！」太子曰：「某有佛牙，寶掌雖久，頭目猶捨，敢不奉獻。」俄授於宣，宣保錄供養焉。復次庭除，有一天來禮謁，謂宣曰：「律師當生觀史天宮」，持物一苞，云是棘林香。爾後十旬，安坐而化，則乾封二年十月三日也。春秋七十二，僧臘五十二。累門人窆于壇谷石室，其後樹塔三所。高宗下詔，令崇飾圖寫宣之真相。匠韓伯通塑續之，蓋追仰道風也。宣從登戒壇及當泥日，其間受法傳教，弟子可千百人。其親度曰大慈律師、授法者文綱等。其天人付授佛牙，密令文綱掌護，持去崇聖寺東塔。大和初，丞相韋公處厚建塔於西廊焉。宣之持律，聲振竺乾；宣之編修，美流天下。是故無畏三藏到東夏朝謁，帝問：「自遠而來，得無勞乎？欲於何方休息？」三藏奏曰：「在天竺時常聞西明寺宣律師，秉持第一，願往依止焉。」勅允之。宣持禁_豎牢，捫蝨以綿紙裹投於地。三藏曰：「撲有情於地之聲也。」凡諸密行，或制或遮，良可知矣。至代宗大曆二年，勅此寺三綱：「如聞彼寺有大德道宣律師傳授得釋迦佛牙及肉舍利，宜即詣右銀臺門進來，朕要觀禮。」至十一年十月，勅：「每年內中出香一合，送西明寺故道宣律師堂，為國焚之禱祝。」至懿宗咸通十年，左右街僧令霄、玄暢等上表乞追贈。其年十月勅諡曰澄照，塔曰淨光。先所居久在終南，故號南山律宗焉。天寶元載靈昌太守李邕，會昌元年工部郎中嚴厚本，各為碑頌德云。

系曰：律宗犯即問心，心有虛實故。如未得道，起覆想說，則宜犯重矣。若實有天龍來至我所，而云犯重，招謗還婆羅漢同也。宣屢

屢有天之使者，或送佛牙，或充給使，非宣自述也。如遣龍去孫先生所，豈自言邪？至於乾封之際，天神合沓，或寫《祇洹圖經》、《付囑儀》等，且非寓言於鬼物乎？君不見《十誦律》中諸比丘尚揚言：「日連犯妄」，佛言：「日連隨心想說無罪。」佛世猶爾，像季嫉賢，斯何足怪也。又無畏非開元中者，貞觀、顯慶已來莫別有無畏否？

唐京兆恒濟寺道成傳

釋道成者，不知何許人也。居於天邑，演彼律乘。戒月揚光，圓而不缺；德瓶告實，滿而不傾。當顯慶中，敷《四分》一宗，有同霧市。時文綱律匠雖先依澄照大師，後習律文，乃登成之堂奧矣。又懷素著述，皆出其門。垂拱中，日照三藏譯《顯識》等經，天后詔名德十員助其法化，成與明恂、嘉尚同預證義。由是聲飛神甸，位首方壇，謂之梧桐多棲鳳鳥，謂之芳沚頗秀蘭叢。門生孔多，無過此集，然不詳終所。

系曰：成公與隋蔣州道成同號而異實，二者奚先？通曰：「隋成也精乎《十誦》，著述尤多；唐成也傳乎《四分》，譯講偕妙。然其撰集則開悟迷淪，究其翻傳則陶甄教道。譬猶後焰靡及乎前光，似寶或慚乎真寶，互有長短，用則無遺也。」

唐京師崇聖寺文綱傳(名恪)

釋文綱，姓孔氏，會稽人也。曾祖範，陳都官尚書；祖禊，祠部侍郎；考頂生逃海避隋，擇木歸舜，貞觀始拜尚乘直長；咸光復儒業，旁通釋教。是故綱也植宿根，從習氣。慈母懷孕，雜食棄捐。有婆羅門僧頭陀語其母曰：「若此男，終紹三寶。」自爾每聞空中多異香、雜仙樂。及誕育之日，白鶴翔集，若臨視焉。比襁褓中，午後不受乳哺，猶堅持齋者。童亂，隨師訪道。十二出家，冠年受具。精慮苦行，專念息心，藜羹糗糧，麻衣草薦。操有彝檢，口無溢言。尋詣京兆沙門道成律師，稟毘尼藏。二十五講律，三十登壇。每勤修深思，凝視反聽，淨如止水，嶷若斷山。或風雨宴居，或晝夜獨得。故能吉祥在手，不捨其瓶；威德迎風，不絕於氣。出籠瘠雁，坐致虛空，起屋下層，自然成就。唯甘露之滄口，喻利劍之傷人，慎之，重之！廣矣，至矣！由是八方來學，《四分》永流，請益者舉袂雲臨，讚歎者發聲雷駭。久視中，天作淫雨，人有憂色。綱愍之，乃端坐思惟，却倚屋壁。奄至中夕，歛爾半傾，唯餘背間，嶷然山立，識者以為得神通，因定力故。日月靈跡，幽明

潛感，兆於集事，應乎遺言。左右怪之，綱曰：「夫真實無相，塵色本空。正覺圓常，大悲湛定，不可取也。」是以一時法主，四朝帝師，同迦葉之入城，遇匿王之說戒，竹園門外別有沙彌，畢樹枝間廣聞鷄鳥。所以受潤者博，人見者深。萬病已痊，獲歡喜之藥；一心不染，解煩惱之繩。又恭承絲綸，京都翻譯，追論惠用，遠契如因，翹誠滿朝，檀施敵國，但依布薩，盡用莊嚴。累歷伽藍二十餘所，凡是塔廟，各已華豐。猶且刺血書經，向六百卷；登壇受具，僅數千人。至苦至勤，納無我之海；不寢不食，種無生之田。長安四年，奉勅往岐州無憂王寺迎舍利。景龍二載，中宗孝和皇帝延入內道場行道，送真身舍利往無憂王寺入塔。其年於乾陵宮為內尼受戒。復於宮中坐夏，為二聖內尼講《四分律》一遍。中宗嘉尚，為度弟子，賜什物、綵帛三千匹。因奏道場靈感之事，六月七日，御札題榜為靈感寺是也，諸寺辟碩德以隸焉。夫其左籙宿，右上林，南臺終山，北池渭水。千門宮闕，化出雲霄，萬乘旌旗，天迴原隰。先天載睿宗聖真皇帝，又於別殿請為菩薩戒師，妃主環階，侍從羅拜。兜率天上，親聽法言；王舍城中，普聞淨戒。恩旨賜絹三千餘匹，綱悉付常住，隨事修營。或金地繚垣，用增上價；或寶坊飛閣，克壯全模；或講堂經樓，舍利淨土；或軒廊器物，厩庫園林，皆信施法財，周給僧寶。方將示迷津，引覺路，濯熱火宅，拯溺毒流，而乃奄忽神遷，斯須薪盡，雖有應化，何其速歟！以開元十五年八月十五日怡然長往，時春秋九十有二。其年九月四日，塔於寺側焉。聞哀奔喪，執紼會葬，香華幢蓋，緇素華夷，填城塞川，簞雲翳景，蓋數萬人。有若法侶，京兆懷素、滿意、承禮、襄陽崇拔、扶風鳳林、江陵恒景、淄川名恪等百餘人，咸曰：「智河舟遷，法宇棟橈而已哉！」有若弟子，淮南道岸、蜀川神積、岐隴慧顛、京兆神慧、思義、紹覺、律藏、恒暹、崇業等五十餘人，並日以慈眼入於度門，金棺不迫，灰骨罔答。乃請滑臺太守李邕為碑。邕象彼馬遷，法其班氏，以二人而同傳，必百行以齊肩。不忝懷素前，不慚宣師後，李北海題品，不其躋乎！有淄州名恪律師者，精執律範，切勤求解，嘗廁宣師法筵，躬問《鈔序》義。宣師親錄，隨喜靈感壇，班名於經末，又附麗文綱之門也。

唐京師恒濟寺懷素傳(寶律師)

釋懷素，姓范氏，其先南陽人也。曾祖嶽，高宗朝選調為絳州曲沃縣丞。祖徽，延州廣武縣令。父強，左武衛長史，乃為京兆人也。母李氏夢雲雷震駭，因而娠焉。誕育之辰，神光滿室。見者求占：此子貴極，當為王者之師傅也。幼齡聰黠，器度寬然，識者曰：

「學必成功，才當逸格。」耳聞口誦，皆謂老成。年及十歲，忽發出家之意，猛利之性，二親難沮。貞觀十九年，玄奘三藏方西域迴，誓求為師。雲與龍而同物，星將月以共光，俱懸釋氏之天，悉麗著明之象。初尋經論，不費光陰。受具已來，專攻律部。有鄴郡法礪律師，一方名器，五律宗師，迷方皆俟其指南，得路咸推其鄉導。著疏十卷，別是命家。見接素公，知成律匠。研習三載，乃見諸瑕，喟然歎曰：「古人義章，未能盡善！」咸亨元年，發起勇心，別述《開四分律記》。至上元三年丙子歸京，奉詔住西太原寺傍聽道成律師講，不輟緝綴。永淳元年，十軸畢功，一家新立，彈糾古疏，十有六失焉。新義半千百條也。傳翼之彪，搏攫而有知皆畏；乘風之震，砰輻而無遠不聞。所化翕然，所傳多矣。復著《俱舍論疏》一十五卷，《遺教經疏》二卷，《鈔》三卷，《新疏拾遺鈔》二十卷，《四分僧尼羯磨文》兩卷，《四分僧尼戒本》各一卷。日誦《金剛經》三十卷，講大律已疏計五十餘遍，其餘書經、畫像，不可勝數。於本寺別院忽示疾，力且薨然，告秀章曰：「余律行多缺，一報將終。」時空中有天樂瀏亮，奄然而逝，俗齡七十四，法臘五十三。葬日，有鴻鶴遶塔悲鳴，至暮方散。素所撰述，宗薩婆多，何邪？以法密部緣化地部出，化地從有部生，故出受體以無表色也。又斥二宗云：「相部無知，則大開量中，得自取大小行也。南山犯重，則與天神言論，是自言得上人法也。」大抵素疏出，謂之「新章」焉。開元中，嵩山賓律師造《飾宗記》以解釋之，對礪舊疏也。又謂為東、西塔律宗，因傳習處為名耳。大曆中，相國元公載奏成都寶園寺置戒壇，傳新疏，以俸錢寫疏四十本，《法華經疏》三十本，委寶園光翌傳行之。後元公命如淨公為素作傳。韋南康皋作靈壇，傳授毘尼新《疏記》，有承襲者，刊名于石。其辭酋麗，其翰兼美，為蜀中口實焉。

唐光州道岸傳

釋道岸，姓唐氏，世居潁川，是為大族，漢尚書令琳、司空珍、吳尚書僕射固、雍州刺史彬、涼鎮北將軍瑤之後也。永嘉南度，遷於光州，衣冠人物，暉映今古。岸生而不群，少而奇概，爰在髫鬢，有若老成。齒胄膠庠，徇齊墳典，猶恐聞見未博，藝業有遺。遂浮江淮，達洙泗，探禹穴，升孔堂，多歷年所矣。操翰林之鼓吹，游學海之波瀾，討論百家，商擢三教。乃歎曰：「學古入官，紆金拾紫，儒教也。餐松餌栢，駕鶴乘龍，道教也。不出輪迴之中，俱非棧喻之義，豈若三乘妙旨，六度宏功，錙銖世間，掌握沙界哉！」遂落髮出家，洗心訪道，一音克舉，四句精通。堅修律儀，深入禪

慧。夜夢迦葉來為導師，朝閱真經，宛契冥牒。由是聲名籍甚，遠近吹噓，為出世之津梁，固經行之領袖。十方龍象，罔不師範焉；萬國鵷鸞，無敢訓對者。向若迴茲妙識，適彼殊途，議才必總於四科，濟世雅符於三傑。有若越中初法師者，祕藏精微，罔不明練，道高寰宇，德重丘山。岸聞善若驚，同聲相應，乘杯去楚，杖錫遊吳。雲霧一披，鐘鼓齊振，期牙合契，澄什聯芳。由是常居會稽龍興寺焉。揚越黎庶，江淮釋子，輻輳烏合，巷少居人，罕登元禮之門，且覩公超之市。岸身遺纏蓋，心等虛空，不擇賢愚，無論貴賤，溫顏接待，善誘克勤，明鑑莫疲，洪鍾必應。皆窺天挹海，虛往實歸，其利博哉，無得稱也！時號為大和尚。登無畏座，講木叉律，容止端嚴，辭辯清暢，連環冰釋，理窟毫分，瞻仰者皆悉由衷，聽受者得未曾有。於是高僧大士，心醉神傾，捐棄舊聞，佩服新義，江介一變，其道大行。孝和皇帝精貫白業，遊藝玄樞，聞而異焉。遣使徵召，前後數介。然始入朝，與大德數人同居內殿，帝因朝暇，躬閱清言。雖天睠屢迴，而聖威難犯，凡厥目對，靡不魂驚。皆向日趨風，滅聽收視。岸人望雖重，僧臘未高，猶淪居下筵，累隔先輩。惜帝有輪王之位，不起承迎；以吾為舍那之後，晏然方坐。皇帝覩其高尚，伏以尊嚴，偏賜衣鉢，特彰榮寵。因請如來法味，屈為菩薩戒師。親率六宮，圍繞供養，仍圖畫於林光宮。御製〈畫讚〉，辭曰：「戒珠皎潔，慧流清淨，身局五篇，心融八定。學綜真典，觀通實性，維持法務，綱統僧政。律藏冀兮傳芳，象教因乎光盛。」比夫靈臺影像，麟閣丹青，功德義殊，師臣禮異。銓擇網管，統帥僧徒者，有司之任也。以岸盛德廣大，至行高邈，思遍雨露，特變章程。所歷都白馬、中興、莊嚴、薦福、罔極等寺，綱維總務，皆承勅命，深契物心，天下以為榮，古今所未有。中宗有懷罔極，追福因心，先於長安造薦福寺。事不時就，作者煩勞，勅岸與工部尚書張錫同典其任。廣開方便，博施慈悲，人或子來，役無留務，費約功倍。帝甚嘉之，頻邀賞錫，何間昏曉。既荷天澤，言酬恩地，遂還光州，度人置寺。於是祇陀苑囿，鬱起僧坊，拘隣比丘，便為人寶，能事斯畢，夫何恨哉！江海一辭，星霜二紀，每懷成道之所，更迫鐘漏之期。遂去上京，還至本處。將申顧命，精擇門人，僧行超、玄儼者，是稱上足也。克傳珠髻之寶，俾賜金口之言，右脇而臥，示其泡幻也。以開元五年歲次丁巳八月十日滅度於會稽龍興道場。時年六十有四。海竭何依？山崩安仰？天人感慟，道俗哀號，執紼衣縗，動盈萬計。弟子龍興寺慧武、寺主義海、都維那道融、大禹寺懷則、大善寺道超、齊明寺思一、雲明寺慧周、洪邑寺懷瑩、香嚴寺懷彥、平原寺道綱、湖州大雲寺子瑀、興國寺慧纂等，秀稟珪璋，器承磨琢，荷導蒙之力，懷

栝羽之恩，思播芳塵，必題貞石，乃請禮部侍郎姚奕為碑紀德。初，岸本文綱律師高足也，及孝和所重，其道克昌。以江表多行《十誦律》，東南僧堅執，罔知《四分》，岸請帝墨勅執行南山律宗。伊宗盛于江淮間者，岸之力也。

唐百濟國金山寺真表傳

釋真表者，百濟人也。家在金山，世為弋獵。表多躡捷，弓矢最便。當開元中，逐獸之餘，憩於田畎間，折柳條貫蝦蟇成串，置於水中，擬為食調。遂入山網捕。因逐鹿，由山北路歸家，全忘取貫蟇歟。至明年春，獵次，聞蟇鳴。就水，見去載所貫三十許蝦蟇猶活。表於時歎惋，自責曰：「苦哉？何為口腹，令彼經年受苦？」乃絕柳條，徐輕放縱。因發意出家，自思惟曰：「我若堂下辭親，室中割愛，難離慾海，莫揭愚籠。」由是逃入深山，以刀截髮，苦到懺悔，舉身撲地，志求戒法，誓願要期彌勒菩薩授我戒法也。夜倍日功，遶旋叩搥，心心無間，念念翹勤，經於七宵。詰旦，見地藏菩薩手搖金錫，為表策發，教發戒緣，作受前方便。感斯瑞應，歎喜遍身，勇猛過前。二七日滿，有大鬼現可怖相，而推表墜於巖下，身無所傷。匍匐就登石壇上，加復魔相未休，百端千緒。至第三七日質明，有吉祥鳥鳴曰：「菩薩來也。」乃見白雲若浸粉然，更無高下，山川平滿，成銀色世界，兜率天主逶迤自在，儀衛陸離，圍遶石壇，香風華雨，且非凡世之景物焉。爾時慈氏徐步而行，至於壇所，垂手摩表頂曰：「善哉！大丈夫求戒如是，至於再，至於三，蘇迷盧可手攘而却，爾心終不退。」乃為授法，表身心和悅，猶如三禪意識與樂根相應也。四萬二千福河，常流一切功德，尋發天眼焉。慈氏躬授三法衣、瓦鉢，復賜名曰真表。又於膝下出二物，非牙非玉，乃籤檢之制也，一題曰「九者」，一題曰「八者」，各二字，付度表云：「若人求戒，當先悔罪。罪福則持犯，性也。」更加一百八籤，籤上署百八煩惱名目，「如來戒人，或九十日，或四十日，或三七日行懺，苦到精進，期滿限終，將九、八二籤參合百八者，佛前望空而擲。其籤墮地，以驗罪滅、不滅之相。若百八籤飛逗四畔，唯八、九二籤卓然壇心而立者，即得上上品戒焉；若眾籤雖遠，或一二來觸九、八籤，拈觀是何煩惱名，抑令前人重覆懺悔已。正將重悔煩惱籤和九、八者，擲其煩惱籤，去者名中品戒焉。若眾籤埋覆九、八者，則罪不滅，不得戒也。設加懺悔過九十日，得下品戒焉。」慈氏重告誨云：「八者新熏也，九者本有焉。」囑累已，天仗既迴，山川雲霽。於是持天衣，執天鉢——猶如五夏比丘——，徇道下山。草木為其低垂覆

路，殊無溪谷高下之別。飛禽鷲獸，馴伏步前。又聞空中唱告村落聚邑，言菩薩出山來，何不迎接？時則人民男女布髮掩泥者、脫衣覆路者、氈罽毼承足者、華網美褥填坑者，表咸曲副人情，一一迪踐。有女子提半端白氈覆於途中，表似驚忙之色，迴避別行。女子怪其不平等，表曰：「吾非無慈不均也，適觀氈縷間皆是豨子，吾慮傷生，避其誤犯耳。」原其女子，本屠家販買得此布也。自爾常有二虎左右隨行，表語之曰：「吾不入郭郭，汝可導引至可修行處。」則乃緩步而行三十來里，就一山坡，蹲踞於前。時則挂錫樹枝，敷草端坐。四望信士，不勸自來，同造伽藍，號金山寺焉。後人求戒，年年懺罪者絕多，今影堂中道具存焉。

系曰：表公革心變行，一日千里，果得慈氏為授戒法。此五十受中何受邪？通曰：「近上法見諦自誓也。發天眼通，是證初、二果也。非諦理現觀而何？專據石壇，與多子塔前自誓同也。」或曰：「所授籤檢以驗罪滅之相，諸聖教無文。莫同諸天傳授，或魔鬼所為，不可為後法乎？」通曰：「若彰善瘴惡，利益不殊。彌勒天主是天傳授，非魔必矣。諸聖教中有懺罪求徵祥，證其罪滅不滅。然其佛滅度，彌勒降閻浮說《瑜伽》，豈可不為後世法耶？《十誦律》云：『雖非佛制，諸方為清淨者，不得不行也。』」

唐安州十力寺秀律師傳

釋秀公者，齊安人也。髫年天然有離俗之意焉。既丁荼蓼，便往蜀郡，禮興律師，諷誦經典，易若溫尋。又依之進具，果通達毘尼，乃為興公傳律上足弟子歟！如是四載，入長安，造宣律師門，為依止之客。勤以忘勞，涉十六年，不離函丈。窮幽諸部，陶練數家，將首疏為宗本，然向黃州報所生地。次往安陸，大揚講訓。聲美所聞，諸王牧守攸共遵承正化，緇徒咸摹細行。有貞固律師居於上席；解冠諸生最顯清名；餘皆後殿。其諸成業，不可勝算。春秋七十餘，卒於十力寺本房焉。

唐京師崇聖寺靈粵傳

釋靈粵者，不知何許人也。勤乎切問，靡憚尋師。乾封中，於西明寺躬預南山宣師法席。然其不拘常所，或近文綱，或親大慈，皆求益也。末塗懼失宣意，隨講收采所聞，號之曰《記》，以解《刪補鈔》也。若然者推究造義章之始，唯慈與粵也。又別撰《輕重訣》，故苑陵玄胄親觀其文，故援引之以解《量處輕重儀》焉。金革之故，其訣湮滅，無復可尋矣。

唐京兆崇福寺滿意傳

釋滿意，不知何許人也。風神峭拔，識量寬和，經論旁通，專於律學。武德末，所遇鄴都法礪律師，作疏解《曇無德律》，遂往摠衣，明其授受。如是講導三十許年。乃傳付觀音寺大亮律師。亮方授越州曇一。盛化之間，出龍象之資，無過意之門也矣。

唐京兆西明寺崇業傳

釋崇業，不知何許人也。初同弋陽道岸學毘尼於文綱之法集。業之服勤，淬礪罔怠，鬢肆之間推居元長。與淄州名恪齊名，挺拔剛毅過之，美聲洋洋達於禁闈。睿宗聖真皇帝操心履道，勅以舊邸造安國寺。有詔業入承明熏修，別殿為帝授菩薩戒。施物優渥，僉迴捨修菩提寺殿宇，抑由先不畜盈長之故也。開元中微疾，囑弟子曰：「吾化窮數盡，汝曹堅以防川，無令放逸！」語訖，終於所居寺之別院。業即南山之嗣孫矣。

唐越州法華山寺玄儼傳(融濟)

釋玄儼，俗姓徐氏，晉室南遷，因官諸暨，遂為縣族。年始十二，辭親從師，事富春僧暉。證聖元年，恩制度人，始墮僧數，隸懸溜寺。儼幼而明敏，長則韶令，標格峻整，風儀凜然。迨於弱冠，乃從光州岸師諮受具戒。後乃遊詣上京，探蹟律範，遇崇福意律師并融濟律師，皆名匠一方，南山上足，咸能昇堂睹奧，共所印可。由是道尊戒潔，名動京師。安國授記，並充大德。後還江左，偏行《四分》。因著《輔篇記》十卷、《羯磨述章》三篇，至今僧徒遠近傳寫。初，光州岸公嘗因假寐，忽夢神僧謂曰：「玄儼當為法器，云何教以小乘？」後乃命宣般若。由是研精覃思，採摭舊學，撰《金剛義疏》七卷，古德所不解，先達所未詳。我則發揮光明，若指諸掌。誓以一生宣講百遍。越邑精舍，時稱法華，晉沙門曇翼曾結菴山巔，入是法三昧，感遍吉菩薩。徒觀其：塔類多寶，涌出以證經；宮如轉輪，飛行而聽法。雙鳥所以示兆，今尚翔鳴；六象所以呈奇，時猶隱現。不可得而思議者，蓋斯之謂歟。信如來之福庭，是菩薩之隱岳。儼乃考盤是卜，束鉢深棲，建置戒壇，招集律行。若夫秦衡上士，燕代高僧，數若稻麻，算同竹葦，伏膺請益，躡屨擔簦。宴坐不出，幾三十載。開元二十四年，帝親注《金剛般若經》，詔頒天下，普令宣講。都督河南元彥沖躬請儼重光聖日，遂闡揚幽贊，允合天心，令盲者見日月之光，聾者聞雷霆之響。儼

之演暢，蓋有力焉。夫樂小法者迷自我而為病，通大方者憚開空之法道。若夫會三歸一，觸理冥事，自優波離已下猶或病諸。而儼綱紀小乘，演暢大法，晤佛境之非有，識魔界之為空。故能使涅槃將生死一如，煩惱與菩提齊致，發心而登佛地，非我而誰？白黑歸依，當仁不讓。昔僧護法師常居石城，宴坐青壁，仰其中峯，如有佛像，願造十丈，以圖兜率。良願未諧，護公長逝。梁武皇帝詔僧祐律師馳傳經理，規模刻劃，意匠纔施。俄而山塚峯崩，全身坐現，合高百餘尺。雖金石絲竹，四天之供施常聞；功德莊嚴，十地之瑠鐫尚闕。儼乃內傾衣鉢，外率檀那，布以黃金之色，鎔以白銀之相，銅錫鉛錯，球琳琅玕，七寶由是渾成，八珍於焉具足。雖寶積獻蓋，界現三千；迦葉貢衣，金踰十萬；如須彌之現於大海，若杲日之出於高山，此又儼之功德不可思議者也。故洛州刺史徐嶠、工部尚書徐安貞，咸以宗室設道友之禮；國子司業康希銑、太子賓客賀知章、朝散大夫杭州臨安縣令朱元昫，亦以鄉曲具法朋之契。開元二十六載，恩制度人，採訪使潤州刺史齊澣、越州都督景誠、採訪盧見義、泗州刺史王弼，無不停旛淨境，稟承法訓。齊公乃方舟結乘，奉迎儼於丹陽、餘杭、吳興諸郡，令新度釋子躬授具戒。自廣陵迄於信安，地方千里，道俗受法者殆出萬人。凡禮《佛名經》一百遍，設無遮大會十筵，而入境住持，舉無與比。夫秉法傳授，從佛口生，有門人法華曇俊、崇默、龍興崇一、開元智符、稱心崇義、香嚴懷節、寶林洪需、覺引、灌頂，皆不傾油鉢，無漏浮囊。經不云乎？如旃檀林，旃檀圍遶；如師子王，師子圍遶。信儼之威神有在，而法主之功德不刊。將知三界無安，百靈共盡，此生已適於後息，他世應見於前心。以天寶元載歲次壬午，緣化已畢。十一月三日，現疾於繩床，七日午時，坐終於戒壇院，春秋六十有八。粵其月二十五日，窆於寺南秦山之下。高樹雙塔，光明踰於白雲；列植千松，秀色羅於明月。經始則神邕、崇曉，住持則唯湛、道昭，並躬護聖場，親傳智印。其餘三千門人，五百弟子，承般若之深法，受毘尼之密行，盡號顯門，無待彌勒。天寶十五載歲次景申，萬齊融述《頌德碑》焉。

唐杭州靈智寺德秀傳

釋德秀，俗姓孫氏，富陽人也。少出塵區，早棲梵宇。當圓戒檢，正護浮囊，匪定常師，留神律府。講談之外，嘗哀鬼神乏食，恒以深更施其飲食。浙內之民，傾誠畏服。及終於定山，頗多靈異，則天寶初載也。遷神座入塔時，天降舍利七顆，門人以瓶盛之，緘于

其塔。或發之，見秀齒上生舍利，紛紛而墜。後人還累甃成浮圖。鄉人云：「恒有白蛇蟠屈守塔，樵牧之童無敢近者。」

唐開業寺愛同傳(玄通)

釋愛同，俗姓趙氏，本天水人也。代襲冠冕弱齡挺拔，惠然肯來，為佛家子。具戒後，講彌沙塞律，遠近師稟，若鱗羽宗乎鯤鳳也。昔南宋朝罽賓三藏覺壽譯成此律，因出《羯磨》一卷，時運遷移，其本零落，尋求不獲，學者無依。同遂於大律之內，抄出《羯磨》一卷，彼宗學者盛傳流布，被事方全。孝和之世，神龍中盛重翻宣，同與文綱等參預譯場，推為證義。義淨所出之經，同有力焉。著《五分律疏》十卷，復遺囑西明寺玄通律師重施潤色。後安史倣擾，焚燎喪寺，今無類矣。

唐五臺山詮律師傳

釋詮律師者，五臺縣人也。綵服出家，冠年受戒，儀則清雅，眾稟綱繩。習毘尼宗，祕菩薩行。詮除訓徒外，守默無撓，遠近有事，靡不豫知，人謂為得他心通也。一食終日，弊衣遮體，不貯顆粒，房無縷綜。其強本節用，造次不可及也。入滅之日，祥雲鬱密，天樂錚鏘，闔寺僧徒皆聞異香芬馥。乃召集寺眾，執手告辭，囑累門人，加趺而滅云。

唐揚州龍興寺法慎傳

釋法慎，姓郭氏，江都人也。孩抱之歲，誓齒空門，親愛所鍾，志不可奪。從瑤臺成律師受具戒。依太原寺東塔，體解律文，絕其所疑，時賢推服。或一言曲分於象表，精理自得於環中，聲振京師，如晞愛日。諸寺眾請綱領，乃默然而東歸。既還揚都，俯允群願，恒誦《金剛般若經》、《如意輪》。般若佛心，我得此心，眾生亦得。如意勝願，我如此願，眾生亦如。謂「天台止觀，包一切經義；東山法門，是一切佛乘。色空兩亡，定慧雙照，不可得而稱也。」慎暑不攝齊，食不求飽，居不易坐。四方捨施，歸於大眾，一身有無，均於最下。朝廷之士銜命往還，路出維揚，終歲百數，不踐門闥，以為大羞。仰承一盼，如洗飢渴。慎與人子言依於孝，與人臣言依於忠，與人上言依於仁，與人下言依於禮。佛教儒行，合而為一。學者流誤，故親校經論。延來者聽受，故大起僧坊。將警群迷，故廣圖菩薩因地。善護諸命，故曲濟眾生壽量。以文字度

人，故工於翰墨。以法皆佛法，故兼采儒流。以我慢為防，故自負衣鉢。以規規為任，故綱正緇林。以發揮道宗，故上行恭禮。以感慕遺迹，故不遠他邦。以龍象參議，故再至京國。以軌度端明，故研精律部歟！黃門侍郎盧藏用才高名重，罕於推挹，一見于慎，慕味循環，不能離坐。退而歎曰：「宇宙之內，信有高人！」黃門於院中置以經藏，嚴以香燈，天地無疆，像法常在。太子少保陸象先、兵部尚書畢構、少府監陸餘慶、吏部侍郎嚴挺之、河南尹崔希逸、太尉房琯、中書侍郎平章事崔渙、禮部尚書李愷、辭人王昌齡、著作郎綦母潛，僉所瞻奉，願同灑掃。感動朝宰如此。以天寶七載十月十四日晨興盥漱，就胡床加趺，心奉西方，既曛而滅於龍興寺別院，春秋八十三，夏六十二。緇素弟子，北距泗沂，南踰嶺徼，望哭者千族，會葬者萬人。其上首曰會稽曇一、閩僧懷一、南康崇叡、晉陵義宣、錢塘譚山寺惠鸞、洛京法瑜、崇元、鶴林寺法勵、法海、維揚惠凝、明幽、靈祐、靈一等，罔不成樂說辯才，入法華三昧。眾所知識，物之依怙。天上甘露，正味調柔；人中象王，利根成熟。音樂樹下，長流福慧之泉；雪山峯頂，仰見清涼之月。金剛決定，煩惱無餘。優曇開敷，香潔盈滿。法施之恩，郡居之感，哀奉色身，經始靈塔於蕪城西蜀岡之原，像教也。幽公自幼及衰，恒所親侍，後請吏部員外郎趙郡李華為碑紀述，大曆八年癸丑十二月也。大理司直張從申書，趙郡李陽冰題額。其塔亦幽公經度。建塔之地，廣袤如素，高卑得中。周臨四衢，平視千里。門人環蒔列柏，薦以名香。其塔屬會昌中，例皆毀焉。

唐杭州華嚴寺道光傳

釋道光，姓褚氏，踰亂出家。方冠受具，詣光州和尚學通毘尼。於時夏淺德崇，壇場屬望，蓋天賚真士，為「東南義虎」，雲雨慈味，笙鏞道聲。光持《法華經》，創塔廟，泊沒身不怠也。上元元年庚子仲秋示疾，終於本寺，春秋七十九，法臘五十八。是日馳陽昧昧，淫雨淅淅，烈風崇朝，嘉木為折，乃東土福盡之徵也。俄然喜氣五色，亭亭如蓋，移晷不散，偏映精廬，即西方往生之意也。初光未歿，其月三日質明，支疾凝神，依色身觀，彌陀具相現在其前。滿庭碧華，昔所未覩者。四日昧爽，有異人請光為和尚，遂開目彈指曰：「但發菩提心」。至五日，曼陀羅華自天而雨。門人神烈、義津追慕弗遑，各分法味，流布行化，香火無窮云。

唐揚州大雲寺鑒真傳

釋鑿真，姓淳于氏，廣陵江陽縣人也。總丕俊明，器度宏博，能典謁矣。隨父入大雲寺，見佛像，感動夙心，因白父求出家。父奇其志，許焉。登便就智滿禪師，循其獎訓。屬天后長安元年，詔於天下度僧。乃為息慈配住本寺，後改為龍興。殆中宗孝和帝神龍元年，從道岸律師受菩薩戒。景龍元年，詣長安。至二年三月二十八日，於實際寺依荊州恒景律師邊得戒。雖新發意，有老成風，觀光兩京，名師陶誘。三藏教法，數稔該通，動必研幾，曾無矜伐。言旋淮海，以戒律化誘，鬱為一方宗首。冰池印月，適足清明；**猊**座揚音，良多響答。時日本國有沙門榮叡、普照等東來募法，用補缺然。於開元年中，達于揚州，爰來請問，禮真足曰：「我國在海之中，不知距齊州幾千萬里。雖有法而無傳法人，譬猶終夜有求於幽室，非燭何見乎？願師可能輟此方之利樂，為海東之導師乎！」真觀其所以，察其翹勤，乃問之曰：「昔聞南岳思禪師生彼為國王，興隆佛法，是乎？又聞彼國長屋曾造千袈裟來施中華名德，復於衣緣繡偈云：『山川異域，風月同天，寄諸佛子，共結來緣。』以此思之，誠是佛法有緣之地也。」默許行焉。所言長屋者，則相國也。真乃**募**比丘思託等一十四人，買舟自廣陵齎經、律法離岸，乃天寶二載六月也。至越州浦，止署風山。真夜夢甚靈異。纔出洋，遇惡風濤，舟人顧其垂沒，有投棄[木*箋]香木者。聞空中聲云：「勿棄投」，時見舳艫各有神將介甲操仗焉，尋時風定。俄漂入蛇海，其蛇長三丈餘，色若錦文。後入魚海，魚長尺餘，飛滿空中。次一洋，純見飛鳥集於舟背，壓之幾沒。泊出鳥海，乏水。俄泊一島，池且泓澄，人飲甘美。相次達於日本，其國王歡喜迎入城大寺安止。初於盧遮那殿前立壇，為國王授菩薩戒。次夫人、王子等，然後教本土有德沙門足滿十員，度沙彌澄修等四百人，用白四羯磨法也。又有王子一品親田捨宅造寺，號招提，施水田一百頃。自是已來，長敷律藏，受教者多，彼國號大和尚，傳戒律之始祖也。以日本天平寶字七年癸卯歲五月五日，無疾辭眾，坐亡，身不傾壞，乃唐代宗廣德元年矣。春秋七十七。至今其身不施苧漆，國王、貴人、信士時將寶香塗之。僧思託著《東征傳》**詳**述焉。

唐杭州天竺山靈隱寺守直傳

釋守直，字堅道，錢塘人也，姓范氏，齊信安太守瑄之八葉。禮既冠眾，君子器之。夙有丘園之期，不顧玄纁之錫。遂詣蘇州支硎寺圓大師所受具足律儀。是夜，眼中光現長一丈餘，持久方滅，蓋得戒之驗也。後抵江陵，依真公。三年練行。尋禮天下二百餘郡，聖跡所至，無不至焉。見無畏三藏，為受菩薩戒。聞普寂大師傳《楞

伽》心印。講《起信宗論》二十餘遍；《南山律鈔》四十遍，平等一雨，大小雙機在乎圓音，未嘗少異。乃立願誦《華嚴經》，還於中宵夢神人施珠一顆。及覺，惘惘然如珠在握。是歲入五臺山，轉《華嚴經》二百遍，追夙心也。宏覽大藏經三過，廣正見也。至開元二十六年，有制舉高行，俗道請正名隸大林寺，後移籍天竺住靈隱峯，時大曆二年也。至五年三月，寓于龍興淨土院，謂左右曰：「夫至人乘如而來，乘如而去，示其心然也。而愚夫欲以長繩繫彼白日，安可得乎？吾景落桑榆，豈淹久也？」以其年此月二十九日告終，春秋七十一，僧臘四十五。其間臨壇度人多矣，顯名者洞庭辯秀、湖州皎然、惠普、道莊、會稽清江、清源、杭州擇隣、神偃、常州道進。晝公著塔銘云。

唐洪州大明寺嚴峻傳

釋嚴峻，姓樊氏，雒州人也。父任硤州長史、昭王府司馬。峻性地夷然，學習明利。年及十九，應進士舉。倏罹荼蓼，思報劬勞，投南陽佛寺。後抵荊州玉泉山蘭若，遇真禪師，示其禪觀，入城泊大雲寺。峻秉持戒印，用之不_刊；憑附浮囊，渡之攸往。眾請臨壇，復舉律之宗主，僂俛承命。忽逢觀淨禪師，頓明心法。大曆元年，思往清涼山，未達廬陵，見顏魯公，一言相契，膠漆如也。二年春，宜春太守俾僧正馳疏請召。四年春，洪州刺史李華員外延入大明寺住止。三月中，俄命沐浴換衣，舉望空虛，合掌而逝，春秋五十九。遷塔，弟子圓約等於寺前大泉池立碑存焉。

唐會稽開元寺曇一傳

釋曇一，姓張氏，蓋韓人也。其先軒轅賦姓，至良佐漢，侯于留。魏、晉已還，衣冠繼代。曾祖恒隋太常卿，扈蹕揚都，遂家於越。恒生孝廉翼，翼生處士葳，葳生一，令聞江南，今四葉矣。一宿植淨因，生知慧性，弱而敏悟，長而聰明。年十五，從李滔先生習《詩》、《禮》，終日不違。十六，聽雲門寺茂亮法師經論，一聞懸解。法師異之，謂其母孟氏曰：「此佛子也！可令削髮，當與授記。」亮即孝和皇帝菩薩戒師也。一聞而歡喜，有度世之志。景龍中，承恩出家，隸在僧錄。年滿受具於丹陽玄昶律師，學通《事鈔》於當陽曇勝律師。既而鑽木見煙，窺牆覩奧。開元五年，西遊長安，依觀音寺大亮律師，傳毘尼藏，崇聖寺檀子法師學《唯識》、《俱舍》等論，安國寺印度沙門受菩薩戒。於是蓮華不染之義，甘露甚深之旨，一傳慧炬，了作梵雄。遠近瞻仰，如宗師矣。

然刃有餘地，時兼外學，常問《周易》於左常侍褚無量，論《史記》於國子司業馬貞。遂漁獵百氏，囊括六籍，增廣聞見。自是儒家、調御、人天皆因佛事。公卿嚮慕，京師籍甚。時丞相燕國公張說、廣平宋璟、尚書蘇瓌、兗國陸象先、祕書監賀知章、宣州涇縣令萬齊融、皆以同聲並為師友，雖支許之會靈嘉，宗、雷之集廬岳，未云多也。《四分律》者，後秦三藏法師梵僧佛陀耶舍傳誦中華，與羅什法師共為翻譯，今之講授，自此員來。魏法聰律師始為演說，聰授道覆，覆授光。洎隋朝相部勵律師作疏十卷，西京崇福寺滿意律師盛傳此疏，付授亮律師。其所傳授一，一依勵律師疏及唐初終南宣律師《四分律鈔》三卷，詳略同異。自著《發正義記》十卷。明兩宗之踳駁，發五部之鈐鍵。後學開悟，夜行得燭，前疑泮釋，陽和解冰，佛日昭晰而再中，法棟崢嶸以高峙。《發正記》中〈斥破南山持犯〉中可見也。二十五年，仗錫東歸。明年詔置開元寺，長史張楚舉為寺主，因而居焉。一聲振京華，道高吳會，布大慈以攝眾，修萬行以表儀。順風問道者輻擊肩摩，函丈請益者波委雲萃。虛受之量，隨而演說，故前後講《四分律》三十五遍，《刪補鈔》二十餘遍焉。江淮釋子受木叉者，非一登壇，即不為得法，從持僧律。蓋度人十萬計矣。至德之際，國步多艱，緇徒慢法，罕率經教。國相王公出鎮於越，以一德名素高，請為僧統。一變清淨，大闡熏修，浹旬之間，迴邪入正。善誘潛化，皆此類焉。始者一入關謁明達法師，目之曰：「汝人中師子也。」又遇遵善寺尼慈和，歌曰：「曇一師，解毘尼，大聰明，更無疑。」為達人之所諺多矣。天寶十四載，淞河潮水南激錢塘，大雲伽藍當茲湍[泳-永+旱]，因請一講律，學徒千人咸發大願。每上，念《摩訶般若》，乃止濤激，以福伍胥龍王。用茲莊嚴，祈於衛護。五月晦夜，惚恍之間，見一神人，衣冠甚偉，稽首謝曰：「蒙垂法施，即改波流。」未逾九十日，漲沙五十里，道俗驚歎，得未曾有。一蔚為法主，大揚教跡，發明前佛之付囑，保證後佛之護念。四句作偈，受持者了於未了；一音演法，諦聽者聞所不聞。非夫天地淳精，江山粹靈，與法作程，問世而生。孰能玄通密證如此其大者乎？寺中洪鐘，一所作也，遠徵覺氏，近法雷門。生存累年，匠其規制，歿後三日，成於鎔造，聲應百里，扛乎萬鈞，蒲牢叫而地震，師子吼而山嶽，警悟輿俗，導引迷方，胡可言也！法謝形離，薪盡火滅，以大曆六年十一月十七日遷化於寺之律院，報齡八十，僧臘六十一。即以明年十一月二十四日遷座於秦望山，從先和尚之塋也。一春秋已高，精爽逾勵，既不衰憊，初無疾苦。忽謂侍者曰：「吾將掃禮墳塔，歸骨於此。」數日之後，奄然而終。江淮之南，河洛之表，衣縗制服，執紼送喪，號哭滿山，旛華蔽野，比夫

劇孟之母送車千乘，孔丘之墓栽樹萬株，可同年哉！門人越州妙喜寺常照、建法寺清源、湖州龍興寺神玩、宣州隱靜寺道昂、杭州龍興寺義賓、台州國清寺湛然、蘇州開元寺辯秀、潤州棲霞寺昭亮、常州龍興寺法俊等，早發童蒙，咸承訓誘，三千弟子仰梁木而增悲，八萬門人望梅檀而不及。時會稽徐公浩素敦鄉里之舊，為碑頌德焉。大曆十一年也。

宋高僧傳卷第十四

宋左街天壽寺通慧大師賜紫沙門贊寧等奉 勅撰

明律篇第四之二(正傳十九人附見三人)

唐餘杭宜豐寺靈一傳

釋靈一，姓吳氏，廣陵人也。神清氣和，方寸地虛，與大和元精合其純粹。年肇九歲，僻嫌朽宅，決入梵園，墮息慈之倫，稟出家之制。暨乎始冠，受其具足，學習無倦，律儀是修。示見談笑，欲明解脫。示人文藝，以誘世智。初不計身中有我，我中有身。德全道成，緣斷形謝，以寶應元年冬十月十六日，寂滅於杭州龍興寺，春秋三十五，凡滿十五安居。臨終，顧謂弟子行茶毘法，樹小浮圖焉。時左衛兵參軍李紓、嘉興縣令李湯、左金吾衛兵曹參軍獨孤及相與悼梁木之既壞，慮陵谷之當遷，後之人禮應真之塔婆，昧應真之德行，故刻石於武林山東峯之陽也。一家富貨殖，既而削髮，推千金之產，悉讓諸孤昆弟，所取者惟納衣錫杖。自爾叩維揚法慎師，學相部律，造乎微而臻乎極。友善者慧凝、明幽、靈祐、會稽曇一、晉陵義宣，同門三益，作者七人也。一咳唾塵境，繼日經行，宴坐必擇山椒樹下。初舍于會稽山南懸溜寺，接禪者隱空、乾、靖，討論第一義諦。或遊慶雲寺，復居餘杭宜豐寺。寺隣青山，門對佳境，罔然獨往。「暴風偃山，正智不動；巨浪沃日，浮囊不飄」。於是著《法性論》，以究真諦，此一之了語也。每禪誦之隙，輒賦詩歌事，思入無間，興含飛動。潘、阮之遺韻，江、謝之闕文，必能綴之，無愧古人。循循善誘，門弟子受教，若良田之納膏雨焉。一跡不入族姓之門，與天台道士潘志清、襄陽朱放、南陽張繼、安定皇甫曾、范陽張南史、吳郡陸迅、東海徐嶷、景陵陸鴻漸為塵外之友，講德味道，朗詠終日。其終篇必博之以文，約之以修，量其根之上下而授之藥焉。一居寺高隅，初無井泉，一旦呀然而涌，噴金砂之溜於庭之左右，挹之彌清，[奩*斗]之無竭，蓋精至之感矣。詩行於世，有選其尤者入《間氣集》焉。

唐吳郡東虎丘寺齊翰傳

釋齊翰，字等至，吳興沈氏之子。高祖陳國子祭酒，曾祖隋魏州司馬，祖、考三世不仕。翰綺歲從父至山寺，蹈高靜無塵之躅，惻然有宿命之知，固請捨家。至天寶八載八月五日奉制度，配名永定

寺。九載十月，躋五分壇納形俱戒，移名開元。大曆中轉隸武丘，皆兩州道俗所請從命也。翰道性淵默，外則淡然。迹不近名，身不關事，長在一室，寂如無人，豈比夫駢行鼓簧之士哉？顓門相部義疏，精敏罕儔。明《法華經》，主蘇湖戒壇，每當請首，則今時所謂「壇長」也。大曆十年入流水念佛道場，是夜西方念中頓現，蓋純誠之所致也。即以其年終於本院，春秋六十八，法臘二十六。翰遇疾之日，謂門弟子曰：「有鶴從空飛下，迴翔我前，爾曹見乎？必謝之期，小聖猶病，安能免哉？」受業門人如隱、戒壇宣兌等。與吳興皎然結法門昆弟之交，俱高潔，難可輕慕焉。

唐潤州招隱寺朗然傳

釋朗然，俗姓魏，世襲冠冕，其先隨東晉南渡，則為南徐人也。開元中入道，受業於丹陽開元寺齊大師。天寶初受具於杭州華嚴寺光律師。後徙靈隱寺，依遠律師，通《四分律鈔》，重稟越州曇一律師，精研律部，講訓生徒，四遠響應。肅宗至德二年，恩命舉移，隸名於慈和寺。上元中，刺史韋儂又請為招隱統領大德。即以其年講授之暇，著《古今決》十卷，解釋《四分律鈔》數十萬言，繁雜義例，條貫甚明，大行於世。觀其先列古人之義，有所不安，則判斷之，故號「決」也。《決》中自序：初依天竺威律師學習，復從遠、一二師也。凡戒壇則二十六登。皆為壇席之主。《律鈔》凡二十八過講。有饋遺者隨豐薄，受而轉施悲、信二田。凡於教理，披文究義，皆言宿習之力也。執持戒檢，斯須不違。大曆十二年冬癸卯，趺坐如常，恬然化滅，時年五十四，僧臘三十五。越十三年春辛酉，建塔於山西原，縗麻之徒泣血千計。高行弟子清浩、擇言等。請益弟子御史中丞洪府觀察使韋儂、吏部員外李華、潤州刺史韓賁、湖州刺史韋損、御史大夫劉暹、潤州刺史樊冕，皆歸心奉信。屯田員外郎柳識為碑頌焉。

唐越州稱心寺大義傳

釋大義，字元貞，俗姓徐氏，會稽蕭山人也。以天授二年五月五日，特稟神異，生而秀朗。七歲，父訓之以經典，日可誦數千言。年十二，請詣山陰靈隱寺求師，因習內法，開卷必通，人咸歎之。屬中宗正位，恩制度人，都督胡元禮考試經義，格中第一。削染，配昭玄寺。自茲聽習，旁瞻玄儒。開元初，從吳郡圓律師受具。復依本州開元寺深律師，學《四分律》指訓。義因遊長安。深公已亡，乃摳衣法華寺玄儼律師，其俊邁出倫。儼云：「於今傳法，非

子而誰？」及稱心本寺超律師請為寺任。開元中喪親，誓入天台佛隴轉藏經，答劬勞也。天寶中遂築北塢之室，即支遁沃州之地也。初夢二梵僧曰：「汝居此與二十日。」至寶應初，復夢曰：「本期二十日，今滿矣。魔賊將至，不宜更處。」無何，海賊袁晁竊據剡邑，至于丹丘。義因與大禹寺迥律師同詣左谿朗禪師所，學止觀，而多精達。前後朝貴歸心者，相國杜鴻漸、尚書薛兼訓、中丞獨孤峻。洺州刺史徐嶠、次徐浩，皆宗人也。以大曆己未歲五月終於本院，春秋八十九，僧臘六十三。殯於寺之北塢舊居，因造塔焉。義前後戒壇計二十七登，受戒弟子三萬餘人。終時，室中聞天樂聲，驗乎生誦《法華經》、《大涅槃經》小大乘戒本，以為口業德行，非歸兜率，不往淨土，未可議其生處也。

唐常州興寧寺義宣傳

釋義宣者，晉陵人也。宿植利根，翛然出俗，不煩師訓，砥礪厥心。納法後，孜孜律科，時無虛度。玄儒旁綜，長在篇章，卒問捷給。而稟延陵恭讓之風，雅得毘尼之體。初揚州法慎傳於舊章，淮甸之間，推為碩匠。天寶初，宣斂衽摳衣，諮詢彌久，輩流率服。慎且歎賞曰：「可畏乎！」宣講終南《事鈔》，請業于周律師之庭，考覈尤精，乃著《折中記》六卷以解之。蓋慊融濟、寧、勝諸師有所紕謬故也。使是非各盡其分，人免據宗而阿比，從此立稱耳。毘陵多名士僧，有三宣，慧、德、義是歟。時於江都習業，與會稽曇一、閩川懷一、慶雲靈一同門為朋也。晉陵既有三宣，慎門復出三一焉。江表資為美談。宣天寶末盛行化導，罔究其終。系曰：夫名以制義，所出無窮，奈何師資踵武，而犯教祖之諱乎？通曰：「《春秋》貴賤不嫌同號也。」或曰：「滕、齊不敵，俱書『侯』，乃曰『不嫌同號』。號與名豈得例諸？」通曰：「號大不嫌，名小豈嫌乎？矧以義宣始為名者，安知弟子成事於南山之門邪？然出家者必也無妨。一則姓既以華從梵，咸稱釋氏。一則西域無諱，此合從旃。且諱者周人以事鬼神，夏商無諱明矣。況乎宣師已生兜率，小為天人，大為菩薩，豈宜以鬼神事之？致令唐初高德勝士，往往止存一字名，職由諱之極矣。屬今修撰，乃闕文也。乃知真諦無諱，俗諦聞似則懼。」或曰：「今沙門姓既為釋，名復不諱，言我不隨俗諦，云何對君主稱臣？莫西域有否？」通曰：「姓名不對王者，臣妾表疏合然。昔齊帝問王儉，遂令對見稱名，自漢至唐。肅宗朝始見稱臣，由此沿而不革。良以沙門德薄，日就衰微，一往無復矣。又以法委國王，誠難改作。王謂為是，楷定莫移。故佛言『雖非我制，諸方為清淨者，不得不行也。』」

唐蘇州開元寺辯秀傳

釋辯秀，俗姓劉氏，漢楚王交三十一代孫也。秀幼孤，諸父哀字，禮如教立，孝自天生。而宿植緣深，心田欲稔；因請伯氏，出家長行，哀而捨旃。事靈隱某禪師，便能問津，圖入道之意。所聞指訓，如涼風入懷，醒然清悟。天寶四年，受戒於東海鑒真大師，傳律於會稽曇一。至德中舉高行，隸名於吳郡開元寺。乾元中，下詔天下二十五寺，各定大德七人，長講戒律，秀應其數也。頃年於淨土一門，不愆于念。嘗謂人曰：「昔聞西方之行是有相大乘，此乃蓬心不直，非達觀之說。何邪？夫出言即性，發意皆如，而一色一香，無非中道，況我正念乎？」秀壇場一十六番，度人孤制，律樞正持，僧綱自胥，湖南、北皆宗仰焉。以建中元年六月十五日寢疾而終，春秋六十七，法臘三十五。當其逝日，有庭樹一本，枝葉扶疎，朝華正敷而遽萎瘁。其年七月五日，遷靈龕於武丘西寺松門之右。門人道亮、道該、清會，偕遶旃檀之香樹也。故觀察使韋元甫、李棲筠、虢州刺史李紓、御史中丞李道昌盡欽慕往德，亦林下之交。霽晝為碑頌焉。

唐京師安國寺如淨傳

釋如淨，不詳何許人也。甫參法位，當納戒律，明練毘尼，砥礪名節。時恒講勗，徒侶雲屯。辭筆偕長，博達儒典。先是關中行智首律師《四分律疏》，魏郡法礪律師著《疏》別行。爾時關輔河北，各競宗派，微似參、辰。隋末唐初，道宣律師以首《大疏》為本，造《刪補律鈔》三卷，稍為會要，行事逗機。貞觀已來，三輔、江淮、岷蜀多傳唱之。次樊三藏弟子懷素者，先習《鈔》宗，後委棄宣、礪之學，於咸亨年中別述《開四分律記》，後號「新章」歟。至代宗大曆中，新章舊疏，互相長短。十三年，勅集三宗律匠，重定二家隆殺，時淨推為宗主，語在〈圓照傳〉。至建中二年，奏二疏並行，淨之力也。蓋以國相元公載篤重素公，崇其律教，乃命淨為新疏主作傳焉。

唐漢州開照寺鑑源傳(慧觀)

釋鑑源者，不知何許人也。素行甄明，範圍律道，苾芻表率，何莫由斯。後講《華嚴》經，號為勝集，日供千人粥食，其倉篋中米粟纔數百斛，取之不竭，沿夏涉秋，未嘗告匱，其冥感如此。其山寺越多徵應，有慧觀禪師見三百餘僧持蓮燈，凌空而去，歷歷如流星

焉。開元中，崔冀公寧疑其妖妄，躬自入山宿，預禁山四方面各三十里火光。至第三夜，有百餘支燈現，兼紅光可千尺餘。冀公蹶然作禮，歎未曾有。時松間出金色手，長七尺許，有二菩薩黃白金色閃爍然。復庭前柏樹上，晝現一燈，其明如日，橫布玻瓈。山可三里所，寶珠一顆圓一丈，熠燿可愛。西嶺山門懸大虹橋，橋上梵僧、老叟、童子間出，有二炬爛然空中，如相迎送交過之狀。下有四菩薩，兩兩偶立，放通身光，可高六七十尺。復見大松林後忽有寺額，篆書「三學」字。又燈下垂繡帶二條。東林之間，夜出金山。月當于午，金銀二色燈列於知鉉師墳側。韋南康臯每三月就寺設三百菩薩大齋，菩薩現形捧燈，僧持香燈引挹之，鑪在寺門矣。白中令敏中覩瑞，興立此寺。大中八年，改額曰開照。源律師道化，與地俱靈哉！弟子傳講，東川所宗也。

唐吳郡雙林寺志鴻傳

釋志鴻，俗姓錢氏，湖州長城下若人。本名儼，志鴻字也。少出俗于石門鄉寺，則梁靜林也。削染受具訖，往茂苑，親道恒師盛集，研覈精微。時曇清、省躬，互相切磋，卒成洪緒。然慊先德釋南山《鈔》商略不均，否臧無准，捕蟬忘後，補袞不完。囊括大慈、靈寧已下四十餘師記鈔之玄，勒成二十卷，號《搜玄錄》。大曆中，《華嚴疏》主澄觀披尋，乃為序冠于首。然其解判不無所長，其如科節繁碎，是其短也。春秋一百有八歲，勅署為長壽大師焉。近世止行其字而已。今雙林累遭兵革，加以水潦，碑碣失蹤，闕於言行也。吁！其儼公氏族本生必與南山宣律師相同，亦為美事矣。

唐京兆安國寺乘如傳

釋乘如，未詳氏族。精研律部，頗善講宣，繩準緇徒，罔不循則。代宗朝翻經，如預其任。應左右街臨壇度人，弟子千數。先是五眾身亡，衣資、什具悉入官庫，然歷累朝，曷由釐革。如乃援引諸律：出家比丘生隨得利，死利歸僧，言其來往本無物也。比丘貪畜，自茲而[女*省]者，職由於此。今若歸官，例同籍沒。前世遺事，闕人舉揚。今屬文明，乞循律法，斷其輕重。大曆二年十一月二十七日勅下，今後僧亡，物隨入僧，仍班告中書門牒，天下宜依。如之律匠，非止訓二眾而已，抑亦奮內眾之遺事。立功不朽，如公是乎！終西明、安國二寺上座。有《文集》三卷，圓照鳩聚流布焉。

唐襄州辯覺寺清江傳

釋清江，會稽人也，不詳氏族。幼悟幻泡，身拘羈鞅，因入精舍，便戀空門，父母沮勸，建乎難拔。禮曇一律主為親教師，諷誦經法，寓目俱通。長者品量之曰：「釋門千里駒也。」於浙陽天竺戒壇求法，與同學清源從守直和尚下為弟子。還聽習一公《相疏》并南山《律鈔》。間歲，精義入神，舉皆通暢。而善篇章，儒家筆語，體高辭典，又擅一隅之美，時少倫儼。其褊燥之性，不與人類。嘗於一公少因不足，亦有捨和尚之譏。由是遊方服勤，凡云律筵，無不預者。自責己曰：「天下行半，少有如我本師者。」還會稽，一公猶老，當其僧大集時，擊木唱：「某再投和尚攝受。」時一公詬罵，江兩淚而懺悔曰：「前念無知，後心有悟，望和尚大慈，施與歡喜。苟不許收，則越人不可以強售章甫也。」一公憫其數四求哀，乃曰：「為汝含垢。」遂為師資如初。江有禪觀之學。大曆八年於汝瀆遇忠國師，因弟子說自忠曰：「此律師是和尚鄉人。」乃欣然相會，尋往南陽，再謁國師，密傳心要焉。系曰：江嘗為《七夕詩》，或謂之四背中一背也。通曰：「詩人興詠，用意不倫。慧休《怨別》，陸機《牽牛星》，屈原《湘夫人》，豈為色邪？皆當時寓言興類而已。若然者，言火則焚口，說食則療飢也矣。江之捨師，後乃揚師之美，反權合道也。實為此詩警世無常，引令人佛智焉。其故何也？詳江遇忠國師大明玄理，無以域中小乘法拘之哉！」

唐會稽雲門寺靈澈傳

釋靈澈，不知何許人也。稟氣貞良，執操無革，而吟詠性情，尤見所長。居越谿雲門寺，成立之歲，為文之譽襲遠。講貫無倦，生徒戾止如闐闐焉。故祕書郎嚴維、劉隋州長卿、前殿中侍御史皇甫曾，覩面論心，皆如膠固，分聲唱和，名散四陬。澈遊吳興，與杼山畫師一見為林下之遊，互相擊節。畫與書上包佶中丞，盛標揀其警句最所重者：「《歸湘南作》則有『山邊水邊待月明，暫向人間借路行，如今還向山邊去，唯有湖水無行路』句。此僧諸作皆妙，獨此一篇，使老僧見，欲棄筆硯。伏冀中丞高鑒深量，其進諸乎？其捨諸乎？方今天下有故，大賢勤王，輒以非急干請視聽，亦昭愚老僧不達時也。然澈公秉心立節，不可多得，其道行空慧，無慚安遠。復著《律宗引源》二十一卷，為緇流所歸。至於玄言道理，應接靡滯，風月之間，亦足以助君子之高興也。」其為同曹所重也如此。晝又齋詩附澈去見，佶禮遇非輕。又權德輿聞澈之譽，書問晝

公，迴簡極筆稱之。建中、貞元已來，江表諺曰：「越之激，洞水雪。」可謂一代勝士，與杭標、霽晝分鼎足矣。不測其終。

唐揚州慧照寺省躬傳

釋省躬，睦州桐廬人也。為童強識，耆宿呼語，怪其志大而言高。每厭樊籠。忽投聖德寺慕道從師，勅恩得度。性靈天發，於毘尼道，學如溫習。復擇名師，得姑蘇開元道恒師。恒曰：「甚矣！吾得躬也，門人日益親。」及乎探蹟精微，愈征愈遠。時有擊論互指為迷者，必請見躬為其判之，坐分曲直。諺曰：「義盡省躬。」言到躬義無不盡也。其博綜律乘，扞禦師門也若此。恒曰：「自吾有躬也，惡言不聞矣。」躬避席葉拱而對曰：「某不佞也，仰師之道，若採扶桑以啖[蠱-春+原]蠶。所患者，未能嘔繁絲以報主耳。」恒曰：「視子吐園客五色絲，可供黼繡之資。言太謙矣。」晚赴維揚之召，廣訓徒焉。然其滿口雌黃，品藻否臧古今之義。生徒明敏者各錄之。都加潤色，號《順正記》十卷，行之。復著《分輕重物儀》別行，沿襲《十三章門條例》，外加近世現有物之重輕，頗為要用。躬復高儒學，作碑頌越多，以其曾化邗溝，故呼淮南記主，自號清冷山沙門焉。

唐吳郡包山神皓傳(維亮)

釋神皓，字恒度，姓徐氏。八代祖摛，齊竟陵王西邸學士。子陵，梁尚書左僕射，其文與庾子山齊名，迨陳國亡，因佐吳邑，遂家姑蘇。皓乃為吳郡人也。天性耿潔，風韻朗邁。幼負脫俗之姿，尋依錢塘龍泉道場一公出家。天寶六年，降版詔精擇真行，一州許度三人，皓居薦首，因隸僧籍于包山福願道場。初進具於興大師，次通《律鈔》於曇一。後十講《律鈔》，五昇壇場。遂乘舟歸包山，使野叟誅茅，山童掃石，逍遙棲息。旋增修屋宇。乾元元祀，有詔天下二十七寺，各奏大德七人，長講戒律。因請住開元寺，欲果其願，且懼簡書，遂僂俛從命。奉戒弟子開州刺史陸向、前給事中嚴浚，服道弟子禮部侍郎劉太真、前大理評事張象，欽風弟子前廉使亞相李棲筠請綱任海隅。一邑緇伍，三變至于道。末年工於圓宗，別置「西方法社」，誦《法華經》九千餘部。貞元六年十月開元寺遇疾，至十二月，顧囑弟子維亮曰：「我棄世後，可歸洞庭故山置塔。」說法而終。是夜瑠璃色天，星靄如雨，西方兆暎，密現于前。春秋七十五，僧臘四十三。門人維亮有文有道，獨步當時，執

師之喪，不以證而廢教也。傳法弟子道超、靈俊、道濬、道稜、維讓、維誠，皆一時英邁。誓畫為墳塔碑頌美云。

唐京師安國寺藏用傳

釋藏用，不詳何許人也。從其拔俗，依棲嵩山空公為師。及乎年當應法，即於汾川炬律師所受上品形俱法。登詣洛中業公講肆，研覈律文，循其奧妙，無所不臻。洎聞有禪觀之學，遂登廬陟霍，涉漢泛湘，望雙峯之叢林。又歸，開法京輦，道既精粹，訓且均敷，藹然為物楷模，嚮風宗重。當建中中，已全三十許臘。尋應詔充臨壇首席，相繼度弟子越多。及居東城化塔，乃代宗之邸第也，推用主其綱任。苾芻至息慈，皆遵畏愛焉。席熊延客，揮麈開談，指衡山石也，有以識前身；傳曹谿鉢也，有以知後際。是以門多長者之轍，室滿度人之籌，益物良深，坐鎮雅俗。貞元中，左司正郎王錡、南臺崔公繼和之。如是數公將議標題，兵部正郎程浩作都序，職方正郎知制誥吳通微書之，四年戊辰歲也。用公長於律學，急護任持。為上都之表則也。

唐湖州八聖道寺真乘傳

釋真乘，姓沈氏，德清人也。厥父玄望孝廉舉調兗州司馬。母氏妊乘，有神光異氣之祥。識者言「沈氏必大其閥閱」。暨誕生也瓌偉，長與宗族諸子雜處，若群草中之琪樹焉。總丱之後，司馬以文學喻之，令修官業，且愀然如有不得已之色。居處翫戲，則以佛像班布。父觀其宿習，果請出家。屬顏魯公許試經得度，時已暗誦五百紙。比令口諷，一無差跌，大見褒異。落髮配住八聖道寺，得戒後，於通玄寺常進師所綜習毘尼。進公見其俊邁也，誡同門曰：「乘雖少齡，不可以伯仲齒之。」後西上京師雲華寺，學《法華》、天台《疏義》，大著聲望。又章信寺眾僧辟其講發，醉千日者一聽而自醒，迷終身者暫聞而永悟，經宗律柄，兼講無虧，籍甚緇行，烜赫京邑。貞元十一年，功德使梁大夫以德宗亟幸安國寺，奏乘移隸，以備應對，充供奉大德數焉。時本師無滯亦以道業，實蒙恩渥，奏舉乘為國祈福。無滯忽夢乘捧一白蓮華南去。無何，乘果疾，乞歸田閭，勅允。既還鄉里，本郡守李公錡、田公敦、浙東率薛公戒，或踵門而勸登法座，或馳簡而延蒞戒壇。乘迫以法緣，悉所勉強，以是八為律學座主，四為臨壇正員。凡訓授度人，或巾屨結緣，一無所受。遊五臺山，禮文殊聖容，所見瑞相，不可勝言。後在護國寺禮《佛名經》一百周。懺法之餘，撰《法華經解疏

記》十卷。以元和十五年冬十月示疾而終於本寺。乘精于律法，長於演說。以長慶二年十月十三日焚身于韶村西隅，遵遺命也。萬年縣尉王甄為碑述德焉。

唐杭州靈隱山道標傳

釋道標，富陽人也。俗姓秦氏，其遠祖與嬴同姓，世為汧隴大族。及晉東渡衣冠隨之，後為杭人也。其高、曾至王父，皆沿以儒素，不甘為吏，故州里尊奉之。標生則孤明，長而深趣，老而堅固，蓋良善之因有自來矣。年七歲時，神清氣茂，不雜凡童。條有大沙門手摩其頂曰：「此孺子目秀如青蓮，得非我釋氏之威鳳乎？苟能捨家，必有善稱。不然乘雲霓，薄天漢，吾不可得而知也。」父允其請，遂為靈隱山白雲峯海和尚弟子。妙高之上，唯日月是麗；娑竭之宮，固雲雷斯蓄。至德二年，詔「白衣通佛經七百紙者，命為比丘」。標首中其選，即日得度，蒙配天竺寺焉。永泰初受具品於靈光寺顓律師。登以護戒嚴謹，為時所推。毘奈多羅之言，罔不該貫。凡度人戒計六壇，為眾糾繩經一十二載。置田畝歲收萬斛，置無盡財，與眾共之。貞元中以寺務克豐，我宜宴息，乃擇高爽，得西嶺之下，葺茅為堂，不干人事，用養浩氣焉。標經行之外，尤練詩章，辭體古健，比之潘、劉。當時吳興有晝，會稽有靈澈，相與訓唱，遞作笙簧。故人諺云：「霽之晝，能清秀；越之澈，洞冰雪；杭之標，摩雲霄。」每飛章寓韻，竹夕華時，彼三上人當四面之敵。所以辭林樂府常采其聲詩。由是右庶子姑臧李公益書云：「重名之下果有斯文。西還京師，有以誇耀。」又景陵子陸羽云：「夫日月雲霞為天標，山川草木為地標，推能歸美為德標，居閑趣寂為道標。」名實兩全，品藻斯當。爾後聲價軼於公卿間，故與之深者有相國李公吉甫、大司空嚴公綬、右僕射韓公臯、禮部侍郎呂公渭、滑亳節制盧公群、襄陽節制孟公簡、同州刺史李公敷、鳳翔尹孫公璿、浙東廉使賈公全、中書舍人白公居易、隋州刺史劉公長卿、戶部侍郎丘公丹、外郎裴樞、祕閣嚴維、小諫朱放、越廉問薛戎、夕拜盧元輔、常州釋元浩、潤州釋南容、金華釋乾輔、吳門釋光嚴、上都釋智崇等，並心交塵外，分契林中。萬境在空，驅之為射御；五峯滿眼，立之為疆場。文雄而再鼓不衰，神王而一戰自勝者也。以長慶三年示有微疾，六月七日歸滅于所居蘭若。至冬十月三日，葬于舊山，春秋八十有四，法臘五十八。弟子如玢、如辯、行儉、省言、常儉、智猷、日超等，皆得師之法，倣仰不遑。空圍遶於栴檀，恨滿盈於石室，至今杭民謂之西嶺和尚矣。開成五年中鄭素卿錄德行刊碑頌，立于天竺山之東墟存焉。

唐衡嶽寺曇清傳

釋曇清，未詳何許人也。幼持邊幅，罔或迷方，以謹昏叟，究窮佛旨。乃負笈來吳北院道恒宗師法會，與省躬猶滕、薛之前後也。旋留南嶽化徒，適會元和中閬州龍興寺結界，時義嵩講素新《疏》，傑出輩流，因云：「《僧祇律》云：『齊七樹相去，爾所作羯磨者，名善作羯磨。』準此四面，皆取六十三步等，如是自然界約，令作法界上僧。」須盡集時，清遂廣徵難。如是往返，經州涉省，下兩街新、舊章、南山三宗共定奪，嵩公虧理。時故相令狐楚猶為禮部外郎，判轉牒，據兩街傳律斷曇清義為正，天下聲唱「勇執紀綱，清能干城矣」。後著記號《顯宗》焉。

系曰：清公南山宗崛起別峰，人咸景仰，與嵩、悟二公遇于必爭之地，清果得俊。矧夫閬苑也，僻用律文，三隅不反。既成圖狀，學者流傳，致其嵩公如填海底。至大中中玄暢公荐加褒貶，貶嵩又轉沈尾閭中矣。

唐京師西明寺圓照傳(利言)

釋圓照，姓張氏，京兆藍田人也。年方十歲，篤願依西明寺景雲律師。雲亦一方匠手，四部歸心。照當應法，乃受近圓，謹愿執持，如懷寶器。尋究經論，訪問師承，《維摩》、《法華》、《因明》、《唯識》、《涅槃》、《中觀》、《華嚴》新經，或深入堂皇，或略從染指。仍旁求於儒、墨，兼擅美於〈風〉、〈騷〉。律藏珠珍，專探日用。後則霜壇乘法，雁序度人。洎乎開元年中，勅選名德僧參其譯務，照始預焉。至代宗大曆十三年，承詔兩街臨壇大德一十四人齊至安國寺，定奪新、舊兩《疏》是非。蓋以二宗俱盛，兩壯必爭，被擒翻利於漁人，互擊定傷於師足。既頻言競，多達帝聰，有勅令將二本《律疏》定行一家者。時照等序奏云：「按《四分律》部主，梵云曇無德，秦言法藏。自姚秦弘始五年壬寅歲罽賓三藏佛陀耶舍，秦言覺明，諷出梵文，沙門竺佛念聽而筆受，成四十五卷。至十一年歲次戊申，支法領又從西國將梵本來，於長安中寺重讎校，殆十四年辛亥譯畢，沙門慧辯等筆受，成六十一卷。後有魏朝道覆律師於法聰講下纂成《疏》六卷，北齊慧光律師造《疏》二本，次道雲律師修《疏》九卷，次道暉撰《疏》七卷，隋朝法願裁《疏》十卷。自唐平一天下也，四方昌阜，三寶增明，有智首律師述《疏》二十一卷，次慧滿律師造《疏》二十卷，事各一時流通絕矣。當武德元年戊寅歲，有相州日光寺法礪律師製《疏》，至九年丙戌歲成十卷，宗依《成實論》，今稱《舊疏》是

也。洎高宗天皇大帝咸亨元年歲在庚午，有西太原寺懷素律師撰《開四分律宗記》十卷，宗依根本一切有部《大毘婆沙》、《俱舍》等論，稱《新章疏》是也。至我皇帝受佛付囑，欽尚釋門，信重大乘，遵承密教。見兩《疏》傳授，各擅顯門，學者如林，執見殊異，數興諍論。聖慈愍念，務息其源，使水乳無乖，一味和合。時遣內給事李憲誠宣勅勾當京城諸寺觀功德使鎮軍大將軍劉崇訓。宣勅云：『《四分律舊疏》、《新疏》宜令臨壇大德如淨等於安國寺律院僉定一本流行。』兩街臨壇大德一十四人俱集安國寺，遣中官趙鳳詮勅尚食局索一千二百六十人齋食并果實解齋粥一事，已上應副。即於安國寺供僧慧徹、如淨等十四人，并一供送充九十日齋食，用茶二十五弗，藤紙、筆墨，充大德如淨等僉定律疏用，兼問諸大德各得好在否？又勅安國寺三綱：『僉定律疏院，一切僧俗輒不得入。違者，錄名奏來』云。其時天長寺曇邃、淨住寺崇叡、西明寺道邃、興泚、本寺寶意、神朗、智釗、超儕、崇福寺超證、薦福寺如淨、青龍寺惟幹、章信寺希照、保壽寺慧徹、圓照共奉表謝。」答詔云：「師等，道著依經，功超自覺，承雪宮之旨奧，為火宅之涼颯。《四分律儀》，三乘局鍵，須歸總會，永息多門。一國三公，誰執其咎？初機眩曜，迷復孔多。爰命有司俾供資費，所煩筆削，竚見裁成。所謝知悉。」其日品官楊崇一宣勅「薦福、溫國兩寺三綱與淨土院檢校僧等嚴飾道場。命僧行道，用五十四人，起今月一日，轉經禮佛，六時行道，至來年二月一日散。其設齋食料一事已上，令所司祇供。宜各精誠，問師等好在。」及解道場，中官李憲誠宣勅語「溫國寺轉念道場《四分律》臨壇大德等：釋門三學，以心印相傳，無上菩提，以戒法為根本；道場畢日，即宜赴大安國寺楷定《律疏》，十道流行。」至二月八日，勅檢校道場大德曇邃、飛錫等，道場定取十日散，設齋外，各賜絹帛。其十四人律師，並令赴安國寺修《疏》，程才品用，各得其宜。眾推如淨、慧徹同筆削潤色，圓照筆受正字，寶意纂文僉定，超儕筆受。其崇叡已下九人證義，共議篇題云「《勅僉定四分律疏卷第一》，京城臨壇大德某等奉詔定」，以此為題也，照為首唱，諸公和之。其間厥義非長，若農夫之去草；其義合理，猶海客之采珠。可謂名解毘尼，不看他面。俄屬德宗即位，改元建中，其年五月《疏》草畢。六月望，勅圓照依國子學大曆新定字樣抄寫進本。至十二月十二日送祠部進《新僉定疏》十卷。仍乞新舊兩《疏》許以並行，從學者所好，勅宜依照，務其搜集，專彼研尋。著《大唐安國寺利涉法師傳》十卷、集《景雲先天開元天寶誥制》三卷、肅宗代宗《制旨碑表集》共二卷、《不空三藏碑表集》七卷、《隋傳法高僧信行禪師碑表集》三卷、《兩寺上座乘如集》三卷、《僉定律疏一行制表

集》三卷、《般若三藏續古今翻譯圖紀》三卷、《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音義》二卷、《三教法王存沒年代本記》三卷(上卷明佛、中道、下儒也)、《翻經大德翰林待詔光宅寺利言集》二卷、《再修釋迦佛法王本記》一卷、《佛現八相身利益人天成正覺記》一卷、《判方等道場欲受近圓沙彌懺悔滅罪辯瑞相記》一卷、《五部律翻譯年代傳授人記》一卷、《莊嚴寺佛牙寶塔記》三卷、《無憂王寺佛骨塔記》三卷、《傳法三學大德碑記集》十五卷、《建中興元貞元制旨釋門表奏記》二卷、《御題章信寺詩太子百寮奉和集》三卷、《貞元續開元釋教錄》三卷。照自序云：「伏以開元十八年歲在庚午，沙門智昇修撰《釋教錄》，洎乎甲戌，經六十五年，中間三藏翻經，藏內並無收管，恐年代浸遠，人疑偽經。又先聖大曆七年許編入，制文猶在。」時帝勅宜依。至今江表多集此集中經而施用焉。照於律道，頗有功多。肅、代二朝，尤為傑立，累朝應奉，賜紫，充臨壇兩街十望大德、內供奉、檢校鴻臚少卿，食封一百戶。後終于別院。春秋八十二，法臘五十八云。

系曰：刊正二宗，會歸一見，庶幾知有定分，不橫馳求。何以諸師却請雙行，不其惑歟？通曰：「是此舉也，則元載所請，帝乃曰俞。究其始因，乃新章也，挾力輪摧相部，獨存於我，專利於人。亦猶紀昌俄遇飛衛，併其箭術，成我材官。御大輅而廢其椎輪，得火生而焚其木母。竊量諸德，微憤不平，故奏雙行，同不僉定，則何異乎眼頭生目，匪成三點之『伊』？必須聲後知音，方驗一夔之足。因排法礪，三本生焉；舊有南山，四家出矣！又如東漢季也，滅一跋扈，生四強臣。初止政出一門，末云賂歸四貴。若然者，駢拇懸瘤，雖多無用。然則吾善用多矣。《大集經》云：『如是諸見，不妨諸佛法界及大涅槃，依之修行，皆得解脫。』此通方之大解也哉。」

宋高僧傳卷第十五

宋左街天壽寺通慧大師賜紫沙門贊寧等奉 勅撰

明律篇第四之三(正傳十九人附見二人)

唐朔方龍興寺辯才傳

釋辯才，姓李氏，襄陽人也。母氏妊之，條惡輦血，冥然一食，虛淡終辰。及其誕彌，異香盈室，宗黨怪焉。七歲依峴山寂禪師出家。厥長者明記，每受經法，必以等身為限，字不重問，義不再思。師甚器之。年十六，遂削髮，隸本州大雲寺。次乃周遊列郡，登陟名山，就荊州玉泉寺納具戒。聞長安安國寺懷威律師、報恩寺義頌律師，法門具瞻，師資表率，遂伏膺請業。有疑必決，無義不通，廁于二宗，推為上首。天寶十四載，玄宗以北方人也，稟剛氣，多訛風，列剎之中，餘習騎射，有教無類，何可止息。詔以才為教誡，臨壇度人。至德初，肅宗即位是邦也。宰臣杜鴻漸奏才住龍興寺，詔加朔方管內教授大德。俾其訓勵，革獫狁之風，循毘尼之道。復命為國建法華道場。及駕迴，既復兩京，累降璽書，末塗尤於大乘頓教留心。永泰二年，賊臣僕固懷恩外招誘蕃戎，內鼎金革。才勸勉毳裘，不誅華族。大曆三載追入充章信寺大德。時府帥虢國常公素仰才名，與護戎任公，時親道論。十三年冬，現身有疾，至暮冬八日，垂誡門徒已，安坐繩床，默然歸滅，春秋五十六。越己未歲二月遷神於寺內西北隅。先是有邑子石顯從役于城上，其夜未渠，聞管絃之聲自西至，乃天樂也。異香從空散下，則生淨方之兆也。才自長安而旋于塞上，既受虢公知遇，大營福業，成此精廬，皆才之敦勸矣。勅諡大師曰能覺，仍賜紫衣一副，追遠之榮，聲聞塞外。天復中廷尉評王儋為碑頌德云。

唐京師章信寺道澄傳

釋道澄，姓梁氏，京兆人也。父涉中書舍人。生而奇表，輒惡輦肴，出家如歸，無所顧戀。忽遇禪僧，摩頂與立名曰道澄。餅錫常隨，冥合律範，號律沙彌也。受具之後，習聽《南山律》於諸學處，微其玷缺。然性都率略，住寺不恒，或奉恩、莊嚴、草堂等寺，所到便居，護生為切。建中二年，坐夏於雲陽山，有虎哮吼入其門。澄徐語之，其虎搖尾禱耳而退。徙居章信寺，或問其故，澄曰：「出家者可滯一方乎？西域三時分房，俾無貪著，『觀門』易

立矣。不然者，豈通方廣恕乎？」貞元二年二月八日，帝於寺受菩薩戒，京甸傾瞻，賜賚隆洽，所受而迴施二田矣。五年，帝幸其寺，問澄修心法門。又勅為妃主嬪御受菩薩戒。十六年四月，勅賜號曰大圓。十九年九月十八日，終于此寺焉。

唐鐘陵龍興寺清徹傳

釋清徹，未知何許人也。周遊律肆，密護根門，即無常師，唯善是與。初於吳苑開元寺北院道恒律師，親乎闡奧，深該理致，而鐘華望，無不推稱。憲宗元和八年癸巳中，約志著記二十卷，亦鳩聚諸家要當之說，解南山鈔，號《集義》焉，或云《後堂》。至十年畢簡。今豫章、武昌、晉陵講士多行此義。嘗覽此記，繁廣是宗。徹未知其終。

系曰：徹公言行，無乃太簡乎？通曰：「繁略有據，名實錄也。昔太史公可弗欲廣三五之世事耶？蓋唐虞之前，史氏淳略，後世何述焉？今不遂富贍，職由此也。又與弗來赴告不書同也。諸有繁略不均，必祛諛讓焉。」

唐撫州景雲寺上恒傳

釋上恒，姓饒氏，臨川南城人也。童而有知，志學之年，發心捨家，從母黨在空門而求攝受，教誦佛典，日計千言。壯齒，從南嶽大圓大師納戒而聽涉精苦。大曆中，不去父母之邦，請隸于景雲寺。修習無虧，亟淹年序。《南山事鈔》，講貫尤專。貞元初，徙居豫章龍興寺，與廬阜法真、天台靈祐、荊門法裔、興果神湊、建昌慧璣遊也，塤箎合韻，水乳相資。法付王臣，故與姜相國公輔、顏魯公真卿、楊憑、韋丹四君友善。提振禁防，故講《四分律》，而遷善滅罪者無央數眾。坐甘露壇二十許年，十有八會，救拔群生，剡浮東震，男女得度者一萬五千餘人。元和十年，微云乖忤，十月己亥，化于廬山東林寺，歸全身于南岡石墳。住世七十七年，安居五十五夏。門人等樹松柏，太原白居易為石塔銘云。

唐錢塘永福寺慧琳傳

釋慧琳，字抱玉，俗姓柯，新安人也。卅齡受業于靈隱西峯，為金和尚弟子，所傳法要，斷無重問。大曆初，受具足戒於靈山會，習學三教，一領無遺。不樂聲華，止好泉石，一入天眼二十餘年。天眼即天目也，其山高三千丈，周圍三百里，與天柱、廬阜等相儔

匹。上有二湖，謂為左右目，登涉艱阻，數日乃到巔頂。多蛟龍，池潭三所。最上池，人不可近，氣臭逆人，不可久視。或說山神作白鹿形，每五月與震澤龍會，必暴風雨焉。琳居此，率多妖異，而心不撓。元和丁亥，太守禮部員外城南杜陟請出永福寺登壇。至己丑歲春，刺史兵部郎中裴常棣召臨天竺寺壇。度人畢，歸寺講訓生徒，向二十載。郡守左司郎中陸則、刑部侍郎楊憑、給事中盧元輔、中書舍人白居易、太府卿李幼公、刑部郎中崔鄩、刑部郎中路異相繼九邦伯，皆以公退至院，致禮稽問佛法宗意，染指性相。此諸名公簪組上流，辭學高度，或號毘曇孔子，或名勝力菩薩，非琳何以感動哉？太和六年四月二十五日示滅，享壽八十有三，法臘六十四。以其年五月十二日葬于今永安寺西山之陽，碼頭坡之左，石塔巋然存矣。

唐江州興果寺神湊傳

釋神湊，姓成氏，京兆藍田人也。生而奇秀，牛角出塵，遠慕戒律，祈南嶽希操師受具，復參鐘陵大寂禪師。然則志在《楞嚴經》，行在《四分律》，其他諸教，餘力則通。大曆八年，制懸經、論、律三科策試天下出家者，中等第方度。湊應是選，詔配九江興果精舍。後從僧望移居東林寺，即雁門賈遠之舊道場也，有甘露戒壇、白蓮池在焉。既居是，嗣興佛事，雖經論資神，終研律成務。湊羸瘠，視之頹然，州將門人醫療，而不願進藥。元和十二年九月遘疾，二十六日儼然坐終于寺。十月十九日，門人奉全身窆于寺西道北，祔雁門墳左——若僧詮葬近郭文之墓也。春秋七十四，夏臘五十一。湊以精進心脂不退輪，以勇健力搥無畏鼓，故登壇秉法垂三十年，一盂而食，一榻而居，衣縫泉麻，坐薦藁秸。由茲檀施臻集于躬，即迴入常住無盡財中，與眾共之。每夜捧鑪秉燭，行道禮佛，徇十二時，少有廢闕，如是經四十五載。生常遇白樂天為典午于郡，相善。及終，悲悼，作《塔銘》云：「本結菩提香火社，共嫌煩惱電泡身，不須惆悵隨師去，先請西方作主人。」

唐京兆聖壽寺慧靈傳

釋慧靈，未詳何許人也。幼脫塵機，勤從誦習，及當應法，戒品方圓，銳意毘尼，探蹟持犯，以行副解，心口相符。由是講訓，名望翕如也。人皆奉畏，神明如也。大中七年，宣宗幸莊嚴寺，禮佛牙，登大塔，宣問耆年，乃賜紫衣。其年六月，勅補靈為新寺上座矣。帝望寺西北廢總持寺，乃下勅曰：「朕以政閑賞景，幸于莊

嚴，其寺複殿重廊，連薨比棟，幽房祕宇，窈窕疏通，密竹翠松，垂陰擢秀，行而迷道，天下梵宮，高明寡匹。當建之時，以京城西昆明池勢微下，乃建木浮圖，高三百尺。藩邸之時，遊此伽藍，覩斯勝事。其總持寺，大業中立，規制與莊嚴寺正同，今容像則毀，忍草隨荒，香徑蕪侵，尚存基址。其寺宜許重建，以副予心。」三月十一日，令三教首座辯章勾當修寺，及畢工，推靈為綱任，崇聖寺賜紫叡川充寺主，福壽寺臨壇大德賜紫玄暢充都維那。靈居寺職，清眾咸序，帝所欽重。寺中常貢梨華蜜，其色白，其味愈常蠟房所取者。靈居新寺終矣。究其靈公如曾預代宗永泰中參譯證義，則可年百奇歲矣！如不見不空，良賁乃春秋夏臘無理知焉。

唐吳郡破山寺常達傳

釋常達，字文舉，俗姓顧，海隅人也。發跡何陽、大福山，遊學江淮諸勝寺。達允迪中和，克完戒法，專講南山律鈔。後求《涅槃》圓音，《法華》止觀，復通《陰符》、《老》、《莊》、百家之書，其餘分時之學，盡二王之筆迹。後隨方參禪，詣于宗極。俄屬武宗滅法，歎曰：「我生不辰，不自我後！」由是寢默山棲，委裘遁世而無悶焉。宣宗重建法幢，荐興精舍。合境民人皆達之化導，故太守韋曙特加崇重。身不衣繒纈，室唯蒙薜蘿，四眾知歸，諸方慕化，其潔白鶴鷺如也。咸通十二年，合郭僧民請紹四眾教誨。或遊遨坳牧，或嘯傲海壖，不出林麓，動經數載。雖貴士單車詣門，莫得而見。於七五言詩，追用元和之體著《青山履道歌》，播人脣吻。忽於自恣明辰，鳩眾於長廊，合掌遂申長別，辭甚剛正。因臥疾不起，絕食七日而逝，實咸通十五年九月十六日也，春秋七十四，僧臘五十一。門人會清、傳郎奉靈柩殯于寺之東南三百步。後年即墳起塔，潁川陳言撰塔銘，邑大夫汝南周思輯為檀信，乾符四年立碑焉。

唐越州開元寺丹甫傳

釋丹甫者，不知何許人也。性多警達，言必剛直，講授唯勤，執持雅正。會稽風土，律範淵府也。甫之唱導，從之者若玄金之就礪石焉。本習業於巨文律師法集，文即省躬之游夏也，甫即躬之嗣孫。順正命章，幹通祕蹟。越自曇一、玄儼之後，罕能追躡，甫之聲塵邁于前烈。然爾時允文匠手，相部風行，甫介于大律之間，行事之時，草從風偃焉。咸通末出門生智章等傳講，今亦法嗣存焉。或聞著《手記》，尋且未獲，吁！惜哉！

唐吳郡嘉禾靈光寺法相傳

釋法相，姓俞氏，吳長水人也。天寶中誕育，為嬰兒卓異，七歲投師，受經法三浹旬，誦通《法華》全部。弱冠往長安安國寺，得滿足戒，即大曆中也。便於上京習毘尼道，諸部同異，無不該綜，涉十一載，蔚成其業。傳法東歸，請學者如林。吳郡太守奏於開元寺置戒壇，相預臨壇之選。尋充依止，兼眾推為寺綱管，恒施二眾歸戒。行佩漉囊，器不畜長。每有鳥棲于座側，馳斥不去。會昌元年二月十日午時三刻，告弟子清濬、清高：「吾當滅矣。」儼然累足右脇而逝。時眾晝聞管絃清亮，乃天樂也；夕覩異光。春秋八十九，僧臘六十九。四月遷塔于來蘇鄉之原，白塔是也。後弟子率義州刺史曹信、大理司直吳方重修塔，發之，見相遺骨若銅色，舌相不壞若芙蓉焉，齒全四十二。香湯沐之，重葬，蓋景福二年癸丑歲五月二十二日也。高弟子公靜，靜弟子行蘊，蘊弟子仁表，表弟子玄杲，杲本清白之僧也，同鴻啟重修靈光一寺，為兵革殘毀之後也。杲公、啟公後偕隱天台習禪觀，相次終于山，焚之皆獲舍利焉。

唐天台山國清寺文舉傳

釋文舉，姓張氏，婺州東陽人也。年甫志學，遂投師請法。十九落髮，始墮息慈。貞元三年，勅度得戒。後十五年間，以《四分律》為學，時術之，晝夜翹勤，遂登講訓。次通《法華經》疏義，得智者之膏腴焉。舉身量六尺餘，其形如山，其貌如玉，靜若止水，動如浮雲。目不迴視，口無戲言，四威儀中，無非律範。丹丘二眾，仰為繩準。其奔走他方聽受者，與佛窟則公禪道並驅而相高也。尋勅為國清寺大德。先是智者大師答隋煬帝問，立「七日金光明道場」，每年九月，遐邇征鎮侯伯差人送供，事既無礙，黑白二眾無遠不屆，人纔填委，飲食闕焉。典座僧患之。大和中主事僧清蘊咨謀於舉，置寺莊田十二頃。自此光明會不聞告乏，舉之功歟！以會昌二年五月化去，門人幼清立塔于寺之西峯。春秋八十三，僧夏五十五。韓乂為碑頌德也。

唐會稽開元寺允文傳

釋允文，字執經，姓朱氏，今秀州嘉禾人也。權輿九歲，厥父云亡，然理命捨文奉佛。師授《維摩》、《法華》二經，敏速之性，再稔皆通，高達之士謂之重理耳。或戲問文曰：「爾出家之後，擬

營何事業乎？」率然對曰：「當陟蓮華臺而作師子吼。」或訶誚之曰：「耆宿前敢爾？」或曰：「志欲得大，此子將來未易測也。」至十六歲，削頂周羅，披安陀會。相次裹足西上，投嵩山臨壇大德遠和尚邊，獲無作法，時年二十三矣。是夏即就中京攻相部律宗并《中觀論》，補衣分衛，寒燠四周。既扣義門，必入師室，玄樞律範，尤見精微。大和五年，為思定省，忽歎歸歟。既返故鄉，淹時寢疾，未遑講唱。後聞錢塘天竺寺講《大涅槃經》，蔚為勝集，文往學焉。星歲未周，鋒芒且露。開成元年，因遊台嶠，止息越之嘉祥寺，眾藉清芬，甄命敷其經律。文戢約聽徒，頗為嚴毅，常訓之曰：「夫苾芻行非家法，具足別解脫，律儀眾同分，是其自性於其形色精進故、怖畏故、防守故。如是，方疾得道果矣！不然，則弟子既墮，師道徒施。」聞其警策，有涕泗交橫，悛心革行，思過半矣。會昌三年，移居靜林寺，專以《涅槃》宣導。屬乎武宗澄汰，例被搜揚。晝披縫掖之衣，夜著縵條之服，罔虧僧行，唯遁俗譏。大中伊始，復振空門，重整法儀，乃隸名開元寺三十人數。七年，寺之耆舊命講律乘。乾符三年丙申秋，罷講，覽藏經。以中和二年壬寅六月二十九日微疾作而長逝，享齡七十有八，法臘五十五。其年七月十二日葬于石奇山之陽。遺言不許封樹也。初文講演升座，學徒畏憚，喑鳴之際，人皆披靡，乃戒威德之若是。於嘉祥、靜林、今大善三寺，講相疏二十七座，大經二十五座。其為人也：貌古而脩長，銳頂而黧黑，執持密緻，振鷺在庭，未足方其潔也。然亦獵涉儒、墨，慕白傳自作誌，預著《方墳銘》，藏于篋笥。門人懷益，因尋閱文籍，見而悲咽，遂從先師之志，建小塔焉。後門人懷肅、思寂命名德虛受增加後序。贊寧登會稽，曾禮文真相，見法孫可翔，苦節進修，叶杜多之行。故熟其事迹也。

梁京兆西明寺慧則傳(元表)

釋慧則，姓糜氏，吳郡崑山人也。九歲，博遊才義，總翫儒經。善種發萌，條然厭俗，以大中七年就京西明寺出家。勤知諷誦，皆如曾習。九年於本寺承恩得度。十四年，棲法寶大師法席覆講，當年勅補備員大德。咸通三年，就崇聖寺講《俱舍論》并《喪服儀》，出《三界圖》一卷。七年，於祖院代暢師講。十五年，勅署臨壇正員。廣明元年，巢寇犯關，關中俶擾，出華州下邽避亂。中和二年，至淮南，高公駢召於法雲寺。講罷還吳，刺史楊公苦留，却遊天台山國清寺挂錫。乾寧元年至明州育王寺，撰《塔記》一卷，出《集要記》十二卷。武肅王錢氏命於越州臨壇。以開平二年八月八日示疾坐亡。受生七十四，法臘五十四。窆于鄞山之岡。八戒弟子

刺史黃晟營塔。則生常不好訐直，以撝謙推人為上。除講貫外，輪誦經呪，自《法華》已降可三四十本，以資口業。覽大藏教兩遍，講鈔七十遍，《俱舍》、《喪儀》、《論語》各數遍。清苦執持，近古罕有。入室弟子希覺最露鋒穎焉。又元表者，貞諒之士也，言多峭直，好品藻人事，而高義解，從習毘尼，兼勤外學，書史方術，無不該覽。早預京師西明寺法寶大師講肆，迨廣明中，神都版蕩，遂出江表，居越州大善寺，講《南山律鈔》。諸郡學人，無不趨集。表義理縱橫，善其談說，每揮塵柄，聽者忘疲，號鑑水閣黎。著《義記》五卷，亦號《鑑水》。出門人清福，冠其首焉。

梁蘇州破山興福寺彥偁傳(壽闍黎)

釋彥偁，姓龔氏，吳郡常熟人也。揭厲戒律，錙銖塵務，勤求師範，唯善是從。末扣擊《繼宗》記主，得其戶牖，乃於本生地講導，同好鳩聚，律風孔扇，號為毘尼窟宅焉。先是海隅，巫咸氏之遺壤，招真治之舊墟，古寺周圍不全，坵垣而已。嘗一夜有虎中獵人箭，伏於寺閣，哮吼不止。偁憫之，忙係鞵，秉炬下閣，言欲拔之。弟子輩扶遏且止者三四，伺其更闌各睡，乃自持炬就拔其箭。虎耽耳舐矢鏃血，顧偁而瞑目焉。質明，獵師朱德就寺尋虎，偁告示其箭，朱德悛心罷獵焉。武肅王錢氏知重，每設冥齋，召行持明法。時覆肩衣自肱而墮，還自搭上，或見鬼物隨侍焉。所謂道德盛則鬼神助也。以貞明六年六月，終于山房，年九十九歲云。次壽闍黎者，淮浦左右，貞諒不群，防護正念，時少雙偶。傳南山律鈔極成，不看他面。唐季楊氏奄有廣陵，頻召供施。四遠崇重，食唯正命。不畜盈長，戶不施關。及臨壇度弟子，正秉羯磨，未周三法，忽爾坐亡于覆釜之畔，聞見驚歎歟！

後唐天台山福田寺從禮傳

釋從禮，襄陽人也。善事父母，頗揚鄉里之譽。迨喪偏親，乃果決捨家，于時年已壯矣。及登具足，請師傳授戒文。念性殊乖，卒難捨本，往往睡魔相撓。禮忿其昏濁，作鐵錐刺額兼掌，由是流血，直逾半稔，方遂誦通。自爾精持律範，造次顛沛必於是。以梁乾化中遊天台，乃挂錫于平田精舍。後推為寺之上座。持重安詳，喜慍不形于色，唯行慈忍。恒示眾曰：「波羅提木叉是我大師，須知出家非戒，則若猿獼之脫鎖焉。」每所行持，切於布薩，誡眾令護惜浮囊。時夏亢陽，主事僧來告「將營羅漢齋，奈何園蔬枯悴！請闍黎為祈禱。」禮曰：「但焚香於真君堂。」真君者，周靈王太子，

久聞仙去，以仙官受任為桐栢真人、右弼王、領五嶽、司侍帝晨、王子喬來治此山，是故天台山僧坊道觀，皆塑右弼形像，薦以香果而已。自此俗間號為「山王土地」，非也。時主事向仙祠而呪曰：「上座要雨以滋枯悴。」至夜，雲起雨霏，三日而止。又僧厨闕用水槽棧，而山上有赤樹中為材，來白禮。禮曰：「某向真君道去，但庀徒具器以伺之。」無何，大風卒起，曳仆其樹，取用足焉。其感動鬼神，率多此類。兩浙武肅王錢氏聞之，召入州府，建金光明道場，檀施優渥。迴施眾僧，身唯一布納。通夜不寐，一食常坐，且無盈長。同光三年乙酉歲冬十一月入滅，春秋七十九，僧臘五十二。火葬，收舍利，立塔存焉。

後唐杭州真身寶塔寺景霄傳

釋景霄，俗姓徐氏，丹丘人也。初之聽涉在表公門，後慕守言闍黎義集，敷演于丹丘。執性嚴毅，寡與人交。狷急自持，多事凌轡，形器惡弱。後納請往金華東白山，獎訓初學。時有江西徽猷律匠，出義記曰《龜鑑錄》，多學彭亨，領徒到霄寺，正值講次當〈持犯篇〉，再三歎賞。自此聲溢價高。每晨滴茶，一旦化為乳焉。著記二十卷，號《簡正》，言以思擇力故，去邪說而簡取正義也。武肅王錢氏召於臨安故鄉，宰任竹林寺。未幾，命赴北塔寺臨壇，天成二年也。次命住南真身寶塔寺，終焉。遷葬于大慈山塢，以本受師號塔曰清涼是歟。

後唐東京相國寺貞峻傳

釋貞峻，姓張氏，鄭州新鄭人也。唐張果先生之裔孫。今滎陽有張果里，其墳楸櫨存焉。峻風度寬裕，髻齡不弄。年十四，忽超然離俗，人莫我知。雖二親褰衣，昆弟截路，終弗能沮之，乃投相國寺歸正律師出家。神機駿發，乍觀可驚。雖背碑覆碁，彼不足多也。未幾，諷徹《淨名》、《仁王》諸經，計數萬言。時同儕戲之曰：「汝是有脚經笥也。」峻辭讓斯題，恭遜而已。及削染為僧形，即聽《俱舍論》，隨講誦頌八品，計六百行。至十八升論座。年滿於嵩山會善寺戒壇院納法，因棲封禪寺，今號開寶律院，學新章律疏。二十三，策名講授，長宿稱奇。當大順二年，災相國寺，重樓三門，七寶佛殿，排雲寶閣、文殊殿裏廊，計四百餘間，都為煨燼。時寺眾惶惶，莫知投跡。或曰如請得峻歸寺，寺可成矣。乃相率往今開寶，堅請峻歸充本寺上座。前後數年，重新廊廡，殿宇增華。又請為新章宗主，復開律講，僧尼弟子日有五十餘人，執疏聽

采。峻之律行，冰雪相高。暑無裸意，寒止袷衣，食惟知量，清約太過。乾化元年，臨壇乘法。及梁朝革命，所度僧尼計三千餘人。以同光二年夏四月十二日微疾而終。春秋七十八，法臘五十八。葬于寺莊，祔慧雲禪師塔焉。

漢錢塘千佛寺希覺傳

釋希覺，字順之，姓商氏，世居晉陵。覺生於溧陽，家系儒墨，屬唐季喪亂，累被剽略，自爾貧窶。嘗傭書于給事中羅隱家，偶問名居，隱曰：「毘陵商家兒，何至於此！」歎息再三，多與雇直，勸歸鄉修學。至年二十五，歎曰：「時不我與。或服冕乘軒，皆一期爾！」忽求出家于溫州開元寺，文德元年也。龍紀中受戒，續揣摩律部，稟教于西明寺慧則律師，時在天台山也。則乃法寶大師之高足。廣明中，關中喪亂，避地江表，覺始窺其牆，終見室家瓌富。以則出《集要記》解南山鈔，不稱所懷。何耶？古德妄相穿鑿，各競師門，流宕忘返，覺遂著記廣之，曰《增暉錄》，蓋取曹植云「螢燭末光，增暉日月。」謙言增暉《集要》之日月也，二十卷成部。浙之東西，盛行斯錄。暨乎則公長往，乃講訓于永嘉。武肅王錢氏季弟鐸牧是郡，深禮重焉。尋為愚僧所誣，釋而不問，徙於杭大錢寺。文穆王造千佛伽藍，召為寺主，借紫，私署曰文光大師焉。四方學者騁駑而臻。覺外學偏多，長於《易》道，著《會釋記》二十卷，解《易》，至上、下〈繫〉及末文甚備。常為人敷演此經，付授于都僧正贊寧。及乎老病，乞解見任僧職。既遂所懷，唯嘯傲山房，以吟詠為樂。年八十一，然猶抄書籍異本，曾無告倦。未終之前，捨衣物，作現前僧得施，復普飯一城僧。自此困憊，每睡，見有一人純衣紫服，肌膚軟弱如綿續焉，意似相伴。纔欲召弟子將至，此人舒徐下床，後還如故。親向贊寧說此，某知是天人耳。囑託言畢而絕，享年八十五。生常所著擬江東《讒書》五卷，《雜詩賦》十五卷，注林鼎《金陵懷古》百韻詩、雜體四十章。覺之執持，未嘗弛放，勤於講訓，切於進修。學則彌老而不休，官則奉身而知退，可謂高尚其事，名節俱全，長者之風，藹然如在。所居號釋氏西齋，慕吳兢之蘊積編簡焉。

周東京相國寺澄楚傳

釋澄楚，姓宗氏，不知何許人也。爰祖暨考，偕賁丘園，高蹈不仕。母趙氏妊楚也，忽畏羶臊之臭。及乎誕生之夕，光爛充室，隣落咸驚。洎當七歲，親黨携之入寺，見佛像，輒嗟歎而作禮。歸家

問父曰：「唯佛獨爾？餘者如何？」父曰：「蠢動皆佛，何況人矣？」楚曰：「兒願學佛，聊報二親劬勞。」其父默而許旃。至十歲，於相國寺禮智明為師。未幾，有童子聚戲而招誘之，楚曰：「汝何愚騃！好嬉戲耶？且雪山善財亦童子，還如是否？」旁有聞者奇之曰：「子異日成法門偉器必矣。」受具已來，習新章律部，獨能趣入毘奈耶窟穴。然其擊難酬答，露牙伸爪，時號律虎焉。王公大人請益者，日且眾矣。晉高祖聞而欽仰，詔入內道場，賜紫袈裟，尋署大師，號真法焉。自此皇宮妃主有慕法者求出家，命楚落髮度戒。表裏冰霜，更無他物，命為《新章律》宗主焉。以顯德六年十月十一日無疾而終，首北面西，示佛涅槃相也。俗齡七十一，僧夏五十。始末臨壇度僧尼八千餘人。門人慧照等依西域法焚之，得碎身，分構甃塔緘藏之。左街首座悟皎作《舍利塔記》焉。系曰：楚師明律，時號宗主者何？通曰：「律有三宗，礪、素、宣是歟。宗各有主，故云也。」觀夫是名也，豈無稽古乎？通曰：「『宗主』二字，出《阿含經》也。」

論曰：

原夫人有人法，禁戒、威儀是也；天有天法，光潔、靜慮是也。我佛利見，據于大千，化境斯寬，法門必眾。舉其會要，不過戒也、定也、慧也。此三為路，出其生死之鄉；專一為門，通其涅槃之域。若乃資乎急用，在乎毘尼。毘尼防閑三業，三業皆淨，六塵自祛。聖賢踐修，何莫由斯道也？故《論》云：「生死流轉者三縛縛心，心難解脫。」當知此唯善說法律，能令解脫，非由惡說。因是而窺，禁律乃度世之檢括也。且夫菩薩戒淨，則彰離垢之名；辟支戒完，則引無師之智；聲聞戒足，時俱解脫而可期；內眾戒堅，招感人天之不墜。由是觀之，戒法之時大矣哉！自所推能，從言索理，則毘尼也，木叉也。因則聲教律焉，果則別解脫焉。直以時論，三世諸佛咸同制也；橫從界說，十方淨刹悉共行之。所以優波離、過去七佛，咸以戒律囑累之。《論》云：「戒如捉賊，善擒制也。定如縛賊，用機械也。慧如殺賊，清道路也。」以此成功立効，克取究盡三菩提者，決達清靜之域也。戒律之功，功無與比。矧以此法在師而不在資，唯聞佛制；行內而不通外，無許俗傳。故曰：「曲授祕方，賜諸內眾。」事有懸合，物宜象求，在乎家人，嚴君設訓。家人嗃嗃，同佛制教焉；婦子嘻嘻，同佛聽門矣。一聽一制，見其猛以濟寬；一陰一陽，見其開物成務。夫如是，知戒律是佛之家法明矣！大則三聚感三身於果中，小則形俱持盡形於因地。受既如是，隨則若何？有威儀焉，有細行焉。為有順違，乃生持犯，由是繁廣，因事制宜。

及佛泥丸，集成律藏。初唯水乳相合，一家之業無殊；後則參、辰各墟，五部之分不類。夢氎之占徵矣，《宗輪》之論作焉。剡浮樹高，分影猶歸於月窟；阿耨池溢，下流須到於孟津。迨夫大教東傳，梵書西至。甘露本天人之食，漢土爭嘗；金烏還海上之飛，東方舊識。除經已譯，問律何傳？起後漢靈帝建寧三年，初翻《義決律》。次有比丘諸禁律至，即曹魏法時三藏遊于許洛，覩魏土僧無律範，於嘉平中譯《羯磨僧祇戒》本，此乃此方戒律之始也。自爾《薩婆多律》，先化關中；《五分》、《僧祇》，風行兩施；迦葉遺部，戒本獨來；《婆鹿富羅》，聞名而已。況乎《僧祇部》者，法顯齋歸，諸師判注，云是根本大眾所傳，非是百載五宗也。今著傳家疑其未可。何耶？所覽《僧祇》現本，止三十卷文，因有數疑：一、本小而末大(調諸部文多，《僧祇》卷略)；二、中不含五部意；三、不應《大集》懸記也。或曰：「此略本傳此方，猶《法華》、《華嚴》等經，鉅萬億頌中略出一分也。《僧祇》亦爾。」又說「《曇無德律》譯有重單，準《僧傳》止覺明口誦也。若據《律序》，有支法領重譯之文焉。」如此古今相競，且無指歸，以義交徵，其辭必息。尋律文本，即知異同，如眾學戒初題云「尸叉罽賴尼」、「如破伊蘭葉」，言此是覺明本也。如言「式叉迦羅尼」、「如破伊羅葉」，即是支法領本也。又一本三十卷，一本六十卷——謂紙墨分開不定，非也！分三十為六十，不其太相懸謬矣？若斯二譯，皂白已分！復次元魏已前，諸受戒者用四分羯磨納戒；及乎行事，即依諸律為隨。何異乎執左氏經本專循公羊之傳文也？至魏孝文世，有法聰律匠於北臺山始手披口釋，道覆律師隨聽抄記，遂成義疏。權輿既爾，肯構繁乎？天輪而只候中星，大鼎而唯提附耳。鄴中法礪，唐世懷素，新、舊兩名，各擅其美。礪乃《成實》有部，受體雙陳；素唯尋祖《薩婆》，開宗獨步。其有終南上士，澄照大師，盼鬢三生，逡巡千里，交接天人之際，優遊果證之中，知無不為，繩愆糾謬，以護持教法為己任者，實一代之偉人焉。是以天下言行事者，以南山為司南矣。丁乎大曆，新、舊疏家互相短長，勅集三宗律師，重加定奪。時如淨為宗主，判定二家，當建中中，始言楷正，號《僉定疏》是也。至今東京三宗並盛。至於乘法出沒不倫，殊塗同歸，師資尚異。至若成公演化，靈臺敷揚，不離三輔之間，俱儔百工之巧。文綱、道岸自北徂南，發正輔篇，從微至著，道流吳會，實賴伊人。淨公作評家之師，源尚致感通之瑞，或抗表論沒官之物，或成圖證結界之非，或傑立一方，或才雄七眾，述鋒芒之義記，出豕亥之疑文。或熨帖紛拏，或整齊齟齬，若匪乘時之哲，便應逸氣之英。不令像運之中微，降年唯永；終使壽星之下照，法命唯長。道假人揚，其在茲矣。近以提

河水味，轉不如前；座像塵埋，仍觀更沒。大小乘之交惡，上中下之相凌，活寄四邪，行違七聚，威儀既缺，生善全虧。調律為不急之文，放僧落自由之地，馬令脫轡，象闕施鉤，不習律儀，難調象馬。遂令教法日見凌夷，短則行果微亡，折則年齡減少，合夫〈洪範〉中凶、短、折也！又曰「慈父多敗子」，脫或翻惡歸善，變犯成持，或眾主之勸修，或名師之訓導，假王臣之外護，必法教之中興。如是則同五福中之一壽、五考終命歟！又曰「嚴家無格虜」，故云毘尼是正法之壽命焉。此科所班，乃是鍊金液轉還丹之手，勸人服之，使其近添其壽，遠則昇仙。故我世尊凡制一戒，獲其十利功德，意在令正法久住耳。

宋高僧傳卷第十六

宋左街天壽寺通慧大師賜紫沙門贊寧等奉 勅撰

護法篇第五(正傳十八人附見一人)

唐京師大莊嚴寺威秀傳

釋威秀，不知何許人也。博達多能，講宣是務，志存負荷，勇而有儀。其於筆語揆張，特推明敏。無何，天皇即位，龍朔二年四月十五日勅勒僧道咸施俗拜。時則僧徒惶惑，罔知所裁。秀嗟教道之中微，歎君王之慢法，乃上表稱沙門不合拜。徵引諸史，爰歷累朝抑挫，朝纔發令，夕又改圖，皆非遠略也。方引經律論以為量果，詞皆婉雅，理必淵明。如云「故出家不存家人之禮，出俗無霑處俗之儀，其道顯然，百代不易之令典也。」表上，勅百官集中臺都議其事。時朝宰五百三十九人請不拜，三百五十四人請拜。時大帝至六月勅不拜君而拜父母，尋亦廢止。秀之為法，實謂忘身乎！抗表之際，當年四月二十一日也。時京邑僧等二百餘人往蓬萊宮，申表上請。時相謂秀等曰：「勅令詳議，拜否未定，可待後集。」秀等乃退。於是大集西明寺，相與謀議，共投啟狀，聞諸達官貴戚，若救頭然。時宣律師上雍州牧沛王啟，別上榮國太夫人啟等。秀之批鱗，所謂以身許法也。

唐京兆大興善寺復禮傳

釋復禮，京兆人也，俗姓皇甫氏。少出家，住興善寺。性虛靜，寡嗜欲。遊心內典，兼博玄儒，尤工賦詠，善於著述，俗流名士皆仰慕之。三藏地婆訶羅、實叉難陀等譯《大莊嚴》、《華嚴》等經，皆勅召禮令同翻譯，綴文裁義，實屬斯人。天皇永隆二年辛巳，因太子文學權無二述《釋典稽疑》十條，用以問禮，請令釋滯，遂為答之，撰成三卷，名曰《十門辯惑論》。賓主酬答，剖析稽疑，文出於智府，義在於心外，如斯答對，堅陣難摧。赤旛曳而魔黨降，天鼓鳴而脩羅退，權文學所舉《稽疑》數義也，於餘則難，在禮殊易。何邪？蓋不知教有弛張，文存權實，謂為矛盾，故行弔伐之師。如小偏裨須請軍門之命。無二既披來論，全釋舊疑，乃復書云：「續晨晷之足，鑿混沌之竅，百年之疑，一朝頓盡。永遵覺路，長悟迷源，熱煩惱之薪，餐涅槃之飯，請事斯語，以卒餘年」云。此雖一時之解紛，實為萬代之龜鑑也。禮之義學，時少比儔，

兼有文集行於代。加復深綜玄機，特明心契，作《真妄頌》問天下學士，擊和者數人。當草堂宗密師銓擇臻極，唯清涼澄觀得其旨趣，若盧郎之米粒矣。餘未體禮師之見。故唐之譯務，禮為宗匠，故惠立謂之「譯主」。「譯主」之名，起於禮矣。妙通五竺，融貫三乘，古今所推，世罕倫匹。其論二軸編入藏，酬外難之攻，但用此之戈盾也矣。

唐京兆魏國寺惠立傳

釋惠立，本名子立，天皇改為惠立，俗姓趙氏，天水人也。遠祖因官徙寓新平，故為豳人焉。爰祖及父，俱馳高譽。立即隋起居舍人司隸從事毅之第三子也。生而岐嶷，有棄俗之志。年十五，貞觀三年出家，住豳州昭仁寺，此寺即破薛舉之戰場也。立識敏才俊，神清道邁，習林遠之高風，有肇融之識量。聲譽聞徹，勅召充大慈恩寺翻經大德，次補西明寺都維那，後授太原寺主，皆降綸旨，令維寺任。天皇之代，以其博考儒釋，雅著篇章，妙辯雲飛，益思泉湧，加以直詞正色，不憚威嚴，赴火蹈湯，無所屈撓。頻召入內，與黃冠對論。皆愜帝旨，事在別傳。立以玄奘法師求經印度，若無紀述，季代罕聞，遂撰《慈恩三藏行傳》，未成而卒。後廣福寺沙門彥悰續而成之，總十卷。故初題云「沙門惠立本，釋彥悰箋」是也。立削藁云畢，慮遺諸美，遂藏諸地府，世莫得聞。爾後臨終，令門侍掘以啟之，將出，乃即終焉。初立見尚醫奉御呂才妄造《釋因明圖注》三卷，非斥諸師正義。立致書責之，其警句有云：「奉御於俗事少閑，遂謂真宗可了，何異乎鼯鼠見釜竈之堪陟，乃言崑丘之非難；蛛蝥覩棘林之易羅，亦謂扶桑之可網。不量涯分，何殊此焉？」才由茲而寢。太常博士柳宣聞其事息，乃歸信，以書〈檄翻經僧眾〉，云「其外禦其侮，釋門之季路也。」

唐洛京佛授記寺玄嶷傳

釋玄嶷，俗姓杜氏。幼入玄門，纔通經法，黃冠之侶推其明哲，出類逸群，號杜乂鍊師。方登極籙，為洛都大恒觀主。遊心《七略》，得理三玄，道術之流，推為綱領。天后心崇大法，揚闡釋宗，又悟其食蓼非甘，却行遠舍，願反初服，嚮佛而歸。遂懇求剃落，詔許度之，住佛授記寺，尋為寺都焉。則知在草為英，在禽為雄，信有之矣。續參翻譯，悉彼宗之乖謬，知正教之可憑。或問之曰：「子何信佛邪？」嶷曰：「生死飈疾，宜早圖之，無令臨衢整轡，中流跲柁乎！有若環車望斗，効鬼求仙，以此用心，非究盡

也。」乃造《甄正論》一部，指斥其失，令歸正真，施設主客問答，極為省要焉。嶷不知厥終。

系曰：知彼敵情，資乎鄉導；或「入」必爭之境，免書「弗地」之譏；又猶秉燭霄征，便匪如人人闇。歷聞玄嶷曾寄黃冠，熟其本教。及歸釋族，斥彼妄源。不須四月而試之，已納一城之歛矣。由是觀之，脫有迢逆之者，則曰「吾當說汝真」，斯是之謂歟！

唐江陵府法明傳

釋法明，本荆楚人也。博通經論，外善群書，辯給如流，戒範堅正。中宗朝入長安，遊訪諸高達，適遇詔僧、道定奪《化胡成佛經》真偽。時盛集內殿，百官侍聽。諸高位龍象，抗禦黃冠，翻覆未安，艱[危*瓦]難定。明初不預其選，出場擅美，問道流曰：

「老子化胡成佛，老子為作漢語化？為作胡語化？若漢語化胡，胡即不解。若胡語化，此經到此土，便須翻譯。未審此經是何年月？何朝代？何人誦胡語？何人筆受？」時道流絕救無對。明由此公卿歎賞，則神龍元年也。其年九月十四日，下勅曰：「仰所在官吏廢此偽經，刻石於洛京白馬寺，以示將來。」勅曰：「朕叨居寶位，惟新闡政，再安宗社，展恭禋之大禮，降雷雨之鴻恩，爰及緇黃，兼申懲勸。如聞天下諸道觀皆畫《化胡成佛變相》，僧寺亦畫玄元之形，兩教尊容，二俱不可。制到後限十日內並須除毀。若故留，仰當處官吏科『違勅罪』。其《化胡經》累朝明勅禁斷，近知在外仍頗流行，自今後其諸部《化胡經》及諸記錄。有化胡事，並宜除削。若有蓄者，準勅科罪。」其月洛京大恒道觀主桓道彥等上表固執，勅批曰：「朕以匪躬，忝承丕業，雖撫寧多失，而平恕實專。矧夫三聖重光，玄元統序，豈忘老教，偏意釋宗。朕志欵還淳，情存去偽。理乖事舛者，雖在親而亦除；義符名當者，雖有怨而必錄。頃以萬機餘暇，略尋三教之文。至於《道德》二篇，妙絕希夷之境。天竺有空二諦，理祕真如之談。莫不敷暢玄門，闡揚至蹟，何假《化胡》之偽，方盛老君之宗。義有差違，文無典故，成佛則四人不同，論弟子則多聞舛互。尹喜既稱成佛，已甚憑虛。復云化作阿難，更成烏合。鬼谷、北郭之輩，未踐中天；舍利、文殊之倫，妄彰東土。胡漢交雜，年代亦乖。履水而說涅槃，曾無典據；蹈火而談妙法，有類俳優。誣詐自彰，寧煩縷說。經非老君所制，毀之則匪曰孝虧；文是鄙人所談，除之則更彰先德。來言雖切，理實未安。宜悉朕懷，即斷來表。」明之口給，當代無倫。援護法門，由之禦侮，惡言不入耳，其是之謂乎！

系曰：《化胡經》也，二教不平，其爭多矣！無若法明一言蔽之。設或凝神杼思，久不可酬，況復萬乘之前，孰能卒對？昔楊素見嵩陽觀畫「化胡」，素曰：「何不化胡成道，而成佛乎？」道士無言。觀夫明之垂問，義含兩意，正為化胡成佛，旁矚諸天仙言語與人不同，天言傳授諸經，是誰辯譯？其猶一箭射雙鳧，又若一發兩縱之謂歟！

唐潤州石圯山神悟傳

釋神悟，字通性，隴西李氏之子。其先屬西晉版蕩，遷家于吳之長水也。世襲儒素，幼為諸生。及冠，忽嬰惡疾，有不可救之狀。咎心補行，力將何施？開元中詣溪光律師，請耆域之方，執門人之禮。師示以遺業之教，一曰理懺，二曰事懺。此二者，聖之所授，行必有徵。遂於菩提像前，秉不屈之心，爇難捐之指。于時有異光如月，臃腫紺宮，極苦可以感神明，至精可以動天地。蓋人之難事歟！天寶四年，受具足戒，身始披緇。八年，舉尤異行，名隸于寺。逮其晚節，益見苦心。每置法華道場九旬，入長行禮念觀佛三昧，於斯現前因。語門人曰：「夫陰薄日以何傷，風運空而不動，苟達於妄，誰非性也。」方結宇於勞勞山東，中據石圯，達分仙徑。諸猛獸馴於禪榻，祥雲低於法堂。中夜有山神現形，謂悟曰：「弟子即隋故新成侯曹世安，生為列侯，死典南嶺。今師至止，願以此地永奉經行。」言訖隱而不見。故吏部員外李華、殿中侍御史崔益同謁悟，嘗問孔老聖教優劣，請陳題品。對曰：「路伽邪典籍皆心外法，味之者勞而無證，其猶澤朽思華，乾池映月，比其釋教，夫何遠乎？」如是往復，應答如流。華、益拱手，無以抗敵。其扞護釋門疆場，疇敢侵軼乎？華乃一代之文宗，與蕭穎士齊名，筆語過之。若此之儒，孰能觝角也。凡諸不逞之徒疑經難法者，悟必近取諸身，遠喻於物，如理答酬，無不垂頭搭翼者。十年辛卯春，寢疾，加趺坐而逝。享齡六十三，法臘二十六。闍維之日，獲舍利五百餘粒，珠顆纍纍，粲然在矚。門人湛一、圓一等主之，遷塔焉。

唐金陵鐘山元崇傳(璿禪師)

釋元崇，俗姓王氏，瑯琊臨沂人也。晉丞相始興文獻公子薈之後，自南朝淪廢，世居句容。祖禰已來，非賢即哲。崇幼而孤秀，嶷若斷山。心喻芙蓉，形同玉潔，風塵不雜，立志夷簡。時年十五，奉道辭家，負笈洞天，餐霞臥雲，師範陶許，精研妙句，獨證微隱。

乃恐至理未融，解脫方阻，因歸心釋典，大暢佛乘，三教齊驅，邁心世表。於是聲振吳越，緇素異焉。採訪使潤州刺史齊平陽公聞其行業，虛佇久之，適會恩制度人，哀充舉首。以開元末年因從瓦官寺璿禪師諮受心要，日夜匪懈，無忘請益。璿公乃揣骨，千里駿足可知，因授深法。崇靈臺虛徹，可舍百神，心鑒高懸，塵無私隱。既而聲價光遠，物望所知，金陵諸德，請移所配棲霞寺。春秋逾紀，服勤道務，彝倫有敘，時眾是瞻。至德初，並謝絕人事，杖錫去郡，歷于上京，遍奉明師，棲心閑境，罕交俗流。遂入終南，經衛藏，至白鹿，上藍田，於輞川得右丞王公維之別業。松生石上，水流松下，王公焚香靜室，與崇相遇，神交中斷。于時天地未泰，豺狼構患，朝賢國寶，或在邁軸。起居蕭舍人昕與右丞諸公，並碩學雄才，尊儒重道，偶茲一會，抗論彌日，鉤深索隱，襟期許與。王、蕭歎曰：「佛法有人，不宜輕議也矣！」及言旋河洛，登陟嵩少，懷達磨之旨要，得《華嚴》之會歸，聲價漸高，衣冠羨仰。京師名德咸請住持。志在無為，翛然不顧。乃放浪人世，追蹤道流，考盤靈蹤，遂東適吳、越、天台、四明，清心養素。數年之後，遐想鐘山，飛錫舊居，考以雲房，道俗咸喜，玉反山輝。大曆五年，刺史南陽樊公雅好禪寂，及屬縣行春，順風稽首，諮請道要，益加師禮矣。時道俗以為此寺靈勝，遊憩者多，監主護持，須選名德。僉議無以易禪師者。崇頻告辭懇苦，眾咸再三，事不獲已，順受彌縫其間，總二十年。藉四方之財，因道化之力，欒櫨雲構，丹牖日新，蓋存乎無為無所不為者也。功成身退，安禪高頂，前後學徒，詎可勝計。至大曆十二年，示疾言歸，不加藥餌。八月二日，卒於山院，春秋六十有五。臨終，命門人無令封樹，弟子如泉、澄添等奉全師教，以其月八日瘞于攝山之陽，依巖為窟，累石不磨不礪，遵遺誥也。崇身長六尺，儀表端肅，望之儼然，即之生畏。意密情恕，心和行高，天姿龍象，生此岐嶷。享齡非永，惜哉！弟子等共建豐碑，以紀化跡，樹于寺之門首焉。

唐京兆大安國寺利涉傳

釋利涉者，本西域人也，即大梵婆羅門之種姓。夙齡彊志，機警溢倫，宗黨之中，推其達法。欲遊震旦，結侶東征，至金梭嶺，遇玄奘三藏，行次相逢，禮求奘度。既而群經眾論，鑿竅通幽，特爾遠塵，歸乎正道，非奘難其移轉矣！奘門賢哲輻湊，涉季孟於光、寶之間。其為人也，猶帛高座之放曠。中宗最加欽重，朝廷卿相感義與遊。開元中於安國寺講《華嚴經》，四眾赴堂，遲則無容膝之位矣。檀施繁熾，利動人心。有潁陽人韋玘，垂拱中中第，調選河中

府文學，遷大理評事、祕校。見涉講筵幣帛堆積，就乞選糧，所獲未厭。表請釋、道二教定其勝負，言釋、道蠹政可除。玄宗詔三教各選一百人，都集內殿，韋玘先陟高座，挫葉靜能及空門思明，例皆辭屈。涉次登座，解疑釋結，臨敵有餘，與韋往返百數千言，條緒交亂，相次抗之，棼絲自理，正直有歸。涉重問韋曰：「子先登席，可非主耶？未審主人何姓？」玘曰：「姓韋。」涉將「韋」字為韻，揭調長吟。偈詞曰：「我之佛法是無為，何故今朝得有為？無韋始得三數載，不知此復是何韋？」涉之吟作，百官悚然。帝果憶何韋之事，凜然變色曰：「玘是庶人宗族，敢爾輕懷朕玄元祖教及凌[車*閭]釋門。」玘下殿俯伏待罪，叩頭言：「臣非庶人之屬。」涉貴其鉗利口以解疎狂，奏曰：「玘是關外之人，非玄貞之族類。」勅貶象州百姓。賜涉錢絹，助造明教寺，加號明教焉。二教重熙，涉之力也。因著《立法幢論》一卷。公卿間有言曰：「涉公是韋掾之膏肓也。」涉曰：「此舉也，矢在弦上，不得不發。」自此京城無不改觀，言談講者，以涉為最焉。晚節遭其譴謫漢東，尋屬寬宥，移徙南陽龍興寺。時惠忠國師知重涉名，聊欵關相謁，曰：「納衣小僧向前，某被門徒朝要連坐于此，適觀師當有貴氣，可作高道國德，勿同吾也。」乃開篋提衣物，令忠師曳婁。由此襄、鄧之人皆驚涉如此懸記，忠師道聲又光闡焉，蓋涉望重之故也。上元二年，詔忠師入供養。肅宗時入宮起居太上皇，乃引忠見上皇曰：「此人何如利涉？」則知涉才業優長，帝王器重，復多著述。大曆中西明寺翻經沙門圓照撰《涉傳》，成一十卷，足知言行之多也矣。

唐越州焦山大曆寺神邕傳

釋神邕，字道恭，姓蔡氏，東晉太尉謨——即度江祖——十五代孫也。因官居于暨陽，邕生于是邑。母宣氏始娠之際，率多徵異。襁褓中聞唱經聲，必有凝神側聽之貌。牛角聰悟過人。年十二辭親學道，請業於法華寺俊師。每覽孔釋二典，一讀能誦。同輩者罕不欣慕。開元二十六年，勅度隸諸暨香嚴寺名藉。依法華寺玄儼師，通《四分律鈔》。儼識其志氣，謂人曰：「此子數年後，卒為學者之司南矣。爾其勉之！」儼新出《輔篇律記》，邕挾其膏腴，窮彼衢術，一宗學者少能與其聯鑣方軌焉。性非局促，又從左溪玄朗師習天台止觀、禪門、《法華玄疏》、《梵網經》等，四教三觀等義，祕鍵載啟，觀性知空，爰至五夏，果精敷演，吳會間學者從之。天寶中本邑郭密之請居法樂寺西坊，恢拓佛舍，層閣摩霄，半澄江影，廊宇完備。後乃遊問長安，居安國寺，公卿藉其風宇，追慕者

結轍而至。方欲大闡禪律，倏遇祿山兵亂，東歸江湖，經歷襄陽，御史中丞庾光先出鎮荊南，邀留數月。時給事中竇紹、中書舍人苑咸，鑽仰彌高，俱受心要。著作郎韋子春——有唐之外臣也，剛氣而瞻學——與之訓抗。子春折角，滿座驚服。苑舍人歎曰：「闍梨可謂塵外摩尼，論中師子！」時人以為能言矣。旋居故鄉法華寺，殿中侍御史皇甫曾、大理評事張河、金吾衛長史嚴維、兵曹呂渭、諸暨長丘丹、校書陳允初賦詩往復，盧士式為之序引，以繼支、許之遊，為邑中故事。邕修念之外，時綴文句，有集十卷，皇甫曾為序。自至德迄大曆中，頻受請登壇度戒，起丹陽泊乎金華，其間釋子皆命為親教師也。又以縣南路通衢、婺，其中百餘里殊無伽藍，釋侶往來宴息無所。邕願布法橋，接憩行旅，遂於焦山可以為梵場也。得邑人騎都尉陳紹欽等率群信構淨刹，一紀方乃集事焉。前吏部侍郎徐浩出佐明州，以邦國聚落，乃白廉使皇甫溫奏賜額曰大曆焉。先是，中岳道士吳筠造邪論數篇，斥毀釋教，昏蒙者惑之。本道觀察使陳少遊請邕決釋、老二教孰為至道，乃襲世尊之攝邪見，復寶琳之破魔文，爰據城塹，以正制狂。旗鼓纔臨，吳筠覆轍。遂著《破倒翻迷論》三卷，東方佛法再興，實邕之力歟。末遊天台，又纂地誌兩卷，並附於新論矣。邕廡頤豐角，風韻朗拔，前後廉問皆延置別榻，請為僧統，以加崇揖之禮。貞元四年戊辰歲十一月十四日，遇疾，遺教門人，跣坐端相而歸寂于大曆法堂焉。以十二月十四日奉靈儀於寺北原，遵僧制也。報齡七十九，法歲五十。明年冬十一月方建塔矣。祕書省校書郎陸淮為其銘，上首弟子智昂、靈澈、進明、慧照等咸露鋒穎，禪律互傳。至十一年，戶部員外郎丘上卿為碑紀德焉。

唐朗州藥山唯儼傳

釋唯儼，俗姓寒，絳縣人也。童亂慷慨，敏俊逸群。年十七，徙南康事潮陽西山慧照禪師。大曆八年，納戒于衡嶽寺希操律師所，乃曰：「大丈夫當離法自淨，焉能屑屑事細行於布巾邪？」遂謁石頭禪師，密證心法，住藥山焉。一夜明月，陟彼崔嵬，大笑一聲，聲應澧陽東九十許里。其夜澧陽人皆聞其聲，盡云是東家，明辰展轉尋問，迭互推尋，直至藥山，徒眾云：「昨夜和尚山頂大笑是歟？」自茲振譽，遐邇喧然。元和中李翱為考功員外郎，與李景儉相善。儉除諫議，薦翱自代，及儉獲譴，翱乃坐此出為朗州刺史。翱閑來謁儼，遂成警悟。又初見儼，執經卷不顧，侍者白曰：「太守在此。」翱性褊急，乃倡言曰：「見面不似聞名。」儼乃呼，翱應唯，曰：「太守何貴耳賤目？」翱拱手謝之，問曰：「何謂道

邪？」儼指天指淨瓶曰：「雲在青天水在瓶。」翱于時暗室已明，疑水頓泮，尋有偈云：「鍊得身形似鶴形，千株松下兩函經。我來相問無餘說，雲在青天水在瓶。」又偈「選得幽居愜野情，終年無送亦無迎。有時直上孤峯頂，月下披雲笑一聲。」初翱與韓愈、柳宗元、劉禹錫為文會之交，自相與述古言、法《六籍》，為文黜浮華、尚理致，言為文者韓、柳、劉焉。吏部常論：「仲尼既沒，諸子異端，故荀孟復之，楊墨之流洗然遺落。殆周隋之世，王道弗興，故文中子有作，應在乎諸子左右。唐興，房魏既亡，失道尚華，至有武后之弊，安史之殘。吾約二三子同致君復堯舜之道，不可放清言而廢儒，縱梵書而猾夏。敢有邪心歸釋氏者，有渝此盟，無享人爵，無永天年。先聖明神，是紂是殛！」無何，翱邂逅於儼，頓了本心。末由戶部尚書、襄州刺史，充山南東道節度使。復遇紫玉禪翁，且增明道趣，著《復性書》上下二篇。大抵謂：本性明白，為六情玷污，迷而不返，今牽復之，猶地雷之復見天地心矣！即內教之返本還源也。其書露而且隱，蓋而又彰，其文則〈象〉、〈繫〉、〈中庸〉，隱而不援釋教；其理則從真捨妄，彰而乃顯自心。弗事言陳，唯萌意許也。韓柳覽之，歎曰：「吾道萎遲，翱且逃矣！」儼陶鍊難化，護法功多，迴是子之心，拔山扛鼎，猶或云易。又相國崔群、常侍溫造相繼問道，儼能開發道意。以大和二年將欲終，告眾曰：「法堂即頽矣。」皆不喻旨，率人以長木而枝柱之，儼撫掌大笑云：「都未曉吾意。」合掌而寂，春秋七十云。

系曰：嘗覽李文公《復性》二篇，明佛理不引佛書，援證而徵，取《易》、《禮》而止。可謂外柔順而內剛逆也，故曰「得象而忘言」矣！經云治世語言皆成正法者，李公有焉。儼公一笑，聲徹遐鄉，雖未勞目連遠尋，而《易例》有諸：「隆墀永歎，遠壑必盈」，道感如然不知其然也！

唐京師章信寺崇惠傳

釋崇惠，姓章氏，杭州人也。穉之年，見乎器局，鷲鳥難籠，出塵心切。往禮徑山國一禪師為弟子，雖勤禪觀，多以三密教為恒務。初於昌化千頃最峯頂結茅為庵，專誦《佛頂呪》數稔。又往鹽官硤石東山，卓小尖頭草屋，多歷年月。復誓志於潛落雲寺遁跡，俄有神白惠曰：「師持《佛頂》少結『莎訶』，令密語不圓。莎訶者，成就義也。今京室佛法為外教凌轢，其危若綴旒，待師解救耳！」惠趨程西上，心亦勞止，擇木之故，於章信寺挂錫，則大曆初也。三年戊申歲九月二十三日，太清宮道士史華上奏，請與釋宗

當代名流角佛力道法勝負。于時代宗欽尚空門，異道憤其偏重，故有是請也。遂於東明觀壇前架刀成梯，史華登躡如常磴道焉。時緇伍互相顧望推排，且無敢躡者。惠聞之，謁開府魚朝恩，魚奏請於章信寺庭樹梯，橫架鋒刃，若霜雪然，增高百尺。東明之梯極為低下。時朝廷公貴、市肆居民，駢足摩肩而觀此舉。時惠徒跣登級下層，有如坦路，曾無難色。復蹈烈火，手探油湯，仍餐鐵葉，號為飢飢，或嚼釘線，聲猶脆飴。史華怯懼慚惶，掩袂而退。時眾彈指歎嗟，聲若雷響。帝遣中官鞏庭玉宣慰再三，便齎賜紫方袍一副焉。詔授鴻臚卿，號曰護國三藏，勅移安國寺居之。自爾聲彩發越，德望峻高。代宗聞是國一禪師親門高足，倍加鄭重焉。世謂為巾子山降魔禪師是也。

系曰：或謂惠公為幻僧歟？通曰：「夫於五塵變現者曰『神通』，若邪心變五塵事則幻也。惠公持三密、瑜伽、護魔法，助其正定，履刃蹈炎，斯何足驚乎？夫何幻之有哉？《瑜伽論》有諸三神變矣。」

唐洛陽同德寺無名傳

釋無名，姓高氏，渤海人也。祖宦今西京，乃為洛陽人矣。沖孺之齡，舉措卓異，口不嚙辛血，性不狎諛譁，邈矣出塵，故難留滯。年二十八，若瘦雁之出籠，投師習學，依隨隸同德寺。及精律藏，解一字以無疑；聞有禪宗，思千里而請決。舉領整裘，開局見路，辭飛筆健，思若湧泉。因隨師遊方，訪祖師之遺跡，得會師付授心印。會先語諸徒曰：「吾之付法，無有名字。」因號無名也。自此志歷四方，周遊五嶽，羅浮、廬阜、雙峯、[山*完]公、鑪嶺、牛頭、剡溪、若耶、天台、四明，罔不詢問，風格高遠，神操朗澈，博識者覩貌便伏，僻見者發言必摧。時德宗方納鮮于叔明、令狐峒料簡僧尼事，時名有表直諫，並停。尋時鮮于叔明、令狐峒等流南海百姓。至貞元六年，往遊五臺，居無定所。九年十二月十二日於佛光寺先食訖，儼然坐化，春秋七十二，臘四十三。十一年闍維，獲舍利一升。澤潞節度使李抱真建塔於佛光寺，貞元六年庚午歲也。或云：「名著疏解《彌陀經》焉。」

唐廬山歸宗寺智常傳

釋智常者，挺拔出倫，操履清約，遍參知識，影附南泉，同遊大寂之門，乃見江西之道。元和中，駐錫廬山歸宗淨院。其徒響應，其法風行。無何，白樂天貶江州司馬，最加欽重。續以李渤員外，元

和六年隱嵩少，以著作徵起。杜元穎排之，出為虔州刺史。南康曾未卒歲，遷江州刺史。渤洽聞多識，百家之書，無不該綜，號李萬卷矣。到郡，喜與白樂天相遇，因言潯陽廬阜山水之最，人物賢哲隱淪。論惠遠遺迹，遂述歸宗禪師善談禪要，李曰：「朝廷金榜早晚有嗜菜阿師名目。」白曰：「若然，則未識食菜阿師歟！」白彊勸遊二林，意同見常耳。及到歸宗，李問曰：「教中有言『須彌納芥子，芥子納須彌』，如何芥子納得須彌？」常曰：「人言博士學覽萬卷書籍，還是否耶？」李曰：「忝此虛名。」常曰：「摩踵至頂只若干尺身，萬卷書向何處著？」李俛首無言，再思稱歎。續有東林寺僧神建講諸經論，問「觸目菩提」，常略提舉。神建不體，乃發狀訟常示惡境界。時李判區分甚聞詣理。常有異相，日耀重瞳，遂將藥燻手，恒磨錯，不覺目眦俱紅，號赤眼歸宗矣。系曰：佛理幽邃，一言蔽之者，玄解之言。逗猛利者，藥妙疾輕之驗也。

唐杭州千頃山楚南傳

釋楚南，閩人也，俗姓張氏。爰在髫齡，冥然跪於父母前，訴志出家。投開元寺曇藹師而受訓焉。當授經法，目所經覩，輒誦於口。執巾侍盥，灑掃應對，頗能謹愿。迨乎冠歲，乃落髮焉。詣五臺登戒，就趙郡學相部律。往上都，學《淨名經》。一律一經，略通宗旨，則知頓機，不甘為漸教縛。遂往芙蓉山，根性未發。謁黃蘗山禪師，問答雖多，機宜頓了。倏值武宗廢教，南遂深竄林谷。大中興教，出遇昇平相裴公休出撫宛陵，請黃蘗出山，南隨侍。由此便詣姑蘇報恩寺，專行禪定，足不踰闕，僅二十餘載。乾符四年，蘇州太守周慎嗣嚮風，請住寶林院。又請居支硎山。至五年，昌化縣令徐正元與紫溪戍將饒京同召住千頃慈雲院。訓示禪徒之外，唯儼然在定，逾月或浹旬。光啟三年，前兩浙武肅王錢氏請下山供施。昭宗聞其道化，賜其鹿胎衣五事，別齎紫衣。文德元年二月，忽雙虹貫堂室，二鹿蹶然入寺，法堂梁折。至五月，辭眾，後於禪床垂兩足、伸二臂于膝，奄然而卒。春秋七十，僧臘五十六。遷塔于院西隅。大順二年壬子歲二月，宣州孫儒寇錢唐之封略。兵士發塔，見南全身不散，爪髮俱長，悔罪而去。南公平昔著《般若經品頌偈》一卷、《破邪論》一卷，以枝梧異宗外敵，見貴於時也。

唐南嶽七寶臺寺玄泰傳

釋玄泰者，不知何許人也。性摻方正，言不浪施，心靜之情，義而後動。所居蘭若，在衡山之東，號七寶臺。不衣蠶縷，時謂泰布納歟。從見德山禪師，豁如自適，誓不立門徒，逍遙求志，而於詞筆，筆若有神。四方後進巡禮相見，皆用平懷之禮。嘗以衡山之陽多被山民莫徭輩斬木燒山，損害滋甚。泰作《畚山謠》，遠邇傳播，達于九重，勅責衡州太守禁止。岳中蘭若由是得存，不為延燎，泰之力也。終年六十五。臨逝說偈曰：「不用剃頭，不須澡浴。一堆猛炎，千足萬足。」偈終，垂一足而逝。闍維，收舍利，祔堅固大師塔左，營小浮圖焉。又為《象骨偈》、《諸禪祖塔銘》、《歌》、《頌》等，好事者編聚成集而行于代焉。

唐京兆福壽寺玄暢傳

釋玄暢，字申之，俗姓陳氏，宣城人也。暢爰在弱齡，便持異操，戲則聚沙為塔摘葉為香。年九歲，於涇邑水西寺依清逸上人，教授經法。年十九，削髮。二十歲，往福州兜率戒壇受具足戒，聽掇律科，深得宗旨。新繒細縷，一染色佳，而往越中求聞異說。仰京室西明寺有宣律師舊院，多藏毘尼教迹，因栖惠正律師法席。自入京華，漸萌頭角，受京城三學大德，益廣見聞。方事講談，遽鐘堙厄，則會昌廢教矣！時京城法侶頗甚徬徨，兩街僧錄靈宴、辯章，同推暢為首，上表論諫。遂著《歷代帝王錄》，奏而弗聽。由是例從俗服，寧弛道情，龍蛇伏蟄而待時，玉石同焚而莫救。殆夫武皇厭代，宣宗在天，坏戶重開，炎崗息熾。暢於大中中，凡遇誕辰，入內談論，即賜紫袈裟，充內外臨壇大德。懿宗欽其宿德，蕃錫屢臻。乃奏修加《懺悔一萬五千佛名經》，又奏請《本生心地觀經》一部八卷，皆入藏。暢時充追福院首領，又充總持寺都維那，尋署上座。暢講律六十座，度法者數千人，撰《顯正記》一十卷、《科六帖名義圖》三卷、《三寶五運》三卷，雖祖述舊聞，標題新目，義出意表，文濟時須。乾符中，懿宗簡自上心，特賜師號曰法寶。二年三月二十一日示滅，俗齡七十九，僧臘五十九。弟子賜紫惠柔，大德師遂、宗紹，以其年四月二十五日窆于長安邑高陽鄉小梁村。四年丁酉歲，尚書禮部侍郎崔沆與暢交分殊深，著碑述遺跡焉。

後唐南嶽般舟道場惟勁傳

釋惟勁，福州長溪人也。節操精苦，奉養棲約，破納擁身，衣無繒縵，號頭陀焉。初參雪峯，便探淵府。乾、化中，入嶽住報慈東藏

——亦號三生藏——，中見法藏禪師鑑燈，頓了如是廣大法界重重帝網之門，因歎曰：「先達聖人，具此不思議智慧方便，非小智之所能！」又嶽道觀中亦設此燈，往因廢教時竊移入仙壇也。有遊嶽才人達士，留題頗多。勁乃歎曰：「盧橘夏熟，寧期植在於神都？《舜韶》齊聞，不覺頓忘於肉味。嗟其無識，不究本端。盜王氏之青氈，以為舊物；認嶺南之孔雀，以作家禽。後世安知？于今區別。」乃作五字頌，頌五章，覽者知其理事相融，燈有所屬，屬在乎互相涉入，光影含容，顯華嚴性海主伴交光，非道家之器用也。楚王馬氏奏賜紫，署寶聞大師，梁開平中也。勁續《寶林傳》，蓋錄貞元已後禪門祖祖相繼源脈者也。別著《南嶽高僧傳》，未知卷數，亦一代禪宗達士，文采可觀。後終于岳中也。系曰：物涉疑似，難輒區分。勁公誌《鑑燈》，若遺物重獲歸家也。後之人必不敢攘物歸家也。故曰「前事不忘，後世之元龜」也。

周洛京福先寺道丕傳

釋道丕，長安貴胄里人也。唐之宗室，父從晏，襄宗沿堂五院之首。母許氏為求其息，常持《觀音普門品》，忽夢神光燭身，因爾妊焉。及其誕生，挺然岐嶷，端雅其質，屬籍諸親異而愛之如天童子。年始周晬，父將命汾晉，會軍至于霍山，沒王事。丕雖童穉，聚戲終鮮笑容。七歲，忽絕葷羶，每遊精舍，怡然忘返。遂白母往保壽寺禮繼能法師，尊為軌範。九歲，善梵音禮讚。是歲襄宗幸石門，隨師往迎駕。十九歲，學通《金剛經》義，便行講貫。又駕遷洛京，長安焚蕩，遂背負其母，東征華陰。劉開道作亂，復荷母入華山，安止巖穴。時穀麥勇貴，每斗萬錢。丕巡村乞食，自專胎息，唯供母食。母問：「還食未？」丕對曰：「向外齋了。」恐傷母意，至孝如此。年二十歲，母曰：「汝父霍山亡沒，戰場之地，骨曝霜露。汝能收取歸葬，不亦孝乎？」遂辭老親往霍邑，立草庵，鳩工集聚白骨，晝夜誦經，呪之曰：「古人精誠所感，滴血認骨。我今志為孝子，豈無靈驗者乎？儻群骨中有動轉者，即我父之遺骸也。」如是一心注想，日未輕捨，數日間，果有枯體從骨聚中躍出，競驚丕前，搖曳良久。丕即蹙踴抱持，如復生在，齋歸華陰。是夜其母夢夫歸舍，明辰骨至，其孝感聲譽日高。至二十七歲，遇曜州牧婁繼英，招丕住洛陽福先彌勒院，即晉道安翻經創浴之地也。天祐三年丙寅，濟陰王賜紫衣。後唐莊宗署大師曰廣智。丕於梁朝後主、後唐莊宗、明宗、凡內建香壇，應制談論，多居元席。及晉遷都今東京，天福三年詔入梁苑，副錄左街僧事，與傳法

阿闍梨昭信大師俱道貌童顏，號二菩薩。是故朝貴士庶，多請養生之術。丕精勤不懈，一佛一禮。《佛名經》、《法華》、《金剛》、《仁王》、《上生》四經，逐一字禮。然其守杜多之行，分衛時至，二弟子隨行。開運甲辰歲為左街僧錄，雖臨僧務，日課修持。相國李公濤、西樞密太傅王公朴、翰林承旨陶公穀等，無不傾心歸重。至漢乾祐中，謝病乞西歸。未允之際，屬漢室凌夷，兵火連作，恣行剽掠。丕於廊廡之下，倚壁誦念，二日紛拏，一無見者。時京城見聞，益加欽尚。逃歸洛邑，周太祖潛隱所重。廣順元年，勅召為左街僧錄，不容陳讓，還赴東京，居于僧任。世宗尹釐府政，嫌空門繁雜，欲奏沙汰，召丕同議。時問難交發，開喻其情，且曰：「僧之清尚，必不露於人前。僧或凶頑，而偏遊於世上。必恐正施蘆[廿/尤/(幺-厶+(衣-一))]，草和蘭茝而芟；方事淘澄，金逐沙泥而蕩。大王儲明欲照，蓄智當行，為益皇帝邪？為損君親邪？若益君乎，不令一物失所。若損親也，是壞六和福田。況以天下初平，瘡痍未合，乞待後時，搜揚未晚。故老子云：『治大國如烹小鮮。』慮其動則糜爛矣。」世宗深然其言，且從停寢。及世宗登極，丕謂僧曰：「吾皇宿昔有志，汝當相警護持。」堅乞解歸洛陽，又立禮《首楞嚴經》。二年，果勅併毀僧寺，并立僧帳，蓋限之也。毀教不深，乃丕之力也。以顯德二年乙卯六月八日微疾。十日，令弟子早營粥食云：「有首楞嚴菩薩眾多相迎」，令鳴椎，俄然而化，春秋六十七，僧臘四十七。緇素號哭，諸寺具威儀送葬于龍門廣化寺之左，立石塔焉。未終之前，寺鐘無故嘶嘎、表刹龍首忽焉隕墜、僧澄清夢寺佛殿梁折，極多異兆焉。系曰：周武滅佛法。隋開皇辛亥歲，太府丞趙文昌入冥見邕受對，寄語文帝拔救。周世宗澄汰，毀私邑，勒立僧帳，故說大漸招其惡報。或有人冥見之，并贊成厥事者，同居負處，略同周武。未知是乎？

論曰：

九重所以成深嚴，七札其能捍憂患。高墉峻壘，加校尉而守之；犀革兕皮，介將軍而戰者。君既安所，臣亦建功。猶釋門之外侮忽來，得法將之中權斯敵，使其大道喪而重復，玄綱絕而又張。「我有仲由，惡言不入」——外禦其侮，不可暫亡也。嗟乎！真教東傳，累更年紀，受其艱否，屈指可尋！法繫有為，四相以之遷貿；明雖無損，一輪以之蝕侵。桓楚無端効莽，得時而變法；德輿伊始欺孤，餘力而責僧。賴遠公之致書，因朝達之抗疏，只成暴政，空鯁人情。元魏懷邪，周邕尚辯，曇始乃呈其詭迹，道安盛奮其辭鋒。是待秦坑，能逃漢律，始、安二德，疑其住壽應真，出沒其形，扶危拯溺者矣！秀也鍾其厄運，憤此反常，上牋若攻壘之先

登，為法偶犯顏而不死。復禮答權文學難詞，蔚成解判。惠立斥呂奉御《圖注》，免橫窺[門@俞]。兩面俱通，玄嶷造乎《甄正》。一場賈勇，法明定其《化胡》。答孔老於李華，名儒懾伏。挫是非於韋氏，辯勢酋強。邕也掩徐，獨記於天台。儼也令李，成書於《復性》。其或角史華之術，因躡刀梯。諫德宗之非，乃停沙汰。申答而驚李_激，作謠而占衡山，《破邪》之論可宗，《鑑燈》之頌歸我。

以前諸德超世卓然，式遏寇讎，闢牆禦侮。言其薄者，則發憤忘食，殊弗防其反_污。其如臯原縱火，蘭艾之臭同焚；樹木摧風，鸞鷗之巢共覆者，其唯會昌滅虐我法之謂乎？從漢至唐，凡經數厄，鍾厄爰甚，莫甚武宗焉！初有道士趙歸真者，授帝留年之術，寵遇無比。每一對揚，排毀釋氏，宜盡除之。蓋以歸真曾於敬宗朝出入宮掖，勢若探湯。及其禍纏暴弑，自然事體如漿。京邑諸僧競生誚謗，歸真痛切心骨，何日忘之？還遇武皇，因緣狎昵，署為兩街教授先生。時諫官抗疏，宰臣李德裕屢言。歸真懼其動搖，奏迎羅浮鄧元起、南嶽劉玄靖入，帝謂神仙坐致。由是共為_掎角，同毀釋門，意報僧譏誚之讎耳！眾輕覆車，群噪驚蟄。須彌顛[危*瓦]，困其劫盡之風；有頂低摧，倚其宿舂之杵。詎云終否，當有復時。大中行廢教之誅，會昌非後天之老。吁咄哉！歸真奇祕之術，今古所無。何邪？能寄喜怒於天子之心，雖王晉、安期，俱弗如也。爾時玄暢——法寶大師也——納兩街之請，操一割之刀，纂輯古今，搜揚經史，成其別錄，上其表牋。逆龍鱗之手已伸，探虎穴之心且勇。膏_肓之疾，圭刀之散何施？混濁之河，銖兩之膠謾解。如皆畏震，所謂坐看暢公手拓不周山，不免共工之觸折也。凡今緇伍，無縱毀譏。毀譏，小人也。及罹禍毒，君子受之，亦猶城門火而池魚死也。儻云周武不落於阿鼻，歸真自登於仙籍，宣宗誅之，已塞責矣。是故比丘但自觀身行，莫伺玄門，非干己事。又以空門染習如然，無鬪四支而傷具體，各是聖人設教，無相奪倫。如此行時，名真護法也。老氏云：「六親不和，則有孝子。」如無孝子之名，信六親大和也。已上諸公，皆家中有競，號咷諫乎！因得善父母之名歟？今我傳家，止勸將來二教和同，弗望後生學其訐直，險在其中矣，為君不取。然則臨機可用，相事當行，必任弛張，勿為膠柱。然後知時名為大法師也。《傳》又云乎：「相時而動，無累後人」，其斯之謂歟！

宋高僧傳卷第十七

宋左街天壽寺通慧大師賜紫沙門贊寧等奉 勅撰

感通篇第六之一(正傳十五人附見三人)

後魏西涼府檀特師傳

釋檀特師者，一名慧豐，不知何許人也。身雖剃染，率略無檢制，飲酒啖肉，語默無常。逆論來事，後必如言。居于武威，肆意狂逸。時宇文仲和為刺史，請之入州，歷觀厩庫，乃云：「何意畜他官物邪？」仲和不諭其旨，怒之，不令在城。未幾，仲和拒不受代，朝廷令獨孤信擒之。仲和身死，資財沒官。周文聞之，降書召之。檀特至岐州，會齊神武來寇玉壁，檀特曰：「狗豈能到龍門邪？」神武果不至龍門而還。侯景未叛東魏之前，忽捉一杖，杖頭刻為獼猴形，令其面常向西，日夜弄旃。又索一角弓牽挽之。俄而侯景啟降，尋復背叛歸梁，皆可徵驗。至大統十七年春初，忽著一布帽。周文左右驚問之，檀特曰：「汝亦著，王亦著也。」至三月而魏文帝崩。復取一白絹帽戴之，左右復問之。檀特曰：「汝亦著，王亦著也。」未幾丞相夫人薨。後復戴，問對同前，尋丞相第二子武邑公薨。其事驗多如此也。俄而病卒，周文命葬之。

後魏晉陽河禿師傳

釋河禿師者，不詳何許人也。魏孝昌中，於晉陽市肆間行往，乍愚乍智，作沙門形。時人不測，止呼為河禿師。及齊神武誕第二子洋——文宣帝也——，武明太后見家貧甚，與親戚言及家計，正憂飢凍死耳！洋方生數月，尚未能言，歎言曰：「得活！」二字分明。太后左右大驚，而不敢言，謂為妖怪。時傳禿師神異，射事多中，巧誘而至。太后意占其兒子早言為怪，乃遍見諸子——文襄、魏永熙后——，旁以祿位歷問之。至洋，再三舉手，指天而已，口無所言。若諸子，皆別無舉措矣。後不測其終。

陳新羅國玄光傳

釋玄光者，海東熊州人也。少而穎悟，頓厭俗塵，決求名師，專修梵行。迨夫成長，願越滄溟，求中土禪法。於是觀光陳國，利往衡山，見思大和尚，開物成化，神解相參。思師察其所由，密授《法

華安樂行門》。光利若神錐，無堅不犯；新猶劫貝，有染皆鮮。稟而奉行，勤而罔忒，俄證法華三昧，請求印可。思為證之：「汝之所證，真實不虛，善護念之，令法增長。汝還本土，施設善權，好負螟蛉，皆成蜾蠃。」光禮而垂泣，自爾返錫江南。屬本國舟艦附載，離岸時，則綵雲亂目，雅樂沸空，絳節霓旌，傳呼而至。空中聲云：「天帝召海東玄光禪師。」光拱手避讓，唯見青衣前導，少選入宮城，且非人間官府。羽衛之設也，無非鱗介，參雜鬼神。或曰：「今日天帝降龍王宮，請師說親證法門，吾曹水府，蒙師利益。」既登寶殿，次陟高臺，如問而談，略經七日。然後王躬送別，其船泛洋不進。光復登船，船人謂經半日而已。光歸熊州翁山，卓錫結茅，乃成梵剎。同聲相應，得法者蟄戶爰開；樂小迴心，慕羶者螳連條至。其如升堂受莛者一人，入火光三昧一人，入水光三昧二人，互得其二種法門。從發者彰三昧名耳。其諸門生，譬如眾鳥附須彌山，皆同一色也。光末之滅，罔知攸往。南嶽祖構影堂，內圖二十八人，光居一焉。天台國清寺祖堂亦然。系曰：夫約佛滅後，驗入道之人，以教、理、行、果四法明之，則無逃隱矣！去聖彌近者，修行成，果位證也；去聖稍遙者，學教易，見理親也；其更綿邈者，學教不精，見理非諦。夫一念不生，前後際斷，斯頓心成佛也。理佛具足行布修行，曾未嘗述行佛。具體而微：東夏自六祖已來，多談禪理，少談禪行焉。非南能不說行，且令見道如救頭然之故。南岳思師切在兼修，乘戒俱急，是以學者驗諸行果。其如入火光三昧者，《處胎經》中以禪定攝意入火界三昧，剎土洞然。愚夫謂是遭焚。若入水界三昧，愚夫見謂為水，投物于中。菩薩心如虛空不覺觸燒者，此非二乘所能究盡也。斯乃急於行果焉。無令口說而身意不修，何由助道耶？

隋江都宮法喜傳

釋法喜，南海人也，形容寢陋，短弱迂疎，可年四十許。嶺表耆老咸言：「兒童時見識之，顏貌如今無異。」蠻蜒間相傳云已三百歲矣。亦自言舊識廬山慧遠法師，說晉、宋朝事，歷歷如信宿前耳。平素時悄然，見人必語，語必含深意，吉凶之徵，有如影響。人亦不欲與喜相見，懼直言災惡忤逆意也。陳朝馬靜為廣州刺史，方上任，喜直入州上廳事，畫地作馬頭形，以示其子而去。靜本扶風名族，雄勇多武略，不閑事體。及臨州也，每出行，部從甲士數萬，旌旗劍戟，若虹霓映乎霜雪，言以此可用威邊徼。其奢僭過度，王者之不若，被人誣告謀反。靜懼，即遣妻子百餘人入朝，示無圖變。陳主猶惑，遣臨汝侯觀其形勢曰：「必有反狀，便可行戮。實

無逆謀，直往代之。」臨汝利其財產，至州不驗是非。靜恃心無異，束手詣臨汝，便叱左右擒而斬之。此畫地之明効矣。喜之先見，皆同此類。煬帝聞之，追來揚州。未久，宮內樹一堂新成。喜忽忽升堂觀覽，俄驚走下階，唱言「幾壓殺」！其日夜闌，大雨堂崩，斃者數人，其後又於宮內環走，言索羊頭。帝聞惡之，責以狂言，勅鎖著一室。數日，三衛於市見喜坦率遊行。還奏，勅所司覆驗禁閉之處，門鎖如故。守當者云：「喜見在室內。」於是開戶，見袈裟覆一聚白骨，其鎖貫項骨不脫。帝甚驚怪，勅遣長史王恒疾往驗之，袈裟覆白骨，骨皆鈎鎖相連，鐵鎖磨其項骨。帝聞，愕然稱歎，尤增信重。勅令勿輕搖蕩，曰：「聖者神變無方。」至暮，喜還在室，或言或笑，守門復奏。帝令脫鎖，縱其所適。有於一日赴數家齋食，或時飲酒啖肉，都無拘忌。俄而有疾，常所臥床自撤薦席，**襯**簣而欲寢。令人於下鋪炭甚熾，數日而終，半身焦爛。葬于香山寺側。後，四年，南海郡奏喜見還在郡。勅遣開棺，空無所有矣。

隋洛州欽師傳

釋欽師者，不知何許人也。大業中，至廣平，形神乖謬，造次難知，發語不常，既往爰中。見靈通寺樹甄浮圖五級，欲務高敞，工作殫雜。欽望而笑，謂寺眾曰：「造此奚為？」眾曰：「功德佛事，須用壯觀，法師何斯怪問耶？」笑曰：「造烽火樓也。」當時緇伍互相非之曰：「風狂輩言，何可取！」至九年，塔尚未成，賊寇四起，州官警嚴，於浮圖上置候望烽火，方信欽言不妄矣。在所耆舊亦不知欽從何而來。止宿之處，亦無蹤跡。然則時時變身，在豕彘之牢，即隨狍豨群隊。童子馬世達等數人覩欽始變之時，乃停留伺察，意更觀其復人形也。後果忽復形，却於看人之後大叫曰：「爾輩欲何所觀耶？」群人驚愕，合掌拜之。其變無常，皆若此也。及天下喪亂，亦失欽聲迹矣。

系曰：魏隋之僧且多應現者何？通曰：「菩薩作用，隨類化身，以神通為遊戲耳。於遊戲而利益世主焉。」或曰：「魏、齊、陳、隋與宣師耳目相接，胡不入《續傳》耶？」通曰：「有所不知，蓋闕如也。亦猶大宋文軌既同，土疆斯廣，日有奇異，良難遍知。縱有某僧也，其奈史氏未編，傳家無據，故亦闕如，弗及錄者，留俟後賢者也。」

唐泗州普光王寺僧伽傳(木叉慧儼慧岸)

釋僧伽者，葱嶺北何國人也。自言俗姓何氏，亦猶僧會本康居國人，便命為康僧會也。然合有胡、梵姓名，名既梵音，姓涉華語。詳其何國，在碎葉國東北，是碎葉附庸耳。伽在本土，少而出家。為僧之後，誓志遊方。始至西涼府，次歷江淮，當龍朔初年也。登即隸名於山陽龍興寺，自此始露神異。初將弟子慧儼同至臨淮，就信義坊居人乞地，下標誌之，言決於此處建立伽藍。遂穴土獲古碑，乃齊國香積寺也。得金像衣葉，刻「普照王佛」字，居人歎異云：「天眼先見，吾曹安得不捨乎？」其碑像由貞元、長慶中兩遭災火，因亡蹤矣。嘗臥賀跋氏家，身忽長其床榻各三尺許，莫不驚怪。次現十一面觀音形，其家舉族欣慶，倍加信重，遂捨宅焉。其香積寺基，即今寺是也。由此奇異之蹤，旋萌不止。中宗孝和帝景龍二年，遣使詔赴內道場，帝御法筵，言談造膝，占對休咎，契若合符。仍褒飾其寺曰普光王。四年庚戌，示疾，勅自內中往薦福寺安置。三月二日，儼然坐亡，神彩猶生，止瞑目耳。俗齡八十三，法臘罔知。在本國三十年，化唐土五十三載。帝慘悼黯然。于時穢氣充塞，而形體宛如，多現靈迹。勅有司給絹三百疋，俾歸葬淮上，令群官祖送，土庶填[門@壹]。五月五日，抵于今所。帝以仰慕不忘，因問萬迴師曰：「彼僧伽者何人也？」對曰：「觀音菩薩化身也。經可不云乎？應以比丘身得度者，故現之沙門相也。」初伽化行江表，止嘉禾靈光寺。彼澤國也，民家漁梁、罾弋交午。伽苦敦喻：其諸殺業陷墮於人，宜疾別圖生計。時有裂網折竿者多矣。伽閑而宴息，見神告曰：「天方亢陽，百姓苗死身胡藏？其懶龍耶！」伽曰：「為之奈何？」神曰：「若今夕但小指出窓隙外，其如人何？」伽依之，其夜霆擊異常，質明視指，微有紅線脈焉。伽曰：「吾與此壤無緣。」乃行抵晉陵，見國祥寺荒廢，乃留衣於殿梁而去，後人聞異香芬馥。伽嘗記之曰：「伊寺有『人王』重興。」去三十年後，果有僧俗姓全，為檀那矣。通天萬歲中於山陽眾中懸知嫌鄙伽者，乃昌言曰：「吾有五十萬錢奉助功德，勿生橫議。」伽於淮岸招呼一船曰：「汝有財施吾，可寬刑獄。汝所載者，剽略得耳。」盜依言盡捨，佛殿由是立成。無幾，盜敗，拘於揚子縣獄。伽乘雲下，慰喻言：無苦。不日，果赦文至，免死矣。昔在長安，駙馬都尉武攸暨有疾，伽以澡罐水噴之而愈，聲振天邑。後有疾者告之，或以柳枝拂者，或令洗石師子而瘳，或擲水餅，或令謝過。驗非虛設，功不唐捐。却彼身災，則求馬也；警其風厄，則索扇歟。或認盜夫之錢，或咋黑繩之頸，或尋羅漢之井，或悟裴氏之溺，或預知大雪，或救旱飛雨。神變無方，測非恆度。中宗勅恩度弟子三人——慧岸、慧儼、木叉——各賜衣盂，令嗣香火。泊乎已滅，多歷年所，嘗現形往漢南市漆器。及商人李善信船

至寺，覓買齋器僧。忽見塔中形像，凝然而指曰：「正唯此僧來求買矣！」遠近嗟歎。又嘗於洪井化易材木，結筏而至焉。大曆中，州將勒寺知十驛，俾出財供乘傳者。至十五年七月甲夜，現形于內殿，乞免郵亭之役。代宗勅中官馬奉誠宣放，仍齎捨絹三百疋、雜綵千段、金澡罐、皇太子衣一襲，令寫貌入內供養。又乾元中，州牧李(亡名)，有推步者云：「為土宿加臨，災當惡弱。」伽忽現形，撫李背曰：「吾來福至，汗出災銷。」後無他咎。嘗於燕師求氈罽，稱是泗州寺僧。燕使齎所求物到，認塔中形，信矣！遂圖貌而歸。自燕、薊展轉傳寫，無不遍焉。長慶元年夜半，於州牧蘇公寢室前歌曰：「淮南、淮北，自此福焉。自東自西，無不熟矣。」其年獨臨淮境內有年耳。二年寺塔皆焚，唯伽遺形儼若無損。咸通中，龐勛者——本徐州戍卒——，擅離桂管，沿路劫掠而攻泗州，圍逼其城。伽於塔頂現形，外寇皆睡，城中偶出擊之，驚竄而陷宿州。以事奏聞，仍錫號證聖大師也。文德元年，外寇侵軼，州將嬰城拒敵。伽現形於城西北隅。寇見，知堅壘難下，駭而宵遁。大順中彭門帥時溥令張諫攻于北城，除勦戮外，有五百餘人拘鞠場中，諫凭桉恍惚間見僧衣紫，誨之曰：「此輩平人，何可殺耶？不如捨之。」言畢不見。諫遂縱之而逸。乾寧元年，太守臺蒙夢伽云：「寒東南少備。」蒙不喻旨，以綿衾法服施之。十二月晦夜半，有兵士踰壘而入，蒙初不知。復夢一僧以錫杖置于心上，冷徹心骨，驚起。蒙令動鼓角，賊驚奔，獲首領姓韓，至是方曉矣。由此多於塔頂現小僧狀，傾州瞻望。然有吉凶表兆，于時乞風者分風，求子者得子。今聞有躬禮者，往往有全不見伽形相者。或見笑容者吉，不然則凶，其不可爰度者如此。洎乎周世宗有事于江南，先攻取泗上，伽寄夢於州民，言不宜輕敵。如是達于州牧，皆未之信。自爾家家夢同，告之，遂降，全一郡生民，賴伽之庇矣。天下凡造精廬，必立伽真相，榜曰大聖僧伽和尚。有所乞願，多遂人心。李北海邕、胡著作浩各為碑頌德。今上御宇也，留心于此，其年三月有尼遊五臺山迴，因見伽於塔頂，作嬰孩相，遂登剎柱，捨身命供養。太平興國七年，勅高品白承睿重蓋其塔，務從高敞，加其累層。八年，遣使別送舍利寶貨，同葬于下基焉。其日有僧懷德預搆柴樓，自持蠟炬，焚身供養。災燎之中，經聲不絕。又將欲建浮圖，有巨木三根，沿淮而下，至近浮橋且止，收為塔心柱焉。續勅殿頭高品李庭訓主之。先是此寺因竈中金像刻其佛曰「普照王」，乃以為寺額。後避天后御名，以「光」字代之。近宣索《僧伽實錄》，上覽已，勅還其題額曰普照王寺矣。弟子木叉者，以西域言為名，華言解脫也。自幼從伽為剃髮弟子，然則多顯靈異。中和四年，刺史劉讓，厥父中丞忽夜夢一紫衣僧云：「吾有弟子木叉葬寺

之西，為日久矣！君能出之？」仍示其葬所。初夢都不介意，再夢如初，中丞得夢中所示之處，欲施斷之，見有一姓占居，於是饒錢市焉。開穴可三尺許，乃獲坐函，遂啟之，於骨上有舍利放光。命焚之，收舍利八百餘顆，表進上僖宗皇帝，勅以其焚之灰塑像，仍賜諡曰真相大師。于今侍立于左，若配饗焉。弟子慧儼，未詳氏姓、生所，恒隨師僧伽，執侍餅錫，從楚州發至淮陰，同勸東海裴司馬一一妻愷白金沙羅而墮水。抵盱眙，開羅漢井、宿賀跋玄濟家，儼侍十一面觀音菩薩旁。自爾詔僧伽上京師。中宗別勅度儼并慧岸、木叉三人，各別賜衣鉢焉。

唐嵩嶽少林寺慧安傳

釋慧安，姓衛氏，荊州支江人也。其貌端雅，紺髮青目，降神乃隋開皇初年也。安受性寬裕，不染俗塵，修學法門，無不該貫。文帝十七年，勅條括天下私度僧尼，勘安，云本無名姓，亡入山谷。大業中，開通濟渠，追集夫丁，飢殍相望。安巡乞多鉢食，救其病乏，存濟者眾。煬帝聞之，詔安，遂潛入太白山。至帝幸江都，海內擾攘，乃杖錫登衡嶽寺，行頭陀法。貞觀中，至蘄州，禮忍大師。麟德元年，遊終南山石壁而止。時所居原谷之間，早霜傷苗稼，安居處獨無。四十里外皆苦青女之災矣。天皇大帝聞而召焉，安不奉詔。永淳二年至滑臺，草亭居止，中坐繩床，四方坦露。勅造寺以處之，號招提是也。如是却還家鄉玉泉寺，時神秀禪師新歸寂，咸請住持。安弗從命。天后聖曆二年四月，告門人學眾曰：「各歸閉戶。」至三更，有神人至，扈衛森森，和鈴鈿鈿，風雨偕至。其神旋繞其院數遭，安與之語，丁寧教誡，再拜而去。或問其故，曰：「吾為嵩山神受菩薩戒也。」天后嘗問安甲子，對曰：「不記也。」曰：「何不記耶？」乃曰：「生死之身如循環乎？環無起盡，何用記為？而又此心流注，中間無間，見漚起滅者，亦妄想耳。從初識至動相滅時，亦只如此，何年月可記耶？」天后稽顙焉。聞安闕井，勅為鑿焉。安曰：「此下有赤祥，慎其傷物。」將及泉，見蝦蟇金色，蠢然出沮洳間，合其懸記。帝倍加欽重。殆中宗神龍二年九月，勅令中官賜紫袈裟并絹，度弟子二七人。復詔安并靜禪師入中禁受供施。三年，賜摩訶一副，便辭歸少林寺。至景龍三年三月三日，囑門人曰：「吾死已，將屍向林間，待野火自焚之。勿違吾願！」俄爾萬迴和尚來見，安猖狂執手，言論移刻，旁侍傾耳都不體會。至八日，閉戶，偃身而寂。春秋一百三十許歲，起開皇二年，至景龍三年故也。火焚屍畢，收舍利八十粒，內五粒紅紫色進內，餘散施隨力造塔。先天二年門人建浮圖焉。

唐虢州閿鄉萬迴傳

釋萬迴，俗姓張氏，虢州閿鄉人也。年尚弱齡，白癡不語，父母哀其濁氣。為隣里兒童所侮，終無相競之態。然口自呼「萬迴」，因爾字焉。且不言寒暑，見貧賤不加其慢，富貴不足其恭，東西狂走，終日不息。或笑或哭，略無定容，口角恒滴涎沫，人皆異之。不好華侈，尤少言語，言必識記，事過乃知。年始十歲，兄戍遼陽——云安西——久無消息，母憂之甚，乃為設齋祈福。迴條白母曰：「兄安極易知耳，奚用憂為？」因裹齋餘，出門徑去，際晚而歸，執其兄書云：「平善。」問其所由，默而無對，去來萬里。後時兄歸云：「此日與迴言，適從家來，因授餅餌共啗而返。」舉家驚喜。自爾人皆改觀，聲聞朝廷，中宗孝和皇帝詔見崇重。神龍二年，勅別度迴一人而已。自高宗末，天后時常詔入內道場，賜錦繡衣裳，宮人供奉。先為兒時，於閿鄉興國寺累瓦石為佛塔。入內之後，其塔遂放光明，因建大閣而覆之。然其施作，皆不可輒量，出言則必有其故。勅賜號為法雲公，外人莫可得見。先是天后朝任酷吏行羅織事，官稍高隆者日別妻子。博陵崔玄暉位望俱極，其母盧氏賢，而憂之曰：「汝可一日迎萬迴，此僧寶誌之流，可以觀其舉止，知其禍福也。」乃召到家，母垂泣作禮，兼施中金七筋一雙。迴忽下階擲其七筋向堂屋上，掉臂而去。一家謂為不祥。經數日，令升屋取之，七筋下得書一卷，觀之，乃識緯書也，遽令焚之。數日，有司忽來其家，大索圖識，不獲，得雪。時酷吏多令盜投蠱道物及偽造祕識，用以誣人，還令誣告得實，屠戮籍沒其家者多。崔氏非聖人擲七筋，何由知其偽圖識也？中宗末，嘗罵韋后為「反悖逆，斫爾頭去！」尋而誅死。太平公主為造宅於懷遠坊中，與主宅前後爾。又孝和親送金城公主出降吐蕃，幸始平，迴出迎駕。時崔日用、武平一、宋之問、沈佺期、岑羲、薛稷皆肅揖，鄭重問訊。諸公曰：「各欲求聖人一言以定吉凶。」撫沈背曰：「汝真才子。」沈不勝其喜曰：「聖人與我受記，諸子不可更爭。」又謂武曰：「與汝作名佛童，當無憂也。」目羲、稷有不善之色。岑以馬避之，目稷云：「此多是野狐，其言何足懼也？」乃顧云：「汝亦不免。」及羲、稷之誅，人益貴重。同時有僧伽，化迹不恒。中宗問迴曰：「此何人也？」迴曰：「觀音之化身也。」貞觀中，三藏奘師西歸，云天竺有石藏寺。奘入時見一空房，有胡床錫杖而已。因問此房大德，咸曰：「此僧緣闕法事，罰在東方，國名震旦，地號閿鄉，于茲萬迴矣。」奘歸求見迴，便設禮。問西域，宛如目矚。奘將訪其家，迴謂母曰：「有客至，請備蔬食。」俄而奘至。神異之迹，多此類也。正諫大夫明崇儼者，道術之士，謂人曰：

「萬迴，神僧也。」玄宗潛龍時，與門人張暉等同謁。迴見帝甚至褻黷，將漆杖呼且逐之，同往者皆被驅出。曳帝入，反扃其戶，悉如常人，更無他，重撫背曰：「五十年天子自愛，已後即不知也。」張公等門外歷歷聞其言，故傾心翼戴焉。五十年後，蓋指祿山之禍也。睿宗在邸時，或遊行人間。迴於聚落街衢中高聲曰：「天子來。」或曰：「聖人來。」其處信宿間，帝必經過徘徊也。惠莊太子，乃睿宗第二子也，天后曾抱示迴，曰：「此兒是西域大樹精，養之宜兄弟也。」安樂公主——玄宗之季妹——附會韋后，熱可炙手，道路懼焉。迴望車騎，連唾之曰：「腥，腥，不可近也。」不旋踵而禍滅及之。帝愈知迴非常人也，出二宮人，日夕侍奉之，特勅於集賢院圖形焉。暨迴垂卒，而大呼遣求本鄉河水，門人徒侶求覓無所。迴曰：「堂前即是河水，何不取耶？」眾於階下掘井，河水湧出，飲畢而終。迴宅坊中井皆鹹苦，唯此井甘美。後有假託，或稱「小萬迴」，以惑市里，多至誅死焉。至于終後，右常侍徐彥伯為碑，立闕鄉玉澗西路矣。

系曰：日行萬里，非人必矣。為鬼神邪？為仙術邪？通曰：「觀行知人，迴無邪行，非鬼神也；無故作意，非仙術也。此得『通』耳。故《智度論》中此通有四：一身能飛行，如鳥無礙；二移遠令近，不往而到；三彼沒此出；四一念能至。」或曰：「四中迴具何等？」通曰：「俱有哉！故號『如意通』矣。《瑜伽論》『神境』同也。云或羅漢有大堪能現三神變焉。」

唐齊州靈巖寺道鑿傳

釋道鑿，姓馮氏，吳郡人。未知從來，而居歷下靈巖山寺，蹤迹神異，不測僧也。元和中，有馮生者，亦吳郡人也，以明經調選未捷，因僑寄長安。一日見老僧來詣馮居，謂之曰：「汝，吾姓也。」因相與往還。僅于歲餘，遂注擬作尉于東越。方務治裝，鑿負錫來告去。馮問：「師去，安所詣乎？」鑿曰：「吾廬在齊州靈巖之西廡下。薄遊神京，至今正十年矣。幸得與子遊，今歸舊所，故來相別。然吾子尉于越鄉，道出靈巖寺下，當宜一訪我也。」馮諾之曰：「謹受教矣。」數日，馮出關，東之赴任，至靈巖寺門，立馬望曰：「豈非鑿師所居寺乎？」即入訪之。時一僧在庭，馮問：「道鑿上人廬舍安在？」僧曰：「此寺無道鑿。」馮疑異，默而計曰：「鑿公純直，豈欺我乎？」於是獨遊寺中，行至西廡下，忽見壁畫一僧，與鑿師貌同。馮大驚嗟：「鑿師果異人歟？且能降神與我交。」久之，視其真相旁題云：「馮氏子，吳郡人也。年十歲學浮圖法，以道行有聞，卒年七十八。」馮閱其題，方悟云

「汝，吾姓也」，言非謬矣。一說蘇州西去城二十許里，有靈巖山寺，西北廡下畫沙門形，云是梁天監十五年作遊方居士狀，經過山寺，寓過宵宿，而於僧厨借筆硯，僧眾皆不留意。詰旦，僧遍搜索而亡有客，見殿隅畫一梵僧，面骨權奇，膚色皴黑，眉長且垂，眸子電轉，皆間青白，昂鼻方口，張脣露齒，擊拳倚右肩之上，身屈可長一丈五寸，衣鹿衲袈裟，臂環大珠，徒跣。眾見驚懾，莫測其來。遠近咸格，有焚香禮歎者，有請福禳災者。或於晴夜，殿中析窳，聞有行道之聲，由是鳥雀不敢污踐簷楹之間矣。然則鄉人謂之靈巖和尚，或云靈巖聖僧。嘗見形謂一老姥曰：「貧道好食芡粽。」疑是聖者，翌日持簞入殿供養，迄今年別三月三日民競送之，以菰蔣葉角黍米[廿/淪]之，吳人謂之芡粽也。唐先天二年，陸魯公疾，醫工未驗，公憂慮增劇。門遇一僧分衛，屈入，遂索水器含嚙之，即時病間。魯公喜，贈物頗豐，了不迴視。遂問：「和尚居處何寺？」答曰：「貧道住蘇州吳縣西靈巖寺。郎君為官江表，望入寺相尋。」斯須已去。未久，調補尚書刑部郎，續遷桂州廉使。常念當年救病之僧，迂路姑蘇，入靈巖寺覓焉。乃說其形貌，合寺僧云：「非此所有。」陸盡日徘徊不忍去，忽於殿中見聖者形，曰：「往年療某者，此僧也。」寺僧說其由致，通感難知。陸捨錢數萬，備香火之資，却留旬日，供養方去。又寺中淨人每於像前占燭燈，添油助燼，意盜油塗髮耳。居無何，其髮焦卷而墮，傍人勸令禮懺，別買麻膏增炷，平復如初。又武宗將廢佛教也，近寺有陸宣者，夢聖者云：「受弟子供施年深，今來相別，且歸西天去也。」宣急命畫工圖寫真貌。至會昌五年，毀拆寺宇，方知告別之意焉。距咸通七年蝗災，爾時彌空巨野，食人苗稼，至于入人家食繒帛之物。百姓徬徨，莫能為計。時民人吳延讓等率耆艾數十百人詣像前焚香泣告，即日蟲飛越境焉。乾符五年，寺眾當詣闕乞鐘歸寺，差僧選日登途。聖者先入右神策軍本局，預陳囑託。及正請鐘僧到，見司吏，怪問：「數日前有僧來，云隸蘇州靈巖山寺。」其僧曰：「某行無伴侶。」後右軍胥因事遊吳，見壁畫云：「此是七月中曾來司內計會鐘僧也。」然吳中極彰靈異，且不測厥由。曾有梵僧來，禮畫像云：「智積菩薩何緣在此？」歎嗟彌久，而自此號「智積應身」也。

系曰：同異之說，史氏多之，今詳寺曰靈巖，僧畫像，此為同也；州曰歷下、姑蘇，遇者曰陸與馮，此為異焉。斯蓋見聞不齊，記錄因別也。原夫聖人之應身也，或南或北，或漢或胡，或平常之形，或怪差之質，故令聞見必也有殊，復使傳揚，自然多說。譬猶千里之外，望日月以皆同，其時邊旁雲物狀貌有異耳。既是不思議應現矣，則隨緣赴感，肆是難同。可發例云：「所傳聞異辭也。」

唐武陵開元寺慧昭傳

釋慧昭，未詳何許人。其為僧也，性僻而高，恒修禪定，貌頗衰羸，好言人之休戚，而皆必中。與人交言，且不馴狎。閉關自處，左右無侍童。每日乞食，里人有八十餘者云：「昭居此六十餘年，其容貌無異於少時昔日也。」但不知其甲子。元和有陳廣者，由孝廉調為武陵官，而酷好浮圖氏。一日因詣寺，盡訪諸僧，昭見廣，且悲且喜曰：「陳君何來之晚乎？」廣愕然，自揣平生不識此僧，何言來晚？乃曰：「未嘗與師遊，何責遲暮？」昭曰：「此非倉卒可言，當為子一夕靜話，方盡此意。」廣甚驚異，後時詣昭宿，因請其事。昭曰：「我劉氏子，宋孝文帝之玄孫也。曾祖鄱陽王休業、祖士弘，並詳於史氏。先人文學自負，為齊竟陵王子良所知。子良招集賢俊文學之士，而先人預焉。後仕齊梁之間，為會稽令。吾生於梁普通七年夏五月，年三十方仕於陳，至宣帝時為卑官，不為人知，徒與沈彥文為詩酒之交。後長沙王叔堅與始興王叔陵皆多聚賓客，大為聲勢，各恃權寵，有不平心。吾與彥文俱在長沙之門下。及叔陵被誅，吾懼不免，因皆銷聲匿跡於林谷，拾橡栗而食，掬溪澗而飲，衣一短褐，雖寒暑不易，以待所憂之所定。無何，有一老沙門至吾所居曰：『子骨法甚奇，當無疾耳。』彥文再拜請其藥，曰：『子無劉君之壽，奈何？雖服吾藥，亦無所補。』遂告別，將去，復謂我曰：『塵俗以名利相勝，竟何有哉？唯釋氏可以捨此矣。』恭納其言，自是不知人事，凡十五年。又與彥文俱至建業，時陳氏已亡，宮闕盡毀。臺城牢落，荆榛蔽路，景陽并塞，結綺基頽，文物衣冠，蕩然而盡。故老相遇，相携而泣，且曰：『一人無良，已至於是，隋氏所滅，良可悲乎！』又聞後主及諸王皆入長安，乃率沈挈一囊乞食於路，以至關中。吾長沙王之故客也，恩遇甚厚，聞其遷往瓜州，則徑往就謁。長沙王長於綺紈而早貴盛，雖流放之際，尚不事生業。時方與沈妃酣飲。吾與沈再拜於前，長沙悲慟，久之瀝泣而起，乃謂吾曰：『一日家國淪亡，骨肉播遷，豈非天乎？』吾自此且留晉昌氏羌之塞。數年而長沙殂，又數年彥文亡，吾因剔髮為僧，遁跡會稽山佛寺，凡二十年，時已百歲矣。雖容體枯瘠，而筋力不衰。尚日行百里。因與一僧同至長安，時唐高祖已有天下，建號武德。至六年，吾自此或居京洛，或遊江左，至於三蜀五嶺，無不住焉，殆今二百九十年矣。雖烈寒酷熱，未嘗有微恙。貞元末，於此寺夢一丈夫，衣冠甚盛，熟視乃長沙也。吾迎延坐，話舊傷感，如平生時。而謂吾曰：『後十年，我之六世孫廣當官於此郡，師其念之。』乃問之曰：『王今何為？』曰：『冥官極尊。』既而又泣曰：『師存而我之六世矣，悲夫！』

吾夢覺，因紀君之名於經笥中，至去歲凡十年，乃以君之名氏訪於郡人，尚怪君之未至。昨因乞食里中，遇邑吏訪之，果得焉。及君之來，又依然長沙之貌也。然自夢及今十一年矣！故訝君之晚也。」已而悲惋，泣下數行，因出經笥示之。廣再拜，願執屨錫為弟子。昭曰：「君且去，翌日當再來。」廣受教而還，明日至其居，昭已遁去，莫知其適。時元和十一年也。至大和初，廣為巴州掾，於山南道路逢昭，驚喜再拜曰：「願棄官，請從師為物外之遊。」昭亦許之，其夕偕舍于逆旅。至天將曙，廣早起而省昭已去矣。廣茫然若有所喪，神情沮敗，自是盡不知所往也。然則昭自梁普通七年生，于時歲在丙午，下至唐元和十年乙未，凡二百九十年，則與昭言如合符契焉。

系曰：慧昭既三百年住世也，前不可測，後未可涯，與夫賓頭羅暎尊者一貫，胡不念恩地之裔孫邪？通曰：「神仙隔一塵，猶未可與之遊。且廣是具縛凡夫，昭為度世上士，飛鳶與淵魚，蹤跡相遠，此何怪歟？」

唐岸禪師傳

釋岸禪師，并州人也，約淨土為真歸之地。行方等懺，服勤無缺。微有疾，作禪觀不虧，見觀音、勢至二菩薩現於空中，持久不滅。岸召境內畫人，無能畫者，忽有二人云從西京來，欲往五臺，自樂輸工。畫菩薩形相續事畢，贈鞵二緡，忽隱無蹤。岸知西方緣熟，告諸弟子云：「吾今往生，誰可偕行？」有小童子稽顙曰：「願隨師去。」乃令往辭父母，父母謂為戲言，而令沐浴，著淨衣，入道場念佛，須臾而終。岸責曰：「何得前行？」時岸索筆讚二菩薩曰：「觀音助遠接，勢至輔遙迎，寶瓶冠上顯，化佛頂前明。俱遊十方刹，持華候九生。願以慈悲手，提獎共西行。」述讚已，別諸弟子入道場，命門徒助吾念佛，端坐而終，春秋八十。時垂拱元年正月七日也。

唐會稽永欣寺後僧會傳

釋後僧會者，本康居國人也，以吳赤烏年中謁大帝。初吳人未識僧形，止曰胡人入境。乃祈舍利已，令帝開悟。末主天紀四年，會尸解，真身隱焉。至唐高宗永徽中見形于越，稱是遊方僧，而神氣瓌異，眉高隆準，頤峭眸碧，而瘦露奇骨，真梵容也。見者悚然，罔知階位。時寺綱糾詰其厥由，罵而驅逐。會行及門，乃語之曰：「吾康僧會也，苟能留吾真體，福爾伽藍。」躡步之間，立而息

絕。既而青目微暝，精爽不銷，舉手如迎揖焉，足跨似欲行焉。眾議偃其靈軀，寘於窀穸，人力殫矣，略不傾移。雖色身堅牢，而疆事膠漆，遷于勝地，別立崇堂。時越人競以香華、燈明、繒綵、旛蓋、果實、衣器，請祈心願，多諧人意。初越之軍旅，多寓永欣，其婦女生產，兵士輦血，觸污僧藍，人不堪其淹穢。會乃化形往謁閩廉使李若初，且曰：「君侯即領越之藩條，託為遷之軍旅。」語罷，拂衣而去，尋失蹤跡。李公喜而駭，且記其言，後果赴是郡。及上事訖，便謁靈跡，認于時言者，則斯僧也。命撤軍家，勒就營幕。又正婦夜臨蓐席，且無脂燭，隣無隙光。俄有一僧秉燭自牖而入。其夫旦入永欣，認會貌，即是授火救產厄之僧。自爾民間多就求男女焉。屬會昌毀永欣也，唯今大善獨留，號開元矣，遂移會身入是寺中。大中之後，有曇休律師為會別創堂宇，廣其供具。又嘗就閭閻家求草履，至今越人多以芒屨油旛上獻，感應^神響，各赴人家，不可周述。今號超化大師。從永徽至今，未嘗闕其供施焉。沙門虛受為碑紀述焉。

系曰：蔡邕是張衡後身，智威本徐陵前事，驗皆昭晰，理且弗虛。至於聖人功用自在，此亡彼出，利見無方。僧會捐世既遐，唐來化越，立逝屹然，異中之異。苟非應物現形，如水中月，孰能預於是乎？

唐京兆法海寺道英傳

釋道英，不知何許人也。戒德克全，名振天邑，住寺在布政坊。咸亨中見鬼物，寺主慧簡嘗曰：「曉見二人行不踐地，入英院焉。」簡怪而問之，英曰：「向者秦莊襄王使使傳語『飢虛甚久，以師大慈，欲望排食并從者三百人，勿辭勞也。』吾以報云『後日曉具饌，可來專相候耳。』」簡聞之，言以酒助之。及期果來，侍從甚嚴，坐食倉黃，謂英曰：「弟子不食八十年矣。」英問其故，答曰：「吾生來不無故誤，其如滅東周，絕姬祀。或責以功德，吾平日未有佛法可以懺度，唯以赦宥、矜恤、惇獨塞之，終為未補。以福少罪多，受對未畢。今此一食，更四十年方復得食。」因歷指座上云：「此是白起、王翦，為殺害多，罪報未終。」又云：「此陳軫，以虛詐故。」英曰：「王何不從人索食而甘虛腹，此奚可忍乎？」王曰：「慈心人少，餘人不相見。吾緣貴人，不可妄行^崇禍，所以然也。」英指酒曰：「寺主簡公將獻。」深有所愧。垂去謂英曰：「甚感此行傷費饜飫，可知弟子有少物即送相償。城東通化門外尖塚一一以其銳上而高大一一是吾棲神之所。世人不知，妄云呂不韋墓耳。」英曰：「往遭赤眉開發，何有物來？」曰：「賊

取不得。」英曰：「貧道非發丘中郎，是出家人，無用物所，必勿將來。」言訖，長揖而去。英感下趣如此，罔知終畢。

唐京兆法秀傳

釋法秀者，未詳何許人也。居于京寺，遊於咸、鎬之間，以勸率眾緣，多成善務，至老未嘗休懈。開元末，夢人云：「將手巾、袈裟各五百條，可於迴向寺中布施。」覺後問左右，並云無迴向寺。及募人製造巾衣，又遍詢老舊僧俗，莫有此伽藍否。時有一僧，形質魁梧，人都不識，報云：「我知迴向寺處。」問要何所須并人伴等，答曰：「但齎所施物，名香一斤，即可矣。」遂依言授物，與秀偕行。其僧徑入終南山，約行二日，至極深峻，初無所覩。復進程，見碾石一具，驚曰：「此人迹不到，何有此物？」乃於其上焚所齎香，再三致禮哀訴，從午至夕。谷中霧氣彌浸，咫尺不辨，逡巡開霽，當半崖間有朱門粉壁，綠牖璇題，剎飛天矯之旛，樓直觚稜之影。少選，見一寺，分明雲際，三門而懸巨榜曰「迴向寺」。秀與僧喜甚，攀陟遂到，時已黃昏，而聞鐘磬唱薩之聲。門者詰其所從，遲迴，引入見一老僧，慰問再三，倡言曰：「唐皇帝萬福否？」處分令別僧相隨，歷房散手巾袈裟，唯餘一分。指一房空榻無人，有衣服、坐席，似有所適者。既而却見老僧一一若綱任之首一一曰：「其往外者，當已來矣。」其僧與秀復欲至彼授手巾等。一房但空榻者，亦無人也。又具言之，老僧笑令坐，顧彼房內，取尺八來至，乃玉尺八也。老僧曰：「汝見彼胡僧否？」曰：「見已。」曰：「此是將來權代汝主者。京師當亂，人死無數。此胡名磨滅王。其一室是汝主房也。汝主在寺，以愛吹尺八，罰在人間，此常所吹者也。今限將滿，即却來矣。」明日遣就齋，齋訖曰：「汝當迴，可將此尺八并袈裟、手巾，與汝主自收也。」秀禮拜而還，童子送出，纔數十步，雲霧四合，則不復見寺矣。乃持手巾、袈裟、玉尺八進上，玄宗召見，具述本末。帝大感悅，凝神久之，取笛吹之，宛是先所御者。後數年，果有祿山之禍，秀所見胡僧，即祿山也。秀感其所遇，精進倍切，不知所終。世傳終南山聖寺又有迴向也。

系曰：昔梁武遣送袈裟入海上山，法秀詣迴向寺，燕師命使尋竹林聖寺，此三緣者名殊而事一，莫是互相改作，同截鶴續覺否？通曰：「聖人之作，猶門內造車，門外合轍，雖千萬里之遠，事亦符合者，蓋無異路。故如樵子觀仙棊，爛柯非止王質。有多人遇棊，且姓名不同，為爛斧柯者不一。今送衣入聖寺多者，亦如此也。」

唐滑州龍興寺普明傳

釋普明，不知何許人也，或云西域之僧。每談禪法，舉擢玄微，莫可測其沈寥之高遠歟！大曆初年，受胙縣人請居阿蘭若，學者螳聚。塵中往來，白衣禮而施之，日以千計。或一覩相，自然懲忿窒慾，食甚懷音，沿善革惡，以歲計無央數也。右僕射義成軍節度使賈耽者——本謫仙也——優游道學，率略空門。纔覩明也，若羊祜之識舊環，蔡順之見慈母焉。降心延請住州寺，迎引傾郭，巷無居人。由是為人說法，雖老不疲。行疾如風，質貌輕壯。以貞元八年壬申閏十二月十日，囑付門徒，奄然坐滅。生年或云三百歲，以其年百歲者見之，顏容不易之故。依天竺法火化，收舍利二七粒。堅固圓明。群信於明所居禪庭立塔一所，後遷座於塔下焉。明亡之後十年，王師西征，安靜邊塞，滑人有材勇者柴清，因覘獫狁，深入虜庭。巡邏者多，乃晝伏夜動，迷方失路，迂直不分。清見明在前導，若老馬之先驅焉。及抵漢城，忽然不見。歸州就塔作禮，遐邇傳之。

宋高僧傳卷第十八

感通篇第六之二(正傳二十一人附見八人)

唐嵩嶽破竈墮傳

釋破竈墮者，不知何許人也。天后之世，參事嵩嶽安禪師——號老安是歟——，通徹禪法，逍遙弗羈，恒理求而不見其前，別塗取而莫趨其後。嘗遇巫氏能與人醮竈祓禳，若漢武之世李少君，以祠竈可以致物同也。凡其解奏之時，往往見鬼物形兆，閭里迭畏，傳于眾多，殺少牢以祭之者交午。重其主竈，乃旛蓋擁之，祕而罕覩焉，揚子所謂「靈場之威宜夜矣乎」？時墮詣之，始勸巫者，終為神說法已，告云：「我聞師教，決定生天。」乃現其形，禮辭且曰：「蒙師提耳，獲益彌深，得生殊勝天。」言訖而隱，其竈即神祠也，隨而瓦解，自然破落，非人力也。遐邇驚駭，此師素不稱名，由此全取他名，號破竈墮也。

唐嵩嶽閑居寺元珪傳

釋元珪，姓李氏，伊闕人也。稟氣英奇，寬裕閑雅。既緣宿習，乃誓出家，於永淳二年遂登滿足，乃隸名閑居寺。以習毘尼，雖勤無懈，執律唯堅。後悟少林寺禪宗，大通心要，深入玄微，遂廬于嶽中龐塢。謂其徒仁素曰：「吾始居寺東嶺。吾滅，汝必塔吾骸于此。」珪安于巖阿。時有峨冠袴褶，部曲繁多，輕步舒徐，稱謁大師。珪覩其貌偉，精爽不倫，謂之曰：「善來仁者，胡謂而至？」曰：「師寧識我邪？」珪曰：「吾觀佛與眾生等，吾一目之，豈分別識也？」對曰：「我此嶽神也。吾能利害生死於人，師安得一目我哉？」珪曰：「汝能生死於人，吾本不生，汝焉能死吾？視身與空等，視吾與汝等，汝能壞空與汝乎？苟能壞空及壞汝，吾則不生不滅也。汝尚不能如是，又焉能生死吾邪？」嶽神稽首再拜曰：「我亦聰明正直於餘神，豈能知師有廣大之智辯乎？願授之正戒，令我度世，助其威福。」珪曰：「神既乞戒，即既戒也。所以者何？戒外無戒，又何戒哉？」神曰：「此理也我聞茫昧，止求師戒我身為門弟子。」珪辭不獲，即為張座焚香，秉鑪正机曰：「付汝五戒，汝能奉持，即嚮曰能。不能，即曰否。」神曰：「洗耳傾聽，虛心納教。」珪曰：「汝能不姪乎？」神曰：「亦娶也。」

曰：「非謂此也，謂無羅欲也。」神曰：「能。」曰：「汝能不盜乎？」神曰：「何乏我也，焉有盜取哉？」曰：「非謂此也，謂饗而福淫，不供而禍善也。」神曰：「能。」曰：「汝能不殺乎？」神曰：「政柄在躬，焉曰不殺？」曰：「非謂此也，謂有濫誤混疑也。」神曰：「能。」曰：「汝能不妄乎？」神曰：「我本正直，焉能有妄？」曰：「非謂此也，謂先後不合天心也。」神曰：「能。」曰：「汝能不遭酒敗乎？」神曰：「力能。」珪曰：「如上為佛戒也。」又言：「以有心奉持而無心拘執；以有心為物而無心想身。能如是，則先天地生不為精，後天地死不為老，終日變化而不為動，畢盡寂默而不為休。悟此，則雖娶非妻也，雖饗非取也，雖柄非權也，雖作非故也，雖醉非昏也。若能無心於萬物，則羅欲不為姪，福淫禍善不為盜，濫誤混疑不為殺，先後違天不為妄，昏荒顛倒不為醉，是謂無心也，無心則無戒，無戒則無心，無佛無眾生，無汝及無我，無我無汝，孰能戒哉？」神曰：「我神通亞佛。」珪曰：「汝神通十句，五能五不能。佛則十句，七能三不能。」神悚然避席，啟跪頗恭曰：「可得聞乎？」曰：「汝能俟上帝，東天行而西七曜乎？」曰：「不能。」又曰：「汝能奪地祇、融五嶽而結四海乎？」曰：「不能。」珪曰：「是為五不能也。」又曰：「佛能空一切相，成萬法智，而不能即滅定業。佛能知群有性，窮億劫事，而不能化導無緣。佛能度無量有情，而不能盡眾生界。是為三不能也。定業亦不牢久，無緣亦謂一期，眾生界本無增減。亘無一人，能主有法。有法無主，是謂無法。無法無主，是謂無心。如我解佛，亦無神通也，但能以無心通達一切法耳。作用冥現有情前也。若有心有作，作用必不普周焉。」嶽神曰：「我誠淺昧，未聞空義，願師授我戒，我當奉行，更何業因可拘塵界？我願報慈德，効我所能！」珪曰：「吾觀身無物，觀無常，法窟塊然，更有何欲？」神曰：「師必命我為世間事，展我少小神功，使已發心、初發心、未發心、不信心、必信心五等人目我神蹤，知有佛有神，有能有不能，有自然有非自然者。」珪曰：「無為是，無為是。」神曰：「佛亦使神護法，師寧隳叛佛邪？隨意垂誨。」珪不得已而言曰：「東巖，寺之障也——莽然無樹。北岫有之，而背非屏擁。汝能移北樹於東嶺乎？」神曰：「已聞命矣。」又陳曰：「我必昏夜風雷，擺搖震運，願師無駭。」即鄭重作禮辭去。珪門送而且觀之，見儀衛逶迤如王者之行仗。又復碧靄紅霞，紫嵐皓氣，間錯四散，幢蓋環珮，戈戟森森，凌高浸空，杳渺隱沒焉。其夕果有暴風吼雷、奔雲霆電，隆棟壯宇，岌礪將圯，定僧瞻動，宿鳥聲狂互相敲磕，物不安所。乃謂眾僧曰：「無怖，無怖，神與我契矣。」詰旦和霽，則北巖松栝盡移東嶺，森然行植焉。而珪謂其

徒曰：「吾歿後無令外知，若為口實，人將妖我也。」以開元四年丙辰歲，囑累門人，若委蛻焉。春秋七十三。遂營塔于嶽之東嶺，影堂存于本院。後十二年，告成縣尉許籌追珪之德為記焉。

唐廬江灑山天柱寺惠符傳

釋惠符，姓戚氏，越州諸暨人也。登其弱冠，勇氣過人，角力馳逐，無能及者。然其任俠，且厭在家，忽投香巖寺，矯迹柔心，淳淑頓變。納法之後，練行孤標。每夜沿山據草座，安禪不動。復研尋經論，見潛縣之霍山——昔漢武嘗徙南嶽之祭于此——極成勝境。其中天柱寺可以棲神，乃結庵居焉。無幾，有巨蛇張口，毒火焱焱。符徐語之曰：「汝尋宿債，吾可噬也。不然，洗身定意，如運業通，來為受戒。」斯須，弭按蜿蜒而去，果化成人形，來求出家。符為之落髮、披衣，受訖禮辭而退。後被告符私度，具以實對辯。符云：「若私度有愆，甘聽其罪。」官吏知非常而縱之。符凡見瘡癩膿流，皆呪之則差。至開元十八年，無疾而終。乃從火葬，見骨節相連之狀焉。

唐長安西明寺惠安傳

釋惠安，未詳何許人也。神龍中遊于京兆，抑多先見。時唐休璟既立邊功，貴盛無比。安往造焉，曰：「相公，甚美必有甚惡。將有大禍，且不遠數月，然可攘去。」休璟素知安能厭勝，諾而拜之。安曰：「更無他術，但奉一計耳——豈非注擬官品，出乎陶冶中？請選一有才幹者用為曹州。」因得張君，本京官，即日升之宮贊，相次作守定陶，委之求二犬，可高數尺而神俊者。張君到任，銳意精求，得二犬如其所求以獻之。休璟大悅，召安視之，曰：「極善。」後旬餘，安却來曰：「事在今夕，願相君嚴為警備。」遂留安宿。是夜休璟坐於堂之前軒，命左右十數輩執弧操矢，立于榻之隅。休璟與安共處一榻，至夜分，安笑之曰：「相君之禍免矣！可以就寢。」休璟喜而謝之，遂撤左右俱寢。迨曉，安呼休璟可起矣。問安曰：「二犬何所用乎？」遂尋其跡，至園中，見一人仆地而卒。視其頸有血焉，蓋為物所噬者。又見二犬在大木下，仰視之，一人袒而匿身。休璟驚且詰之，其人泣而指死者曰：「某與彼俱賊也，昨夕偕來，欲害相國，蓋遇此二犬環而且吠。彼為所噬，既殞。某藏匿無地，天網所羅，為犬蹲守，今甘萬死。」且命縛之，曰：「此罪固當死，然非某心也，乃受制於人耳。」乃釋之，賊拜泣而去。休璟拜謝安曰：「非吾師，不然死於二夫之手矣。」

安曰：「此相國之福，豈所能為哉？」又休璟表弟盧軫在荊門，有術士告之曰：「君將有災，當求善禳厭者，或能免矣。」軫知安奇術清行，為時所重，致書于休璟。安即與一書曰：「事在其中耳！」及書達江陵而軫已卒。其家開其書，徒一幅空紙焉，殊無一字，休璟益重之。後數年遁去，罔知所之。

唐西域安靜傳(徐果師)

釋安靜，本西域人也。開元十五年振錫東遊，至定陶，直問：「丁居士何在？」鄉人報之曰：「終已三載，葬在郊外。」且曰：「是人也乃在家菩薩，專勤梵行，嘗禮事嵩山普寂禪師，云已得甚深法。將終，合掌加趺而坐，儼然而絕。曹城諸寺院鐘磬不擊自鳴也。」靜至墳所，躬自發之。時五色雲氣騰噴而上，遂取其骨一一皆金色，連環若鎖，可五丈許一一，鏗然響亮，擐杖頭而行。別樹塔重葬，眾咸驚歎。少頃，靜瞥然滅沒焉。

系曰：有情遺骸，引因殘果也。凡夫身中節不相至，十地菩薩骨節解盤龍相結，佛則全身舍利焉。今丁居士骨有鈎鎖形，則超凡夫，未階十住，此乃八臂那羅延身骨節頭相鈎是歟？證居士力量及此矣。譬若出金之砂之謂渾，不可謂為砂也；含玉之石之謂璞，不可謂為石也矣。

次又成都府大雲寺有徐果師者，混物韜光，人罕詳測。或入三昧，不失律儀。或示狂癡，語事多中。先為衛元嵩，是難測之士，坤維間往往有人謂之徐果師。徐，姓也；果，名也；師，通稱也。此亦彊練、誌公之倫類矣，不知其終云。

唐福州鐘山如一傳

釋如一，不知何許人也。開元末為僧，典床座。俄有僧遍身瘡疥，衣服縷縷，巡遶寺中。僧眾覩之，無不厭惡。唯一見而憫焉，延入常住別堂，安置度夏。夏末辭去，一問：「去何所？」答曰：「歸庵中。」又問：「庵在何也？」「只在大乘寺東。」一曰：「某日前方自彼來，勿見庵處。」曰：「不信，但來相訪。」「某兩日後專來。」一遂往，果見前僧在巖口相候，因携手入一精舍，樓閣森聳，殿堂交錯，且非人間景物。三日遣一公下山一一迴首見悉是巖石，方知聖寺耳。一由是倍力修進，願預聖流云。

唐西域亡名傳

釋天竺亡名，未詳何印度人也。其貌惡陋，纏乾陀色縵條衣，穿革屣，曳鐵錫，化行于京輦。當韋南康臯之生也，纔三日，其家召僧齋，此僧不速自來——其日僧必歷寺連名請至——，韋氏家僮患其長一人，甚怒之，以弊席坐于庭中。既而齋畢，韋氏令乳母負嬰兒出，意請眾僧祝願焉。梵僧先從座起，攝衣升階，視之曰：「別久無恙乎？」嬰兒若有喜色相認之意。眾皆異之。韋君曰：「此子纔生三日，吾師何言別久也？」梵僧曰：「此非檀越所知也。」韋君固問之，梵僧曰：「此子乃諸葛亮之後身耳。武侯鼎國時為蜀丞相，君所知也。緣蜀人受其賜且久，今降生於世，將為蜀帥，必福坤維之人。吾往在劍門，與此子為善友。既知其生于君門，吾不遠而來。此子作劍南節度二十年，官極貴中書令、太尉。此外非我所知也。」父然之，因以武子為字，又單字武也。張鎰出為鳳翔隴州節度，奏臯權知隴州。及鎰為李楚琳所殺，牛雲光請臯為帥。朱泚不得已用臯為鳳翔帥。德宗置奉義軍節以旌之，續加禮部尚書。興元中，駕還京，徵為左金吾衛將軍。貞元元年，為成都尹，代張延賞。到任和南蠻并戰功，封南康郡王。順宗即位，進太尉。南康在任二十一年，末塗甚崇釋氏——恒持數珠誦佛名。所養鸚鵡，教令念經。及死，焚之，有舍利焉。臯又歸心南宗禪道，學心法於淨眾寺神會禪師。在蜀，富貴僭差，重賦斂，時議非之，然合梵僧懸記焉。

唐京兆抱玉傳

釋抱玉者，行業高奇，人事罕接。每言來事，如日擊焉。見釋子大光而誨之曰：「汝誦經宜高揭法音，徹諸天傾聽，必得神人輔翼。」後皆符其記。京邑歸信千計。每夕獨處一室，闔扉撤燭。嘗有僧於門隙間窺其所以，見玉口中出慶雲，華彩可愛。後年可九十許而終。終時方大暑，而尸無萎敗。宰臣第五琦與玉相善，及終，臨喪頗哀。琦以香乳灌其口，隨有祥光自口而出，晃然四照。琦愈奇之。琦乾元二年十月貶忠州刺史。寶應初入為太子賓客，至京尹，玉皆預言榮貴轆[車*(稟-禾+示)]相半，皆如其言，刻意歸信焉。

唐虢州閿鄉阿足師傳

釋阿足師者，莫詳出處。形質癡濁，精神瞢然，時有所言，靡不先覺。雖居無定所，多寓閿鄉。以其踵法雲公之塵躅，憧憧往來，爭路禮謁，檀施山積，曾無顧瞻。人有隱憂，身嬰所苦，獲其指南

者，其驗神速。時陝州有富家翁張臻者，產業且多，財貨增溢。少子息，臻恒懼錢帛身後無嗣。後產男，既愚且蠢，手足拳攣，語言謇澁，唯嗜飲食，殆與平人有異——口如溪壑，終日無厭。年可十七，父母鐘愛，縱其須索，迎醫求藥，不遠千里。數十年後家業罄窮，或有謂其臻曰：「阿足師其實寶誌之流，何不敷布腹心，求救其疾？」乃夫妻來抵闕鄉，叩頭泣淚，告其拯拔。阿足瞑目久之，謂臻曰：「汝冤未散，尚須數年，憫汝勤拳，為汝除去。」即令選日於河上致齋，廣召眾多，同觀度脫。仍領引其男赴于道場。時眾知阿足奇異，觀者如堵。少選，指呼壯夫三數輩叱曳其子，令投諸河，隨急流而逝。臻且哀且驚，莫測其由。阿足語臻曰：「為汝除災訖。」良久，其子忽於流數十步外聳身水面，戟手罵其父母曰：「與爾冤仇宿世緣業，賴逢聖者遽此解紛。儻或不然，未期畢日。」挺身高呼，辭理分明，都無癡濁之狀。須臾沈水，不知其他。阿足由茲傳播，歸信之人如就市焉。所行化導皆此類矣，蓋大曆、建中中也。殆德宗貞元十二年丙子，勅諡為大圓禪師。至今陝、虢之間，猶崇重焉。

唐天台山封干師傳(木瀨師寒山子拾得)

釋封干師者，本居天台山國清寺也。剪髮齊眉，布裘擁質，身量可七尺餘。人或借問，止對曰「隨時」二字而已，更無他語。樂獨舂穀，役同城旦，應副齋炊。嘗乘虎直入松門——眾僧驚懼——，口唱《唱道歌》，時眾方皆崇重。及終後，於先天年中在京兆行化，非恒人之常調，士庶見之，無不傾禮。以其躡萬迴師之後，微亦相類，風狂之相過之，言則多中。先是國清寺僧厨中有二苦行曰寒山子，曰拾得，多於僧厨執爨，爨訖，二人晤語，潛聽者多不體解。亦甚顛狂，糺合相親，蓋同類相求耳。時閭丘胤出牧丹丘，將議巾車——苦頭疼羌甚，醫工寡効。邂逅干造，云：「某自天台來謁使君。」且告之患，干曰：「君何慮乎？」便索淨器，吮水噴之，斯須覺體中頗佳。閭丘異之，乃請干一言定此行之吉凶。曰：「到任記謁文殊。」閭丘曰：「此菩薩何在？」曰：「國清寺厨執爨洗器者是。」及入山寺，問曰：「此寺曾有封干禪師？」曰：「有。」「院在何所？寒山、拾得復是何人？」時僧道翹對曰：「封干舊院即經藏後，今閒無人，止有虎豹時來此哮吼耳。寒、拾二人見在僧厨執役。」閭丘入干房，唯見虎跡縱橫。又問「干在此有何行業？」曰：「唯事舂穀，供僧粥食，夜則唱歌諷誦不輟。」如是再三歎嗟。乃入厨。見二人燒柴木，有圍爐之狀。閭丘拜之，二人連聲咄吒，後執閭丘手褻之若嬰孺，呵呵不已。行曰：「封干饒

舌。」自此二人相携手出松門，更不復入寺焉。干又嘗入五臺巡禮，逢一老翁，問曰：「莫是文殊否？」翁曰：「豈可有二文殊？」干禮之未起，恍然失之。

次有木瀨師者，多遊京邑市鄽間，亦類封干，人莫輕測。「封」、「豐」二字，出沒不同——韋述史官作「封疆」之「封」，閻丘序三賢作「豐稔」之「豐」，未知孰是。

寒山子者，世謂為貧子風狂之士，弗可恒度推之。隱天台始豐縣西七十里，號為寒、暗二巖，每於寒巖幽窟中居之，以為定止。時來國清寺。有拾得者，寺僧令知食堂，恒時收拾眾僧殘食菜滓，斷巨竹為筒，投藏于內。若寒山子來，即負而去。或廊下徐行，或時叫噪凌人，或望空曼罵。寺僧不耐，以杖逼逐，翻身撫掌，呵呵徐退。然其布襦零落，面貌枯瘁，以樺皮為冠，曳大木屐。或發辭氣，宛有所歸，歸于佛理。初閻丘入寺訪問寒山，沙門道翹對曰：「此人狂病，本居寒巖間，好吟詞偈，言語不常，或臧或否，終不可知。與寺行者拾得以為交友，相聚言說，不可詳悉。」寺僧見太守拜之，驚曰：「大官何禮風狂夫耶？」二人連臂笑傲出寺。閻丘復往寒巖謁問，并送衣裳藥物，而高聲倡言曰：「賊我賊。」退便身縮入巖石穴縫中，復曰：「報汝諸人，各各努力。」其石穴縫泯然而合，杳無蹤跡。乃令僧道翹尋其遺物，唯於林間綴葉書詞頌并村墅人家屋壁所抄錄，得二百餘首，今編成一集，人多諷誦。後曹山寂禪師注解，謂之《對寒山子詩》——以其本無氏族，越民唯呼為寒山子。至有「庭際何所有，白雲抱幽石」句，歷然雅體。今巖下有石，亭亭而立，號「幽石」焉。

拾得者，封干禪師先是偶山行至赤城道側，仍聞兒啼，遂尋之，見一子可數歲已來，初謂牧牛之豎。委問端倪，云：「無舍，孤棄于此。」封干携至國清寺，付與典座僧。或人來認，必可還之。後沙門靈熠攝受之，令知食堂香燈。忽於一日，見其登座，與像對槃而食。復呼僑陳如曰「小果聲聞」。傍若無人，執筯大笑，僧乃驅之。靈熠咨尊宿等，罷其堂任，且令厨內滌器，洗濯纔畢，澄瀘食滓，以筒盛之。寒山來，必負而去。又護伽藍神廟，每日僧厨下食，為烏鳥所取狼藉。拾得以杖扑土偶三二下，罵曰：「汝食不能護，安護伽藍乎？」是夕神附夢與闔寺僧曰：「拾得打我。」明日諸僧說夢符同，一寺紛然，始知非常人也。時牒申州縣，郡符下云：「賢士隱遁，菩薩應身，宜用旌之。」號拾得為賢士。又於寺莊牧牛，歌詠呼天。當其寺僧布薩時，拾得驅牛至僧集堂前，倚門撫掌大笑曰：「悠悠者聚頭。」時持律首座咄曰：「風人何以喧礙說戒？」拾得曰：「我不放牛也，此群牛者多是此寺知僧事人也。」拾得各呼亡僧法號，牛各應聲而過，舉眾錯愕，咸思改往修

來，感菩薩垂跡度脫。時道翹纂錄寒山文句於寺土地神廟壁，見捨得偈詞，附《寒山集》中。

系曰：按封干先天中遊遨京室，知閻丘、寒山、捨得俱睿宗朝人也，奈何宣師《高僧傳》中……閻丘，武臣也，是唐初人。閻丘序記三人，不言年代，使人悶焉。復賜緋，乃文資也。夫如是，乃有二同姓名閻丘也。又大瀋祐公於憲宗朝遇寒山子，指其泐潭，仍逢捨得於國清，知三人是唐季葉時猶存。夫封干也，天台沒而京兆出；寒、捨也，先天在而元和逢。為年壽彌長耶？為隱顯不恆耶？《易》象有之，「小狐汔濟」，其此之謂乎！

唐成都淨眾寺無相傳(智洗禪師)

釋無相，本新羅國人也，是彼土王第三子，於本國正朔年月生，於群南寺落髮登戒。以開元十六年泛東溟至于中國，到京。玄宗召見，隸於禪定寺。後入蜀資中，謁智洗禪師。有處寂者一一異人也一一，則天曾召入宮賜磨納九條衣，事必懸知，且無差跌。相未至之前，寂曰：「外來之賓，明當見矣。汝曹宜洒掃以待。」間一日果至，寂公與號曰無相。中夜授與摩納衣，如是入深溪谷巖下坐禪，有黑犢二，交角盤礴於座下，近身甚急，毛手入其袖，其冷如冰，捫摸至腹，相殊不傾動。每入定，多是五日為度。忽雪深，有二猛獸來，相自洗拭，裸臥其前，願以身施其食。二獸從頭至足，嗅匝而去。往往夜間坐床下，搦虎鬚毛。既而山居稍久，衣破髮長，獵者疑是異獸，將射之，復止。後來入城市，晝在冢間，夜坐樹下。真行杜多之行也。人漸見重，為構精舍於亂墓前。長史章仇兼瓊來禮謁之。屬明皇違難入蜀，迎相入內殿。供禮之時，成都縣令楊翌疑其妖惑，乃帖追至，命徒二十餘人曳之。徒近相身，一皆戰慄，心神俱失。頃之大風卒起，沙石飛颺，直入廳事，飄簾卷幕。楊翌叩頭拜伏，喘而不敢語。懺畢風止，奉送舊所。由是遂勸檀越造淨眾、大慈、菩提、寧國等寺。外邑蘭若鐘塔，不可悉數。先居淨眾本院，後號松溪是歟。相至成都也，忽有一力士稱捨力伐柴，供僧厨用。相之弟本國新為王矣，懼其却迴，其位危殆將，遣刺客來屠之，相已冥知矣。忽日供柴賢者暫來，謂之曰：「今夜有客。」曰：「灼然。」又曰：「莫傷佛子。」至夜，薪者持刀挾席坐禪座之側，逡巡覺壁上似有物下，遂躍起，以刀一揮，巨胡身首分於地矣。後門素有巨坑，乃曳去瘞之，復以土拌滅其跡而去。質明，相令召伐柴者謝之，已不見矣。嘗指其浮圖前柏曰：「此樹與塔齊，寺當毀矣。」至會昌廢毀，樹正與塔等。又言寺前二小池，左羹右飯，齋施時少，則令淘浚之，果來供設。其神異多此類也。

以至德元年建午月十九日無疾示滅，春秋七十七。臨終，或問之曰：「何人可繼住持乎？」乃索筆書百數字，皆隱不可知，諧而叶韻。記荊八九十年，事驗無差失。先是武宗廢教，成都止留大慈一寺，淨眾例從除毀。其寺巨鐘乃移入大慈矣。洎乎宣宗中興釋氏，其鐘却還淨眾，以其鐘大隔江，計功兩日方到。明日方欲為齋，辰去迎取，巳時已至，推挽之勢直若飛焉。咸怪神速，非人力之所致也。原其相之舍利、分塑、真形，爾日面皆流汗，上足李僧以巾旋拭，有染指者，其汗頗鹹，乃知相之神力自曳鐘也。變異如此，一何偉哉！後號東海大師塔焉。乾元三年，資州刺史韓泐撰碑，至開成中李商隱作《梓州四證堂碑》，推相為一證也。

唐揚州西靈塔寺懷信傳

釋懷信者，居處廣陵，別無奇迹。會昌三年癸亥歲，武宗為趙歸真排毀釋門，將欲堙滅教法。有淮南詞客劉隱之薄遊四明，旅泊之宵，夢中如泛海焉。迴顧見塔一所東度，見是淮南西靈寺塔。其塔峻峙，制度校胡太后永寧塔少分耳。其塔第三層，見信凭欄與隱之交談，且曰：「暫送塔過東海，旬日而還。」數日，隱之歸揚州，即往謁信。信曰：「記得海上相見時否？」隱之了然省悟。後數日天火，焚塔俱盡——白雨傾澍，傍有草堂，一無所損。由是觀之，東海人見永寧塔不謬矣。

系曰：塔焚皆云往東海，海豈納煨燼耶？通曰：「五行為物亦七大性，可弗周遍法界乎？順則相生，逆則相害。雖逆順各時，與法界同其分齊，證知唯有『識』耳。且天仙鬼物與人相反：殊勝諸天則定果宮殿，神仙則附物變化，鬼神則歆其食氣——質礙之流，火化則得受用也。凡塔剎嚴麗，多被鬼神取旃。海若川侯，亦非人也，如陳重雲殿天火焚，東海人時見殿影焉。又近馬氏霸湖南，末年天冊閣為天火焚，朗州守此夜聞空中呵喝言『迴避，天冊閣來也。』雲中騰沸，若千萬人舁荷重物然，累日，方潭州火矣。若懷信見劉隱之夢，信亦不可測之僧也。」

唐陝府辛七師傳

釋辛七師者，不顯出家之號，時姓氏行次呼之，既熟人耳，更無別召體焉，實陝人也。始為兒時，甚聞謹肅，不嘗狎弄，少即老成。其父為陝郡守，觀七師之作為，謂其母曰：「是子非常兒孺，善宜護養之。」年甫十歲，迺知佛法可以宗尚，凡經卷冥然分其此華此梵，都不緣師教。及鐘茶蓼，陟屺之痛愈深，雖親屬勸勉，益加柴

毀。先是郡城南有瓦窰七所，一日哀號之際，發狂遁去，其家僮輩躡迹尋之。見其入窰竈中端坐，身有奇光，燦若金色。家僮驚，就問無言，懼而徒步。次窺一窰，復見七師，同前相狀。如是歷遍七窰，一一見其端坐發光。是以陝服之人重之若神，遇之羅拜焉。

唐京師大安國寺和和傳

釋和和者，莫詳氏族、本生。其為僧也狂而不亂，愚而有知，罔測其由。發言多中，時號為聖。安國寺中居住，出入無拘檢。見本寺修營殿閣未就一一有越國公主降榮陽鄭萬鈞，雖琴瑟相諧，而數年無子一一和因至公主家，鈞焚香灑掃以待之。主拜跪歸向，鈞祈告之曰：「某自叨選尚，願得一子為嗣，唯師能致之乎？」和曰：「易耳！但遺我三千疋絹，主當誕二男。」鈞勤重如聽佛語，出絹如所求施之。和取付修寺殿閣功德主。乃曰：「主有娠矣，吾令二天人下為公主作兒。所憂者公主不能併妊二子乎？為孿乳包羞耳。吾俾其同年而前後誕之。」果如其言，歲初年末，各生之矣。長曰潛耀，次曰晦明，皆美丈夫，後博涉成事焉。京邑之間傳揚沸渭，量其位地，不可輕議哉。

唐揚州孝感寺廣陵大師傳

釋廣陵大師者，維揚人也，不言法名，淮海之間，競呼廣陵大師也。形質寢陋，性多桀黠，真率之狀，與屠沽輩相類，止沙門形異耳。好嗜酒啖肉，常衣總裘一一厚重可知一一，盛暑亦不暫脫，蚤虱聚其上。僑寓孝感寺，獨一室，每夕闔扉而寢，率以為常。或狂悖性發，則屠犬彘，日聚惡少鬪毆，或醉臥道傍，揚民以是惡之。貞元中，有一少壯素以力聞，嘗一日少壯與人賭博，大師大怒，以手擊碎博局。少壯笑曰：「騃兒何敢逆壯士耶？」大師且罵而唾其面，於是索少壯鬪擊，觀者圍匝千數。少壯為大師所困，逆道而逃。自此人方知有神力焉。亦於稠人廣眾中自負其力，往往入闖闖間剽奪人錢帛，市人皆畏其勇而莫敢拒。後有一耆年僧，召大師誡勅之曰：「汝胡不謹守戒法，奈何食酒肉，屠犬豕，彊抄市人錢物，又與無賴子弟鬪競，不律儀甚，豈是僧人本事耶？一旦眾所不容，執見官吏，按法治之，何處逃隱？且深累佛法。」大師怒色對之曰：「蠅蚋徒喋羶腥，爾安知鴻鵠之志乎？然則我道非爾所知也。且我清中混外者，豈同爾齷齪無大度乎？」耆年且不能屈。後一日自外來歸，入室閉戶，有於門隙覘之一一見大師坐席放神光，自眉間晃朗，照物洞然。觀者驚報，少頃寺僧奔至，瞻禮稱歎，或

有懺悔曾謗之者，或有彈指讚詠之者。明日群僧伺候大師出，焚香致禮。及開戶，瞑目如入禪定，已長往矣。自此廣陵人寫貌供養，號之為大師焉。

唐南嶽山明瓚傳

釋明瓚者，未知氏族生緣。初遊方詣嵩山，普寂盛行禪法，瓚往從焉。然則默證寂之心契，人罕推重。尋於衡巖閑居，眾僧營作，我則晏如，縱被詆訶，殊無愧恥，時目之懶瓚也。一說伊僧差越等夷——或隨眾齋食，或以瓦釜煮土而食——，云是彌陀佛應身，未知何證驗之？一云好食僧之殘食，故殘也(殘上聲呼)。或隨逐之，則時出言語，皆契佛理，事迹難知。天寶初，至南嶽寺執役，盡專一寺之上，夜止群牛之下，曾無倦也。如是經二十年。相國鄴公李泌避崔、李之害，隱南嶽而潛察瓚所為，曰：「非常人也。」聽其中宵梵唄，響徹山谷。李公情頗知音，能辯休戚，謂瓚曰「經音悽愴而後喜悅，必謫墮之人時將去矣。」候中夜，李公潛往謁焉，望席門自贊而拜。瓚大詬，仰空而唾曰：「是將賊我。」李愈加鄭重，唯拜而已。瓚正撥牛糞火，出芋啗之，良久乃曰：「可以席地。」取所啗芋之半以授焉。李跪捧盡食而謝。謂李公曰：「慎勿多言，領取十年宰相。」李拜而退。居一月，刺史祭岳，修道路極嚴。忽中夜風雷，而一峯頽下，其緣山蹬道為大石所攔，乃以數牛縻絆而挽之，又以數百人鼓噪以推之，物力竭而石愈固，更無他術。瓚曰：「奚用如許繁為？我始去之。」眾皆大笑，瓚遂履石而動，忽轉盤而下，聲若震雷。山路既開，眾僧禮而踴躍，一郡呼為至聖，太守奉如神明。瓚悄然乃懷去意。寺外虎豹忽爾成群，日有殺傷，無由禁止。瓚曰：「授我一小箠，為爾驅除。」眾曰：「大石猶可推，虎豹當易制。」遂與之荆挺，皆躡後以觀之。出門，見一虎銜之而去。瓚既去矣，虎亦絕蹤矣。李鄴公於天寶末，肅宗北巡，至靈武即位，遣使訪召。會泌自嵩、穎奔赴行在所。帝喜用之，俾掌樞務，權逾宰相，判廣平王府司馬事。肅宗曰：「卿為朕師友。今父子三人資卿道義。」尋為崔圓、李輔國害其能，泌懼，乞遊衡嶽，詔許之。絕粒數年，遂見瓚焉。後終居相位，一如瓚之懸記矣。勅諡大明禪師，塔存嶽中云。

唐簡州慈雲寺待駕傳(懷一)

釋待駕，俗姓王氏，金水縣人也。沖孺出家，作為詭異，其父立名待駕，當天寶末也。練行精進，時號「頭陀」。及玄宗巡幸，果自

詣府剃髮為僧。至是「待駕得度」，其言信矣。駕去縣邑二十里，開逕芟茅，獨居山頂，後成一寺。此山絕多靈跡，初名石城，迨明皇至劍門，山神見形迎駕，稱姓李氏，勅賜與玄孫之稱。後陟武擔東臺，遠望祥雲紫氣，盤結空界，問左右曰：「此何處？」對曰：「石城山。」乃悟山神扈衛之意，遂改雲頂為慈雲寺也。駕後卒于此寺。又福州楞伽寺釋懷一，景龍中銳意於愛同寺東造精舍，相度地形，無水濟用，方拱手而去。忽山禽擊鬪於地，一異之，命工穴深尺餘，甘泉沸湧。此後伏臘而無加耗。寺中每有休咎，必暫減耗，候以知之，風俗謂之「靈泉」焉。以永泰二年歸寂，弟子超悟奏乞代宗題寺額。上首曰智恒，次行弼。越州刺史皇甫政為碑紀德，襄州節度使于頔書焉。

唐福州愛同寺懷道傳(智恒)

釋懷道，邁德高情，慈忍濟物，思乎達法，恒爾遊方。凡遇通人，卑禮求益。及還鄉之日，禮佛勤劬，收舉坐具，獲珠一顆，後置於文殊塑像額心安之。其珠圓瑩，且異蚌胎。又冥然降舍利骨，尋分於南澗塔中。洎至德二年，令弟子僧常持法華經，不捨晝夜。俄有白氎袈裟一領降於塔中，不知其來。此蓋道修練之心感于冥理也。後滑臺守李邕著碑文并書。相次智恒繼居法華院——即懷一弟子也——，道行與師相埒。卒後禮部侍郎劉太真作碑頌，褚長文書。次有超悟、行弼，皆名望相齊，化于閩俗，無不重焉。

唐昇州莊嚴寺惠忠傳(圓寂)

釋惠忠，俗姓王，潤州上元人也。初在母孕，忽遇異僧，謂曰：「所生貴子，當為天人矣。」誕育已來，不食葷腥，有異常童。稟性敦厚。年二十三，以經業見度，即神龍元年也。遂配莊嚴寺，志節高簡，為時輩所推。聞牛頭山威禪師襲達磨蹤，得佛法印，遂造山禮謁。威見忠，乃曰：「山主來矣。」因為說法，頓悟上乘。威既得人，如老氏之逢尹喜，乃命入室付法傳燈，并委山門之事，遂出鄜聚。忠即繼踵茲峯，夙夜精勵。常頭陀山澤，飲泉藉草，一食延時。每用一鑊，眾味同煮，用畢懸於樹杪，方復繩床晏坐。終日如杌，衣不易時，寒暑一納，積四十年，遂彰靈應非一。州牧明賢，頻詣山禮謁，再請至郡，施化道俗。天寶初年始出止莊嚴。忠以為梁朝舊寺，莊嚴最盛，今已歲古凋殘，興懷修葺，遂於殿東擬創法堂。先有古木，鵲巢其頂，工人將欲伐之。忠曰：「且止，待鵲移去，始當伐之。」因至樹祝曰：「此地造堂，當速移去。」言

畢，其鵲競銜柴遷寓他樹。合郭道俗觀者如堵，莫不歎異。又立基未定，忽有二神人為上其處，因乃定焉。雖汲引無廢，神曠不撓，四方之侶，相依日至。以大曆三年一一山門石室前有忠挂衣藤一一，是歲盛夏忽然枯悴。靈芝仙菌，且不復生。至九月，忠演法高座，無故水出遶座而轉。至四年六月十五日，集眾布薩，至晚乃命侍者剃髮浴軀。是夜瑞雲覆剎，天樂聞空，十六朝怡然坐化。時風雨震蕩，樹木摧折，和州延祚寺僧徒其夕咸見白虹直東西，貫于山中，鳥獸哀鳴，林壑巖間哭聲數日方止。岳牧韋公損聞而哀愴，遣使贈賻，并令上元令劉君備威儀送歸山。于時炎蒸，至七月七，天降雨絕涼。八日神柩出，纖塵不飛。又有群鶴徘徊輿上，送至山門。瘞後數日，墳內放光，照于山林。五年春，依外國法茶毘，獲舍利不可勝計，圓細如珠，光彩瑩徹。遠近道俗有恨無所剋獲，咸於焚身處煨燼中至求，凡百千人，皆得舍利。故知法身圓應，感物無窮，聖力潛通，光騰千古。門人起木塔。春秋八十七矣。身逾七尺，霜眉徑寸，儀容殊偉，燕頰龍腮，神氣孤拔，色如金聚，含光玉潤，若梵僧。所居帳幃弗張，蚊蚋不犯。曾居蘭若幽棲，松竹深邃，嘗有虎鹿並各產子，馴遶入室，曾無懼色。開元二十七年，上元令長孫遂初脫略異聞，躬造山詢驗。及到山半，猛虎當路咆哮，遂乃驚怖，莫知所為。忠聞，出林曉喻，虎因寢聲，伏于林中。遂恐懼，合掌禮謝而迴。忠又向吳郡，具戒院中有凌霄藤，盛夏萎悴，人擬伐之。威大師曰：「勿翦！惠忠還日，其藤更生。」人不之信，及秋，忠還，其藤重茂矣。又昔有供僧穀倉在莊，夜有強盜來竊之，虎乃吼喚逐之。盜棄負器而逃。其類夥多，良難驟述。忠著《見性序》及《行路難》，精旨妙密，盛行于世。又鄴中釋圓寂，氏族生地俱不可尋。初從嵩山見老安禪師，道契相符，莫測涯岸。以高宗咸亨二年生，計終歲已一百有奇年矣。襄州節度使嚴綬，傾心供養，亦號無生和尚焉。

唐洛京天宮寺惠秀傳

釋惠秀，俗姓李氏，今東京陳留人也。出離塵垢，慕尚逍遙。初以戒律師躬，後以禪定為務。於荆郢之地，參問祖師既了，安然迴依洛邑天宮寺也。屬則天頻幸神都，而秀道聲聞于后聽，屢詔入禮重，其於懸記未然事，合同符契。長安中往資聖寺，唱道化人，翕然歸向。忽誠禪院弟子，令滅燈燭。有白秀曰：「長明燈可留？」亦令滅之。因說火災難測，不可不備，云嘗有寺家，不備火燭佛殿被焚，又有一寺鐘樓遭爇，又有一寺經藏煨燼，殊可痛惜。時眾不喻其旨。至夜遺火，佛殿、鐘樓、經藏三所悉成灰炭。方知秀預知

垂警。又玄宗在潞邸時，曾與諸王俱詣問法從容，留施一笛。玄宗出去，秀召弟子曰：「謹掌此笛，後有要時，當獻上也。」及受睿宗傳禪，弟子達磨等方悟其言，取笛以進。帝悅先知，迴賜豐厚。秀偶示微疾，告誡門人，奄然歸寂。享年一百歲。燕國公張說素所歸心，送瘞龍門山。道俗數千人奔會悲悼焉。

唐成都郫縣法定寺惟忠傳

釋惟忠，少孺為僧，勵精自行，在乎群等，莫不宗焉。出家法定寺——本是後漢永平中佛法始流中國便有，置德淨伽藍，神光屢現。至宋釋惠持自廬阜辭遠公法兄，誓化岷蜀。屬譙縱不道，令數輩操刃欲屠持。持乃彈指，其眾驚奔僵仆。隋開皇四年改名法定焉。寺有彌勒聖像。唐武德中忽有枯查沿江而至，夜發光明，因雕作像首。貞觀中竇軌為長吏劍門，佛首光見引達于府。竇公令人迎取，數百人亦不能勝。乃令祝之，任欲何往，遂言：「可就法定否？」乃一人能舉。竇遂造佛身，長史高士廉蓋殿以安之。後有僧汎愛樹其浮圖，而獲一巨蟹，身足二尺餘。是塔頗多靈異，人或將酒肉乘醉詣聖佛前，立見災禍矣。忠於天寶中於寺，愈加精苦。無何，塔為霆震，拔其塔心柱出外，忽有小木承代之意，眾咸怪之，罔測厥由。忠乃叩搃於聖彌勒像，告訴天龍合加畏重，何輒震擊，奪塔心柱邪？是知庶女叫而雷擊景公臺，誠有所感。一日迅雷烈風，還同前震。覆覩之，乃龍神送舊柱，安置如故。當其易柱，陰雲四合，有四神人以身扶翼，立與塔齊。忠之感物也若此。會昌坼寺之前，舍利七粒出相輪上，白光滿空，向西飛去，蜀皆所目覩。將倒之時，赤光見于半天焉。又此寺有大棗樹，將毀寺之年，其樹枯瘁。及大中再置，其棗重榮也。忠後終于寺。

系曰：教法興替，得非數乎？數算已定，晷刻弗移。如其會昌之前，舍利預飛，棗樹先瘁，是知當替數之彊，興數必弱，興不勝其替矣。大中之興，替不勝其興矣。若不為四相之遷，非繫興替之數也。教法是有為之法，詎免遷流者乎，吁！

宋高僧傳卷第十九

宋左街天壽寺通慧大師賜紫沙門贊寧等奉 勅撰

感通篇第六之三(正傳二十二人附見四人)

唐資州山北蘭若處寂傳

釋處寂，俗姓周氏，蜀人也。師事寶修禪師，服勤寡慾，與物無競。雅通玄奧，居山北，行杜多行。天后聞焉，詔入內，賜摩納僧伽梨，辭乞歸山。涉四十年，足不到聚落。坐一胡床，宴默不寐。常有虎蹲伏座下，如家畜類。資民所重，學其道者臻萃。由是頗形奇異，如：無相大師自新羅國將來謁洗禪師，寂預誡眾曰：「外來之賓明日當見矣。宜灑掃以待之。」明日，果有海東賓至也。開元初，新除太守王曄——本黃冠也，景雲中曾立少功——刺于是郡，終於釋子苞藏禍心。上任處分，令境內應是沙門追集。唯寂久不下山，或勸寂往參，免為厲階。寂謂弟子曰：「汝雖出家，猶未識業，吾之未死，王曄其如吾何？」迨乎王公上官三日，緇徒畢至。或曰：「唯處寂蔑視藩侯，弗來致賀。」曄微怒也，屈諸僧，升廳坐已，將啟怒端，問寂違拒之由，慍色悖興，僧皆股慄。曄俄然仆地，左右扶掖歸宅，至廳事後屏樹，如被擗頰之聲，禺中氣絕。自此人謂為妄欲加諸道人，一至於此。寂以開元二十二年正月示滅，享年八十七。資中至今崇仰焉。

唐代州五臺山華嚴寺無著傳

釋無著，永嘉人也，識度寬明，秉操貞確。留神大道，約志遊方，抵于京師雲華寺，就澄觀法師研習華嚴之教。凡諸經論，志極旁通，然於華藏海，終誓遨遊。以大曆二年入五臺山，肆欲觀聖人之境界。五月，到華嚴寺挂錫。始於堂中啜茶，見老僧寢陋，據北床問曰：「子從南方來，還齎數珠請看。」著乃躬度之。迴視之間，失僧之所。于時神情惝恍，疑喜交生，曰：「昔僧明入此，覩石臼木杵，後得入聖寺獲見聖賢。我願止此，其為快乎！」次由般若經樓見吉祥鳥羽毛葳絢，雙飛于頂上，望東北鼓翼而去。明日有白光兩穗，入戶悠颺，少頃而滅。同房僧法等見而驚怪，言曰：「此何祥也？願期再現，斷眾生疑。」尋覩光如前。因往金剛窟，望中致禮，方坐假寐，聞叱牛三聲云：「飲水。」一翁古貌瓌形，服鹿短褐，曳麻屨，巾裹甚異。著乃迎執其手，問「從何來？」翁曰：

「山外求糧用來。」「居在何地？」云：「求糧用在臺山。」翻質著云：「師何戾止？」答曰：「聞此有金剛窟，故來隨喜。」翁曰：「師困耶？」答曰：「否。」曰：「既不困憊，何輒睡乎？」著曰：「凡夫昏沈，胡可怪哉？」曰：「師若昏沈，可去啜煮菴乎？」翁指東北，見精舍相距數步餘，翁牽牛前行，著躡躅而隨。至寺門，喚均提三聲，童子鷹唯開闔，年可十四、五，垂髮齊眉，衣褐襦。牽牛入寺，見其地盡是瑠璃，堂舍廊廡皆耀金色。其間華靡，非人間之制度。翁踞白牙床，指錦墩揖著坐。童子捧二甌茶，對飲畢。擎玳瑁器，滿中酥酪，各賦一匙。著咽之，如有所證，神府明豁，悟宿事焉。翁曰：「師出家來，何營何慮乎？」答曰：「有修無證，大小二乘，染指而已。」曰：「未知初出家時求何心？」著云：「求大乘菩提心。」曰：「師以初心修即得。」又問「齒臘幾何？」「三十一矣。」翁云：「師之純淑，年三十八則其福根菱植此地而榮茂歟！且徐徐下山，好尋道路，勿傷厥足。吾年老朽，從山外來，困極欲偃息也。」著請：「寓一宵可乎？」曰：「不可。緣師有兩伴相隨，今夜不見師歸，憂愁曷已？此乃師有執情在。」著曰：「瞿曇弟子有何執處？雖然有伴，不顧戀他。」又問：「持三衣否？」曰：「受戒已來持之。」曰：「此是封執處。」著曰：「亦有聖教在。若許住宿，心念捨之。脫有強緣，佛故聽許。」曰：「若依小乘，無難不得捨衣。宜從急護。」翁拂襟投袂而作，著亦趨行。翁曰：「聽吾宣偈『一念淨心是菩提，勝造恒沙七寶塔。寶塔究盡碎為塵，一念淨心成正覺。』」著俯聽凝神，謝曰：「蒙宣密偈，若飲醍醐。容入智門，敢忘指決。丈人可謂知言，銘刻心府。」翁喚均提可送師去。臨行拊背曰：「好去。」著再折腰，與童子駢肩齊步，至金剛窟前，問童子：「此何伽藍，不懸題額？」童子指金剛窟反問著云：「伊何窟乎？」曰：「先代相傳，名金剛窟」童子曰：「金剛下有何字？」著惟忖少選曰：「金剛下有般若。」童子皖爾，「適入者般若寺也。」著携童子手，揖顧而別。童子瞠目視著，如欲吐辭。著曰：「送我可以言代縞帶與玉玦乎？」童子遂宣偈云：「面上無瞋供養具，口裏無瞋吐妙香，心裏無瞋是珍寶，無染無垢是真常。」偈終，恍惚之間，童子及聖寺俱滅，唯見山林土石。悵悵盈懷，歔歔不已，歎曰：「緒言餘論，若笙鏞之末響，猶在乎耳。」諦觀山翁立處，有白雲冉冉湧起，去地尋常許，變成五色雲霓，上有大聖乘師子而諸菩薩圍遶。食頃，東方白雲一段，漸遮菩薩面，群像與雲偕滅。著倏見汾州菩提寺主僧修政等六人，相將還至窟前作禮。忽聞山石振吼，聲如霹靂，諸僧奔走。良久，寂無所覩。著遂陳遭遇，六人悔

責不見聖容，咫尺綿邈，知罪障之屏翳歟！著遂隱此山而終。元和中門人文一追述焉。

唐真定府普化傳

釋普化，不知何許人也。秉性殊常，且多真率，作為簡放，言語不拘。躬事盤山積禪師，密密指教，深入堂奧，誠令保任，而發狂悖。嘗與臨濟玄公相見，乃對之以之驢鳴，旁侍無不哂笑。直時歌舞，或即悲號。人或接之，千變萬態，略無恒度。一日，擎挾棺木巡街，徇戶告辭云：「普化明日死去。」時視之知不可訾。趙人相率隨送出城東門，而揚言曰：「今日葬，不合《青烏》。」經二日出南門，人亦隨送，又曰：「明日方吉。」如是西門、北門，出而還返，人煩意怠。一旦坐于郊野，如入禪定焉。禪宗有著述者，以其發言先覺，排普化為散聖科目中，言非正員也矣。

唐漢州棲賢寺大川傳(法焯)

釋大川，不知何許人也，沈默自居，節操彌厲。戒無竈穴，言不浪施。於漢州棲賢寺行四聖種法，克苦既增，川也，其樂也泄泄。綿竹之人無夙少，率皆宗奉。及乎終也，臥于寺外，白衣具床榻，相率舁歸寺中，務營喪禮。方當屍舉，無何雙鹿引前若騶導焉。始履門闕，寺額奮然隕地，遠近驚歎。又此山靈異，不容僂鄙。有僧深藏者，不謹愿，多所違犯。神人擲于山下可七里許，唯傷足指。從此無不悛革守戒者。大曆初北山變成黃金色，上有樓閣，菩薩行道。斯須之間，萬形千狀。川素居此寺，與地俱靈，留影供養，如事靈祠焉。次閩城法焯者，未詳何許人也，行頭陀法，克苦克勤，激勸閩人，辭氣剛直。聞海壇練門江內有巨鐘，相傳云昔有人往廣州募鑄信鼓。巨艦至此，忽值風濤沈溺。每月望日，其潮大至，水退，其蒲牢乃出，可容一人從中穿過，約其周圍徑一丈餘。大曆中焯欲出此鐘，先於開元寺設大會齋誦呪，令一小僧詣龍宮一一乞鐘於人世，擊扣以警晨昏。小僧見海神曰：「我惜以鎮海。」別與小珠三顆為信，當爾時小僧有如夢覺，珠在手焉。

唐西域難陀傳

釋難陀者，華言喜也，未詳種姓何國人乎。其為人也，詭異不倫，恭慢無定。當建中年中，無何至于岷蜀，時張魏公延賞之任成都。喜自言我得如幻三昧一一嘗入水不濡，投火無灼，能變金石，化現

無窮。初入蜀，與三少尼俱行，或大醉狂歌，或聚眾說法，戍將深惡之，亟令擒捉。喜被捉隨至，乃曰：「貧道寄迹僧門，別有藥術。」因指三尼曰：「此皆妙於歌舞。」戍將乃重之，遂留連為置酒肉，夜宴，與之飲唱。乃假襦袴、巾櫛，三尼各施粉黛，並皆列坐，含睇調笑，逸態絕世。飲欲半酣，喜謂尼曰：「可為押衙蹋舞乎？」因徐進對舞，曳練迴雪，迅起摩趺，伎又絕倫。良久曲終而舞不已，喜乃咄曰：「婦女風邪？」喜忽起取戍將刀，眾謂酒狂，坐者悉皆驚走。遂斫三尼頭，皆踣於地，血及數丈。戍將大驚，呼左右縛喜。喜笑曰：「無草草也。」徐舉三尼乃筇竹杖也，血乃向來所飲之酒耳。喜乃却坐飲宴，別使人斷其頭，釘兩耳柱上，皆無血污。身即坐於席上，酒巡到即瀉入斷處，面色亦赤。而口能歌舞，手復擊掌應節。及宴散，其身自起，就柱取頭安之，輒無癍痕。時時言人吉凶事，多是謎語，過後方悟。成都有人供養，數日，喜忽不欲住，乃閉關留之。喜即入壁縫中，及牽之，漸入唯餘袈裟角，逡巡不見。來日見壁畫僧影，其狀如日色，隔日漸落。經七日，空有墨迹。至八日，墨迹已滅。有人早見喜已在彭州界。後終不知所之。

系曰：難陀之狀迹為邪正邪？而自言得如幻三昧，與無厭足王同此三昧者，即諸佛之大定也。唯如幻見如幻，不可以言論分境界矣。四神通有如幻通，能轉變外事。故難陀警覺庸蜀之人，多尚鬼道神仙。非此三昧，不足以化難化之俗也。

唐壽州紫金山玄宗傳

釋玄宗，姓吳氏，永嘉人也。少時出塵，氣度寬裕，於本部永定山寶壽院依常靜為師。照得戒已，還諸方遊學，抵江陵詞朗禪師門，若真金之就冶焉。決了疑貳，復振錫他行，見紫金山悅可自心，留行禪觀。此山先多虎暴，或噬行商，或傷樵子一一避苛政者，哭婦堪哀。從宗卜居，哮囁絕迹，自邇入山者無憚矣。一日禪徒擁集，見一老父趨及座前，拜跪勤恪。宗問：「子何人耶？」答云：「我本虎也，在此山中食啖眾生。因大師化此，冥迴我心，得脫業軀，已生天道，故來報謝。」折旋之頃，了無所見。以大曆二年囑別門徒，溘然化矣。春秋八十六，二月入塔，立碑存焉。

唐袁州陽岐山廣敷傳

釋廣敷，俗姓鄭，南燕人也。少依京望大德思浩下，承乎法訓。登戒畢，遊嵩少、兩京，遇神會禪師，大明玄旨。至宜春陽岐山挂錫

一一是中，峯巒積翠洞穴涉幽，芝菌之苗參于草卉。敷終日瞑目，木食度辰。時有峨冠羽帔，馭鶴驂鸞者，始則乍往倏來，後則登庵造膝。其仙客所到，必輕雲薄霧，隨步而至。擁從者天丁、力士令遠去，對晤談論移晷。其後道化既成，於貞元元年三月四日入滅，春秋九十一云。

系曰：神仙道異，談論豈同乎？通曰：「昔小有真人能談空理，方諸山神仙建浮圖者信崇佛道，止不削染，號『在家菩薩』。又雪山諸仙善五明論求度者同也。然其相似道，必須甄簡。若西域二十諦中五唯量五大，與釋氏法名同。所計天殊，良難區別哉。」

唐鄧州烏牙山圓震傳

釋圓震姓陳，中山人也。少警悟而尚學，入庠序，研究五經。倏遇雲遊沙門寓宵，其父為州衙吏，酷有道心，留是僧供施。震禮奉其僧，聽其談道，頗覺入神。捨儒典，披釋經，頓辭所愛，往白磁山，禮智幽為師受教。後遇荷澤禪師得法，隱南陽烏牙山。先是山中多巨蛇，澤穴有毒龍，鄉人患之。及震居此，二物潛蹤。曾有一人形服且異，致拜乃曰：「我在此已二百歲，今感無心之化，絕慮之修，吾曹冥感超昇，可非師之力歟！」貞元六年終，享齡八十六，弟子奉全身入塔焉。

唐池州九華山化城寺地藏傳

釋地藏，姓金氏，新羅國王之支屬也。慈心而貌惡，穎悟天然。七尺成軀，頂聳奇骨特高，才力可敵十夫。嘗自誨曰：「六籍囊中，三清術內，唯第一義與方寸合。」于時落髮涉海，捨舟而徒，振錫觀方。邂逅至池陽，覩九子山焉，心甚樂之，乃逕造其峯，得谷中之地，面陽而寬平。其土黑壤，其泉滑甘，巖棲澗汲，趣爾度日。藏嘗為毒螫，端坐無念。俄有美婦人作禮饋藥云：「小兒無知，願出泉以補過。」言訖不見，視坐左右間凜澹然，時謂為九子山神為湧泉資用也。其山天寶中李白遊此，號為九華焉。俗傳山神，婦女也。其峯多冒雲霧，罕曾露頂歟。藏素願持四大部經，遂下山至南陵，有信士為繕寫，得以歸山。至德年初，有諸葛節率村父自麓登高，深極無人，雲日鮮明，居唯藏，孤然閉目石室。其房有折足鼎，鼎中白土和少米，烹而食之。群老驚歎曰：「和尚如斯苦行，我曹山下列居之咎耳。」相與同構禪宇，不累載而成大伽藍。建中初張公嚴典是邦，仰藏之高風，因移舊額奏置寺焉。本國聞之，率以渡海相尋，其徒且多，無以資歲。藏乃發石得土，其色青白，不

礮如麵，而供眾食。其眾請法以資神，不以食而養命。南方號為「枯槁眾」，莫不宗仰。龍潭之側有白塿，取之無盡。以貞元十九年夏，忽召眾告別，罔知攸往。但聞山鳴石隕，扣鐘嘶嘎，如跌而滅。春秋九十九。其屍坐於函中，泊三稔開將入塔，顏貌如生，舉鼻之動骨節，若撼金鎖焉。乃立小浮圖于南臺，是藏宴坐之地也。時徵士右拾遺費冠卿序事存焉。大中中僧應物亦紀其德哉。

唐婺州金華山神暄傳

釋神暄，俗姓留，建陽人也。幼而沈靜，非問不言。客遊婺女，入開元寺，志願出家焉。無何，本郡太守入寺訪其師，見暄神彩朗練。太守善相人也，顧之數四，且曰：「是子真出塵之器，異日承受深法，千眾圍遶，必超上果，非凡氣也。」乃誦《七佛俱胝神呪》，昏曉不絕。納戒畢，於金華山北洞百家巖——有石穴——，暄居中止息，不構庵室，作露地頭陀。復無床榻，然有神人吐紫色雲氣而高覆之——遐望冉冉，猶獨柱觀焉。其神人時來問道，拱手白暄曰：「赤松洞之東峯有林泉卓異，師可居之否？」暄隨請往住，數年越多徵瑞。貞元二年遇志賢禪師，問暄如此持誦，魔事必生。欲滅魔怨，須識身本。身本既真，無魔無佛，豁然開悟，理事俱成，神呪功倍。元和八年，范敷中丞知仰，遣使齎乳香、氈罽、器三施暄，並迴施現前大眾。次中書舍人王仲。請於大雲寺為眾受菩薩戒。十二載，平昌孟簡尚書自會稽甄請，不赴。八月，俄迴舊山，人莫詳測。條云示滅，春秋七十六。弟子建塔焉。一云暄在金華山北，多寒少陽。神人問曰：「師須何物？」曰：「吾在山之陰，苦於凜冽」神曰：「小事耳。」至夜聞暄闐之聲，明旦見一小峯移矣。

唐澧州開元寺道行傳

釋道行，姓楊，桂陽人也。自生已來，神府聰利，肌體冰雪如也。年甫十二，心誓慕道，於南岳般若道場受學，於鐘陵求訣，自默證法，號「自在三昧」。由此布納蒲鞵，用資殘息而已。就澧陽西南，伐木為室，方丈而居，虎豹多伏於床榻之間。後有齋材殖，為營堂宇，曾未浹旬，一皆周具。視之，寂無人焉，始知鬼神捨材輸力也。太守苦召居州治開元寺。未久，元和十五年終，年六十九，焚舍利建塔焉。

唐徐州安豐山懷空傳

釋懷空，姓梁氏，閬州人也。幼適本州耆闍山廣福院削染。得戒之後，遊方慕學，於大寂禪法洗然明暢。後至彭城安豐山挂錫宴默，不數載間，成大伽藍。嘗有一僧乘空而至，遶垣牆不息。或躡蓮華，或時履地，人咸瞻覩。數日之後，禮辭空，且曰：「我三五稔却來依附。」言訖不見。空以興元元年滅度，春秋八十八。長慶元年二月，方遷入塔云。

唐洛京慧林寺圓觀傳

釋圓觀，不知何許人也。居于洛宅，率性疎簡，或勤梵學而好治生，獲田園之利，時謂之空門猗頓也。此外施為絕異，且通音律，大曆末，與李源為忘形之友。源父愷居守，天寶末陷於賊中，遂將家業捨入洛城北慧林寺——即愷之別墅也——，以為公用無盡財也。但日給一器，隨僧眾飲食而已。如此三年。源好服食，忽約觀遊蜀青城、峨眉等山洞求藥。觀欲遊長安，由斜谷路。李欲自荊入峽，爭此二途，半年未決。李曰：「吾已不事王侯，行不願歷兩京道矣。」觀曰：「行無固必，請從子命。」遂自荊上峽，行次南浦，泊舟，見數婦女條達錦璫，負罌而汲。觀俛首而泣曰：「某不欲經此者，恐見此婦人也。」李曰：「自上峽來，此徒不少，奚獨泣為？」觀曰：「其孕婦王氏者，是某託身之所也。已逾三載，尚未解襁，唯以吾未來故。今既見矣，命有所歸，釋氏所謂循環者也。請君用符呪遣其速生，且少留行舟，葬吾山谷。其家浴兒時，亦望君訪臨。若相顧一笑，是識認君也。後十二年當中秋月夜，專於錢塘天竺寺外，乃是與君相見之期也。」李追悔此之一行，致觀到此，哀慟殆絕。召孕婦告以其事，婦人喜躍還。頃之，親族畢集，以枯魚濁酒饋于水濱。李往授符水。觀具其沐浴，新其衣裝。觀其死矣，孕婦生焉。李三日往看新兒，襁抱就明，果致一笑。李泣具告王氏，王氏厚葬觀。明日李迴棹歸慧林寺，詢問弟子，方知已理命矣。李常念杭州之約。至期，到天竺山寺，其夜桂魄皎然，忽聞葛洪井畔有牧童歌《竹枝》者，乘牛扣角，雙髻短衣，徐至寺前，乃觀也。李趨拜曰：「觀公健否？」曰：「李公真信士。我與君殊途，慎勿相近。君俗緣未盡，但且勤修不墮，即遂相見。」李無由序語，望之潛然。觀又歌《竹枝》，杳裊前去，詞切調高，莫知所謂。歎曰：「真得道之僧也！咫尺懸隔，聖凡路殊，諒有之乎？」初，源忿父遇害賊庭，時方八歲，為群賊所虜，流浪南北，展轉人家，凡六七年，歸於近親。代宗聞之，授河府掾。源遂絕酒肉，不婚娶，不役童僕，常依慧林寺，寓一室，隨僧齋食。先命穴其野以備終制，時時往眠其間。至於榮辱是非，一皆均等也。時相

國李公德裕表薦之，遂授諫議大夫。于時源已年八十餘矣，抗表不起。二年而卒——長慶二年也。

系曰：圓觀未死先寄胎者，聞必不信。何耶？違諸聖教也。嘗聞閩尼多許族姓家婦女為兒，云「便來」也。及終，有以朱題髀，當日有家生子，身有赤文「便來」二字焉。此類亦多。莊子所謂「曲士不可與語道者，束於教也。」其或竺乾異計有教未來佛，或別會曾談，見有我宗自許。若然者未可定執已行之教矣。其如觀也果證高深，同《智論》中多種不思議也，心思言議，千里難追矣。

唐江州廬山五老峯法藏傳

釋法藏，俗姓周氏，南康人也。釋齡爽俊，始研尋史籍，而於醫方明得其工巧，同支法存之妙用焉。有門僧臥疾，幾云不救，藏切脈處方，信宿平復。其僧多接談玄，自爾萌出塵之意。年已長矣，懇辭親，投本郡平田山寶積院從願師下受教，納戒。後遊謁大寂禪師，言喻若石之投水。翛然北下廬山登五老峯，愛其靈異，獨止寒林，采橡栗，掬溪澗，聊延形氣，而止數年。有二仙乘雲而來，終日談論，或留宵宿，或經月不來，或繼日而至。他人有見者，旁說不同。及乎學僧臻萃，全無蹤跡。又一日告辭藏云：「且歸山去，師當好住。」由是道且馨香，檀越共營一院。寶曆中示滅，年八十二。其年三月四日入塔云。

系曰：藏隱五老峯時，二仙來終日談論者，何？通曰：「昔劉向輯《列仙》云：『若干人見于內典歟。』又裴、周、桐栢三真人弟子，各半學佛法，可非來問道乎？《詩》中草蟲之應阜螽同也。」

唐洛陽香山寺鑑空傳

釋鑑空，俗姓齊，吳郡人也。少小苦貧，雖勤於學而寡記持。壯歲為詩，不多靡麗。常困遊吳、楚間，已四、五年矣。干謁侯伯，所潤無幾。錢或盈貫，則必病生，用罄方差。元和初遊錢塘，屬其荒儉，乃議求餐於天竺寺。至孤山寺西，餒甚不前，因臨流雪涕，悲吟數聲。俄有梵僧臨流而坐，顧空笑曰：「法師秀才，旅遊滋味足未？」空曰：「旅遊滋味則已足矣。法師之呼，一何乖謬？」蓋以空未為僧時名君房也。梵僧曰：「子不憶講《法華經》於同德寺乎？」空曰：「生身已四十五歲矣，盤桓吳、楚間，未嘗涉京口。又何洛中之說？」僧曰：「子應為飢火所燒，不暇憶故事。」遂探囊出一棗，大如拳許，曰：「此吾國所產，食之者，上智知過去未來事，下智止於知前生事耳。」空飢極食棗，掬泉飲之。忽欠呻，

枕石而寢，頃刻乃悟，憶講經於同德寺如昨日焉。因增涕泣，問僧曰：「震和尚安在？」曰：「專精未至，再為蜀僧矣。今則斷攀緣也。」「神上人安在？」曰：「前願未滿。」「悟法師焉在？」曰：「豈不記香山石像前戲發大願乎？若不證無上菩提，必願為起起貴臣。昨聞已得大將軍矣。當時雲水五人，唯吾得解脫，獨汝為凍餒之士也。」空泣曰：「某四十許年日唯一餐，三十餘年擁一褐，浮俗之事決斷根源。何期福不完乎！坐於飢凍？」僧曰：「由師子座上廣說異端，使學空之人心生疑惑。戒珠曾缺，羶氣微存，聲渾響清，終不可致。質樸影曲，報應宜然。」空曰：「為之奈何？」僧曰：「今日之事，吾無計矣。他生之事，警於吾子焉。」乃探鉢囊取一鑑，背、面皆瑩徹，謂空曰：「要知貴賤之分，脩短之期，佛法興替，吾道盛衰，宜一鑒焉。」空覽照久之，謝曰：「報應之事，榮枯之理，謹知之矣。」僧收鑑入囊，遂挈而去，行十餘步，旋失所在。空是夕投靈隱寺出家，受具足戒。後周遊名山，愈高苦節。大和元年詣洛陽，於龍門天竺寺遇河東柳瑄，親說厥由向瑄。瑄聞空之說，事皆不常，且甚奇之。空曰：「我生世七十有七，僧臘三十二，持鉢乞食，尚九年在世。吾捨世之日，佛法其衰乎！」瑄詰之，默然無答。乃索瑄筆硯，題數行於經藏北垣而去。曰：「興一沙衰恒河沙，兔而置，犬而拏，牛虎相交與角牙，寶檀終不滅其華。」

系曰：食梵僧之棗而知宿命者，與茹雪山之藥解諸國言音同也。覽鑑而知吉凶者，與窺圖澄塗麻掌同也。食棗臨鑑，豈偶然耶？非常人之遇也。其空公題識而答，塞柳瑄之問，驗在會昌之毀教矣。時武宗勒僧尼反俗，計二十萬七千餘人，坼寺并蘭若共四萬七千有奇，故云「興一沙衰恒河沙，兔在置，犬仍拏」，言殘害之甚。乙丑毀法，丙寅厭代。佛法喻寶檀之樹，終不絕其華蘂芬馥，故云也。苟非異人，何以藏往考來之若是乎？

唐廣州羅浮山道行傳

釋道行，姓梅氏，會稽人也。父為越州衙吏。行弱齡知書，比成造秀。有僧分衛，行接之談道，頗精禪觀，遂求出家。至四明山保壽院智幽所，稟訓進修，拾薪汲水。後遊南岳，聞江西大寂道化，往親附焉。思養聖胎，見羅浮奇異，高三千丈，有七十石室，七十二長溪。仙人、仙禽、玉樹、朱草生于上，半入海中。行居于石室，默爾安禪。然或山精水怪，往往驚鳴，行視之蔑如也。有老人容貌端正，衣冠華楚，再拜稽顙云：「我居此中僅二百載，今因師住，

冥感匪躬，逍遙脫苦，歸人趣受樂矣。」其感物多此類也。寶曆九載疾終，春秋九十五。其年九月十八日入塔焉。

唐潞州普滿傳

釋普滿者，未知何許人也。於汾、晉間，所為率意，不拘僧體，或歌或哭，莫喻其旨。以言斥事，往必有徵，故時人以強練、萬迴待之。或入稽胡，激勸修善，至有罷弋獵者。建中初，於潞州佛舍中題詩數篇而亡去。所記者云：「此水連涇水，雙朱血滿川；青牛將赤虎，還號太平年。」題後，人莫能知。至朱泚為涇源叛徒推擁，駕幸奉天。于時天下徵兵，關輔賊據，圍逼連戰，人方解悟。此水者，泚也；涇水者，涇州來兵始亂也；雙朱，泚與滔也；青牛者，興元元年乙丑——乙木，青也；丑，牛也——，其年改元貞元，至二年丙寅——丙火，赤也；寅，虎也——，至是賊始平，故曰還號太平年也。

唐江陵府些些傳(食油師)

釋些些師，又名青者，蓋是不與人交狎，口自言些些，故號之矣。德宗朝，於渚宮游，衣服零落，狀極憨癡，而善歌《河滿子》。縱肆所為，故無定檢。嘗遇醉伍伯，伯於塗中辱之，抑令唱歌。些便揚音揭調，詞中皆訐伍伯從前陰私惡迹，人所未聞事。伍伯慚惶，旁聽之者知是聖僧，拜跪悔過焉。貞元初，多入市肆，聚群小隨逐，楚人以興笑本矣。後不測其終。次有僧憨狂，遊行無度。每斷中，唯食麻油幾升。如見巨器盛施之，則喜。荆渚一家特召啜麻膏，是日又在湖南齋，分身應供號食油師焉。

系曰：些之聲為商為羽耶？通曰：「傳家采錄，其例有二：一則按文不音，二則口授知韻。今得些者，按文也。若楚詞聲餘，則蘇箇切也，若山東言少，則寫邪切焉。此師荆楚間事也，其二音以聽來教，『些』名同鳥獸之自呼也。」

唐吳郡義師傳(證智薦福寺老僧)

釋義師者，不知何許人也。狀類風狂，語言倒亂。貞元初，巡吳苑乞丐，事多先覺，人以此疑之。市肆中百姓屋數間，義師輒操斧斫劑其簷，禁之不止。其人素知其神異，禮白之曰：「弟子藉此生活，無壞我屋。」迴顧曰：「汝惜乎？」投斧而去。其夜市火連延而燎，唯所截簷屋數間存焉。好止廢寺中，無冬夏常積聚壞藩蓋、

木佛像，悉代薪炭。又於煨火燒炙鯉魚，而多跳躍，灰盆彌漫。撫掌大笑，不具匕筯而食。面垢不齷，齷之輒陰雨，吳人以為占候。及將死也，飲灰汁數十斛，乃念佛而坐，士庶觀之，滿七日而死。時盛暑，色不變，支不摧。百姓舁出郊外焚之。又京兆安國寺僧事迹不常，熟地而燒木佛。所言人事，必無虛發。此亦不測之僧也。復次京師永壽寺釋証智，不詳生族。貞元中於京寺多發神異，而眾罔知。或晝在張瀆蘭若治田，夜歸寺中。其蘭若在漢陰金州，相距京甸七百里焉。時號智禪師——此之長足安、法雲公也——，皆能致遠於瞬息間，道家謂之縮地脈而能陟遐矣。若於色塵作神變，雖遠而近也。次薦福寺老僧，專務誦持，罕有間缺，言未兆事，來如日擊。大和初，相國韋公處厚好重空門，逐月別召名德僧食。老僧見韋新登庸，曰：「大奇，相公得如此好滅度處。」人皆不喻。後因奏對，於文宗御前疾作，僵仆殿階，及扶舁出殿前，氣已絕矣。方驗老僧言，死在內殿中，故云好滅度處——即開成中也。後不知其終。

唐唐州雲秀山神鑒傳

釋神鑒，姓韓氏，潯陽人也。穉歲淳靜，而不雜群童。父為齊安掾，且歸心釋氏，嘗於廨署陳像設，命僧徒讚唄揚音，法樂俱作。鑒則喜色盈顏，隨僧不捨，求願出家。父母無計阻之，潛投東林寺貞素律師下修學。後講通大涅槃經義，乃南格豫章，參大寂禪師。續於懷安西北山居焉。是山先是猛獸旁午，率多作害。從鑒居之，虎災弭息，遠近稱之。忽有戴平幘男子，望法座致禮勤重，倏爾無蹤。七日後有冠裳宛異者，於方丈前升空宣言曰：「此大師者，真法寶也。開人天眼目，故來報之。」其徒聞見，知鑒道高。會昌四年入滅，八月十五日藏之于塔。凡得道之人，地神報空神，展轉至于有頂，於斯見矣。

唐天台山國清寺清觀傳(物外)

釋清觀，字明中，臨海人也，姓屈氏。初誕彌，手足指間有幕蹠屬相著焉，佛經所謂網漫相也。迨為童孺，神俊挺然，乃有出塵之志。遂詣國清寺，投元璋律師執侍瓶鉢。非父母不沮之，若迦樓羅鳥啄幾萬重圍矣。年十八，納形俱法，良由善根深植，悟解天然，台嶺教文，洞明三觀，兼得深定，神異通感，皆莫我知。少覽百家，彌通三教。仍善屬文，長於詩筆。凡其邦伯輻軒，皆響風造謁，觀則持重若嚴君焉。見則畏伏，祇就几杖以待貴士。或施財

寶，皆迴入常住，罄無私畜。或曰：「貴人所施皆充別施，何不己用耶？」對曰：「恨未能捨頭目，況世財乎？」大中初，天下寺剝中興，觀入京請大鐘歸寺鳴擊，并重懸勅額，則集賢院學士柳公權書題也。柳復有詩序，送其東歸。復請藏經歸寺。大中癸酉，江表荐饑，殍踣相望，觀遂併糧食施之。又山僧物外度荒，自入室禪定，謂弟子曰：「汝如不死，至禾黍熟時，當以磬引我出。」果如其言，明歲方從定起矣。一旦溪南人命觀齋食，可去寺二十里餘。其夜溪澗泛溢，無人可渡，謂觀不來。頃刻而至，且無淹濕，作用可知也，人皆異之。遠近瞻禮，日別盈滿，喧擾可厭，乃逃往翠屏山蘭若獨棲。續天台山眾列請為僧正，乃佯狂隱晦。州牧杜雄遂奏昭宗宣賜紫衣，觀聞之，若愁思不樂。後無疾而終焉。

唐洪州黃蘗山希運傳

釋希運，閩人也。年及就傅，鄉校推其慧利。乃割愛投高安黃蘗山寺出家。迨成長也，身量減王商裁一尺所，額間隆起，號為「肉珠」。然倜儻不羈，人莫輕測。而乃觀方入天台，偶逢一僧偕行，言笑自若。運偷窺之，其目時閃爍，爛然射人。相比而行，截路巨礮，泛泛湧溢，如是捐笠倚杖而止。其僧督運渡去，乃強激發之曰：「師要渡自渡。」言訖，其僧褰衣躡波，若履平陸，曾無沾濕，已到彼岸矣。迴顧招手曰：「渡來。」運戟手呵曰：「咄，自了漢，早知必斷汝脛。」其僧歎曰：「真大乘法器，我所不及。縱能傷我，只取辱焉。」少頃不見。運愴怍自失。及薄遊京闕，分衛及一家門，屏樹之後聞一姥曰：「太無厭乎？」運曰：「主不憫賓，何無厭之有？」姥召入，施食訖。姥曰：「五障之身忝嘗禮惠忠國師來。勸師可往尋百丈山禪師所，惜巍巍乎堂堂乎真大乘器也。」運念受二過，記荊攸同，乃還洪井見海禪師，開了心趣，聲價彌高。徇命居黃蘗精舍，昇平相裴公休欽重躬謁，有詩贈焉：「曾傳達士心中印，額有圓珠七尺身。挂錫十年棲蜀水，浮盃今日渡漳濱。一千龍象隨高步，萬里香華結勝因。願欲事師為弟子，不知將法付何人！」則裴相得法，出運之門。以大中中終于所住寺，勅諡斷際禪師，塔名廣業，語錄而行于世。

宋高僧傳卷第二十

宋左街天壽寺通慧大師賜紫沙門贊寧等奉 勅撰

感通篇第六之四(正傳十八人附見三人)

唐五臺山法華院神英傳

釋神英，罔知姓氏，滄州人也。宿緣悟道，卅歲從師，諷誦精勤，日夜匪懈。年當應法受具，後乃仗錫萍遊，尋訪知識。早通玄話，兼擅論經，相次參神會禪師，謂英曰：「汝於五臺山有緣，速宜往彼瞻禮文殊，兼訪遺跡。」既承指授，以開元四年六月中旬到山瞻禮，於僧厨止泊。一日，食畢遊於西林，忽見一院題曰「法華」，英遂入中，見多寶塔一座，暉曄繁華，如《法華經》說同也。其四門玉石功德，細妙光彩，神工罕測。後面有「護國仁王樓」，上有玉石文殊、普賢之像。前有三門一十三間，內門兩畔，有行宮道場，是文殊、普賢儀仗。三門外狀臺山十寺，杳然物外，觀瞻浩蕩，神情恍惝。英試出院，又見眾僧且非恒所見者，而多詭異。疑豫未決，遂出門東行，可三十步，忽聞閉戶鏗然，迴目視之，了無一物。英乃悲泣曰：「此大聖警悟我邪！於此地必有緣矣。」遂於髣髴多寶塔處結庵而止。乃發願曰：「我依化院建置一所住持。」日居月諸，信施如林，歸依者眾。遂召工匠，有高價者，誓不酬之。乃於易州千里取乎玉石，用造功德，細妙光瑩，功侔所見。其壁乃王府友吳道子之跡，六法絕妙，為世所尚。此院前後工畢，因號法華耳。英說法住持，其齊整若剪裁焉。後無疾，召門人囑付而終，春秋七十五。今墳塔存矣。

唐五臺山華嚴寺牛雲傳

釋牛雲，俗姓趙，雁門人也。童蒙之歲有似神不足，遣入鄉校，終日不知一字。惟見僧尼，合掌有畏憚之貌。年甫十二，二親送往五臺華嚴寺善住閣院出家，禮淨覺為師。每令負薪汲水，時眾輕其朴鈍，多以謔浪歸之。年滿受具，益難誦習。及年三十有六，乃言曰：「我聞臺上恒有文殊現形。我今跣足而去，儻見文殊，惟求聰明，學誦經法耳。」時冒寒雪，情無退屈，至東臺頂，見一老人然火而坐。雲問曰：「如此雪寒，從何而來？」老人曰：「吾從山下來。」雲曰：「從何道上，何無履跡？」曰：「吾雪前來。」老人却問雲曰：「有何心願，犯雪徒跣而至，豈不苦也？」雲曰：「吾雖

為僧，自恨昏鈍，不能誦念經法。此來欲求見文殊，只乞聰明果報。」老人曰：「奇哉！」又曰：「此處不見文殊，更欲何之？」雲曰：「欲上北臺去。」老人曰：「吾意亦然。」曰：「請師先行。」雲乃遊遍臺頂，告別老人，自西而去。薄暮，方到北臺，又見老人然火而坐，頗為驚怪。問曰：「適於東臺相別，為何先至？」老人曰：「師不知要路，所以來遲。」雲雖承此語，心乃猶豫，只此老人莫應文殊也？雲乃鳴足禮拜。老人曰：「吾俗人也，不應作禮。」唯貪設禮，情屬不移。良久，老人云：「休禮，候吾入定，觀汝前身作何行業而昏鈍也。」老人閉目，倏爾開顏語雲曰：「汝前生為牛來，因載藏經，今得為僧而闇鈍耳。汝於龍堂邊取一鑊來，與汝斲却心頭淤肉，即明快也。」雲遂得鑊度與。老人曰：「汝但閉目，候吾教開即開。」因閉目，次有似當心施鑊，身無痛苦，心乃豁然，似闇室立於明燈，巨夜懸於圓月也。雲開目乃見老人現文殊像，語雲曰：「汝自後誦念經法，歷耳無忘。又於華嚴寺澗東院大有因緣，無得退轉。」雲乃行悲行泣，接足而禮，未舉頭頃，不見菩薩矣。雲後下山，四支無損，凡曰經典，目所一覽，輒誦於口。明年夏五月，遶育王塔行道念經。至更初，乃見一道直光從北臺頂連瑞塔基，久而不散，於光明中現寶閣一所，前有金牌，題云「善住」。雲憶菩薩授記之言，依光中所現之閣而建置焉。道化施行，人咸貴重。於開元二十三年無疾而終，俗齡六十三，法臘四十四矣。雲名亡上字，承文殊記識本迹為牛，故時號之焉。

唐五臺山清涼寺道義傳

釋道義，江東衢州人也。開元中至臺山，於清涼寺粥院居止，典座普請運柴，負重登高，頗有難色。義將竹鞋一緇轉買人荷擔。因披三事納衣。東北而行，可五里來，於楞伽山下，逢一老僧，其貌古陋，引一童子名字覺一。老僧前行，童子呼請義東邊寺內啜茶去，乃相隨入寺，遍禮諸院。見大閣三層，上下九間，總如金色，閃爍其目。老僧令遣義早還所止，山寒難住。唯諾辭出寺，行及百步，迴顧唯是山林，乃知化寺也。却回長安。大曆元載，具此事由奏寶應元聖文武皇帝，蒙勅置金閣寺，宣十節度助緣。遂召蓋造都料，一僧名純陀，為度土木，造金閣一寺。陀元是西域那爛陀寺喜鵲院僧。寺成後，勅賜不空「三藏」焉。義不測其終。

唐五臺山竹林寺法照傳

釋法照，不知何許人也。大曆二年，棲止衡州雲峯寺，勤修不懈。於僧堂內粥鉢中，忽覩五彩祥雲，雲內現山寺。寺之東北五十里已來有山，山下有澗，澗北有石門，入可五里有寺，金榜題云「大聖竹林寺」。雖目擊分明，而心懷隕穫。他日齋時，還於鉢中五色雲內現其五臺諸寺，盡是金地，無有山林穢惡，純是池臺樓觀，眾寶莊嚴，文殊、一萬聖眾而處其中。又現諸佛淨國，食畢方滅，心疑未決。歸院問僧，還有曾遊五臺山已否？時有嘉延、曇暉二師言曾到，言與鉢內所見一皆符合，然尚未得臺山消息。暨四年夏，於衡州湖東寺內有高樓臺，九旬起五會念佛道場。六月二日未時，遙見祥雲彌覆臺寺，雲中有諸樓閣，閣中有數梵僧，各長丈許，執錫行道。衡州舉郭咸見彌陀佛與文殊、普賢、一萬菩薩俱在此會。其身高大，見之者皆深泣血設禮，至西方滅。照其日晚於道場外遇一老人，告照云：「師先發願往金色世界，奉覲大聖，今何不去？」照怪而答曰：「時難路艱，何可往也？」老人言：「但亟去，道路固無留難。」言訖不見。照驚入道場，重發誠願：「夏滿約往前，任是火聚冰何，終無退衄。」至八月十三日，於南嶽與同志數人惠然肯來，果無沮礙，則五年四月五日到五臺縣，遙見佛光寺南數道白光。六日到佛光寺，果如鉢中所見，略無差脫。其夜四更，見一道光從北山下來射照，照忙入堂內，乃問眾云：「此何祥也？吉凶焉在？」有僧答言：「此大聖不思議光，常答有緣。」照聞已，即具威儀，尋光至寺東北五十里間果有山。山下有澗，澗北有一石門，見二青衣，可年八、九歲，顏貌端正，立于門首，一稱善財，二曰難陀。相見歡喜，問訊設禮，引照入門，向北行五里已來，見一金門樓。漸至門所，乃是一寺。寺前有大金榜，題曰大聖竹林寺，一如鉢中所見者。方圓可二十里，一百二十院，皆有寶塔莊嚴，其地純是黃金，流渠華樹，充滿其中。照入寺至講堂中，見文殊在西，普賢在東，各據師子之座，說法之音，歷歷可聽。文殊左右菩薩萬餘，普賢亦無數菩薩圍繞。照至二賢前，作禮問言：「末代凡夫，去聖時遙，知識轉劣，垢障尤深，佛性無由顯現。佛法浩漭，未審修行於何法門，最為其要？唯願大聖斷我疑網！」文殊報言：「汝今念佛，今正是時。諸修行門，無過念佛，供養三寶，福慧雙修，此之二門，最為徑要。所以者何？我於過去劫中因觀佛故、因念佛故、因供養故，今得一切種智。是故一切諸法般若波羅蜜甚深禪定，乃至諸佛，皆從念佛而生。故知念佛，諸法之王，汝當常念無上法王，令無休息。」照又問：「當云何念？」文殊言：「此世界西有阿彌陀佛，彼佛願力不可思議，汝當繼念，令無間斷，命終之後，決定往生，永不退轉。」說是語已，時二大聖各舒金手，摩照頂為授記別：「汝已念佛，故不久證無上正等菩提。若善男女等願

疾成佛者，無過念佛，則能速證無上菩提。」語已時二大聖互說伽陀。照聞已歡喜踊躍，疑網悉除。又更作禮，禮已合掌。文殊言：「汝可往詣諸菩薩院，次第巡禮。」授教已，次第瞻禮，遂至七寶果園，其果纔熟，其大如盃，便取食之。食已，身意泰然，造大聖前，作禮辭退。還見二青衣，送至門外。禮已舉頭，遂失所在，倍增悲感。乃立石記，至今存焉。復至四月八日，於華嚴寺西樓下安止。泊十三日，照與五十餘僧同往金剛窟，到無著見大聖處，虔心禮三十五佛名。照禮纔十遍，忽見其處廣博嚴淨，瑠璃宮殿，文殊、普賢一萬菩薩及佛陀波利居在一處。照見已，惟自慶喜，隨眾歸寺。其夜三更，於華嚴院西樓上忽見寺東山半有五聖燈，其大方尺餘。照呪言「請分百燈歸一畔」，便分如願。重謂「分為千炬」，言訖便分千數，行行相對，遍於山半。又更獨詣金剛窟所，願見大聖，三更盡到，見梵僧稱是佛陀波利，引之入聖寺，語在覺救傳。至十二月初，遂於華嚴寺華嚴院入念佛道場，絕粒要期，誓生淨土。至于七日初夜，正念佛時，又見一梵僧入乎道場，告云：「汝所見臺山境界，何故不說？」言訖不見。照疑此僧，亦擬不說。翌日申時，正念誦次，又見一梵僧年可八十，乃言照曰：「師所見臺山靈異，胡不流布？普示眾生，令使見聞，發菩提心，獲大利樂乎？」照曰：「實無心祕蔽聖道，恐生疑謗故，所以不說。」僧云：「大聖文殊見在此山，尚招人謗，況汝所見境界，但使眾生見聞之者，發菩提心，作毒鼓緣耳。」照聞斯語，便隨憶念錄之。時江東釋慧從以大曆六年正月內與華嚴寺崇暉、明謙等三十餘人隨照至金剛窟所，親示般若院，立石標記。于時徒眾誠心瞻仰，悲喜未已，遂聞鐘聲，其音雅亮，節解分明。眾皆聞之，驚異尤甚，驗乎所見不虛，故書于屋壁，普使見聞，同發勝心，共期佛慧。自後照又依所見化竹林寺題額處，建寺一區，莊嚴精麗，便號竹林焉。又大曆十二年九月十三日，照與弟子八人於東臺覩白光數四，次有異雲鬢鬚。雲開，見五色通身光，光內有圓光紅色，文殊乘青毛師子，眾皆明見，乃霏微下雪及五色圓光遍於山谷。其同見弟子一一純一、惟秀、歸政、智遠、沙彌惟英、優婆塞張希俊等。照後篤鞏其心，修鍊無曠，不知其終。絳州兵掾王士詹述〈聖寺記〉云。系曰：佛成就三身，必居三土，顯正依報莊嚴故。菩薩未霑國土名，但云住處。修淨佛國因，隨生佛家，故《華嚴經》有〈菩薩住處品〉焉。經云：「唯佛一人居淨土」，此下不僭上也。若《八字陀羅尼經》云「文殊大願力，與佛同境界。」境界淨，則說法淨，則三土義齊也。問：「諸經中佛住王舍城等可非住處邪？」通曰：「此義同名別，或可上得兼下也。又如兜率宮院是補處淨域，寶陀落、清涼、支提等山，皆是菩薩淨識所變刹土也。若然者，淨土與

住處義同名異耳。如法照入竹林聖寺，見文殊淨境也，諸於山嶺見老人、童子等，則穢土見聖人。」

唐清涼山祕魔巖常遇傳

釋常遇，俗姓陰，**范**陽人也，出家於燕北安集寺。襟懷灑落，道貌清奇，晦跡林泉，避脫聲利。大中四年，杖錫離燕，孤征朔雪，祁亙千里，徑涉五峯，詣華嚴寺菩薩堂，矚文殊睟容，施右手中指，沃以香膏，爇以星焰，光騰半日，怡顏宛然。次遍遊聖境，終始兩朞，其所覩祥瑞，不可勝紀。後至西臺，遇古聖跡曰祕魔巖，乃文殊降龍之處也。遇稽首之際，忽見輕雲金光，爛爛駭目，漸分雉堞，方勢如城——咸曰「金色世界」也。化事畢，復問其處，僧曰：「是地古德嘗止，國贈金光照大師，名節孤峻，神異不測，載錄圖記，人具爾瞻。」遇悲喜交感，久而不已，始結茅茲地，滌慮澄神，入三摩呬多四十九日，鳥排華雨，人萃香雲，揚袂摳衣，歸依若市。乃剏興佛廟僧宇，十有七年不下山頂。日以《九會雜華》、《五部》等法，翫味精課，不遺寸陰。覺聖力潛通，道出凡境，事或禮問，他見莫尋。土嚮庶歸，克念如聖。洎懿皇運末，遇易舊規，或拊掌大哈，或擊石異語，類不輕之海記，同楚客之佯狂。及禍發中原，寇盜交騁，夷撤宮**壺**，鑾輅蒙塵，因省師言，其若合契矣。時屬河東武皇遙嚮真德，就山致信。迨文德元年夏四月，命憲州刺史馬師素傳意邀請，遇曰：「浮世之寵辱，我何累哉？」堅拒遠徵，確乎不拔。以其年七月十八日，召門弟子曰：「爾可檢護戒足，好住餘生，吾與汝決矣。」言訖，儼然蟬蛻，俗歲七十二，僧夏五十一。門人太文等哀慟哽絕。龍紀初祀四月十八日闍維，獲設利羅凡數十粒。文公堅貯孝思，旌建靈塔，銜哀出入，投詣天府。武皇贈贈加等，文武崇烈，及嵐、憲等州牧守，例刻清俸，俾助良因，建乎墳塔。即以九月二十五日封窆基[土*遂]也。

唐成都府永安傳

釋永安，眉州洪雅人也。身裁么麼，面色黧黔，言音鄙惡，而識量寬舒，大抵不可貲也。大中八年三月中，詣成都，云造謁府帥白公敏中，請奏寺額。以其足**跛**，肩輿而至。人皆未嘗見其登圍而旋溺也，故時呼為無漏師。安置聖壽寺中且十日，白中令俾差僧五、六，晝夜互守之而伺察焉。內外飲食，亦略同常人，而無解衣去二行之意。詳其十辰之積，便旋何所，畢不可知。司徒白公奏額到

日，便辭歸眉郡。判官盧求見之，謂為小沙彌耳，人云：「此師年已八十餘矣！」

系曰：蜀人謂安公為無漏師者，非也。夫斷煩惱不復隨增，故永無種習，乃稱之無漏。今以飲食之餘，歸于九孔，安公止二竅不流耳。《瑜伽》云無「內逼惱分」也。然其位次、忍住難知，啜茹如常，何緣不流二竅？觀夫《對法論》中有「清淨依止住食」、「示現依止住食」二種，則羅漢、菩薩、佛也。若然者，安公是示現依止住食——雖食不食，滓穢奚生？必也正名，以召其體哉。

唐衢州靈石寺慧聞傳

釋慧聞，信安人也。多勸勉檀那以福業為最，常言未預聖位，於五道中流轉，非福何憑？嘗於澱江鑄丈八金身像，州未聽許，銅何從致？且曰：「待大施主。」居無何，有清溪縣夫妻二人將嫁資鑑來捨，聞為誓呪之曰：「此鑑鼓鑄若當佛心前，乃是夫妻發心之至也。」迨脫摹露像，果然鑑當佛心胸間矣。又嘗往豫章勸化，獲黃金數鎰，俄遇賊劫掠。事急，遂投金水中曰：「慮損君子福田，請自撈攬。」捨聞，聞去，賊徒泳水求之，不得。及聞到州，金冥然已在其院中。若役人用匠，不避譏嫌，得物見多，自提魚貫彘肩飼工人焉。又山路虎豹，聞或逢之，將杖叩其腦曰：「汝勿害人，吾造功德，何不入緣？」明日，虎銜野猪投聞前，弭尾而去。凡舉事皆成，歸信如流，率多奇異焉。

唐朔方靈武下院無漏傳

釋無漏，姓金氏，新羅國王第三子也。本土以其地居嫡長，將立儲副，而漏幼慕延陵之讓，故願為釋迦法王子耳。遂逃附海艦，達于華土——欲遊五竺，禮佛八塔。既度沙漠，涉于闐已西，至葱嶺之墟，入大伽藍，其中比丘皆不測之僧也。問漏攸往之意，未有奇節而詣天竺。僧曰：「舊記無名，未可輒去；此有毒龍池，可往教化。如其有驗，方利涉也。」漏依請登池岸，唯見一胡床，乃據而坐，至夜將艾，霆雷交作，其怪物吐氣蓬勃，種種變現，眩曜無恆。漏瞑目不搖，譬如建木挺拔，豈微風可能傾動邪？持久乃有巨蛇驤首于膝上，漏悲憫之極，為受三歸而去。復作老人形來致謝曰：「蒙師度脫，義無久居。吾三日後捨鱗介苦，依得生勝處。此去南有磐石，是弟子捨形之所，亦望閑預相尋遺骸可矣。」後見長偉而夭矯，僵于石上歟。寺僧咸默許之，又曰：「必須願往天竺者，此有觀音聖像，禱無虛應，可祈告之。得吉祥兆，可去勿

疑。」漏乃立于像前，入於禪定，如是度四十九日，身嬰虛腫，略無傾倚。旋有鼠兒猶彈丸許，咋左脛，潰黃色薄膿，可累斗而愈。漏限滿獲應，群僧語之曰：「觀師化緣，合在唐土，心存化物，所利滋多。足倦遊方，空加聞見，不可強化。師所知乎？」漏意其賢聖之言，必無唐發，如是却迴。臨行謂漏曰：「逢『蘭』即住。」所還之路，山名賀蘭，乃馮前記，遂入其中，得白草谷，結茅栖止。無何，安史兵亂，兩京版蕩，玄宗幸蜀，肅宗訓兵靈武。帝屢夢有金色人，念寶勝佛於御前。翌日，以夢中事問左右，或對曰：「有沙門行迹不群，居于北山，兼恒誦此佛號。」肅宗乃宣徵，不起，命朔方副元帥中書令郭子儀親往諭之，漏乃爰來。帝視之曰：「真夢中人也。」迨乎羯虜盪平，翠華旋復，置之內寺供養。諒乎猴輕金鎖，鳥厭雕籠，累上表章，願還舊隱。帝心眷重，答詔遲留，未遂歸山，俄云示滅焉。一日，忽於內門右闔之上化成雙足，形不及地者數尺。闔吏上奏，帝乘步輦親臨其所，得遺表，乞歸葬舊隱山之下。即時依可，葬務官供。乃宣卸門扇，置之設奠，遣中使監護，鹵簿送導。先是漏行化多由懷遠縣，因置廨署，謂之下院。喪至此，神座不可輒舉，眾議移入，構別堂宇安之，則上元三年也。至今真體端然，曾無變壞，所臥中禁戶扇，乃當時之現瑞者，存焉。

唐杭州靈隱寺寶達傳

釋寶達者，不知何許人也，遁是名山，高乎道望，號剎利法師。以持密呪為恒務。其院中有印沙床、照佛鑑。往者浙江也，驚濤巨浪，為害實深。其潮大至，則激射今湖上諸山焉。達哀其桑麻之地，悉變為江，遂誦呪止濤神之患。一夜，江濤中有偉人，玄冠朱衣，導從甚繁而至，謂達曰：「弟子是吳伍員，復仇雪恥者，非他人也。師慈心為物，員已聞命矣！」言訖而滅。明日，寺僧怪問：「昨夜車馬之喧為誰？」具言其事。其冥感神理，多此類也。自爾西岸沙漲彌年，還為百姓殖利，時所推稱，翕然敷化。後罔知所終。

系曰：印沙床者何？通曰：「有道之士居山，必非寶器，疑其範築江沙，巧成坐榻歟？」照佛鑑者何？通曰：「即鑑燈耳。以其陸鴻漸貞元中多遊是山，述記記達師節儉而明心之調度也。」

唐代州北臺山隱峯傳(亡名雉鳩和尚)

釋隱峯，俗姓鄧氏，建州邵武人也。稚歲愍狂，不徇父母之命，出家納法。後往觀方，見池陽南泉禪師，令取澡罐，提舉相應，為願公所許焉，終認嗣馬禪師耳。峯元和中言遊五臺山，路出淮西，屬吳元濟阻兵，違拒王命。官軍與賊遇，交鋒未決勝負。峯曰：「我去解其殺戮。」乃擲錫空中，飛身冉冉隨去，介兩軍陣過，戰士各觀僧飛騰，不覺抽戈匣刃焉。既而遊遍靈跡，忽於金剛窟前倒立而死，亭亭然其直如植。時議靈穴之前，當昇就爇，屹定如山，併力不動，遠近瞻覩，驚歎希奇。峯有妹為尼，入五臺，瞋目咄之曰：「老兄疇昔為不循法律，死且熒惑於人。」時眾已知妹雖骨肉，豈敢携貳，請從恒度，以手輕攘，憤然而仆。遂荼毘之，收舍利入塔，號鄧隱峯。遺一頌云：「獨絃琴子為君彈，松柏長青不怯寒，金鑛相和性自別，任向君前試取看。」

系曰：僵屍累足，於事一同；立逝坐亡，為修三昧。此者頭搯厚載，履蹈青冥，逆恒理以難知，諒是人而不測。若斯倒置，振古一人。其妹尼之攘也，若屈平為女嬃之罵焉。如幻之功，善權大矣。或曰：「淮西之役，《唐書》胡弗載隱峯飛錫解陣邪？」通曰：「小說所傳，或得其實。是故《春秋》一經，五家作傳，可得同乎？」

又漢州開化寺釋亡名，先因入寺，見瑞應交現，遂誓捨身，剋苦為期。忽於殿中焚香次，俄覩地屋皆為瑠璃色，有菩薩乘五色雲下庭中曰：「汝極堅至，必當得道，吾來證汝。」亡名叩頭禮拜，斯須不見。寺僧至云「學院內皆變瑠璃色。」歎嗟不已。其僧復勤節行焉。

又鄧州有僧亡名，年且衰朽，遊行穰、鄧州間，日食二雉鳩，僧俗共非之。老僧終無避迴。嘗饌羞之次，有貧士求食，分其二足與之食。食訖，老僧盥漱，雙鳩從口而出，一則能行，一則匍匐在地。貧士驚怪，亦吐其飯，其鳩二足復全。其僧實不食此禽。自爾眾人崇重，號曰南陽鳩鳩和尚也。有歎之曰：「昔青城山香閣黎飲酒啖肴，然後吐出，鷄羊肉皆化作本形，飛鳴而入坑穴中，同也。」

唐興元府梁山寺上座亡名傳

釋亡名者，不知何許人也，居褒城西數十里，號中梁山一一數峯迴負，翠碧凝空，處于厥中。行終詭異，言語不常，恒見者弗驚，乍親者可怪。平常酷嗜酒而食肉，鹿重公行，又綱任眾事，且多折中，僧亦畏焉，號為上座。時群緇伍一皆倣習，唯此無懼。上座察知而興歎曰：「未住淨心地，何敢逆行？逆行非諸人境界。且世云『金以火試』，待吾一日一時試過。」開成中忽作大餅，招集徒眾

曰：「與汝曹遊尸陀林去。」蓋城外山野多墳塚，人所棄屍於此，故云也。上座踞地舒餅裹腐爛死屍，向口便啖，俊快之狀頗嘉，同遊諸僧皆掩鼻唾地而走。上座大叫曰：「汝等能餒此肉，方可餒他肉也已。」自此緇徒警悟，化成精苦焉。遠近歸信。時右僕射柳仲郢任梁府，親往禮重。終時云年可八、九十。真影存于山寺。至今梁、益、三輔間止呼為興元上座云。奇蹤異迹不少，未極詳焉。系曰：上座始則爾之教矣，後則民胥効矣。曾不知果證之人，逆化於物，終作佛事，用警未萌。故若歸其實，乃《對法論》中「諸大威德菩薩示現食力住故」也。如有妄云得果，比例而行，則如何野干鳴擬學師子吼者乎？

唐太原崇福寺文爽傳

釋文爽，不詳姓氏、何許人也。早解塵纓，扶開愛網，從師問道。天然不睡，縱困憊之極，亦唯趺坐，此行長坐頭陀也。後獨棲丘隴間，霖雨浹旬，旁無童侍，有蛇入爽手中蟠屈。時有人召齋，彼怪至時不赴，主重來請，見蛇，驚懼失聲，蛇乃徐徐而下。固命往食，爽辭過中，不食終夕。翌日有狼呀張其口，奮躍欲噬咋之狀者三，爽憫其饑火所熬，復自念曰：「穢囊無悖施汝一食，願疾成堅固之身。汝受吾施，同歸善會。」斯須，狼乃弭耳而退。及乎卒日，空中鐘磬交響，遲久方息。門徒鄉人聚送殯之。爾日有旛數十口蔽空前導，異香普熏，舉眾悲歎，如失恃怙焉。

唐福州保福寺本淨傳

釋本淨者，未詳何許人也。道氣高抗，人覩肅然。響閩嶺多禪宗知識，故歷參之。聞長溪縣霍童山多神仙洞府，乃經中所謂天冠菩薩領徒侶居此說《華嚴》性海法。採樵者多聞天樂異香，鳥獸之瑞。然山中不容凡惡，故多被斥逐。淨入山結茅為室，有石穴謂之毒窟。淨居于穴側，其龍夭矯而出，變現無恒，遂呼召之而馴擾焉。又諸猛虎橫路為害，採樵者不敢深入，淨撫其頭，誠約丁寧，弭耳而去。嘗清宵，有九人冠幘袴褶稱寄宿，盡納諸庵內。明旦告辭，偕化為鶴，鳴唳空中而去。淨罔知其終也。

唐成都府法聚寺法江傳(興善寺異僧)

釋法江者，江東人也，來遊岷蜀，居于法聚寺——寺即隋蜀王秀之造也。寺內有仁壽中文帝樹舍利塔。江以慈憫為懷，多逆知其來，

言無少誤。嘗在房中謂門人曰：「外有萬餘人，盡戴帽形且攀躡，從吾乞救。汝速出寺外求之。」不見人物，弟子怪師之言何其倒亂。徙倚之間，有數十人荷檐竹器中螺子至，江曰：「此之是歟！」命取錢贖之，投于水中矣。

又長安大興善寺，本隋舍衛寺也，至唐先天中火災，殿宇蕩然，唯遺基耳。明慶中東明觀道士李榮者，本巴西人也，好事薄徒，多與釋子爭競優劣。榮來玄都觀，因率黃冠指其灰燼而嘲之曰：「道善何曾善？言興且不興。如來燒赤盡，唯有一群僧。」僧中有憤其異宗譏誚者，急募勸重新締構，復廣於前。十二畝之地，化緣雖日盈千萬，計未能成。僧眾搔首躊躇，未知何理克成。忽有一僧，衣服麤弊，形容憔悴，負一破囊入緣，言：「速了佛殿。」步驟而去。啟視之，則黃金也，校未之一千兩矣。時人奇之，由此檀施日繁，殿速成矣。

唐彭州九隴茶籠山羅僧傳

釋羅僧者，蜀聖寺中得果位人也。嘗寢疾於五臺山，同會僧人俱不測也，而瞻視之，曾無怠慢。將及九旬而病愈，臨訣之際曰：「深感所苦，而煩看視，今遂平復，由師之力。我住在劍外九隴郡之茶籠山爾。異日遊方，無忘相訪也。」暮歲而至蜀，歷訪群峯，遍訊老樵輩，且曰未嘗聞茲山名。乃歎曰：「噫，病禪之妄也？」將迴，遇山童曰：「某是彼巖之聚沙者。」即前導而去，俄覩殿塔儼空，房廊環肅，果值昔之臥病者，迎門敘故。日將暮矣，而謂之曰：「茲寺非得漏盡通不能至此。爾以我宿緣一諧邁止。言寄宵乎，斯為未可。爾其克勤修證，至此胡難？」乃命舊童送師歸去。其僧迴望，但見巖壁峭峻，杉檜莽蒼而已，則開成中也。時悟達國師知玄著傳之次，得僧可思——尤閑地理，命為玄作他日安瑩兆之地，得景丹前峯。其山若雉堞狀，雖高低起伏，而中砥平。俄有里人耆老曰：「古相傳云茶籠山矣。」

唐明州奉化縣契此傳

釋契此者，不詳氏族，或云四明人也。形裁臞瘦，蹙頞皤腹，言語無恒，寢臥隨處。常以杖荷布囊入鄞肆，見物則乞，至于醃醬魚菹，纔接入口，分少許入囊，號為長汀子布袋師也。曾於雪中臥，而身上無雪，人以此奇之。有偈云：「彌勒真彌勒，時人皆不識。」等句，人言慈氏垂迹也。又於大橋上立，或問：「和尚在此何為？」曰：「我在此覓人。」常就人乞啜，其店則物售。袋囊中

皆百一一供身具也。示人吉凶，必現相表兆。亢陽，即曳高齒木屐，市橋上豎膝而眠；水潦，則係濕草履。人以此驗知。以天復中終于奉川，鄉邑共埋之。後有他州見此公，亦荷布袋行。江浙之間多圖畫其像焉。

唐鄴都開元寺智辯傳

釋智辯，不知何許人也。少而英偉，長勤梵學，凡諸經論，一聽入神。其所講宣也，音辯瀏亮。每臨臺座，自謂超絕一一所患者聽眾無幾。虞其以水傳器，器器不空，繫我獨無，乃辜佛意。遂負箱帙遍歷名山，以詢智者。末至衡嶽寺，憩息月餘，嘗於寺閑齋，獨自尋繹疏義，復自咎責曰：「所解義理，莫違聖意乎？」沈思，兀然偶舉首見老僧振錫而入，曰：「師讀何經論？窮何義理？」辯疑其名嶽之內，車轍原中，羅漢混凡，曾何可測？乃自述本緣，因加悔責。又曰：「儻蒙賢達指南，請受甘心，鈐口結舌，不復開演矣。」老僧笑曰：「師識至廣，豈不知此義？大聖猶不能度無緣之人，況其初心乎？師只是與眾生無緣耳。」辯曰：「豈終世若此乎？」老僧曰：「吾試為爾結緣。」遂問辯「今有幾貲糧耶？」辯曰：「自北徂南，裂裳裹足，已經萬里，所齎皆罄竭矣。見受持九條衣而已。」老僧曰：「只此可矣！必宜鬻之，以所易之直，皆作麩餅、油食之調。」辯如言作之，約數十人食，遂相與至垆野之中，散掇餅餌，焚香長跪呪曰：「今日食我施者，願當來之世與我為法屬，我當教之，得至菩提。」言訖，烏鳥亂下啄拾，地上螻蛄蠅蠅莫徵其數。老僧曰：「爾後二十年，方可歸開法席。今且周遊，未宜講說也。」言訖而去。辯由是精進道力，不倦研摩，義味滋多，志在傳授。至二十年，却歸河北，盛化鄴中，聽眾盈千數人，皆年二十已來，其老者無二三人焉。

系曰：中有末位，變定難移，今世所修，必招當果。今智辯依異僧之教，令二十年後待聽徒，一如其言，如此則當生修當生果，故弗誣矣。詩曰：「俟河之清，人壽幾何？」將知永壽之人，河清屢見矣。

唐鳳翔府寧師傳

釋寧師者，岐陽人也，亡其名，時以姓呼之耳。往來無恒止，出處如常僧。昭宗即位初年，居山寺中，忽暴終，安臥體暖，忽忽如爛寢焉。僧徒環守，不敢殯斂。三日而蘇。眾驚奔問之。曰：「我為冥司追攝，初見一判官云：『和尚壽在而無祿。』」乃召吏，語之與

檢覆。吏曰：『只有乾荷葉三石。』因令注於簿。又命一人引之巡歷觀遊去。乃入一門，見數殿各有榜。於是徒步至一殿，署云李克用。於牖間，窺有一黑龍，眇一目，中立鐵柱，連鎖繫維之。次一殿署曰朱全忠，乃青鞞白額虎，鎖繫如初，而前有食噉人血狼藉之狀。次署曰王建，黃金床上臥一白兔焉。次署曰李茂貞，具冠冕如王者，左右數侍女焉。次署曰楊行密，窓牖^庫黑，不能細瞻。問使者曰：『此諸怪狀者何邪？』曰：『將來王者也。』旁廂數殿，望之黯黯，使者不容。引去，還至本所判官廳事，謂使者曰：『好送師迴，但多轉念《功德經》。』甯問曰：『孰是《功德經》？』曰：『《金剛般若》是歟！此經冥間濟拔，功力無比。』及乎蘇醒，四顧久之，乃述前事。聞者駭然，遂聞于官。後岐帥怪宏迂而妄，都不之信。厥後茂貞果封秦王。李克用枉濫殺戮，號獨眼龍也。朱氏革于唐命，殘害安忍，傅翼擇肉，非虎而何？蜀王建屬兔，阻兵自固。天祐丁卯，僭偽號，以金飾床也。諸皆符合。甯自此每斷中，唯荷葉湯而已。其諸食饌，逆口不食。秦、隴之人往往請甯入冥，預言吉凶，更無蹉跌。或請齋，爭辦淨池嫩荷，號為人冥和尚，終于岐下。

系曰：入冥之說與夢略同。穆王將化人歡宴，秦穆得上帝剪鶉，形在人間，神遊上界，前言既發，後事必然。是知六候八徵，諒非虛也。甯師入冥，與後唐馬珣見天符下以潞王為天子無異。甯所見殿中物象題榜，終符其述。謂之為夢想，夢想有徵；謂之為神遊，神遊不謬。將知覺夢惟一，明昧有殊，如《攝論》云：「如夢等覺時，一切處唯有識也。」有若古莽國多眠，五旬一覺，以夢為實，以覺為妄。若然者，覺之所為，為夢之先兆也，而取實於夢中真實也。夢覺反用，其猶一歟。甯師非妄者，果梁革唐命，二李、王、楊皆與天子抗衡。諸殿遠望者，得非餘割據群雄偏霸者乎？所食荷葉，與隋僧法慶同。故《幽冥》等錄中康何德，次李山龍入冥而返，說事皆驗焉。經云：「猶如睡夢人，知一切諸物，有身不移本處」是也。

宋高僧傳卷第二十一

宋左街天壽寺通慧大師賜紫沙門贊寧奉 勅撰

感通篇第六之五(正傳十三人附見五人)

後唐韶州靈樹院如敏傳

釋如敏，閩人也。始見安禪師，遂盛化嶺外，誠多異迹。其為人，寬綽純篤，無故寡言，深憫迷愚，率行激勸。劉氏偏霸番禺，每迎召敏入請問，多逆知其來，驗同合契。廣主奕世奉以周旋，時時禮見，有疑不決，直往詢訪。敏亦無嫌忌，啟發口占，然皆准的，時謂之為乞願，乃私署為知聖大師。初敏以一苦行為侍者，頗副心意，呼之曰所由也。一日，隨登山脊間却之，潛令下山，迴顧見敏入地焉。苦行隱草中覆其形，久伺之乃出，往迎之，問曰：「師焉往乎？」曰：「吾與山王有舊，邀命言話來。」如是時或亡者，乃穴地而出。嚴誡之曰：「所由無宜外說，洩吾閑務。」後終于住院，全身不散。喪塔官供，今號靈樹禪師真身塔，是歟！

系曰：靈樹如遇大安，必壽臘綿長，出人常限。疑此亦所聞異辭矣。

後唐天台山全宰傳

釋全宰，姓沈氏，錢塘人也。孩抱之間，不喜葷血，其母累覩善徵，勸投徑山法濟大師削染。及修禪觀，亭亭高竦，不雜風塵，慕十二頭陀以飾其行，諺曰宰道者焉。迨乎諸方參請，得石霜禪師印證，密加保任，入天台山閭巖以永其志也——伊巖與寒山子所隱對峙，皆魑魅木怪所叢萃其間。宰之居也二十餘年，惡鳥革音，山精讓窟。其出入經行，鬼神執役，或掃其路，或侍其旁，或代汲泉，或供採菓，時時人見，宰未嘗言。後天成五年，徑山禪侶往迎歸鎮國院居，終于出家本院焉。

晉巴東懷濬傳

釋懷濬者，不知何許人。其為僧也，憨而且狂，乃逆知未兆之事，其應如神。乾寧中，無何至巴東。濬且能草聖，筆法天然，或於寺觀、店肆、壁書、佛經、道法，以至歌詩鄙俚之詞，靡不集其筆端矣。與之語，「阿唯」而已。里人以神聖待之。刺史于公患其惑

眾，繫獄詰之，乃以詩通狀辭，意在閩川之西東，然章句靡麗，州將異而釋之。又詳其旨，疑在海中，得非杯渡之流乎？行旅經過，必維舟而謁焉——辯其上下峽之吉凶，貿易經求物之利鈍。客子懇祈，唯書三、五行，終不明言，其事微密驗。時荊南大校周崇賓謁之，書遺曰：「付皇都勘。」爾後入貢，因王師南討，遂繫南府，終就戮也。押牙孫道能謁之，書字曰：「付竹林寺。」其年物故，營葬於古竹林寺基也。皇甫鉉知州，乃畫一人荷校，一女子在旁。尋為取民家女，遭訟，錮身入府矣。有穆昭嗣者——波斯種也，幼好藥術——，隨父謁之，乃畫道士乘雲提一匏壺，書云「指揮使高某牒衙推」，穆生後以醫術有效，南平王高從誨令其去道從儒，簡授攝府衙推。屬王師伐荊州，濬乃為詩上南平王曰：「馬頭漸入揚州路，親眷應須洗眼看。」是年高氏輸誠於淮海，遂解重圍。其他異跡多此類也。嘗一日題庭前芭蕉葉云：「今日還債業，州縣無更勘窮。」往來多見，殊不介意。忽為人所害，身首異處，刺史為其茶毘焉。

晉閩州光國院行遵傳

釋行遵，福州閩王王氏之仲子。後唐莊宗即位，入洛進方物，因留京邸。同光末，會明宗將入，兵亂相仍，乃自剪飾，變服為僧，竄身巴蜀。逮晉開運中狀貌若七十餘，然壯力不衰。或詢其年臘，則必杜默。於閩中寓光國禪院，院徒以律法住持，人不之知遵之能否。有李氏子家命齋，飲噉之次，歛起出門叫噪，若有所責。謂李曰：「今夜有火，自東南至于西北街，隣居咸令備之。」是夕果然煨燼無遺。眾聚問其故，曰：「昨一婦女衣紅秉炬而過，老僧恨追不及耳。」又於趙法曹家，指桃樹下云：「有如許錢。」不言其數，趙乃召人發之，畚鍤方興，適遇客至，為家僮所取。喧喧之際，盡化為青泥，人各爭得百餘，後圯壞之。門壁壞，往往而有焉。遵或經人塚墓，知其家吉凶。至於風角鳥獸，聞見之間，預言災福，後必契合，故州閩遠近，咸以預言用為口實。終于晉安玉山，緇徒為其茶毘焉。

晉襄州亡名傳

釋亡名，不知何許人也。觀方問道，不憚艱辛。勝境名山，必約巡訪矣。天福中，至襄州禪院挂錫，與一僧循良守法，同九旬禁足。其人庠序，言多詭激，稱名曰法本。朝昏共處，心雅相於，若久要之法屬焉。法本云：「出家習學，即在鄴都西山竹林寺——寺前有

石柱。他日有暇，必請相訪。」其僧追念前約，因往尋問。泊至山下村中，投一蘭若止宿，問彼僧曰：「此去竹林寺近遠？」僧乃遙指孤峯之側曰：「彼處是也。古老相傳，昔聖賢所居之地，今但有名存耳，故無精廬淨舍立佛安僧之所也。」僧疑之，詰旦而往，既覩竹叢，叢中果有石柱，茫然不知其涯涘。僧憶法本臨別之言：但扣其柱，即見其人。遂以小杖擊柱數聲，乃覺風雲四起，咫尺莫窺，俄爾豁開，樓臺對聳，身在三門之下。逡巡，法本自內而出，見之甚喜。問南中之舊事，說襄鄧之土風，乃引度重門，升祕殿，領參尊宿一一若綱任焉。顧問再三，法本曰：「早年襄陽同時禁足，曾期相訪，故及山門也。」尊宿曰：「善。可飯後請出，在此無座。」言無凡僧之位次也。食畢，法本送至三門相別。既而天地昏暗，不知所向。頃之，宛在竹叢石柱之側，餘並莫覩。其僧出述其事，罔知伊僧其終焉。

系曰：入竹林僧，何人也？通曰：「遇仙之士，亦仙之士，聖寺之遊，豈容凡穢？一則顯聖寺之在人間，一則知聖僧之參緇伍。無輕僧寶，凡聖混然。此傳新述於數人，振古已聞於幾處。且如北齊武平中，釋圓通曾瞻講下僧病，其僧夏滿病差，約來鄴中鼓山竹林寺，事跡略同。此蓋前後到聖寺也。」

漢洛陽告成縣狂僧傳(曹和尚)

釋狂僧者，晉開運中遍於邑下乞石礦灰，日夜驅荷入大、小留二山中，謂行人鄉叟曰：「要造宮闕。」然莫之測也，皆謂為「風狂，有何准據？」如是運至數千石，封閉甚固。其後鄉人不意此僧絕乎蹤跡。屬乾祐初，漢祖既入今東京即位，不逾年而崩。當是時也，詔叡陵於大留山下，計慮者云：「甃瓦數百萬，此山之內可陶而燒。其如礦灰烏可得乎？」俄有里胥曰：「此地元有僧積藏灰可數千石，准用應足。」按行使山陵畢，用無子遺，其僧也非狂，由此方證之矣。又鎮州釋曹和尚者，恒陽人也。不常居處，言語糾紛，敗襦穿履，垢面黯膚，號風狂散逸之倫也。齊、趙人皆不測，而多重旃。或召食，食畢默然而去，其狀猶不醉而怒歟！府帥安重榮作鎮數年，諷軍吏州民例請朝廷立德政碑。碑石將樹之日，其狀屹然。曹和尚指之大笑曰：「立不得，立不得。」人皆相目失色，主者驅逐，曹猶口不絕聲焉。至重榮潛萌不軌，秣馬利兵，垂將作逆，朝廷討滅，碑尋毀之。凡所指斥，猶響答聲也。後不測所終。

周偽蜀淨眾寺僧緘傳(大慈寺亡名)

釋僧緘者，俗名緘也，姓王氏，京兆人。少而察慧，辭氣絕群。大中十一年，杜審權下對策成事，祕書監馮涓即同年也。乾符中，巢寇充斥，隨流避亂。至渚宮投中令成汭，汭攻淮海，不利，遂削髮出家。屬雷滿據荊州，襄州趙凝攻破之。梁祖遣高季昌誅滅焉，江陵遂屬高氏。緘避地夔峽間。後唐同光三年入蜀，尋訪馮涓，已死矣。遂居淨眾寺，而髭髮皓然，且面色紅潤逍遙然，人不測其情偽。有華陽進士王處厚者——乙卯歲於偽蜀落第，則周顯德二年也——，入寺寫憂於松竹間，見緘。緘曰：「得非王處厚乎？」處厚驚曰：「未嘗相狎，何遽呼耶？」緘曰：「偶知耳。」遂說本唐文宗大和初生，止今一百三十餘載矣。處厚曰：「某身跡奚若？」

「子將來之事極於明年。而今而後，事可知矣。」意言蜀將亡也，囑令勿洩。明日再尋，杳沈聲跡。一日，復扣關自來云：「暫去禮峨眉，結夏於黑水方還。」緘於案頭拈文卷覽之，則處厚府試賦藁，曰：「考乎真偽，非君燭下之文。何多誑乎？」遂探懷抽賦藁示之，「此豈非程試真本乎？」處厚驚竦不已，乃曰：「僕試後偶加潤色，用補燭下倉卒之過也。師何從得是本也？」緘曰：「非但一賦，君平生所作之者，皆貯之矣。」明日訪之，携處厚入寺之北隅，同謁故太尉豳公杜琮之祠坐於西廡下，俄有數吏服色彫雜，自堂宇間綴行而出，降階再拜。緘曰：「新官在此，便可庭參。」處厚惶懼而作。緘曰：「此輩將為君之驅策，又何懼乎？寧知泰山舉君為司命否？仍以夙負壯圖，未酬前志，請候登第後施行。復檢官祿簿，見來春一榜人數已定，君亦預其間，斯乃陰注陽受也。策人世之名，食幽府之祿，此陽注陰受也。」處厚震駭，不知所裁，但問：「明年及第人姓名為誰耶？」緘索紙筆，立書一短封與之，誡之：「嚴密藏之。脫洩，禍不旋踵。」須臾吏散。緘携手出廟，及暝而去。至春試罷，緘來處厚家，留一簡云：「暫還弊廬，無復再面也。」後往寺僧堂中問之，已他適矣。乃拆短封視之，但書四句云「周成同成，二王殊名，王居一焉，百日為程。」及乎榜出，驗之有八士也。二王，處厚與王慎言也，王居一焉。惡其「百日為程」，處厚唯狎同年，置酒高會，極遂性之歡。由是荒亂不起，是夜暴亡。同年皆夢處厚藍袍槐笏，驅殿而行。驗其策名之榮，止一百二十日也。詳其緘之生於文宗太和初也，成身在宣宗大中，王處厚遇之已一百三十餘歲也。次，偽王蜀城都大慈寺僧亡名恒諷誦《法華經》，令人樂聞。時至分衛，取足而已。身微所苦，有示方藥。伊僧策杖入青城大面山採藥。泂溪越險，忽然雲霧四起，不知所適。有頃，見一翁，僧揖之，序寒暄問「何以至此？」僧曰：「為採少藥也。」翁曰：「莊舍不遠，略迂神足，得否？」僧曰：「迷方失路，願隨居士。」少頃雲散，見一宅宇陰森。既近，翁

曰：「且先報莊主人矣。」僧入門覩事，皆非凡調。問曰：「還齋否？」曰：「未食。」焚香且覺非常鬱悖，請念所業經。其僧朗聲誦經，勉令誦徹部。所饋齋饌，皆大慈寺前食物。齋畢，青衣負竹器以香草薦之，乃施錢五貫，令師市胡餅之費。翁合掌送出。或問，云：「此孫思邈先生也。」到寺已經月餘矣。其錢將入寺，則黃金貨泉也。王氏聞之，收金錢，別給錢五百貫。其僧散施之，將知仙民恒在名山。次嘉州羅目縣有訴：孫山人賃驢不償直，乞追攝。問小童，云：「是孫思邈也。」縣令驚怪，出錢代償。其人居山下，及出縣路，見孫公取錢二百以授之，曰：「吾元伺汝於此，何遽怪乎？」得金錢僧不知其終所。

周杭州湖光院師簡傳

釋師簡，姓趙氏，丹丘人也。弗循戒範，放肆恬然，擁破納衣，多誦詞偈，好懸記杭、越間災福。初無信者，驗猶合符。於一行、景淳山經地理別得徑門，常言：昔泰山道辯相塚得術，餘無取焉。喜為人遷山相塚，吉凶如其言。居無定所，多遊族姓家，言腹飢，便求雞肉餐。此外得美酒，啜數杯而去。初無言謝，然長於勒書——大字題牌、寺觀門額，書成相之，吉凶隨言，久近驗之。始居杭西湖旁院，無疾而終。後有行客自長沙市中見，携手話舊，寄言與崇壽院主：「汝先負錢若干，今放汝。我眠床芻薦下層，有紙裹肉脯屑，必應腐敗，為棄之。」院僧依言，果然見之，因寫貌供養。簡曾言「尖頭屋已後火化去。」及州南塔戊午歲被天火爇之，應言無爽矣。

宋明州乾符寺王羅漢傳

釋王羅漢者，不測之僧也。酷嗜彘肉，出言若風狂，後亦多驗云。嘗曝衣，有盜者將欲奪之，低頭佯睡。有物，人就之乞，終無吝色。及開寶初年六月內忽坐終，三日後漆布之，忽聞兩頰間鳴咤聲，皆云潰爛。夜寄夢與數人曰：「布漆我昏悶，如何開焉？」明日，召漆工剝起，肉色紅白，有圓粒舍利墮落，收而供養。至今肉身存于本寺。時僧正贊寧作碑紀異。漢南國王錢氏私易名為密修神化尊者。

宋潭州延壽院宗合傳(道因)

釋宗合，閩越人也，遊嶽泛湘，以求知識焉。其為僧也，介立而寡慾，群居終日，唯笑而已。南楚之人且多信重。後居延壽院，故諫議大夫賈公玘判軍府，聞之，往謁見，言話不接。輿人議曰「得道之人，豈入恒量度中耶？」賈乃堅請往文殊院住持。爾日登座，聊舉禪要而散。明日，告眾曰：「有故暫出，諸賢不宜留難。」其裝束若行脚狀，渡彭蠡，至黃州驛前，屹然立終。遐邇奔競觀禮。時馬鋪使臣為營喪務，造塔於立終處，則開寶二年也，今號真身院是歟。又澠池大安寺釋道因，不知何許人也。遊處澠池、灑、澗之間，自言：「出家人守儉，則少干人。與畜類為同行，則無是非盈耳。」嘗養一烏犬，出入起臥，不相忘捨。每食以鐵鉢就火而炊，糜熟，與犬同食。或前或後，行止奇異，人莫能測。一旦僧亡，犬亦坐斃。今大安寺塑其像，而肉身兩存，開寶中也。洛下崇信，香華滿龕焉。

宋印州大邑靈鷲山寺點點師傳

釋點點師者，不知何許人也。孟氏廣政中，隱印南大邑山寺，多遊塵肆中。雖事削染，恒若風狂。或與人接，必指點而言，故目是稱焉。有命齋食者，酒肉不問，率以為常，俚人亦不之厭也。日之夕矣，乃市黃白麻紙筆墨，寘懷袖以歸。行數里，沈酣而至暝矣。所居之室，雖有外戶，且無四壁。入後闔扉，人不得造。初隣僧小童，躡足伺之，見秉燭箕踞，陳紙筆於前，訶責大書，莫曉其文字。往往咄嗟如決斷處置。久之，明闇間熟視，閃爍若有人森列，狀如曹吏，則襦裳非世之服飾。觀者怖懼而退。詰旦，微詢其事，怒而弗答。居數載，印、管之人咸神異之，後不知其終。

系曰：點點師而能効鬼，別無高潔，軌生物善，亦與古人判冥司事者同邪？通曰：「所作在心，如不從正道力中生，則與五斗米道同。如不從有心符禁中起，則感鬼神歸信驅策之耳。故《善戒經》云：『若須神通應感化度，為示神足。』《莊嚴論》中菩薩以神通變化而為戲喜。又或此是辟支行位人也，故論云：『獨覺依彼彼村落乞食，以身濟度。不以語言示現種種神通境界，為令誹謗者歸向故。』」

宋天台山智者禪院行滿傳

釋行滿者，萬州南浦人也。羈貫成童，厥性明黠，篤辭所親，求為佛子。受戒方畢，聞重湖間禪道隆盛，石霜之門濟濟多士，遂往求解。屬諸禪師棄代，滿往豫章，觀諸法席，既得安然。次聞天台靈

聖之跡，由是結束遊之，棲華頂峯下智者院，知眾僧茶竈。見人怡懌，居幾十載，未覩其慍色。臥一土床，空其下，燒糞掃而煖之。每日脫衣就床，則蚤蟲蟄蟄焉啜之，及餒飼得所，還著衣如故。或人潛捫其衣，蚤蟲寂無蹤矣。先是居房檻外有巨松，橫枝之上寄生小樹。每遇滿出坐也，其寄生木必嫋嫋而側，時謂此樹作禮茶頭也。或不信者，專伺滿出，則紛紛然。滿去，則屹立亭亭，更無動搖。雖隨眾食，量少分而止。四十年內，人未見其便溺。以開寶中預向人說「我當行矣」。令眾僧念文殊名號相助，默焉坐化，春秋年可八十餘。滿多作偈頌以唱道焉。

宋魏府卯齋院法圓傳(鑛師李通玄)

釋法圓，俗姓郝，真定元氏人也。宿殖之緣，出塵無滯。後唐長興二年，投本府觀音院。勤勤誦習，師與落髮，間歲受滿足戒。後策杖負囊，巡禮諸方。至韶山挂錫，看大藏經焉。晉開運三載，却來本生地，寓天王院。越來年，契丹犯闕，戎王耶律德光迴至常山欒城而死。永康王兀谷代為蕃國之主，時旋軍自鎮州董戎北返，留酋長麻答、耶律解里守于下京——即常山也——晉之臣寮兵士盡在斯矣。漢兒將帥謀逐醜虜，其計未決，兩分街巷，漢人在蕃之中者，蕃人先發，無少長皆被屠戮之。天王院八僧殊死，圓預其數也——其時見殺者尤眾。初圓引頸兩受刃，如擊木石然，圓呼曰：「猛乞一劍。」遂身首異處。至暮，圓如夢中忽覩晚照，亦微悟被戮，意之自謂死已，冥冥亦見日月。後巡舉一臂試捫其頭，乃覺如故。再三疑之，不敢搖動，慮其分落也。又謂血凝所綴，重捫之，遶頸有痕，縫如線許大，終身如此。時城中既逐出蕃部，稍定，傍人扶起，詰朝歸院。院僧方將食粥，見圓，謂為鬼物，一皆奔散。遲久，審得其實，喜言再生，遠邇觀禮，且歎希奇。常山之人競陳供施。圓自後復往諸方，居無定所。暨周顯德中，寓大名府成安縣卯齋院溫尋藏教。以開寶六年，忽謂眾曰：「人生虛幻，何能久長？物極則遷，生死涅槃，必無少別。」遂不數日而長逝。黑白之眾，若喪所親。及送就茶毘日，感舍利若黍粟之阜粒焉。春秋七十四，法臘五十一。時范魯公質親問圓厥由，深加鄭重。再詢履行，則大藏經已兩過披讀矣。又福州楞伽寺鑛師者，海壇戍卒之子。厥初母氏懷娠，冥然不喜葷葷。洎乎誕育，岐嶷異常，不嚼魚肉。年及八歲，甘嗜野菜，若鉏斷種者，即言殺傷物命。每見家厨烹燂毛鱗，則手掬沙灰，投于鑊鑊，貴其不食。自言：「開元寺塔，隋朝中我造也。」多說未萌事，後皆契合。便請出家，因披法服，頂有香氣，如蕪沈檀，號為聖僧。時侍御史皇甫政為留後，請入府署，因

作肉餛子百數，唯一是素者，盤器交錯，悉陳于前，意驗其凡聖耳。鑷臨筵，徑拈素者啖之，餘者手拂而作。時皇甫部曲一皆驚歎。每出街巷，眾人圍遶。自言「壽止十三，當定歸滅。」至是果終。遂於寺前火化，傾城士女哭泣，依輪王法，樹浮圖焉。復次唐開元中太原東北有李通玄者言是唐之帝胄，不知何王院之子孫。輕乎軒冕，尚彼林泉，舉動之間，不可量度。身長七尺餘，形貌紫色，眉長過目，髭鬚如畫，髮紺而螺旋，脣紅潤，齒密緻。戴樺皮冠，衣大布縫掖之制。腰不束帶，足不躡履，雖冬無皴皸之患，夏無垢汗之侵。放曠自得，靡所拘絆。而該博古今，洞精儒釋，發于辭氣，若鏗巨鐘。而傾心華藏，未始輟懷。每覽諸家疏義繁衍，學者窮年無功進取。開元七年春，齎《新華嚴經》，曳筇自定襄而至并部盂縣之西南同穎鄉大賢村高山奴家，止於偏房中造論，演暢華嚴，不出戶庭，幾于三載。高與隣里怪而不測。每日食棗十顆，柏葉餅一枚，餘無所須。其後移於南谷馬家古佛堂側，立小土屋，閑處宴息焉。高氏供棗餅亦至。嘗齎其論并經往韓氏莊——即冠蓋村也——，中路遇一虎，玄見之，撫其背，所負經論搭載去土龕中，其虎弭耳而去。其處無泉可汲用，會暴風雨，拔老松去，可百尺餘成池，約深丈許，其味香甜，至今呼為長者泉。里人多因愆陽臨之祈雨，或多應焉。又造論之時，室無脂燭。每夜秉翰於口，兩角出白色光長尺餘，炳然通照，以為恒矣。自到土龕，俄有二女子衣質布，以白布為幘頭，韶顏都雅，饋食一盃于龕前，玄食之而已。凡經五載，至於紙墨供送無虧，及論成亡矣。所造論四十卷，總括八十卷經之文義。次《決疑論》四卷，縮十會果因之玄要，列五十三位之法門。一日，鄉人聚飲酒之次，玄來謂之曰：「汝等好住，吾今去矣！」鄉人驚怪，謂為他適。乃曰：「吾終矣。」皆悲泣戀慕，送至土龕，曰：「去住常也。」鄉人下坡，迴顧其處，雲霧昏暗，至子時儼然坐亡龕中，白色光從頂出，上徹太虛，即開元十八年暮春二十八日也。報齡九十六。達旦，數人登山，見其龕室內蛇虺填滿，莫得而前。相與啟告，蛇虺交散。耆少追感，結輿迎于大山之北，登石為城而葬之。神福山逝多林蘭若——一方山是也。葬日，有二斑鹿、雙白鶴、雜類鳥獸，若悲戀之狀焉。大曆九年六月內，有僧廣超到蘭若收論二本，召書生就山繕寫，將入汾川流行，其論由茲而盛。至大中中，閩越僧志寧將論注於經下，成一百二十卷。論有會釋七卷，不入注文，亦寫附於初也。宋乾德丁卯歲，閩僧惠研重更條理，立名曰《華嚴經合論》，行於世，人所貴重焉。系曰：北齊內侍劉謙之隨王子入臺山焚身。謙之七日行道，感復丈夫相，冥悟華嚴義，乃造論六百卷，久亡。至李長者之化行晉土，神變無方，率由應以此身而為說法也。或曰「李論中加乎十會，經

且闕焉。依梵字生解可非迷名耶？何長者說法之有？」通曰：「十會理有，宜俟後到之經。所解南無，言離中虛也——此配法觀心也。若知觸物皆心，方了心性。故經云：『知一切即心自性，則成就慧身，不由他悟。』此乃心境如，如則平等無礙也。觀李之判教該博，可不知華言義耶？嘗聞幽州僧惠明鳩諸偽經并華嚴論同焚者，蓋法門不相入耳。偽經可焚，李論難焚，伊非小聖境界也。亦猶楊墨之說與儒相違，行方外者復憎孔孟，水火相惡，未始有極。苟問通人：分曹並進，無相奪倫哉。」

論曰：

丹成轉數，服則登仙；慧鍊功夫，驗之果證。若或名未標於籙籍，力未合於經王，烏以輕舉此身，出過凡世，徒祇眩曜肉眼，驚忙猿心。所謂釋氏之儔，高下異爾。亦乃譬同群象也——牙能舐觸，鼻善卷舒，力却九牛，奔過駟馬矣。別有阿耨池岸，香醉山陰象，則鼓雙翼以飛騰，用七支而巧便，與夫海山之象，百倍絕倫，厥號蕩羅伐拏——象中龍也。諒知沙門有所感通，斯之謂歟！若夫能感所通，則修行力至，必有天神給侍是也；能通所感，則我施神變，現示於他是也；能、所俱感通，則三乘極果無不感通也。昔梁慧皎為傳，創立〈神異〉一科，此唯該攝究極位之聖賢也。或資次徵祥，階降奇特，當收不盡，固有缺然。及乎宣師不相沿襲，乃釐革為〈感通〉，蓋取諸「感而遂通」，通則智性，修則感歟，果乃通也。覈斯理長，無不包括，亦猶班固增加九流，變「書」為「志」同也。復譬聖人重卦，不亦愈於始畫者乎？然則前不仰觀俯察，後何變通？此非宣師之能，據嘉祥變例而能矣！原夫室靜生虛白，心靜則神通。儒、玄所能，我道奚若？引發靜慮，自在現前；法不喧囂，萬緣都泯；智門開處，六通由是生焉。動相滅時，五眼附茲照矣。目連運用，彰何第一之名？那律觀瞻，有是半頭之見。迷廬入其芥子，海水喻於毫端。不思議時，凡夫之心口兩喪；神通生處，諸佛之境界一如。復次，我教法中以信、解、修、證為準的：至若譯經傳法，生信也；義解習禪，悟解也；明律護法，修行也；神異感通，果證也。孰言像、末無行果乎？亦從多分說也：祇如檀特刻杖，表侯景之西歸；河禿指天，知文襄之南面；光師入《安樂》之行，弟子證三昧之門；泗上僧伽，十九類身之應現；萬迴尊者，五千餘里之往來。諸方更有其異名，此剎彌觀其奇迹，難拘定態，莫檢恒形：從願海而起身，元惟智積；自意生而分質，素是康僧；岸覩菩薩之迎生；英致秦襄之就食。留年不測，示跡無方；或揚化於數朝，或受齡於三百，或令竈祠而墮，或得御笛而迴，珪戒嶽神，安救唐相，或漉龍兒而至，或擊銷骨而征，入聖寺門認諸葛亮，或神光出口，或怪物沈河，豐干識其文殊，無相免其任俠，夢送浮圖

而渡海，身分窰窟以安禪，或放毫相之光，或令公主之誕，或獲珠之爍爍，或擾虎之眈眈，或記宰臣，或移巢鵲，壽過百歲，身隱五臺，或識草書，或求聽眾，或隱形而留影，或見母而便生，或題異辭，或語虓獸，記韋公之滅度，驚張瀆之夜歸，不濡其服而渡溪，不泄其穢而恒食，或倒立而死，或直吐其鳩，或身首異處而還連，或半年坐亡而復起。若以法輪啟迪，多作沙門之形；設如異迹化成，或作老叟之貌(寒山、拾得)。瘡痍可惡，疥癩堪嫌。或逆迢於恒流，或譟張於下類。伊皆難測，孰曰易知？將逆取順之由，反權合道之意耳。或曰：「感通之說近怪乎？」對曰：「怪則怪矣，在人倫之外也。苟近人情之怪，乃反常背道之徒歟！此之怪也，非心所測，非口所宣能至其涯畔矣。今神仙鬼物皆怪者也——仙則修鍊成怪，鬼則自然為怪。佛法中之怪則異於是，何耶？動經生劫，依正法而修致，自然顯無漏果位中之運用也。知此怪，正怪也——在人情則謂之怪，在諸聖則謂之通。感而遂通，故目篇也。故《智論》云：『以禪定力，服智慧藥；得其力已，遂化眾生。』復置世界於一毛，凝海水為五味，故曰：緣法察境，唯寂乃照。始驗佛門龍象間代一生出，而攝諸不慚愧也矣！」

宋高僧傳卷第二十二

宋左街天壽寺通慧大師賜紫沙門贊寧等奉 勅撰

遺身篇第七(正傳二十二人附見二人)

唐汾州僧藏傳

釋僧藏者，西河人也。弱齡拔俗，氣茂神清，允迪循良，恪居下位。迨霑戒善，密護根塵。見仁祠必禮之，逢碩德則盡禮。苟遇僧俗施拜，乃俯偻而走，如迴避令長焉。若當眾務也，則同淨人，屈己猶臧獲焉。見他人故衣，則潛加澣濯，別事紐縫。至于炎暑，乃脫衣入草莽間，從蚊蚋蝥蛭啣齧，薑芥血流，忍而汗洽。而恒念彌陀佛號，雖巧曆者不能定算數矣。確志冥心，未嘗少缺。及預知報盡，謂瞻病者曰：「山僧多幸，得諸天人次第來迎。」藏又言：「吾瞑目聞往淨土，聚諸上善人散花，方迴此耳——正當捨壽。」合掌念佛，安然而終矣。

唐漢東山光寺正壽傳(慳禪師)

釋正壽者，不知何許人也。風儀峻整，節概高強，肩錫曳囊，宗師皆謁。然以因緣相扣，附麗有歸，於南塔慳禪師門，決開疑網，密修資益。後壽杜默于隨部山寺，人皆不識。時譙王重福者——中宗次子也——，神龍初韋庶人譖云「與張易之兄弟構成重潤之罪。」遷均州刺史——密加防守，不聽視事。韋后臨朝，添兵士捍衛。及韋氏被誅，睿宗即位，轉集州刺史。未行，然忽忽不樂，而歸心於慳禪師，為其造生藏塔，舉高七十尺，極為宏壯。于時慳師疾已危篤，譙王使問師「後孰繼高躅？」慳曰：「貧道有正壽在。」王問諸僧：「誰為正壽？」或曰：「和尚有弟子在山光，迹韜晦。」王遣使召到，壽白慳師曰：「喜王為檀越，其塔已成，某欲為先試，得否？」慳曰：「善，為吾試。」是時壽攝衣合掌入塔，斂容瞑目，結加趺坐，便即滅度，全身不散，時號為試塔和尚。譙王聞已，歎嗟終日曰：「弟子猶爾！」乃別議改圖，為慳禪師營構焉。系曰：先人有奪人之心，壽公先其慳矣。夫直往者必能逕來也——業累弗羈，樊籠弗罩，脫羈開罩，生死自由。既然自由，已躋果位矣！俗諦觀之，壽公出藍之青也矣。而能秉心矯跡，出其師之前，一日千里，其是之謂乎！

唐五臺山善住閣院無染傳

釋無染者，不委氏族何許人也。從中條山受業，講《四分律》、《涅槃經》、《因明》、《百法論》，善者從之。恒念：「《華嚴經》至說諸菩薩住處東北方金色世界，文殊菩薩與一萬聖眾從昔已來止住其中而演說法，或現老人，或為童子。近聞佛陀波利自西國來一一不倦流沙，無辭雪嶺，而尋聖跡一一，高宗朝至臺山思量嶺啟告扣禮，乃見老人一一即文殊也。利雖云面接，未決心疑，令知往西國取經，詣金剛窟，入文殊境界，於今不迴。古德既爾，吾豈無緣乎？」染乃從彼發跡，遍訪名公。或遇禪宗，窮乎理性；或經法席，探彼玄微。以貞元七年到臺山善住閣院。時有僧智顓為臺山十寺都檢校守僧長之初也。遂挂錫棲心，誓不出山。每念文殊化境，非凡者之可勝，豈宜懈怠？冬即採薪供眾，夏即跣足登遊，春秋不移，二十餘禩。前後七十餘遍，遊歷諸臺，覩化現金橋、寶塔、鐘磬、圓光，莫窮其際。且曰：「松柏之鼠，不知堂密中有美樅乎？言更有愈於諸瑞，吾得少，未為足也。」最後於中臺東忽見一寺，額號福生，內有梵僧，數可萬計。染從頭禮拜，遞互慰勞，見文殊亦僧也，語染曰：「汝於此有緣，當須荷眾，勿得唐捐，有願無行而已。」言訖化寺眾僧，寂無所覩。染歎而言曰：「覩茲靈異，豈可徒然！此危脆身，有何久固？」乃遵言廣興供施，每設一百萬僧，乃然一指，以為記驗焉。漸及五百萬數，遐邇委輸，若海水之入歸塘焉。及千萬供畢，十指然盡。迨開成中，白大眾曰：「吾於此山薄有因緣，七十二遍遊諸聖跡，人所不到，吾皆至止。又不出茲山，已報深願，幸莫大焉！奈何衰老，今春秋七十四，夏臘五十五，及存餘喘，欲於中臺頂上焚一炷香告辭十方如來，一萬菩薩。或息我以死，誰甘相代？況諸人等，並是菩薩門人、龍王眷屬，蒔栽善種，得住此山，夙夜精勤，羈勒三業，龍華三會，共結要期。此時下山，勿有留難。」合掌曰「珍重」而去。眾初不喻其意，皆言早迴。染乃但携瓶錫，惟爇名香，遂命季氏趙華將蠟布兩端、鹿麻一束、香汁一斗，於中臺頂從旦至暮，禮拜焚香，略無暫憩，都不飲食，念佛虔誠，聲無間斷。已至深更，趙氏怪其所以，陟彼崔嵬，見染不移舊止，轉更精專。染謂趙曰：「吾有密願，汝與吾助緣，不得相阻。為取蠟布、麻、油，將來纏裹吾身，於夜半子時，要然身供養諸佛。吾若得道，相度汝也。」趙氏諫之，苦勸不止。將布纏身，披麻灌油，從頂而煉，言曰：「將吾灰骨當須飄散，無使顯異。」趙氏一從其命，略無移改，從頂而煉，至足方仆矣。趙氏歎曰：「昔聞藥王然身，今見上人，奇哉！痛哉！」後門人收真骨，於梵仙山南起塔，至今在矣。

唐成都府福感寺定蘭傳

釋定蘭，姓楊氏，成都人也。本闍闍間兇惡屠沽類，天與厥性，悔往前非，誓預六和，化行三蜀。當爾時也，咸歸信焉。造伽藍一，號聖壽殿。其緣未發，乃藏於傭保中耳。而父母早亡，無資可以追往。每遇諱辰，蘭悲哭咽絕，輒裸露入青城山，縱蚊蚋蝥蠅啖咋膚體，且云「捨內財也，用答劬勞。」蜀中有黑白蠛，形如粟，啞人口及肉，而少見者。次則刺血寫經，後則煉臂，至于拔耳剜目、餵飼鷲鳥猛獸。既而行步，非扶導而觸物顛躓。後有異人，掌擎物若珠顆然，內空皆中，斯須瞻矚如故。冥告曰：「南天王還師眼珠矣。」遠近驚駭。常謂人曰：「吾聞《善戒經》中名為無上施——吾願勤行，速要上果矣。」大中三年，宣宗詔入內供養，仰其感應之故，以優禮奉之。弟子有緣，恒執事左右。六年二月中，又願焚然肩膊。帝累勸勉，年耆且務久長修煉。蘭不奉詔，遂焚焉而絕。有緣表請易名建塔，勅諡覺性也，塔號悟真也。蜀都止呼定蘭塔院，于今香火不絕云。

唐福州黃蘗山建福寺鴻休傳(景先)

釋鴻休，不知何許人也。神宇標挺，玄機幹運，居閩黃蘗山寺，叢萃毳客。示教之外，侃然怡樂。恒言：「宿債須償，償盡則何憂何懼？物我俱逍遙矣。」人皆不喻其旨。及廣明之際，巢寇充斥，休出寺外，脫納衣於松下磐石之上，言曰：「誓不污清淨之地。」而安詳引頸待刃，刃下無血，賊翻驚異，羅拜懺悔焉。門弟子景先闍維其屍，收舍利七顆，囊而寶之。有篤信者以菽粒如數易之，追之靡及，遂往筮焉，占之曰：「死生貴賤，罔分吾卦。在靡在之，失寧失矣。孰知其然也？」洎獲，寘之于塔，分之七粒，緘于琉璃器中，瑩然光色。時僧清豁著文作頌紀德焉。

唐鄂州巖頭院全豁傳

釋全豁，俗姓柯氏，泉州人也。少而挺秀，器度宏遠而疎略。禮清源誼公為師。往長安，造西明寺，照公與受滿足法。即於左街保壽寺聽尋經律，決擇綱宗，垂成講導，振錫南指。詣武陵德山。藥病相應，更無疑滯。後居所隣洞庭——地曰臥龍——，乃築室而投憩焉。徒侶影隨。又居唐年山，山有石巖嶮嶒，立院號巖頭殿。凡所施用，皆削繁總，兀然而坐，任眾圍繞，曰：「汝何不思惟？家中有多少事，實於逆順之境證得超越之相者。」豁值光啟已來，中原

多事，諸侯角立，狂賊來剽掠，眾皆迴避，豁惟晏如。賊責弗供饋，忿怒俾揮刃之，曾無懼色。當光啟丁未歲夏四月八日。門人權葬，葬後收焚之，獲舍利七七粒。僖宗賜諡曰清嚴，塔號出塵。葬事，檀越田詠兄弟率財營構，南嶽釋玄泰撰碑頌德。提唱斗峻，時號巖頭法道，難其領會焉。

系曰：休、豁二師，何臨難無苟免乎？通曰：「凡夫之難，是菩薩之易。經生累捨此，烏憐哉？昔安世高累累償債，去若拂塵。業累纒輕，苦依身盡，換堅固之體耳。神仙或從刃殞者，謂之劍解，況其正修證果之人？觀待道理，不以不令，終為恥也。」

唐吳郡嘉興法空王寺元慧傳

釋元慧，俗姓陸氏，晉平原內史機之裔孫也。父丹——文林郎雲騎尉溫州糾曹——，慧即仲子也。髫齡穎悟，長而溫潤，畏作枯龜，思為瘦雁。以開成二年辭親，於法空王寺依清進為弟子。會昌元年，往恒陽納戒法，方習毘尼。入禮五臺，仍觀眾瑞。二年，歸寧嘉禾，居建興寺，立志持三白法，諷誦五部曼拏羅，於臂上爇香炷。五年，例遭澄汰，權隱白衣。大中初，還入法門。至七年，重建法空王寺。又然香於臂，供養報恩山佛牙。次往天台山，度石橋，利有攸往，略無憂虞焉。咸通中，隨送佛中指骨舍利，往鳳翔重真寺。煉左拇指，口誦《法華經》，其指不踰月復生如故。乾寧三年，偶云乖忤。九月二十八日，歸寂于尊勝院，報齡七十八，僧臘五十八。弟子端肅等奉神座葬之吳會之間，謂為三白和尚焉。其禮拜誦持，不勝其計，如別錄也。

系曰：煉大指，火盡灰飛，如何於焦炭之末，骨肉隨生不久如故？此與火中蓮華，同種而異態耳。何謂三白？通曰：「事理二種：一白飯、白水、白鹽，事也；二身不遍觸，口誦真經，意不妄緣。此三明白，非黑業也。故享此名歟。」

唐京兆菩提寺束草師傳

釋束草師者，無何而至京兆平康坊內菩提寺。其為人也，形不足而神俊，吟嘯自得，罕接時人，且不言名姓。常負束藁，坐臥於兩廊下，不樂住房舍，或云此頭陀行也。經數年，寺內綱任勸其住房。或有誚其狼藉，曰：「爾厭我邪？世不堪戀，何可長也？」其夕遂以束藁焚身，至明唯灰燼耳，且無遺骸，略盡污塗之臭，又無延燎驚咤之聲。計其少藁，不能焚此全軀。既無子遺，然其起三昧火而

自焚也。眾皆稱歎，民多觀禮焉。京邑信士遂塑其灰為僧形，置于佛殿偏傍，世號束草師，禱祈多應焉。

系曰：《處胎經》中菩薩禪定攝意，入火界三昧，愚惑眾生謂為菩薩遭劫火燒，是也。比丘實未及此，無象此以惑人。如能用少芻[廿/(黑*告)]能焚巨骸，則可信矣！故書曰：「民無胥譎張為幻。」吁哉！

唐南嶽蘭若行明傳

釋行明，俗姓魯，吳郡長洲人也。幼從師于本部，後遊方問道，然其耿介軒昂，嘯傲自放。初歷五臺、峨嵋，禮金色銀色二世界菩薩，皆隨心應現。由此登天台，陟羅浮，入衡嶽，遊梓潼。屬唐季湘之左右割裂，爭尋常而未息，靡有寧歲。於是棲祝融峯下，有終焉之志。止七寶臺，與玄泰布納為交契。其性之好惡，泰亦罔抗其輕重焉。嘗謂道友曰：「吾不願隨僧崖焚之於木樓，不欲作屈原葬之於魚腹。終誓投軀，學薩埵太子超多劫而成聖果，可不務乎？」屢屢言之，都不之信。忽於林薄間，委身虓虎前，爭競食之，須臾肉盡。時泰公收其殘骼焚之，而獲舍利。乃擷華酌水，為文祭之。辭中明其勇猛，能捐內財，破慳法，成檀度，未捨、已捨、當捨三輪頓空，取大果若俯拾芥焉。

系曰：佛勅比丘施眾生食，二世順益，感果非輕。若其明公，成大檀度，遠慳貪也；成大勇猛，得無畏也；成三輪空，無為功德也；成難捨心，淨佛土也。一擲其軀，其利博哉！譬猶善賞者費少而勸多，其是之謂乎！

晉太原永和三學院息塵傳

釋息塵，姓楊氏，并州人也。父遷貿有無，營利而已。其母氏嘗夢人服裝偉麗，稱寄宵宿，便覺娠妊。生而有異，童稚不群。每聞鐘唄之音，凝神側耳。年方十二，因夢金人瑰奇之狀，引之入精廬。明旦告白二親，懇求出家。未允之前，泣而不食。父母憫其天然，情何厭塞，遂曲順之。即投草堂院，從師誦《淨名經》、《菩薩戒》，達宵不寐。將周一祀，捨本諷通。年當十七，便聽習《維摩》講席，粗知大義。及乎弱冠，乃圓上品，執持律範，曾無缺然。年二十三，文義幹通，於崇福寺宗感法師勝集傳授。復學因明、唯識，不虧敷演，學徒穎脫者數人。崇福寺辯才大師從式最為高足。於天祐二年，李氏奄有河東，武皇帝請居大安寺淨土院，四事供養。專覽藏教，修鍊上生業，設無遮大齋，前後五會。塵嘗以

身飼狼虎，入山谷中，其獸近嗅而奔走。又於林薄裸體，以啖蚊虻。乃遊仙巖嶽寺，養道棲神。復看大藏經匝，設齋，然一指，伸其報慶。彼寺有聖觀音菩薩像，長燭七燈，香華供獻。後被諸生就請下山，城內傳揚大論，四序無輟。逐月設沐浴，臨河就沼，投飼水族；以己唾嚙，旋贖羽毛——沈潛高明，以遂生性。或施牢獄人食，或賑惠貧乏，或捐旛蓋於淨明、金藏二塔。後唐長興二年，眾請於大安國寺後建三學院一所，供待四方聽眾。時又講《華嚴》新經，傳授於崇福寺繼暉法師。由是三年不出院門，一字一禮《華嚴經》一遍，字字禮大佛名經，共一百二十卷。復煉一指，前後計然五指。時晉高祖潛躍晉陽，最多欽重。泊乎龍飛，塵每入洛京朝覲，必延內殿從容，錫賚頗豐。帝賜紫服并懿號，固讓方俞。塵聞鳳翔府法門寺有佛中指骨節真身，乃辭帝往岐陽瞻禮，覩其希奇，又然一指。塵之雙手唯存二指耳。續於天柱寺，就楚倫法師學《俱舍論》。方經數日，微有疾生，至七月二十七日辰時枕肱而逝，俗年六十三，臘四十四。平常唯衣大布，不蓄盈長。六時禮佛，未曾少缺。隴坻之間聞其示滅，黑白二眾具威儀送焚之，得舍利數百粒。弟子以靈骨歸于太原，晉祖勅葬于晉水之西山，小塔至今存焉。

系曰：塵師捐捨，詎能愈其精進乎？脫落浮榮，豈能勝其義解乎？若然者，不可以一名名矣。厥猶瞻蔔華焉，色黃而美，則真金謝其色；香芬而遠，則牛頭愧其香。多名生乎一體者，其塵公歟！

晉天台山平田寺道育傳

釋道育，新羅國人也，本國姓氏未所詳練。自唐景福王子歲來遊于天台，遲迴而挂錫於平田寺眾堂中。慈愛接物，然終不捨島夷言音。恒持一鉢受食，食訖，略經行而常坐，脇不著席。日中灑掃殿廊，料理常住；得殘羨之食——雖色惡氣變——，收貯于器，齋時自食。與僧供湑浴、煎茶，遇薪木中蟲蠹，乃置之遠地，護生偏切。所服皆大布納，其重難荷。每至夏首秋末，日昃，乃裸露胸背脛脰，云飼蚊、蚋、虻、蛭雜色蟲，螫齧至於血流于地。如是行之四十餘載，未嘗少廢。凡對晤賓客，止云「伊伊」二字，殊不通華語。然其會認人意，且無差脫。頂髮垂白，眉亦尪焉。身出紺赤色舍利——有如珠顆——，人或求之，隨意皆獲。至晉天福三年戊戌歲十月十日，終于僧堂中，揣其年八十餘耳。寺僧昇上山後焚之，灰中得舍利不可勝數。或有得巨骨者。後唐清泰二年，曾遊石梁，迴與育同宿堂內——一時春煦，亦燒楮柴以自熏灼，口中嘵嘵，通夜不輟。或云凡供養羅漢大齋日，育則不食。人或見迎羅漢時問：

「何不去殿內受供？」口云「伊伊去」。或云「飼蟲」，時見群虎嗅之，盤桓而去矣。

晉江州廬山香積庵景超傳

釋景超，不知何許人也。素持戒範，若護浮囊。性惟矢直，言不面從。及乎遊方役足，選勝棲身，至于廬峯，便有息行之意。惟誦《法華》，鞠為恒務。九江之人且多景仰。嘗禮《華嚴經》一字拜之，計已二遍，乃燒一指，為燈供養，慶禮經周矣。次禮《法華經》，同前。身膚內隱隱出舍利一一磊落圓瑩一一，或有求者，坐席行地，拾之無算。天福中卒于庵中。今墳塔在乎廬阜，遊者致禮，嗟歎而已。

系曰：言遺身者必委棄全軀，如薩埵王子是歟。今以指為燈，以肱擎炷，何預斯例，莫過幸否？通曰：「煉指斷肱，是遺身之加行也。況復像末，尤成難事。其猶守少分之廉，隅入循吏傳同也。」

晉鳳翔府法門寺志通傳

釋志通，俗姓張氏，右扶風著姓家之子也。早知遺世，克務淨門，選禮名師，登于上品，諸方講肆，遍略留心。後唐之季，兵革相尋，自此駕已東巡。薄遊洛下，遇罽日囉三藏，行瑜伽教法，通禮事之。乃欲陟天台、羅浮，遂辭。三藏曰：「吾此求翻譯，屬中原多事。子議南征奈何路梗何？」通曰：「泛天塹其如我何？」三藏曰：「苟去吳、會間，可付之梵夾，或緣會傳譯。」通曰：「已聞命矣。」以天福四年己亥歲，天王錫命于吳越，遂附海艦達浙中。時文穆王錢氏奉朝廷之故，具威儀樂部，迎通入府庭供養，於真身塔寺安置，施賚豐腆。通請往天台山。由是登赤城，陟華頂，既而於智者道場挂錫。因覽《西方淨土靈瑞傳》，變行迴心，願生彼土，生常不背西坐。山中有招手石者，昔智顛夢其石上有僧臨海上舉手相招召之狀。顛入天台見其僧名定光，耳輪聳上過頂，亦不測之神僧也。乃相見，乃問顛曰：「還記得相招致否？」顛曰：「唯。」此石峻峙，顧下無地。通登此投身，願速生淨土。奮軀而墮一大樹中，枝軟幹柔，若有人扶接焉，殊無少損。乃再叩榼投之，落于巖下蒙茸草上，微有少傷，遲久蘇矣。眾僧謂為豺虎所啖，及見其猶殮殍然，舁就本道場。初通去不白眾，遂分人各路尋覓，至螺溪，民村有巫者言事多驗，或就問焉。神曰：「伊僧在西南方，現有金鎧神扶衛不死，我到彼神氣盡矣，固難近也。」皆符協神言。後往越州法華山，默修淨業，將欲化去，所止房地生白色

物，如傅粉焉。未幾，坐禪床而終，遷座闍維，有五色煙覆于頂上，法華山中咸聞異香焉。

系曰：昔薄拘羅有五不死，今通公二不死；昔法充投千仞香爐峯而不亡，通且同矣。得非天龍負翼不損一毛乎？而能延彼連持色心未斷者何？俾其增修淨土業耳。

晉朔方靈武永福寺道舟傳

釋道舟，姓管氏，朔方迴樂人也。髫年聰雅，庠序有儀，雖誦《詩》、《書》，樂聞釋典，決志出家于龍興寺孔雀王院。爰得戒珠，漸圓心月，吟哦嘖讚，嘹亮可聽。乃率信士造永興寺，功成不宰。辭靈帥韓公洙，入賀蘭山白草谷，立要持念，感枯泉重湧，有靈蛇游泳于中——遂陟法臺談講也。道俗蜂屯，檀施山積，讚唱音響，可遏行雲，獷悍之人，若鷓鴣之革韻。乃刺血畫大悲千手眼立像。屬其亢陽，則絕食瞑目，要期雨之通濟，方議充腸。中和二年，聞關輔擾攘，乃於城南念定院塔下，斷左肱焚之，供養大悲像，「願倒置干戈，中原、塞上，早見弭兵。」言畢，迅雷風烈洪澍焉。又嘗截左耳為民祈雨、復斷食七日請雪，皆如其願。至于番落，無不祇畏。以天福六年辛丑歲二月六日，其夜未央，結加趺坐，留累門人方畢而絕，享齡七十有八。遺骸不散，如入禪定，遂加漆紵焉。建隆中，郭忠恕者博覽群籍，小學尤長，篆隸為能，多事凌轢，因過投于北裔，詢舟前烈，著碑頌焉。

漢洛京廣愛寺洪真傳

釋洪真，姓淳于氏，滑州酸棗人也。幼悟塵勞，決求出離，介然之性，雲鶴相高。師授《法華經》，隨文生解，鎧甲精進，伏其恚忿。或霑檀施，迴面捨旃，誦《法華經》約一萬部，詣朝門表乞焚全軀，供養佛塔。帝命弗俞，時政出多門，或譖云惑眾，或言不利國家，下勅嚴阻。真歎曰：「善根殖淺，魔障尤強，莫余敢止。」遂退廣愛寺，罄捨衣盂，作非時施。願畢，當年無疾坐滅。經數日，顏貌如生，遷就茶毘，唯舌根不壞，益更鮮紅。時眾觀之，歎希有事！春秋五十二。伊、洛之間重之如在。

周錢塘報恩寺慧明傳

釋慧明，俗姓蔣，錢塘人也。研覈三學，漸入精微。後登閩越，殆至臨川，禮文益禪師，深符正理，悟先所宗不免生滅情見。後迴

浙，隱天台白沙，立草寮，有雪峯、長慶之風，到者皆崩角摧鋒，謂明為魔說。漢乾祐中自山出，時翠巖參公率諸禪伯於僧主思憲院，定其臧否。明之口給，無能挫衄。尋漢南國王錢氏造大報恩寺，請以住持，假號圓通普照禪師。然行玄沙正眼，非明曷能致此？顯德中卒，時酷暑，俾欲葬之。有弟子永安曰：「知師唯我也。」請焚之，得舍利五色，一皆圓淨。初明煉指為燈，於天台供養。後相繼燒三指，而勤持課，脇疎衽席，時說法焉。性且剛直，言多忤物，是其所短也。

周晉州慈雲寺普靜傳

釋普靜，姓茹氏，晉州洪洞人也。少出家于本郡惠澄法師。暗誦諸經，明持祕呪，思升白品，願剪青螺。既下方壇，而循律檢，往禮鳳翔法門寺真身。乃於睢陽聽涉，赴龍興寺講訓，徒侶若鱣鮪之宗蛟龍焉。又允琴臺請轉梵輪，安而能遷。復於陳、蔡、曹、亳、宿、泗，各隨緣獎導。迴於今東京揚化，善者從之。晉天福癸卯歲，心之懷土，還復故鄉。遂斷食發願，願捨千身，速登正覺。至周顯德二年，遇請真身入寺，遂陳狀於州牧楊君，願焚軀供養，楊君允其意。乃往廣勝寺，傾州民人或獻之香果，或引以旛華，或泣淚相隨，或唄聲前導。至四月八日，真身塔前廣發大願曰：「願焚千身，今千中之一也。」徐入柴庵，自分火炬。時則煙飛慘色，香靄愁雲，舉眾歎嗟，群黎悲泣。享壽六十有九，弟子等收合餘燼供養焉。

宋衡陽大聖寺守賢傳

釋守賢，姓丘氏，泉州永春人也。少而聰達，淵懿沈厚，誓投吉祥院從師披剪焉。後遊學栖雲門禪師道場，明了心決。趨彼衡陽，眾推說法，納衣練若之人，若百川之會于朝夕池矣。賢不衣繒纈，布衣皮袴而已。度伏臘必無更易，脇不著席，唯坐藤床，瞑目通宵。除有問者，隨其啟發，雍容自持。乾德中，告眾曰：「吾有債願未酬，心終不了。」明日，入南窰山，投身飼虎。弟子輩去尋，見雙脛皮袴纏且存耳。收闔維之，得舍利無數。報齡七十四。今小浮圖藏遺體焉。

宋天台山般若寺師蘊傳

釋師蘊，金華人也。厥性真率，不好封植，遇事屬情，有多訐直。梁龍德中，與德韶禪師結侶遐征，遊訪名師勝境。至於北代清涼山，冥心巡禮。後登蒼梧野，陟祝融峯。然韶師或隨或否。迴于浙，來還棲息韶師法會。其為人也，稠人廣眾，往往滑稽，有好戲噱者則狎之，膠漆如也。故高達之者，置之於度外矣。唯韶師默而識之，謂人曰：「蘊公癡狂，吾不測其邊際焉。」因有疾，求僧作懺悔文，誦經及密呪各論幾百藏為度，方知其密持之不懈。嘗謂道友曰：「吾生無益於人，欲投宴坐峯，不然石梁下，所願早預賢聖之儔也。」其道友多沮其計。以開寶六年七月內，無疾坐終，如入禪定。時炎蒸，停屍二七日，身無欹側，竅無氣穢。及遷神座，就寺之東隅閣維，煨燼中收舍利外，舌根不壞。灰寒拾之，如紅芙蓉色，柔軟可憐。或曰：「伊僧別無奇異，此物偶存。」乃重燻其舌，隨同火色，遲久還如蓮葉。遂議結小塔于寺中緘藏。後有不信者重燒鍛，凡數十過矣。蘊生不言姓氏年齒，人以貌取之，則年八十餘矣。

宋杭州真身寶塔寺紹巖傳

釋紹巖，俗姓劉，雍州人也。母張氏始娠，夢寤甚奇。及生也，神姿瓌偉；至長也，器度宏深。七歲苦求出家於高安禪師，十八進具於懷暉律師，凡百經書，覽同溫習。自是遊諸方聖跡，泊入吳會，棲息天台、四明山，與德韶禪師共決疑滯於臨川益公。遂於錢塘湖水心寺挂錫，恒諷持《法華經》無晝夜，俄感陸地庭間生蓮華，舉城人瞻矚。巖亟命攀而蹂之。以建隆二年辛酉，經願云滿，誓同藥王焚身以供養。時漢南國王錢氏篤重歸心，苦留乃止。尋潛遁，投身曹娥江，用飼魚腹。會有漁者拯之，云「有神人扶足，求溺弗可，衣敷水面，而驚濤迅激，巖如坐寶臺。」然水火二緣俱為未濟，恒怏惋其懷。乃於越法華山安置。續召於杭塔寺，造上方淨院以居之。開寶四年七月有疾，不求藥石，作偈累篇示門徒，曰：「吾誦經二萬部，決以安養為期。」跏趺坐亡，享齡七十三，法臘五十五。喪事官供，荼毘于龍井山，獲舍利無算。遺骨若玉瑩然。遂收合作石函，寘于影堂。大寧軍節度使贈太師孫承祐為碑紀述焉。

宋天台山文輦傳

釋文輦，永嘉郡平陽人也。邂逅求師，受業于金華，納具足律儀畢，翹勤篤勵，三乘之學，一皆染漸。因往縉雲明昭禪師法會，不

事繁云，揚旣之間，決了無滯。末遇天台山德韶禪翁，唱宗一大師之道。輦復諦受無疑，不為異緣牽轉。故三十載隨韶師，聽其進否。嘗謂人曰：「悟入之緣，猶蠖屈之於葉也，食黃則身黃，食蒼則身蒼，其屈伸之狀無變。吾初見明昭乃若是，今學玄沙又如是，此所謂殊塗而同歸。今更取佛言為定量之。」乃覽大藏經三周遍，自是已來，逍遙無滯。以太平興國三年，忽自操其斧，言伐其檀，巧結玲瓏，重攢若題湊焉，號曰浮圖。中開戶，入內趺坐。自持火炬，誓之曰：「以此殘喘焚之，供養十方佛諸聖賢。」言訖，發焰亘空，其煙五色，旋轉氤氳，猶聞誦經之聲，須臾始絕。觀者號哭，灰寒，收舍利不知顆數。春秋八十四。初輦嘗謂善建寺僧說：「吾死已，無占伽藍可食之地，弗如自焚供養。望諸賢此時聚柴[廿/積]下念佛，助我往生，只此相煩耳。」今善建寺中累石為小塔焉。

系曰：小乘教以自殺犯重戒，前諸方便罪，是以無敢操炬就燎者。然自殺二例，一畏殺，須結蘭、吉。二願往生，強猛之心，命終身往，蘭、吉可能作礙邪？復次，大心一發，百年閻室，一燈能破，何罪之有？是故行人無以小道而拘大根者乎？

宋臨淮普照王寺懷德傳

釋懷德，本江南人也。髫年離俗，謹愿飾身，誦通《法華經》，得度。自爾雖登講肆，終以誦持為專務。晚遊泗上，禮僧伽塔像。屬今上遣高品李神福齋旛華上供，并感應舍利至，葬于新塔下基深窟中。德遂誓焚軀供養。先罄捨衣囊、供身之物，齋僧一中。然後白衣紙服，身纏油蠟，禮辭僧眾，手持雙燭，登柴[廿/積]中，發火誦經。觀者莫不揮涕。德至火熾燦高，其身聊側，猶微聞誦經之聲。一城之人無不悲悼者。淘汰舍利甚多，乃太平興國八年四月八日也。使臣回奏，上為之動容焉。

論曰：界繫之牢，不無我所；浮生之命，連在色身。皆自貴而輕他，悉己多而彼少，而增靳固，但長慳貪。若驪龍之吝珠，猶犛牛之愛尾；孔惜翠羽，麝護香臍也。其如儒氏彝倫，孔門徽典：以己私之飢體，曰父母之髮膚，不敢毀傷，恒知保慎。復有好自標遇，三年不見於門生，且事尊嚴，一坐不垂於堂廡。及乎心遊方外，教脫域中，或大善之克成，非小愆之能絆——許友以死，殺身成仁，漸契不拘，將隣直道。至有點禮樂，薄忠信，去健羨，飲淳和，乃有洗耳辭榮，抱石沈水。與儒則一倍相反，於釋則分寸相隣。佛乃為物捐軀，利生損命。與其不拔脛毛為利也，伏、臘殊時；與其惜父母之親體也，參、辰各見。如此乃驗教之深淺，行之是非。

譬猶出泉貨而既多，入息利而不少。我世尊因地也初唯減口，次則脫身，車服越共弊之心，象馬過借人之乘。輟食菜之地，判受封之**城**，用若拂塵，捨猶脫屣。復次，唵膚待飫，剗目副求，或指然一燈，或身均百鬻，救羸虛之虎，化長偉之魚。因超劫歸彌勒之前，先成佛享釋迦之位。皆從旋習，始外財而終內財；及熟善根，變難捨而成易捨。夫輟外財，外財難捨；難捨，凡夫也。捐內財，內財易棄；易棄，菩薩也。須知三世諸佛，同讚此門，是真實修，是第一施。豈不見僧崖菩薩安詳陟於柴樓，大志道人慷慨焚其腕骨？人皆難色，彼有易容。蓋累世之曾為，致今生之又捨。捨而復捨，估七寶以非珍；空而又空，以三輪之絕軌。乘茲度岸，是曰真歸；得金剛堅固之身，留玉粒馱都之應。

今之錄也，藏則當乎炎暑，裸餒蚊虻；壽則試其浮圖，坐中圓寂。定蘭感天王而還眼，鴻休拒大盜以償冤。明飼獸而破慳，超然燈而燼指。加其舌根不壞，身溺不沈，入薪塔而自焚，露赤軀而受咋，以前諸德也。念業異熟，為所依趣。知身是幻，幻體何憑？悟質如漚，漚形暫起。幻從心造，假偽相尋。漚散水澄，浮沈互有。是故大聖幾生所計，小乘潤生盡期。貴息苦依，思除我倒。非謂視同糠粃，觀若塵𦉳。譬之寄習學於茅廬，附彎弧於土塚；為選登雲之路，為求出塞之功。然後賜宅一區，門羅八戟，方云貴土，始利封侯。以其乳哺之囊，轉得那羅之器，亦復如是。

或曰：「用斯聲教，化我中華，得非韓吏部所患非楊即墨，而況加其佛乎？攻乎異端，斯害孔熾。」對曰：「正談仁義，則道德相懸；正說苦空，則忠信可薄。還借韓之譬——況坐井窺天，非天之咎。孔門大旨：『未能知生，焉能知死？』莊子曰：『勞我以生，息我以死。』若觀鼓盆而歌，似知不死焉。二教曾不言人死神明不滅，隨其善惡業緣受報，故有好醜。若由業因也，是用將鹿易細，以弱商強，售菟陸之脆形，博華鬢之珍服，既熏當種而起現行，生勝已生，報強前報。剗肉眼而招佛眼，割凡軀而貿金軀。尼拘之子至微，蔭車之形不少。是為真語，非謂食言。菩薩利他，適足以學。」

或曰：「夫行然鍊，善人則不疑。其有不善之人，慣嘗剗割，謂疼痛為詼諧；堪受凌遲，謂炙炮為戲劇。或敷人而偶作，或誑世而強為。此則栽何善根，自求辛螫耳。」對曰：「雖則頑民喜忍，惡少耐傷。且經念以然燒，或淺誠而餽飼，冥招善報，已種良因。以浮泛心，得浮泛報。昔有女子戲披袈裟，婆羅門醉著法服，其緣會遇，道果終成也。」

或曰：「義淨傳譯，重累再三，**令**勿然鍊。伊人親遊西域，備熟方宜，至乎教乘，罔不詳究。不許毀傷，何邪？」對曰：「此專縛阿

笈摩之教，安能沮壞摩訶衍法耶？設或略捨內財，決定當圓檀度，故《莊嚴論》云：『若能施自身命，則為希有。』成菩薩檀度也。」

將知四輪出世，十善行時，有道則堯下足淳民，奉孝則曾家生令子。我聖上踐祚之四載，兩浙進阿育王盛釋迦佛舍利塔，初於滋福殿供養，後迎入內道場，屢現奇瑞。八年二月望，詔於開寶寺樹木浮圖，僅登千尺。先藏是塔于深甃中，此日放神光，巨燭天壤。時黑白眾中有煉頂、指者，有然香炷者，宣賜物有差。苟非大權菩薩、大福天王，安能激勸下民而捐身寶者乎？直令此地螺髻見而珍寶成，還覺其時鷲峯淨而土田變。范雲綴史，紀數色之徵祥；王劭編文，書幾州之葬塔。隋分舍利，唐瘞真身。比乎我朝，田隴與鐵圍爭其疆畔耳。此篇所載，成傳開宗，令能忍難忍之人，既亡若在；使捨身受身之者，雖死猶生。圖五芝於草木之前，列四瑞於鱗毛之表。《詩》曰：「儀刑文王，萬邦作式。」者也。

宋高僧傳卷第二十三

讀誦篇第八之一(正傳二十一人附見三人)

隋行堅傳

釋行堅者，未知何許人也，常修禪觀，節操惟嚴，偶事東遊，路出泰山，日之夕矣，入嶽廟，謀之度宵。令曰：「此無別舍，唯神廊廡下可以。然而來寄宿者，必罹暴死之殃。吾師籌之。」堅曰：「無苦。」不得已從之，為藉藁於廡下。堅端坐誦經，可一更，聞屋中環珮之聲。須臾，神出，衣冠甚偉，部從焜煌。向堅合掌，堅曰：「聞宿此者多死，豈檀越害之耶？」神曰：「遇死者特至，聞弟子聲而自死焉，非殺之也。願師無慮。」堅固延坐談說。如食頃間，因問之曰：「世傳泰山治鬼，寧有之邪？」神曰：「弟子薄福有之。豈欲見先亡乎？」堅曰：「有兩同學僧已死，願得見之。」神問其名，曰：「一人已生人間；一人在獄受對，不可喚來，師就，可見也。」堅聞甚悅，因起，出不遠而至一處，見獄火光焰甚熾。使者引堅入牆院中，遙見一人在火中號呼，不能言語，形變不可復識，而血肉焦臭，令人傷心。堅不忍歷觀，愍然求出。俄而在廟廡下，復與神坐如故。問曰：「欲救同學，有得理邪？」神曰：「可，能為寫《法華經》，必應得免。」既而將曙，神辭僧入堂。旦而廟令視堅不死，怪異之。堅去，急報前願，經寫裝畢，齎而就廟宿。神出如初，歡喜禮拜，慰問來意，以事告之。神曰：「弟子知已。師為寫經，始書題目，彼已脫免，今生人間也。然此處不潔，不宜安經，願師還送入寺中。」言訖，天曉，辭決而去，則大業年中也。堅居處不恆，莫知終畢。

隋天台山法智傳

釋法智者，不詳何許人也。髫年離俗，應法升壇，松直凌空，玉堅絕污，凡百講肆，靡不留神。晚歲以逕直之門莫如念佛，每謂人曰：「我聞經言，犯一吉羅，歷一中劫，入于地獄，可信。又聞經說一稱阿彌陀佛，滅八十億劫生死重罪，則未之信。」人難云：「何故生大邪見？俱是佛言，急須念佛，久則三昧現前。」乃於國清寺兜率臺上晝夜精勤念佛。忽預辭道俗云：「生西方去，令親識

為吾設齋終日。」於中夜無疾而化，時有金色光明來迎，照數百里。江上船中，謂言天曉，遲久方明。始知智之往生矣。

唐京兆禪定寺慧悟傳

釋慧悟，未詳氏族。隱太白山中，持誦《華嚴經》，服餌松木。忽於一時見一居士來云相請。居士騰身入空，令悟於衣襟中坐，攝以飛行。至一道場，見五百異僧翔空而至，悟奄就末行。居士語曰：「師受持《華嚴》是佛境界，何得於小聖下坐？」遂却引於半千人之上。齋訖，居士曰：「本所齋意在師一人，雖有五百羅漢來食，皆臨時相請耳。」齋訖，遂送還本處，有如夢覺。即高宗永徽年中也。

唐京兆大慈恩寺明慧傳

釋明慧，不知何許人也。簡默恭己，約志蠲明，耐乎寒餒，誓求大乘。精進之鎧介躬，睡眠之魔退跡，是以初中後夜念誦經行。時玄奘三藏在京兆北坊部玉華宮翻《大般若經》畢，麟德元年示滅。其夜子時，慧旋遶佛堂，忽見北方有白虹四道從北亘南，橫跨東井，直勢貫慈恩塔院，歷歷分明。慧心怪焉，即自念曰：「昔如來滅度，白虹十二道從西貫于太微，於是有雙林之滅。今有此相，將非玉華法師有無常事邪？」申旦向眾述其所見，眾咸怪之。至九日，凶問至京，正符所見。慧彌增篤勵，老而無懈，未知終所。

周太原府崇福寺慧警傳

釋慧警，姓張氏，祁人也。少而聰悟，襁褓能言，二親鞠愛，隣黨號為奇童。屬新譯《大雲經》，經中有懸記女主之文，天后感斯聖蒞，酷重此經。警方三歲，有教其誦通，其含嚼紆鬱，調致天然也。遂徹九重，乃詔諷之。帝大悅，撫其頂，勅授紫袈裟一副，後因出家。氣貌剛介，學處堅固，充本寺上座。拯頓頹綱，人皆畏憚。或於街陌見二眾失儀，片招譏醜，必議懲誡，斷無寬理。後修禪法，虛室生白。終時已八十餘齡矣。九子母院有遺影，并賜紫衣存焉。

唐太原府崇福寺崇政傳

釋崇政，侯姓，本府人也。幼齡敏達，固願出家，誦經通一千餘紙。耆宿歎賞，謂之為經藏焉。神氣沈約，儀容整麗，秀眉廣目，挺志高奇。雖通群籍，所精者《俱舍論》——相國王公縉躬請政宣講。于時談叢發秀，美曲流音，屬聽無厭，雖移辰歷晷，謂如食頃焉。其剖判尤長，無得形似矣。代宗皇帝下詔徵為章信寺大德，稱疾不赴。終于本院，春秋五十八云。

唐太原府崇福寺思睿傳

釋思睿，姓王氏，太原人也。夙通禪理，復貫律宗，慈悲仁讓，忤無愠容。睿素嬰羸瘵，乃立志法筵，專祈藥上，恪勤不懈。尋見感徵，忽心力勇銳，辯猶瓶注。因誦《十輪經》，日徹數紙，翌日倍之，後又倍之，自爾智刃不可當矣。開元中杖錫嵩少問道。時義福禪師禪林密緻，造難其人，一言相入，若石投水。既飲甘露，五載而還。跏趺居定，日不解膝，遠邇擊問，求其玄理，如堵牆焉。春秋六十六，卒于所住院。

系曰：誦經不貴多，要在神解。慧警三歲通《大雲經》，差為奇俊。崇政終通千紙，得力在乎不奉詔赴章信新寺。睿公諷徹《十輪》，後咨禪道，故經偈云：「雖誦千章，不如一句」者，如渡溪杖策，到岸必捨焉。

唐上都青龍寺法朗傳

釋法朗，姑蘇人也。稟質溫潤，約心堅確，誦《觀音明呪》，神効屢彰。京闕觀光，人皆知重。龍朔二年，城陽公主有疾沈篤，尚藥供治，無所不至。公主乃高宗大帝同母妹也，友愛殊厚，降杜如晦子荷。荷死，再行薛瓘。既疾綿困，有告，言朗能持祕呪，理病多瘳。及召朗至，設壇持誦，信宿而安，賞賚豐渥。其錢帛珍寶，朗迴為對面施。公主奏請改寺額曰觀音寺，以居之。此寺本隋靈感寺，開皇三年置。文帝移都，多掘城中陵園塚墓，徙葬郊野，而置此寺。至唐武德四年廢，至此更題額。朗尋終于此寺焉。

唐河東僧銜傳(啟芳圓果)

釋僧銜，并州人也。本學該通，解行相副。年九十六，遇道綽禪師著《安樂集》，講《觀經》，始迴心念佛。恐壽將終，日夜禮佛一千拜，念彌陀佛八百萬遍。於五年間，一心無怠。大漸，告弟子

曰：「阿彌陀佛來授我香衣，觀音、勢至行列在前，化佛遍滿虛空。從此西去，純是淨土。」言訖而終。時有啟芳法師、圓果法師於藍田縣悟真寺一夏結契，念阿彌陀佛，共折一楊枝於觀音手中，誓曰：「若得生佛土者，願七日不萎。」至期鮮翠也。又夢在大池內東面有大寶帳，乃飛入其中，見僧云「但專念佛，並生此也。」又見觀音垂脚而坐。啟芳奉足頂戴，見一池蓮華，彌陀佛從西而來。芳問佛曰：「閻浮眾生依經念佛，得生此否？」佛言：「勿疑，定生我國也。」且見極樂世界平坦如鑑，娑婆世界純是山川。音樂寶帳，直西而去。有一僧名法藏，御一大車來迎。芳見自身坐百寶蓮華，成等正覺，釋迦牟尼佛與文殊讚《法華經》。復見三道寶階向西直往，第一道階上並是白衣，第二階有道俗相參，第三階唯有僧也，云皆是念佛人往生矣。芳、果二師躬云已見云。

唐荊州白馬寺玄奘傳

釋玄奘，江陵人也。通大小乘學，尤明《法華》正典，別是命家。自五十載中，日誦七遍，嘗因淨室焚香，感天人來傾聽。齋講之時，徵祥合沓。與道俊同被召，在京二載。景龍三年二月八日，孝和帝於林光殿解齋，時諸學士同觀盛集。奘等告乞還鄉，詔賜御詩，諸學士大僚奉和。中書令李嶠詩云：「三乘歸淨域，萬騎餞通莊。就日離亭近，彌天別路長。荊南旋杖鉢，渭北限津梁。何日紆真果，重來入帝鄉？」中書舍人李義云：「初日承歸旨，秋風起贈言。漢珠留道味，江璧返真源。地出南關遠，天迴北斗尊，寧知一柱觀，却啟四禪門。」更有諸公詩送，此不殫錄。奘歸鄉，終本寺焉。

唐成都府靈池縣蘭若洪正傳(守賢)

釋洪正，俗姓常氏，未詳何許人也。居于岷蜀間蘭若，往因有疾，所苦沈綿。從復平寧，發誓恒誦《金剛般若經》，日以二十過為准，精持靡曠。時隣僧守賢夜坐，見二鬼使手操文牒，私相謂曰：「取攝僧洪正。」一使曰：「為其默念《般若》，傍有大奇荷護，無計近得。又患責限遲延，今別得計。見有直府東門者姓常，又與僧同名，復曾為僧，來供爾攝去，以塞違殿也。」守賢聞之驚異，且志其事。明日，密問門子，常洪正已死。守賢先持《彌陀經》，後改業焉。洪正後不測其終。

系曰：寧有同名異實者，可互死耶？業不可移，此可移也，與其俗巫畫尚已形，言可以代衰厄，同也。通曰：「琰摩王或是菩薩，以同名，善者則捨，不善者攝之。此或是罪霜條晞，正增年壽，故得捨旃；又其惡器方滿，復當終期，故斯取也。苟以互實而取者，行教化焉！捨斯之外，非常理所能知也已。」

唐沙門志玄傳

釋志玄者，河朔人也。攻五天禁呪，身衣臬麻布耳。行歷州邑，不居城市寺宇，唯宿郊野林薄。玄有意尋訪名迹，至絳州，夜泊墓林中。其夜月色如晝，見一狐從林下將髑髏置之於首，搖之落者不顧，不落者戴之。更取芳草墮葉，遮蔽其身，逡巡成一嬌嬈女子，渾身服素練，立于道左。微聞東北上有鞍馬行聲，女子哀泣，悲不自勝。少選，乘馬郎遇之，下馬問之曰：「娘子野外深更號咷，何至於此耶？」女子掩淚，給之曰：「賤妾家在易水，前年為父母娉與此土張氏為婦，不幸夫婿去載夭亡，家事淪薄，無所依給。二親堂上，豈知妾如此孤苦乎！有一于此，痛割心腑，不覺哀而慟矣。妾思歸寧，其可得乎？郎君何怪問之？」乘馬郎曰：「將謂娘子哀怨別事，若願還鄉，某是易定軍行，為差使迴還易水，娘子可乘其鹿乘。」女子乃收淚感謝。方欲攀踏次，玄從墓林出曰：「君子，此女子非人也，狐化也。」彼曰：「僧家豈以此相誣？莫別欲圖之乎？」玄曰：「君不信，可小住。吾當與君變女子本形。」玄乃振錫，誦胡語數聲，其女子還為狐走，而髑髏草蔽其身。乘馬郎叩頭悔過：「非師之救，幾隨妖死。」玄凡救物行慈，皆此類也。

唐鳳翔府開元寺元皎傳

釋元皎，靈武人也。有志操，與眾不群，以持明為己務。天寶末，玄宗幸蜀，肅皇於靈武訓兵，計剋復京師。為物議攸同，請帝即位，改元至德。及二年，返轅指扶風，帝素憑釋氏，擇清尚僧首途，若袂除然。北土西河所推，皎應其選，召入受勅旨，隨駕仗內赴京。尋勅令皎向前發，至于鳳翔，於開元寺置御藥師道場。更擇三七僧，六時行道，然燈歌唄，讚念持經，無敢言疲，精潔可量也。忽於法會內生一叢李樹，有四十九莖，具事奏聞，宣內使驗實。帝大驚喜曰：「此大瑞應。」四月十八日，檢校御藥師道場念誦僧元皎等表賀，答勅曰：「瑞李繁滋，國之興兆。生在伽藍之內，足知覺樹之榮。感此殊祥，與師同慶。」皎之持誦，功能通感，率多此類。加署內供奉焉。

唐京師千福寺楚金傳

釋楚金，程氏之子，本廣平郡，今為京兆之整屋人也。母高氏夜夢諸佛，因而妊焉，生實法王之子也。行素顏玉，神和氣清。七歲諷《法華》，十八通其義。三十，構塔曰多寶。四十，入帝夢於九重，玄宗覩法名下見金字，詰朝使問，罔不有孚。于時聲騰京輦，遂募人構塔，累級而成，有同反掌。嘗於翠微、悟真，捫蘿靈趾，乃曰：「此吾棲遁之所。」遂奏兩寺各建一塔，咸以「多寶」為名。此外吟詠《妙經》六千餘遍。寶樹之下，髣髴見於分身；靈山之中，依稀覩於三變。心無所得，舌流甘露；瑞鳥金碧，棲於手中；天樂清冷，奏于空際。凡諸休應，皆不有之。乃曰：「法象王之法駕，迴人主之宸睞，承明三人，揚法六宮，后妃長跪於御筵，天華分散而不著。明皇題額，肅宗賜旛，豈榮冠於一時？亦庶幾於佛在也！」以乾元二年七月七日子時，右脇示滅焉。薪盡火滅，雪顏如在，昭乎上生於安養之國矣。春秋六十二，法臘三十七。天子憫焉，中使弔焉。勅驃騎大將軍朱光暉監護，即以其法葬于城西龍首原法華蘭若，塔之。

初金髻年寫《法華經》，不衣縑繒，寒加艾納而已。弟子慧空、法岸、浩然皆隨象王之子也。紫閣峯草堂寺飛錫碑文，吳通微書。至貞元十三年四月十三日左街功德使開府邠國公竇文場奏「千福寺先師楚金是臣和尚，於天寶初為國建多寶塔，置法華道場，經今六十餘祀。僧等六時禮念，經聲不斷，以歷四朝，未蒙旌德。」勅諡大圓禪師矣！

唐台州湧泉寺懷玉傳

釋懷玉，姓高，丹丘人也。執持律法，名節峭然。一食長坐，蚤虱恣生，唯一布衣，行懺悔之法。課其一日念彌陀佛五萬口，通誦《彌陀經》三十萬卷。至天寶元年六月九日，俄見西方聖像數若恒沙，有一人擎白銀臺，從窓而入。玉云：「我合得金臺。」銀臺却出，玉倍虔志。後空聲報云：「頭上已有光暈矣。請跏趺結彌陀佛印。」時佛光充室，玉手約人退曰：「莫觸此光明。」至十三日丑時，再有白毫光現，聖眾滿空。玉云：「若聞異香，我報將盡。」弟子慧命問：「師今往何刹？」玉以偈云：「清淨皎潔無塵垢，蓮華化生為父母。我修道來經十劫，出示閻浮厭眾苦。一生苦行超十劫，永離娑婆歸淨土。」玉說偈已，香氣盈空，海眾遍滿，見阿彌陀佛、觀音、勢至身紫金色，共御金剛臺來迎。玉含笑而終，肉身

現在。後有讚云：「我師一念登初地，佛國笙歌兩度來。唯有門前古槐樹，枝低只為挂銀臺。」一云是台州刺史段懷然詩也。

唐兗州泰嶽大行傳

釋大行，齊州人也。後入泰山，結草為衣，採木而食。行法華三昧，感普賢現身。行自歎曰：「命且無常，必歸磨滅，未知來世何處受生？」遂入藏內信手探經，乃獲西方聖教，遂專心思念阿彌陀佛。三七日間，於半夜時，忽覩瑠璃地，心眼洞明，見十方佛猶如明鑑中像。後時詔行入內宮，寢於御殿，勅賜號常精進菩薩，受開國公。乃示微疾，右脇而終。葬後開棺，見儀貌如生，異香芬郁焉。

唐洛陽廣愛寺亡名傳

釋亡名，**滎**陽人也。居止洛中廣愛寺，以精習毘尼，慎防戒法，避其譏醜，罕有缺然。上元中東歸寧省，路及**滎**陽道，宿于逆旅。方解囊脫履，欲漉水盥塵次，有僧至，頗見貌剛而率略，與律師並房安置。其後到僧謂主人曰：「貧道遠來，疲頓餒乏。主人有美酒酤滿罍，梁肉買半肩，物至酬直，無至遲也。」主人遽依請辦，僧飲啖之，都無子遺。其律師呵之曰：「身披法服，對俗士恣行飲啖，不知慚赧？」其僧不答，初夜索水盥漱，端身趺坐，緩發梵音，誦《華嚴經》，初舉題目，次言「如是我聞」已下。其僧口角兩發金色光，聞者垂泣，見者歎嗟。律師亦生羨慕，竊自念言「彼酒肉僧，乃能誦斯大經！」比至三更，猶聞誦經，聲聲不絕，四帙欲滿，口中光明轉更增熾，遍於庭宇，透於窓隙，照明兩房。律師初不知是光，而云「彼客何不熄燈，損主人油燭？」律師因起如廁，方窺見金色光明自僧之口兩角而出。誦至五帙已上，其光漸收，却入僧口。夜將五更，誦終六帙，僧乃却臥。須臾天明，律師涕泣而來，五體投地，求哀懺過「輕謗賢聖」之罪。律師喜遇異人，後加勤苦，卒成高名，莫知終地。

唐成都府雄俊傳

釋雄俊，俗姓周，成都人也。善講說，無戒行；所受檀信，非法而用；且多狡詐，唯事疎狂。又經反初服，入軍壘；而因逃難，還入緇行。大曆中，暴亡入冥。見王者，訶責畢，引入獄去，俊抗聲大呼曰：「雄俊儻入地獄，三世諸佛即成妄語矣！曾讀《觀經》，下

品下生者造五逆罪，臨終十念，尚得往生。俊雖造罪，不犯五逆；若論念佛，莫知其數。佛語若有可信，暴死却合得迴。」與雄俊傳語云「若見城中道俗告之，我已得往生西方。」言畢承寶臺直西而去。

系曰：一念憶識自身稱佛名不少，垂入獄而還返者，以強善心而轉弱惡故。是故行人須知：口誦莫如心持往生，淺力當如是學也。俊語流出民間：必死者重蘇，傳此語也。

唐吉州龍興寺三刀法師傳

釋三刀法師者，本姓曹，廬陵人也。天然之性，嗜於蔬食。羈貫成童，志願出家。于時自江以西，從安史之亂，南方不寧，多事土扶，故強兼弱，兵革未休。大曆七年十一月，廣州呂大夫被翻城。奉洪州路嗣恭牒吉州刺史劉寧徵兵三千人，同收番禺。

法師舊名伯連，其為人也強渥而貌惡，且心循良，恒持誦《金剛經》，以筒盛經，佩之于身，誓不婚娶。然不揚此善于他，惟密行愈至。無何，被括為軍。呈閱之時，又選充行營小將，非其所好，遂亡命焉。時徵兵頗急，牒諸處要害捕逐。於本州洋口擒送劉寧，令於朱木橋處死。三下刃俱折，劉怪問之，遂言素志捨家，恒持經法，如斯怯懦，恐忤軍威，是以亡耳。問經何在？曰：「被獲時遺墜。」遂令搜取，果數百步外得之，竹筒有刃痕而幾絕。劉拱手稱歎久之，乃縱其為僧。奏聞，勅下本道號三刀法師，配本郡龍興寺。後加精進，卒于住所。

唐湖州法華寺大光傳

釋大光，俗姓唐氏，生于邑之安吉也。母梅氏寄孕而夢協靈祥，在娠乃惡葷臭焉。既誕能言，不為戲弄。未亂之歲，思求佛乘，矢願念《法華》。三月通貫，經聲一發，頑鄙革心。及遂出家，而尋登戒，西遊京邑，朝見肅宗。帝召對禁中，拱而歎曰：「昔夢吳僧，口持大乘，五光隨發，音容宛若，適朕願兮。」因賜名大光。

屬帝降誕節，齋于定國寺。因賜墨詔：許天下名寺意往者住持。令中官趙溫送于千福寺住持經道場。其誦經作吳音，遼遼通於聖聽，帝甚異其事，令中官而宣諭焉。後居藍田精舍。先期而寺僧夢天童來降，曰：「大光經聲通于有頂。」光一日宴坐，自見神手從天而下撫其心，乃憶先達抱玉大師嘗誌斯言，令高其法音，當有神之輔翼。又別夕夢神僧乳見於心，命光口吮，自爾功力顯暢，形神不勞。又尋山探幽，偶墜窮谷，龍泉莫測，淪溺其間，心靈了然，都

無惑亂。因思本經〈多寶塔〉，為誠願持此支品十萬遍，恍然奮身脫泉，若有神捧焉。

後詔住資聖寺。此寺趙國公長孫無忌宅，龍朔二年為文德皇后追福造。長安七年，遭火蕩盡，唯於灰中，得數部經，不損一字。以事奏聞，百姓捨施，數日之間已盈鉅萬，遂再造其寺。

光覽此經，倍加精進。後以偏感有親在吳，未答慈力，表乞歸省養，詔旨未允。遂生有妄之疾，策蹇強力，將投于淵。驢伏不前，群鳥拂頂，心既曉覺，疾亦隨廖。乃以經頂荷行道，忽有詔許還。既止烏程，構營寶塔；日持《法華》偈，成報往願焉。永泰元年，浙西廉使韋元甫表請光為六郡別勅道場持念之首。大曆癸丑歲——顏魯公真卿領郡，相國李紳父為烏程宰——，紳未朞歲，乳病暴作而不啼不鑿者七辰。召光至，命乳母洗滌焚香，乃朗諷經〈分別功德品〉。遂起席而坐，拱手開眸。光授飲杯水，令強乳哺之，疾乃徐愈。光笑而謂曰：「汝何願返之遄速乎？」因以光名易紳小字。貞元中，紳重遊霅上，泊舟之次，光早遲佇于溪側，而笑言戲撫之，若稚孺焉。後紳刺于吳興，飲醉于館，光引宿於道場。夜分將醒，白光滿室，朗然若晝。往覘，光公宴坐，梵音方作，光起面門，如開毫相。經音向息，光色隨斂。紳歸京相辭，光曰：「汝得徑山之言，吾則無以為諭。行矣自愛，去留有時。他日位處廟堂，以教法為外護乎？」永貞元年十二月黑月既夕，示滅于持經道場，獸嘯鳥墜，山木驚振。異香芬馥，信宿不消。刺史顏防深愴悼之。光一納四十歲無浣濯，而戒香鬱然；一飯七十載，徵驗絕多。故相李公紳素於空門寡信，頗規僧過，而敦重光公，自著碑題云「墨詔持經大德神異碑銘」，布衣楊夔書云。

唐荊州天崇寺智燈傳

釋智燈，不知何許人也。矜莊已行，嚴厲時中，守護戒科，恒持《金剛般若》，勤不知倦。貞元中，遇疾而死。弟子啟手猶熱，不即入木。經七日還蘇，云：「初見冥中若王者，以念經故，合掌降階，因問訊曰：『更容上人十年在世，勉出生死。』因問：『人間眾僧中後食薏苡仁為藥食，還是已否？』曰：『此大違本教。』燈報云：『律中有正、非正開遮之條如何？』王曰：『此乃後人加之，非佛意也。』」遠近聞之，渚宮僧至有中後無有飲水者。系曰：小乘尚開食五淨物，薏苡非五穀正食也。疑其冥官因機垂誠，嫌于時比丘太慢戒法，故此嚴警開制。實諸佛常法也，非後人之加釀焉。

宋高僧傳卷第二十四

宋左街天壽寺通慧大師賜紫沙門贊寧等奉 勅撰

讀誦篇第八之二(正傳二十一人附見五人)

唐并州石壁寺明度傳

釋明度，未知何許人也。經論涉學，三業恪勤。誦《金剛般若》資為淨分，慈濟為心。迨貞觀末，有鴿巢于屋楹，乳養二雛。度每以餘粥就窠哺之，復呪之曰：「乘我經力，羽翼速成。」忽早學飛，墮地偕殞，度乃瘞之。旬餘，夢二小兒曰：「兒等本受卵生小類，蒙上人為養育，誦持迴向，今轉生人道，距此寺東十里間某家是也。」度默誌之，至十月滿，往訪此家，男婦果孿生二子。入視之，數日，遂呼曰：「鴿兒」，一時迴頭應諾。歲餘能言，皆得成長。度未知終所。

唐梓州慧義寺清虛傳

釋清虛，姓唐氏，梓州人也。立性剛決，桀黠難防，忽迴心長誦《金剛般若》。三業偕齊，無有懈怠。嘗於山林持諷，有七鹿馴擾，若傾聽焉，聲息而去。又隣居失火，連薨灰燼，唯虛之屋，颯焰飛過，略無焦灼。長安二年，獨遊藍田悟真寺上方北院，舊無井泉——人力不及——，遠取於澗，挈餅荷甕，運致極勞。時《華嚴》大師法藏聞虛持經靈驗，乃請祈泉。即入彌勒閣內焚香，經聲達旦者三。忽心中似見三玉女在閣西北山腹，以刀子剗地，隨便有水。虛熟記其處，遂趨起掘之，果獲甘泉，用之不竭。四年，從少林寺坐夏。山頂有一佛室，甚寬敞，人無敢到者，云鬼神居宅焉。嘗有律師侍其戒行，夜往念律，見一巨人以矛刺之，狼狽下山，逡巡氣絕。又，持《火頭金剛呪》僧，時所宗重，眾謂之曰：「君呪力無雙，能宿彼否？」曰：「斯焉足懼？」於是齎香火入坐持呪。俄而神出，以手擎足，投之澗下，七日不語，精神昏倒。虛聞之曰：「下趣鬼物敢爾？」即往彼如常誦經。夜聞堂東有聲甚厲，即念《十一面觀音呪》。又聞堂中似有兩牛鬪，佛像皆振。呪既亡效，還持本經一契，帖然相次，影響皆絕。自此居者無患，神遂移去。神龍二年，準詔入內祈雨。經二七日雪降，中宗以為未濟時望，令就寺更祈請。即於佛殿內精禱，并煉一指。纔及一宵，雨周

千里，指復如舊。纔遇大水，寺屋皆墊溺，其院無苦，若無滂沒。凡諸異驗，皆如此也。

唐睦州烏龍山淨土道場少康傳

釋少康，俗姓周，縉雲仙都山人也。母羅氏因夢遊鼎湖峯，得玉女手捧青蓮授曰：「此華吉祥，寄於汝所，後生貴子，切當保惜！」及生康之日，青光滿室，香似芙蕖。迨綳襦之年，眼碧脣朱，齒得佛之一相，恒端坐含笑。時鄉中善相人也，目之：「此子將相之才，不語，吾弗知也」。年甫七歲，抱入靈山寺中，佛生日禮聖容，母問康曰：「識否？」忽發言云：「釋迦牟尼佛。」聞皆怪之——蓋生來不言語也。由是父母捨其出家。年十有五，所誦之經已終五部，於越州嘉祥寺受戒，便就伊寺學毘尼。五夏之後，往上元龍興寺，聽《華嚴經》、《瑜伽論》。貞元初，至于洛京白馬寺殿，見物放光，遂採取為何經法，乃善導〈行西方化導文〉也。康見歡喜，呪之曰：「我若與淨土有緣，惟此軸文斯光再現！」所誓纔終，果重閃爍，中有化佛菩薩無算。遂之長安善導影堂內乞願。見善導真像化為佛身，謂康曰：「汝依吾施設，利樂眾生，同生安養。」康如有所證，南至江陵果願寺，遇一法師，謂康曰：「汝欲化人，徑往新定，緣在於彼。」言訖不見，止有香光望西而去。洎到睦郡，入城乞食得錢，誘掖小兒能念「阿彌陀佛」一聲即付一錢。後經月餘，孩孺螳慕，念佛多者即給錢。如是一年，凡男女見康，則云「阿彌陀佛」。遂於烏龍山建淨土道場，築壇三級，聚人午夜行道，唱讚二十四契，稱揚淨邦。每遇齋日雲集，所化三千許人。登座，令男女弟子望康面門，即高聲唱「阿彌陀佛」，佛從口出，連誦十聲，十佛若連珠狀，告曰：「汝見佛身，即得往生。」以貞元二十一年十月示眾囑累，止勸急修淨土。言畢跏趺，身放光明而逝。天色斗變，狂風四起，百鳥悲鳴。烏龍山也一時變白。今墳塔存于州東臺子巖，歲久唯餘方石。石傍之土，相傳療疾，州民凡嬰眾病，悉焚香取土，隨服多差。石之四隅若車轍焉。漢乾祐三年，天台德韶禪師重建其塔，至今高敞，時號後善導焉。系曰：康所述偈讚，皆附會鄭、衛之聲，變體而作，非哀非樂，不怨不怒，得處中曲韻。譬猶善醫以錫蜜塗逆口之藥，誘嬰兒之入口耳。苟非大權入假，何能運此方便，度無極者乎？唱佛佛形從口而出，善導同此作佛事，故非小緣哉！

唐江陵開元寺法正傳(會宗)

釋法正，不知何許人也。寬曠其懷，慎修厥行。司辰于三業，御史于六根，以其日諷《金剛般若》三七過，執持恭恪，罔或云懈。長慶初，得疾暴終。云條至幽冥，引見王者，問曰：「師生平藝何福田？獲何善果？」正以「誦經」為對。王乃揖上殿令登繡座，請誦七通。王以下侍衛靡不合掌，階下拷掠、撈擊、論愬，寂若無聲。念畢後，遣一人引正令還人間，王降階揖送云：「上人更得三十年在世，勿廢誦持。」隨吏行數里，至一巨坑，俾正俯窺，為吏推墮，若隕空焉，颯然蘇起。初，正死唯面不寒，起述其事，變心遷善者不一。正後年暨八十餘，卒于住寺。次，荊州功安縣釋會宗，俗姓蔡。初泛爾為僧，別無他技。忽經中蠱，病乃骨立，因苦發心志，誦《金剛般若經》以待盡爾。至五十過，夢有人令開口，喉中引出髮十餘莖；其夜又有夢吐蟪長一肘餘，因此遂愈——當長慶初也。荊山僧行堅見其事。宗不測終所。

唐京兆大興善寺守素傳

釋守素者，立性高邁，與群不同。居京興善寺恒以誦持為急務。其院幽僻，庭有青桐四株，皆素之手植。元和中，卿相多遊此院。青桐至夏中無何發汗，頗污人衣，如輶脂焉，而不可浣。時相國鄭公綱嘗與丞郎數人避暑，且惡其滴瀝，謂素曰：「弟子為師伐此樹，各植一松，可乎？」及暮，素戲呪之曰：「我種汝二十餘年，汝以汗之淋瀝，為人所惡，同惡木之不可休其下也。來歲若然，我必薪之。」自爾絕蹤矣！素誓不出院，誦《法華經》三萬七千部。夜恒有猱子馴擾，來聽經。齋時則烏鵲就掌取食。他僧以食誘，群羽皆驚噪而逝。長慶初，有僧玄幽題此院云：「三萬蓮經三十春，半生不踏院門塵。」當時以為佳句也。素之終代，罔得詳焉。系曰：刺漆樹者恒患其少滴，愛故難求；斬魏樹者患其多辛，惡之易得。嗟！爾青桐發汗，世所罕聞；及乎素公詆呵，明年絕跡。豈有出家弟子不如其無情樹木乎？既不能為漆與物隔其污，為魏與食加其味乎？苟認師友之彈呵，取令完淨。傳曰：「過則勿憚改。」本教則悔罪，清淨，如本無異。思之。

唐幽州華嚴和尚傳

釋華嚴和尚，不知名氏。居在幽州城北，恒持《華嚴經》以為淨業——一時號之，全取經題呼召耳。其所誦時，一城皆聞之，如在庭廡之下。萬歲通天年中，韓國公張仁愿之為幽州都督也，夜聞經聲，品次歷歷然。及爾晨興，謂夫人曰：「昨宵城北道人諷誦，若在衙

署前也，還聞已否？」夫人曰：「是何地遠可得聞乎？」張君曰：「如其不信，可各遣小豎走馬往覆之。」果無差謬。張君請召入城，及相見，謂張君曰：「有願胡不報乎？」答曰：「現造袈裟五百，緣布施羅漢去。」華嚴曰：「勿去餘處，但送往州西馬鞍山竹林寺內施僧。」及遣使齎香、衣物登佛龕，山已去，覓竹林寺且無蹤跡。如是深入，陟高山，見一翁問之，曰：「但隨吾來。」倏覩雲開寺現，景物非凡世所有。入寺散袈裟畢，而少二人。彼老宿曰：「可齎還二分，一與張仁愿，一與華嚴和尚。」自此方知華嚴和尚是竹林聖寺中來，使留一宿，出已經年。行化既久，及終坐亡，肉身不萎敗。范陽之人多往乞願，時有徵應。塔近因兵革而廢矣。

系曰：一口宣誦，何能入遠近人人耳耶？通曰：「近則若願持經，善法力故；遠則一音演說，隨類聞解。其人是聖寺員位，斷可知矣！」

唐河中府柏梯山文照傳

釋文照，不知何許人也。本敦朴遲訥之人耳，然見佛像則悅懌。一旦詣柏梯寺，禮曇延法師畫影出家。專念諸經，罔知詮顯，常憤受性昏濁。忽若假寐，見曇延法師身長一丈，目光四射，謂照曰：「爾所欲者，吾安能致之？吾有聰明經一卷，求之於彼，必謹而持，取感應若俯拾地芥耳！」即袖中出以授之，則《金剛般若》也。登即執讀，七過而便驚寤，經猶在目。然後念通無滯，如久習焉。其喉舌間曲折浮沈，尋變入節，非常調也。自此聰敏日新，辯給在口，時謂為觀音附麗于厥躬也。且曰：「我師是周隋國師。凡所纂集義疏，必乘夢寐而神授，我無愧為資矣。」

唐陝府法照傳

釋法照，不知何許人也。立行多輕率，遊方不恆。長慶元年，入逆旅避雨，逡巡轉甚泥淖，過中時乞食不得。乃咄遣童子買彘肉，煮夾胡餅數枚，麁食略盡，且無恥愧，旁若無人。客皆詬罵，少年有欲毆者。照殊不答。至夜，念《金剛經》，本無脂燭，一室盡明，異香充滿。凡二十一客皆來禮拜謝過，各施衣物。照踞坐若無所覩。後不知終所。

唐蘄州廣濟縣清著禪院慧普傳

釋慧普，姓宋，本郡蘄水人也。性地疎朗，敏利桀然，既奉尸羅，冰雪任操。元和十二年，樂廣濟山秀地靈，願棲于此。始謀誦《大涅槃經》，歷稔彌年，卒通四十二卷。聞者憮然曰：「四帙大經，若為溫習，非揣量而可庶幾乎！」或疑其妄言徹部，有亂次舉品題以試驗之，且無澁滯、少遼、緩之，無不弭伏。普亦不戒意，躬刀耕火種，趣足而已；卉服布裘，度其伏臘，日夜經聲不絕。如是涉三十載，邑人學者，莫不推重，增修院宇。以大中三年冬，無疾，集眾告違，跏趺坐終，儼若凝思。弟子以香泥纏飾，遷于山椒塔中，號涅槃焉。于今香火不絕。

唐今東京客僧傳

亡名，長慶中自遠而至，狀輒麤暴。見寺中淨人，咄曰：「與吾將錢沽酒。」寺僧見之，怒其勿遮戒檢，辱我僧坊，其何以堪。遂奪其瓶，擊寺外柏樹，瓶則鏗然已碎，其酒凝滯不流，著樹如綠玉焉，搖之不散，嗅之無臭。寺僧驚怪，顧客「何為？」客曰：「某常持《金剛般若》，須預飲此物一杯，則諷吟瀏亮，率以為常，非此不可。上人勿怪。」寺僧遲迴之際愀然。其客將器就樹盛之，其酒盡落器中，略無子遺——觀者如堵。奄然流啜，斯須器窳而酣暢。不知其僧往復何所。

唐上都大溫國寺靈幽傳

釋靈幽，不知何許人也。僻靜淳直，誦習惟勤。偶疾暴終，杳歸冥府。引之見王，問「修何業？」答曰：「貧道素持《金剛般若》，已有年矣！」王合掌屢稱善哉，俾令諷誦。幽吮脣播舌，章段分明。念畢，王曰：「未盡善矣。何耶？勸少一節文。何貫華之線斷乎？師壽命雖盡，且放還人間十年，要勸一切人受持斯典。如其真本，即在濠州鍾離寺石碑上。」如是已，經七日而蘇。幽遂奏奉勅令寫此經真本，添其句讀，在「無法可說，是名說法」之後是也。系曰：《春秋》夏五，不敢輕加；佛教宜然，無妄釀矣。通曰：「靈幽獲鍾離寺石經，符合無苦。如道明所添糝，使人疑豫，必招詐偽。率易改張，稱有冥告，誠之哉。」

唐荊州法性寺惟恭傳(靈巖)

釋惟恭，不詳何許人也。少孺出俗于法性寺，好尚偏下，多狎非法之友。雖乖僧行，猶勤持誦《金剛般若》，罕離脣齒。酒徒博侶，

交集門庭，虛誑云為，曾無廉恥。後遇病且死。同寺有靈巋，其跡相類，號為一寺二害也。巋偶出，去寺一里所，逢六七人少年甚都，衣服鮮潔，各執樂器如龜茲部，問靈巋曰：「惟恭上人何在？」巋即語其處，疑其寺行香樂佛也。及曉，迴入寺，聞鐘聲，云「恭卒」。所見者乃天樂耳。蓋承經力，必生淨刹，亦以其跡勉靈巋也。巋感悟折節，緇門崇重，終成高邁焉。

唐明州德潤寺遂端傳

釋遂端，姓張，不知何從而來德潤寺求師。其為人也，質直清粹，不妄交遊。師授《法華經》，誦猶宿構，人皆駭歎。至乎老齒，勤而無懈——十二時間恒諷不輟。咸通二年，忽結跏趺坐而化，須臾口中出青色蓮華七莖。遠近奔走，皆至觀禮。邑人同心造龕，窆於東山之下。二十餘年，墳塋屢屢光發，後開視之，形質如生。眾迎還寺，漆紵飾之。今號真身院存焉。伊寺者，吳太子太傅都鄉侯闕澤書堂，後捨為伽藍，其題額取澤字也(今普濟寺是也)。

系曰：端終口出優曇鉢華，是乎？聞諸輪王出世海中道上方生是華，今像末豈有是邪？通曰：「為感其人而應，則不可以時拘也。譬猶麟非中國之物，感明王而至，同也。」

唐越州諸暨保壽院神智傳

釋神智，婺州義烏人也，俗姓力。力氏之先，黃帝臣牧之後。漢有魯郡相力歸，因官居兗，遂為魯人也。祖考皆田峻，而以朴素相沿。智少有貞操，懇樂捨家，就雲門寺惟孝為師。年十二，一食斷中；持〈大悲心呪〉，應法登戒，峻勵恪勤。俄屬會昌滅法，智形服雖殊，誓重為僧，磨不磷而涅不淄，于時見矣。大中初年，復道。巡遊暨陽，考于禪室，且曰：「營廷之魚，潛于藪澤，宜哉！此處吾之藪澤也。」恒呪水盃以救百疾，飲之多差。百姓相率，日給無算，號大悲和尚焉。大中中，入京兆，時昇平相國裴公休預夢智來，迨乎相見，欣然。相國女郎鬼神所被，智持呪，七日平復。遂奏請院額曰大中聖壽，仍賜左神策軍鐘一口、天后繡幃、藏經五千卷。裴君為書殿額。智以光啟丙午歲十二月，終于東白山，春秋六十八，法臘四十八。遷座歸暨陽南山入塔焉。

梁揚州禪智寺從審傳

釋從審，不詳氏族，幼入江都禪智寺，捨家誦經數萬餘言。其寺即隋煬帝之故宮也。咸通五年，受具戒於燕臺奉福寺。律席經筵，遍知嘗染。後併三衣成五納，諸名山勝概，無不遊覽。末歸淮甸，推為僧首。五六年間，一皆嚴肅。然恒誦《淨名經》，未愆日計。以貞明二年三月十八日構疾，迨十九日禺中微息而終，顏貌如常。荼毘，獲舍利三十粒，堅明通鍛無耗。疊石為墳，筠源沙門靈護述墳銘云。

梁溫州大雲寺鴻楚傳

釋鴻楚，字方外，姓唐氏，永嘉人也。生而符彩且異群兒。及甫髫齡，器度宏曠。楚之外，昆弟皆出俗越之龍宮伽藍，遂祈二親，亦願隨往。網疎魚脫，籠揭鶴飛，杜若殖于蘭洲，新繒染于絳色，互相切直，誦習彌通。年二十三，方升上品無作。及迴本郡，時州將朱褒知其名節，欽揖愈勤。唐大順中以城南有廢大雲寺荒墟，表聞昭宗，欲重締構。帝俞其請。於是百工俱作，楚躬主之。施利程功，不愆于素；而講經禮像，無相奪倫。武肅王錢氏，乾化初年於杭州龍興寺開度戒壇，召楚足臨壇員數，因奏薦梁太祖，賜紫衣并號，固讓弗聽，終不披著——自言涼德，何稱法門命數之服？時詩人鄭說南遊，訪鴻靜法師，邂逅與楚會。體知高行，杼詩贈楚云：「架上紫衣閑不著，案頭金字坐長看。」楚寬慈，人未嘗見其慍色。神氣清爽，厥頤豐下，且皤其腹。目不邪視，顧必迴身。世俗之言，不輕掉舌。所講《法華經》，計五十許座。一日，楚之講堂中忽生蓮華，重柎複葉，香氣芬芬。以長興三年壬辰六月五日，無疾而化。俗齡七十五，法臘五十二。道俗孺慕。其年遷塔于慈雲右岡焉。楚講貫外，深夜行道誦經。將逝夕，燈光忽暗，經聲絕微，告門人曰：「勞爾給使，吾將往矣。」其所臥之榻中先有白蛇——其大若肱，恒同臥處——，長誠童侍，無妄驚擾。生常撰《上生經鈔》，刺血寫《法華經》一部，至今永嘉人謂為僧寶中異寶焉。

後唐溫州小松山鴻莒傳

釋鴻莒，姓唐氏，永嘉人也。早出家于越州龍宮寺。始則誦《法華經》全部。得度，裹足往趨長安學律。因讀化度寺碑，時有舉人旁聽，見莒目瞻多行，異之，知能背碑，請莒誦之。儒生覆其文，了無一誤。又相將去崇聖寺，亦然，而多強記，輩流所推。言歸故鄉，請受二眾依止。其細行也，生來未嘗叱其狸犬，豈況諸餘乎？然晝夜行道誦經，有鬼神扶衛——或為然燭，或代添香，皆鬼物

也。天成三年戊子，水滂之後，報之以大旱，民荐饑饉。有強盜入其室，莒待之若賓客，躬作粥飯飼之，曰：「徐徐去，山深無人。汝曹為天災所困耳。」盜者拜受而去。弟子中欲襲其不備，莒曰：「非我弟子，我捨此永入深山矣！」諸子罷輕襲之意。長興癸巳歲中，恬然無疾，跣趺儼然長逝。至三更，手敲龕門者三，弟子哭泣啟開，云：「吾告汝等，與吾換新衣裳，緣佛土諸上善人嫌吾服章不淨。」易畢便終，七日頂暖。時院中有巨犬三——能猛噬——，遷塔日隨人馴狎。時山中麕鹿飛鳥相參，犬無摯猛，獸不驚奔。葬後，有虎繞墳嗥叫。其感物之情如是。有弟鴻楚，並高行，為時所重。

後唐鳳翔府道賢傳

釋道賢，不知何許人也。持諷《孔雀王經》以為日計，末則受瑜伽灌頂法，持明之功愈多徵應。嘗夜夢佛携賢行，步步蹈履濃雲，若乘剛焉。每行不知幾百里，而指之曰：「此摩竭陀國，此占波國，南印度、西印度、迦濕彌羅等國。」且行且記，喜躍不勝。及寤覺，冥解五天梵音，悉曇語言。時西域僧到岐下，葱嶺北諸胡僧往往偽稱五印人，賢以一接語言，先斥之曰：「汝是某國人。」北戎南梵，無敢給之。隴坻道俗，皆稟承密藏，號阿闍黎也。迨長興末，明宗晏駕，立從厚為帝，鳳翔清泰不恭其命，遣王思同帥師伐之，清泰乃嬰城自守。清泰問賢曰：「危甚矣，如何？」對曰：「召竇八郎，可逆知勝負也。」清泰出乘城撫眾，其竇八介甲持戈來馬前，作迎鬪之狀。跳躍已，解甲投戈而走。賢曰：「此外敵必降之象也。」果如斯說。清泰乃擁兵而東，召賢俱行。入洛，即帝位歟，改元曰清泰。賢奏曰：「年號不佳，何邪？水『清』『石』見。」至二年，勅移并州晉高祖為天平軍，乃阻兵自固，潛連契丹，長驅入洛，清泰自焚，果「石見」之應矣。晉兵未至，賢先終于洛，今兩京傳大教者，皆法孫之曾、玄矣！竇八郎者，岐人也，家且富焉。自荷器鬻水，言語不常，唯散髮披衣狂走，與李順興相類。或遇牛驢車，必撫掌而笑。迨死，焚之，火聚中盡化金色胡蝶而飛去。或手掬、衣扇行之，歸家供養焉。

漢江州廬山若虛傳(亡名僧)

釋若虛，隱于廬山，數年持經，不出石室。江南國主李氏欽尚其道，累徵，終不降就。唯言「老僧無能，寧銷王者歸心？若更相呼，竄入深山矣！」或衣物則避讓，香則受之。以乾祐中盛夏坐

終，身不沮壞，今湓城人供養影相焉。又潭州釋亡名，恒誦《法華經》，口無他語。長沙文昭王馬氏特加禮重，召入天策府湘西院供養。然其語事，詭異堪驚。一旦召知佛殿僧，令急褻掠佛像，各就兩廂。僧皆謂為狂發，相目而笑。舉止極甚忽切。須臾，自入正殿內據佛座而坐，奄然而化。舉州道俗，爭禮焚香，漢乾祐中也。

周會稽郡大善寺行瑫傳

釋行瑫，姓陳氏，湖州長城人也。考曰良，母陶氏，鍾愛之心與諸子異。然其敏利，又於群童傑然而出。父母多途礙其出家之志，終弗能禁。唐天祐二年依光遠師求于剃染。年十有二，誦《法華經》，月奇五辰而畢軸。次《維摩經》盡，如道安朝請經而暮納本焉。尋於餘杭龍興寺受滿足戒，遂往金華雙林寺智新傳南山律鈔，弭節服膺，流輩推揖。常食時至，以不[(鑿-臼+口)-金+米]之米與菜茹投小鼎中，參煮而食，此外斷無重味。義解之心，理焚破木，都無難色。嘗謂人曰：「所好甚者，不見他物之可好。吾之好也，樂且無荒也。」後唐天成中，寓于越，樂若耶山水，披覽大藏教，服泉麻之衣。募道俗置看經道場於寺之西北隅，構樓閣堂宇，蔚成別院，供四方僧，曾無匱乏。以顯德三年王子秋七月示疾，終于此院，報齡六十二，法臘四十四。瑫性剛正，無面諛，無背憎，足不趨豪貴之門，囊不畜盈餘之物，房無閉戶，口無雜言。亦覽群書，旁探經論，慨其郭彛音義疎略，慧琳音義不傳，遂述大藏經音疏五百許卷，今行于江浙左右僧坊。然其短者，不宜稱「疏」——若言「疏」，可以疏通一藏經，瑫便過慈恩百本幾倍矣。其耿介持律，古之高邁也矣。

宋東京開寶寺守真傳(沙彌彌伽道蔭)

釋守真，永興萬年人也。俗姓紀，漢詐帝信之鴻緒。乃祖乃父，素履貞吉，奕葉孝行，充塞閭里，故鄉人美其孝焉，遂日之曰紀丁蘭也——真即其後矣！洎黃寇干紀，僖宗蒙塵，車駕避鋒而西幸，咸、鎬失守而沒賊，因而徙家居于蜀矣。及冠也，偶遊聖壽寺見修進律師行出物表，語越常度，乃解帶卸冠，北面而事之。七支既備，先謁從朗師，學《起信論》；次依性光師，傳法界觀；後禮演祕闍梨，授瑜伽教，竝得心要，咸盡指歸。自明達諸法，宣暢妙典，四十年間略無怠矣。而賜號曰昭信焉。講《起信》及法界觀共七十餘遍，皆以燈傳燈，用器投器，嗣乎法者二十許人。開灌頂道場五遍，約度僧尼士庶三千餘人，開水陸道場二十遍。常五更輪，

結文殊五髻教法，至夜二更輪，西方無量壽教法，稱阿彌陀尊號，修念佛三昧，期生淨域。一日，謂弟子緣遇曰：「如來不云『出息不保入息』？吾之壽也幸矣，汝之年也耄矣，今欲順俗從世，預設二塔，其可得乎？」緣遇稽首而對曰：「廣度長老捨院之右地請建塔者有年矣！今大師屬其意，長老致其美，因緣冥契，安可而止。」於是鳩工而營之，自十月琢磨，至來一月徹績。以開寶四年秋八月九日命眾念佛，佛聲既久，令止，奄然而歸寂，俗壽七十八，僧臘五十三。其月二十一日焚葬於北永泰門外智度院側。其獲舍利光潤，各將供養之。次沙彌彌伽者，于闐國人也，專誦《華嚴經》，曾無間息。聖曆年中，天帝釋請迎伽上天誦持，乃曰：「每被阿脩羅見擾，故屈師來，請為誦宣《華嚴經》，以禳彼敵。」遂陞座，朗誦是經。時修羅軍眾聞經乃現威神，一時而化去。又沙彌道蔭常念《金剛經》，寶曆初，因他出夜歸，虎暴中路，忽遇哮吼跳躑于前。蔭知不免，乃閉目而坐，唯默念是經，心期救護，虎遂伏草守之。達曙，村人來往，乃視虎，其蹲處涎流於地焉。蔭後持誦，益加高行矣。

論曰：

入道之要，三慧為門。若取聞持，勿過讀誦者矣。何耶？始惟據本，本立則道生。次則捨詮，詮留則月失，比為指天邊之桂影，而還認馬上之鞭鞘。如此滯拘，去道彌遠。然則機有新發，跡或乍移，須令廣覽多聞。復次，背文高唱，在乎品位，先號法師。故經云：「受持、讀、誦、解說、書寫，如法修行。」是也。

原夫經傳震旦，夾譯漢庭，北則竺蘭始直聲而宣剖，南惟僧會揚曲韻以諷通。蘭乃月氏之生，會則康居之族。兩家左右，二見否臧，無為冰上之狐，免問埃傍之路。通曰：「西竺僧持部類，行事不同：或執親從佛聞，更難釐革；或稱我宗自許，多決派流；或直調而質乎；或歌聲而巧矣。致令傳授各競師資，此是彼非，我真他謬，終年矛盾，未有罷期。故有若美一期之喞[口*匿]，誦三契之伽陀，感車馬而不行，動人天之共聽，此曲折聲之効也。若乃盤特少句，薄拘短章一一止憂忘以鼓脣，胡暇巧而揚舌一一，猶登中聖，或致感徵，此直置聲之驗也。今以一言蔽之，但有感動龍神能生物善者，為讀誦之正音也。」

或曰：「常聞光音天之語言，則是梵音。未委那為梵音邪？請狀貌以示之。」

通曰：「諸陀羅尼，則梵語也。喞[口*匿]之聲，則梵音也。」

或曰：「如天下言音令人樂聞者，與襄陽人為較一一準彼漢音也一一，音附語言，謂之漢音、漢語。則知語與音別。所言喞[口*

匿]者是梵音，如此方歌謳之調歟！且梵音急疾而言，則表詮也；分曉舒徐引曳，則喞[口*匿]也。」

或曰：「此只合是西域僧傳授，何以陳思王與齊太宰撿經示沙門耶？」

通曰：「此二王先已熟天竺曲韻，故聞山響及經偈，乃有傳授之說也。今之歌讚，附麗淫哇之曲，滂濫之音，加釀瓌辭，包藏密呪，敷為梵奏，此實新聲也。如今啟夾，或曰開題，祇知逐句隨行，那辨真經偽造？豈分支品，未鑒別生。『能』顯既知，『所』詮須體，當聞捨筏，適足歸宗。達其『阿』字之門，圖其法身之體，此讀誦之至也。其有難通『帚』字，多遊族家，急令口誦於一經。且為身參於五眾，賴能暗誦，免呼粥飯之僧；如偶澄清，緩裏歸家之幘。」

或曰：「國朝度戒，何責經乎？豈不聞《羯磨》之辭，止云年滿、衣鉢具足，不言念經為增上緣耶？」

通曰：「此滅法無知之徒言耳。上根感戒，果證相隨，何以經紙數考試耶？脫捨下根之誦持，入法止闡葺、白丁矣！南山大師云：

『纔登解髮，便須通覽。』又『後周初，多度僧尼，勅靈藏銓品行業，若講若誦，卷部眾多，隨有文義，莫不周鑑，時共測量，通經了意，最為第一。』此乃精選誦經、通義，為入道之階漸也。不見此文，深為痛惜。

「《梁傳》目此為〈經師〉，宣師不沿而革，號為〈讀誦〉。今采諸師從唐至宋，取其多善，宗歸乎高。則有感神宿廟，度苦因經；法智往生，感金光之照野；明慧行道，占虹氣之貫天；或受請居羅漢之前，或持明救城陽之疾；得御詩之餞送，見勢至之來迎；使者攝而不能，妖狐媚而自變；猗歟元蛟，致李樹之叢生；焯爾楚金，感帝王之入夢；圓光在頂，三昧現前；遇誦《華嚴》，放金光於口角；後遊地獄，乘寶座於西方；三刀斷勢，傷於竹筒；千福經聲，入於帝耳；燈返不食於薏苡，康聲無斷於連珠；或添齡於三十許年，或差蠱於數十莖髮，或經音遍於燕壘，或本足在於鐘離，或樂象龜茲，或口開菡萏，或鬼神避呪，或陸地生蓮，或夢華胥而悉解梵音，或坐佛座而便歸圓寂。如斯上德，若此法師，殖璧隨方，貫華有次。身為金鼓，擊之成懺悔之音；口若玉簫，吹之出神仙之曲。因依相授，徒倚獨宣，可謂皮裹《法華》，足行經藏。俾法音之不斷，善付三乘；皆成佛之無餘，還宣八辯者也。《詩》曰：『伐柯伐柯，其則不遠。』望吾曹無忘取則於此焉。」

宋高僧傳卷第二十五

宋左街天壽寺通慧大師賜紫沙門贊寧等奉 勅撰

興福篇第九之一(正傳十四人附見二人)

周京師法成傳

釋法成，本姓王，名守慎，官至監察御史。屬天后猜貳，信酷吏羅織，乃避法官，乞出家為僧。苦節勤於化導，聲發響隨，行高質直。長安中，於京兆西市疏鑿大坎，號曰「海池」焉——一支分永安渠以注之，以為放生之所。池上佛屋經樓，皆成所造。穿池之際，獲古石，銘云「百年為市，而後為池。」自隋朝置都立市，至于時正一百年矣。儀鳳二年，望氣者云：「此坊有異氣。」勅掘之，得石函，函內貯佛舍利萬餘粒，光色粲爛而堅剛。勅於此處造光宅寺，仍散舍利於京寺及諸州府各四十九粒。武后於此始置七寶臺，遂改寺額，成公居之。行其激勸，多以崇福為己任焉。

唐五臺山昭果寺業方傳

釋業方者，即解脫禪師之法孫也。身長七尺五寸，古貌軒昂，垂手過膝，眉長數寸，目有重瞳，人望凜然。禮誦無倦，紹脫高躅，動合無形，不捨利物，而再修梵宮。時太原府有士女造立文殊像一軀，將送入山，到滹池河側，洪波汎漲。方乃隔岸焚香啟告，河為流減，過文殊畢，水還瀾溢。後終，建塔在寺西北一里，肉身見存，而多神異焉。

唐上都青龍寺光儀傳

釋光儀，姓李氏，本唐宗室也。父瑯琊王與越王起兵欲復本朝，中興帝道，不克，天后族誅之，而無噍類。儀方在襁褓中，乳母負之而逃。後數年，則天竊聞瑯琊有子在民間，購之逾急。乳母將至扶風界中，鬻女工以自給。儀年八歲，狀貌不群，神悟超拔。乳母疑遭貌取而敗，且極憂疑。乃造布襦，置錢於腰腹間，於桑林之下，告之令去。「勅搜不慢，吾慮俱死，無益於事。汝聰穎，必可自立。或一旦富貴，無忘老姥。」言訖對泣。儀慟不自勝，乳母從此而逝矣。儀茫然行至逆旅，與群兒戲。有郡守夫人往夫所住處，方息，俱此見儀群聚，且貌俊爽，因而憐之。召謂之曰：「郎君家何

在，而獨行至此？」儀給之曰：「莊隣於此，有時閑戲耳。」夫人食之，又給之錢，乃解衣而內其錢。日暮尋逕而去，擬投村墅。遇一老僧，呼曰：「爾小子，汝今一身，家已破滅，將奚所適？」儀驚愕佇立，老僧又曰：「出家閑曠，且無憂畏，小子欲之乎？」儀曰：「素所願也。」老僧因携其手至大樹陰，令禮十方佛，歸依常住佛法僧已，因削其髮。又出袈裟以披服之，小大稱其體。其執持收掩，猶如幾夏比丘。老僧喜曰：「此習性使然，善持僧行。」遂指東北曰：「去此數里有伽藍，汝直詣彼，謁寺主云，我使汝為其弟子也。」言畢，老僧欬然亡矣，方知聖僧也。儀如言趨彼，寺主駭其言，因留之。經十年許，儀已洞明經律，善其禪觀。而屬中宗即位，唐室復興，勅求瑯琊王後，儀方向寺僧言之。時眾大駭，因出詣扶風李使君——即儀之諸父也。見之悲喜，乃舍之於家，方以狀聞，固請不可。使君有女，年齒相侔，一見儀而心悅，願致情曲。儀恐懼而避焉。他日會，使君夫人出其女，靚粧麗服，從者越多，來而逼之。儀固拒百端，終不屑就，給之曰：「身不潔，請沐浴待命。」女許諾，方令具湯沐，女出，因閉關。女還排戶，既不得入，自牖窺之，方持削髮刀，顧而言曰：「有于此根，故為慾逼，今若除此，何逼之為？」女懼止之，不可，遂斷其勢，投之于地。儀亦悶絕，戶既不開。俄而使君、夫人俱到，女實情具告，遂破戶視之。漸蘇，命醫工舁歸蠶室，以火燒地，苦酒沃之，坐之于上，以膏傅之。月餘瘡愈，使君奏儀是瑯琊王子。有勅命驛置至京，引見慰問，優齎豐洽，詔襲父爵。儀懇讓，誓願為僧，確乎不拔。中宗勅令領徒，任置蘭若，自恣化方。儀性好終南山，因居法興寺。於諸谷口造庵寮蘭若，凡數十處，率由道聲馳遠，談說動人。或山行十里間，緇素侍者常數千百人，迎候瞻待，甚於權要卿相焉。儀恒居寂定，或言將來事，以決吉凶，必無差忒，人益歸之。開元二十三年六月二十三日，先囑累弟子：「當謹護身口，勿事諠譁。祖師意無別事，靜則真法現前。此外提唱，皆不獲已。」言極激切。因北首而臥，枕肱右脇，著席而亡——此大涅槃之表兆也。遺言令葬於少陵原南，乃鑿原成室而封之。柩之發也，異香芬馥，狀貌如生。祖車出城，白鶴數百鳴唳空中，綵雲依約，覆車數十里。道俗號咷，多持孝服。所葬之地，遂建天寶寺，弟子皆留而守之。

唐鎮州大悲寺自覺傳

釋自覺，博陵望都人也。稚齒厭于俗態，俄白親老言：「兒樂從佛求度世去。」二親驚愕，咄咤俾去。然無慚忤，再拜請命，乃強禮

本部開元寺知欽。欽觀其志氣弗群，立字曰自覺。訓之曰：「汝聞名思義。」答曰：「佛種從緣起，唯聽明誨矣。」既而誦經及格蒙度。至德二年年滿，鎮州受具足法。即往靈壽縣禪法寺習律經論，勤瘁九年，皆造微也。便言「當入太行山，於一磐石上結茅庵三畝，小溪為蘭若，不亦快乎！」大曆元年九月晦，往平山縣界，得重林山院，果應所求，遁跡自娛。至二年五月，天其旱暵，覺則跣足經行，冬則右肩偏袒。其林薄山谷，虎狼狃跡重複。唯拾果采蔬，卯時一食。時恒陽節度使張君患炎旱，聞覺精苦，躬入山請其祈雨。張語之曰：「某無政術，致累百姓三年亢陽，借苦引咎自責，良無補矣。或云龍王多依師聽法，忘其施雨。願師垂救旱之誓，有如白水。如念蒼生，請輟禪定，略入軍府。」覺乃虔恪啟告龍神，未移晷刻，天輒大雨，二辰告足。張帥歸向勤重，若孝子之事父母焉。覺始入法已來，學諸佛因中誓願，其數亦四十九也。其一願：身長隨大悲菩薩，次願：造鑄大悲像寺。及乎發言響應，檀施臻萃，用赤金鼓鑄成，舉高四十九尺，梵相端嚴，眼臂全具。迨更年稔，寺亦隨成，今城西山大寺是歟。遂於壇前誦念，至三更，見神光二道作，中金色，於晃朗中見彌陀佛，觀音、勢至左右翼從，佛垂金臂呼自覺聲，漸下雲來，摩其頂曰：「守願勿悛，無宜懈廢，利物為先。汝去吾隨，任從汝意。」言畢雲收，杳無朕迹。覺以願心酬畢，返山林之間，擇送終之處。貞元十一年二月望夜，有神人現半身，若毘沙門狀，謂曰：「師今歲滅度矣。」舉手謝神人曰：「往來定分，吾聞命矣。」其年六月十四日，奄歸寂滅。門人欲奉神龕歸山寺，州府人苦留，終於大悲寺南遷塔焉。則十三年四月八日也。其大悲為恒陽奇事，感應潛通，至周顯德初，勅鑄九府圓法，天下銅像，一例除毀。時州人相率出錢贖此像，不允，登即爐橐鎔冶。真定之人莫不悲悼。時炭熾飛煙，無之，從頂至胸，旋收銅汁，斯須計料，匠氏暴卒，自此罷工。迨宋太祖神德皇帝追鑄令全，代懺前事焉。

唐今東京相國寺慧雲傳

釋慧雲，姓姚氏，湖湘人也。性識精明，氣貌疎朗。高宗麟德元年一一正十歲矣一一，邈然有出塵之志，二親多厭沮之。其心匪席，不可卷也，父哀其所願，從往南嶽初祖禪師稟承慈訓，而能黠慧，好味經教，沈默如也。至于弱冠，於嶽寺受具足法。自專護戒，且善毘尼，尋罷講科，專營福事。發言響答，化俗風從。立事絕私，士庶欽揖。乃出重湖而遊荆郢，江南振錫，浙內携囊，務在勸人令捨慳病。隨處蓋造，葺修寺宇二十餘所，皆功成不宰。天后久視元

年，江北行化，因緣未會。長安元年，來觀梁苑，夜宿繁臺，企望隨河北岸，有異氣屬天。質明入城尋覩，乃歙州司馬宅西北園中池沼。雲徒步臨岸，見瀾漪中有天宮影，參差樓閣，合沓珠璣，門牖綵繪，而九重儀像逶迤而千狀——直謂兜率之宮院矣。雲覩茲異事，喜貫心膺：「吾聞《智嚴經》說：『瑠璃地上現宮殿之影』，此不思議之境界也。今決擬建梵宮，答其徵瑞。」乃挂錫于安業寺。神龍二年丙午，往濮州屬縣報成寺，發願為國摹寫彌勒像，舉高一丈八尺，募人出赤金。于時施者委輸，逡巡若丘阜矣。遂振橐籥，程巧工，一鑄克成，相好奇特。殆景龍四年庚戌六月，屬溫王讓位奉睿宗——叔父也。景雲元年，雲於寺東廊南隅造別殿安聖容。始云治材，方議版築，檀越眾議紛紜，未成建樹。至二年辛亥，於福慧寺經坊北貿新安典午鄭景宅。方事興工，掘得古碑，則北齊天保六年乙亥歲置建國寺，乃高歡嗣子文宣帝也。覩之者皆驚嘆，同舍利弗悲螳垤焉。採訪使君稱異再三，遂沿此記，改福慧為建國寺，迎取安業聖容及殿材至寺。太極元年五月十三日改元延和，是歲刑部尚書王志愔為採訪使，至浚郊宣勅：「應凡寺院無名額者，並令毀撤，所有銅鐵佛像收入近寺。」雲移所鑄像，及造殿宇門廊，猶虧綵績。遇新勅，乃輟工。雲於彌勒像前，泣淚焚香，重禮重告曰：「若與此有緣，當現奇瑞，策悟群心。」少頃，像首上放金色光，照耀天地，滿城士庶皆嘆希有。是時生謗毀者隨喪兩目，又有舌腫一尺許者。遠近傳聞，爭來瞻禮，捨施如山，乃全勝概。像坐垂趺，人觀稽顙。涉惡報者，雲望像為其悔過，斯須失明者重視，舌卷者能言，皆願為寺之奴，持鐘掃地也。採訪使王志愔、賀蘭務同錄祥瑞奏聞。睿宗潛符夢想，有勅改「建國」之榜為「相國」——蓋取諸帝由相王龍飛故也。仍勅佛授記寺大德明幹同共檢校功德，勿令州府煩擾。中書舍人賈曾、侍郎崔沼、給事中盧逸、中書侍郎平章事岑羲皆捐俸祿，共構因緣——或啟發心之元，或施外護之力。先天中行傳神于潞邸，玄宗即位，至八月十五日，上皇御書寺額，奉詔令大德真諦并弟子二人、品官一人，齎勅賜幡華及寺額至，迎受懸挂。雲道化梁園，身榮福樹，百齡有限，四相交遷，終于寺之別院。葬今京之東郊，寺莊塔亭存焉！時號造寺祖師。雲去世後，天寶四載造大閣，號排雲。肅宗至德年中造東塔，號普滿者，至代宗大曆十年畢工。或云造塔僧能分身行化，難測品階。文殊、維摩，是王府友吳道子裝塑。又開元十四年，玄宗東封迴，勅車政道往于闐國摹寫天王樣，就寺壁畫焉。僧智儼募眾畫西庫北壁《三乘入道位次》，皆稱奇絕。今之殿宇皆大順年火災之後蓋造，宋太祖重修。翰林待詔高益筆跡壁畫，時推筆墨之妙矣。

唐杭州華嚴寺玄覽傳(慧昶守如)

釋玄覽，姓褚氏，其先河南人也。食菜于錢塘，因是家焉。覽誕膺明德，生而懸解，深達實相，以崇善本。自初念至于捨家，師承慧昶。昶師德無不滿，眾用皆足，年高行尊，久為師範。及見覽無一息之間違仁，告門人曰：「無上之道，清淨為本。有能一念用其心，吾未見學不足者。江表無真僧久矣，或以此子為法鼓耶？俾遐邇聞之。」其預為達匠之所甄異也如此。其本邑有故華嚴寺，覽以包桑之地，近於玄禮師之先塋，屬隋室不競，法宇弛頹，名將壑遷，跡亦時廢。屬于唐初，募信人重建。文明歲，有勅許還舊額，廣輪制度，兼移基址。背山臨水，往返形勝。覽初以具戒依天竺，次以僧錄住一閑居，後以耆德統華嚴。三寺次第同致于道，道無不在，因教有遷也。覽嘗以憫物慈濟為己任，遂議寺前平湖之通川為放生池。時太守袁從禮因茲勸勉，深入慈門，以禁六里。司馬楊敏言感夢，又廣至十里。是以撻鬣掉尾，噉喙浮沈，不虞其害，得遂生性焉。覽又以經像為最，則殿前畫四像，慈氏為首，鑄金銅像三百五十座，彌陀為首；寫經二千餘軸，金字《涅槃經》為首。如是功德，以順現報——故王考宗追贈和州刺史；右散騎常侍封舒國公無量，則覽之元昆也。量修學之日，臨平湖龍見，無不往觀，舒公晏然不離書案，氣度如此。明皇初年，舒公侍講，帝嘉尚之。歸覲太夫人，年已期頤，昆季皆以華皓，晨昏之地，說法而已。覽以開元二十二年示疾，終于臨平所造寺，春秋八十四。僧明了、大覺、普賢、神滿、懷遜，皆參預法流，奉法器藏于細礪洞之下基。工部侍郎徐安貞撰碑頌德焉。又閩中愛同寺釋守如，多事勸誘，越上之民歸若塵聚焉。崇樹精廬，以為濟眾，急在利他。開元十年於寺營浴室，患地勢陡高，清泉在下，桔槔無用，汲引步遙，終以為勞。思慮不迨，無由改作。忽一宵下流頓涸，距造浴室所二十餘步，清泉迸出，時謂神功冥作，移此泉耳。七閩之民罔不歸信，終于溫室之偏房矣。

唐東陽清泰寺玄朗傳

釋玄朗，字慧明，姓傅氏。其先浦陽郡，江夏太守拯公之後。曹魏世，避地于江左，則梁大士翁之六代孫，遂為烏傷人也。母葛氏初妊，夢乘羊車飛空躡虛而覺身重。自茲已後，輦血惡聞。殆乎產蓐，亦如初寐。覺後心輕體安，嬰兒不啼，吮爾而笑。九歲出家，師授其經，日過七紙。如意元年閏五月十九日，勅度配清泰寺。弱冠，遠尋光州岸律師，受滿足戒。旋學律範。又博覽經論，搜求異

同，尤切《涅槃》。常恨古人雖有章疏，判斷未為平允。往在會稽妙喜寺與印宗禪師商確祕要，雖互相述許，大旨未周。聞天台一宗可以清眾滯，可以趣一理，因詣東陽天宮寺慧威法師。威稟承括州智威——時傳威是徐陵後身，灌頂師之高足也。朗親附之，不患貧苦。達《法華》、《淨名》、《大論》、《止觀》、《禪門》等，凡一宗之教迹，研覈至精。後依恭禪師重修觀法，博達儒書，兼閑道宗，無不該覽。雖通諸見，獨以「止觀」以為入道之程，作安心之域。雖眾聖繼想，而以觀音悲智為事行良津，遊心十乘，諦冥三觀，四悉利物，六即體徧。雖致心物表，身厭人寰，情捐舊廬，志栖林壑。唯十八種，十二頭陀，隱左溪巖，因以為號。獨坐一室，三十餘秋，麻紵為衣，糲蔬充食。有願生兜率宮，必資福事，乃構殿壁，續觀音、賓頭盧像。乃焚香斂念，便感五色神光，道俗俱瞻，歎未曾有。此後或猿獼來而捧鉢，或飛鳥息以聽經。時有盲狗來至山門，長嗥宛轉于地，朗憫之，焚香精誠，為狗懺悔，不踰旬日，雙目豁明。至開元十六年，刺史王上客屈朗出山，暫居城下。朗辭疾，仍歸本居。厥後誨人匪倦，講不待眾。一鬱多羅四十餘年，一尼師壇終身不易。食無重味，居必偏廈。非因尋經典，不然一燭；非因覲聖容，不行一步。其細行修心，蓋徇律法之制，遂得遠域沙門、隣境耆耄擁室填門，若冬陽夏陰，弗召而自至也。其寺宇凋弊，乃指授僧靈稟建其殿宇形像，累二甃塔。續事不用牛膠，悉調香汁。天台之教鼎盛，何莫由斯也？一日，顧謂門人曰：「吾眾事云畢，年且暮焉！」以天寶十三年九月十九日薄疾而終，春秋八十有二，僧夏六十一。置塔於巖所，生常撰《法華經科文》二卷。付法弟子衢州龍丘寺道賓、淨安寺慧從、越州法華寺法源、神邕、常州福業寺守真、蘇州報恩寺道遵、明州大寶寺道原、婺州開元寺清辯。「齠年慕道，志意求師；不踰三年，思過半矣！行其道者，號左溪焉！第其傳法，號五祖矣！」禹山沙門神迥著乎真讚矣！

系曰：觀其唐世已上，求戒者得自選名德為師。近代官度，以引次排之，立司存主之，不由己也。朗之求戒，不其是乎？如是師資相練，恩義所生；脫臨事請為，則喻同野馬也。

唐湖州佛川寺慧明傳

釋慧明，俗姓陳氏，漢太丘長寔之後，世居潁川。永嘉南渡，祖為司徒掾，曾祖仲文有佐命于陳，封丹陽公。祖為雙溪、穀熟二縣令。考為蘭陵長，乃為蘭陵人也。明母氏初感之日，如持佛戒，足惡履于葷園，口不嘗于鱻器。神夢髻髯，如聞法音。既而誕焉，年

漸及卯，方祈捨俗，父母偕聽。至受具時，即開元七年也。習學律藏，嘗謂人曰：「昔者繁刑首作，伯成子遁焉。吾雖不捨律儀，而惡乎諍論紛紛。若心印心之法至矣哉！」乃西詣方巖，頓開心地。天寶中有願於清涼山，淮汴阻兵，明即旋策。與禪客遇，同遊宛陵，於上石門置蘭若三所，有大[戲-儿+巾]來擾，如撫彪焉。時荐饑，群盜欲至，必號呼先告，往往有徵焉。先是此鄉好弋獵，明化之，皆焚置網器仗矣。至天寶五年，爰止乎魚陂道場。有瑀公者——白土史宗之流，迹邇行微，世莫之識——，始相見曰：「南祖傳教菩薩，來何晚耶？」他日同登魚陂峯頂，見東南有山，蒼琅獨秀，謂瑀公曰：「吾與此山宿有緣矣。」天寶八年，有制度人。州將韋南金舉高行，黑白狀請，隸名州中寧化道場。明固辭，改隸佛川——即疇昔魚陂所望之峯，梁吳均故宅之所，地《志》云：「青山南掘得古佛二軀，莫知年代。獲像之地，靈泉涌起，因名『佛川』焉。」泉側有吳王古祠，風俗淫祀，濫以犧牲。於是明夜泊廟間，雷雨荐至，林摧瓦飛。頃之，雨收月在，見一丈夫容衛甚盛。明曰：「居士，生為賢人，死為明神，奈何使蒼生每被血食，豈知此事殃爾業耶？」神曰：「非弟子本意，人自為之。」禮懺再三，因與受菩薩戒。神欣然曰：「師欲移寺，弟子願捨此處，永奉禪宮。」後果移寺於祠側，獲銅盤之底篆文，有「慧明」二字焉。建中元年正月示疾，其日庭水春染，山雨晝冥，猛虎繞垣悲嘯而去。十二日，奄然長往，春秋八十四，僧臘五十一。二月十二日建塔于寺西山焉。傳法弟子慧解、慧敏、如知三人也——若鶯子、採菽之倫也。菩薩戒弟子，刺史盧幼平、顏真卿、獨孤問俗、杜位、裴清，深於禪味。俾畫公為塔銘焉。

唐湖州大雲寺子瑀傳

釋子瑀字真瑛，姓沈氏，吳興德清人也。其先亡國於沈，因以為氏，春秋沈子之後也。瑀生而聰慧，不以師授。年未總角，辭親出家，以如意年中大赦度人，壞衣削髮，煤灸世事，於洛京大福先寺受戒。勤勤祈請，不遑假寐。三日之夕，見有神人儼然在目，倏往忽來，或同或異，得非至誠乎？於是燭如來燈，佩菩薩印。證聖中歸于大雲道場，堅執律柄，僧綱釐舉，不亦宜哉！瑀素履純厯，無咎無譽。使天下之士有外道焉！有闡提焉——心如飄風，言若泉涌，撓我聖教，擠我妙門——，瑀示以從容，誘以方便，莫不稽首挫色而聞命焉！常禮一萬五千佛名兼慈悲懺，日夜一匝，或二日、三日一匝。夜有聖僧九人降於禮懺之所，相與行道，彈指而去。或夜無燈燭，心口是念，圓光照室，如坐月中。如此則往往有之。瑀

慨德清偏邑，未有塔寺，遂銳懷營構。一唱齊和，乃成精宇。前後寫經三藏，凡一萬六千卷。天寶初，臨安足法師死，經三宿，將入地獄，冥中見瑀引至王所，謂王曰：「此人能講《涅槃經》，王宜宥之。」王曰：「唯聞巖崙師能講，不聞此師名，何也？」如是再三，王不能屈，因赦之。曾是，鄉人施[牛弓(巨-匚)匚口]牛者——天然不孕——，因而出乳，其通感如是。以十一年秋禪坐而終。十二年春，將啟靈龕，欲焚之，容色不變，如生，雖少林孕髭，蘄春育髮，何獨嘉也？大理評事攝監察御史姚淡、主客郎中姚沛、刺史楊慧才偕歸信焉。

唐明州慈溪香山寺惟實傳

釋惟實，姓湯氏，富陽人。其為人也，杜多其行，禪觀其心，淡然靜居，長坐不寐。初母氏抑其願心，不容披削。既而籠開鳥逝，岸穴泉飛，學善財之遍參，同迦葉之練行。天寶中往明州若嶼山，夜聞冥告曰：「達蓬聖跡名山，宜矣！」翌日且登其山，巖洞窈窕，石壁削成，秀異之多，實維靈境。有大佛足跡，詢其山叟，則曰「彼開元年中始現斯瑞」。遂願棲此，有終焉之志。時屬海寇袁晁蜂螳屯聚，分以剽劫，殺戮無辜。至于香山，眾皆奔竄。實據榻瞑目，先以大石掩洞門。賊可三二百數，復舁巨石闊二丈餘，鎮其穴口。實起喑鳴，以掌舉之，群盜羅拜以謝之而去。邑民重之，遂立精舍，弗再歲而成。大曆八年也，太守裴倣奏請署香山題額焉，詔度僧七人隸名矣。以貞元二年冬示疾，終于寺，則跏趺而化也。春秋六十二，法臘三十一矣。

唐朔方靈武龍興寺增忍傳

釋增忍，俗姓史氏，沛國陳留人也。典謁之年，登其鄉校。百氏簡策，寓目入神。藝文且工，乃隨計吏，數舉不捷。會昌初，薄遊塞垣，訪古賀蘭山中，得淨地者白草谷內。發菩提心，頓挂儒冠，直歸釋氏。乃薙草結茅為舍，倍切精進。羌胡之族，競臻供獻酥酪。至五載，節使李彥佐嘉其名節，於龍興寺建別院，號白草焉——蓋取其始修道之本地也。忍刺血寫諸經。大中七年，李公慮其枯悴，躬往敦諭曰：「師何獨善一身，行小乘行？胡不延惜生性，任持教法？所利博哉！」忍執情膠固，遂著〈三教毀傷論〉以見志。帥覽而益加崇重。九年，因讀《大悲經》，究尋四十二臂至「無畏手」，疑而結壇，浹旬禱請，自空中現其正印，雙拳歷歷可觀。遂命畫工繪寫此臂焉。或有譏謗者，忍再精懇虔告，畫工濯筆銅椀

中，忽感寶性華一朵，枝趺[髟/目]葉，一皆鮮明，覩者驚歎。至咸通十二年七月十日示滅于白草院，春秋五十九。以十月十七日藏神于水館之南，建塔焉。初，忍刺血寫經，總二百八十三卷。畫盧舍那，閣三十五尺，門一丈六尺。起樣畫《大悲功德》三軸，自著《大悲論》六卷，並藏諸篋笥焉。後節使唐恒夫仰其遺跡，奏乞旌勸，勅諡大師曰廣慧，塔曰念定。弟子無轍，亦致遠之高足，齎血書經二卷、瑞華椀一枚，詣闕奏呈，宣賜紫衣。天復中終。及梁乾化初，中書令西平王韓公遜錄遺跡奏聞，太祖勅致諡曰法空，別賜紫方袍，塞垣榮之。後唐同光中，從事薛昭紀為碑焉。

唐京兆荷恩寺文瓚傳

釋文瓚，姓張氏，晉陽人也。天姿整恪，幼事師於并州崇福寺。學該群籍，控帶三乘。至若金版銀繩之籙，龍韜象祕之文，罔不稷耘情田，波濤口海，宣暢皇化，對揚天休，一皆悅服。詔為翻譯，并河南佛授記寺兼京兆安國、荷恩、崇福等寺大德。好修福事，設無遮一百會，凡聖混淆，一皆等施。縱風雲連起，及至齋日，必晴明晏然，感動人祇，福無唐設。春秋六十餘，卒於本院。境內苦霧如泣，數日不解焉。

唐太原府崇福寺懷玉傳

釋懷玉，姓許，并州人也。少而警利，日覽千言，早露鋒芒，迥拔儕類。及其長也，戒節踰峻，梵場龜鑑。志在修葺，無間彼此一一夏墟寺宇，經有闕而必補，像有凋而遍修。三任紀綱，特有崇建。仍校讎大藏經二十餘本，祁寒盛暑，不廢晨暮。增飾淨土院，興事任力，轉加殊麗。代宗嘉之，委為灌頂道場主。真言祕訣有所在矣！春秋六十三，卒於本院云。

唐晉州大梵寺代病師傳

釋代病者，台州天台人也，姓陳氏。以其嘗發大願，盡一報代眾生之病，致本名不顯矣。誕育之辰，祥光充室，隣里異焉。七歲喪父，哀毀幾于滅性。白母求出家，母纔艱阻，遂斷一指，親黨敦勸，偏親乃送於國清寺。因戒法登滿，誓志觀方。初止今東京，次於河陽，為民救旱，按經續八龍王，立道場。啟祝畢，投諸河。舉眾咸覩畫像沈躍不定，斯須雲起膚寸，雷雨大作，千里告足。自此歸心者眾。先是三城間多暴風雹，動傷苗稼雉堞，號為毒龍為之

也。代病為誦密語，後經歲序，都亡是患。盟津民立堂宇若生祠焉。大曆元年，登太行，遊霍山，乃深入幽邃，結茅而居。有盜其盂食，俄見二虎據路，會逢代病，盜叩頭陳悔。慰諭畢，因摩挲虎頭，如是累伏猛獸。其盜本樵子，願依附為苦行焉。其中山神廟——晉、絳之間傳其盼蠻——，代病入廟，勸其受歸戒，絕烹燂牲牢。其神石像屢屢隨勸頷首，顧其神婦，略無俞答之狀。遂剃神之髮，毀撤神婦。鄉人怪之，聞白州邑。太守怒之曰：「此唐高祖初起至此，久困陰雨，其神見形示路，以迎義師。厥後礮石為像，薦饗無虧。此之髡師無狀敢爾。」俾繫閉於嘉泉寺，扃鍵且嚴。至二十日啟關，寂然禪定，傾城咸往觀禮，或聲磬，舒徐而起。太守急召之不來，以至約令斷頭。代病斬一指以付使者。太守感之，躬就迎請，移置大梵寺，別營甃浮圖以藏其指節矣！由是檀信駢肩躡踵。有竇毒於酒者，賄貧女往施之。代病已知。貧女給之曰：「妾家醞覺美，酌施和尚求福。況以佛不逆眾生願。」代病曰：「汝亦是佛。」然貧女懼反飲，具以情告。代病執杯啜之，俄爾酒氣及兩脛足，地為之坼裂，聞者驚怪。以酒供養，自茲始也。汾隰、西河人有疾，止給與淨水，飲之必瘳。凡屬荐饑，必募糧設食。後於趙州救斯荒歉，作施食道場，前後八會，遐邇賴之，道感多類。以貞元十九年秋七月八日，奄然跏趺示滅。四眾初謂如嘉泉寺之禪定歟，香華供養。至于隔歲，膚肉漸堅，方知永逝，遂漆布績畫之。武宗廢塔像，無巨細皆毀除，或議之移入陶竈中。既而生瑞草一本，其狀亭亭若蓋，盤錯縈紆，庇其風雨而有餘也。宣宗即位，佛事中興，綱糾比丘造小亭，移真形竇於此。先於嘉泉寺斷指節，已過百齡，筋肉甲爪光潤且如金色。或屬兵革，城陷指亡。後有齎出逃難，事息歸還。亦陰福其逋亡者，至今平陽人崇信焉。

宋高僧傳卷第二十六

宋左街天壽寺通慧大師賜紫沙門贊寧等奉 勅撰

興福篇第九之二(正傳二十一人附見三人)

唐京師光宅寺僧竭傳

釋僧竭者，不知何許人也，生在佛家，化行神甸。護珠言戒，止水澄心。每嗟斬固之夫，不自檀那之度，乃於建中中造曼殊堂，擬摹五臺之聖相。議築臺至于水際，竭懼傷生命，俾立三日道場，呪其多足至無足，當移竄相避，勿成某梵行之難。將知至誠所感，徵驗弗虛，掘土及泉，了無蠢動焉。常以複素為漉袋，遇汲有蟲，投諸井坎，時號「護生井」，恒盈不涸。又觀其飛蛾、蠅蠖，錯認火明為可飛之路，故犯之，乃鑄銅蟾為息煙調。天下傳其制度。其曼殊院嘗轉經，每勅賜香。此寺本七寶臺寺，內有天后所造之臺，竭居于中焉。

唐成都福感寺定光傳

釋定光者，不知何許人也。爰從入法，厥性弗拘，糲食斷中，鹿禰卒歲。方於庸蜀化導有緣，事或多魔，教鍾中否。俄遭武宗毀廢，例反儒宗。及乎佛日重暉，僧倫咸序，光同締構寺宇，因鑄大鐘，計赤金萬餘斤。爾日鼓籥灰飛，投鑪火熾，有祥煙兩道自浮圖相輪最高處出，冉冉射上，若虹蜺焉。萬人引望，五色騰凌，相感如然，信鼓斯應。其塔是阿育王藏舍利之所。大和初南蠻蒙傜顛剽掠入益城，分蠻卒舍于寺內廊廡，皆烹炙熏灼，僧皆奔迸。時塔頂出四道濃煙，分穗直上空虛，至夜。蠻蜚覩此奇異，乃禁止污穢。此塔先在西北四十餘步，天寶末長史章仇兼瓊赴任，至劍門，見一人長一丈餘，持戟當路。兼瓊驚問，對曰：「某是大石寺護塔神，故來奉迎，且有少事咨祈大夫也。緣大石寺塔在西南，未為極善，今請移東北四十二步。伏望便掘石此下，以鎮舍利。」兼瓊曰：「此易耳。」遂隱厥形，到府數日，乃令量其地處，先掘，果得巨石，其深無際。促石匠數十人鑿鑿之，至夜，輒填滿。遣人潛伺之，見有白彘數十以喙推石末塞之，隨以舌舐，其堅如鐵鋼矣。章仇止令勿鑿，遂移塔於今所，即金華舊寺基也。光鐘亦移入新寺焉。

唐吳郡嘉禾貞幹傳

釋貞幹，俗姓武氏，雲中人也。神宇高邈，以禪默為務。曳錫躡步，南訪靈跡，及至故鄆，有崑山寺者，林泉秀茂，則宋支曇諦嘗考室于此，味道崇化二十餘載，基跡存焉！至元嘉中創成大伽藍。屬武宗廢教，其寺屏除。幹至止於茲，與范陽盧君襲同興弘覺法師第二生名跡。寺成，進士姚扶有詩。幹後遊今秀州長水，見靈光寺，邑民欲樹巨殿。時盧令移邑字民，欣然相遇，幹悉先知。或云得他心、宿命之明焉！遂請幹首唱。而惡偃室之囂，寓殿基後，編苫為淺室而居。四方檀信，弗召自臻。又與僧令恭、君道等累歲方成今殿。其最高廣，海內罕比。事畢，[挈-刀+力]弊囊，振舊錫歸北，莫知其終。

唐蘇州支硎山道遵傳

釋道遵，字宗達，姓張氏，吳興人也。夙負殊操，潔士稱之，榮曜不足關於心，聲塵未嘗觸其性。至年二十，詣天竺義威律師受具戒，事報恩寺興大師——首宗毘尼傳教也。後學天台一心三觀法門，欲廣寫《法華經》，置道場，闢經院。一之日發其心，二之日規其趾，作不逾序，厥功成焉，居支硎之福地。大曆元年，州將韋元甫、兵部尚書劉晏、侍御史王圓、開州刺史陸向、殿中侍御史陸迅、大理評事張象，競誘真心，共獲殊勝。乃相與飛表奏聞，詔書特署為法華道場。自江以東總一十七所，皆因遵之首置也。舉精行大德二七人，常持此經，以報主恩。鑄盧舍那及毘盧遮那像，起多寶塔，修淨土當生業，造彌陀佛。復寫「天台教益乎道場」。置常住莊二區。平時講《法華玄義》、《天台止觀》、《四分鈔文》，臨壇度人，授心揚律，徒盈石室之籌。天寶中，於靈巖道場，行法華三昧，忽覩大明上燭于天——我身正念，儼在光中。異日問荊溪，然師曰：「智慧光明從心流出，非精志之所致耶？」又於本寺入法華道場，覩此身在空中坐。先證者知是滌垢之相。其年春秋七十一，僧夏四十六，以興元元年七月二十九日告終于支硎山寺。僧益公、翰公一夜同夢大殿崩，果遵入滅。門人靈翰、法盛、道欣、猶子靈源追慕不已，樹塔旌德焉。

唐京兆大興善寺含光傳

釋含光，不知何許人也。幼覺囂塵，馳求簡靜。開元中見不空三藏頗高時望，乃依附焉。及不空却迴西域光亦影隨，匪憚艱危，思尋聖迹。去時泛舶海中，遇巨魚望舟，有吞噬之意。兩遭黑風、天吳異物之怪。既從恬靜，俄抵師子國。屬尊賢阿闍梨建大悲胎藏壇，

許光并慧辯同受五部灌頂法。天寶六載迴京，不空譯經，乃當參議華梵，屬師卒。後代宗重光如見不空，勅委往五臺山修功德。時天台宗學湛然解了禪觀，深得智者膏腴，嘗與江淮僧四十餘人入清涼境界。湛然與光相見，問西域傳法之事。光云：「有一國僧體解空宗，問及智者教法。梵僧云『曾聞此教定邪正，曉偏圓，明止觀，功推第一。』再三囑光或因緣重至，為翻唐為梵附來，某願受持。屢屢握手叮囑。詳其南印土多行龍樹宗見，故有此願流布也。」光不知其終。

系曰：未聞中華演述佛教，倒傳西域，有諸乎？通曰：「昔梁武世，吐谷渾夸呂可汗使來求佛像及經論十四條，帝與所撰《涅槃》、《般若》、《金光明》等經疏一百三卷付之。原其使者必通華言，既達音字，到後以彼土言譯華成胡，方令通會。彼亦有僧，必展轉傳譯，從青海西達葱嶺北諸國，不久均行五竺，更無疑矣。故車師有《毛詩》、《論語》、《孝經》，置學官弟子，以相教授。雖習讀之，皆為胡語是也。又唐西域求《易》、《道經》，詔僧道譯唐為梵。二教爭『菩提』為『道』，紛拏不已，中輟。設能翻傳到彼，見此方玄蹟之典籍，豈不美歟！又夫西域者，佛法之根[榦-木+禾]也；東夏者，傳來之枝葉也。世所知者，知枝葉不知根[榦-木+禾]。而不知枝葉殖土，亦根生[榦-木+禾]長矣，尼拘律陀樹是也。蓋東人之敏利，何以知耶？秦人好略，驗其言少而解多也。西域之人淳朴，何以知乎？天竺好繁，證其言重而後悟也。由是觀之，西域之人利在乎念性，東人利在乎解性也。如無相空教，出乎龍樹，智者演之，令西域之仰慕。如中道教生乎彌勒，慈恩解之，疑西域之罕及。將知以前二宗，殖於智者、慈恩之土中，枝葉也。入土別生根[榦-木+禾]，明矣！善栽接者，見而不識，聞而可愛也。又如合浦之珠，北土之人得之，結步搖而飾冠珮。南海之人見而不識，聞而可愛也。蠶婦之絲，巧匠之家得之，繡衣裳而成黼黻。繆抽之嫗，見而不識，聞而可愛也。懿乎智者、慈恩，西域之師，焉得不宗仰乎！」

唐剡沃洲山禪院寂然傳

釋寂然，姓白氏，不知何許人也。名節素奇，踵四聖種，故號頭陀焉。大和二年，振錫觀方，訪天台勝境到剡。沃洲山者，在天姥岑之陰，對天台華頂、赤城；北望四明，金庭、石鼓山介焉；西北有支遁嶺，養馬坡、放鶴岑次焉。晉、宋已來，茲山洞開。初有羅漢白道猷——言西域來——戾止是山。次竺法

潛、支道林居焉。高人勝士，接踵而棲此中。至於戴逵、王羲之、郗超、孫綽、許詢遊憩其間矣！

見是中景異，聞名士多居，如歸故鄉，戀而不能捨去。既行道化，盛集禪徒。浙東廉使元相國稹聞之，始為卜築。次陸中丞臨越知之，助其完葺。三年鬱成大院，五年而佛事興。然每為往來禪侶談說心要，後終于山院。大和七年，時白樂天在河南保釐為記，劉賓客禹錫書之。

唐天台山福田寺普岸傳(全亮唯約)

釋普岸，姓蔡氏，漢東人也。沖弱之齡，迥然聰敏，骨目奇秀，天生不嗜葷羶，長有出塵之意。其父嚴毅，訓授經籍，漸通其義，秉翰伸辭，宛然華藻。因入僧舍，暫執經卷，乃歎曰：「佛法玄微，非造次可及！」決志辭親。時懷海禪師居百丈山，毳納之人駢肩累足，時號「大叢林」焉。岸叩其關，海攝受之。日隨普請施役，夜獨執燭誦經，曾不憚勞，遂諧剃染。及陞戒品，便習禪那，壁坐忘疲，觀心恒務。瞻蔔附風而香遠，[戲-儿+巾]貓逢獸而吼高，學者成圍，請於安陸壽山院坐道場矣。如是環拱可四百餘眾，執器聽瞿沙之說，投籌待徇多之度。大利群機，得道者眾。大和年中，謂眾曰：「吾山水之遊未厭，諸人勿相留滯。天台赤城，道猷曾止息焉；華頂石梁，智者昔降魔矣！將遊之也。」自襄陽邈迤而來，從沃洲、天姥入天台之西門得平川，谷中峯名大舍，號「平田」是也。觀其山四舍鬱翠，東西山石門而有三井龍潭。東入石橋聖寺，乃是綠身道猷尊者結茅居此。未幾，見虬虎乳子，瞪目而視岸。岸以杖按其頭曰：「貧道聞此山是神仙窟宅，羅漢隱居，今欲寄此安禪，檀越勿相驚撓。」經宿，領子而去。以大和七年癸丑十月二十七日營構丈室，携一童侍，給薪水耳。八年春，禪侶輻湊，眾力義成此院，號平田焉。開成中，宛是大道場。會昌三年七月，告眾入滅，春秋七十四。度弟子全亮，俗姓陳氏，悟師之道，得鳳之毛，一人！唯約，在上元入滅，肉身不朽。岸遷塔于是山前，此寺置五百羅漢殿，永嘉全億長史畫半千形像，每一迎請，必於石橋宿夜焚香，具幢蓋、螺鈸，引導入于殿，香風送至。幡幢之勢前靡，而入門即止。其石梁聖寺在石橋之裏。梵唄方作，香靄始飄。先有金色鳥飛翔，後林樹石畔見梵僧，或行或坐，或招手之狀，或臥空之形，瞬息之間，千變萬化。漢南國王錢氏頻年施供養，祥瑞極繁。今上太平興國三年，於滋福殿宣問兩浙都僧正贊寧石橋長廣量度，一皆實奏，帝歎嗟久之。至八年因福田寺道者自詢誓斷腕然鍊，乞

重造此寺，乃宣內殿頭高品衛紹欽、張承貴革故規制，若化出天宮焉。今岸師影堂在寺之右。

唐京師奉慈寺惟則傳

釋惟則者，拔俗志高，栖神物表，凡施善務，舉則波隨。常言：「像，是生善之強緣，不得不多立。初之觀也，如對嚴君。次則其心不亂，中則觀門自成。末則如如焉，蕩蕩焉，三昧安得不現前乎？是以我曹勸化迷俗，不得不以此是為先容歟？」由是若雕若塑，形像森然。恒事進修，天邑之間，偏加激勵。屬憲宗太皇太后郭氏元和中為母齊國大長公主追福，造奉慈精舍，搜擇名德，則乃預選人居。未久之間，聞四明鄞山有阿育王塔，東晉劉薩訶求現，往專禮焉。乃匠意將七寶為末，用膠範成摹寫脫，酷似。自甬東躬自負歸奉慈寺供養，京邑人皆傾瞻歸信焉。

唐長安禪定寺明準傳

釋明準者，不詳氏族，生緣本天台靈墟道場，出俗遊方。至京邑，觀古之神僧智苑於范陽北山刊石寫經、灌鐵，以俟慈氏下生，免水火之虞。又東洛長壽寺寫《華嚴》，聖善寺寫《法華》，嵩山嶽寺寫《楞伽》，悉刊貞珉，皆圖不朽。準遂於貞元戊寅歲春正月，見寺僧鑿山攻石，石悉頑惡，知匠氏不虔，山靈祕吝。時準疏告陰靈，請裨善務。俄於定中見若干幅貯無量石，冥冥之間，如有宰割，皆中刻字。時連率博陵崔公激勸幕府參佐各書一品，從〈序〉至〈勸發〉，凡二十八。圍廊挺立，不朞畢工。準之化人，皆此類也。元和元年八月中也。後不詳終所。

唐洪州寶曆寺幽玄傳

釋幽玄，俗姓劉，幽州人也。夙懷出俗之願，年及弱冠，方遂前心，投并州賢禪師而了玄契。元和二年，振錫江左，至會稽大雲寺，見三學僧柅定食輪，資緣都闕。玄言發響應，檀越供贍。未幾，移居湖心龜山妙喜古寺。九年，屬平昌孟簡鎮于越，枉駕問道，遂構成大院。十二載，復登南嶽，栖止絕頂。十三年，豫章太守商祐篤重其道，命住東明寺，即東晉安帝世之所造，僧數繁湊。寶曆中，為奏改為世福，兼置戒壇，續勅改為度僧寺。其間形像，皆玄之化導。大和元年，沈傅中丞又加信向。玄於院南別造佛閣五

層，功就，謂弟子曰：「福事無盡，生涯有期；物有闕然，後人庀具。吾終後，可將屍漆布安閣下。」言訖而化，門人特旁立塔焉。

唐五臺山智顓傳

釋智顓者，中山人也。自幼辭親，來五臺山善住閣院，禮賢林為師，誦經合格，得度。神情爽拔，氣調高峙，於世資財，少欲知足。糲食充腹，鹿衣禦寒，餘有寸帛，未嘗不濟諸貧病也。遊方參翫，預諸講席。傳《法華》、《維摩》二部，窮源盡理。後挂錫高峯，息心却掃。距元和中，眾辟為五臺山都檢校守僧長。顓與時遷徙，固辭不允，遂登此職。後遇歲當饑饉，寺宇蕭條。有華嚴寺，是大聖棲真之所，巡遊者頗眾，供施稀疎，院宇倫巡，例稱不迨，眾請為華嚴寺都供養主。時德不孤，有法照、無著、澄觀之出世也。當觀師製《華嚴經疏》，海眾雲集，請顓為講主，日供千僧。十有餘禩，食無告乏。皆云「有無盡藏之米麩也」，歲久頗見豐盈。有隣院僧義圓——亦當代之碩德也——，謂顓久知常住，私有謗言，非平等心，是貪饕者也。夜有神人報圓曰：「僧長是千佛之一數也，汝發輕言。若不悔過，當墮惡道。」圓乃詰朝鳴足懺謝，有茲驗也。及鍾武宗澄汰，顓遁乎山谷，不捨文殊之化境。未逾歲載，宣宗即位，勅五臺諸寺度僧五十人，宣供衣帔，山門再辟。顓為十寺僧長兼山門都修造供養主。大中七年，與寰海遊臺，四眾建無遮，精妙供養。一月日，乃謂大眾曰：「吾欲暫憩微骸，息心斂迹。佐助眾務，吾無能為也，付諸俊哲，繼吾遺躅。」乃淨室安坐而滅，春秋七十七，夏臘五十八云。

系曰：僧中職任也，如網之綱，如屋之梁焉！肇自姚秦立正，魏世推都，北齊則十統分員，唐世則僧錄命職。異乎常所聞者，五臺山自貞元中智顓始封僧長矣！亦猶魚鹽蜃蛤，祈望守之也。

唐會稽呂后山文質傳

釋文質，俗姓祝氏，尚丘之遠孫，衢州須江人也。叔氏為僧號唯寬，學通多本經論。寬被詔入長安，止大興善寺，重詔入內道場，兼請受菩薩戒。質隨寬入內。年十五，誦《法華》、《華嚴》、《維摩》等經。二十三受具，七日誦周戒本，二夏便講《四分律》。二十七，講通《俱舍》。四十年中，精曉諸大經論，後約束大悲、禹跡二禪師，參問心要。既博達矣，歸諸暨法樂寺領徒。時有虎來聽法，質摩其頂而去。後往永嘉，鍾會昌之搜簡，乃隱樂成縣大芙蓉山，胎息而已。大中重興，太守韋君累請不來，強置于

榻，昇出州開元寺居。檀施駢馳，迴造大佛殿，并講堂、房廊、形像，并寫藏教，無不備焉。越州廉使沈貳卿命住呂后山院——本寧賁禪師舊化之地也。質唯居草庵而止。咸通二年十月十四日，告眾言別。十五日，端坐而化，春秋八十四，僧臘六十二。窆于雲谷，建塔。越州刺史段式為行錄焉。

唐明州國寧寺宗亮傳

釋宗亮，姓馮氏，奉化人也。家傍月山而居，後稱月僧焉。亮開成中剃落納法，方事毘尼，循于四儀，且無遺行。而云我生不辰，屬會昌之難，便隱家山深巖洞穴。大中再造國寧寺，徵選清高者隸名，亮預住持。建州太守李頻為寺碑云：「於清心行不污者，得二十八人，以補其員。廣住持也，律僧宗亮，禪僧全祐而已。」國寧經藏，載加繕寫，躬求正本，選紙墨，鳩聚覲施，建造三門藏院諸功德廊宇，皆亮之力焉。晚年專事禪寂，不出寺門。處士方干贈詩云：「秋水一泓常見底，澗松千尺不生枝。空門學佛知多少，剃盡心華只有師。」終于本寺，春秋八十。亮恒與沙門貫霜、棲悟、不吟數十人，皆秉執清奇，好迭為文會，結林下之交。撰〈嶽林寺碑〉、詩集三百許首，讚頌並行于代。而於福、敬二田，銳心彌厚焉。亮為江東生羅隱追慕。樂安孫郃最加肯重，著《四明郡才名志》，序諸儒駿士外，獨云：「釋宗亮多為文士先達倣仰焉。」

唐越州開元寺曇休傳

釋曇休，字德敷，姓李氏。器度宏廓，志行修勅。納法已來，未容少缺。習通漸教，頗至精微。《四分律相部疏》宗，蔚成淵府，初機請學，皆到甚深。休於講訓之餘，糾繩寺任。伊寺者，梁所創，年涉四百，雖觀閣巋然，且櫨椳傾弛。休革故有方，締構無隙，特加壯麗，輪焉！奐焉！又護國經樓迨諸棟宇，悉見鼎新。次以寺之門樓也——則長安四年故曇一律師之經始也——，既而頽廢，仍重整覆，一同創制。復憐永徽中康僧會法師應身堂座卑庳，乃募人釐變舊規，咸通年中也。休之一言，檀信響應。後終于住寺，今之大善伽藍是也。

唐雅州開元寺智廣傳

釋智廣，姓崔氏，不知何許人也。德瓶素完，道根惟固，化行洪雅，特顯奇蹤。凡百病者造之，則以片竹為杖，指其痛端，或一撲

之，無不立愈。至有癩者則起，跛者則奔，其他小疾，何足言哉！乾寧初，王氏始定成都，雅郡守羅(亡名)罷任，携廣來謁。蜀主王氏素知奇術，唯呼為聖師焉！先是咸通中南蠻王及坦綽來圍，成都府幾陷。時天王現沙門形，高五丈許，眼射流光，蠻兵即退。故蜀人於城北寶曆寺立五丈僧相。後為牛尚書預毀次，兵火相仍，唯懼毘沙門之頽圯耳。王氏乃語廣曰：「師之異術，道德動人，乘此可料理天王否？往吳尚書行魯曾夢令『修吾像』，方事經營，除書忽到。請法力成之。」廣唯其命，徙就天王閣下，居一隅，小榻而已。翌日，病者填噎其門，日收所施二十萬至三十萬錢。又發言勸人出材木，浹旬皆運至堆積，令三綱掌管焉。初廣在雅郡本寺羯帝神堂內，居其半室，低門苦蓐，不許女人到門。唯有一竹筓子。每齋，受嚙二十文，必投筓內。滿則置之佛殿，聲鐘集眾，自他平等分之。常日俗家請齋，亦體廣意，止施二十文，淨飯菜豉汁，此外不許一物，嚙多不取，食畢而去，亦無辭告。其後益加神驗，或遇病者，一擱一叱皆起。或令燒紙緡，掇散飲食。或遇甚痛惱者，捩紙蘸水，貼之亦差。光化元年修天王閣，向畢，乃循江瀆池，呪食飼魚。經夜，其魚二尺已上萬億許，皆浮水面而殞。聊躡流水，救十千魚生切利同也。

唐鄜州寶臺寺法藏傳

釋法藏，不詳氏族，厥性方正，好行惠物。嘗於葦川化眾造寺，佛殿僧坊一皆嚴麗，雕刻華蘊，鄜時命為壯觀。藏偶病篤暴終。至一精廬，七寶莊嚴，非世所有。門外有僧，梵貌且奇特，倡言曰：「法藏，汝造伽藍，不無善報，奈何於三寶物有互用之愆，何從洗雪？」藏首露之，僧曰：「汝但繕寫《金剛般若經》，恒業受持，豈不罪銷？亦可延乎壽命。」言訖而蘇。自躬抄度其經，午夜口誦。藏終時年一百一十歲云。雕陰人至今信重焉。

唐五臺山海雲傳(守節)

釋海雲，未詳氏族鄉里。來遊聖跡，始於南臺側，選峭絕峯巒幽僻林谷而特居之。其刻苦翫道，儉而難遵。從其遊者，寡而無眾。迨其入滅，門人守節，淘灑舍利起塔焉。昔傳雲是普賢菩薩應身也。門人守節即高力士之子也，從師墨儉，有進無退。雲示之曰：「上都有臥倫禪師者，雖云隱晦，而實闡揚六祖印持，一時難測。化導之方，若尸鳩之七子均養也。汝急去從之。」及見倫，扣擊未幾，告云：「汝師海雲入滅已。」節稟聽斯言，荼蓼情苦，遂奔赴，如

其言矣。乃繼武接跡，盛化相乘。迨將示滅，愁雲鬱結，鬼神悲號，有塔存焉。

系曰：海雲是普賢應身，非耶？通曰：「菩薩下化，弗拘定相，應以比丘，即現說法。」若然，何亂文殊境，使主伴不分乎？通曰：「若如所問，凡夫分矣！聖人豈以我所求乎？」

唐五臺山佛光寺法興傳

釋法興，洛京人也。七歲出家，不參流俗。執巾提盥，罔憚勤苦。諷念《法華》，年周部帙。又誦《淨名經》，匪逾九旬。戒律軌儀，有持無犯。來尋聖跡，樂止林泉，隸名佛光寺。節操孤穎，所霑利物，身不主持。付屬門人，即修功德，建三層七間彌勒大閣，高九十五尺。尊像七十二位聖賢、八大龍王，罄從嚴飾。臺山海眾異舌同辭，請充山門都焉。蓋從其統攝，規範準繩，和暢無爭故也。大和二年春正月，聞空有聲云：「入滅時至，兜率天眾今來迎導。」於是洗浴焚香，端坐入滅。建塔于寺西北一里所。

唐五臺山行嚴傳

釋行嚴，滎陽人也。家襲簪組，業嗣典墳。嚴稟庭誥以周旋，約成器能而濟用，比要隨計。俄發宿緣，因聞《妙莊嚴王經品》，白父母求出塵勞。堂親抑禁，略無却退。既而削飾去華，年充納戒，諸方問道。綽有餘能，聞五臺山文殊應現，凡聖交蹤，乃登遊而隸名斯地。自爾一成慕學，三教偕明；談論天人之際，聽者茫昧，不知區域之內外耶！王公大人靡不迴向。大和中，多行激勸，俾營福焉。自設大供，日計千人。聞見之流，皆鳴指讚嘆曰：「行合解通，世之希寶也。助道之法，當如是修。」以大中三年右脇而滅，建塔寺西一里云。

唐五臺山佛光寺願誠傳

釋願誠，姓宋氏。望本西河，家襲素風，濬流遠派，不揚胄緒，祖考不書。母陰氏夜夢庭樹對發千華，餘華尋謝，獨結一果。乃覺有孕。母啟願心，得娠男子足矣。十月臨蓐，果如其望，立字曰願誠。後志存小字，不訓法名者，遵慈母之意也。誠少慕空門，雖為官學生，已有息塵之志。迨棲金地，禮行嚴為師。嚴即儒宗珪璋，釋氏師子也。一旦謂誠曰：「汝神情朗秀，宜於山中，精勤效節，可不務乎！」大和三年落髮，五年具戒。先誦諸經，悉皆精練，行

人屬耳，道望日隆。無何，會昌中隨例停留，唯誠志不動搖。及大中再崇釋氏，選定僧員，誠獨為首矣。遂乃重尋佛光寺。已從荒頓，發心次第新成。美聲洋洋，聞於帝聽，颺馳聖旨，雲降紫衣。後李氏奄有并門，遐奉文殊，躬遊聖地。覩其令範，撫手愜懷，表聞唐天子相繼，乃賜大師號圓相也，就加山門都檢校。光啟三載，羞饌命僧捨衣投施。鐘聲引眾，悉至齋堂，右脇曲肱，寂然長往。建塔樹碑寺之西北一里也。

後唐五臺山王子寺誠慧傳

釋誠慧，元禮之宗盟祖派，蔚州靈丘之故邑，父母深信，注意清涼。因瞻大聖之容，乃乞興邦之子。既而有孕，遂誕賢童。纔當幼年，器榦天假，自詣臺山，永為佛子。時真容殿釋法順覩其俊哲，化以苦空，勸捨俗衣，令披法服。暨登具足，尤習毘尼。自後孤遊谿谷，多處林泉。有王子寺僧湛崇等請居茲寺。慧主任之餘暇，內外典教靡捨斯須。供瞻精嚴，非不勤恪，恒轉《華嚴經》，數盈百部。每至卷終，懇發願曰：「以我捧經之手，救彼苦惱之人。」而屬武皇與梁太祖日尋干戈，中原未定。武皇中流矢，創痛楚難任，思憶慧師，翹想焚香，痛苦乃息。遙飛雁帛，遠達雞園，命下重巒，迎歸丹闕。武皇躬拜，感謝慈悲，便號國師矣。後乞歸本寺，金峯顯耀，玉樹相依，九州之珍寶皆來，百寺之樓臺普建。莊宗即位，詔賜紫衣，次宣師號，慧堅不受。帝復宣，厥後再朝天闕，更極顯榮。受恩一月，却返五臺。同光三年乙酉歲十二月，囑累門人廷珪曰：「吾今化緣將畢，為吾進遺表，達于宸聽。宜各努力，理無相代。」言訖入丈室，右脇而終也。俗齡五十，僧臘三十。帝聞惻愴，遣高品監護喪筵，仍勅賜祭。三朝火燼，五色骨存，收取舍利而起塔焉。諡曰法雨，塔曰慈雲也。

宋高僧傳卷第二十七

宋左街天壽寺通慧大師賜紫沙門贊寧等奉 勅撰

興福篇第九之三(正傳十五人附見一人)

後唐洛陽中灘浴院智暉傳

釋智暉，姓高氏，咸秦人也。權輿總角，萌離俗之心，不狎童遊，動循天分。欵遇圭峯溫禪師，氣貌瑰偉，虛心體道，趨其門者，淑慝旌別矣。謂暉曰：「子實材器，多能之士也。」請祈攝受。二十登戒，風骨聳拔，好尚且奇。山中闐然，曾無他事，唯鉤索藏教，禪律亘通，日誦百千言，義味隨嚼。聞佛許一時外學，頗精吟詠，得〈騷〉、〈雅〉之體。翰墨工外，小筆尤嘉，粉壁興酣，雲山在掌。恒言：「吾慕僧珍、道芬之六法，恨不與同時對壁連圖，各成物象之生動也。」然真放達之士哉！或振錫而遊，縱觀山水；或躡屩而至，歷覽市朝。意住則留，興盡而去。或東林入社，或南嶽經行，悟宗旨於曹谿，寧勞一宿；訪神仙於阮洞，擬到三清。事以志求，時無虛度。此外采藥於山谷，救病於旅僧，惟切利他，心無別務。洎梁乾化四年，自江表來于帝京，顧諸梵宮，無所不備，唯溫室洗雪塵垢事有關焉。居于洛洲，鑿戶為室，界南北岸，葺數畝之宮，示以標榜，召其樂福業者占之。未朞漸構，欲閨皆周，浴具僧坊，奐焉有序。由是洛城緇伍，道觀上流，至者如歸，來者無阻。每以合朔後五日，一開洗滌，曾無間然。一歲則七十有餘會矣；一浴則遠近都集三二千僧矣！暉躬執役，未嘗言倦。又以木舄承足，泉麻縫衣，彼迦葉波相去幾何哉！其或供僧向暇，吟詠餘閑則命筆墨也——緬想嘉陵碧浪，太華蓮峯，凝神邈然，得趣乃作；五溪煙景，四壁寒林，移在目前，暑天凜冽矣！加復運思奇巧，造輪汲水，神速無比。復構應真浴室西廡中十六形像，并觀自在堂，彌年完備。時楊侍郎凝式致政佯狂，號楊風子者，而篤重暉，為作碑頌德。莫測所終。

晉五臺山真容院光嗣傳

釋光嗣，姓李氏，太原文水人也。沖幼孤靜，罕雜童稚。信尚臺山，乃為真容院浩威之高足也。納戒後，器宇穹隆，憤繫包桑，出求禪法。歷于年稔，內外之學優長，口海崩騰，良難抗敵。由是決意越重湖，登閩嶺，盛談文殊世界，聞者竦動。忠懿王王氏大施香

茗，遣使送山寺焉！癸酉歲，至兩浙，謁武肅王錢氏，厚禮遲之，施文殊聖眾供物香茶并鉢盂一萬副。應吳越諸州牧宰皆刻俸入緣。仍泛海至滄州，運物入山。時降龍大師者率領彈壓，緇伍畏焉，為其分散諸寺蘭若，眾寡均等。時徒侶堅請嗣主院，宣補僧官轄諸臺寺院，命曰都綱，師號超化，居于僧上，若鯤鳳之領鱗羽焉！十五年間，興建梵宇，齋飼僧尼，不勝紀極。以天福元年遘疾，至九月五日遷滅。門人起塔，藏其靈骨舍利，至今存焉。

晉東京相國寺遵誨傳(彥求)

釋遵誨，姓李氏，譙郡人也。祖世不仕，母張氏夢神人授己寶珠，乃有娠焉。生且奇異，乳哺之時，善認人之喜愠。彌長，見寺觀，必任步遲迴，顧盼不捨。年甫十一，禮亳城開元寺崇諲律主為師範矣。誦《法華經》，二周畢部，由是勤於學問。殆登弱冠，受于戒律，持彼律儀，確乎轉石。尋師西洛，問道梁園，初于智潛法師傳《法華經》，講精義入神，雌黃滿口。梁開平二年戊辰歲，止相國寺藥師院，首講所業。至後唐長興二年辛卯歲，門徒相續請其訓導，已周一十九遍，升其堂者二十餘人。洎天福二年，有五臺山繼顥大師精達《華嚴》大經，躬入東京，進晉祖降聖節功德。誨仰顥師辯浪經江，下風趨附，乃允講宣。誨善下百川，蔚成藏海矣！梁、宋之間以顥罷唱，請誨敷揚，[序-予+合]匝虛堂，緇素雲萃，募四眾鐫石壁《華嚴經》一部於講殿三面焉！嗟其油素，易罹炎上之災；刻此貞珉，寧患白蟬之食。工未告終，所施已足。又召僧俗人各念一卷，得二百四十人，成三部，四季建經會，近二十年，更無間曠。復別施鬼神水陸法食，皆勸勵莊嚴菩提心行矣！朝廷崇重，旌表其功，賜號真行大師。開運二年乙巳歲正月十六日示疾，策杖教誡門弟子訖，右脇而臥，口誦佛名，斯須長逝矣。享壽七十一，法臘五十一。門生奉遺旨葬于隨河之北，寺莊東原也。次有杭州龍華寺釋彥求，姓葉氏，縉雲人也。梁貞明中納戒，造景霄律席，迴見毘尼祕邃，方將傳講，俄悟杏婆羅漢，反求堅固法。乃遊閩嶺，得長慶禪師心決。迴浙，受丹丘人請，居六通院，其道望惟馨，與夫申椒、菌桂爭，其芬烈矣。漢南國王錢氏欽其高行，命住功臣院。末歸州治龍華寺，聚徒開演。求好營眾事，務必身先，唯以利人為急，受施必歸。常住房無關鍵，笥無扃鑰；不容尼眾禮謁，不苟聲勢。常屬度戒，四遠人聚，日供累千僧食，未嘗告匱言。前後計飯鉅萬人焉！宋建隆中終于住寺云。

晉曹州扈通院智朗傳

釋智朗，姓黃氏，單州城武人也。母劉氏夢數桑門圓坐為劉說法，歷然在耳，遂妊朗焉！及生暨長，婉有僧之習氣，淳靖簡潔。苦辭親出家，往曹州扈通院，事行滿師，供給惟謹。泊乎剃染成大比丘，學《四分律》、《淨名經》，俱登闡闕。且曰：「出俗之者何滯方守株，不能脫羈解絆乎？於廣博知見無所堪能。」乃携餅鉢，南極衡陽，登嶽棲般若寺，行胎息術，而覽藏經事訖，入閩嶺，曾無伴侶，形影相弔。逢猛獸者數四，皆欲呀口垂噬，又躡步徐去矣。見洞山、雪峯二祖師決了禪訓。有請問者，隨答如飛，蓋了達無絀矣！後旋本院，信向如歸。而四事供僧，罔聞閒隙，四十餘齡，役已無倦。以晉末丁未歲十一月二十三日遷滅。于時白衣飲痛，緇流茹傷，獸失猛以哀嗥，鳥停飛而宛轉。或曰：「愛河苦海誰拯溺邪？」春秋七十七，法臘五十三。火葬，收舍利，起塔于院。朗為釋子，衣物誓不經女人之手浣濯，不役徒弟。檀施之物像寶未省互用，蓋以初律後禪，陶冶神用之故也。大名府少尹李鉉為碑焉。

漢東京天壽禪院師會傳

釋師會，俗姓巨，漢荊州刺史武之後，祖徙家北燕，遂為薊門人也。考諱知古，母趙氏。會童孩出俗，禮薊州溫泉院道丕為師匠焉。業成，年滿，受具於金臺寶刹寺壇。梁開平中萍梗任飄於河朔，杯盂隨步於江淮，乃抵漢南遇觀音院巖俊，班荆話道，抵掌論心。且曰：「子還聞投子山有大同禪師已否？」曰：「聞而未見。」曰：「宜亟往焉。」及參大同，跬步之間，舉揚之外，洗焉明白，其安坦然。乾化二年，來梁苑，謝俊公曰：「始者攸攸岐路，茫茫生死，紫實昧朱，狂斯濫哲。苟不奉師友指歸，幾一生空度。今以穢蕩，請與薰同器而藏，可乎？」俊公與會胥德留入法席。四年秋，有寶積坊羅漢院志修堅請會代居所住焉，苦蓋五間而已。乃感檀越尚書左丞吳藹、兵部侍郎張袞——若袁粲之謁寶亮，徐湛之禮惠通——，共發奉章，賜額曰天壽焉！四海之僧，翕然而至。歷三十五載，供僧二百餘萬，用其財寶，無少混淆，耿介可知也。天福七年，晉高祖以會行成于內，聲聞於外，勅賜紫衣。開運元年，賜號曰法相。紫衣則藏以受持，師號則蔑其稱謂。且曰：「我本不求名，名來自求我。知其白而守其黑，和其光而同其塵，世幻逡巡，時不我與。」三年七月二十六日累諸門人，帖然而滅，春秋六十七，夏臘四十八。闍維，收舍利數百粒，起塔於東郊汴陽鄉也。刑部侍郎邊歸讜為碑頌德云。

周宋州廣壽院智江傳

釋智江，俗姓單，幽州三河南管人也。本富族遊俠之子，雖乘竹馬，厭迴火宅之門；乍玩沙堆，好作浮圖之制。略聞竺乾之教，必淡慮凝情，若瀟湘之逢故人也。唐乾寧四載，始年十五，詣盤山感化寺遂成息慈，息慈業備。天復三祀，往五臺山梨園寺納木叉法。自此擔簦請業，擇木依師，《淨名》、《上生》二典精練，渙然冰釋，心未屬厭。梁龍德元年於商丘開元寺講《名數》一支，所謂精義入神，散則繁衍，因著《瑞應鈔》八卷，達者傳之。生徒影附，繕寫夥多。後唐同光元年，在微子之墟住院，締構堂宇，輪奐可觀。復塑慈氏、釋迦二尊、十六羅漢像，咸加續彩，克尚聖儀。善務方辦，俄遘沈痾，以周顯德五年孟秋順終，享齡七十四。當屬續時，滿院天人雜沓，若迎導之狀，疇昔誓生覩史之昭應也。吏部員外郎李鉉著〈塔銘〉云。

系曰：前人立義，皆按教文，豈得好惡隨情，是非任見？已行前轍，不覆後車，胡不謹而循之？通曰：「夫創著述者有四焉：一前說極非，於文茫昧；一僻見謬解，領悟自乖；一樂繁嫌略；一好直怪迂。有一於此，無不著述也。江公《瑞應鈔》未經披覽，聞諸道路，言亦濟時。須苟不濟用而變革古德義章，則何異以『舊防無所用而壞之者，必有水敗』也。」

周五臺山真容院光嶼傳

釋光嶼，俗姓韓氏，應州金城邑人也。幼讀儒書，有佐國牧民之志。頻有神人夢中警策曰：「汝於佛法有大因緣。」遂投真容院附法威，侍其餅錫，謹弟子之職。受具後，誦《淨名經》，徹簡，每至「依於義，不依語」，告喻本師而求聽習，威尋許諾，遂詣太原三學院，涉乎寒燠，研覈孜孜，屢改槐檀。乃講《維摩》、《上生》二座，忽謂同志曰：「余憶昔年每念『依於義』，邇棲學院，今講二經，窮理見性，知果驗因，得不依教起行，免背四依之行乎？」俄辭晉水，却返故山，戴《華嚴經》，遶菩薩殿，六時右旋禮佛。時晉高祖握圖之三載也。名聞丹禁，遂賜紫衣。明年，授號通悟焉！山門僧官與大眾堅命臨壇，告辭不允。僧官謂曰：「師行解兼人，獨善其己，良璞不剖，必見泣血。」辭不獲已，度人三二載，堅求脫免。屬少王嗣位，院乏主守，大眾僉舉：非嶼而誰？辭曰：「此山四海客遊之所，奈何不出院門有年歲矣！令知供養，有何所須？」雖免不從，自後供施委輸，十八年中，供百萬餘僧。一夕雲霧俱發，霰雪交零，嶼之蓋經白練一條，可三四尺，忽爾不

見。翌日深更，遺練俄還舊所也，蓋陰神之送至歟？顯德七年庚申歲十月示疾，謂諸子曰：「猶龍者厭乎大患，歎鳳者悲於逝川，諸行無常，是生滅法。」言訖如蟬蛻焉。俗壽六十六，僧臘四十六。荼毘於東峯下，取諸靈骨，瘞於塔幢，舍利隨緣供養焉！

宋東京觀音禪院巖俊傳

釋巖俊，姓廉氏，邢臺人也。誕育之來，蔚繁神異，挺身去縛，誓入空門。從捧戒珠，終身圓瑩。乃持杯錫，言遍參尋，陟彼衡廬，登乎岷蜀。嘗至鳳林，欵逢深谷，見一區之晃耀，原七寶之縱橫。時同侶相顧曰：「奇哉！可俯拾乎？」俊曰：「古人鋤園，觸黃金若瓦礫耳。苟欲懷之，自速禍也。徯吾野營覆頂，須此供四方僧。」言訖捨去，造謁舒州投子山主，問之曰：「客來昨宿何處？」俊曰：「在不動道場。」曰：「既言不動，曷由至此？」對曰：「至此豈是動耶？」曰：「元來宿不著處。」然山主默認許之。迨思還趙，路出陳留，抵今東京。屬乎梁少保隴西公資——即河陽節度使贈中書令芝之昆也——，雖居貴仕，酷信空門，接俊談玄，若劉遺民之奉賈遠也。相與議捨第宅俾建仁祠。俊弗讓違，以安形性。既考禪室而行祖風，慕道窮玄，堂宇盈塞。周高祖、世宗二帝潛隱地，與俊布衣之交，每登方丈，必施跪禮。及其即位，延遲優渥，至乎朝達，見必稽顙，高談虛論，若至寶山焉。以乾德丙寅三月示身有疾，彌留，弟子求醫奉藥，瞑目嚙脣不食，垂誠門人後已，當怡顏儼肅，合掌訣眾而滅。享齡八十五，坐夏六十五。初俊被朝恩，賜紫袈裟也，受而不服；錫淨戒師號也，有而不稱。屬其策杖清羸，周祖勅侍者輩勿令大師一中食，俾其日昃更進佉闍尼矣。俊諾而難遵。慈柔被物，暨乎自狹而廣，實三院一門也——二堂東西，恒不減數百眾。五十年間，計供僧萬百千數。京城禪林，居其甲矣。以其年四月八日歸葬于東郊豐臺村，白塔存焉。于日神都寺院各率幡幢，吹貝鳴鐃，相繼二三里。道俗送殯者萬數。知制誥王著為碑昭懋厥德云。

宋西京寶壇院從彥傳

釋從彥，姓米氏，燕人也。始自識環，尋知跪橘，顛昂挺質，豁達為襟。年距十五，父母聽許出家於并部慧覺禪院也。受戒後，經江鼓柂，論海化鯤，流輩畏之，咸知宗奉。乃懷心於祖教，望攻玉於他山。由是北別冰天，南觀桂海，不虞惡瘴，唯慕叢林，欣遇龍牙山禪師為決所疑，蔚成達者。後唐清泰丙申歲還遊嵩少。洛中始

安，人情輯睦，彥營構禪坊，延聚緇侶而供養之。歷晉、漢、周三朝，皆加恩命，乃曰：「寵辱若驚，吾無驚久矣！然俗諦門中，感世主以綈繡緣飾朽木者哉。」以開寶二年八月三日示疾而終。四年辛未，改權從久，瘞于層塔焉。

宋東京普淨院常覺傳

釋常覺，姓李氏，陳留人也。肇為鞠子，氣調絕奇，入鄉校中諷讀經籍，群童咸出其下。洎登弱冠，往廬山遊二林，陟五老，乃禮歸宗寺禪師，充苦行焉！梁乾化二年，蒙去飾披緇矣。明年，於東林甘露戒壇納解脫木叉。厥後修身踐言，雖三藏俱留於意表，而以心學為究盡之務。復入五臺山，禮妙吉靈跡。迨後唐天成三載，始於東京麗景門之右樹小禪坊，勅額為普淨焉！而逐月三八日設闔京僧浴。其或香湯汲注，樵蒸失供，覺必令撤小屋，抽棖桷而助爨焉！有公王仰重，表薦紫衣，堅拒弗受，汲汲以利行濟物為己任耳！開寶四年十二月三日遘疾，輕安無撓。十一日告眾，右脇而化。享年七十六，僧臘五十六。荼毘收舍利，五色磊落無算。嘗居京邑，屢登斯院，覽北海陶尚書穀《為湘東張仲荀序詩贈覺》而云：「起後唐天成至漢乾祐，每黑白月三取八日，浴京大眾，累歲費錢可一百三十六萬數，計緡千萬矣。雖檀施共成，實覺公化導之力也。嘻！大火之下，陳留古封，周秦已來，戰伐之國，人物眾而土風尚利，舟車會而貨殖惟錯。昔梁惠王賢諸侯也，嘗謂孟軻曰：『何以利吾國？』是知禮讓之化，不勝於好利之心，明矣！且梁去魯千里而近，道猶不同，矧十萬八千里乎？梁王、孟子，同世之人也，心或有異，況瞿曇上人乎？彼孟氏屬斯文未喪，不能揚素王之道；今上人當去聖逾遠，卒能行法王之教，苟非三業內淨，六塵外清，以至公之行化於人，孰以至公之心受於化也！」陶重敘曰：「自靈山覆篔，法海堙流，玉毫晦而微言絕，金杖折而異端作。惟上人也色空等觀，物我都亡。麻麥一齋，自同禪悅；炎涼一納，僅蔽枯形。前後王臣欲上章乞以大師為號，請以紫染方袍者，皆確而拒之」云云。張仲荀贈覺鉢盂拄杖草履，各用五言為章，刊于小碣。其為名流碩學，旌別有如此者。

宋杭州報恩寺永安傳

釋永安，姓翁氏，溫州永嘉人也。少歲淳厚，黃中通理。遇同郡彙征大師鳳鳴越嶠，玉瑩藍田，穫落《文心》，沈潛學奧，以其出樂安孫郃拾遺之門也，而有慕上之心，往拜而乞度。然征性高岸而寡

合，而安事之也。曲從若環，蓋哀其幼知擇師耳。天成中，隨侍出杭，俄有從十二頭陀之意，潛逃欲登閩嶺，參問禪宗。屬封疆艱棘，却迴結庵于天台。後遇韶禪師法集，頓遣群疑，重來禮征。咄之曰：「棄背孝養，爾自速辜，遺行于斯，還有裨補前咎計否？」安跪對曰：「從來無事，請用塞責。」征肯頷之。漢南國王錢氏召居報恩寺，署號「禪師」焉。乃以《華嚴李論》為會要，因將合經，募人雕板，印而施行。每有檀施，罕聞儲畜，迴捨二田矣。以開寶甲戌歲終而焚之，其舌存焉。累投火鍛，色雖同乎熾炭，寒則柔弱，今藏普賢道場中。春秋六十四，法臘四十四云。

宋錢塘永明寺延壽傳

釋延壽，姓王，本錢塘人也。兩浙有國時為吏，督納軍須，其性純直，口無二言，誦徹《法華經》，聲不輟響。屬翠巖參公盛化，壽捨妻孥，削染登戒。嘗於台嶺天柱峯九旬習定，有鳥類尺鷃，巢棲于衣襦中。乃得韶禪師決擇所見，遷遁于雪竇山，除誨人外，瀑布前坐諷禪默。衣無繒纈，布襦卒歲；食無重味，野蔬斷中。漢南國王錢氏最所欽尚，請壽行方等懺，贖物類放生。汎愛慈柔，或非理相干，顏貌不動。誦《法華》計一萬三千許部。多勵信人營造塔像。自無貯畜，雅好詩道，著《萬善同歸》、《宗鏡》等錄數千萬言。高麗國王覽其錄，遣使遺金線織成袈裟、紫水精數珠、金澡罐等。以開寶八年乙亥終于住寺，春秋七十二，法臘三十七。葬于大慈山，樹亭誌焉。

宋西京天宮寺義莊傳

釋義莊，姓張氏，滑臺人也。當免懷之日，及就傅之秋，神彩克明，塵機頓去。乃於本府開元寺歸善財之列，從升戒德。因樂遊方，始於洛邑采聽《法華》，見識過人，闡揚訓物，眾請居九曜院焉。匪虧法食，用濟往來。慈以利生，始末無間。建隆初左散騎常侍申公奏賜紫衣，稟學僧尼三十餘員。莊性敦勤，進講外兢兢五十年間，二時禮懺，至老不替。於太平興國戊寅年八月奄終，俗壽七十八，僧臘五十九。明年二月，遷塔于龍門菩提寺西焉。

宋西京廣愛寺普勝傳

釋普勝，姓張氏，深州陸澤人也。幼歲情愛媮薄，俄決志趨五臺山華嚴寺，師事超化大師。或問之曰：「子胡以越山踰域而求出家？」

彼饒陽者，豈無仁祠哲匠乎？」勝對曰：「附神驥可以日千里矣。某知妙吉淨剎感徵膠戾，令我小凡速成果證，可不是乎？」眾聆斯說，曰：「任氣小兒，有此高識，我曹俱弗如也。」勝曰：「某非衽金革死而不厭之徒也，願入慈門而思利物耳。」迨乎受具，南臨潞府講通《上生經》矣。聞崇法大師傳《唯識論》，盛化洛都，往從學焉。凡百章疏，經目便識之。不幾稔間，習通精贍。勝所傳者中山貞辯《鈔》，講多誤失所然，昌言曰：「繁略不均，解判非當。」乃刪多補少為四卷，行于世。太祖神德皇帝賜紫衣，師號曰宣教也。以太平興國四年秋七月四日示疾，終于淨土院，享壽六十三，坐四十三夏。門人等收舍利葬于龍門山寶應寺西阜，建塔旌表之。

宋東京開寶寺師律傳

釋師律，范陽人也，姓賈氏，大丞相魏國公耽之後，《唐書》有傳。律弱亂端謹，不與群童鬪伎。裁十五歲，於憫中寺落髮，禮貞涉為師。嚴肅垂勗，所履不出邊幅之外。涉默異之，曰：「不可屈身下位而抑其名節乎！成比丘已，可去遊方。」律奉訓南逝，得其禪要。迴錫故鄉。時梁世迨大周朝，其間帝王重臣，率皆宗仰。居于夷門山——舊封禪也——，營構乎殿宇聖儀，豐厨祕藏，供僧饒羨。約勒後生，別院翕如，罔違彝憲。朝廷以紫衣徽號，用旌厥德，律視之蔑如也。一日謂弟子庶幾曰：「吾無願不報，厥齡欲頽，汝宜知之。勿俗情而悲悼也。」乾德二祀正月二十三日而終，春秋八十一，法臘六十二。太平興國五年三月，改葬于北部浚儀之原，進士賈守廉為塔銘焉。

論曰：

佛出于世，經譯于時，大要在乎果因，所推歸乎罪福。罪也者，下三塗之階陞也。福也者，上諸聖之階陞也。階陞是同，上下有異耳。此命章曰〈興福〉者，乃欲利他焉。如秤低昂，如室明暗，則知二事必不同時。又類「薰蕕不同器而藏，堯桀不同國而治」也。凡夫氣分，唯說罪多；聖者品流，但聞福厚。順性故易造，逆意故難修。

修有多門，行有眾路。大約望檀波羅蜜多，令度無極也。始則「人天福行」，施食與漿，橋梁義井。次則「輪王行」，中、下品善。上品十善者，則「梵天福行」也。一造偷婆，二補修故寺，三請佛轉法輪。次則「二乘淨福行」，同三品善，止自利功強耳。次「究盡位福行」，乃成二嚴，莊嚴相好。從三輪無礙，見萬法體空，獲利殊多，盡未來際。夫如是，福之廣矣！大矣！乃知聖者為福則易

爾。何耶？純淨之故也。凡夫則反是，易薰染之故也。是以佛亦為穿針之福，知福不宜厭焉。目連然燎，迦葉蹋泥，無盡意貢瓔珞寶珠，沓婆羅分僧臥具。伊皆大人有作，聖者權方，欲其因罪不厭除，福不厭取。矧以教傳嶺外，法布中原，年所彌深，行持漸薄，內眾修福，就彼持門，先哲息愆，行其懺法矣。夫修「理懺」也，淡慮觀心，心無所生，生無所住。當爾之時，順違無相，則罪滅福生之地也。若行「事懺」也，心憑勝境，境引心增，念念相資，綿綿不斷，禮則五輪投地，悔則七聚首心，或期瑞而證知，乃見罪滅之相也。昔者齊太宰作淨住法，梁武帝懺六根門，澄照略成《住法圖》，真觀廣作《慈悲懺》。至乎會昌年內，玄暢大師請修加《一萬五千佛名經》，是以兩京禮經，則口唱低頭，槌磬一聲，謂之「小禮」。自淮以南，民間唯禮《梁武懺》，以為佛事。或數僧呬[口*匿]，歌讚相高，謂之「禳懺法」也。其有江表行水懺法者，悔其濫費過度之愆，此人偽造，非真法也。又有敦古人逐字禮《華嚴》、《法華》經，以為禮無漏法藏也。由此有四眾之徒，於字上安「南無」，字下安「佛」，誠叨濫也。

有倡言曰：「但務生善，唯期滅罪，何判為非邪？」通曰：「翻譯之後，傳行已來，若天上之恒星，如人形之定相。或別占一座，便曰客星。或新起肉隆，乃為胼贅者耳。君不見《春秋》『夏五』邪？鄭杜諸家豈不能添『月』字乎？蓋畏聖人之言，成不刊之典，不敢加字矣。夫子曰：『吾猶及史之闕文』將知佛教還可加減否？如慧嚴重譯《泥洹經》，加之品目，忽夢神人怒責，聲色頗厲曰：『《涅槃》尊經何敢輒爾輕加斟酌！』是知興福不如避罪，斯言允矣。

「今則不勤課勵，靡事增修，因搜穎脫之數員，貴顯孟安之三寶，就今有作，何代無人？或京兆開乎『海池』，或終南建乎蘭若，鑄大悲之銅像，造相國之伽藍。或代病利人，或護生掘土，鑄鐘感瑞，立剎參雲，刻像繁多，修臺浩博，披榛平田之梵宇，脫樣阿育之浮圖，刊石為經，鳩財立藏。或治病於井絡，或化人於鄜時。如斯人也，入殊邦之鄉導，合二姓之良媒。日月伏根，照洞庭之幽暗；乾坤玄鑿，開混沌之竅端。所行博哉，續運長矣！公羊子有之曰：『是上之行乎下也。』《詩》云：『爾之教矣，民胥效矣。』願吾徒望上而學之。令仁祠聖像無墜于地者也。」

宋高僧傳卷第二十八

宋左街天壽寺通慧大師賜紫沙門贊寧等奉 勅撰

雜科聲德篇第十之一(正傳二十六人附見六人)

南宋錢塘靈隱寺智一傳

釋智一者，不詳何許人也。居靈隱寺之半峯，精守戒範，而善長嘯。嘯終，乃牽曳其聲，杳入雲際，如吹筳葉，若揭遊絲，徐舉徐揚，載哀載咽，颼颼淒切，聽者悲涼，謂之哀松之梵。頗生物善，或在像前讚詠流靡。於靈山澗邊，養一白猿，有時驀山踰澗，久而不還。一乃吮吻張喉作梵呼之，則猿至矣。時人謂之白猿梵召。一公為猿父，猶狙公也。其後澗邊群狙聚焉。每至眾僧齋訖，斂生飯送猿臺所，後令山童呼三二聲，則群猿競至。洎乎唐武宗廢教，伊寺毀除焉，鞠為茂草之墟，飯猿于臺事皆堙滅。一師不詳所終。

元魏洛陽慧凝傳

釋慧凝，未知何許人也，棲止洛邑而無異藝，正修練心戒耳。嘗得疾暴終，七日而蘇，起說冥間報應及見區分，更無毫髮之差。所覩者五沙門，一是寶明寺智聖，以坐禪苦行得升天堂。次一是般若寺道品，以誦《涅槃經》四十卷，同前智聖。次是融覺寺曇謨最稱講《涅槃》、《華嚴經》，領徒千數。琰摩王曰：「講經者心懷彼我，以驕[妄*欠]物，比丘中第一麁行。今唯試坐禪誦經。」最曰：「貧道立身已來，唯好講導，不能禪誦。」王曰：「付司。」即有青衣數輩，擁送最向西北門，屋舍皆黑，似非好處。次是禪林寺道恒，唱云：「教導勸誘四輩檀越，造一切經、人中像十軀。」王曰：「沙門之體必須攝心守道，志在禪誦，不干世事，不務喧繁。雖造經像，止欲得他財物；既得財物，貪心即起；既長貪行，三毒熾然，具足煩惱。」與最同入黑門。第五是靈覺寺寶明，自稱未出家時，嘗作隴西太守，造靈覺寺。即棄官入道，雖不禪誦，禮拜不闕。王曰：「卿作刺史之日，曲理枉法，劫奪民財，假作此寺。非卿之力，何勞說此？」亦付青衣送入黑門矣。凝由此省悟。最先，見王，屬吏檢尋名籍，誤追攝耳。時胡太后聞之，遣黃門侍郎徐紇依凝之說，散訪驗寺額并僧名有無，奏報云：「城東有寶明寺，城內有般若寺，城西有融覺、禪林、靈覺三寺，并智聖、道品、曇謨最、道弘、寶明等，皆實有之。」太后稱歎久之，詔請坐

禪誦經者一百僧，常在內殿供養焉。續有詔：「不聽比丘持經像在街路乞索，如私有財物造經像者任意。」凝入白鹿山隱居修道，自此京邑城下比丘多修禪觀，誦持大部經法焉。

系曰：曇謨最坐講法而人我，因入黑門中。若禪誦者，人我隨增，知亦不免。最與道士姜斌爭論，護法之功可補前過。無謂傳法之人皆墮負處。胡后偏見不亡，吁哉！

唐成都府法聚寺員相傳

釋員相，蜀人也。七歲出家，博綜內外，善屬文，時號奇童。內修律範，人無間然。龍朔元年，有疾而終于此寺。將啟手足，房內長虹若練而飛上天，寺塔鈴索無風自鳴。其大門屋壁畫剝落，每夜有鼓角聲，經百餘日方息。從此鳥雀不棲其屋。咸亨四年，甘露降于講堂前椶櫚樹焉。相終，弟子收文集三十餘卷。寺中石像碑，相作辭，龔靈曠同撰是歟。

唐越州妙喜寺僧達傳

釋僧達，姓王氏，會稽人也。稚齒英奇，不參戲弄，於龜山妙喜道場出俗——其寺南梁初建。後樂遊方，見黃梅忍禪師，若枯苗得雨，隨順修禪，罔有休懈。遇印宗禪師，重磨心鑑。光州見道岸律師，更勵律儀。四眾依歸，如水宗海。開元七年示疾而終，春秋八十二云。

唐京兆神鼎傳

釋神鼎者，不詳何許人也。狂狷而純直，髮垂眉際。每持一斗巡長安市中乞丐。得食，就而食之。人或施麤帛幣布，錦綺羅縠，並綴聯衣上而著，且無選擇。嘗入寺中，見利貞法師講於座前，傾聽少時，而問貞曰：「萬物定已否？」貞曰：「定。」鼎曰：「闍梨若言定，何因高岸為谷，深谷為陵，有死即生，有生即死？萬物相糾，六道輪迴，何得定耶？」貞曰：「萬物不定。」鼎曰：「若不定，何不指天為地，呼地為天，召星為月，命月為星？何得不定耶？」貞無以應之。時眾驚其辯發如流。貞公奧學，被挫其鋒，頗形慚色。張文成見之，歎嗟謂之曰：「觀法師迅辯，即是菩薩行位人也。」鼎曰：「菩薩得之不喜，失之不怨，撻之不怒，辱之不瞋。鼎今乞得即喜，不得即怨，撻之即怒，辱之即瞋，由此觀之，去菩薩遠矣。」時眾錯愕，合掌而散焉。

系曰：答人之問，遲巧不如拙速。今傳家隔幾百年，輒伸訓對。通曰：「谷變陵遷，生來死往，萬類相糾，五道輪迴，正是不遷之法，可非定耶？經云『世間相常住』是也。又言『天地星月，各據其倫，終歸磨滅』，可非不定耶？經云『劫火洞然，大千俱壞』是也。今不壞世間相而談實相，可非定不定耶？雖定不定，俱解脫相歟？又言有喜怒非菩薩者，菩薩雖喜怒非喜怒，非菩薩而誰也？今聊雪利貞之鬱悒歟？」

唐京兆泓師傳

釋泓師者，齊安人也。神龍中來遊京輦，簡傲自持，而罕言語。語則瑰怪，頗善地理之學，占擇瑩兆，郭景淳、一行之亞焉。而出入於鄭公韋安石之門，與韋既密。一日謂之曰：「貧道於鳳樓原見一段地，約二十畝，有龍起伏之形勢，有藏此者必累世居台鼎。」韋曰：「老夫有別墅在城南，候閑隙陪國師訪地，問其價幾何。同遊林泉，又資高興。」異日，韋尋前約，方命駕次，韋公夫人曰：「令公為天子大臣，國師通陰陽術數，奈何潛遊郭外而營生藏？非所宜也。」遂止。韋曰：「舍弟滔有中殤男未葬，便示此地。」泓曰：「如賢弟得此地，不得他將相，止列卿而已。」滔買葬中殤，後為太常卿禮儀使而卒。

泓每行視山原，即為圖狀，嘗自洛東言於張說曰：「缺門道左有好山岡，丞相可用之。」說曰：「已位極人臣，吉孰過此？」泓曰：「無人勝此。」遂咨源監察乾曜，曰：「先人有遺旨矣。」後曜請假東洛遷奉而迴，已經年矣。泓再經缺門，其地已成瑩兆，問居人，曰：「源氏之松柏也。」泓曰：「冥數合歸源氏，坐可待其變化。」不數年，曜果登庸焉。

泓曾誡燕公曰：「宅勿於西北隅取土。」後成坑，三二處為穴，泓驚謂燕公曰：「禍事！令公富貴一身耳。更二十年，禍及賢郎耳。」及均、均受祿山偽官，肅宗復京，以減死論，太上皇苦執令處斬，皆符泓言然。中、睿朝皆崇重泓，號國師。占相之言，未嘗差謬。

唐洛陽罔極寺慧日傳(真法師)

釋慧日，俗姓辛氏，東萊人也。中宗朝得度，及登具足後，遇義淨三藏，造一乘之極，躬詣竺乾，心恒羨慕。日遂誓遊西域。始者泛舶渡海，自經三載，東南海中諸國一一崑崙、佛誓、師子洲等一一，經過略遍，乃達天竺，禮謁聖迹。尋求梵本，訪善知識，一

十三年。咨稟法訓，思欲利人，振錫還鄉，獨影孤征。雪嶺胡鄉，又涉四載。既經多苦，深厭閻浮，何國何方，有樂無苦？何法何行，能速見佛？遍問天竺三藏學者，所說皆讚淨土，復合金口；其於速疾，是一生路；盡此報身，必得往生極樂世界，親得奉事阿彌陀佛。聞已頂受，漸至北印度健馱羅國。王城東北有一大山，山有觀音像，有志誠祈請，多得現身。日遂七日叩頭，又斷食，畢命為期，至七日夜且未央，觀音空中現紫金色相，長一丈餘，坐寶蓮華，垂右手，摩日頂曰：「汝欲傳法，自利利他，西方淨土極樂世界彌陀佛國，勸令念佛誦經，迴願往生，到彼國已，見佛及我，得大利益。汝自當知淨土法門，勝過諸行。」說已忽滅。日斷食既困，聞此強壯。及登嶺東歸，計行七十餘國，總一十八年，開元七年方達長安。進帝佛真容、梵夾等，開悟帝心，賜號曰慈愍三藏。生常勤修淨土之業，著《往生淨土集》，行于世。其道與善導、少康異時同化也。又以僧徒多迷五辛中「興渠」。「興渠」人多說不同，或云藝薑、胡荽，或云阿魏，唯《淨土集》中別行書出云：「五辛，此土唯有四，一蒜，二韭，三葱，四薤，闕於興渠。」梵語稍訛，正云「形具」，餘國不見。迴至于闐，方得見也。根鹿如細蔓菁根而白，其臭如蒜，彼國人種取根食也。于時冬天到彼，不見枝葉。薑、荽非五辛，所食無罪。日親見為驗歟？以天寶七年卒于住寺，報齡六十九。葬于白鹿原，成小塔焉。

餘姚休光寺釋真法師，金華人也，俗姓王氏。真[彭/公/心]非辭家，童蒙悟道，發大精進，堅持戒地。一門之中，數人緇服。真學習師古，義成先聖；八部經理，宛在掌中；三乘法源，盡於度內。天寶六年，太守秦公、長史狄公知其行高，遂以名薦，主休光寺焉。二公常相謂曰：「真公通深妙法，玄無上義，問一得三。言發響應。昔利涉辯博，僧會智周，與之齊驅，未可同日。」以其八年終于寺，本縣令王璩述德刊銘，洪元齋書焉。

唐越州大禹寺神迥傳

釋神迥，未詳何許人也。幼入法流，齊莊自任，節高行峭，不惡而嚴。晚年慕稱心寺大義律師，同習三觀於天台宗，得旨於左溪禪師，即寶應年中也。加以辭筆宏瞻，華藻紛紜，為《朗師真影讚》、〈法華經文句序〉，冠絕于時，為世所貴。不詳厥終焉。

唐京兆鎮國寺純陀傳

釋純陀者，本西域人也，梵名無由翻就華言也。從遊京邑，人所欽重。上元中便云東渡，人見之，顏容若童穉之色，言已年六百歲矣。或謂為八十歲人也。言談氣壯，舉動不衰。代宗皇帝聞之，詔入，禮遇極豐，俾求留年之道。陀曰：「心神好靜，今為塵境汨之，何從冥寂乎？若離簡靜外，欲望留年，如登木采芙蓉，其可得乎？陛下欲長年，由簡潔安神。神安則壽永，寡慾則身安。術斯已往，貧道所不知也。」帝由是篤重之。以永泰三年預知必逝，遣弟子齋衣鉢進上，帝賜弟子紫衣。陀終于鎮國寺焉。

唐天台山國清寺道邃傳

釋道邃，不知何許人也。幽識遠晤，執志有恒，懸解真宗，不由邪術。末傳隋智者教道，素得玄微。荆溪之門，杏難窺望。大曆中湛然師委付《止觀輔行記》，得以敷揚，若神驥之可以致遠也。于時同門元浩迥知畏服，不能爭長矣。貞元二十一年，日本國沙門最澄者，亦東夷卉服中，剛決明敏僧也。泛溟滓，達江東，慕天台之法門，求顓師之禪決。屬邃講訓，委曲指教，澄得旨矣。乃盡繕寫一行教法東歸。慮其或問從何而聞，得誰所印？俾防疑誤，乃造邦伯作援證焉。時台州刺史陸淳判云：「最澄闍梨，形雖異域，性實同源，特稟生知，觸類玄解。遠傳天台教旨，又遇龍象邃公，總萬行於一心，了殊塗於三觀，親承祕密，理絕名言。猶慮他方學徒未能信受，所請印記，安可不任為憑云。」澄泛海到國，齋教法指一山為天台，號一寺為國清，風行電照，斯教大行。倭僧遙尊邃為祖師。後終于住寺焉。

唐懷安郡西隱山進平傳

釋進平，姓吳氏，京兆人也。早出家于永安山明福院，風表端雅。諸經大論，皆所研尋。銷文鍊注，令人樂聞。末思禪觀，於洛下遇荷澤會師了悟，且曰：「甚矣，不自外知者，所知難乎哉！」後至唐州遂居西隱山。刺史鄭文簡請入城，闡揚宗旨。示滅年八十一，大曆十四年三月入塔。

唐寧州南山二聖院道隱傳

釋道隱，姓王氏，彭原人也。風宇高峙，情性宏淡。少脫塵勞，誓從沖漠。既循師範，因願遊方，得荷澤師頓明心要。迨旋鄉土，道聲洋洋，慕其法者，若登華陰之市也。匪召員臻，檀施豐洽，鬱成

精舍焉。以大曆十三年三月晦囑累四部從，於中夜趺坐而終，春秋七十二，法臘三十五。弟子辯真建塔緘藏焉。今師、資二座全身不朽矣。議者以為得道真正，其器亦然，譬猶鍊丹之鼎，藥成鼎亦化金矣。在《華嚴》有：「諸菩薩成就如虛空忍，得無來身，以無去故；得不生身，以不滅故；得不聚身，以無散壞故。」其隱師之謂歟！

唐溫州陶山道悟傳

釋道悟者，不知何許人也。高趣放蕩，識量難貲。末住永嘉陶山側精舍，則隱居修《真誥》之所也。大曆中，代宗為陶真君樹此精舍，悟於此進修靡怠，人亦傾仰。一夕跏趺而卒，身肉無沮，如入三昧，議不焚葬。後五年，忽舉右手，狀若傳香。州官民庶異之，以事奏，勅賜紫袈裟，諡曰實相大師。至今塔中，州民祈禱，旛華填委焉。

系曰：凡諸人滅舉其指者，蓋示其得四沙門果之數也。昔求那跋摩舉二指而滅，言已證二果歟？其次法京垂滅，屈三指。慧景反握二指，捋之還屈。今悟之伸指，豈不同諸？

唐京兆歡喜傳(無側)

釋歡喜，不知何許人也。性無羈束，慈忍寬和，人未嘗見其慍色，故號之焉。觀國之光，至于京輦，貴達下民延之，少見違拒。言語不常，事迹難測。德宗皇帝聞而重之。貞元十二年勅永泰寺置戒壇度僧，時喜與保唐禪宗，別勅令受戒，緇伍榮之。至其年六月十九日，卒于本寺焉。

有會稽雲門寺釋無側者，外國人，未知葱嶺南北生也。若胡若梵，烏可分諸？建中中越磧東遊，得意則止，度其冬夏。後棲越溪雲門寺修道。然善體人意，號利智梵僧焉。相傳則是康寶月道人後身也，必嘗以事徵驗而知。與名德相遇，談話終夕。吳興皎然題側房壁云：「越山千萬雲門絕，西僧貌古還名月。清朝掃石行道歸，林下眠禪看松雪。」其高邈之狀在畫辭焉。

唐湖州杼山皎然傳(福琳)

釋皎然，名晝，姓謝氏，長城人，康樂侯十世孫也。幼負異才，性與道合，初脫羈絆，漸加削染。登戒于靈隱戒壇守直律師邊，聽毘尼道，特所留心。於篇什中，吟詠情性，所謂造其微矣。文章俊

麗，當時號為釋門偉器哉。後博訪名山，法席罕不登聽者。然其兼攻並進，子史經書，各臻其極。凡所遊歷，京師則公相敦重，諸郡則邦伯所欽，莫非始以詩句牽勸，令人佛智，行化之意，本在乎茲。及中年，謁諸禪祖，了心地法門，與武丘山元浩、會稽靈澈為道交，故時諺曰：「**霽**之晝，能清秀。」

貞元初，居于東溪草堂，欲屏息詩道，非禪者之意，而自誨之曰：「借使有宣尼之博識，胥臣之多聞，終朝目前矜道侈義，適足以擾我真性。豈若孤松片雲，禪座相對，無言而道合，至靜而性同哉？吾將入杼峯，與松雲為偶。」所著《詩式》及諸文筆，併寢而不紀。因顧筆硯曰：「我疲爾役，爾困我愚，數十年間了無所得。況汝是外物，何累於人哉？住既無心，去亦無我，將放汝各歸本性，使物自物，不關於予，豈不樂乎？」遂命弟子黜焉。至五年五月，會前御史中丞李洪自河北負譴，再移為湖守，初相見未交一言，恍若神合。素知公精於佛理，因請益焉。先問宗源，次及心印，公笑而後答。他日言及《詩式》，具陳以宿昔之志。公曰：「不然。」固命門人檢出草本，一覽而歎曰：「早年曾見沈約《品藻》、慧休《翰林》、庾信《詩箴》，三子所論殊不及此，奈何學小乘褊見，以宿志為辭邪？」遂舉邑中辭人吳季德——梁常侍均之後——，其文有家風，予器而重之。晝以陸鴻漸為莫逆之交，相國于公頤、顏魯公真卿命裨贊《韻海》二十餘卷。好為五雜俎篇，用意奇險，實不忝江南謝之遠裔矣。晝清淨其志，高邁其心，浮名薄利，所不能啖。唯事林巒，與道者遊，故終身無惰色。又興冥齋，蓋循焦面然故事，施鬼神食也。晝舊居州興國寺，起意自捐衣囊施之。嘗有軍吏沈釗，本德清人也，夕從州出，乘馬到駱駝橋，月色皎如。見數人盛飾衣冠，釗怪問之：「如何到此？」曰：「項王祠東興國寺然公修冥齋，在茲伺耳。」釗翌日往覆，果是鬼物矣。又長城赴胥錢沛行役，泊舟呂山南，見數十百人，得非提食器、負束帛，怡然語笑而過。問其故，云：「赴然師齋來。」時顏魯公為刺郡，早事交遊而加崇重焉。以貞元年終山寺。有集十卷，于頤序集。貞元八年正月勅寫其文集入于祕閣，天下榮之。觀其文也，饒饒而不厭，合律乎清壯，亦一代偉才焉。晝生常與韋應物、盧幼平、吳季德、李萼、皇甫曾、梁肅、崔子向、薛逢、呂渭、楊逵，或簪組，或布衣，與之交結，必高吟樂道。道其同者，則然始定交哉。故著《儒釋交遊傳》及《內典類聚》共四十卷、《號呶子》十卷，時貴流布。元和四年，太守范傳正、會稽釋靈澈同過舊院，就影堂傷悼彌久，遺題曰：「道安已返無何鄉，慧遠來過舊草堂。余亦當時及門者，共吟佳句一焚香。」其遺德，後賢所慕者相繼有焉。又唐黃州大石山釋福琳，姓元氏，荊州人也。父為襄陽判司，素崇釋氏。琳

幼好佛門，恒循檢操，早知割愛，就玄靜寺謙著師下剃染。登滿足法已，躬禮荷澤祖師，乃契真心。後至黃陂，剪茅營舍，終成大院，安集四方禪侶。琳終時年八十二，興元二年四月入塔。

唐安陸定安山懷空傳

釋懷空，俗姓商氏，河陽人也。膏梁之子，幼且矜莊。乃辭所親，就本州大都山廣福院出家。大明禪師默識空之器局不常，教誦群經。納法之後，觀方京都。屬北秀禪師闡化，造而決疑。後往安陸定安山，倏遇一叟，勸空鎮壓此川，我霑大利。乃結茅而止，前叟即土地神耳。尋因村民逐虎入山，見空歡喜而白之曰：「此中多虎暴，村落不安，願和尚示以息災之法。」空曰：「虎亦眾生也，若屠害於彼，彼必來報。迭相償報，何時斷期乎？老僧為諸君計者，善可禳去。」鄉人曰：「愚下無知，唯教所在。」空曰：「汝歸舍，同心陳置道場，施設大會。」空預法筵。至日之夕矣，有一虎於庵前瞑目伏地。空曰：「咄哉惡類，一報未滅，更增宿殃，噬人倫也。天不見誅，死當墮獄。吾憫汝哉！」虎被責已，忽遲迴而逝。明日齋散上山，其虎在庵前，領其七子，將齋餘擲之，各食訖。為其懺悔，七虎相次俱亡。百姓胥悅，且曰：「從師居此，俗無疵癘，仍年穀熟。」致拜而退。時張遼大夫為州牧，遣府吏慕容興往請入州，空謝病不起。部領工匠，為建禪宮。畢，示疾而終，享年八十三。貞元三年三月十六日火葬，收舍利入塔焉。

唐澧州慧演傳

釋慧演，姓苗氏，襄陽人也。父為東平糾曹。演幼入開元寺，聞經歡喜，求於辯章法師所度脫。章日講涅槃經，演常隨聽入神。既通深義，復能講談。一日結侶同遊華下，思登毛女峯，觀仙掌，路出洛中，乃參荷澤祖師，通達大觀。因入南嶽，遂住澧陽，江南得道者多矣。貞元十二年終，享齡七十九云。

唐荊州國昌寺行覺傳(皓玉)

釋行覺，姓劉氏，鉅鹿人也。穉歲英敏，立不易方，負志出家，親難沮勸。早投本部永泰伽藍，受業納戒。後於洛都遇會禪師開悟玄理，秉心矯跡。遊方見江陵古寺，殿宇摧墮，闐而無人。覺卸囊挂錫。明日，見樵夫驚怪，言「此是國昌寺，廢已三周。」將知人事相因，道從緣會，學者至矣，鄉人來矣，鬱成一寺。時節使崔尚書

請召入城，謝而不赴。檀施繼臻，乃興盛化。貞元十五年告終，年九十二。荆楚之人營塔焉。又南嶽山釋皓玉者，趙氏之子，上黨人也。出塵于法清寺，後於荷澤會下，大明心印，入嶽中蘭若養道。衡陽太守王展員外傾重。終時年八十餘，興元中入塔云。

唐鄂州開元寺玄晏傳

釋玄晏，江夏人也，姓李氏。祖善而博識多學，注《文選》，行講集於梁、宋之間。考邕，北海太守，《唐書》有傳。晏釋昧之齡，決志離俗，至德初年，誦經高第，依僧崇真剃落，配住開元寺。大曆三年，從大闍梨真悟受具足法，便尋律範，目不視靡曼，足不履邪徑，於四儀中，無終食之間違教。儀形峭拔，眉目秀朗，如孤鴻野鶴，獨立迥澤，望風瞻想，自有遠致。性多分劑，苟與惡比丘共住，遑遑然如以佉陀羅炭浴身也。不出戶牖，焚香掃地，端坐盡日。人不堪其憂，而晏居之，以為三禪之樂不敵也。晏少習毘尼，長學金剛，解空破相，臻極玄奧。而聞律藏有一時外學之說，或賦詩一章，運思標拔，孤遊境外。彭城劉長卿名重五言，大嗟賞之。由是風雲草木，每有賦詠，輒為工文者之所吟諷也。晏房舍在寺之北隅，頗為湫陋，凡當時名士共營草堂，有若陳郡袁滋、趙郡李則、盧來卿、于文炫、蔡直偕檀捨同締構也。鄂嶽連帥何公旌其行業，請居晉安，不移其志。建中伊始，符載與楊衡、李演約晏為塵外之侶焉。以貞元十六年九月十四日示滅，春秋五十八，僧臘三十四。遷塔于黃鶴山南原也。

唐南嶽澄心傳

釋澄心，姓朱氏，東海人也。厥父任濟源令。天寶中，安、史之亂遇害。心釋齒隨母氏至河內，貧極，母即從人。心不樂隨嫁。心之志氣不群，乃投應福寺智明法師，求教勗披削。登戒後雲遊鳥宿，務急參玄，於秀師高足門下了其法要。乃觀諸方名跡，遂止衡嶽。請益之僧，摩肩駢足。時太守吳憲忠請心入州治，謝而不行。再命棲于龍興寺，來問道者，丈室恒滿。貞元十八年壬午十一月示滅，春秋七十六，以其月二十七日入塔云。

唐杭州天竺寺道齊傳(法如)

釋道齊，俗姓趙氏，錢塘人也。幼而察慧，器度浩然，入于庠序，經籍淹通。偶立當衢，見僧分衛，行諷淨名經，冥然喜之。且召入

家設食，問僧「為居何寺？」答曰：「定水伽藍。」因請父母出家，母曰：「吾生汝時，夢手擎日月，嘗占是夢，云貴子，有五等之分。脫或捨家，吾無望矣。」由是往定水從師。年十七，進具，習毘尼法。復投靈隱寺，學華嚴經義。自爾於天竺寺修習禪定，行杜多行。其山有石窟，齊於中坐，忽巨蟒矯首哈呀為吞噬之狀，愀然不動。時有虎豹近于石室，群鹿時時馴擾。又山椒乏水，以錫杖剝地，其泉迸流，實供其用。貞元二十一年，四方學者勸請講華嚴經，時雪飄飛，忽生華二本，狀若芙蓉，熠燿光發，觀者嗟歎，見所未見。齊道譽惟馨，其節儉惡衣惡食，人所不勝。後終于山寺焉。又唐太行山釋法如，俗姓韓，慈州人也。少為商賈，心從平準，至今東京相國寺，發心依洪思法師出家。隸業偕通，遂往嵩少間，遊於洛邑，遇神會祖師授其心訣。後登太行山，見馬頭峯下可以棲神，結茅而止。有褚整戍將王文信率眾建精廬焉。刺史李亞卿中丞命入城，不赴。示寂，報齡八十九。元和六年三月遷塔云。

唐金陵莊嚴寺慧涉傳

釋慧涉，俗姓謝氏，會稽人也。即東晉太傅安之後。是知傑氣英靈，間代而出。津梁拔俗，異世豈無？涉為人清素，戒節孤峻，好寂為樂，不棲名聞。以大曆之初，於金陵莊嚴寺遇牛頭山忠禪師，一言知歸，遂命入室，授其法要。服膺道化，待之彌載，不憚其勞。泊忠捐世，踵武茲嶺，無遊人境。一衣方丈，操節彌高。自是以來，問道者眾，四維方域，無不霑洽，五十年中，翕然歸德。以長慶二年終於山院，春秋八十有二。門弟子惟晏等奉全師禮，建塔於寺之西北，勒銘紀德。若考師之藝文，則草堂、廬嶽，各美於當代矣。

唐京兆千福寺雲邃傳(清源)

釋雲邃，不知何許人也。通綜經論，解將行兼。仍貫群書，號為該博。好遠汎愛，人無間然。累朝詔入內道場，順宗已來，掌領譯務。憲宗初，句當右街諸寺觀釋道二教事，別勅充西明、千福兩寺上座。風猷淹雅，綱任肅然。昔賢以道生比郭林宗，邃公有焉。次潤州棲霞寺釋清源，姓馮，南徐延陵人也。釋年貞素，長亦弗群，俗態不拘，法流爰入。造涉公為弟子焉。學瞻經律，人罕疇匹。棲于攝山，積其齡稔。長慶初，工部尚書李相國德裕鎮于浙西，洗心道域，延居京口，諮稟禪要，雅契夙心。及贊皇去郡，返錫棲霞，終于住寺。

唐京師保壽寺法真傳

釋法真，不知何許人也。器識悠深，學問宏博，研窮梵典，旁蹟儒書。講導之餘，吟詠情性。公卿貴士，無不宗奉。洎長慶中，帝頗銳懷佛事，真屢膺召命，內殿祇奉。四年，赴禁中道場。睿武昭愍皇帝御于法席，顧問三寶功能，真得應對，而辯給圓轉，援據粲然。帝悅，因請云：「久廢壇度僧，未全法者皆老朽。」蓋兩江間兵革未偃之故。尋詔兩街佛寺各置僧尼受戒壇場，自三月十日始至四月十日停，仍令兩街功德使各選擇有戒行僧謂之大德者，考試僧尼等經，僧能暗誦一百五十紙，尼一百紙，即令與度。真頻奉勅修功德，故遂奏請。真之德望，實唱導之元。罔知終所。

唐呂后山道場寧賁傳

釋寧賁，姓李氏，隴西人也。家于亳州蒙城，幼奉釋尊，而不言乎簪組之緒，無得稱其代諱焉。賁所吐論，皆以覺了，不取諸相。心通定慧，而盡虛空，無以邊中可測，無以文字求我。因往洪州，尋道一祖師，見而奇之，語而異之，大乘法器得其人矣。遂乃具戒，作入室弟子。師資數歲，道議殊倫。欲往天台，至越呂后山岑[山/廖]曰：「即是諸佛住處，何必天台也？」賁菩提直幹，挺秀七尺。村豪里宿覩其異狀，歸依瞻仰，老幼爭先。同味醞醐，疾病皆愈。是時多有行路[糸*留]戾，欲暴僧徒，賁乃引之而前，威之而退，驚駭儀貌，禮足歸依。調御山林，魔邪懾伏。不下巖嶺近萬餘辰，德遠道高，僧徒彌眾。先時居處隘陋，兼無殿堂。眾議經營，任人資福，遠村窮墅亦競助緣。土石木工，程材售巧，約山橫棟，臨澗飛簷，斤師斧子，鳥立猿褭，揆景促力，星再迴天，殿堂成矣，佛像列矣。精耀俯仰，照山姘雲，人天不殊，別開佛土。大和二年六月七日，遠聞道場之內有鼓鞀絲竹之聲，是夜二更，恬然化滅。生形七十五，炎臘四十一。是月權殯于杉園，禮也。齋祭殊品，哀號震山，慘樹色於禪枝，咽水聲於石穴。物尚知感，人情可量。大和五年九月茶毘，建塔於道場巽山，稟先意也。

唐閬州長樂寺法融傳

釋法融，姓嚴氏，閬中人也。穉齒好朴素，惡華楚之服。父訓令秉筆，便畫佛形像。至于聚戲，搏沙為塔，所作無非佛事。年甫十三，見釋子，摳其衣坐執經卷，苦求出家。依長樂寺慧休法師為弟子，經誦偕通，乃霑戒善。遂講南山律鈔。後遊雲水，見嵩嶽普寂

禪道風行，密付心印。往弋陽福寧寺，放蕩閑居，學道者麇至。以大和九年示疾而終，春秋八十九。其年正月十日，門人奉神座入塔焉。

宋高僧傳卷第二十九

宋左街天壽寺通慧大師賜紫沙門贊寧等奉 勅撰

雜科聲德篇第十之二(正傳十九人附見六人)

唐上都大安國寺好直傳

釋好直，俗姓丁氏，會稽諸暨人也。幼不喜俗事，酒肉葷茹，天然不食。因投杭塢山藏師落髮。元和初受具於杭之天竺寺。凡百經律論疏鈔，嗜其腴潤。一旦芒屨策杖，詣洪州禪門，洞達心要，虛往實歸。却於本郡大慶寺，求益者提訓，凡二十餘載，為江左名僧。見儒士能青眼，故名輩多與之遊，往往戲為詩句，辭皆錯愕。凡從事廉問護戒於越，入境籍聲實而造其戶，不獨能誘，亦善與人交者。大和中遊五臺，路出京邑，一夕而去。前護戒郟志榮、宋常春二內侍尤味其道，孜孜遠招。開成初再至京國，二貴人同力唱和，牽緘虐留，致安國寺大方丈以居之。王畿龍象，莫不欽重。無何召入為供奉大德，非所好也，徇俗受之。然歸歟之歎，未嘗少棄。四年十月二十五日囑累弟子訖，奄然而寂，春秋五十六，夏三十二。郟、宋二家率財權瘞于滄水，東人皆悲之，門人鑑諸後歸葬于崇山之南，華嚴寺起塔。會昌四年，起居舍人韋絢為碑紀代焉。

唐天台山禪林寺廣脩傳(高閑)

釋廣脩，俗姓留氏，東陽下崑人也。淑質貞亮，早預邃師之門，研窮教迹，學者雲擁。日誦法華、維摩、金光明、梵網、四分戒本。六時行道弗休，彌年更篤。每一歲行懺法七七，則第四隨自意三昧也。開成三年，日本國僧圓載來躬請法，台州刺史韋珩。請講止觀于郡齋。以會昌三年癸亥歲二月十六日終于禪林本寺，俗壽七十三，法臘五十二。遷神于金地道場，法付門人物外焉。咸通七年，門人良汶發墳火葬，淘收舍利一千餘粒，重塔緘藏焉。又湖州開元寺釋高閑，本烏程人也。髫年卓躒，范露異才。受法已還，有隣堅志，苦學勞形，未嘗少惰。後入長安，於薦福、西明等寺隸習經律，克精講貫。宣宗重興佛法，召入對御前草聖，遂賜紫衣，仍預臨洗懺戒壇，號十望大德。性情節操，轟然難屈。老思歸鄉，終于本寺。弟子鑿宗，勅署無上大師，亦得閑之筆法。閑常好將雪川白紵書真草之蹤，與人為學法焉。

唐高麗國元表傳(全清)

釋元表，本三韓人也。天寶中來遊華土，仍往西域，瞻禮聖迹，遇心王菩薩指示支提山靈府，遂負《華嚴經》八十卷，尋訪霍童，禮天冠菩薩，至支提石室而宅焉。先是此山不容人居，居之必多霆震猛獸毒蟲，不然鬼魅惑亂於人。曾有未得道僧輒居一宿，為山神驅斥，明旦止見身投山下數里間。表齋經棲泊，澗飲木食，後不知出處之蹤矣。于時屬會昌搜毀，表將經以華櫚木函盛，深藏石室中。殆宣宗大中元年丙寅，保福慧評禪師素聞往事，躬率信士迎出甘露都尉院，其紙墨如新繕寫，今貯在福州僧寺焉。又會稽釋全清，越人也。耨耘戒地，芬然杜若。於密藏禁呪法也，能効鬼神。時有市僧王家之婦患邪氣，言語狂倒，或啼或笑，如是數歲。召清治之，乃縛草人長尺餘，衣以五綵，置之於壇，呪禁之。良久，婦言乞命，遂誌之曰：「頃歲春日於禹祠前相附耳。如師不見殺，即放之遠去。」清乃取一錮以鞭驅芻靈入其中，而呦呦有聲，緘器口以六乙泥，朱書符印之，瘞于桑林之下，戒家人無動之，婦人病差。經五載後，值劉漢宏與董昌隔江相持，越城陷，人謂此為窖藏，掘打錮破，見一鷓闖然飛出，立於桑杪而作人語曰：「今得見日光矣。」時清公已卒也。

唐鎮州龍興寺頭陀傳

釋頭陀，本下[邱-丘+里]磨家之子，然其器度溫潤，若長者之規。厥父課令其守磨，夜深憫驢牛之困憊，自己代之。放其畜嚙草飲水歇臥者。父母知之，為其罷業。兒亦乞出家，遂落髮受具。持無嗔怒，唯收拾糞掃物為衣，可重數斤。臥具三十年未嘗更易。苦節之行，無有倫比，真定之民重之。而不受人供施，號抖擻上人焉。系曰：糞掃衣者，四聖種之一也。凡修鍊者必願成此行，奈何少堪任之！其勝之者。勇猛堪能之人也。

唐南嶽山全毗傳

釋全毗，本餘杭人也，入徑山禮法濟大師求剃染。稟質強渥，且耐飢寒。諸所參尋，略得周遍，乃隱衡嶽中立草庵。木食澗飲，結軟草為衣，伏臘不易。有贈毗詩云：「窠居過後更何人？傳得如來法印真。昨日祝融峯下見，草衣便是雪山身。」此太常孫渥舊相南遷有作，事詳南嶽高僧傳云。

系曰：草衣在南嶽炎方，壯年即可，未知衰老徙居幽朔耐否？如能，則上上根勝士也。

唐越州明心院慧沐傳

釋慧沐，俗姓祝氏，即世暨陽人也，代為著姓。沐幼沖之歲，家法嚴明，訓授儒經，鬱成造秀。將隨計吏，謁覺智寺契真禪師，即諡大觀者是也，因以微諷。沐由茲開悟。明年剃度，乃詣洪井，禮觀音禪師，頓了心契。咸通七載，還歸故鄉，邑宰韋公迺率信心者，造棲真院，四方禪客無遠不屆。廉使裴延魯召沐，因營鑑水坊精舍成，還以坊為題榜，既而居之，安而能遷。允明州掾齊肇請，住玉笥峯，未久而卒。壽八十八，臘四十五，則。乾寧五年七月三日也。

唐幽州南瓦窰亡名傳(祝融峯禪者)

釋亡名，履行尤峻，獨居燕城南窰竈間。天祐中，幽、薊不稔，道殍相望。因分衛迴，聞車轍中呱呱之聲，憫而收歸，乃飢民所棄女子也。以求牛乳哺之。當七八歲，引於城中求色帛以衣之。及笄年也，容色豔麗，殆非凡俗，或譏呵者，僧終無渝志。適遇燕帥劉仁恭從禽逐兔，直入僧居窰內。一卒見女子侍僧之側，遂白帥，劉往親見，問其故，皆以實對。劉曰：「弟子欲收之，可乎？」僧曰：「諾。」早驗無愷意，自扶上馬。歸府，元真處子也，劉益哀之，不令伍於下位。仍重其僧，謂為果位中人也。別造精舍以處之，劉旬兩往謁焉。其僧疾沒，門人入訃，女方獨坐，聞之哀慟而死焉。劉為僧營塔標誌矣。又祝融峯禪者(亡名)，為人抗直，不事威儀，每一舉揚，善標宗要，道俗歸之若市。嘗飲酒遇毒，當時吐下，透落腐衣裂石，體中無惱。每有一蛇一虎為衛護狀。迨終闍維，留骨一片，大如琵琶槽。僧眾構火重焚，焚時色同火質，火盡灰寒，色白如雪，豈非得全身分堅固設利羅乎！至今嶽中傳其言句，立其浮圖，號祝融峯道者焉。

唐洪州開元寺棲隱傳(寶安)

釋棲隱，字巨徵，姓徐氏。少而端厲，神解天然。佩觿之歲，酷好出塵，父母不可壞其意。削髮之後，納法已還，其間服勤於學，深入毘尼壺奧焉。又於風雅之情，非彫刻而得，成自天姿。廣明中，避巢寇，入廬山折桂峯，實嘉遁也。然多於華朝月夕，晚照高秋，

練句成聯，合篇為集，往往酋健瀏亮，散在人口。身擁零破麻納，不識者謂之山叟野人，殊無能者。得歸宗禪旨，與同舉揚，且無悖法。平常與貫休、處默、脩睦為詩道之遊，沈顏、曹松、張凝、陳昌符皆處士也，為唱誦之友。隱為群士響臻，淡然若水。後寇盜稍平，入荆楚，登祝融，蹤迹嘯傲。光化三年，遊番禺，受知於太尉徐彥若。同光二年，於洪井鉅鹿魏仲甫邂逅，以文道相善。後唐天成中卒。詩弟子應之携隱之詩計百許首，投仲甫為集序，今所行者號桂峯集是也。次嘉禾靈光寺釋寶安，俗姓夏，姑蘇常熟人也。風神爽拔，性行淑均。壯年家務所嬰，誓思脫屣。及進具之後，專習定門，洞達真訣，而不衣絲縷，惟專分衛，寢則芻糝。安昔遊五臺，嗟南人之不識，遂率道俗同模築五臺之制於靈光寺，今且存焉。事畢，無疾而終。受生一百有十八歲，法臘七十八。由身不壞，門徒布漆之，別院供養。至會昌毀寺，遂焚之。

唐河東懸甕寺金和尚傳

釋金和尚者，姓王氏，西河平遙人也，所生之地猪坑村。幼而魁岸，為人魯質。所作詭異，與平人不類。於嵩巖山出家。其後身裁一丈，腰闊一圍，言事多奇差，終後如在。鄉人供祭之，乞願，皆遂人意。西河至稽胡皆鄭重焉。

梁四明山無作傳

釋無作，字不用，姓司馬氏，姑蘇人也。父陳宛丘縣尉。母戴氏始妊時，夢異沙門稱姓徐，住持流水寺，欲寄此安居，言訖跏趺而坐。其父同夜夢於盤中書一字，甚稱心，自言可以進上天子。至明，各說所夢，母曰：「意其腹中必沙門也。」矢之曰：「如生兒，放於流水寺出家。」及生，果岐嶷可愛，且惡葷羶之氣。年迨四歲，母自教誦習，利金易礪，記憶無遺。厥父欲其應童子舉業，漸見風範和潤，且恒有出塵之意。俄爾父偷窺姚氏之女且美容儀，酷欲取之。母切忌之，因曰：「或捨是子出家，寬汝所取。」父乃許之，送入流水寺中。纔及月餘，姚氏仳離，時謂此女是善知識，為作之出家增上緣矣。年二十，受具足法。相次講通刪補律鈔、法華、上生等經、百法論。一性五性宗教，勵精尋究。孔、老書篇，無不獵涉。後參其玄學於雪峯存禪師，深入堂奧。至廬陵三顧山，檀越造云亭院，豫章創南平院，請作住持，皆拂衣而去。前進士唐稟作藏經碑，述作公避請之由。居洪井十載，且未識洪師鍾氏之面。乃遊會稽四明，因有終焉之志。吳越武肅王錢氏仰重，召略出

四明，因便歸山，蓋謝病也。有詩杼意呈王，王亦不留。詩云：「雲鶴性孤單，爭堪名利關？銜恩雖入國，辭病却歸山。」時奉化樂安孫郃退居嘯傲，不交緇伍，唯接作，交談終日。進士楊弇亦慕為林下之遊。以梁開平中卒于四明，春秋五十六。初作善草隸，筆迹酋健，人多摹寫成法。述諸色禮懺文數十本，注道安六時禮佛文一卷，并詩歌，並行于代。作不入尼寺，不謁公門，不修名刺，不趨時利，自號逍遙子焉。

梁成都府東禪院貫休傳(處默曇域)

釋貫休，字德隱，俗姓姜氏，金華蘭溪登高人也。七歲，父母雅愛之，投本縣和安寺圓貞禪師出家為童侍。日誦法華經一千字耳。所暫聞不忘於心。與處默同削染，隣院而居，每隔籬論詩，互吟尋偶對，僧有見之，皆驚異焉。受具之後，詩名聳動於時，乃往豫章，傳法華經、起信論，皆精奧義，講訓且勤。本郡太守王慥彌相篤重。次太守蔣瓌開洗懺戒壇，命休為監壇焉。乾寧初，齋志謁吳越武肅王錢氏，因獻詩五章，章八句，甚愜旨，遺贈亦豐。王立去偽功，朝廷旌為功臣。乃別樹堂立碑，記同力平越將校姓名，遂刊休詩于碑陰，見重如此。休善小筆，得六法。長於水墨，形似之狀可觀。受眾安橋強氏藥肆請，出羅漢一堂，云：「每畫一尊，必祈夢得應真貌，方成之。」與常體不同。自此遊黟、歙，與唐安寺蘭闍梨道合。後思登南嶽，北謁荆帥成汭，初甚禮焉，於龍興寺安置。時內翰吳融謫官相遇，往來論道論詩。融為休作集序，則乾寧三年也。尋被誣譖於荆帥，黜休于功安。鬱悒中題硯子曰：「入匣始身安。」弟子勸師入蜀，時王氏將圖僭偽，邀四方賢士，得休甚喜，盛被禮遇，賜賚隆洽，署號禪月大師。蜀主常呼為「得得來和尚」。時韋藹舉其美號。所長者歌吟，諷刺微隱，存于教化。體調不下二李——白、賀也。至梁乾化二年終于所居，春秋八十一。蜀主慘怛，一皆官葬，塔號白蓮，於城都北門外昇遷為浮圖，乃偽蜀乾德中，即梁乾化三年癸酉歲也。休能草聖。出弟子曇域，癸酉年集師文集，首安吳內翰序，域為後序。韋莊嘗贈詩曰：「豈是為窮常見隔，只應嫌酒不相過。」又廣成先生杜光庭相善，比鄉人也。休書跡，好事者傳號曰姜體是也。嘗覩休真相，肥而矧，蜀宰相王鐸作讚。曇域戒學精微，篆文雄健，重集許慎《說文》，見行于蜀。有詩集，亞師之體也。

梁廬山雙溪院國道者傳

釋國道者，未知何許人也。器凝淳粹，行敦高邁，塊然獨處，翩翩在形器之上矣。參學攸廣，欲歇孤征，愛廬山秀異，誓隱淪以求其志。考築草舍，灌園植蔬，任山中居人掬取。或問其故，答曰：「貧道無心而種，無心而捨也。」驗此見知，實達道之上流矣。修睦僧正恒傾意奉重，詩贈國公云：「入門空寂寂，真箇出家兒。有行鬼不見，無心人謂癡。」後終于院，葬于雙溪山原，有小浮圖焉。今以「國」字呼之，為名邪？姓邪？未得詳焉。

梁泉州智宣傳

釋智宣，泉州人也。壯歲慕法，學義淨之為人也。輕生誓死，欲遊西域，禮佛八塔，并求此方未流經法。以唐季結侶渡流沙，所至國土，懷古尋師，好奇徇異，聚梵夾，求舍利。開平元年五月中達今東京，進辟支佛骨并梵書多羅葉夾經律。宣壯歲而往，還已衰耄矣。梁太祖新革唐命，聞宣迴，大悅，宣賜分物，請譯將歸夾葉。于時干戈，不遑此務也。

梁江陵府龍興寺齊己傳

釋齊己，姓胡，益陽人也。秉節高亮，氣貌劣陋。幼而捐俗於大瀉山寺，聰敏逸倫，納圓品法，習學律儀。而性耽吟詠，氣調清淡。有禪客自德山來，述其理趣，己不覺神遊寥廓之場。乃躬往禮訊，既發解悟，都亡朕迹矣。如是藥山、鹿門、護國，凡百禪林，孰不參請。視其名利，悉若浮雲矣。於石霜法會，請知僧務。梁革唐命，天下紛紜。于時高季昌稟梁帝之命，攻逐雷滿出渚宮，己便為荊州留後，尋正受節度。迨乎均帝失御，河東莊宗自魏府入洛，高氏遂割據一方，搜聚四遠名節之士，得齊之義豐、南嶽之己，以為築金之始驗也。龍德元年辛巳中禮己於龍興寺淨院安置，給其月俸，命作僧正，非所好也。其如閑辰靜夜，多事篇章，乃作渚宮莫問篇十五章，以見意，且徇高之命耳。己頸有瘤贅，時號詩囊。棲約自安，破納擁身，臬麻纏膝。愛樂山水，懶謁王侯，至有「未曾將一字，容易謁諸侯」句為狎。華山隱士鄭谷詩相酬唱。卒，有《白蓮集》行于世，自號衡嶽沙門焉。

後唐靈州廣福寺無迹傳

釋無迹，姓史氏，朔方人也。當宣宗御宇，佛法中興。大中九年，年正十三，決志捨家，投白草院法空大師為弟子，操執密績，拂攘

囂塵。咸通三年，用賓于京室，得戒度於西明寺矣。凡於百藝，悉願遊焉。慕定林威能畫，戴安道能琴，我則講貫之餘，兼而綜習。先是唐恒夫嘗作鎮朔方，後於輦下相遇，以家僧之禮待焉。蓋知言行相高，復能唱導聞。恒夫白兩街功德使，請隸西明寺。旋屬懿宗皇帝於鳳翔法門寺迎真身，右宣副使張思廣奏迹充乎讚導，悅懌上心，宣賚稠厚。光啟中傳授佛頂熾盛光降諸星宿吉祥道場法，歸本府。府帥韓公聞其堪消分野之災，乃於鞠場結壇修飾，而多感應。景福中，太尉韓公創修廣福寺，奏迹住持。皆以律範繩之，塞垣閒求戒者必請為力生焉。梁乾化丙子歲，中書令韓公洙奏署師號曰鴻遠歟。後唐同光三年乙酉歲四月一日，坐終于丈室。筋骨如生，風神若在，蕃漢之人觀禮稱歎曰：「昔至德中當府龍興寺有高士辯才坐亡，遂漆布之。乾寧元年府帥舉奏，勅諡曰能覺。今迹師可不異時而同事哉！」中書令韓公命工布漆焉。莊宗朝軍府從事薛昭紀為碑頌德云。

後唐明州國寧寺辯光傳

釋辯光，字登封，姓吳氏，永嘉人也，唐史官左庶子兢之裔孫也。幼捨家於陶山寺剃度。居必介然，不與常人交雜。好自標遇，慢易緇流。多作古調詩，苦僻寡味，得句時有得色。長於草隸，聞陸希聲謫宦于豫章，光往謁之。陸恬靜而傲氣，居于舟中，凡多迴投刺，且不之許接。一日設方計干謁，與語數四，苦祈其草法，而授其五指撥鐙訣。光書體當見酋健，轉腕迴筆，非常所知。乃西上，昭宗詔對御榻前書，賜紫方袍。後謁華帥韓建，薦號曰廣利。自華下歸故鄉，謁武肅王錢氏，以客禮延之。而性畔岸，弗愜王情，乃歸甬東終焉。有文集，知音者所貴。出筆法弟子從瓌、溫州僧正智琮，皆得墨訣。有朝賢贈歌詩，吳內翰融、羅江東隱等五十家，僅成一集。時四明太守仰詮素重光高蹈，躬為喪主，理命令葬。後三年，淮西域焚之，發棺儼若生相，髭髮爪皆長。茶毘收舍利，起小塔焉，則後唐長興中也。

晉宣州自新傳

釋自新，姓孫氏，臨淄人也。濯戒尋師，曾無懈廢，聞膺禪師化被鍾陵，往參問焉。從雲居長往，迴錫嘗隱廣德山中。屬兩浙文穆王錢氏率吏士躬征苑陵入山寺，群僧皆竄，唯新晏如。問曰：「何不避乎？」對曰：「東西俱是賊，令老僧去何處逃避？」王驚其訐直，迴戈遣歸，見武肅王問之，言無所屈。加之高行，造應瑞院居

之，假號曰廣現大師。初新嘗入宣城山采藥，穿洞深去，始則闇昧，尋見日分明，行僅數里，洞側有別竅，溪水泛泛然。隈一大松，枝下有草庵，一僧雪眉擁納坐禪。旁有一磬火器，新擊磬，遂開目驚曰：「嘻！師何緣至此？」乃陳行止，揖坐，取石敲火煎茗，香味可愛。日將夕矣，僧讓庵令新宿，顧其僧上松巔大巢內，聞念法華經，聲甚清亮。逡巡，又咄罵云：「此群畜生毛類，何苦生人恐怖？速歸林薄，不宜輒出。」叱去，新窺之，乃虎豹弭耳而去。明日謂其僧曰：「願在此侍巾履。」僧曰：「自居此地，百見草枯，四絕人煙，非師棲息處。」又問：「莫飢否？」相引溪畔，有稻百餘穗，收穀，手搗三朶黃粱。挑野蔬和煮，與食。後遣回去。送至洞口曰：「相遇非偶然也。所食茶與菜糜，師平生不乏食矣。」遂遵路回本院已，月餘日命同好再往尋之，失洞蹤跡。後在浙中，充寶塔寺主，以天福中卒于住寺，年八十餘。今影在冷水灣前，小院存焉。

漢杭州耳相院行脩傳

釋行脩，俗姓陳，泉州人也。少投北巖院出家，小心受課，誦念克勤。十三削髮，往長樂府戒壇受上品律儀。年始十八，參雪峯山存禪師，隨眾請問，未知詮旨。辭存師，言入浙去。存曰：「與汝理定容儀，令彼土人睹相發心。」遂指其耳曰：「輪郭幸長，垂璫猶短，吾為汝伸之。」雙手平曳，登即及肩，如是者三，自此長垂，見者舉目。後唐天成二年丁亥歲入浙中，傾城瞻望，檀施紛紛。遂構室于西關高峯，為其宴息，後鬱成大院。脩別無舉唱，默默而坐。人問，唯笑而止。士女牽其耳交結於頤下，杭人號長耳和尚。以乾祐三年庚戌歲十一月示疾，動用如平時，以三月中夜坐終。檀越弟子以漆布，今亦存焉。後寄夢睦州刺史陳榮曰：「吾坐下未完。」檢之，元不漆布，重加工焉。

宋宜陽柏閣山宗淵傳

釋宗淵，姓宮氏，高密人也。幼通經籍，察慧若神，忽願出家于東萊北禪院。後參學江表岳中祖師勝友，資神潤己，往造實歸。僻好吟詩，於荆楚間嘗師學于齊己之體，自言緣情在品物流形之外。覽天下山川，且曰「步仞之丘，巨獸無以隱其軀」。愛宜陽柏閣山居之，以求其志。其孤潔耿介，凡俗不可造次而見。日別持觀音支品，蓋曾有善相人言淵促齡，勉令受持普門品也。至太平興國五年十月，預言終期，令木工作座，如鹿頂形。連促木工，明日齋時要

用，至是果坐終焉。鄉人無遠近皆來焚香設拜，當年遷小塔于寶雲寺之山原，年八十三。有洛西集。著挽辭五十首，一云：「舉世應無百歲人，百年終作塚中塵。余今八十有三也，自作哀歌送此身。」紙衣一襲葬焉。後開發，神色宛然，弟子淡然、奉明葬之于巖穴之中矣。

論曰：

太極是生兩儀，兩儀生萬物，絪縕而出，鼓動而萌。由庶類以蚩蚩，稟自然而歷歷。自然者道，道惟本心，心無不通，通物之理之謂道也。道其不一，蕃息流形，若究天倪。物亦惟一，乾一也，坤一也，殆乎因動成變，以變求占，則生象不一歟？至如鳥獸交氣，草木構精，或尚其牡而疎其雄，或同乎根而異乎實。鰲飛似鳥，橘移成枳。交攬為僮，羽嘉生鳳，若此之倫，物類糅錯之所致也。雜之時大矣哉！事有重賤，物有紛綸，乃彰雜名，非一名而統盡。故曰義雖博，則知可以一名舉也。昔梁傳中立篇第十曰〈唱導〉也，蓋取諸經中「此諸菩薩皆唱導之首」之義也。唱者，固必有和乎？導者，固必有達者。終南釋氏觀覽此題，得在乎歌讚表宣，失在乎兼才別德也。譬若別均天分，重賦全才，虎雙翼而飛，鷹四足而擊也。於是建立〈雜篇〉包藏眾德，何止聲表？無所不容。

或曰：「《續傳》改作名題，自何稽古？」通曰：「象班孟堅加九流中雜流也。如其立教，如其為人，匪獨陰陽，不專刑律，或兼名墨，或涉縱橫，則可目之為雜家流也。《漢書》有變，拾太史公之遺；澄照建題，正梁慧皎之僻。」或曰：「胡不聞楊子雲疾其雜乎？」通曰：「彼惡夫淮南、太史公不宗孔而無純德耳。此則應雜而雜，斷無雜咎歟！今作傳者，若游、夏焉，觀其起隱終哀，何敢措一辭也。」或曰：「何忽變〈唱導〉成〈聲德〉耶？」通曰：

「聲之用大矣哉！良以諸佛刹土，偏用一塵以為警悟。唯忍土最尚音聲，行為佛事。及觀音說圓通，世尊稱讚者，為被聞熏。故若毘目仙人，香積世界，樂不樂爰居之耳，園不入方鑿之穿。是以影勝大王止前驅之象馬，鉢囊釋子動合會之人天。返魂者隨唄聲而到家，光潔者聞唄聲而歡喜。乃可謂宮商佛法，金石天音，哀而不傷，樂而不佚，引之入慈悲之域，勸之離繫縛之場。脫或執受不精，器能無取，乃不可謂為聲德也。于今搜有隣之德，聚兼講之才，三人之師，于斯見矣，四戰之國，孰敢攻乎？得非備五彩而服章，含八風而成樂，則有登天竺而作猿梵，動塔鈴而貫虹霓。副天請而都講隨，占地理而宰臣應，觀音摩其髮頂，彌勒訴其雷神。始化倭民，坐亡舉指，見慈顏而不怒，作《詩式》以安禪。巨蟒不驚，山魔懾伏，臨神鑑而懸知澄汰，禮天冠而誓隱靈蹤。破甕飛烏，勞身代畜。衡山衣草，禹寺明心，養童女以身全，遇毒流而命

在。德符禪月，軀涉磧沙。或辯之利通，或聲之流靡，猗嗟碩德，於爍群公，若諸根之互能，同五事之俱舉，故強名為『雜』也。蒼筤接栴檀之樹，數倍馨香；鷹鷂育金翅之巢，千重猛鷲。咨爾同道，聽乎直言。為僧不應於十科，事佛徒消於百載。如能以高為本，以德為枝，以修為華萼，以證為子實，然後婆娑挺蓋，鬱密成陰，周覆三千大千，號之曰大菩提樹也歟！」
宋高僧傳卷第三十終

後序

前代諸家或云：「僧傳、僧史記錄，乃題號不一，亦聲迹有殊。」至梁沙門慧皎云：「高僧傳蓋取高而不名者也。」則開其德業，文為十科，見於傳內。厥後有《唐續高僧傳》，倣仰梁之大體而以成之，洎乎皇朝《有宋高僧傳》之作也。清風載揚，盛業不墜。贊寧自至道二年奉叡恩，掌洛京教門事，事簡心曠之日，遂得法照等行狀。撰已易前來之闕如，尋因治定其本。雖大義無相乖，有不可者以修之。先者所謂加我數年，於僧傳則可矣已。斯幸復治之，豈敢以桑榆之年為辭耶。時方徹簡，咸平初承詔入職東京右街僧錄，尋遷左街，乃一日顧其本未及繕寫，命弟子輩緘諸篋笥，俾將來君子知我者以僧傳，罪我者亦以僧傳，故於卷後而書之云耳。

[CBETA 贊助資訊](https://www.cbeta.org/donation/index.php)

[.\(https://www.cbeta.org/donation/index.php\)](https://www.cbeta.org/donation/index.php)

CBETA 成立於 1998 年，於 2023 年 8 月 7 日轉型成為基金會。成立多年來，一部部佛典在嚴謹控管中轉換為數位典藏，不只數量龐大，而且文字校訂精確可信，又加新式標點方便閱讀。「CBETA 電子佛典集成」不僅獲得國際學界的重視及肯定，也成為大眾廣為運用的公共資源，如此成果都是在廣大信眾及有識之士的支持下才得以實現。

對一個從事佛法志業的非營利團隊，能夠長期埋首理想、踏實耕耘是非常不容易的。如今，CBETA 運作經費日漸拮据，但「佛典集成」仍有許多未竟之功。因此，懇請大家慷慨解囊、熱情贊助，讓未來有更多更好的電子佛典。

您的捐款本會皆會開立收據，此收據可在年度中申報個人或企業的綜合所得稅減免。感恩諸位大德的善心善行，以及您為佛典電子化所做的一切貢獻。

信用卡線上捐款

本線上捐款與 netiCRM 及 NewbPay 藍新金流合作，資料傳送採用 SSL (Secure Socket Layer) 傳輸加密，讓您能夠安全安心地進行線上捐款動作。

不管您持有的是國內或國外卡，所有捐款最終將以新台幣結算，所以我們所開立的捐款收據也將以新台幣計。

線上刷卡支持定期定額與單筆捐款。(銀聯卡不支援定期定額)

[前往捐款](#)

劃撥捐款

郵政劃撥帳號：5 0 4 6 8 2 8 5

戶名：財團法人佛教電子佛典基金會

欲指定特殊用途者，請特別註明，我們會專款專用。

線上信用卡 / PayPal 捐款

PayPal 是一個跨國線上付款機制的公司，CBETA 引用其服務，提供網友能在線上使用信用卡或 PayPal 帳戶贊助 CBETA 。

PayPal is an online system of a global payment solution. CBETA uses its service to provide the uses to donate by using the credit cards or PayPal account to support the CBETA project.

相關收據開立事宜，由於付款幣別為美元，我們除了會依您所贊助之美元金額開立收據外，另我們會依捐款當日公告匯率開立台幣收據，此收據為國內正式合法報稅憑證。

Since the donation made is in US currency, hence all the receipts will be issued in the US dollars consequently. However for the domestic donators, a Chinese official receipt will also be made according to the foreign exchange rate for the purpose of tax deduction.

[線上信用卡 / PayPal 贊助](#)

支票捐款

支票抬頭請填寫「財團法人佛教電子佛典基金會」。

For donations by check, please write the check to
"Comprehensive Buddhist Electronic Text Archive
Foundation".
